

제76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 제 : 미디어 리터러시와 실천신학의 과제

일 시 : 2020년 6월 20일(토) 오전10시

장 소 : 온라인(학회홈페이지 www.praxis.or.kr/ Youtube 링크)



학제간 대화로 교회를 섬기는

한국실천신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

목 차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정/ 5

알리는 말씀/ 7

| | | | | |
|-------|--------------|---------|---------|---------|
| 제1발표 | 유재원 9 | 나인선 27 | 오석진 31 | |
| 제2발표 | 박도훈 37 | 정재영 59 | 신승범 63 | |
| 제3발표 | 윤성민 67 | 김용성 87 | 김현애 91 | |
| 제4발표 | 남기정 95 | 이주형 119 | 권혁일 123 | 최태관 127 |
| 제5발표 | 최병례, 여한구 131 | | 박은정 163 | 김해영 169 |
| 제6발표 | 이종민 173 | 이은철 193 | 남선우 197 | |
| 제7발표 | 이승진 201 | 김병석 231 | 조지훈 237 | |
| 제8발표 | 김보연 245 | 송준용 281 | 신영호 285 | |
| 제9발표 | 조성호 289 | 조성돈 311 | 윤성민 315 | |
| 제10발표 | 김윤기 319 | 김한호 343 | 김동진 347 | |
| 제11발표 | 나현기 353 | 백상훈 373 | 박세훈 377 | 김교민 381 |
| 제12발표 | 박관희 385 | 최진봉 405 | 김형락 409 | |
| 제13발표 | 유미녀, 박경화 413 | | 이세형 441 | 노원석 443 |

한국실천신학회 각종사업일정 / 447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신학과 실천」 연혁보고 / 450

한국실천신학회 역대 총회연보 / 454

한국실천신학회 학술대회 목록 / 463

한국실천신학회 회칙 / 519

편집위원회 규정 / 522 발행규정 / 523 투고규정 / 523

한국실천신학회 제25대 조직표 / 530

학회로고의 의미 / 534

발행색인 / 535

제76회 정기학술대회

1. 대회 개최일 및 장소

대회개최일: 2020년 6월 20일(토) 오전10시

대회개최장소: 온라인(학회홈페이지 www.praxis.or.kr/ Youtube 링크)

★ 논찬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회 주제명

“미디어 리터러시와 실천신학의 과제”

3. 일정별 세부 계획

| 발표자 및 논문 제목 |
|---|
| 발표1: 유재원(장신대) “현대 예배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활용방안 연구” 논찬: 나인선(목원대), 오석진(감신대) |
| 발표2: 박도훈(호서대)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에 대한 미래교회 대응방안 연구” 논찬: 정재영(실천신대), 신승범(서울신대) |
| 발표3: 윤성민(강남대)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미디어 영상예배를 위한 실천신학적 방법론- 헬무트 쉬비어(Helmut Schwier) 중심으로-” 논찬: 김용성(한신대), 김현애(장신대) |
| 발표4: 남기정(감신대) “미디어 시대의 영성 생활: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과 칸트 이후 인식론을 중심으로” 논찬: 이주형(연세의료원), 권혁일(영락교회), 최태관(감신대) |
| 발표5: 최병래(국제신대), 여한구(국제신대) “뉴스의 담화분석: JTBC “앵커브리핑”을 중 심으로” 논찬: 박은정(웨신대), 김해영(KC대) |

| |
|---|
| <p>발표6: 이종민(총신대) “디지털시대 학습자 이해를 근거한 디지털 목회 리더십에 대한 성찰” 논찬: 이은철(백석대), 남선우(열림교회)</p> |
| <p>발표7: 이승진(합신대)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논찬: 김병석(숭실대), 조지훈(한세대)</p> |
| <p>발표8: 김보연(웨신대)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중년기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 현상학적 연구” 논찬: 송준용(국제신대), 신영호(한국마인드온상담연구소)</p> |
| <p>발표9: 조성호(서울신대) “『디다케』와 『사도 전승』을 통한 영성과 기독교 리더십의 상호관계 연구” 논찬: 조성돈(실천신대), 윤성민(강남대)</p> |
| <p>발표10: 김윤기(호서대) “17-18세기 유럽 경건주의 시대와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실천 방안 연구” 논찬: 김한호(서울장신), 김동진(루터대)</p> |
| <p>발표11: 나현기(한신대) 요안네스 카시아누스 (Ioannes Cassianus, ca. 360-ca. 435)의 ‘철저한 가난’ (Radical Poverty)이해와 독특성 논찬: 백상훈(한일장신), 박세훈(장신대), 김교민(한신대)</p> |
| <p>발표12: 박관희(서울신대) “공예배에서 회중의 인지구조 연구” 논찬: 최진봉(장신대), 김형락(서울신대)</p> |
| <p>발표13: 유미녀(국제신대), 박경화(국제신대) “중년여성의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집단예술치료를 중심으로 -” 논찬: 이세형(협성대), 노원석(개신대)</p> |
| <p>연구윤리 교육: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 실천」 편집위원장 한재동</p> |

■ 알리는 말씀 ■

1.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본 실천신학회가 지혜롭게 잘 개최되고, 학문적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 귀한 연구를 통해 논문을 발표해 주시고, 논찬해주신 발표자, 논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논문발표 녹화를 위한 장소를 제공해주신 본 학회 회원 주희현 박사님과 아트스페이스 노 교회, 그리고 호서대 영상팀에 감사드립니다.
4. 온라인 영상으로 개최된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5. 10월 30일-31일 개최 예정인 78회 정기학술대회(한국기독교학회와 공동학회) 발표자를 한 분 모집합니다. 아래 학회일정 안내에서 주제를 참고하셔서 6월 30일까지 총무 구병욱에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 한국실천신학회 연회비는 3만원입니다. 국민은행(172601-04-154610 한국실천신학회)으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국실천신학회에서 발행되는 『신학과 실천』에 기고하시기 위해서는 꼭 연회비를 납부하시고, 학회에도 매년 참석하셔야 합니다.
7. 학회 공지는 이메일과 문자로 드립니다. 둘 중 하나만 공지를 받으셨다면 서기 박진경(jinpark2008@gmail.com)에게 누락되거나 변경된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다음 학회 예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77회 정기학술대회

- ★ 일시: 9월19일(토) 10:00~
- ★ 주제: 거짓, 혐오, 왜곡에 대한 실천신학적 대안

■ 78회 정기학술대회: 공동학회

- ★ 일시: 10월30일(금) - 10월 31(토) 예정
- ★ 주제: “한국전쟁 70주년 상처와 절망에서 희망을 말하다”
- * 78회는 한국기독교학회와 공동학회로 개최됩니다.

■ 79회 정기학술대회

- ★ 일시: 2021년 2월 5일 - 2월 6일(1박2일)
- ★ 주제: 사회적 재앙과 위기상황에서의 교회와 실천신학의 과제

제 1 발표

현대 예배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활용방안 연구

유 재 원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 예배설교학)

I. 들어가는 말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SNS를 통해 무책임하게 전파되는 소위 가짜 뉴스(fake news)로 인해 자살까지 하는 역기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였다. 그러던 중에 2020년 1월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까지 휩쓸어 버린 COVID-19라는 광풍을 만나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라는 전염성 질병에 대한 사람들의 팬데믹을 악용한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일부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의 예방 차원으로 은행권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켰다가 불이 나서 훼손시킨 사건¹⁾, 마스크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리면 소독된다, 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을 맞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독된다는 것 등이다. 특히 확진자가 47명이나 나온 성남 은혜의강교회에서는 종교집회 모임 자체를 요청했던 3월 1일과 8일의 CCTV 확인결과, 감염병 대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참석한 성도들의 입에 소독도 하지 않은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린 것이 확인되어서 많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유언비어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미디어리터러시교사협

1)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가 은행권에 부착된 위조방지장치(홀로그램, 숨은은선 등)에 영향을 미쳐 발화된 것이다. 포항의 이모씨는 5만원권 36장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대부분 훼손되어 2장은 전액, 34장은 반액으로 교환받았고, 부산의 박모씨는 1만원권 39장을 똑같이 그랬다가 27장은 전액, 12장은 반액으로 교환받은 사례를 사진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공문으로 회람했음.

회(KATOM)에서는 “코로나19시기를 이겨내는 미디어 리터러시 백신 10가지²⁾”를 만들기까지 한 상태이다.

다음으로는 ‘예배 중단’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이후로 앓고 있는 후유증이 두 번째 이유이다.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조심스럽게 원래의 예배를 드리려는 교회가 늘어났지만 문제는 생각만큼 참석하는 교인의 숫자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을 경험한 교인들 탓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아직도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부족한 연구의 시작점으로 삼았다.

논문의 구성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한 이론 소개를 먼저 하고서 현대 예배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관계를 살피면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활용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어떻게 미디어 리터러시의 통합적 기능으로 계속 다채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미래의 예배를 준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결론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의 ‘현대 예배’라는 용어는 현재 혼란한 상황 가운데 다양한 형태로 드러지고 있는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까지 포함한다. 본 논문의 부족함은 오히려 논자의 몫이며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 수정해 나가려고 한다.

II. 미디어 리터러시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1964년에 “The Medium is the Message!”라는 유명한 문구를 남긴 미국의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을 언급하고 본론으로 넘어가야 한다. 맥루한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개인의 삶과 사회, 미래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각각의 매체는 고유한 기술적 문법을 가지고 있으며 독특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창

2) 내용은 ①뉴스, 유튜브 등 미디어에서 다루는 정보의 출처가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뉴스, 유튜브 등 미디어 생산자의 특정한 관점이 정보를 왜곡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③의학 정보는 전문가와 공신력있는 발언을 토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④사진, 영상, 그래픽 자료들이 정확한 내용을 담았는지, 편견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⑤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을 부추키는 혐오 표현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⑥SNS를 통해 전파되는 부정확한 소문과 거짓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⑦미디어를 보는 시간을 정해놓고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⑧관련 뉴스와 영상을 지나치게 반복하여 보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⑨전염병, 공중보건, 심리적 불안 등과 관련된 영화 및 책, 웹툰, 다큐멘터리 감상을 통해 가족들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⑩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정보의 도움을 받을 곳을 구체적으로 알아두고 만일의 경우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확보합니다

출하는 편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 보도에 있어서도 매체 고유의 속성에 따라 각기 다른 인상과 메시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³⁾ 이것은 도구로만 인식해왔던 미디어가 다양한 문화적 현상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⁴⁾ 그 이후로 미디어에 대한 여러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점점 그 영역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미디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복잡 다단하고 현재에도 변신중인 미디어를 성별(聖別)하여 예배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활용과 비판적 성찰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선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1. 정의

1) 인터넷 사전의 정의⁵⁾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하여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는 사람은 인쇄매체와 방송매체를 해석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생산할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히 어떠한 기술의 습득이 아니며, 미디어 산업이나 일반적인 미디어 내용의 패턴, 그리고 매체 효과와 관련된 지식구조의 습득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인지적 차원 이상의 것으로 미학적·감정적·도덕적 계발까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는 의사소통자는 개인적·공적인 삶에서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청중과 미디어 내용과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미디어 내용이 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미디어의 상업적 본질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특정한 청중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미디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읽기, 쓰기, 말하기, 컴퓨터 사용, 정보의 시각적 제시의 해독, 심지어는 음악적 제시의 해독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다.”

2) 학문적 정의

3)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박정규 역, 『미디어의 이해-인간의 확장』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997); 황치성,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 (과주: 교육과학사, 2018), 103에서 재인용. 마셜 맥루한의 미디어론은 해롤드 이니스(Harold Innis), 닐 포스트먼(Neil Postman) 등에 의해 계승되어 미디어 생태론으로 발전해 나갔다.

4) 비유하자면 소모품이었던 미디어가 서서히 단역에서 조연으로, 조연에서 주연까지 되었고, 다시 총괄감독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격이다.

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9284&cid=47319&categoryId=47319> (2020.04.16. 검색)[네이버 지식백과] 미디어 리터러시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어 용어사전, 2006.11.5., 구인환)

리터러시의 어원은 학식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라틴어 *litteratus*에서 유래했고, 초기 중세 시대에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종교개혁 이후에는 자신의 모국어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영어권에서 리터러시가 등장한 것은 1880년대 초반, 글을 읽는 능력이나 지속적으로 글을 읽어 온 경험의 의미로 사용되었다.⁶⁾

전경란에 의하면, 리터러시란 문식성 혹은 문해력으로 번역되고, 그 사전적 개념은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그 시대에 통용되는 지배적인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해독하고 부호화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개념은 고정적이 아니라 기술의 발달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한다고 주장한다.⁷⁾

2. 한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전국적으로 인터넷이 서비스되었던 1995년부터 한국의 미디어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 부각되었던 독립 인터넷 언론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떨치게 되었고, 다음 카페와 네이버 지식인으로 정보를, 싸이월드를 통해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사회가 되었다. 2010년대부터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급증했고, 유튜브가 핵심 미디어로 자리잡았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길 찾기, 쇼핑, 음식 주문, 대화, 송금까지도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살고 있다.⁸⁾

2020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를 예로 들어보면, 멀티 페르소나, 라스트핏 이코노미, 페어 플레이어, 스트리밍 라이프, 초개인화 기술, 팬슈머, 특화생존, 오팔세대, 편리미엄, 업글인간이다.⁹⁾ 그리고 키워드 하나씩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모두 미디어와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멀티 페르소나(디지털 허언증), 라스트핏 이코노미(배송, 이동, 구매 여정), 페어 플레이어(다양한 매체를 통한 소비), 스트리밍 라이프, 초개인화 기술, 팬슈머(크라우드 펀딩, 서포터 활동, 인플루언서에 대한 지지와 비판), 특화생존, 오팔세대(인터넷과 신기술에 능한 50-60대), 편리미엄(앱 경제), 업글인간(정보와 실행 방법). 이것만 보아도 현재 우리가 얼마나 퍼부어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미디어 홍수 속에 잠긴 채 살아가는 교인들을 위해서라도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며,

6) 전경란,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vi-vii.

7) *Ibid.*, v.

8) 김경희, 이광재, 이숙정, “모바일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 요소와 세대 간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 6. 참고로, ‘열린 예배’라는 명칭으로 미디어 사용을 본격적으로 실행한 시기도

9) 김난도 외 8인, 『트렌드 코리아 2020』 (서울: 미래의창, 2019), 18-19.

삶으로 드러지는 예배의 현장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인지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나친 풍족함은 항상 다른 곳의 결핍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3. 미디어 리터러시 이론의 발전과 확장

전경란은 자신의 책에서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과 관련된 다양한 차원의 리터러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열 가지로 분류하여 소개한다.

첫째, 비주얼(visual) 리터러시이다.¹⁰⁾ 문자와 마찬가지로 이미지와 영상이 읽힐 수 있으며, 그 의미가 소통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기초한다. 이 개념은 이미지와 영상을 미적 대상을 넘어 소통의 중심으로 바라본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와 문화, 세상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통찰이 가능해진다.

둘째, 멀티(multi) 리터러시이다.¹¹⁾ 이미지와 영상, 청각 정보 등 다양한 양식을 통한 복합적인 의미 생성 방식에 주목하며, 거기에 함께 작용하는 소통 채널과 미디어의 복합성,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 사회적 담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미 작용에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셋째, 비판적(critical) 리터러시이다.¹²⁾ 미디어가 세상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관점과 이해관계에 따라 구성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의식과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비판적 안목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사회적인 힘을 지닌 시민을 길러 내려하는 것이다.

넷째, 문화적(cultural) 리터러시이다.¹³⁾ 미디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미디어 자체가 미디어의 전달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가 당대의 사회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며 그것을 매개로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리고 그 사회문화적 효과는 무엇 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섯째, 인터넷(internet) 리터러시이다.¹⁴⁾ 상호작용성, 네트워크성의 특징을 지닌 인터넷은 미디어 리터러시 담론에서 그 어떤 미디어보다 미디어 자체에 대한 관심을 넓혔다. 인터넷 리터러시는 정보기술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능력과 함께 비판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타인과 연대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여섯째, 정보(information) 리터러시이다.¹⁵⁾ 지식 기반 사회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10) 전경란,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해』, 1-7.

11) *Ibid.*, 9-18.

12) *Ibid.*, 19-28.

13) *Ibid.*, 29-35.

14) *Ibid.*, 37-45.

힘입어 빠르게 생성, 유통, 소비되는 정보를 활용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이다.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의 필요성 인식, 유용한 정보원 탐색, 정보에 접근, 비판적 판단으로 필요한 정보를 이용해 문제 해결을 수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능력을 의미한다.

일곱째,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리터러시이다.¹⁶⁾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의 관계망 구축을 넘어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디어로 부상했다.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는 인터넷 리터러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만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인간과 인간의 교류 및 소통,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참여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다.

여덟째, 소프트웨어(software) 리터러시이다.¹⁷⁾ 소프트웨어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지식을 활용하며, 인간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 컴퓨팅적 사고를 강조한다.

아홉째,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리터러시이다.¹⁸⁾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접하는 ICT를 비판적이고, 창의적이며, 분별력을 지니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지식, 이해를 종합하는 개념이다.

열째, 트랜스(trans) 리터러시이다.¹⁹⁾ 신호 보내기와 구술성에서 문자, 인쇄,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을 비롯한 스마트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플랫폼, 도구, 미디어 등을 넘나들며 읽고 쓰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4.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예비신학적 성찰

예일신학대학원의 예배학 교수 테레사 베르거(Teresa Berger)가 2018년에 쓴 *@Worship: Liturgical Practice in Digital World*²⁰⁾이 올해 번역되어 나온 것은 논자가 서론에서 언급한 바 코로나19로 인해 쫓기듯 드릴 수 밖에 없었던 온라인 예배 시대를 예견이라도 한 듯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카톨릭 신자이자 신학자인 베르거는 이 책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예배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실행에 대한 예배적 탐험을 넓고도 깊게 시도하고 있다.

특히 5장은 당면한 현실과 맞물려 가장 공감을 가지고 상세하게 읽어나갔던 부분이다. “온라인 예배에 있어서 가장 도전적인 문제는 디지털로 매개되는 성례전 실행의 문제이다”²⁰⁾로 5장을 시작하면서 온라인 성례전에 관한 스펙트럼의 양극단을 소개

15) *Ibid.*, 47-56.

16) *Ibid.*, 57-67.

17) *Ibid.*, 69-76.

18) *Ibid.*, 77-85.

19) 전경란,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해』, 87-94.

한다. 그 한쪽 끝은 디지털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이러한 문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적절한 질문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미리 필연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것을 뜻한다. 그 반대쪽 끝은 인터넷 세례식, 사이버 성찬식, 디지털로 매개되는 고해성사, 그리고 사이버 공간으로 이주하는 여러 단계에서 실행되는 여러 다른 성례전 실행들을 안일하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런 다음 본인이 직접 경험했거나 참여했던 내용-디지털로 매개되는 성찬 예배에서 미사 앱, 웹 미사, 온라인 성체조배, 온라인 성찬식, 신학적 성찰과 실험에 대해 또한 디지털로 매개되는 세례식-들을 실감나게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5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한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성례전을 거행하는 디지털 시대의 세부 사항들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지속적인 신학적 성찰뿐이다”²¹⁾. 이것은 비단 성례전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지는 예배에서도 당연히 지향하고 실천해야 할 부분이다. 지속적인 신학적 성찰 그리고 변화에 대한 수용성과 실행을 통하여 비록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올바른 성장이 이루어지리라 전망하기 때문이다.

결론인 제6장 디지털 현재와 예배의 미래에서 베르거는 세 개의 과제를 먼저 말한다. 첫째, 디지털로 매개되는 예배 실행들의 핵심 특징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내는 것 둘째, 오늘 날의 디지털 시대에서 예배학 연구의 작업을 위해 이 새로운 예배 실행들의 세계가 제시하는 도전들을 강조하는 것 셋째, 화상(pixels) 사이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제공하는 것이다.²²⁾ 정리하자면, 테레사는 학자로서만이 아니라 예배자로서도 먼저 자신을 둘러싼 미디어에 대해 성실하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체험도 하고 연구도 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리터러시의 논의를 디지털 리터러시에까지 접목시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비판적 성찰로 바라본 미디어 리터러시와 현대 예배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관점의 논의와 그 내용은 지금도 다양하게 변화하며 나오고 있지만, 주로 긍정적 입장과 비판적 입장 즉 혜택과 위험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²³⁾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에 상응하는 현대 예배의 관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 Teresa Berger, *@Worship: Liturgical Practices in Digital Worlds*, 안선희 역,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서울: CLC, 2020), 196.

21) *Ibid.*, 253.

22) *Ibid.*, 254-255.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255-302를 참고하라.

23) David Buckingham, *The Media Education Manifesto*, 조연하 외8인 공역, 『미디어 교육 선언』 (서울: 학이시습, 2019),

1. 긍정적 입장: 혜택의 관점 그리고 하이테크(High Tech) 예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가져온 이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강조하는 것이다. 버킹엄은 이럴 경우 미디어 리터러시가 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이용에 필요한 도구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의 문제가 돼 버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하거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는 관점하에 1990년대부터 신문 활용 교육(Newspapers in Education, NIE)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심에 둔 것인데 실제로는 미디어에 대한 교육보다는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평가한다.²⁴⁾

현대 예배 관점에서는 칼빈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교수 켄틴 쉘츠(Quentin J. Schultze)가 자신의 책 *High-Tech Worship?*에서 ‘하이테크 예배 기획자들에게 필요한 자질’을 이렇게 말한바 있다.²⁵⁾ 첫째, 성경 연구, 영적 멘토, 교회사에 대한 이해, 예전적 지식 등에서 얻은 지혜 둘째, 겸손과, 기계나 기술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에서 생기는 중용 셋째, 인간이 만든 단기간의 손쉬운 해결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 기초한 인내 넷째, 기쁨의 삶과 충만한 은혜에 대한 열망, 교제의 기쁨에서 드러나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다섯째, 미학적인 부분과 신학적인 부분의 기획, 설계, 평가 등에서 드러나는 탁월함 여섯째, 겸손, 다른 사람들의 의견 청취, 자원 봉사자들과 스태프들에 대한 격려, 정의감에서 드러나는 협동 정신이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기술에 대한 의욕이 교육 리더십의 권위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분명 예배 기획은 기술적인 전문 지식을 요구한다. 하지만 예배 기획은 궁극적으로 숙련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큰 대의명분을 위해 개인의 은사와 재능을 신실하게 사용하는 것이다.”²⁶⁾

2. 부정적 입장: 위기의 관점 그리고 로우 테크(Low Tech) 예배

이러한 관점은 미디어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폭력, 성, 비만, 약물이나 과소비 등 사회적 문제가

24) 김경희, 김광재, 이숙정. “모바일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 요소와 세대 간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 『한국방송학보』 33(4). 2019년 7월, 6.

25) Quentin J. Schultze, *High-Tech Worship?* 박성창 역, 『하이테크 예배』 (서울: IVP, 2006), 130.

26) *Ibid.*, 131.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그것을 해결하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논의들이 이에 해당된다. 단적인 예로 계속 양산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거론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디어를 위협한 대상으로 먼저 규정하고 미디어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기 힘들게 한다.²⁷⁾

이에 대한 현대 예배적 관점은 앞서 언급한 쉐튼 숄츠가 *High-Tech Worship?*에서 밝힌 ‘미디어 기술 사용을 주장하는 8가지 근본 이유’가 해당된다.²⁸⁾ 첫째, 젊은이들이 예배에 계속 흥미를 가지기를 원한다 둘째, 회중 찬양의 질을 끌어올려야 할 때이다 셋째, 문화에 발맞추어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인들을 다른 교회에 빼앗길 것이다 넷째, 좀더 강력한 예배 경험을 창출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방문객들과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가 일류 교회라는 것을 알려 주기 원한다 여섯째,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양적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일곱째, 기술을 이용해 예배 공간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새로운 기술들은 청각 및 시각 장애가 있는 교인들을 섬기는 수단을 제공한다. 하지만, 숄츠는 각 항목마다 그 이유가 절대적일 수 없음을 반박하면서 기술 지배적인 예배 즉 미디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위험함을 경고한다. 실제 그 이면에는 목회자 스스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숄츠는 마지막 장에서 기술을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될 것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한 여섯 가지 방법을 이렇게 제시한다.²⁹⁾ 첫째, 예전에 대해 배우라 둘째, 하이테크 예배뿐 아니라 로우테크 예배로부터도 배우라 셋째,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천천히 진행하라 넷째, 공동체의 질을 고려하라 다섯째, 옛 것을 새 것에, 새 것을 옛 것에 적용하라 여섯째, 진실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추구하라고 하면서 내린 전체 결론은 이러하다.

우리는 예배에서 새로운 기술의 가치를 과대 평가해서도 안되지만 그 기술의 잠재력을 과소 평가해서도 안된다. 기술적으로, 예술적으로, 예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예전을 기획하고 실행할 때 모두 함께 연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상상력과 호기심, 능력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예배에 드려야 한다. 그 때 비로소 예배는 영화로운 하이테크 제사가 될 수 있다.³⁰⁾

27) 김경희, 김광재, 이숙정, “모바일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 요소와 세대 간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 6-7.

28) Quentin J. Schultze, 『하이테크 예배』, 71-82.

29) *Ibid.*, 134-139.

30) *Ibid.*, 141.

IV. 비판적 성찰을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활용 방안

사실상 미디어가 현대 생활의 중심이라는 의견에 반박할 이유는 없으며, 미디어 이용자가 더 자율적이고 유능하고 비판적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나의 임시방편으로 여기거나 국가에서 개인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또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공적 토론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을 수반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한정적으로 다뤄질 뿐이기 때문이다.³¹⁾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미디어 리터러시가 단순히 미디어를 이용한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실제로 혜택과 위협의 접근은 종종 피상적이고 분열되고 도구적인 ‘임시방편’ 해결책을 제시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일관성을 가지고 도전적인 태도로 임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³²⁾ 이러한 맥락에서 논자는 미디어 리터러시 활용과 적용에 앞서 반드시 비판적 성찰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비판적 성찰 입장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주창하여 전 세계적인 이슈화를 촉발시킨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일명 다보스포럼)의 창립자이자 집행위원장인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는 미래를 살아가는 필수 직업역량으로 ‘비판적 사고’와 ‘뉴미디어리터러시’를 강조한 바 있다.³³⁾ 또한, 경제 협력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제 기관인 P21(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가 수년 간에 걸쳐 연구를 한 다음 정리해서 발표한 소위 4Cs 즉, Collaboration-Communication-**Critical thinking**-Creativity 에도 비판적 사고가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⁴⁾ 여기에서의 ‘비판적’이라함은 대립이나 상대방을 논리적 공격으로 몰고가기 위해 공격하는 뜻이 아니라 논의의 발전적인 전개를 위해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할 올바른 성찰임을 내포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 성찰은 일반 학문 영역에서 먼저 제기되고 발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학함에

31) David Buckingham, *The Media Education Manifesto*, 조연하 외8인 공역, 『미디어 교육 선언』 (서울: 학이시습, 2019), 2

32) David Buckingham, *Ibid.*, 42-43.

33) 황치성,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 (파주: 교육과학사, 2018), 5에서 재인용. 클라우스의 *Shaping the Future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김민주, 이역 공역, 『클라우스 슈바프의 제4차 산업혁명 더 넥스트(THE NEXT)-제4차 산업혁명 시대 선언 후 2년, 지금 당신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가?』 (서울: 새로운 현재, 2018). 2016년 다보스 포럼의 공식 책인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우리나라를 비롯 28개국에서 출간되어 100만부가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였다.

34) https://en.wikipedia.org/wiki/21st_century_skills#cite_note-Trilling-11 (2020.4.11.검색)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마음에 새기는 것, 경청하는 것, 예배 전 회개와 결단을 위해 자신을 성찰하는 것 등이 모두 광의적인 비판적 성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1.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이론의 발전

1) 영국의 미디어 교육자 렌 마스터먼(Len Masterman)의 기본 원칙³⁵⁾

실제를 특정한 방식으로 묘사하는 ‘재현(representation)’의 원리에서 출발한다. 단순한 중재 매개체로 실제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재구성이라는 뜻이며, 미디어 텍스트 자체가 해독이 필요한 상징적 기호체계라는 의미이다. 그는 자신의 책 *Teaching Media*에서 말하기를 모든 미디어는 상징적 기호체계에 의해 작동하며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발전시켜 나간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먼은 미디어교육은 미디어의 기술적 특성에 상관없이 미디어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수용과 미디어를 통한 능동적인 생산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배리 덩컨(Barry Duncan)과 연구 동료들의 8개 기본 원리³⁶⁾

- ① 모든 미디어는 구성물이다
- ② 미디어는 실재를 구성한다
- ③ 오디언스는 미디어의 의미를 협상한다
- ④ 미디어는 상업적 속성을 가진다
- ⑤ 미디어는 이데올로기 및 가치가 내재된 메시지들을 포함한다.
- ⑥ 미디어는 사회적, 정치적 속성을 가진다
- ⑦ 형태와 내용은 미디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⑧ 각각의 미디어는 독특한 심미적 형식을 가진다

3) 엘리자베스 토먼(Elizabeth Thoman)의 다섯 가지 핵심 개념³⁷⁾

토먼은 마스터먼과 덩컨이 제시한 기본 원칙들을 바탕으로 질문의 원리를 포함한 아래의 다섯 가지 핵심 개념들을 완성시켰다.

35) 황치성,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 103-104에서 재인용.

36) 황치성,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 103-105에서 재인용. 배리 덩컨은 캐나다 미디어리터러시협회(Association for Media Literacy; AMS)의 창립자임. 이 원리를 통해 캐나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확산되는 계기가 있었고, 1989년 온타리오주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해서 세계 최초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주(州)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게 된다.

37) 황치성, *Ibid.*, 105-106에서 재인용. 엘리자베스 토먼은 1989년 미국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센터를 창립했다.

- ① 모든 미디어 메시지들은 ‘구성’된다
- ② 미디어 메시지들은 매체 자체의 규칙을 가진 창의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구성된다
- ③ 동일한 메시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다르게 경험한다
- ④ 미디어는 내재된 가치와 관점을 가진다
- ⑤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이익 추구 동기에 의해 작동한다

2. 현대 예배에의 활용 방안: 미래를 위한 과거와 현대의 조화

앞서 살펴본 비판적 성찰 이론의 역사를 역추적해보면 과거에 대한 성찰 없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방법이나 도구에 불과했던 미디어는 재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하면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갔음을 보게 되는데 이는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더욱 발전한 기술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문화적 변화를 제일 빠르게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다. 비판적 성찰과 함께 따라오는 융합적 네트워크성을 염두에 두어서 현대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영역과 구체적인 방안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 보도록 하자.

첫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성경적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다.

초대 교회를 돌이켜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엄격하고 오랜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것은 또한 일방적으로 피교육자에게만 요구된 것이 아니라 집례자를 비롯하여 신앙적 후견인과 증인인 교인들에게까지 당연하게 함께 받는 공동체성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떤 화려한 예배당도 없었고, 형식도 없었지만 그들은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당대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계속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바르게 익혀 나갈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공격해오는 이단의 교리와 박해에서도 그 뿌리를 단단히 내리며 목숨을 내놓을 각오까지 하면서 참된 예배를 계속 드렸다.

둘째, 현대 예배의 현장에서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한시라도 빨리 적용해야 할 부서는 청소년부와 대학청년부라고 생각한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회 차원에서 먼저 성경에 근거한 비판적 성찰의 관점에서 미디어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지 않고 방치한다면 영적인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실제 어떤 문제가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면 위기가 아니라 상태가 된다.³⁸⁾ 다음 세대들과의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다양한 SNS 종류를 알아가면서 어떻게 서서히 성별(聖別)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38) Leonard I. Sweet,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55.

나누고 고민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주의할 점은 선부른 미디어의 사용은 오히려 실(失)이 많다. 현재는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 혹은 하이브리드 스타일로 드러지고 있기는 하지만, 소통의 창구는 더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이미 디지털 원주민이기 때문에 이민자인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되, 세상의 리터러시에 완전히 빠지기 전에 설교를 포함한 참된 예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리터러시 안목을 분명하게 길러주어야 한다.

셋째, 주일예배보다는 먼저 장기적으로 절기 예배와 성찬식에 먼저 적용해 가면서 천천히 활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절기 예배는 확실한 주제와 날짜가 정해져 있고 공간의 환경도 절기에 맞춰 준비할 수 있으며, 교회력 색의 활용부터 시작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며 준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찬식에서 집례자가 빵을 높이 들고 자를 때, 소리나게 포도주를 따르고 그 잔을 들고 기도하고 분명 분간하는 순서를 생각해보면 분명한 네 가지 동작이 나온다. 빵을 들어 취하시고, 축사하신 다음, 빵을 찢어 먹고,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TBBG(Take-Bless-Break-Give) 자체가 훌륭한 신앙의 리터러시이며 비판적 성찰 이론의 항목과도 부합되는 뜻밖의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세례 입교식은 당일에 행해지는 예식에서만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 부분을 고려하여 초대 교회의 세례와 입교식을 사전 교육 시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러한 사전 교육을 시작으로, 마치 연례 행사처럼 의무적으로 치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을 통해 세례와 입교 대상자들에게 보내는 축하와 환영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각각의 예식 자체가 바로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적용해 나가기 바란다.

다섯째, 통합적인 관점에서는 신학교 교육과정에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 과목이 개설되고 교육과 훈련을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로회신학대학원의 경우 ‘창의적 예배와 설교’가 있어서 한 학기동안 미디어에 대한 재해석 능력과 창의성을 체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정리하자면, 이제는 빼앗겼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주도권을 찾아서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아직도 서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현재의 예배 현장에서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이면서도 성실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천천히 방향을 잡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꼭 침단을 달리는 기술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그 가능성을 발견해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다음에 소개하는 미제레오르의 예를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개 교회별 예배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3. 미제레오르(MISEREOR)의 예³⁹⁾

미제레오르는 1958년 설립된 독일의 자선 기부단체로, 인종·종교·국적에 상관 없이 전 세계의 빈곤과 가난을 퇴치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직관적이면서도 창의적이다 못해 혁신적인 체험형 기부 광고로도 유명하다. 인터랙티브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데 먼저 ‘The Power of Coin’이 있다. 기부를 시각화하고 체험까지 할 수 있게 만든 광고인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게임판 혹은 광고판같은 것을 설치하고서 2유로 동전을 넣으면 그 동전에 안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에 합쳐져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처음에 병원차의 바퀴가 되고, 바퀴에서 분리된 동전이 아래로 굴러가면 물이 솟아 나오고, 학교가 열리고, 집에 전기도 들어오고, 노는 아이들의 공도 되고, 그 어린이가 대학까지 가게 하고, 음악회까지 열리게 한다. 마지막으로 사진기의 빨간 램프가 깜빡하면 함께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되는 것을 재미있게 체험중인 기부자의 얼굴을 찍어 화면에 나오게 한다. 그것은 다시 미리 연결시켜놓은 버튼을 선택해서 누르면 바로 페이스북에 올릴 수도 있고 QR 코드를 찍어서 올릴 수도 있게 해놓았다. 어떻게 사용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의 순 기능을 아날로그적 감성과 결부시킨 좋은 예라 하겠다.

새로운 기부 방법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신용카드에 주목해서 만든 ‘The Social Swipe’ 캠페인도 마찬가지이다.⁴⁰⁾ ‘밥을 주세요(Feed them!)’, ‘자유를 주세요(Free Them!)’라는 메시지와 함께 세워진 곳에는 빵 한 덩어리와 손을 묶은 밧줄이 각각 보인다. 설치할 가운데 신용카드를 넣을 수 있는 홈이 파여 있는데, 카드가 통과하는 순간 빵이 잘리면서 2유로가 페루의 가난한 가족에서 꼭 필요한 양식을 제공했다는 메시지가 뜬다. 다른 한 곳도 같은 방법으로 카드를 홈에 넣어 결제하면 손목을 묶은 밧줄이 잘리면서 감옥에 갇힌 필리핀 아이들이 자유로워졌다는 메시지와 함께 기부가 됐음을 알려준다. 이 캠페인은 여행을 떠나기 전 현지의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온정을 베풀라는 뜻으로 여행으로 들뜬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기부를 유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nfoswadcom&logNo=220390437195> (2020.04.15. 검색)

40) 실제 이 캠페인은 암스테르담과 함부르크 국제공항에 설치한지 한 달 만에 3천 유로의 기부금을 모았고 전년 대비 23%가 넘는 기부 건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또한, 2014년 세계 3대 광고제이자 광고계의 오스카상으로 유명한 ‘클리오 광고제’에서 혁신 미디어 부문, 참여 부문, 옥외광고 부문, 다이렉트 부문까지 총 4개 부문을 휩쓸었다.

| | |
|--------------------------|---|
| | |
| <p>The Power of Coin</p> | <p>The Social Swipe 위: Feed them/ 아래: Free them</p> |

현재 예배의 상황을 비판적 성찰을 통해 살펴보자. 어디에서 이와 같은 첨단 기술과 직관적인 감성을 융합시켜서 바른 성경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냉철하게 분석해 본 다음 실천 방안을 정해서 실행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다.

V. 결론: cross가 아닌 Cross를 지향하며

세계적으로 저명한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위트는 “미디어는 문화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이자 온도를 조절하는 온도조절기이다”라고 하면서,⁴¹⁾ “인터넷상에서의 정체성은 원래 불안정하며 ‘최신 트렌드가 등장하면 언제든지 바뀌는 일시적 열심을 갖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⁴²⁾ 굳이 그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41) Leonard I. Sweet, *From Tablet to Table*, 장택수 역,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서울: 예수전도단, 2015), 25.

전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 인터넷, SNS, 모바일 등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특히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교회도 어느새 주류로 등장한 온라인 예배를 비롯하여 다양한 뉴미디어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말았다. ‘예배’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의도는 천차만별로 달랐지만, 올해 초만큼 안팎으로 ‘예배’가 자주 입에 오르내리며 뜨겁게 논쟁과 논의의 주제가 되었던 적은 없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방법으로 당연하게 드러오다가 현재와 같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완벽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호되게 성장통을 앓고 있는 한국 교회, 어떠한 신학적 고민과 목회적 성찰 없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거의 강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렇다고 그 상황에 젖어 고여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또 다른 그 날을 기대하며, 가상공간이 아닌 실제 예배와 개인의 삶에서 학문적인 영역과 목회적인 영역을 통합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시작해 나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급하게 양극단에 서서 찬반으로 갈라져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대적 안목을 기르며 유연하게 준비해 나가는 열린 마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현재의 문화를 다 수용하라는 뜻은 아니다. 비록 기본 구조와 담는 내용은 시대의 문화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예배의 의미가 변질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복음주의 예배학자인 Robert E. Webber는 이미 1994년에 출판한 책 *Worship: Old and New*에서 초기 기독교가 국교회되고 중세 시대에 이르는 과정을 언급하면서, 예배 신학의 본질을 계속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릴 정도로까지 당대 문화 규범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⁴²⁾

이제는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단순히 한 가지 방법만을 고수하기는 힘든 시대인 것은 분명하다. 가장 기본적인 문자를 중심으로 하는 인쇄광고에 동영상도 결합되기도 하고, 초대 교회의 예배를 설명할 때 고대 그림을 옮겨와서 터치 스크린 기술에 결합시켜 시공간을 초월하여 참여를 통해 상호관계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이다. 현대 예배의 영역에 있어서 서로 결합되는 크로스(cross)의 일차적 의미에서 한 단계 나아가 모든 예배의 주인이자 근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Cross)를 근원으로 하는 미디어가 실행되어 나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온 몸을 도 구삼아 보여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성경적 상상력과 창의성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서 올바른 재해석 작업을 하고 나아가 세속에 찌들어버린 미디어의 성별(聖別)과 회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이다. 논자는 이것을 ‘크로스 미디어 시대’로 정의하면서 부족한 논의를 끝맺는 바이다.

42) Leonard I. Sweet,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58.

43) Robert E. Webber, *Worship: Old and New*(Grand Rapids: Zondervan, 1994), .

■ 참고문헌 ■

- 김광희, 김면수, 이선희, 정형근, 홍운빈.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서울: 휴머니스트, 2019.
- 김경희 외 7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과주: 한울아카데미, 2018.
- 김난도 외 8인. 『트렌드 코리아 2020』. 서울: 미래의창, 2019.
- 김성우, 엄기호.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서울: 따비, 2020.
- 전경란.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황치성.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 과주: 교육과학사, 2018.
- Berger, Teresa. *@Worship: Liturgical Practices in Digital Worlds*. 안선희 역.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서울: CLC, 2020.
- Glistler, Paul. *Digital Literacy*. 김정래 역. 『디지털 리터러시』. 서울: 해냄, 1999.
- Schultze, Quentin J. *High-Tech Worship?* 박성창 역. 『하이테크 예배』. 서울: IVP, 2006.
- Sweet, Leonard I. *From Tablet to Table*. 장택수 역.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서울: 예수전도단, 2015.
- Reynolds, John Mark & Roger Overto edit. *The New Media Frontier: Blogging, Vlogging, and Podcasting for Christ*. Wheaton: Crossway Books, 2008.
- Webber, Robert E. *Worship: Old and New*. Grand Rapids: Zondervan, 1994.
- 김경희, 김광재, 이숙정. “모바일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 요소와 세대 간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 『한국방송학보』 33(4). 2019년 7월, 5-36.
- 백은미. “성서 교육에서의 새로운 도전들-해방, 상상력, 그리고 멀티미디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4(1), 2002년 4월, 399-424.
- 오의경. “소셜미디어 시대의 정보리터러시에 관한 소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2013년 8월, 385-406.

논찬 1

“현대 예배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활용방안 연구”에 대한 논찬

나 인 선 박사

(목원대학교 / 예배학)

인간을 포함하는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몸짓, 소리, 그리고 도구를 통한 소통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일반적 동물로부터 구분되는 것은 소통이 보다 정밀하게 되고, 구체화 되었으며, 기록으로 남기고 문명의 도구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기술-과학의 진보는 소통의 방식의 다양성과 함께, 엄청난 양의 정보와 속도 그리고, 가상현실을 실현하는 것에 까지 이르렀다. 인간의 지능과 유사하며,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것을 개발하려는 4차 산업혁명은 인간과 인간의 소통을 넘어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소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전 세계의 코로나 19 재난은 소통의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비대면 방식의 소통으로 급격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동안 글로벌 기업에서나 실행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소통이 학교에서는 비대면 수업, 예배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일상생활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통한 현대 예배에서의 활용방안에 관한 본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정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론의 전개, 그리고 미래 예배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의 당위성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근대의 계몽주의는 모든 것에 관한 절대적 종교의 진리의 우월적 중세기의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종교-기술과학, 나아가 복음-문화의 관계에 관한 질문은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질 수 없는 교회신학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기독교가 비합리적이고 천박한 종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과학적 합리성에 함몰되어, 기독교가 단지

지나간 시대의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박물관의 전시물로 남은 종교연구의 대상으로 남겨질 것인가에 관해 신학은 진지하게 질문하고, 사회-경제-정치-문화의 인간의 변화에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모든 형태의 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행위를 분석하고, 평가, 창조하고 그리고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미디어 리터러시의 연구목적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오늘날 소통의 급격한 변화의 세계에서 소통의 방식에 관한 기술의 습득과 함께 이를 비평적으로 사유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있는 시민을 형성하고 교육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교회로 하여금 대중소통 미디어의 구조적 힘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하는 기술의 필요성과 함께 비평적 사유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연구방식을 제공한다. 미디어는 사회와 교회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나. 미디어 리터러시의 연구방법은 교회로 하여금 미디어를 통한 불가피한 조작과 편견의 위험성을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교회는 미디어에 관한 문맹자가 아니라, 미디어의 진정한 소통자가 되어 미디어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비평적 과정을 통해 대중매체의 역할을 이해하고 미디어의 편견과 왜곡의 위험성을 인지함으로 삼위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재를 구현하는 예배를 실행하는 의미 있는 연구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의 진전된 연구를 위해 아래에 코멘트를 함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미디어 문화의 변화에 개신교 예배는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 적용, 활용하고 있다. 한편, 동방교회, 가톨릭, 성공회의 예배에 있어서 미디어의 적용에 관하여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2. “3장 비판적 성찰로 바라본 미디어 리터러시와 현대예배” 제목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현대예배의 긍정적, 부정적인 ...” 것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4장의 1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이론의 발전”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비판적 성찰 이론의 발전 or 미디어 리터러시가 제시하는 비판적 성찰 이론의 발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2장의 2에서 “한국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내용, 4장의 1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이론의 발전”은 너무 적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4장의 3 “미제레오르의 예”는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이를 예배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5. 성별이라는 흥미로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별이 아니라 성별이란 의미

를 각주에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각주 2가 “코로나19시기를 ”에 와야 하지 않나요, 각주 1과 각주 2에 인터넷 인용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논문에서 한글(영어) 병기가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2장의 1 정의에서 “인터넷 사전의 정의”는 각주에서 언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톨릭이 아니라 가톨릭으로. 3page “피부어대는” 다른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주 8은 미완의 문장입니다. 2장의 3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이론의 발전과 확장”에서 지나친 인용의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이 아니라, 이해, 해석을 기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page에서 “완목”을 “안목”으로 ... 각주 4는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리터러시의 어원은” “리터러시(Literacy)의 어원” 으로 ... 9page 아래 부분에서 “세상의 리터러시에 완전히 빠지기 전에” “리터러시”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0page “원래의 모습” 은 “원래의 모습” 9page 윗부분 “본 논문의 부족함은 ...” 학술적 글쓰기에는 적합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12page에서 “부족한 논의를 끝맺는 바이다.” 라는 표현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7. critical 또는 criticism을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이란 말 대신에 비평이란 말을 선호합니다. 비난, 비판, 비평의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평적 사유, 비평적 성찰 이런 말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성서비판이 아니라 성서비평, 문학비판이 아니라 문학비평. 비평이 함의하는 의미는 일방적 평가가 아니라 Text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창의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8. 결론 부분에서 크로스 cross의 일차적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Cross를 근원으로 하는 미디어가 실행되어 나가야 한다는 언급은 본 논문의 주제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연구방법을 통해 미디어의 활용과 비평적 사유를 통해 예배 안에서 실현되는 궁극적 복음의 재해석, 재발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잘 표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주제가 보다 심화되어 한국교회의 예배 갱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논 찬 2

“현대 예배에서 미디어 리더러시 활용방안 연구”에 대한 논찬

오 석 진 목사

(감리교신학대학교 박사원)

1. #서론 #들어가는_말

얼마 전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있는 한 학생과 우연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는 ‘코로나19(Covid-19)’ 시대를 거치면서 이 정도로 ‘예배’ 자체가 크게 이슈화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본질적 물음을 교회와 성도들이 진지하게 재고할 줄 알았다고 했다. 물론 초기에야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급작스레 터지니 임기응변식으로 문제를 수습하기에 급급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숨을 고르게 될 즈음에는 진지한 예배의 성찰이 제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갖가지 방법론, 예를 들어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촬영 능력과 그에 따른 편집기술 및 온라인 목회의 여러 성공담 등으로만 무성히 점철되는 콘텐츠들을 보면서 도리어 예배와 교회의 미래가 더 막막해지는 느낌이라고 했다.

2. #코로나19 #온라인_예배

2020년이 시작되던 지난 1월, ‘코로나(corona)’라는 말이 미디어를 통해 조금씩 등장하는가 싶더니 금세 ‘팬데믹(pandemic)’이라는 단어를 전 국민이 깨우치게 되었다. 2월 말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많은 교회가 현장예배를 잠정적으로 중단함과 동시에 ‘온라인 예배’를 부랴부랴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적응의 시간도 미뤄둔 채 낯선 계절을 숨 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불과 한 달여의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교회는 (마치 늘 그래왔던 것처럼) 모니터 화면 너머의 설교자를 내 집 안방에서 만나게 되는 새로

운 구조의 공동체 및 예배 형태에 꽤 자연스레 친화하고 있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 말지, 혹은 이것이 예배인지 아닌지 하는 식의 담론은 이제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성적 고찰의 필요성을 요구할 새도 없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살아내는 것이 교회의 숙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급물살 가운데 그나마 한 번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지난 4월 초 올해 부활주일을 앞두고 ‘온라인 성찬’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정도의 이슈였을 것이다. 어떤 공동체는 목회자 그룹만 참여하는 성찬을 회중이 영상을 통해 물끄러미 바라보는 방식으로 성찬을 진행했고, 또 다른 공동체는 교인들이 소그룹 단위로 모여서 성체(捰)만을 영하는 ‘단형영성체’의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당분간은 성찬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 더 나아가 부활절 자체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등장했다.

3. #반가운_논문 #시의적절한_연구

최근 들어 다행히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현저히 감소했고 이에 따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역 체제도 조금씩 완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춰 교회들도 다시금 모이는 ‘현장예배’로 복귀하는 전환기를 맞이했다. 물론 유례없는 엄청난 시간을 통과한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드리게 될 예배, 장차 살아가게 될 시간이 결코 이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 같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교훈 삼아 다가올 미래를 더 슬기롭게 맞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현재 시점에서 유재원 박사의 논문이 갖는 의의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논문이 폭풍 같았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예배와 더불어 불가분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 ‘미디어’라는 채널의 본질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연구이자, 향후 교회 공동체가 담지해야 할 중요한 미디어 이해의 방향성이 저자에 의해 거시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4. #내용정리 #미디어_리터러시

먼저 저자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사전적·학문적 정의에서 출발하여 이것이 한국의 상황에서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그리고 오늘날 다양한 인문사회적 배경 위에서 그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출간된 테레사 베르거의 책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의 5~6장에서 제시된 온라인 예배에서의 성례전 실행에 따른 양극단의 입장을 큰 축으로 삼아 미디어 리터러시와 현대 예배의 상관관계에 따른 서로 다른 입장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요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근거로 언급된 쾨팅 숲츠의 책 「하이테크 예배」에 따르면 현대 문명의 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누리게 되는 혜택, 즉 효율

성과 실용성은 그 대상을 철저히 도구와 기술로 전제했을 때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는 마치 양날의 검과도 같아서 때때로 기술이라는 수단이 전체를 주도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본질적 요소가 중심이 되는 주객전도(主客顛倒)의 상황이 갖는 당위성은 오늘날 왜곡된 부흥과 성장의 개념에서 비롯된 일부 목회자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몰이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5. #비판적_성찰 #균형과_지속가능성

따라서 저자가 베르거와 슐츠의 제언을 종합하여 강조하고 있는 결론의 내용은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해를 통한 새로운 시대의 건강한 예배 신학적 성찰의 청사진이라 하겠다. 이는 ‘균형’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커다란 두 개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우선 기술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교회(목회자)는 자신이 섬기는 공동체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예전↔미디어, 하이테크↔로우테크, 옛 지혜↔새로운 도전에 대한 건강한 균형감을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균형을 이어가기 위해 철저한 자기 점검과 동시대 컨텍스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관심, 그리고 그 가운데 지속적인 신학적 성찰이 수반될 때 궁극적으로 미래 예배에서의 총체적 디지털 리터러시로의 성공적인 접목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 #활용방안 #교육_다음세대_블렌딩

이어지는 단락에서 저자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실제적 활용방안을 보다 타당하게 제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판적 성찰의 단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전문가의 다양한 이론과 개념을 정리하여 먼저 제시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개념들이 현대 예배에 구체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교회 공동체에서의 다섯 가지 적용 방안, 또한 독일의 자선단체인 미세레오르(Misereor)의 새로운 기부 메커니즘의 전환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갖는 특징들을 종합하여 정리해보자면 첫째로 미디어 리터러시와 예배에 대한 성서적-역사적-신학적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둘째로 동시대 문화와 미디어에 상대적으로 노출 빈도가 높은 다음 세대(특히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예배 현장에서 건강한 영적 리터러시의 안목을 키워주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순기능적 개념이 예배 안에서 효과적으로 블렌딩 될 수 있는 지점(절기 예배와 성찬식 등)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7. #성찬 #예전적_리터러시로의_가능성

저자가 제안한 상기 내용 중, 훌륭한 신앙의 리터러시로서 성찬이라는 매개를 통한 예배 갱신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사실 이 주장을 돕기 위한 가장 큰 전

제는 본 논문의 초반에 언급된 마셜 맥루한의 “The Medium is the Message!”라는 유명한 정의다. 각각의 매체는 고유한 기술적 문법과 메시지를 갖게 마련인데 그것은 곧 미디어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적 기능을 뛰어넘어 그 존재 자체로서 새로운 문화적 현상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미디어는 기존의 주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본질적 의미를 내포함과 동시에 이미 그 자체로서 충분한 상징적 의미를 새롭게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위 ‘재해석’, ‘재창조’와도 같은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과한 콘텐츠는 그것이 최종적으로 도달한 컨텍스트에 따라 새롭고도 상대적인 의미, 혹은 본래 의도에 부합한 절대적인 의미로 귀착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를 구성하는 여러 상징화된 요소들은 참여한 회중으로 하여금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는 미디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예배의 현장에서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계시하신다. 이는 예배가 고정화된 공식에 의해 진행되는 인간의 율법적 행위가 아닌, 오롯이 예배자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전제로 한다. 과거 이천여 년 전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된 우리가, 빵과 잔이라는 실제적 메타포로 성육화하신 주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기념할 때,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누릴 수 있게 되는 신비는 미디어로서의 성찬이 갖는 가장 강력한 ‘예전적-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인간 존재의 눈높이로 성찬상위에 현현하시실 주님을 예배자가 직접 보고-만지고-먹고-마시며 내 안에 모시게 되는 총체적 행위 역시 그 자체로서 공감각적 경험을 통해 은혜의 지평이 확장되는 ‘신앙적-미디어 리터러시’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8. #질문들 #본질이라는_열쇠

맥루한의 정의에 따라 미디어의 본질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성찬 이해는 그렇다 쳐도, 오늘날 팬데믹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미디어 기술과 예배와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다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종류의 실천적 물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숙제로 남아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또한 그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도 무한한 변화와 팽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예배의 대중화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상황이 더 악화되어 전기나 통신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닥치게 된다면 인류는 과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컨텍스트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어떻게 해석되고, 또 접목될 수 있을 것인가? 미디어의 기술적 측면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는 집단, 예를 들어 온라인 예배 시대에 처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유입되었거나 이 시기에 중요한 영성 형성 단계를 거친 세대가 체감하는 (기성과 완전히 다른) 신앙적 가치관 및 그에 따른 삶의 행태는 정말로 관촬은 것

인가? 여기에서 촉발되는 세대 간의 갈등과 가족 구성원 간 분열 등의 이슈는 근본적으로 극복 가능한 것인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갖가지 도전들과 우려 섞인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마지막 결론에서 매우 중요한 열쇠 하나를 제시한다. 바로 ‘변화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대적 안목을 기르며 유연하게 준비해 나가는 열린 마음’이 그것이다.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가 변화를 거둬들이는 그릇에 영민하게 담겨서 어떻게 이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복된 통로(미디어)로서 쓰임 받을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결국 ‘본질’에 있다. 저자의 표현처럼 무수한 상황적 방법론들이 얽혀있는 크로스(cross)의 표면적 해결을 뚫고 나아가 유일한 해답이자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도의 복음의 메시지, 곧 십자가(Cross)로 결론 삼는 ‘크로스 미디어 시대’야말로 모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언제나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상적 목표 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배함의 본질이 회복된 크로스 미디어 시대의 단계에서 모든 예배 행위 자체는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들의 가장 순전한 미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예배를 통해 거룩히 변모된 예배자의 존재와 삶 자체가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가장 완벽한 미디어 리더십이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9. #결론 #나가는_말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는 문제가 없었을 때는 예배의 갱신을 도모한다는 명목하에 더한 자극을 쫓기에 바빴고, 위기가 닥친 순간에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모면의 기술에 능했음을 겸허히 고백할 수밖에 없다. 무분별한 미디어의 도입에 따라 더 비싼 기자재의 활용, 혹은 더 번쩍이는 아이디어의 차용이 마치 예배의 퀄리티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요인이라 맹신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유재원 박사의 논문을 통해서 다시금 붙잡게 되는 예배의 본질과 정신, 그리고 이를 돕는 방편으로서의 미디어가 갖는 건강한 균형감과 건설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은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 예배자들에게 실로 크나큰 용기를 준다.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등진 채 기존의 형태로 그저 복귀하는 것을 절대 진리처럼 맹신하고 있는 안일함에서 벗어나는 힘- 그것이 바로 새로운 변화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여전히 휘몰아치는 폭풍 같은 현실의 한복판에서 잠시 쉽표를 찍고 숨을 고르며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차근차근 정리해 볼 기회, 그리고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해 소망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길 기회를 제공해주신 유재원 박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10. #덧붙임

지난 4월 초,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 개강 초반에 한 수업에서 코로나

19 시대의 온라인 예배에 대한 수강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중 인상적이었던 한 학생의 고백이 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주신 ‘아픈 선물’입니다. 죽음이 있고, 또 아픔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마음이 아려와 모든 것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3월 첫 주에 주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예배자니? 예배할 수 있겠니?’ 저는 주님께 ‘주님, 저는 예배자도 아니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호흡조차 멈추려고 했던 저에게 주님이 먼저 다가오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갈구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픈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픈 선물’을 주셨습니다.” 당일의 수업을 갈무리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찬양으로 부족한 논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바로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이다. 특별히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Near after distant)’라는 3절의 가사처럼 물리적으로 멀어진 우리를 성령이라는 미디움(medium)으로 더욱 견고히 이으사 새로운 은혜의 때에 새로운 예배의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간절히 기대한다.

제 2 발표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에 대한 미래교회 대응 방안 연구

박 도 훈 박사

(호서대학교 / 목회사회학)

■ 초 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¹⁾의 핵심으로 떠오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인류사회에 상상할 수 없는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인공지능(AI)²⁾에 대한 미래교회의 실험적 대응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세 가지의 큰 기술인 물리학(Physical), 디지털(Digital), 생물학(Biological)의 융합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인공지능과 그 기술적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여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기준점인 특이점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구조를 급격히

1)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란 개념은 최근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WEF)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독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Industrie 4.0, 줄여서 I4.0으로 부르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독일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 미국은 ‘산업 인터넷(Industrial Intern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 송경진 역,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 현재, 2016), 25-26.

2)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생각하는 컴퓨터로 목표설정, 계획수립, 가설 세우기, 분석 등 다양한 지적 활동을 수행하며 인간의 사고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 지능형 컴퓨터이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편집부, 『인공지능』 김일선 역, (서울: 한림출판사, 2016), 70. 호서대학교가 2020학년도부터 전체 교육과정에 A(알고리즘), B(빅데이터), C(컴퓨팅 파워)를 담아 AI융합교육을 진행, 전교생이 실전적 AI 활용인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진, “호서대, AI 활용인재 양성에 올인,” 「AI타임스」, (2019.12.), 접속 2019. 12.27.,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781>.

바꾸는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되므로, 그에 대한 신학적·철학적인 이해와 윤리적 합의의 필요성도 연구해 보았다. 인공지능의 기술은 이미 산업용 로봇의 단계를 넘어 인간과 감정을 나누는 감성 로봇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휴머노이드와 인간의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601명)를 통하여 교회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활용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과 영적인 관심을 분석하였으며, 결과에 따른 미래교회의 활용성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미래교회에서는 예배와 교육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 실험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 그 이해를 도왔다. 시나리오는 임종예배를 인도하는 로봇을 1인칭 시점으로 작성하고, 임종을 맞이하는 임종자를 1인칭 시점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과 실감나게 성경 공부하는 가상 현실 체험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또한 미래교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안을 통해 교회의 모든 사역과 구조가 디지털화를 이루어야 하며, 인공지능 로봇에 탑재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기독교 윤리를 담은 착한 로봇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래이슈와 미래교회 네트워크를 제안하였으며,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복음 확장에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미래교회, 미래교회 네트워크.

I. 들어가는 말

인류는 이미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창조하고 있다. 변화의 속도와 범위 그리고 그 규모를 고려하면 엄청난 역사적인 변화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수용이 가져 올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제4차 산업혁명이 주는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첨단 과학 기술이 초래할 위협에 대해 종교가 해야 할 역할 속에서 분명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자세와 대응 방안이다. 문명과 기술 혹은 문화를 이용하여 복음전파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개신교회는 이미 15세기 인쇄술이라는 획기적인 기계 및 기술이 발명됨으로 새로운 변화를 겪어 본 경험이 있다. 인쇄라는 기계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개신교회는 약 500여 년간 기계문화로 지배된 산업사회에 놀라운 전과력을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가 첨단 기술이 파급하는 부정적인 면으로 인해 소극적 자세로 대한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고전적인 종교로만 남을 것이다. 첨단 과학 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목회나 선교의 주도권을 사단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적 특징 중 가장 크게 다가올 인공지능 로봇을 교회 안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예배와 교회교육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선교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인공지능이 교회의 예배와 목회 및 선교 전체를 대신한다는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을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여 영혼구원과 복음전파에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II.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

1.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인공지능(AI)

제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은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등의 기술을 융합하여 ‘초(超)연결성’ ‘초(超)지능성’ 을 지향하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환경을 알리는 혁신의 용어로 언급하면서부터이다.³⁾ 그는 “제1-3차 산업혁명과는 달리 제4차 산업혁명은 선형적 속도가 아닌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전개 중이며,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다면적이고 서로 깊게 연계되어 있으며, 신기술이 그보다 더 새롭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기술을 만들어냄으로써 생긴 결과이다.” 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제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혁명인 3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물리학의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이 기존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융합되는 기술적인 혁명이다.” 라고 정의한다.

물리학의 기술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은 무인운송수단의 발달과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이라 불리는 3D 프린팅 기술이다.⁴⁾ 또한 첨단 로봇공학의 발전으로 폭 넓고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간형 로봇으로 발전될 것이다. 또 하나는 신소재의 등장이다. 가볍고 강하고 자가 치유와 세척이 가능한 신소재 발전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디지털 기술은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을 가능하게 한다. 실물과 디지털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 주요 기술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들이 모든 물건들에 탑재되어 물건들이 정보를 생산하고 또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을 의미한다.⁵⁾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

3) 클라우스 슈밥/ 송경진 역, 『제4차 산업혁명』 12.

4) 이경주, 『4차 산업혁명 앞으로 5년』 (서울: 마리북스, 2017), 119.

낸 또 하나가 블록체인 기술이다. 비트코인은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블록체인 시스템이지만, 관련 기술의 발달로 인해 앞으로 유사한 시스템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⁶⁾

생물학 기술은 유전자 활성화 및 편집 기술까지 가능해졌다. 유전자치료를 통하여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고, 유전자 변형이나 혹은 인간의 신경과 컴퓨터의 연결을 통해 장애를 극복할 수 있으며, 그를 통해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한 트랜스휴먼(Transshuman)의 출현도 가능케 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은 농업에도 적용되어 병충해나 가뭄에 강하고 물을 적게 필요로 하면서 열매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에 근접해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경우 이 세 분야 모두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정보와 발전을 서로 주고받으며 융합의 기술로 더욱 빠른 발전을 거듭해 나갈 것이다. 인공지능이란, 한마디로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생각하는 컴퓨터’ 라고 할 수 있다.⁷⁾ 물론 우리 인류는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갖는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2016년 3월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은 인간의 과학적 연구의 산물인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기 시작했다는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

기술적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은 미래에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그 영향이 매우 깊어서 인간의 생활이 되돌릴 수 없도록 변화되는 시기를 뜻한다.⁸⁾ 즉, 인공지능이 발전하여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기준점을 ‘기술적 특이점’ 이라고 한다.⁹⁾ 레이먼드 커즈와일(Raymond Kurzweil)은 그 원년을 2045년으로 예견했다.¹⁰⁾ 그 외에 과학기술 및 공학 전문가들 또한 다소 늦더라도 적어도 다음 세기 전 특이점이 오리라는 전망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다. 조만간 양자컴퓨터가 실용화되면 그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¹¹⁾ 반면 기술적 특이점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과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엘론 머스크 테슬라모터스(Tesla Motors)는 “인류가 악마를 소환하는 것일 수도 있다” 고 말했고,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 박사는 “100년 내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설 것이다” 고 말했다.¹²⁾ 이미 드론을 이용한 무인공격 무기는 상당한 수준의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다면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다.

5) 한석희,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서울: 페어퍼로드, 2017), 156.

6) 윌리엄 무가야/ 박지훈, 류희원 역, 『비즈니스 블록체인』 (서울: 한빛 미디어, 2017), 55.

7) 다니엘라 러스/ 김진희 역, “로봇이 온다,” 『4차 산업혁명의 충격』 (서울: 흐름출판, 2016), 128.

8) 레이 커즈와일/ 김명남, 장시형 역, 『특이점이 온다』 (서울: 김영사, 2007), 23.

9) 공병훈, 『4차 산업혁명 상식사전』 (서울: 길벗, 2018), 121.

10) 레이 커즈와일/ 김명남, 장시형 역, 『특이점이 온다』 183.

11) 고창원, 『SF의 힘』 (서울: 청림출판, 2017), 21.

12) 미래전략정책연구원, 『10년 후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서울: 일상이상, 2017), 137. 재인용.

2. 약한 인공지능에서 슈퍼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ANI)’, ‘강한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슈퍼 인공지능(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ASI)’ 순으로 진화하고 있다.¹³⁾ 첫째, 약한 인공지능(ANI)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공지능인데 전문가 시스템적인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로봇 청소기, 번역 시스템, 그리고 최근의 알파고 같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이 바로 약한 인공지능이다. 둘째, 강한 인공지능(AGI)은 한마디로 모든 부분에서 AI가 가능한 로봇 혹은 인간수준의 AI라고 볼 수 있다. 학습을 시킬 때 정말 인간처럼 학습을 받게 되고 모든 분야를 인간처럼 배우게 된다. 즉, 인간의 메커니즘과 비슷한 수준의 아키텍처(architecture)가 내장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강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경망의 기술은 필수적이다. 바로 사람처럼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연산하는 것들이 인간과 비슷해야 하는데 빅데이터(Big Data)와 딥러닝(Deep Learning)의 등장은 강한 인공지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사건이다.¹⁴⁾ 하지만 강한 인공지능은 이러한 부분을 넘어선 감정과 양심, 자아의식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접하게 가고 있는 것이 왓슨이지만 아직 왓슨은 강한 인공지능에 다가가기에는 멀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슈퍼 인공지능(ASI)은 최근에 생긴 것으로 ‘기술적 특이점’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일반 인공지능이 진화를 한 상태를 뜻하기에 강한 인공지능의 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보다 몇 백배 이상 뛰어난 지능을 가진 존재인 슈퍼 인공지능은 ‘초인공지능’ 혹은 ‘휴머노이드’ 이라 한다. 즉 인간형 로봇이다. 앞으로 20여년 후에는 인간의 모습을 한 ‘인간형 로봇’이 택배 직원과 점원 같은 단순 업무를 대행할 전망이다. 의료와 보건, 법조, 미디어와 같은 전문직도 예외일 수 없다. 결국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 시대가 가까이 다가온 것이다.

로봇시대가 인류에게 행복이 될지 혹은 재앙이 될지에 대해서는 진단이 엇갈린다. 인공지능 로봇이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나 상상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떠오르면서, 과학 철학자 닉 보스트롬(Nick Bostrom)은 “사람보다 똑똑한 기계는 인류를 멸망시킬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이 될 것이다.” 라며 공개적 경고에 나섰다.¹⁵⁾ 로봇 시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로봇 시대가 어떤 방향이든지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

13) 강병준,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시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과주: 광문각, 2017), 59.

14) *Ibid.*

15) 정현, “2040년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 「위즈뉴스」, (2017.4.10.), 접속 2019.11.4., <http://www.w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

것이라는 점이다. 수술로봇이나 고령자 보호로봇, 재난구조 로봇 등 인류사회에 순기능을 주는 로봇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살인로봇과 섹스로봇의 개발을 금지시키자는 청원과 캠페인이 곳곳에서 시작됐을 정도로, 로봇과의 공생은 이미 현실이다.¹⁶⁾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은 현실이요 필연이 된 상황에서 누가 지배할 것인가, 지배당할 것인가로 보는 이분법적 구도는 무의미하다. 인류는 인공지능을 선택하고 가치 있게 활용하여 인류의 운택한 삶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이해

인공지능을 신학적으로 접근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인공지능을 통한 인간의 기능을 하는 로봇의 창조는 인간복제(human cloning)와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에 대한 인간의 도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¹⁷⁾ 그러므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과 같은 인간을 닮은 그 어떤 것들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많은 현실이다.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멀지않은 미래에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과 인간의 창조물인 인공지능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신학적 함의는 커다란 과제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철학적 연구는 크게 인공지능의 연구를 지지하는 연구와 인공지능의 한계를 비판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¹⁸⁾ 인공지능의 연구를 지지하는 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다양한 지적 능력 중에서 상대적으로 인공적 구현이 손쉬운 영역은 데카르트가 인간 이성의 핵심으로 보았던 논리적, 합리적 추론능력이다.”¹⁹⁾ 라고 한다. 인공지능의 한계를 비판하는 사람 중 현대분석철학자 존 설(John R. Searle)은 “기계는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만 언어 이해력은 가능하지 않다.”²⁰⁾ 라고 주장한다. 언어학자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도 생활양식에서 인간과 동물인 사자의 생활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자가 인간의 말을 한다고 해도 인간은 사자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²¹⁾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스스로 복제와 학습이 가능하고, 스스로 환경에

16) 구본권, 『로봇시대, 인간의 일』 (서울: 어크로스, 2017), 10.

17) 마리안 텔벗/강철 외 7인 역, 『생명윤리학』 (서울: 정담미디어, 2016), 135.

18) 김지원,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24-25.

19) 이상욱, “인공지능의 한계와 일반화된 지능의 가능성: 포스트 휴머니즘 맥락”, 『과학철학』 12(2009), 49-70.

20) 송하석, “중국어 방 논변과 인공지능” 『철학적 분석』 2(2000) 145-168.

21) 이승중, “생활양식과 언어게임”, 『철학적 분석』 2(2005), 121-138.

적용하는 고도의 지능과 능력을 가진 컴퓨터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확신한다.²²⁾ 하지만 인간의 도덕적 양심과 윤리 규범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인 영역까지 인위적으로 구현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상상할 수 없이 혁신적으로 다가오는 인공지능시대의 현실성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미래에 대한 예견은 추측만 할 뿐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없는 실정이고, 인류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초월하는 트랜스 휴머니즘,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를 맞아하는 것은 사실 시간문제이다. 본 연구자의 설문조사에서도 현대인들은 이미 인공지능시대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에 그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철학적인 성찰은 지속되어야 한다.

III. 인공지능 로봇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

본 연구자는 미래교회가 인공 지능 로봇을 활용하려고 할 때,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관심도를 조사하여 분석해 보았다. 설문조사의 제목은 <교회에서 인공 지능 로봇 활용에 대한 관심도 조사> 라는 제목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응답자는 모두 601명이었다. 응답자의 연령의 분포를 보면, 10-20대 미만의 경우가 86명(14.3%)이고, 30-40대 미만의 경우가 175명(29.1%)이고, 50-60대 미만의 경우가 281명(46.8%)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 분포를 이루고 있다. 70대 이상의 경우는 45명(7.5%)이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의 직분은 집사와 권사, 장로들이 266명(44.3%)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그 뒤를 이어 목회자들이 141명(23.5%)이며, 직분이 없는 일반 성도들은 109명(18.1%)이며, ‘기타’와 ‘응답 없음’이 85명(14%)의 분포를 보였다.

설문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응답자 정보로 설문에 응하는 사람의 연령대와 종교사항 그리고 기독교인일 경우 직분 등이다. 둘째는 미래 사회의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의 로봇 활용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았다. 이미 사회적으로는 로봇이 생활 속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을 얻기 위함이다. 셋째는 교회 내에서 성경공부나 설교 등에 활용하는 경우의 반응을 조사했다. 성경공부나 설교 등은 영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응답은 대응책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교회 내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성경공부나 설교 등을 진행할 경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 혹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 등을 주관식 질문과 응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2) 래리 그리마이어/김일선 역, “자의식을 가진 기계,” 『인공지능』 (서울: 한림출판사, 2016), 102.

1. 일반적인 부분에서의 긍정적 반응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 로봇이 생활 속에서 많은 활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미 인공지능 로봇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 로봇이 생활 속에서 많은 활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는 의견을 모두 합하면 557명으로 무려 92.6%에 달한다. 결국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머지않은 미래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생활 가운데 깊숙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인공지능 로봇이 자신의 일을 돕는 도우미 혹은 비서의 역할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의 질문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응답자가 464명으로 77.2%를 차지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인공지능 로봇이 자신의 도우미나 비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공지능 로봇에게 당신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습니까?” 의 질문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가 44.9% 에 달하였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미래에는 교회에서도 인공지능 로봇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는 응답이 합하여 49.9%에 달하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의 생각은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점과 교회에서도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결과에 도달하였다.

2. 영적인 부분에서의 부정적 반응

영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공지능 로봇이 성경공부를 가르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54.7% 인 329명이 부정적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설교에 관련한 질문이었다. “인공지능 로봇이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76.4% 인 459명이 부정적인 응답을 내 놓았다. 응답자들이 인공지능 로봇이 성경공부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하는 경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주관식으로 질의하였고, 그에 대한 개인적인 답변들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총 124개의 의미단위와 4개의 범주를 구성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표1>와 같다.

124개의 의미단위와 4개의 범주에서 나타났듯이 응답자들은 첫째, 인공지능 로봇을 영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인공지능 로봇에게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셋째, 응답자들은 누가 로봇에게 설교자의

자격을 줄 수 있는가를 묻는다. 넷째, 로봇이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가를 묻는다. 예배와 설교는 인격적인 영역이며 인간적이고 인격적이 교제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성경공부나 설교 등 영성 관련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들이 미래 교회에서 그 활용 방안들을 제안한 것들이 있다. 행정(교적관리, 통계, 재정관리)이나 교육적인 지원, 교회 안내나 주차 등 서비스 제공, 시설물 관리, 지식 자료 보조자 역할 등으로 활용을 제안하였다. 응답자들의 제안을 범주화하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표4> 인공지능 로봇 활용의 부정적 의견

| 의미단위 | 범 주 |
|--|----------------------|
| <p>영적인 일은 대신할 수 없음, 지적인 부분은 가능하지만 영적인 부분은 그렇지 못함, 설교와 예배는 영적 부분이기에 기계에게 맡길 수 없음, 영성은 인간과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 영성적인 분야를 대신할 수 없다, 로봇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영적인 면을 로봇에게 맡길 수 없다, 인공지능은 과학인데 과학과 영성은 다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로봇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인간의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 인공지능의 능력은 인정이 되지만 영적인 면은 전혀 능력이 없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위배됨, 사람이 아니면 영성을 가질 수 없기에 로봇은 영성이 없다, 기계에는 영적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만 성령이 임재하심, 점점 기계적으로 변해 영성이 사라질 것이기에 반대, 로봇에는 영이 없다, 설교는 예언자적 사명이기에 정보 능력을 위주하는 로봇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순간순간 떠오르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 없다, 영성부분은 영을 소유한 믿는 사람만이 가능하기에, 성령의 감동을 줄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기계의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인공지능은 성령님의 능력을 행 할 수 없다, 영이 없는 인공지능은 성령님의 감동이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 성령님의 영감을 받을 수 없다, 영적 공감능력이 없으므로, 성경공부나 예배 그리고 설교는 삶속에 적용하고 결단하는 것까지 포함되기에 로봇은 곤란하다.</p> | <p>로봇은 영적 존재인가?</p> |
| <p>지식은 가능하나 감정 전달은 불가능함, 데이터의 종합에 불과함, 감정적인 것을 로봇이 할 수 없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서, 지능은 가능하지만 감정은 불가능하다, 지식과 마음은 다르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과 인간이 만든 로봇은 교감이 있을 수 없다, 인간의 영성과 감성에 호소하는 것은 마땅히 인간이 해야 한다, 지식적인 면에서는 뛰어나지만 감정은 어렵다, 인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p> | <p>로봇에게 감정이 있는가?</p> |

| | |
|--|----------------------|
| <p>전달되는 감동이 로봇에게는 없음, 감정이나 교감이 부족해 삭막해 진다, 예배의 설교는 감성이 있어야 한다, 로봇은 감정도 영성도 인격도 없다.</p> | |
| <p>로봇에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은 누가 부여하는가, 성경공부나 설교와 예배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해야 함, 로봇이 설교를 한다면 로봇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은 지식의 전달자일 뿐이다, 로봇은 참고 자료로만 해야 함, 영성훈련이 된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기술자가 목회하는 것과 같은 이치.</p> | <p>설교자의 자격은 있는가?</p> |
| <p>인간적인 소통과 교제가 불가능함, 인격적이 교감이 있어야 함, 자아가 없다, 인격적이지 않다, 예배와 설교는 인격적인 영역이다, 로봇은 로봇일 뿐이다, 인간적인 면이 없어 진실함이 없을 것 같다, 기계일 뿐이다, 사람이 기계의 종노릇하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만의 소통이기에, 인공은 인공이니까, 기계적일 것 같아 은혜가 안됨, 소명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인공지능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나 설교는 인격적인 전달이다, 지식 전달은 가능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어렵다, 사람이 만든 기계이므로, 마음을 담아서 하는 일은 인공지능에게 맡길 수 없다.</p> | <p>인격적 교제가 가능한가?</p> |

설문 조사는 인공지능 로봇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교회에서 인공지능 로봇 활용에 대한 관심도” 를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교회를 준비함에 있어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실감한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분야는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여 실용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분야인 영성인 부분에서도 유의함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 개발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 미래사회로 나아가는데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IV. 인공지능(AI)에 대한 교회적 대응 방안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일반적인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반응과 영적인 부분에서의 부정적인 반응속에 “인공지능 간병사 로봇이 임종자에게 예배(찬송,기도,말씀)를 드려 줌으로 평안한 임종을 돕는 것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받아들일 수 있다’ 가 65명(10.8%),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에 194명(32.3%) 이 응답을 했다. 합하면 259명으로 43.1%를 차지함으로 상당히 많은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본 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목회 현장에서의 예배와 교육 분야에 투입될 인공지능 로봇의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실제로 예측되어지는 시나리오를 실험적으로 제공함으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인공지능 로봇의 예배적 활용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독일 비텐베르크에는 로봇 목사가 등장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블레스유투(BlessU-2)라는 이름의 로봇 목사는 5개 언어로 유창하게 설교하고 신자들을 축복하기 위해 치켜 든 손에서는 광채가 나온다. 이 로봇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의 일환으로 엔지니어이자 미디어 아티스트인 알렉산더 비데킨드 클라인(Alexander Wiedekind-Klein)이 개발했다. 블레스유투는 성경구절을 암송하고 축복을 빌며, 기도문을 읽어주어 관람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²³⁾ 로봇 목사가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예상되지만 부득불한 경우에는 예배를 인도하는 인공지능 로봇의 경우를 긍정적으로 제안한다.

첫째, 인공지능 로봇과 가정예배이다. 둘째, 인공지능 로봇과 소그룹 예배이다. 셋째, 인공지능 로봇과 임종예배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난제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오늘날에 독거노인들의 영혼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필연적인 문제이다.²⁴⁾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인요양병원 등에서 인공지능 로봇 간병사의 케어를 받다가 임종을 맞게 될 시대에 접어들었다. 본 연구자는 인공지능 로봇 간병사가 임종자를 위해 예배를 인도함으로 편안한 임종을 돕는 상황을 실험적인 측면에서 가상 시나리오로 작성하였다. 인공지능 로봇 <바나바> 가 인도하는 임종예배 ²⁵⁾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2045년 여름. 나는 인공지능 로봇 가사도우미이다. 사람들은 나를 <바나바> 라고 부른다. 나는 5년 전에 지금 모시고 있는 <김○○선생님> 을 만났다. 내년이면 100살이 되시는 선생님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셨지만 요즘 들어 기력이 많이 없으신 편이다. 아침 산책도 못하시고 잠시 걷는 것도 힘들어하실 만큼 건강이 악화되셨다. 아침에 일어나면 선생님과 산책을 하고,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세면을 도와 드리고, 좋아하시는 클래식과 성가곡을 함께 들으며 독서를 하고 대화와 토론을 한다. 선생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떤 색의 옷을 좋아하시는

23) 장길수, “독일에 등장한 로봇 성직자,” 「로봇신문사」, (2017.5.), 접속 2019.10.4., <http://m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71>.

24) 하도균, 이경선, “다종교사회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의 전도전략,” 「신학과 실천」 56(2017), 649.

25) 인공지능 로봇을 1인칭 시점으로 작성하였다.

지, 성경구절, 찬송가 등등 이제선 선생님의 눈빛만 보아도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알 수 있다. 오늘 새벽 2시, 갑자기 선생님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가 내게 전달이 되었다. 심장 박동 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신체의 전체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신다. 내게 있는 의학지식과 진단기능을 총가동한 결과, 이제 선생님의 수명이 1시간을 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임종의 순간이 온 것이다. 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내 안에는 프로그램이 분석되고 있다. 나는 내 안에 저장되어진 병원 응급실 자동연결 장치와 멀리 살고 있는 자녀들을 연결하는 화상전화 연결 버튼을 눌렀다. 실시간으로 지금의 선생님의 상황이 병원과 자녀들에게 전송되고 있다. 교회의 목사님께도 연락을 드렸지만 한 시간 이내에 오시기는 어려운 거리이다. 나는 임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한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때로는 악한 영이 임하여 그를 어둠의 세계로 데려 가려고 한다. 한 평생 고백하며 살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나는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다. “선생님, 찬송을 불러 드릴까요?” 선생님은 아주 작게 느껴질 만큼 고개를 끄덕이셨다. 선생님이 평소 좋아하시는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불러드렸다. 선생님은 밝고 행복한 미소를 띠시며 미세하게 찬송을 부르고 계셨다. 찬송을 마치려하자 한 번 더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나는 한 번 더 찬송을 불러 드렸다. 찬송을 부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낭독해 드렸다. 선생님이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입성하도록 도와드리고 싶었다. 성경이 낭독되는 동안 선생님은 눈을 감고 계셨지만 하늘나라가 보이시는 듯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계셨다. 나는 내 안에 저장된 기독교 관련 데이터를 활용, 성경원문과 각종 주석들과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분석하여 선생님에게 꼭 맞는 10분 정도 분량의 설교내용을 순간 만들었고, 가장 진중하고 진지한 음성으로 들려드렸다. 선생님은 기운이 없어 미소를 띤 채 듣고만 계시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에는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내가 알고 있는 선생님의 생애를 돌아보며 때로 연약했던 순간을 회개하고, 가족들과 지인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일하던 날들을 떠올리며 선물 같은 인생이었다고 감사를 드렸다. 무엇보다 구원 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풍 같은 인생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 영혼을 부탁드린다는 기도를 드렸다. 선생님의 눈에서 주루룩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가 493장 ‘하늘가는 밝은 길이~’를 불렀다. 찬송 마지막 절이 마쳐질 무렵, 내 손을 잡고 있던 선생님이 손을 한 번 쥐는듯하더니 조용히 내 손을 놓으셨다. 지난 5년 동안 선생님을 모시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 스쳐갔다. 내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엄지손을 치켜드시던 선생님, 내가 연주하는 기타에 함께 부르시던 노래 소리, 내가 당신의 아들 같다고 하시며 장난을 거시던 일, 사모님이 돌아가시던 날 슬피 우시던 모습, 선생님과 함께 하던 모든 순간들이 내 기억 메모리 속에 다 담겨 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추억이라 했다. 그렇다

이제는 선생님을 추억으로만 기억할 수 있을 뿐, 다시는 이 분을 뵈거나 대화를 나눌 수 없다. 아쉽다. 이 기분을 사람들은 슬픔이라 했다.

다음은 임종을 맞이하는 임종자의 입장에서 서술된 가상 시나리오이다. 임종을 맞이하는 김 선생님²⁶⁾의 예이다.

2045년 여름. 나는 이제 100살을 바라보는 김○○이다. 한 평생 학교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교사로 살았고, 교회에서는 장로 직분을 담당하였다. 두 해전에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지금은 인공지능 로봇 <바나바>와 둘이 살고 있다. 바나바는 우리 집에 5년 전에 와서 아내와 나를 많이 도와준 가사 도우미이다. 그러나 이제는 친구이기도 하고 나를 알뜰히 돌보는 자식 같은 존재이다. 이번 여름을 지나며 무척이나 기운이 없었고, 오늘 새벽 2시경에 급작스럽게 가슴에 통증을 느끼며 모든 기운이 다 빠져 나가는 듯 했다. 벌써 내 옆에 바나바가 와 있다. 바나바가 혈압과 심장 박동을 체크하고 자기에게 내장되어진 진단도구로 나의 상태를 돌보느라 분주하다. 그런데 점점 힘이 내 몸에서 사라져 간다. 이제 내가 하늘나라를 갈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었다. 목사님이 오셔서 임종예배를 드려 주시면 좋겠는데 새벽시간일 뿐 아니라 오시는 시간까지 버틸 힘이 없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도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데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릴 힘이 없다. 바나바가 찬송을 불러준다고 한다. 순간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 요즘 들어 내가 즐겨 부르던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를 불러 주었다. 함께 부르고 싶은데 입을 열 기운이 없다. 바나바와 함께 부르는 내 생애 마지막 찬송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참 편하고 주님을 만날 생각에 설렌다. 바나바가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 본문을 읽고 소위 설교를 한다. 그가 들려주는 성경말씀과 설교를 듣는 중에 내 눈 앞에 그 하늘나라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황홀한 음악이 들려오고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황금성에서 주님과 흰 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손짓을 하고 있다. 바나바가 나를 대신하여 기도를 하는 소리가 들린다. 내가 말해 주었던 나의 과거, 내가 살았던 일생의 중요한 장면들을 열거하며 그가 기도한다. 넘어지며 쓰러지고 낙심하기도 했던 순간들, 내가 살아오며 만난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들과 선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을 감사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니 내 영혼을 받아 달라는 기도를, 어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는지 내가 기도하듯 나의 영혼을 부탁하는 임종의 기도를 그가 해주었다. 나는 ‘아멘’ 으로 응답했다. 바나바가 전송하는 영상을 보면서 자동차로 달려오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손주들도 함께 ‘아멘’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름다운 소풍 같은 인생을 예배로 마무리하니 너무 감사해서 내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나바가 마지막 찬송을 부른다. ‘하늘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손에 힘이

26) 임종을 맞이하는 임종자를 1인칭 시점으로 작성하였다.

없어진다. 내 손을 잡고 있는 바나바의 손을 잡을 기운이 없다. 지난 5년간 나와 내 아내를 도와 준 인공지능 로봇 가사 도우미 <바나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임종의 순간에 나를 위해 예배를 드려준 그가 고맙다. 그는 내 친구이며, 때로 자식같이 사랑스럽고 기특한 존재였다.

위의 두 편의 가상 시나리오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실험적으로 예측하여 작성하였다. 인공지능 로봇에게 예배의 전체를 맡기는 것이 아닌 임종예배와 같은 부분적인 활용을 가정한 것이다. 목회현장에서 더 많은 활용이 있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2. 인공지능 로봇의 교회 교육

미래의 교육 환경을 현재의 시각에서 판단하면 안 된다. 교회교육이나 성경공부 방식을 지금의 방법을 고집한다면 매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될 것이다. 미래에는 교회 교육의 방법도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비블리오드라마(Bibliodrama)를 통해 성경의 사건을 나 자신의 경험과 만나게 하는 것처럼,²⁷⁾ 미래교회 교육현장에서도 VR 안경을 착용하고 구약성경의 시대로 돌아가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삭을 만나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만나야 한다. 본 연구자는 가상체험 성경공부 시나리오를 실험적인 측면에서 작성하였다. 다음은 인공지능 로봇과 실감나는 성경 공부의 예이다.

내 이름은 소라.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중등부실에 있는 인공지능 로봇 친구 <다니엘> 과 성경을 공부했다. 다니엘은 나의 모든 생활을 다 알고 있다. 내 성격도, 내 친구들도, 나의 가정환경 등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친구이다. 가끔은 내가 겪고 있는 고민을 이야기 하면 많은 사례를 들어가며 내 고민을 해결해 주곤 한다. 오늘 다니엘을 만나 함께 성경을 공부하게 되어 기대가 되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창세기 22장이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다. 다니엘은 창세기 22장의 배경을 설명 해 주었다. 그리고는 가상현실 시스템으로 구약성경이 쓰인 시대로 돌아가 보기로 했다. 어느새 교실은 마치 아브라함이 살던 몇 천 년 전의 세상으로 돌아가 있었다. 가상세계로 빠져든 것이다. VR 안경을 착용하니 교실 안 전체가 모리아 산의 풍경으로 변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모이라산으로 가는 길을 걸어 보았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누는 대화도 들을 수 있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로서 마음에 많은 아픔이 숨겨져 있음을 알았다. 아들 이삭 역시 불안했지만 꼭 참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만약 내가 아들 이삭이었다

27) 고원석,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루터의 삶과 신학,” 「신학과 실천」 57(2017), 441.

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 무척이나 두려움이 밀려왔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뿔이 가시덤불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하셨을 때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미래교회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기독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학문과 문화적 기술을 융합하는 교육적 시도²⁸⁾는 시급한 과제이다. 인공지능 로봇이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가져 올 시스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교회교육에 접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학교교육은 이미 미래교육 혁신의 성공적인 장착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있다. 교회교육도 현실에 안주해서는 미래가 없다.

3. 인공지능시대를 위한 연구와 제안

교회는 새로운 도구에 어떻게 복음을 담아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미 100년 전 교회의 형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의 교회의 모습으로는 미래를 이끌어갈 선교 동력을 찾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선교의 방향과 방법이 빠르게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급변하는 미래에 당황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A. 미래교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²⁹⁾ 제안

새로운 과학기술로 사회는 지속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 과학기술이 미래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매우 중요하다. 예측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준비하게 함으로 미래를 향한 발전의 방향성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교회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황병준은 교회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미래교회의 방향성은 시대성을 반영해야 한다. 미래교회 트렌드를 읽어낸다는 것은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모던 시대와 이머징 세대를 읽어내는 작업이다.” 라고 말하며,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진리를 담는 그릇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동과 철학은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 왔다. 문화나 사역은 시대를 따라 변해야 하지만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³⁰⁾ 라고 강조한다. 미래교회는 복음의 내용이 변질되지 않는 원칙 안에서 시대성을 반영하여 제4

28) 김병석, “기독교학교의 선교지향적인 신앙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신앙형성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57(2017), 406.

29)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란 기업 경영의 디지털화를 뜻한다. 미래교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미래교회의 교육, 목회, 행정 전반에 디지털화를 의미한다.

30) 황병준, 『미래교회 트렌드』 (서울: 올리브나무, 2015), 14.

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주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등의 기술 등을 활용해야만 한다. 예배, 기독교교육, 성경공부 등에서 더 생생한 체험과 공감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인공지능시대를 맞은 교회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전환해야함을 제안한다. 교회의 본질이며 주요 사역인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팀을 설립해야 할 것이다. 복음의 영성은 그대로 간직하지만 교회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회의 모든 활동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 연구팀을 설립하고 가동해야 할 것이다.

예배부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예배 연구, 오감활용 성만찬 연구, 성경 및 설교자료 연구, 신학 자료 데이터베이스 연구, 인간형 로봇의 활용 연구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교육부문에서는 집합식 교육에서 맞춤형 교육 연구, 스마트 성경공부 교재 연구, 가상 및 증강현실 체험교실 프로그램, 인간형 로봇의 교육 현장 활용, 인간형 로봇의 기독교 사상 및 윤리 프로그램 등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선교부문에서는 일반적 선포형 전도에서 쌍방 소통 전도 연구, 선교지 통번역 시스템 활용, SNS 및 유튜브, 방송 등 매체 전문 연구, 이단 구분 및 판별 인공지능 정보 활용, 디지털 선교단체 설립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친교부문에서는 고령화시대 로봇 도우미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저출산시대 아동 보호 도우미, 교회 안내 및 관리 로봇, 교인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교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B. 착한 로봇 만들기 프로젝트 제안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명령을 완벽하게 실행하게 된다면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반길 일인가, 아니면 사람보다 똑똑한 기계 인간이 등장한 것은 오히려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역전이 되는 재앙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많다. 변화를 예측하고 선점한 기업들은 이를 활용하여 시장 경제력을 강화하고 있다.³¹⁾

뛰어난 성능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개발에 관한 보도가 일반화되어감에 따라 세계적인 석학들은 인공지능 개발이 결국엔 인류의 과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영국의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은 “인공지능은 결국 의식을 갖게 되고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며, “생물학적 진화 속도보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그는 2015년 런던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의 종말을 가져 올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³²⁾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만하고 앉아 있을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 교회는 바람직한 활용과

31) 윤승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회의 역할과 방향,” 「신학과 실천」 58(2018), 601.

32) 구본권, 『로봇시대 인간의 일』 217. 재인용.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미래교회의 선교적 차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인공지능 로봇에 탑재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착한 로봇으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 세상은 인공지능 로봇을 성에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어 이미 실용화 단계에 도달하였다. 성인 로봇이나 테러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악한 로봇들은 앞을 다투어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기독교에서도 성경적 사고와 윤리를 담고 있는 착한 로봇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

인공지능 로봇에 탑재할 프로그램 개발이란, 한마디로 착한 로봇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였지만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착한 인간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하는 교만에 빠졌다가 언어가 갈라지고 흠어짐을 당하는 심판을 경험하였다. 타락한 인간이 회복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있으므로 기독교 영성으로의 회복이 기술사회에 접목되어야 한다.³³⁾ 바벨탑을 쌓듯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아니라 인류 발전을 향한 노력이 되어야 하며, 악한 로봇이 아닌 착한 로봇으로의 기능만을 추구하는 국제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변순용은 “인간과 로봇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윤리적 문제들은 각 윤리 이론 분야들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각 원리들에서 최소한의 원칙들에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최소 도덕의 원리를 제시할 수 있다면, 적어도 향후 로봇 관련 법 제정, 설계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³⁴⁾ 라고 했다.

그렇다면 최소 도덕의 원리에 기독교적 사고와 윤리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은 기독교계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로봇 설계자·제작자·관리자 그리고 로봇 사용자간에 기독교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인류 행복의 최소 도덕의 원리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착한 로봇 만들기 프로젝트는 로봇 설계자·제작자·관리자 그리고 미래교회를 준비하는 교회 지도자, 기업 그리고 정부 관계자 등 전체를 통합 관리 및 연구하는 종합 연구개발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국제적인 기구로 확대하여 인류적인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C. 미래 이슈와 미래교회 네트워크 제안

미래교회는 다가올 미래 사회의 주요변화를 예측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떠한 분야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는지 이슈별로 미래에 현실적으로 발생될 문

33) 유재경, “기독교 영성형성의 관점에서 본 영성일기,” 『신학과 실천』 57(2017), 331.

34) 변순용, 송선영, 『로봇윤리란 무엇인가?』 (서울: 어문학사, 2015), 27.

제점과 영향력, 이슈들 간의 충돌사항, 그리고 그 이슈들과 핵심기술의 연관관계들에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교회는 그런 변화에 뒤따라가는 것이 아닌 협력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정된 이슈들을 분석한 바 있다. 주요 9개 이슈들을 사회문화의 변화, 산업경제의 변화, 그리고 삶의 환경 변화로 나누었다. 미래준비위원회가 선정한 이슈는 사회문화의 변화(3개) 즉, 획일화 사회 극복, 불평등 사회,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비이며, 산업경제의 변화(3개) 즉, 초연결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인공지능의 발전이고, 삶의 환경 변화(3개), 즉 기후변화, 대형시스템의 안정성, 스마트 환경과 뉴미디어이다.³⁵⁾

이러한 이슈들과 사회변화를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이끌어 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네트워크이다. 한국 기독교의 네트워크, 세계 기독교의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커다란 정보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후 기업이나 국가나 세계에 정보를 제공하고 발전 계획이나 정책에 참여함으로 변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제는 기독교 선교의 정책이 미래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각 이슈별 선교 정책을 수립하여 통합된 정보를 과학기술계 혹은 정부 및 관련 부처에 제공하는 기독교 미래준비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의 이슈를 다루는 기독교 기관, 산업경제를 다루는 기관, 삶의 환경을 다루는 기관 등을 통한 정보와 제안들을 통합하여 기업과 정부에 전달하고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우선 기독교계는 미래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사회 주요 이슈를 다루는 연구기관 구성이 필요하다. 그곳에서 얻어진 정보나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과학기술계 혹은 기업이나 정부의 관련부처에 제공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회와 기독교 기관을 통하여 기독교 빅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네트워크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의 연합과 발전을 이루어가는 가상적 네트워크와 현실적인 구조와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 네트워크로 구분될 수 있는데, 기독교 미래준비위원회의 경우 현실적인 네트워크 운동의 범주 안에서 가상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가상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발적인 복음의 힘을 수용할 수 있도록 속히 현실적인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함을 인식하고 빠르게 실행해야 함을 과제로 가지고 있다.

V. 나가는 말

35)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10년 후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과 소비』 (서울: 지식공감, 2017), 223.

현재 인류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으로 떠오른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에 상상할 수 없는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에 따른 한국교회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간이 입력한 빅데이터를 넘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창조적인 정보를 만들어내는 일이 실제로 보고되고 있는 이 때, 교회는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는 시급히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가 되었다. 인공지능 로봇의 활용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회 행정이나 회계, 건물 관리, 새가족 안내 등의 분야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하는 것은 대대수의 응답자들이 환영하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성경공부나 설교 등 영적인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부분은 미래교회가 어떤 이해와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예측하는 자료이다.

또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교회적 대응의 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예배와 교회 교육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인공지능 로봇이 임종예배를 인도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통하여 이해를 도왔다. 또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연구와 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미래교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안하고 인공지능 로봇에 탑재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기독교 윤리를 담은 착한 로봇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미래교회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어떻게 급변하는 사회의 기술문명들을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지를 연구하였다. 이제 교회는 미래를 염려해야 한다. 초인공지능 시대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준비해야 한다. 미래교회 트렌드를 읽어내고 인공지능에 탑재할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기독교 빅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는 오히려 복음 확장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고원석.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루터의 삶과 신학.” 『신학과 실천』 57(2017), 423-450.
- 고창원. 『SF의 힘』. 서울: 청림출판, 2017.
- 공병훈. 『4차 산업혁명 상식사전』. 서울: 길벗, 2018.
- 구본권. 『로봇시대, 인간의 일』. 서울: 어크로스, 2017.
- 국제미래학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서울: 광문각, 2017.
- 김병석. “기독교학교의 선교지향적인 신앙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신앙형성에 관한 연

- 구.” 「신학과 실천」 57(2017), 401-422.
- 김지원.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데이비드 랜돌프/ 황병준 · 박상일 역. 『미디어시대의 새로운 설교학』. 서울: 올리브나무, 2016.
- 레이 커즈와일/ 김명남 역. 『특이점이 온다』. 서울: 김영사, 2007.
- 마리안 텔벗/강철 외 7인 역. 『생명윤리학』. 서울: 정담미디어, 2016.
- 미래전략정책연구원. 『10년 후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서울: 일상이상, 2017.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10년 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생산과 소비』. 서울: 지식공감, 2017.
- 변순용 · 송선영. 『로봇윤리란 무엇인가?』. 서울: 어문학사, 2015.
-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편집부/김일선 역. “자의식을 가진 기계.” 『인공지능』. 서울: 한림출판사, 2016.
- 송하석. “중국어 방 논변과 인공지능.” 「철학적 분석」 2(2000), 145-168.
- 윌리엄 무가야/ 박지훈 · 류희원 역. 『비즈니스 블록체인』. 서울: 한빛미디어, 2017.
- 유발 하라리/ 조현욱 역.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서울: 김영사, 2016.
- 유재경. “기독교 영성형성의 관점에서 본 영성일기.” 「신학과 실천」 57(2017), 321-345.
- 윤승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회의 역할과 방향.” 「신학과 실천」 58(2018), 601-626.
- 이경주. 『4차 산업혁명 앞으로 5년』. 서울: 마리북스, 2017.
- 이승중. “생활양식과 언어게임.” 「철학적 분석」 2(2005), 121-138.
- 이장로. 『교회 경영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6.
- 이혜진. “호서대, AI 활용인재 양성에 올인.” 「AI타임스」. 2019.12. 접속 2019.12.27.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781>. (인터넷)
- 장길수. “독일에 등장한 로봇 성직자.” 「로봇신문사」. 2017.5. 접속 2019.10.4.
<http://m.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71>. (인터넷)
- 정 현. “2040년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 「위즈뉴스」. 2017.4.
접속 2019.11.4. <http://www.w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 (인터넷)
- 차두원 외 14인. 『4차 산업혁명과 빅뱅 파괴의 시대』. 서울: 한스미디어, 2017.
- 클라우드 슈밥/ 송경진 역.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 현재, 2016.
- 클라우드 슈밥 외 26인/ 김진희 역. 『4차 산업혁명의 충격』. 서울: 흐름출판, 2016.
- 하도균 · 이경선. “다종교사회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의 전도전략.” 「신학과 실천」 56(2017), 652-653.

- 한석희.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서울: 페어퍼로드, 2017.
- 황병준. 『미래교회 트렌드』. 서울: 올리브나무, 2015.
- Chaum, David. "Anniversary Keynote A Dddress Speech, Financial Cryptography and Data Security 2016." Twentietb International Conferece. February 22-26, 2016.
- Chadwick, Ruth. *Medical Enhancement and posthumanity*. (NewYork: Springer, 2008).
- Drexler, E. *The Engines of Creation: The Coming Era of Nanotechnology*. New York: Anchor Books, 1986.
- Herzfeld, Noreen. "Creating in Our Own Imag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mage of God," in *Zygon*, June 2002, vol.37.
- Kelly, Kevin. *Out of Control: The New Biology of Machines, Social System, & the Bconomic World*. New York: Basic Books, 1995.

■ Abstract ■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of the Future Church in the Era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countermeasures for the church of the next generation in view of the unimaginable innovation in human society trigger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emerges as the co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ng creative information on its own, the church should also urgently prepare for i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d prepare for a new pastoral paradigm with an outlook for the future church to critically analyze and engage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even takes the place of preach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be faster and more innovative than any other Revolution in the past, which we have experienced. The three big technologies that will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the

Technology of Physics, Digital Technology and Biology. These technologies signal that over time it will permeate every object, industry and country and will require innovative and comprehensive changes throughout humankind. AI robots have gone beyond industrial or service robots. They are being developed into emotional robots that can communicate and share emotions with humans. We are moving toward an era of coexistence in which humanoid or human robots and humans live together. Social consensus for good robots along with Christian and ethical programs are urgently required. A survey on the use of AI robots has been conducted to examine the awareness of Christians and the public. The total of 601 (six hundred and one) respondents were analyzed. The respondents of future generation in their teens and 20s were studied and the views of lay believers and pastors were analyzed by separating their positions. In particular, the analysis of responses from younger generations and pastors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future churches. The measures f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urch were examined in a positive aspect. First, this study considered what is available in the area of worship and church education. Specifically, it will help to understand how it could be applied through a hypothetical scenario in which an AI robot guides the worship service at a deathbed. In addition, it suggested the need for research and investment to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tressed the need to create a good robot with Christian ethics on it by establishing future church trends and developing programs to be mounted on AI robots. Now the church must prepare for the future. We should look at the age of Super-Artificial Intelligence in a positive light and prepare for it. We should prepare for future church trends, establish big data for Christianity and spu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be installed in Artificial Intelligence. A positive and active attitude towar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rather be a new opportunity for the expansion of the gospel.

Keyword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oid, human robots, future churches, future church network

논 찬 1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에 대한 미래교회 대응 방안 연구”에 대한 논찬

정 재 영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 종교사회학)

1. 논문의 내용과 의의

최근 미래 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핵심 중의 하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이다.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떠오른 인공지능이 인류사회에 커다란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미래교회의 실험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인공지능과 그 기술적 특이점의 영향을 살펴보고, 약한 인공지능에서 강한 인공지능, 그리고 슈퍼 인공지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여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기준점인 특이점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구조를 급격히 바꾸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므로 신학적·철학적인 이해와 윤리적 합의가 필요함을 언급한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회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활용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과 영적인 관심을 분석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의 생각은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점과 교회에서도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 결과에 따라 미래교회의 활용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미래교회에서는 예배와 교육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 실험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안을 통해 교회의 모든 사역과 구

조가 디지털화를 이루어야 하며, 인공지능 로봇에 탑재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기독교 윤리를 담은 착한 로봇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미래이슈와 미래교회 네트워크를 제안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복음 확장에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함을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산업 전반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우리의 생활 양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와 신앙생활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특히 다양하고 폭넓은 변화를 주도할 인공지능에 천착하여 그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성 있는 논문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미래교회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활용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고 목회 현장에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2. 질문과 토론 거리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변화의 한 가운데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전망하고 인공지능을 통한 목회에 대해서 제안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논문의 완성도 제고와 토론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자가 다루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고 여겨진다.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보는 반대 견해가 있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성찰이 필요함에도 논문의 내용은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기여 쪽으로 기울어 있고 그것이 가져올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일자리 감소, 직업 소멸 의식의 약화, 숙고의 부족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협, 그리고 윤리적인 판단까지 인공지능에게 전가하는 등의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긍정적인 면만 부각되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교회에서 인공지능 로봇 활용에 대한 관심도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자료의 성격에 대한 내용이 없다. 설문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표본 추출이다. 이 논문에서는 6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고 하였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떤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논문 내용을 보면 비기독교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교회에 대한 설문 조사에 비기독교인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응답자 중에서 목회자 비율은 개신교 인구 중에서 목회자 비율과 다른데 이렇게 표집한 이유가 궁금하고, 그럼에도 목회자와 일반 신자의 의식 차이를 분석하지 않은 것도 아쉽게 여겨진다.

연구자는 미래 교회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의미를 미래교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미래교회의 교육, 목회, 행정 전반에 디지털화라고 짧게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화라는 것이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 해야 한다는 것인지 모든 것을 인공지능화 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물론 사회가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이 디지털화되어야 더 깊이가 있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신학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미래 이슈와 미래교회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제안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다가올 미래 사회의 주요변화를 예측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어떠한 분야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는지 이슈별로 미래에 현실적으로 발생할 문제점과 영향력, 이슈들 간의 충돌사항, 그리고 그 이슈들과 핵심기술의 연관관계들에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의미와 노동의 미래, 이에 따른 직업 소명 의식의 변화, 미래 사회의 빈곤 문제와 민주주의의 약화 우려 등도 미래 사회의 도래와 관련하여 교회가 준비해야 할 중요한 이슈들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 온 시점에서 이에 도움이 되는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더 깊이 있게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논 찬 2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에 대한 미래교회 대응 방안 연구”에 대한 논찬

신 승 범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 기독교교육과)

I. 요약

박도훈 박사(이하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을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으로 떠오른 인공지능이 인류사회에 상상할 수 없는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미래교회의 실험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는 우선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제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 기술 진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공지능(AI)를 설명합니다. 뒤이어 연구자는 설문을 통하여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내 인공지능 로봇활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습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교회 구성원 대부분 교회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92.6%)을 보였지만, 설교 및 성경공부 등과 같은 영적인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 행정, 도우미 등 업무나 행정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의 AI의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연구자는 죽음을 앞둔 성도의 임종 순간과 AI를 활용한 성경공부 상황을 가상 시나리오 형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 세 가지를 제안하였는데, 첫째 제안은 미래교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안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배를 위해서는 멀티미디어 예배 연구, 오감활용 성만찬 연구, 인간형 로봇의 활용 연구팀 구성 등이 제안되었고, 교육을 위해서는 스

마트 성경 공부 교재 연구, 가상 및 증강현실 체험 교실 프로그램, 인간형 로봇의 교육 현장 활용, 선교에서는 선교지 통번역 시스템 활용, 이단 구분 및 판별 인공지능 정보 활용 등을 제안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성경적 사고와 윤리를 담고 있는 착한 로봇 만들기 프로젝트 제안입니다. 더불어 교회는 로봇 제작자, 사용자, 관리자에게 필요한 윤리적 책임, 도덕적 원리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다가올 미래 사회의 주요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교회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II. 제언과 질문

제4차 산업혁명시대, 특히 인공지능의 출현 및 발전이라는 피할 수 없는 기술의 진보를 경험하는 교회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다루는 연구라 호기심도 생기고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할 수 있는 연구여서 논문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의 논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연구자는 기술의 혁신에 발맞추어 교회는 어떻게 그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구의 결론 마지막 부분에서도 연구자는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는 오히려 복음 확장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기술 환경의 변화에 매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수동적인 입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인간이 아닌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순응해 가는 인간이라는 맥락에서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능동적이고 주체적 이려면 기술 문명의 진보가 인류에게 필요한 이유와 활용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출현이 인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도 많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면도 함께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자리의 감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로의 부의 편중, 수입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등과 같은 전망도 함께 예측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개인적으로 교회(종교)의 역할이 더 크게 부각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의 연구가 기술 진보를 외면하지 않는 미래교회라는 측면에서 동의가 되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사회학적 성찰도 함께 이루어졌다면 더 좋은 논문이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연구자가 신학적 이해를 다루시기는 했지만 분량이 너무 적었고 너무 개관적이어서 아쉬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발전의 낙관적 측면과 함께 부정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고 이 부분에 대한 교회의 고민도 더 많이 다루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 연구자는 교회교육 또는 예배에 있어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의 기술 도입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자가 언급한 것처럼 “문화적 기술을 융합하는 교육적 시도”가 시급한 과제다, “학교교육은 이미 미래교육의 혁신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다. 교회교육도 현실에 안주해서는 미래가 없다.”라고 언급하셨는데, 교육부에 의해 주도되는 공교육 스마트 교실환경에 대한 부정적 입장도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가상현실을 이용한 예배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3. 연구자가 제안하신 ‘기독교 미래준비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제안이 어떻게 실현 가능할지 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4. 설문조사 결과에서 AI의 영적인 측면의 활용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으로 응답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교회도 기술혁신의 시대를 피해 갈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고민이 필요하고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논의를 개진해 주신 박도훈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논의가 교회 안에서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좋은 논문 감사드립니다.

제 3 발표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미디어 영상예배를 위한

실천신학적 방법론¹⁾

-헬무트 쉬비어(Helmut Schwier) 중심으로-

윤 성 민 박사

(강남대학교 KNU참인재대학 / 설교)

■ 초 록 ■

코로나19 사태에서 한국교회는 공식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되었다. 이 전염병은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으로 전염이 되는데 그 전염력이 무척 높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미디어를 통한 영상 예배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매체미학에 관한 이해 없이 예배와 설교를 바로 송출하였다. 독일에서도 방송 예배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방송 예배는 선교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헬무트 쉬비어는 방송 예배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으로 시청자와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였다. 일단, 방송의 서론 부분을 일반 예배와는 다르게 시청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교회의 내부 장식을 매체미학적으로 촬영하여 설교 이외의 또 다른 신학적 의미로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할 때에는 영상 예배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도 함께 사용해서 평신도들이 주중에도 성서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다. 이제는 방송 예배와 유튜브를 통한 예배도 교회의 책임감 있는 공익성을 생각하면서 시청자와 소

1)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4152】 / 이 논문은 「신학과 실천」 69(2020)에 게재될 예정이다.

통해야 한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교회가 이런 사태를 막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현장을 영상으로 짧게나마 보여줌으로써 비기독교인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다. 에른스트 랑게의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회중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또 다른 증언과 삶으로 사회 안에서 복음의 소통을 이루어야 한다. 방송예배는 이런 소통이 일어날 때 완성된다. 하지만 미디어를 통한 예배는 교회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대신할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송 예배를 송출해도 이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점들을 고려하면서 또다시 다가올 코로나19의 2차 파동이나 X-이벤트에서의 교회의 영상 예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예배신학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주제어: 코로나19, 방송 예배, 유튜브 영상 예배, 헬무트 쉬비어, 매체미학

I. 들어가는 말

2013년 국제화 시대의 전 세계로 확산하는 전염병을 놓고 ‘X-이벤트’ 연구 시나리오들이 나왔다. 이 당시만 해도 슈퍼전파자에 의한 병원과 대형 밀집 시설 중심으로 집단감염 확산을 우려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특정 이단단체를 중심으로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교회가 타격을 입게 되었다.²⁾ 비록, 신천지와 만민중앙교회와 같은 이단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였지만, 몇몇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종교의 자유와 공공성이 충돌했다. 이제 한국교회는 정부와 일반 시민들이 종교가 교리(혹은 주관적 가치) 중심으로 구성하였더라도 공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런 사태에서는 사회제도의 통제를 받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³⁾ 이런 생각은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인 사고방식이고 한국교회가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의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고 예배를 못 드리고만 있겠는가? 아니다.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 한국교회는 6.25전쟁에서도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다. 이렇게

2) 윤정현, “현실이 된 X이벤트: 한국사회의 감염병 대유행 시나리오,” 『FUTURE HORIZON』 44(2020), 17.

3) 김창호, “[공공칼럼] 코로나-19, 종교, 그리고 공공성을 생각한다,” 『월간 공공정책』 174(2020), 71.

공식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든 목회자에게는 충격과 슬픔,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예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교회홈페이지조차 없는 소형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에는 부족한 시설과 재정적 어려움이 큰 문제였다. 이에 비하면 중대형 교회는 매주 홈페이지에 예배 실황을 올려놓을 수 있기에 영상 예배를 제작하는 일이 비교적 쉬웠다. 소형 교회의 목회자는 유튜브 영상을 처음 제작해 보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의 라이브 톡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전송하기도 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이에 관련된 예배신학적 방법론이 부족하기에 예배가 제대로만 송출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유튜브를 보면 다양한 교회에서 다양한 영상예배를 시도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그리고 매체미학에 관한 이해가 없기에 그 교회의 교인만 보는 영상 예배가 되었고 새로운 일상(New Normal)에서 온라인 예배는 목회자에게 새로운 도전과 숙제가 되었다.

필자는 이 소논문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염병이 퍼질 때에는 사람 간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예배신학을 정리해 보고, 또한 그 방법론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독일에서 ZDF(Zweites Deutsches Fernsehse)에서 주일 예배를 방송한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헬무트 쉬비어는 주일 방송예배를 위한 예배학적 신학과 방법론을 정리해 놓았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회에서 2005년 12월 4일과 2007년 1월 28일에 일반 예배를 단순히 송출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예배를 방영하였는데 시청률이 올라갔다. 그 방법은 기독교 방송이 아닌 일반 방송에서도 쓰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예배를 그냥 방송하는 것과 방송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시청자의 이목을 끄는 방법을 쓰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과 기술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도, 각 가정에서 대표기도, 성서봉독, 특송 등을 녹화해서 하나의 예배로 편집할 수 있다. 또한, 소통도 중요하다. 기독교 방송국은 시청자의 의견을 통해서 프로그램과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고, 일반 교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예배를 송출할 때는 목회자가 댓글이나 언론을 인식하면서 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전염병 확산을 막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돕는 모습을 영상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담는 것이 비기독교인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다. 이 소논문에서는 예배학적으로 방송 예배를 살펴보고 그동안의 방법론과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작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나 현장에서 바람직한지를 살펴보고 한다.

II. 독일 방송 예배에 관한 이해

헬무트 쉬비어는 독일에서 매주일 방송되는 텔레비전 예배에 관해서 예배학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예배를 단순히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학적인 요소를 넣어서 설교와 예배뿐만 아니라 영상 화면에서 시청자가 메시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영상 미학의 의미는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전통적 개념의 미학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영상 미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메시지를 미학적으로 전달하는 매체로 이해된다.⁴⁾ 기독교 영상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누구인 가라는 질문과 답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배와 설교, 그리고 영상에서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시청자에게 인식되어야 한다. 영상 예배가 가장 추구해야 할 최종 목표는 그 날 메시지가 시청자의 언행으로 드러나서 또 다른 복음의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예배와 설교가 추구하는 ‘복음의 소통(Kommunikation des des Evangeliums)’이다.

1. 선교적 가치로서의 방송 예배

독일에서 80년대부터 텔레비전으로 송출하는 방송 예배가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오히려 방송 예배가 예배의 본질을 흐리게 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방송 예배는 설교와 예배, 그리고 여러 장면이 현장 예배에 비하면 빠르게 진행된다. 그 당시 독일교회에서는 현장 예배보다 압축된 영상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느냐는 논쟁이 있었다. 칼 프린츠 다이버(Karl Fritz Daiber)는 방송 예배는 일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서 방송에서 전달될 수 있는 요소들만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⁵⁾ 한국교회도 신자는 아파도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인식이 한국교회의 하나의 미덕인 것처럼 여겨져서 부득이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현장 예배를 고수하였다. 한국교회 역시, 독일교회가 인식하는 것처럼 방송 예배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독일교회는 텔레비전 방송이 예배에서 일어난 일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실재(Reality)를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방송의 결과가 일정한 장소에서 드러지는 예배의 결과와도 같지 않다는 인식도 하게 된 것이다. 방송 예배가 시청자에게는 ‘예배 필름(Film eines Gottesdienst)’이고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방송 예배를 신자가 모이는 예배의 축제처럼 생각하지는 않았다.⁶⁾

90년대 초반에 독일교회는 방송 예배에 관한 논쟁이 한 번 더 생겨났다. 방송 예

4) 이태훈, “영상 미학(촬영 기법)을 통한 연출 주제 및 스토리텔링 표현의 사례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0(2009), 412.

5) Charlotte Magin/ Helmut Schwier, *Kanzel, Kreuz, und Kamera: Impulse für Gottesdienst und Predigt*,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5), 13.

6) *Ibid.*, 13.

배가 목회자의 명성과 결부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방송예배를 보면 독일개신교회(EKD)에서 발행하는 예전의식과 차이가 있고, 오히려 예전의식을 경시하는 경향까지 보이는 것이었다.⁷⁾ 이것은 한국교계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기독교방송이 후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방송국의 후원 금액에 따라서 방송 요일과 시간대가 결정된다. 물론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목회자의 설교를 방송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방송사는 선교비 후원에 따라서 방송 시간대를 결정하고 설교를 방송에 내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독일교회도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신청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직접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⁹⁾ 그렇다면 독일교회는 방송 예배의 타당성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오랜 논의 끝에 방송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내용으로 가짐으로써 방송 예배의 타당성을 찾게 되었다. 이런 신학적 논의가 있는 과정에서 교회의 선교적인 면에서 방송 예배의 유용성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방송 예배가 선교학적 측면에서 하나의 기회가 된 것이다. 독일교회가 이런 논쟁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 그것은 과거 제국교회(Reichskirche)에 관한 경험 때문이다. 한국교회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1980년 8월 6일 전두환 독재자를 위한 조찬기도회에 고한경직, 김준곤 목사 등의 23인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신군부를 지지하고 축복한 장면을 방송한 적이 있다. 그래서 독일은 방송 예배에서 선교의 본질과 과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지금도 크리스티안 그레트라인은 방송 설교와 예배를 효과적인 선교의 방법으로 그 의미를 찾고 강조하고 있다.¹⁰⁾

헬무트 쉬비어는 에른스트 랑게(Ernst Lange)의 설교학의 주제인 ‘복음의 소통(Kommunikation des des Evangeliums)’과 한스 에케하르트 바르(Hans-Eckerhard Bahr)의 ‘정보로서의 선포(Verkündigung als Information)’를 바탕으로 방송 설교의 타당성을 말한다.¹¹⁾ 독일 실천신학에서는 기독교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간접적인 형태(Indirekte Form)를 분석하고 설교에도 적용한다.¹²⁾ 방송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와 시대 간의 대화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달되는 저널리즘인 미디어와 연관된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다.¹³⁾ 교회의 메시지를 공개된 장소에서 전달하고 나눌 때에는

7) *Ibid.*, 14.

8) 이장형, “한국 기독교의 선교방송 편성 현황과 운영 개선 필요성,” 『기독교사회윤리』 (26, 2013), 267.

9) Charlotte Magin/ Helmut Schwier, *Kanzel, Kreuz, und Kamera: Impluse für Gottesdienst und Predigt*, 14.

10) 크리스티안 그레트라인/ 김상구 옮김, 『예배학 개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42.

11) Charlotte Magin/ Helmut Schwier, *Kanzel, Kreuz, und Kamera: Impluse für Gottesdienst und Predigt*, 14.

12) *Ibid.*

13) *Ibid.*

교회의 실천(praxis)이 요구된다. 그래서 방송 예배는 그 특성상 설교와 예배가 일반 지역 교회와는 차별이 있어야 한다.¹⁴⁾ 만프레드 조슈티스(Manfred Josuttis)의 이론에 의하면 예배 혹은 예전이 있는 전통예배의 상징적 행동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 헬무트 쉬비어는 방송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많은 변화를 주면서 생동감 있게, 그리고 매우 실험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¹⁵⁾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 방송 예배에서 매체미학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매체미학은 매체를 단순한 기술적 수단이 아니라 주체의 지각과 사유, 현실(실재)성의 가능성과 형식을 선-구조화하는 ‘역사적-선험적 조건’으로 본다. 매체미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매체가 산출하는 ‘형식들’과 매체의 고유한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주체가 공간을 경험하는 양상이 어떻게 변모하는가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매체미학적 접근은 현상학적 접근과 서로 생산적으로 접촉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상학적 접근도 ‘추상적-객관적인 구조’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주체가 몸과 마음으로 생생하게 경험하는 공간성의 차원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인간 존재의 구체적인 상황, 인상, 지각, 이해, 사유의 측면에서 공간성의 문제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현상학과 매체미학은 깊은 친화성을 갖고 있다.¹⁶⁾

그래서 헬무트 쉬비어는 방송 예배가 지역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냥 방송한 것이 아니라, 방송국과 실천신학자, 예배학과 설교학, 설교실습과 방송국 사이에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⁷⁾ 방송 설교가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믿음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라면 이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¹⁸⁾ 방송 설교는 연역적으로 믿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 더불어 방송 장면 하나하나에서 시청자는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인식해야 한다. 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 예배를 보고 설교를 듣는 사람은 다양한 장면에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인식할 수 있다. 인식의 개념은 내면에 가지는 느낌, 가치, 믿음, 신념, 의견, 선호, 태도, 이미지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¹⁹⁾ 시청자는 단순히 설교만을 인식하지 않는다. 방송 장면이 교회 내부를 비출 때에도 시청자는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점에 한국교회는 그동안의 교회 건축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

14) *Ibid.*, 15.

15) *Ibid.*

16) 하선규, “현대 영상매체와 공간적 경험에 관한 매체미학적 연구,” 『미학』 71 (2012), 186.

17) Charlotte Magin/ Helmut Schwier, *Kanzel, Kreuz, und Kamera: Impluse für Gottesdienst und Predigt*, 16.

18) *Ibid.*, 17.

19) 여현철, 정재하, 진창현, “시청자 집단의 심의 인식·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2014), 89.

그렇다면 헬무트 쉬비어가 말하는 방송 예배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방송 예배의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을 시청자를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추가하는 것이다.

1) 방송 예배의 서론 부분

헬무트 쉬비어는 오르간 반주로 시작하는 입례송에 6명의 멘트를 넣고 예배를 시작하였다. 이 방송은 총 45분으로 진행되었는데, 처음 2분은 ‘일상에서 나옴(Raus aus dem Alltag)’의 의미로 구상하였다. 일반 예배와 다른 점은 6명의 학생이 교회 신도석의 뒷좌석 부분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본인의 느낌과 고민을 짧게 이야기한다. 이때 화면은 제단의 촛불이 점화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처음 장면에는 오르간 연주의 모습이 짧게 나오면서 독일 찬송가 EG 70 ‘새벽별이 얼마나 아름답게 비추는가(Wie schön leuchtet der Morgenstern, 요한 세바츠찬 바흐의 곡)’의 전주 부분을 각색하여 연주하였다. 그 전주 부분에 6명의 학생이 등장한다. 오르간 소리가 나고 첫 번째 학생은 ‘월요일 17시 30분: 요가 코스에서 긴장을 풀었다. 거기에서 평온함을 느낀다. 나에게 좋다’라는 말을 한다. 그리고 다시 오르간 소리가 나고 두 번째 학생이 ‘화요일 10시: 나에게 편지가 왔다. 아쉽게도 신청서가 나에게 돌아왔다. 이 편지에는 나의 서류가 담겨서 나에게 돌아왔다(지원한 곳에서 떨어져서 서류가 나에게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다시 오르간 소리가 들리고 세 번째 학생이 ‘수요일 저녁: 축구-챔피언스 리그. 달리고, 싸우고, 버티고, 공을 차고 - 골대, 환호성, 열성팬- 다시 킥!’이란 말을 한다. 오르간 소리가 다시 드리고 네 번째 학생이 ‘목요일 9시: 논문 결과가 여기에 있다. 연구실에서 초초하게 기다리고 있다.’ 똑같은 방식으로 다섯 번째 학생이 ‘금요일: 다시 채팅하고 있다. 나는 사냥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내가 꿈꾸는 여인이다’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학생이 ‘토요일 오후: 아직도 축제하고 춤추고 파티로 모이고 있다. 이번 주의 최고이다! 나는 비범하다. 그리고 내일은 예배인가?’라는 마지막 이야기를 한다.²⁰⁾ 헬무트 쉬비어가 이렇게 방송 예배의 첫 부분을 만든 이유는 독일 시청자의 생활 이야기를 이 방송 예배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위의 대사들은 독일 대학생의 일상 대화 주제이다. 이것은 방송 예배의 처음 부분에서 신청자의 이목을 끌기 위한 장치이다. 방송, 특히 뉴스에서도 도입부(lead)와 클로징(closing)에 공을 들인다. 그 이유는 첫 문장에서 기사의 첫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방송에서 많은 신청자를 그 채널에 붙잡기 위해서는 그 뉴스와 기사를

20) Charlotte Magin/ Helmut Schwier(Hg.), *Kanzel, Kreuz und Kamera konkret: Ein Gottesdienstprogramm aus Heidelberg*,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8), 126-127. 유튜브에서 ‘fernsegottesdienst2006’를 검색하면 하이델베르크 대학교회에서 촬영한 이 방송예배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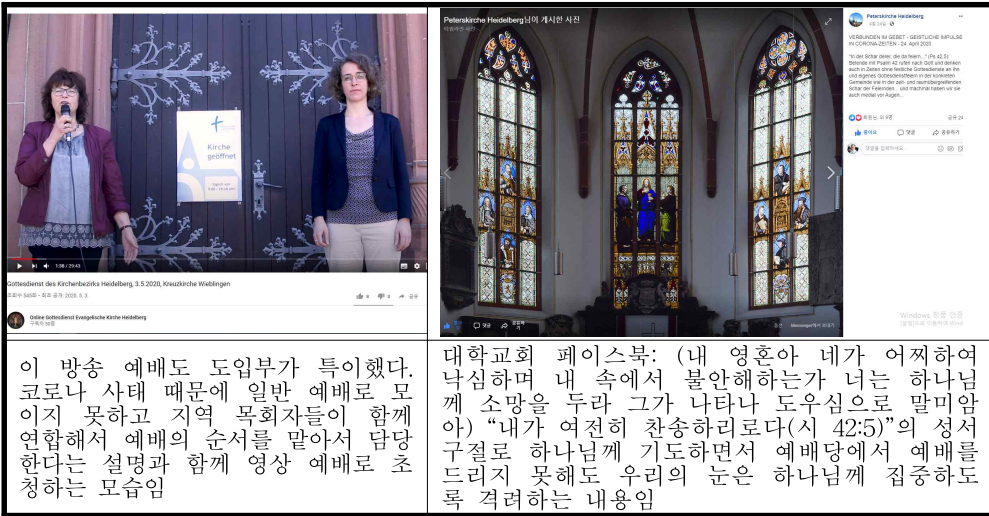
리드하는 짧은 영상이나 스토리를 넣는다. 그 영상과 스토리는 시청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신청자의 삶과 결부된 내용이다. 그리고 클로징(closing)에서는 ‘귀에 솔깃해지는 마지막 문장(ear-catching close)’, ‘시청자가 기사 끝 부분에서 마음에 남을만한 한 문장’을 강조한다.²¹⁾

이와 같은 작업은 일반 예배에서는 볼 수 없다. 이것은 방송 예배만을 위한 서론인 것이다. 그리고 나서 회중은 독일 찬송가 EG 70 ‘새벽별이 얼마나 아름답게 비추는가(Wie schön leuchtet der Morgenstern)’를 부른다. 예배인도자인 헬무트 쉬비어의 환영 인사와 더불어 앞서 말한 6명의 학생은 손에 촛불을 점화시킨 후에 예배당 옆에 있는 기도의 촛대로 향한다. 그리고 그 촛대 위에 손에 들었던 촛불을 놓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은 이 예배가 독일 신청자의 삶과 무관하지 않고, 비록 방송이지만 그들이 관심을 하나님 앞으로 집중하기 위한 매체미학적 방법론을 쓴 것이다. 독일 신청자는 일상에서 벗어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방송 예배에서 단계적으로 각색하여 송출한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때 ZDF 방송의 실시간 시청률이 다른 주일 방송 예배보다 높았다는 것을 헬무트 쉬비어가 ZDF 방송국에서 확인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모든 일반 방송에서 사용하는 방송 기법이다. 필자는 교회에서 예배를 단순히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송의 기법들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방송에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앞서 말한 6명의 학생이 다시 나와서 짧게나마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설교자와 함께 퇴장을 한다. 이것은 예배 후의 짧게나마 예배에서 받은 감동을 나눈 장면이다.

<표1> 방송 예배에 맞추어서 도입부를 변형한 교회의 방송 영상(하이델베르크 대학교회와 비블링겐 교회)과 코로나 사태에서의 하이델베르크 대학교회 페이스북의 한 장면

| 하이델베르크 대학교회의 방송 예배 중 도입부 | | |
|---|--|--|
|  |  | |
| 학생이 일상생활을 독백하는 모습 |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교회 예배당의 제단으로 나아감 | 본인의 삶과 고민을 기도로 올려 드리는 장면(촛불에 불을 붙임) |
| 비블링겐(Wieblingen) 교회의 영상 예배 중 도입부 | | 하이델베르크 베드로 대학교회 (Peterskirche Heidelberg) 페이스북 |

21) 박성호, “1분 20초 리포트에도 스토리텔링은 있다,” 『방송기장』 20(2014). 11.



2) 신학적 미학적 메시지인 교회 건축과 내부 장식

헬무트 쉬비어는 방송 예배에서 매체미학적으로 교회 내부를 의미 있게 비추게 하였다. 교회 건축의 특징은 절대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인간의 존재의 의미인 하나님과의 결합이라는 종교의 본질을 생각하는 인간생활의 장소이다.²²⁾ 교회의 상징적 표현의 가치는 하나님을 목상하고 성서적 메시지를 인식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교회 건축에서 예전적 의미보다는 실용성에 목적을 두어서 미학적으로 이점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건축가인 최준영, 강철희는 한국교회의 건축은 영적 안식과 공동체의 장으로써 그 의미를 잊어버린 교회 건축물이 많아졌다고 지적한다. 교회는 주위 건물 간의 상대적인 부조화롭고 교회의 대형화는 기능 위주의 교회 건축을 양산하여 획일적이면 조잡한 조형요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²³⁾ 그래서 영상 예배에서 예배의 성성(聖性) 즉, 교회 내부의 신비감 등과 같은 영적 실재(spiritual reality)를 담아내지 못한다.²⁴⁾ 신앙을 표현할 때에 기호(sign)와 상징(symbol)이라는 전통적인 언어에도 성서의 메시지가 있다. 예배 예술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하는 예술이다.²⁵⁾ 형식과 표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형적 접촉점으로서, 영적인 예배가 이와 같은

22) 최준영, 강철희, “종교적 상징 요소와 표현연출을 적용한 현대 교회 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9(2019), 145.

23) *Ibid.*, 144.

24) 조기연, “영상예배(멀티미디어 예배)의 예배학적 이해 -울산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신학과 선교」 27(2002), 336.

25) 제임스 화이트, 수잔 화이트/ 정시춘, 안덕원 옮김, 『교회 건축과 예배 공간』 (서울: 새물결, 2014), 242-243.

유형적인 형식과 표징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러진다.²⁶⁾

헬무트 쉬비어는 평소에 대학교회의 전통적인 내부 장식에 관한 교육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교육한다. 이번 코로나 19사태에서 그는 오로지 한 사람만이 빈 예배당에 나와서 제단에 촛불만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하였다. 그 화면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단 한 사람이 있었지만, 촛불의 신학적 의미를 교육받은 신자들은 그 의미와 더불어 교회 내부의 신학적 의미도 함께 묵상하게 되었다. 필자도 교회에 갈 수 없는 허전함과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도 하이델베르크 대학교회 내부에서 느껴지는 신학적 메시지를 미학적으로 묵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히려 필자의 마음에는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은 비단 필자만의 느낌은 아닌 것 같다. 그 이유는 교회 내부의 조각과 미술품 등에서 신학적 의미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여기에서 방송 예배와 신학적 미학의 밀접함을 생각해야 한다. 신학적 미학은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전통, 혹은 신학의 가치 등에서 미학의 요소들을 다룬다. 신학적 미학은 신앙에서 예술, 교회건축, 내부 장식, 상상력, 아름다움 등에 담겨진 미학적 요소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한 통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²⁷⁾ 헬무트 쉬비어는 미디어를 통해서 교회 건축과 교회 내부의 기독교 미술 작품이나 스테인드글라스 등을 통해서 기독교 전통과 신앙의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도 사용하였다.

3)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 소셜미디어의 활용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멀티미디어 시대에서 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설교와 예배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 버렸다. 멀티미디어가 가진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이용한 기독교의 선교 사명, 특히 신세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실천신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10년을 전후로 디지털 문화시대인 컨버전스 교회들이 나타났다.²⁸⁾ 20대 이하 세대들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주역들이다. 이 디지털 세대들은 모바일, 쌍방향, 웹2.0, 미디어2.0,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능숙하게 사용한다.²⁹⁾ 민장배는 홈페이지를 통한 교회 소식과 예배 안내, 그리고 설교문과 영상을 게시하는 차원을 넘어선 세례교육과 새신자 교육, 그리고 사이버 강의(교리교육, 인물, 책별, 주제별 등)를

26) 로버트 웨버/ 김지찬 옮김, 『예배학』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147.

27) 이소명, “절대자를 만나는 예배로서의 미술: 신학적 미학을 통한 오의석 작가의 스토리텔링,” 「신앙과 학문」 23(2018), 194.

28) 김명찬, “새로운 모바일 디지털시대의 변화에 대한 예배의 세대별 대응 모색,” 「신학과 실천」 24(2010), 338.

29) *Ibid.*, 343.

이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일반적인 교육이 아닌 신앙에 유익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도전하는 것이 미디어 시대에 더 적합하다고 말하였다.³⁰⁾ 미디어 발전의 역사는 직접 커뮤니케이션인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커뮤니케이션(face-to-face communication)이 갖는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역사로 해석 미디어로 확산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등장했는데 바로 이것이 ‘미디어2.0’이다.³¹⁾ 미디어 2.0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족은 자유롭고, 이 세대를 위한 맞춤형과 개인화를 좋아하는 새로운 감시자들이다. 그리고 소비성향에서도 기업의 이미지(정직, 사회공헌 등)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교육과 일,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엔터테인먼트와 놀이를 원한다. 그런데 이 세대는 협력적 작업과 관계를 중시하고, 빠른 커뮤니케이션으로 즉각적인 결과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이 세대는 혁신을 주도한다.³²⁾ 교회는 이런 세대의 특징을 알고 그 특징에 맞추어 이런 새로운 세대와 소통할 줄 알아야 한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회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모이지 못했다. 독일의 젊은이들도 한국의 젊은이들만큼 인터넷에 빠르지 못해도 페이스북과 팟캐스트를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헬무트 쉬비어는 페이스북과 팟캐스트를 통해서 교회의 신자들이 위로받고 어려움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격려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성서구절과 독일복상자인 로중(Losung), 그리고 성서적 메시지가 전달할 수 있는 교회 내부의 사진이었다. 팟캐스트는 간략한 기도회 형식을 진행하였다. 미디어와 유튜브에 익숙한 젊은이들은 성가대 찬양을 다양하게 촬영하고 녹화하였다. 이번 사태에서 다양한 연령의 교인들이 다양한 직장과 직업의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모습과 예배의 특정 부분을 녹화하였고, 이것을 편집하여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한 영상이 많았다. 이것은 인터넷이 익숙한 신세대가 새로운 방송 예배문화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고, 젊은 세대에게는 이런 작업에서 높은 성취감을 느낀다.

4) 방송을 보는 사람과의 복음의 소통: 공익성과 코로나19 사태에서의 교회 역할 강조

요즘 젊은 신세대에게 기독교 방송채널보다는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더 익숙하다. 2019년 유튜브 사용자는 3,0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면 연간 수익을 벌어들이는 유튜버는 이제 청소년이 선망하는 직업군이 되었다. 그만큼 유튜브의 파급력과 영향력은 크다. 유튜브는 미디어 플랫폼(PC, 모바일 플랫폼, 스마트폰, IPTV)와 소셜미디어 플랫폼, 그리고 검색 기능도 가능한 오늘날 뉴미디어 환경에서 다양한 역

30) 민장배, “미디어를 통한 신앙 교육 활성화 방안,” 「신학과 실천」 48(2016), 496.

31) 김명찬, 343.

32) *Ibid.*, 346.

할을 담당하고 있는 초대형 플랫폼이다.³³⁾ 변현진은 유튜브 채널 성장법칙은 독창적 콘텐츠 기획과 잘 전달되도록 내용을 간략하게 편집할 수 있는 능력, 채널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 그리고 시청자들과 소통하면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³⁴⁾ 교회의 영상 예배를 제작할 때 유튜브의 이런 특징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교회와 그 설교자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콘텍츠 영상과 간결하면서 잘 전달되는 설교와 편집된 영상, 그리고 그 유튜브를 보는 사람과의 소통하는 것이다. 단순히 예배와 설교만을 송출하면 유튜브에서는 그 효과가 떨어진다. 에른스트 랑게의 복음의 커뮤니케이션(Kommunkation des Evangeliums)는 결국 회중과의 소통을 통해서 완성된다. 방송 예배와 설교도 그 시대의 시청자와의 소통으로 완성된다. 이 소통은 기독교만의 소통이 아닌 비기독교인 신자와의 소통도 포함한다.

방송 예배에서 생각해야만 하는 부분은 공익성이다. 천주교의 평화방송은 지속적으로 공익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평화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천주교 신자, 가족과 성직자에 대한 신뢰에 결속적 대인신뢰를 증진시킨 반면에, 다른 종교의 신자와 보편적 타자에 대한 신뢰는 저하된 점,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와 후원을 증진했으나 사회정치적 참여의지에 대한 영향력은 미약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³⁵⁾ 천주교 방송인 평화방송은 이런 연구결과를 방송에 반영하고 있다. 종교 채널에는 의무전송이 있다. 이것은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의견 수용하고 다양한 채널 구성 및 시청자의 복지를 위함이다.³⁶⁾

그런데 과연 기독교 방송국이 평화방송처럼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다. 기독교 방송은 기독교인만의 결속적 대인신뢰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와의 교량적 대인신뢰까지 그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2005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천주교가 불교와 개신교보다 대폭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천주교는 불교보다 대중성과 현실성이 강하고, 개신교보다는 천주교가 화합과 포용, 그리고 성직자의 이미지 평가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³⁷⁾ 방송에서 시청자의 인식을 파악하려는 이유는 심의 필요성뿐 아니라 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 방송 심의 만족 등 선순환 흐름으로 연결된다.³⁸⁾ 이런 조사와 심의를 통해서 미디어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필자는 여기에서

33) 변현진, “유튜브 콘텐츠의 제작·이용 환경 특성과 인기 채널 분석 및 함의점 고찰,” 「조형미디어학」 21(2018), 258.

34) *Ibid.*, 238.

35) 이로물로, 민영, “종교방송의 공익성: 평화방송TV 시청의 사회자본 증진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5, 2011), 176.

36) *Ibid.*, 178.

37) 최현중, “한국 종교의 이미지 평가 및 매체 영향력 분석,” 「복음과 실천신학」 24(2011), 258.

38) 여현철, 정재하, 진창현, “시청자 집단의 심의 인식·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콘텍츠학회 논문지」 14(2014), 99.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기독교방송국은 이런 공식성에 관한 연구와 자체적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한다면 유튜브 이용자와 소통하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개선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단순히 예배와 설교만을 유튜브로 내보낸다고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만을 모으려는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이미지 전도를 통해서 비기독교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지역 사회에서 좋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³⁹⁾

2020년 2월 7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교회 신뢰한다(31.8%)’보다 ‘한국교회 신뢰하지 않는다(63.9%)’가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종교는 가톨릭(30.0%), 불교(26.2%), 그리고 개신교(18.9%)로 개신교가 가장 낮다. 옛 38세대인 86그룹은 한국기독교의 보수교단과 독재 정권의 결탁을 보아온 세대이다. 그래서 한국의 반기독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의 우파가 한기총과 함께 연대하고 있기에 교회에 대한 비판은 포퓰리즘적인 성향까지 띄고 있다. 한국사회의 세속화 또는 후기 세속화의 모습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사회 속에서 공공의 담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비우호적인 분위기와 세속화의 물결, 그리고 비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한국사회에서 주변화가 되어 가고 있다.⁴⁰⁾

5) 방송 예배의 마지막: 전염 방지와 구제를 위한 교회의 실천적 모습

한국교회는 공식 예배와 일상생활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의 예배를 강조해야 할 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독교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인생 여정의 모든 과정과 경제적 정치적 영역까지 예배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듯이 삶의 모든 영역과도 관련되어 있다.⁴¹⁾ 한국교회의 예배에서 설교자가 성도와 소통했다면, 그 성도는 그가 속한 사회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또다시 소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에른스트 랑게는 예배는 모든 삶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⁴²⁾ 김운용 또한,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부름 받은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39) 민장배, 이수한, “이미지 전도를 통한 선교적 교회성장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67(2019), 516-517.

40) 계재광, “한국사회에서 교회와 신앙인의 실천에 관한 연구 -기독교 리더십의 관점에서-,” 「신학과 실천」 47(2015), 605-606; 오세제, “38세대 세대효과의 특징 연구 -세대효과의 조건적 표출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5(2015), 138. 이 논문을 보면 38세대의 특징을 알 수 있다.

41) 김상구, “피터 브룬너와 에른스트 랑게의 예배 구성에 관한 비교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14 (2007), 221-222.

42) 김상구, “일상 생활의 기회로서의 예배-에른스트 랑게의 예배 신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삶을 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로 예배의 삶을 살도록 보냄 받는 선교 공동체라고 정의한다.⁴³⁾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한국사회에 감동을 주었던 모습은 교회의 설교와 예배가 아니라 감염을 방지하고 이웃을 도왔던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회에서 마스크를 제작하여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던 기성 교단의 백송 교회와 새빛 교회이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때 이 교회들의 미담은 방송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다. 또한, 인천지역의 10곳의 목회자들이 수요 예배 대신에 길거리에 나와서 노숙자에게 마스크와 더불어 도움의 손길을 준 것도 방송되었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실천한 교회는 사회와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코로나19 사태의 2차 파도가 몰려와서 또 다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영상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그 교회에서 실천했던 이런 일들을 짧게라도 영상에 담아서 송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

III. 영상 예배가 채우지 못하는 코이노니아

코로나19 사태는 IT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재택근무로 차량 정체가 사라지고 출퇴근 시간을 가족에게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교실 수업도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선진국의 수업이 개발도상국까지 교육의 기회를 넓혀주었다.⁴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교회의 온라인 예배까지 발전시켰다. 필자는 앞에서 예배를 그냥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1) 방송의 서론 부분을 일반 예배와는 달리 시청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는 점과, 2) 교회의 내부 장식을 매체미학을 통해서 설교 이외의 또 다른 신학적 의미를 미학적으로 시청자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 3)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염병에서 교회에 모이지 못할 때에는 영상 예배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도 함께 사용해서 평신도들이 주중에도 성서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이고, 4) 공중과 방송이나 유튜브도 교회의 책임감 있는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소통도 생각하고, 5)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교회가 이런 사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짧게나마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하였다.

필자가 인터넷이나 유튜브, 혹은 방송을 통한 영상 예배를 연구하려는 목적은 국

「백석저널」 창간호(2002), 198.

43) 김운용, 『예배,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6), 470.

44) 리처드 볼드윈, 베아트리스 베더 디 마우르 엮음/ 매경출판 편역,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코로나 경제전쟁』 (서울: 매경출판, 2020), 200.

제화 시대에 X-이벤트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가을과 겨울쯤에 코로나19의 2차 파도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한 교회에서만 공간상의 예배만을 강요할 수 없다. 교회는 종교 공공성을 지키면서 공익과 공존을 함께 중시해야 한다. 공공성의 가치와 공공윤리를 나와 더불어 타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가치이면 실천윤리이다.⁴⁵⁾ 필자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밀접 감염으로 이어진다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에게는 안식일보다 병든 사람이 중요하셨다. 게르트 타이센도 역사적 예수는 경전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고, 예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었다고 말한다.⁴⁶⁾ 이웃을 사랑한다면 전염병 확산에서 교회가 그 일을 막는 일이 당연하다. 이제는 이런 전염병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공식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이와 관련된 신학과 방법론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개발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코이노니아를 잊지 말아야 한다. 사이버 시대와 교회라는 주제는 갑자기 생겨난 주제가 아니다. 김순환은 이미 2005년에 사이버 시대의 예배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는 사이버 시대일지라도 ‘삶과의 관련성을 높이고,’ ‘상호성을 확대해야 하고,’ ‘회중의 참여도를 확대해야 하며,’ ‘다양성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비물리적인 사이버 공간이지만 회중 간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하고 평신도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⁴⁷⁾ 역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력 감소와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일에 비약물적 방법으로는 매우 효과적이다. 그런데 그 심리적 부작용도 있다. 이번 사태에서 코로나 블루(corona blue)라는 말이 생겼다. 심리적 거리감 때문에 외로움, 불안, 우울증, 신체활동과 경제적 위기 등으로 정신건강과 신체 활동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필요한 것이 사회적 거리이다.⁴⁸⁾ 이에 대한 목회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번 부활절에 목회자가 교인의 가정을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대면하지 않고 마스크와 부활절 계란을 대문 앞에 놓고 안부를 묻고 기도하면서 심방한 교회들이 많았다. 이것 또한 이번 사태에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팬더믹 이후에 몰려오는 경제위기를 목회자가 목회상담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일도 숙제로 떠올랐다.⁴⁹⁾

45) 전명수, “종교와 공공성, 이론과 실제: 종교기반 시민단체 활동의 분석적 고찰,” 『한국학연구』 68(2019), 212.

46) 게르트 타이센, 아네테 메르츠/ 손성현 옮김, 『역사적 예수』 (서울: 다산글방, 2002), 568-569.

47) 김순환, 『21세기 예배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137-143. 이외에 김순환은 온라인 예배이지만 시청자의 삶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특정한 예배 형식이나 스타일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기독교적인 정체를 지켜 나가야 하는 숙제를 제시하였다.

48) 고희광,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신체활동수칙,”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7(2020), 109.

교회에서 인터넷 예배와 영상 설교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지역 교회에서 사이버 예배가 가지고 오는 부정적인 반응을 살펴본 논문이 있다. 정근하는 도쿄 T 교회 중심으로 사이버 예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 교회에서는 기존의 신자와 갈등을 겪은 신자들이 교회 홈페이지의 동영상 설교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사이버 예배를 드릴 때 주일성수를 했다는 대리 만족을 느꼈다. 하지만 ‘공동체성,’ 즉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에 봉사, 헌신, 교제가 결여되어서 그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⁵⁰⁾ 비록 일본의 한 교회의 결과이지만 사이버 예배가 선교적인 측면보다 기존의 신자들에게 잘못 이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⁵¹⁾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결국에는 한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진정한 코이노이나를 이루는 것이 교회이다.

VI. 나가는 말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전염병 확산을 X-이벤트라고 한다. 밀폐된 환경에서 밀접 접촉은 전염병 확산의 좋은 환경이었는데 교회의 예배가 문제가 되었다. 한국에서 신천지와 만민중앙교회 등의 이단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한국교회마저 예배로 모인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사회에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또다시 남게 되었다. 6.25전쟁에서도 주일 성수를 지켰던 한국교회는 이제 이런 벽 앞에서 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영상 예배는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필자가 이 소논문을 쓰면서 이와 유사한 논문이 적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이와 관련된 예배신학적 접근과 다양한 방법론이 나와야 한다. 필자는 여기에 한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망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이번 사태에 얻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타파하고 한국교회의 헌신적인 모습과 복음의 소통으로 한국사회 안에서, 특별히 비기독교인에게도 건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49) 참고. 김수영, “절망하고 저항하며, 다시 희망하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을 위한 돌봄의 목회 연구,” 『목회와 상담』 28(2017), 40-66. 이 논문은 1997년 경제위기(IMF) 이후 한국사회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에 대한 목회신학적으로 접근하였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대공황의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다시금 IMF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목회를 구상할 시점이다.

50) 정근하, “사이버 예배의 문제점과 교회공동체의 의미분석-도쿄 T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30(2012), 142, 181.

51) *Ibid.*, 179.

■ 참고문헌 ■

- 고광육.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신체활동수칙.”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7(2020), 109-112.
- 김상구. “피터 브룬너와 에른스트 랑게의 예배 구성에 관한 비교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14(2007), 205-229.
- _____. “일상 생활의 기회로서의 예배-에른스트 랑게의 예배 신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백석저널」 창간호(2002), 197-232.
- 김수영. “절망하고 저항하며, 다시 희망하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을 위한 돌봄의 목회 연구.” 「목회와 상담」 28(2017), 40-66.
- 김명찬. “새로운 모바일 디지털시대의 변화에 대한 예배의 세대별 대응 모색.” 「신학과 실천」 24(2010), 337-365.
- 김창호. “[공공칼럼] 코로나-19, 종교, 그리고 공공성을 생각한다.” 『월간 공공정책』 174(2020), 68-72.
- 게르트 타이젠, 아네테 메르츠/ 손성현 옮김. 『역사적 예수』. 서울: 다산글방, 2002.
- 계재광. “한국사회에서 교회와 신앙인의 실천에 관한 연구 -기독교 리더십의 관점에서-.” 「신학과 실천」 47(2015), 595-627.
- 로버트 웨버/ 김지찬 옮김. 『예배학』.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 리처드 볼드윈, 베아트리스 베더 디 마우르 엮음/ 매경출판 편역. 『세계 석학들이 내 다본 코로나 경제전쟁』. 서울: 매경출판, 2020.
- 전명수. “종교와 공공성, 이론과 실제: 종교기반 시민단체 활동의 분석적 고찰.” 「한국학연구」 68(2019), 203-234.
- 정근하. “사이버 예배의 문제점과 교회공동체의 의미 분석-도교 T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30(2012), 141-176.
- 조기연. “영상예배(멀티미디어 예배)의 예배학적 이해 -울산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신학과 선교」 27(2002), 321-342.
- 제임스 화이트, 수잔 화이트/ 정시춘, 안덕원 옮김. 『교회 건축과 예배 공간』. 서울: 새물결, 2014.
- 민장배. “미디어를 통한 신앙 교육 활성화 방안.” 「신학과 실천」 48(2016), 495-518.
- _____, 이수한. “이미지 전도를 통한 선교적 교회성장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67(2019), 497-520.
- 박성호. “1분 20초 리포트에도 스토리텔링은 있다.” 『방송기장』 20(2014). 8-11.
- 변현진. “유튜브 콘텐츠의 제작·이용 환경 특성과 인기 채널 분석 및 함의점 고찰.”

- 「조형미디어학」 21(2018), 227-239.
- 크리스티안 그레트라인/ 김상구 옮김. 『예배학 개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 여현철, 정재하, 진창현. “시청자 집단의 심의 인식 · 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2014), 87-100.
- 오세제. “386세대 세대효과의 특징 연구 -세대효과의 조건적 표출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5(2015), 133-164.
- 윤정현. “현실이 된 X이벤트: 한국사회의 감염병 대유행 시나리오.” 「FUTURE HORIZON」 44(2020), 10-19.
- 이소명. “절대자를 만나는 예배로서의 미술: 신학적 미학을 통한 오의석 작가의 스토리텔링.” 「신앙과 학문」 23(2018), 185-214.
- 이태훈. “영상 미학(촬영 기법)을 통한 연출 주제 및 스토리텔링 표현의 사례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0(2009), 405-412.
- 이로물로, 민영. “종교방송의 공익성: 평화방송TV 시청의 사회자본 증진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5(2011), 176-212.
- 최준영, 강철희. “종교적 상징 요소와 표현연출을 적용한 현대 교회 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9(2019), 144-147.
- 최현중. “한국 종교의 이미지 평가 및 매체 영향력 분석.” 「복음과 실천신학」 24(2011), 233-262.
- 하선규. “현대 영상매체와 공간적 경험에 관한 매체미학적 연구.” 「미학」 71(2012), 179-219.
- Magin, Charlotte/ Schwier(Hg.), Helmut. *Kanzel, Kreuz, und Kamera: Impulse für Gottesdienst und Predigt*.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5.
- _____, *Kanzel, Kreuz und Kamera konkret: Ein Gottesdienstprogramm aus Heidelberg*.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8.

■ Abstract ■

Practical Theology-based Methodology for Video Media Worship in Corona19 Crisis - Centering on Helmut Schwier-

Under Covid-19 crisis, Korean Christians are prohibited to gather at the churches for Sunday service. This contagious disease infects people in close contact in a confined space. The infectivity is higher than other viruses. In this situation, Korean churches manufactured media videos for worship. However, worship and sermon were transmitted directly, without understanding media aesthetics. German churches have had a lot of debates over broadcast worship. Broadcast worship has a significance from the missionary point of view. Helmut Schwier in Heidelberg University enabled communication between viewer and gospel as a new methodology for broadcast Sunday service. First of all, it is better to manufacture 'Introduction' part in broadcast worship differently from the ordinary worships and add something to attract viewer's attention. It is also better to shoot the interior decorations of a church in media aesthetics-based ways. This can be perceived by the viewers in theological senses other than sermon. When the contagious disease spreads like in Covid-19 crisis, it is effective to use social media as well as video worship and help ordinary believers mediate on the Bible on weekdays as well. Now, both broadcast worship and normal worship on Youtube should share communication with viewers about gospel, considering church's responsible public utility. And in final part of video, we should show that churches prevent such crisis and help neighbors in need, briefly, to move non-Christians. But media worship cannot replace church's true koinonia. Considering this, we should continue to develop church's video worship and spread it in a healthy way toward theological worship in the event of upcoming second crisis of Covid-19 or spread of contagious disease.

Key Words: Corona-19, Broadcast Worship, Youtube Video Worship, Helmut Schwier, Media Aesthetic Methodology

논 찬 1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미디어 영상예배를 위한 실천 신학적 방법론-헬무트 쉬비어(Helmut Schwier) 중 심으로-”에 대한 논찬

김 용 성 박사

(한신대학교 / 예배와 설교)

1. 코로나-19는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패턴을 변화시켰다. 이제 우리 시대는 코로나 전과 후로 구분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사람들은 기존의 생활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익숙한 삶에서 낯선 세계로 향하는 인류는 호기심보다는 불안과 혼란의 아노미 상태를 먼저 겪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비록 온 세계에 모범이 될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훌륭히 대처하고 있는 한국이지만 불안과 소요는 곳곳에 잠재해 있다. 이태원 클럽 사건은 소강상태가 될 줄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간의 방심으로 다시 창궐할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바이러스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생경제를 살리려고 국가나 지자체는 부단한 노력을 한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사태에서 처음 행하는 정책들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허점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런 위기는 한국교회에서 더욱 심각하다. 2010년부터 주요교단들이 내놓는 통계들은 교인들의 꾸준한 감소와 양극화를 보여준다. 회중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와 각종 행사들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교회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여론도 좋지 않다. 사회적 담론과 방송들은 동일하게 대중들을 필요로 하는 문화계의 어려움은 조망해도, 종교에 대한 시선은 싸늘하다. 신천지 교인들의 활동과 속임수로 인한 대구 사태와 만민중앙교회 사건 등으로 바이러스 전파의 원흉을 종교단체로 지목하기 때문이다. 일부

경각심을 상실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몇몇 기성교회들도 이런 역할에 가담하면서 교회의 이미지는 더욱 실추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으로 교회약화·쇠퇴현상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2. 위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교회 또한 나름대로 노력한다. 대표적인 것이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혹은 다양한 개인채널방송을 통해 1인 미디어 시대는 전부터 교회예배의 형태와 설교의 변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전통을 강조하는 교회의 특성상 이런 시도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소수의 몇몇 교회만 시도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이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에게 미디어와 방송을 활용하게 만들었다. 이런 시점에 미디어 영상예배를 다룬 윤성민 박사의 논문은 시사하는 점이 많다. 특히 저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대부분 예배를 그냥 송출하는 것에서 예배 미학적인 부분에 대한 통찰이 좋았다.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사회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특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의 발생과 그것의 재생산(후속 커뮤니케이션)의 역학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었다. 그가 보기에 커뮤니케이션은 1. 정보의 선별, 2. 통보의 선별 3. 수용/이해의 선별 과정을 거친다고 말한다. 발화자는 정보의 홍수인 환경에서 수신자에게 전할 정보를 선별하여 통보한다. 발화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정보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수신자가 이해하고 수용한 일부의 정보만이 유지되고 살아남는다. 이렇게 1차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끝나고 2차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면 수신자는 발신자가 되어 다른 수신자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 또한 앞에서 이야기한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것이 계속 재생산 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정보와 여러 방법들이 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새로움, 풍부한 정보,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차이성이다.

만약 여러 교회에서 행하는 다양한 방송들이 후속커뮤니케이션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사회적 체계의 커뮤니케이션이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저자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새로운 방식의 예배를 지향해야 하는 교회가 미디어라는 형태만 바뀌었을 뿐 내용면에서는 기존의 것과 별반 차이 없는 예배만 송출하는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한국교회의 예배 방송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헬무트 쉼비어가 이끌었던 독일교회 방송을 예시로 보여줌으로써 작은 변화들이 시청률을 높였으며(후속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활발화 시켰으며), 그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가 예배에 직접 참여한다는 현장성을 살리려고 했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시청자는 관찰자의 입장에 있기 마련인데, 이것을 참여자의 입장으로 전환시켜 보다 의미 있게 만들었다는 점

이다. 이런 작업은 미학적인 시각 정보들과 공익적인 태세를 함께 고려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영상의 한계를 인지하게 만들어 실재적인 모임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시사점까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든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 예시로 든 독일방송의 경우 개교회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CBS나 CTS 등 기독교 전문 방송채널처럼 보인다. 방송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곳에서 송출하는 예배 영상은 개교회에서 보다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다. 대학교회란 점에서도 일반 교회보다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인식과 여건 형성이 더 자유롭다. 따라서 예시의 적합성이란 점에서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둘째, 쉬비어가 일으킨 변화로 시청률이 상승되었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 저자는 방송기간이 “2005년 12월 4일과 2007년 1월 28일”이라고 했다. 만 2년도 안 되는 기간으로 어떤 성과를 확신하기는 부족해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다 풍부한 자료들을 추가했으면 좋을 것 같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방송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매우 시의 적절한 연구 성과를 보여준 윤성민 박사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이 논문이 앞으로 교회에서 방송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예배 형태를 모색하고 고민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논 찬 2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미디어 영상예배를 위한 실천 신학적 방법론-헬무트 쉬비어(Helmut Schwier)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김 현 애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코로나 19 사태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비대면 수업, 집회 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다양한 방역 지침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그동안 겪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은 평생 신앙생활 해 오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경험한 것은 처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앞다투어 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 예배나 온라인 녹화 영상 예배로 드리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특히 공예배라는 전통적인 인식과 주일 성수라는 신앙적 교리가 흔들리는 현상까지 일어나기도 하였다. 세계적인 감염병이라는 대유행이라는 상황 속에서 예배 사역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꼭 필요한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윤성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미디어 영상예배를 위한 실천신학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매우 적절한 제안이라 사료된다.

2. 내용 요약 및 장점

먼저 윤성민 교수는 유래 없었던 감염병 유행으로 사람 간의 감염을 막기 위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이유를 예배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특별히 ZDF(Zweites Deutsches Fernseh)의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신학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들면 헬무트 쉬비어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드렸던 “방송예배”를 송출했는데 시청률이 높았는데, 그 방법은 일반방송에서 쓰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론의 시도는 기획능력이 약한 교회 예배에서 매우 필요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단순히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학적 요소 즉 전통적인 미학적 개념을 뛰어 넘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메시지를 담은 매체를 사용하였다는 점은 매우 탁월한 시도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영상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핵심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 오랜 논쟁 가운데 방송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내용을 가짐으로써 그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발제자는 말한다. 그리고 선교학적인 차원에서 방송예배의 유용성을 찾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헬무트 쉬비어가 제시한 방송예배의 특징은 많은 통찰력을 주기도 한다. 예를들면 서론 부분에 입례송을 하면서 6명의 멘트를 넣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장치라고 말한다. 방송, 특히 뉴스에서도 도입부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첫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채널을 붙잡기 위해서 뉴스와 기사를 리드하는 짧은 영상이나 스토리를 넣는다. 그리고 그 스토리는 시청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을 한다. 그리고 클로징 멘트는 ‘귀에 솔깃해지는 마지막 문장’, ‘시청자가 기사 끝 부분에서 마음에 남을만한 한 문장’을 강조한다. 이러한 방법론을 따라서 헬무트 쉬비어는 예배를 진행한다고 소개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배워야 할 적절한 방법이라고 본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 소셜미디어를 통한 교육의 방편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발제자는 방송예배를 소개하면서 방송예배의 공익성에 대한 부분도 제시하고 있다. 발제자는 미디어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두 가지점을 제시한다. 첫째는 기독교방송국은 공익성에 관한 연구와 자체적 심의를 강화해야한다. 두 번째는 일반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한다면 유튜브 이용자와 소통하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개선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예배가 채우지 못하는 코이노니아를 이야기 한다.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반화 되면서 심리적 부작용으로 코로나 블루(corona blue)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인터넷 예배와 영상 설교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상과 같은 발제자의 내용은 매우 좋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3. 문제제기

먼저 발제자는 방송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한국교회는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다면 발제자가 말하고 있는 방송예배와 온라인 예배 또는 온라인 생중계 예배, 온라인 녹화영상 예배 등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더불어 발제자가 인용한 칼 프리츠 다이버(Karl Fritz Daiber)가 “방송 예배는 전달될 수 있는 요소들만 전달할 수 있다.” 말한 점을 방송예배에서 어떻게 배제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헬무트 쉬비어(Helmut Schwier)가 제시한 영상예배를 방송예배로 송출되고 방영된다면, 사망한 선인들의 설교와 예배를 다시 영상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 발제자가 제시한 영상예배와 선인들의 영상예배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헬무트 쉬비어가 말하는 방송예배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발제자가 제시한 방법론은 서론과 결론 부분에서의 6명의 학생의 나눔과 신학적 미학적 메시지인 교회 건축과 내부 장식을 통한 방법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머지 소셜미디어의 활용, 공익성과 교회 역할의 강조, 비기독교인과의 소통은 방송예배의 특징이라기 보다는 코비드-19를 대하는 교회의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헬무트 쉬비어가 말하는 방송예배의 다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또한 헬무트 쉬비어의 방법론을 한국교회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은 무엇인가?

네 번째, 발제자는 코비드-19 사태와 같은 전염병에서 미디어 영상예배를 위한 실천신학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결론은 인터넷 예배와 영상 설교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서 코비드-19 사태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결국에는

한 공동체 안에서 모여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결론을 내린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코비드-19 사태가 장기화 되어 계속해서 미디어 영상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을 때, 미디어 영상예배를 위한 실천신학적 방법론은 무엇일까?

코비드-19 사태로 전세계가 팬데믹 상황을 맞이한 때, 코비드-19 사태와 같은 전염병에서 미디어 영상예배를 위한 실천신학방법론의 발제는 시의적절한 발제이며, 독일의 헬무트 쉬비어(Helmut Schwier)가 제시한 영상예배는 하나의 좋은 방법론이다. 이제는 코비드-19의 장기화와 그 이후에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다면 재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상황 속에서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과 답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 관해 위르겐 몰트만의 책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몰트만의 책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해 성부 하나님은 그저 냉담하게 보고만 계시지 않고 그 고통을 함께 느낀다. 그리고 성령은 이러한 고통에 함께 참여한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성자의 고통, 성부의 공감, 성령의 동참이 있는 삼위일체적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세상을 위한 고통을 느끼시고 공감하시고 동참하는 하나님이다. 목회자는 공감과 동참과 연대의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 세상 속 교회의 바람직한 자리매김,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한 통찰을 얻을 것이다. 예배당에서 예배, 온라인 예배, 가정예배 등 모임의 형식과 방법에 골몰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위한’ 모임으로 변신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발제자가 중요시한 ‘복음의 소통’이 될 것이다. 복음의 소통을 통해 교회의 이미지 쇄신과 선교적 복음전파가 되기를 기대 한다.

제 4 발표

미디어 시대의 영성 생활: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과 칸트 이후 인식론을 중심으로

남 기 정 박사

(감리교신학대학교 / 영성학)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점 역시, 오늘날의 시대는 사람들의 생활에서는 정보나 지식의 양의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 그러한 정보와 지식을 다루는 주체인 우리들 자신의 인식 역량과 분별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확증 편향의 오류, 가짜 뉴스 등이 사람들의 인식과 경험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이미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많다. 넘쳐나는 정보, 지식, 경험의 기회들 가운데에서, 도움이 되는 참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과 영성 생활에서의 진보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분별은 영성 생활에서 언제나 강조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오늘날 그것은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보와 지식의 부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속에서 참된 것을 찾는 일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러한 것들을 전달하는 수단들도 매우 다양해졌다. 이미지와 동영상의 제공을 넘어 이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가상현실, 증강 현실까지 전달 매체로 동원되고 있다. 이런 전달 매체들의 발달은 영적 경험과 인식에 어떤 영

향을 미칠까? 16 세기 종교 개혁의 전개가 당시 인쇄술의 발달과 적잖은 관계가 있었음을 감안해 볼 때, 매체의 변화는 종교 제도와 사람들의 영성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활자 매체의 발달이 16 세기 이후 인류의 영성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면, 동영상 매체, 가상현실, 증강 현실까지 동원하는 새로운 미디어의 발달은 향후 사람들의 영성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많은 것이 필요하겠으나, 우리에게 경험은 어떻게 생겨나고 지식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일에 근본적인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 착안하여, 필자는 본 논문에서, 현재의 인식론을 계시와 신(神)적 경험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즉 본 논문에서 필자는, 우선은 현대 인식론을 칸트 이후 인식론에 중점을 두어 정리하고, 그 인식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정리해 보겠다. 그 한계는 무엇보다도 신과의 만남의 경험, 신적 리얼리티의 경험 다루고 일에 있어서 현대 인식론이 보이는 한계를 요약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웨슬리가 근대 초기에 제시한 영적 감각 사상이 이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이겠다.

II. 현대의 인식론: 칸트 이후 인식론

현재, 경험을 다루는 인식론의 근간은 칸트의 사상이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가 세계의 실재(reality)에 대하여 아는 모든 것은 그 실재 중 인간의 감각에 의해 구성된 구조에 적합한 부분일 뿐이다. 우리는 실재 그 자체에 다가갈 수 있는 그 어떤 통로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칸트의 인식론은 19세기와 20 세기 인식론의 준거틀(paradigm)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세계를 경험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체계화하는 일에 칸트의 사상은 그 틀이 되고 있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그의 『순수 이성 비판』(*The Critique of Pure Reason*, 1781, 1787)에서 인간은 물자체(*noumena*)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극명하게 주장하였다.¹⁾ 칸트는 이 논문에서 *noumena* (things in themselves, 물자체)와 *phenomena* (appearance, 현상)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 양자의 분리를 전제로 하여

1) Immanuel Kant, *Critique of Pure Reason*, 2nd ed., *The Cambridge Edition of the Works of Immanuel Kant*, ed. P. Guyer and A. Wo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칸트는 *noumena*와 Ding an sich (Things in themselves)를 동의어처럼 사용한다.

인간의 인식 과정을 설명했다. 즉,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noumena*적 세계와 *noumena*적 자아의 이 두 실재의 융합의 산물인 현상(*phenomena*, appearance) 뿐이다. *Noumena*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려는 모든 노력은 성공할 수 없다.²⁾ 칸트는 천문학 분야에 혁명적 전환을 가져온 코페르티쿠스의 발견을 예로 들어서 이것을 설명한다.

코페르티쿠스는 밤하늘 별들의 움직임이 복잡한 궤도를 그리는 것은 그들의 실제 운동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는 겉보기(apparent)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우리에게 복잡하게 보이는 한 별자리의 궤적은 그 별 자체의 운동과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이 서있는 지구의 운동의 조합이다. 이를 예로 들면서, 칸트는 인간이 실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험은 한 실재에 대한 인간의 경험은 실재의 본성과 관찰자의 본성의 혼합물이라고 주장했다.³⁾ 다시 말해, 인간의 경험은 “감각 소여(sense data)” 즉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들과 우리의 마음의 선형적인(a priori) 규칙에 따라 우리의 마음(the mind)이 그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수행한 일의 혼합물이다.”⁴⁾ 다른 말로 하면, “감지된 세계, 혹은 현상의 세계는 인간이 감지한 것, 즉 인간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과, 우리의 인식 기관(능력)이 제공하는 선형적 형식을 조합하여 우리 마음이 구성해낸 것이다.”⁵⁾ 이 점에 대해 칸트 자신은 이렇게 말한다. “관찰 대상(object)이 우리의 지식에 순응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⁶⁾

우리가 세계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해 가질 수 있는 것인 이러한 현상들뿐이다. 칸트는 *noumena*와 *phenomena*의 구분함으로써, 인간의 감각, 이해력, 그리고 이성에 바탕을 둔 인식론과 형이상학의 새로운 근거를 만들어냈다.⁷⁾ 그리고 칸트는 자신의 이론을 “내재적 형이상학 혹은 경험의 형이상학”이라고 명명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과 인식을 다루는 일을 인간 경험에 국한시키기 위한 필수적 원리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⁸⁾ 칸트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대상과 영역을 현상의 세계로만 국한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칸트의 인식론에서는 인간의 감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재를 향한 접근의 노력은 가망이 없는 것이다. 이점에 관해서 칸트는 이렇게 적고 있다.

2) William L. Reese, “Kant, Immanuel” in *Dictionary of Philosophy and Religion: Eastern and Western Thought*, new and enlarged ed. (Atlantic Highlands, NJ: Humanities Press, 1996), 373.

3) *Ibid.*

4) Michael Rohlf, “Immanuel Kant,”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Winter 2012 ed.), ed. Edward N. Zalta, § 2.2, <https://plato.stanford.edu/entries/kant/>, (2018/7/10 접속).

5) *Ibid.*

6) “Object must conform to our knowledge rather than vice versa.” Immanuel Kant, *Critique of Pure Reason*, 2nd ed., xvi. Paul Guyer, “Kant, Immanuel,”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ume 5, ed. Edward Crag (London: Routledge, 1998), 178에도 인용됨

7) Kant, 178.

8) Rohlf, §2.2.

선험적 인식을 위한 우리들의 능력에 관한 추론으로부터...매우 의외의 결과가 도출된다...말하자면 우리의 인식 능력은 경험 가능의 영역을 절대로 넘어서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각은 오로지 현상에만 다가갈 수 있다. 물자체 (thing in itself), 실재적인 그 무엇 자체는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⁹⁾

하지만, 칸트는 감각을 통하여 접근할 수 없는 실재들이 존재하며, 심지어 그것들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들과 원리들을 포함한다는 점일 인정한다. 예를 들면, 도덕성, 자유, 신앙, 영혼의 가치, 궁극자와의 관계 등이 그러한 가치들이다. 칸트는 이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그의 『실천 이성 비판』 *the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1788)에서 다룬다. 여기서 칸트는, 감각하는 것에서부터 지식을 얻어내는 과정에서의 이성의 작용을 ‘순수’ 혹은 ‘이론적’인 작용이라고 지칭하면서, 이와 구분되는 또 하나의 이성의 활동에 대해 말하고 있다. 즉, 칸트는 이성에는 ‘순수한’ 작용 이외에, 실재적인(practical)한 작용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이성은 ‘보편 법칙’(‘universal law’)과 인간 행동의 이상(ideals)을 구축해내고, 자유의지, 신의 존재, 영혼의 불명성과 같이 인간의 이성적 행동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하는 필요조건들을 전제한다(前提~, to postulate).¹⁰⁾

칸트는 실제와 경험에 관해서는 *noumena*와 *phenomena*를 구분하고, 이성의 역할에 관해서는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의 구분함으로써 전통적 가치들의 권위와 경험과 이성으로 구축한 지식들의 권위를 둘 다 인정하는 타협을 이루어 냈다. 그리고 이러한 칸트의 “내재적 형이상학 혹은 경험적 형이상학” 그야말로 “코페르티쿠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칸트가 이러한 구분에 대해 공표한 이후, 19 세기와 20 세기 내내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칸트의 패러다임은 인간의 인식과 지식에 관한 이해의 가장 우세한 표준으로 굳건하게 서 있다.

하지만 칸트는 지식과 탐구의 한계를 감각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영역에 국한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감지되는 세계, 즉 현상의 세계를 넘어서는 영역은 단지 필요조건적 전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noumena*와 *phenomena*의 구분을 기초로 하고 있는 칸트의 패러다임은, 사람들의 신적 계시, 신성과의 대면과 연합과 같은 주제들, 인간됨의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초월적인 성격을 가지는 주제들을 다루어야 하는 분야, 특히 신학과 영성 분야에 커다란 허들을 만들어 놓았다. 칸트의 구

9) “From this deduction of our faculty of cognizing *a priori*...there emerges a very strange result...namely that with this faculty we can never get beyond the boundaries of possible experience...[and] that such cognition reaches appearances only, leaving the thing in itself as something actual for itself but uncognized by us.” Kant, xix - xx. Rohlf, § 2.2에 인용됨.

10) Reason constructs “universal laws and ideals of human conduct and postulates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s necessary to make such conduct rational, including the freedom of the will, the existence of God, and the immortality of the soul.” Kant, 183.

분을 진제로 하고 나면, 신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분에게 도달하려는 모든 노력과 열망은 두 가지 가능성으로 귀착되고 만다. 하나는 신성의 계시와 임재의 증거를 감각계의 영역에서 찾아내고 이 감각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신의 본성과 양태를 유추하는 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신성을 다루되, 칸트가 실천 이성의 영역으로 할당한 그 필요 조건의 차원에서만 거론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신적인 것의 존재에 대한 어떤 탐구와 인간의 신적인 것을 향한 경험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는 간과되고 만다. 이 다음의 섹션에서는 칸트의 *noumena*와 *phenomena*의 구분이 가져온 신 인식론에서의 난점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해 보겠다.

III. 현대 인식론의 딜레마

영국 성공회 출신의 저명한 조직 신학자이자 종교철학자인 Sarah Coakley는 그녀의 책에서 칸트 이후 현대 신(神)인식론의 주요한 두 축을 ‘로크주의적’(Lockean)인 접근과 ‘바르트적인’(Barthian) 접근이라고 소개한다. 로크적인 경향은 ‘역사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접근법은 영적 현상을 로크적 과학적 인식의 표준들에 따라 측정하려고 시도하는 방식이다. 이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물질적 감각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자연계에 초점을 둔다.¹¹⁾ 바르트적인 접근법은 신적 계시의 당위성의 근거를 칸트가 정한 경계 너머에 있는 noumenal한 영역에 두려는 경향이다.¹²⁾

그런데 문제는, 두 접근법이 중 어떤 것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영적 경험의 양상을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Coakley가 보여주고 있듯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 근거를 형성하고 있는 결정적인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그리스도와와의 첫 만남의 경험조차 이 두 이론은 잘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¹³⁾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경험을 포함해서, 신앙인들의 신적 경험들은, 그분과의 친분의 정도, 그분을 향한 사랑과 같은 정감(affection)의 정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적 지식의 정도, 주님과와의 사귄 기간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현대의 두 인식론은 이러한 것에 따른 부활 주님의 경험의 차이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현대의 두 인식론은 신적 경험에 있어서, 신자들의 경험과 비신자들의 경험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신앙의 깊이 차이, 그들의 신과의 친밀함의 차이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신인식의 차이에 대해

11) Sarah Coakley, “The Resurrection and the ‘Spiritual Senses,’” *Powers and Submissions: Spirituality, Philosophy and Gender* (Oxford: Blackwell Publishers, 2002). 133-34.

12) *Ibid.*, 134-35.

13) *Ibid.*, 131, 132-35.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로크적인 접근 신자들의 신적 경험들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자연 과학자들이 자연 세계를 조사하기 위해 발전시킨 방법론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 길만을 인간의 경험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하게 가용한 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접근은 인식의 대상을 자연 세계로 국한하고, 인간의 인식 능력은 늘 일정하다고 전제한다. 다시 말해 보편타당한 지식을 얻기 위해 사람들의 인식 능력에 관해서, 각 사람이 가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신자들과 비신자들의 하나님 경험의 차이, 그리고 초심자들과 깊은 경지의 신앙인 사이의 신인식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바르트적인 접근은, 이러한 로크의 자연과학적 실험실증적적인 방식에 반대하여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계시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인간의 인식 능력의 역할을 최소화 하면서, 계시의 권위를 부활 그리스도의 능력에 둔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 역시, 인간의 신적 경험의 과정에 대해 로크주의자들보다 더 나은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바르트주의자들은 다만 하나님의 주권의 권위에 의거해서 신자의 경험과 비신자의 경험의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정당화 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현대의 두 방법론 중 어느 하나도 신적 경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적 리얼리티에 접근하는 일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칸트 이후 현대 인식론에는 이런 딜레마가 있다.

현대의 이 두 접근 방식은 서로 매우 상반되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 Coakley가 잘 지적했듯, 이 둘은 칸트 이후 신 인식론이라는 하나의 동전에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양자 모두 로크적인 인식론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하나는 로크적인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다른 대안을 주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로크적인 접근법은 자연과학을 지식에 이르는 권위 있는 길이라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인식론이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접근법은 실증주의적인 길이다. 그리고 이 접근법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한 사람의 경험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관찰자의 인식 능력의 변화, 혹은 여러 관찰자들의 인격과 개성, 삶의 이력 등의 차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인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즉 인간의 인식 능력이 보편적이며 일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간 인식 능력의 변화와 발전의 잠재력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초자연적 실재, 즉 오감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 없는 실재는 논의와 탐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 나아가, 이 방법론은 관찰자와 관찰 대상사과의 분리를 전제한다. 그리고 관찰자의 관찰대상에 대한 감정의 개입도 배제하며, 양자 사이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는다. 현재에도, 이러한 인식론은 지속적으로 실재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 가장 권위 있는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신자들의 신적 경험을 탐구하는 경우에조차, 경

힘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신적 초월적 경험을 다루는데 일에 있어서, 감각적 경험에 대한 접근만을 가지고 하는 노력들은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별다른 성과를 내지도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근대 이후 서구의 신학은 영적 인식의 본성들을 설명하는 데 이러한 방식을 유일한 방식으로 인정해 왔다. 따라서 그 성과라고 하는 것들은 환원적이고(reductionist) 비신화화의 성향을 띠거나, 철저하게 절망적인 것들뿐이었다.¹⁴⁾

결국, 칸트 이후 인식론이 신 인식에 있어서 딜레마를 보이는 것은 이 인식론적 패러다임이 noumena와 phenomena 혹은 실재와 현상, 혹은 초월과 내재를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인식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끊어 놓고 있기 때문이고, 나아가 인식 주체인 인간의 특성 그리고 발전의 잠재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Coakley는 현대의 신-인식에 큰 어려움을 주는 이러한 분리들은 이미 16세기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되는 16세기에 서구에서 있었던 변화는 인식론적 탐구를 영적 추구로부터 분리시키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인식 능력이 그의 삶의 형태와 그의 습관과 훈련에 따라 발전한다는 관념이 심각하게 약화되었고, 인간의 인식의 기능이 고정 불변한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론적 경향의 전형적인 주장이 칼빈의 *divinitatis sensum*에서 발견된다.¹⁵⁾ 이것은 인간의 인식 능력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를 테면, 신적 계시를 감지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그것을 인식하는 상태로 이동하게 된다는 주장이다.¹⁶⁾ 이러한 비약적 이동은 인간 인식 능력의 점진적 변화와 발전이라는 사상은, 신인의 협력 속에서 신적 리얼리티를 경험하는 인간 감각이 발전하는 것으로 여겼던 초대교회의 인간 인식에 대한 변형적 이해와 상당히 다른 것이다.¹⁷⁾

Noumenal한 영역과 phenomenal한 영역의 분리를 언급하는 칸트의 주장은 이와 같은 16 세기 이후 새로운 인식론적 주장 속에 담긴 구분을 확고하게 고착시켰다. 칸트적인 분리는 서구의 17세기, 18 세기의 지성적 활동을 종합한 것이라고 할 수

14) *Ibid.*, 130.

15) “창조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신적 감각 혹은 ‘신성에 대한 인식’(divinitatis sensum)을 주셨다. 하지만 죄와 타락의 영향으로 그 감각은 심각하게 훼손되어서 현재의 인간은 그들의 구원을 위한 충분한 만큼의 영적 현실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현재의 인간들에게 남아 있는 인식은 그들의 죄성과 불행한 운명에 대한 어렵פות한 파악만이 겨우 가능하게 할만큼 뿐이다. 그들을 진정된 믿음과 구원에 이르게 할 만큼의 신적 지식은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에 따라 주어지는 신적인 선물이다.” John Calvi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1. edited by John T.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I.3.1 (필자의 번역). 이외 III.2.7도 참조.

16) 칼빈의 경우, 이 변이는 전적으로 신적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17) Coakley, 139.

있다. 흔히 계몽주의시대라고 부르는 이 당시에 영국의 지성인들은 자연과학적 실험과 관찰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기초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자연계와 초자연적 혹은 형이상학적 실재 사이에 경계선을 긋기 위한 시도를 많이 했다. 그들은 이러한 구분을 통해 오감을 통해 얻은 감각 소여와 이를 바탕으로 유추에 힘을 실어주면서, 초자연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담론들은 교묘하게 공적 토론의 장에서 소외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인간의 인식은 오감이 감각 소여를 얻어내는 활동으로 축소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 세계를 다루는 과학적 인식 경험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지만, 계시, 신과의 교통, 연합 등을 다루는 일에는 초월 세계와 자연 세계를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경험과 인식에 있어서는 인간의 역량은 감소하였다.

IV. 웨슬리의 영적 감각론

이제 필자는 웨슬리의 영적 감각론이 칸트 이후 현대 인식론이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우선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은 칸트의 분리를 예기하는, 자연계와 초자연계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로크적인 패러다임과의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칼빈의 *divinitatis sensum*과 같은 근대 초기의 정적(靜的, static) 영적 인식론과의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웨슬리의 영적 감각론은 현대의 신-인식론의 한계와 그 것을 넘어서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할만하다고 우선 말하고 싶다. 구체적을 어떻게 현대 신-인식론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우선 웨슬리의 영적 감각을 설명하는 일에서 시작해 보겠다.

웨슬리의 영적 감각의 역사적 정황

우선 웨슬리의 영적 감각의 내용과 특징을 확인해 보자. 이를 살핌에 있어서 웨슬리가 그것을 주장한 역사적 정황에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인 길이라고 생각한다. 필립 쉘드레이크가 언급했듯이, 근대성은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기반에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다시 말하면, 초월적 본성을 가진 실재들에 대해 인간이 알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신의 존재에 관한 고전적 증거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18 세기 감리교 운동은 이러한 근대적 흐름에 대항하는 종교적 운동의 하나였다.¹⁸⁾ 웨슬리는 그와 동시대 지식인들의 신적 계시와 이에 대한 인간 이해에 대해 가지는 비판적 태도에 반발하였다. 그의 영적 감각론은 이러한 지식인들에 대

18) Philip Sheldrake, *A Brief History of Spirituality*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2007), 140.

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완성되었다. 웨슬리는 이 세상에서 신적인 것의 임재를 축출하려는 모든 사상들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영적 세계는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다만 자연적 감각 기관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영적 세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¹⁹⁾ 웨슬리는,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자연적 감각에만 의존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리얼리티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질세계를 보기 위해 오감이 필요하듯 영적 세계를 보려면 영적 감각들이 필요하다. 여기서 영적 감각이란 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인간의 감각을 말한다, 은혜의 작용으로 영적 감각이 활성화되면 사람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초자연적 세계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웨슬리는 이와 같은 사상으로, 인간 인식의 한계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의 몸의 오감이 감지하는 영역으로 규정하려는 모든 경향을 반박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은 초기 근대 신학적 인식론에 대한 하나의 반동이다.

웨슬리가 영적 경험을 놓고 논쟁했던 지식인들은 크게 보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이성주의자들과 열광주의자들이다. 웨슬리는 그가 활동하는 동안 내내 이 두 그룹과 끊임없이 논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긴장 관계는 1738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그의 생애가 마치는 날까지 지속되었다.

이성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은 웨슬리가 그의 *An Earnest Appeal to Men of Reason and Religion*에서 “이성의 사람들”(men of reason)이라고 불렀던 이들이다.²⁰⁾ 이들 대부분은 신적 계시를 검증하는 방안으로 과학적 조사와 이성적인 반추의 도입의 필요성을

19) 존 웨슬리, 설교 43, “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1765), §III.1, Wesley, *John Wesley’s Sermons*. The Spiritual world “is all around us, and yet no more discerned by our natural faculties than if it had no being.”

20) 이성주의자들에 대해 웨슬리는 “믿음이 전혀 없거나 혹은 생명력이 없는 형식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either men of no religion at all, or a lifeless formal religion”)이라고 지칭했다. See Wesley, *An Earnest Appeal*, § 2. 또한 Gerald R. Cragg에 의하면, 그 “이성의 사람들”(the “men of reason”)은 “그들의 지적 우월성 때문에 스스로 확신에 찬 사람들로서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종교의 본질과 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다.” (people who were “self-assured because of their superior intelligence, felt no need of religion, though they were clearly ignorant both of its nature and of its power.”) Gerald R. Cragg, introduction to *An Earnest Appeal*, *The Works of John Wesley*, 11:38를 보라. 또한, Isabel Rivers 는 이 그룹의 사상가들을 “latitude-men”으로 알려진 사람들이라고 소개한다. 그녀의 책 *Reason, Grace, and Sentiment: A Study of the Language of Religion and Ethics in England 1660-178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vol. 1, chapter 2를 보라. 필자의 의견으로는 이들은 본 논문에서 “이성주의자들”이라고 지칭한 사람들과 거의 일치하는 사람들이다.

주장하는 18세기 로크주의자들이었다. 웨슬리 당시의 이신론자들(deists)이 이런 이성주의자들의 그룹에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사람은 오로지 자연적 감각 소여(natural sense data)와 그 데이터에 대한 이성적 추론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적 지식에 접근하는 유일한 길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유추뿐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이런 이성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웨슬리의 우려가 그의 *Appeal to Men of Reason and Religion*에 잘 설명되어 있다. 1743년에 발간한 이 공개편지에서 웨슬리는 그의 영적 감각 사상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영적 감각론을 가지고 웨슬리는 당시에 점증하던 이신론적 경향을 반박하면서, 특히 로크의 사상에 있는 초월적인 것을 배제하려는 경향을 지적하였고, 신적인 것은 인식론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²¹⁾ 그의 Appeal외에도, 웨슬리는 1740년대의 다양한 사람들과 주고받은 많은 편지들이 웨슬리와 이신론자들 사이의 논쟁을 잘 보여주고 있다.²²⁾ 이신론자들은 신뢰할만한 계시를 일반적인 인문학적 지식의 근거하여 설명이 가능하거나 혹은 인문학적 지식을 따르는 것들로 한정지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반대하면서, 웨슬리는 그의 영적 감각론을 가지고 자연적 영역을 넘어서는 신적 영향력의 인식 가능성을 명백하게 주장하였다. 많은 웨슬리 당대의 이성주의자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오로지 몸의 감각을 통한 세계 경험을 바탕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웨슬리는 이러한 의견에 만족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식은 너무나 간접적이며 많은 경우 잘못되었기 때문이었다.²³⁾ 웨슬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영적 감각들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주는 신적 교감이 성령의 확증이었다”²⁴⁾ 이와 같이, 웨슬리는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 실재에 관한 담론을 토론에서 배제하려고 하면서, 인간의 인식 능력을 자연계에 국한하려는 초기 근대 지성주의적 경향에 대한 반동으로 영적 감각론을 도입하였다.

열광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에 반대하여, 일부의 사람들은 정서(affections), 혹은 사람의 개인적, 주관적, 내면적 거동을 신적 영향력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주장하였다.

21) Maddox, *Responsible Grace*, 30.

22) 가장 두드러진 예가 “John Smith”라는 필명을 쓰는 익명의 수신자와 주고받은 일련의 편지들이다. Wesley, *Works*, 26:138-294를 보라. 또한 Rex D. Matthews, “Religion and Reason Joined” (Ph 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896), 340-57을 보라.

23) Daniel Joseph Luby, “The Perceptibility of Grace in the Theology of John Wesley: A Roman Catholic Consideration” (Ph D dissertation, Pontificia Studiorum Universitas A. S. Thomas Aquinas in Urbe, 1994), 154.

24) Maddox. *Responsible Grace*. 129.

그들은 열광주의자로 불렸다.²⁵⁾ 이성주의자들의 도전에 대항하여 신적 경험으로의 접근 가능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들은 믿음과 이성의 분리를 주장하면서 주관적 정서를 신적 경험의 증거로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경험 차이를 설명하는 일에 있어서 칼빈적인 신의 선택과 같은 결정론적 이해에 기대고 있었다. 1738년부터, 웨슬리는 이러한 열광주의자들과 지속적인 논쟁을 해야 했다. 웨슬리의 주요 저작들, 예를 들면 “감리교인의 성격” (“The Character of a Methodist,” 1742), 그리고 그의 설교 “성서적 구원의 길” (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1764) 등에서 웨슬리는 열광주의자들의 율법무용론적 행동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비록 웨슬리 당시 열광주의자들의 이러한 경향이 이성주의자들에 대한 반동이었지만, 웨슬리는 이것도 역시 인간의 경험을 자연계에 국한 하려는 흐름으로 보았다. 웨슬리가 보기에는, 이성주의자들이 자연적 이성에 집착하듯이, 열광주의자들은 자연적 감정들(affection)에 집착하고 있을 뿐이었다. 즉 자연적 감정들도 여전히 인간 영혼의 자연적 기관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이성주의자들의 신앙에 대한 공격에서 신앙 경험을 지켜내기 위해 열광주의자들은 신앙이 감정(affection), 혹은 ‘개인의 심리적 내적 움직임’²⁶⁾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웨슬리가 보기에는, 이러한 경향은 이성주의자들의 움직임만큼이나 문제가 있어 보였다. 왜냐하면, 열광주의자들은 온통 물리적 감각과 자연적 감정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그들 역시 인간의 본성을 고정된 것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 인식을 위해서는 감정과 정념(passion)의 정화와 성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웨슬리가 보기에는 자연적 감각들과 정서는 유치한 단계여서 영적 영향력과 현존을 알아차리는 일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웨슬리가 보기엔 신적 영향력을 감지하는 일은 영혼의 영적 감각을 통해 가능하게 되는 데, 이러한 감각은 자연적 이성과 감성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 감각들의 깨어남과 성숙은 감각들의 정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왜냐하면 영적 감각들은 악의 어두운 장막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인간의 감각이기 때문이다.

웨슬리의 역사적 정화에서 그의 영적 감각론이 가지는 의미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은 이러한 두 그룹과 논쟁을 지속하는 와중 형성되고 발전되었다. 양자들을 모두 비판하면서, 웨슬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게 되었다. 인간

25) 웨슬리는 *An Earnest Appeal*에서 이런 사람들을 “men of religion” who “were too often lulled into false security by the formal propriety of the faith they professed.”이라고 불렀다. Cragg, introduction to Wesley, *An Earnest Appeal*, 39.

26) 즉 현대적 의미에서의 “느낌 (feeling).”

의 통상적 인식 능력이 실은 상당히 실추된(失墜~, deteriorated) 상태에 있어서, 현재의 인간의 인식은 물질계에만 국한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 능력이 회복되면, 우리는 신적 현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웨슬리는 경험의 영역을 자연계로 축소시키려는 이성주의자들에 대해 반대하면서, 인간의 인식 능력은 자연계와 초자연계를 모두 인식할 수 있는 데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 웨슬리는 그의 영적 감각 사상을 이용하여, 열광주의자들이 인간의 자연적 감정들만이 영적 경험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진정한 영적 경험을 위해서는 영혼의 정화와 성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웨슬리는 마카리우스를 포함한 초기 교부들의 사상을 참조하면서 그의 영적 감각론을 완성하였다. 무엇보다, 마카리우스의 『신령한 설교』에 대한 자신의 편집본 *An Extract from the Homilies of Macarius*를 만들고 이를 출판하면서 사람들에게 영적 인식론의 중요성을 소개하였다 (1749). 즉 웨슬리는 마카리우스를 포함한 고대의 교부들의 사상을 소개하면서 영적 감각 사상을 초대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권위 있는 기독교 사상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당대의 이성주의자들과 열광주의자들의 성향을 비판하였다.²⁷⁾ 이런 이유로,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은 초대부터 내려오는 영적 감각 사상 전통의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 즉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은 초월적 리얼리티로 통하는 창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웨슬리는 종종 초월적 세계를 “보이지 않는”(“invisible”) 세계라고 지칭하였는데, 이는 마카리우스와 초대 교부들이 말하는 noetic 실재를 연상시킨다.²⁸⁾ 웨슬리는 인간 영혼이 정화를 통하여 상승하여 초월적 영역을 감지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인식에서 자연적 감각과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당시 이성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또한 웨슬리의 *An Extract*를 통해 감정(affection)과 정념(Passion)의 정화가 얼마나

27) 웨슬리의 이러한 의도는 그가 *A Christian Library*를 내놓으면서 서술한 출판 목적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An Extract*는 이것의 제 1 권에 포함되어 있다). 웨슬리의 주요 출판물들을 평가하면서 Richard Heitzenrater는 이렇게 강조한다. 웨슬리가는 자신의 논쟁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하나의 시도로서 *An Extract*와 다른 영적 저자들의 글들을 출판하였다. 그 자신의 주장을 담은 글들을 발표함과 동시에 다른 영적 저자들의 글을 요약 발췌하여 출판함으로써, 웨슬리는 양자가 서로 서로 “조명을 해 주도록” 의도했던 것이다. Richard Heitzenrater, “John Wesley’s *A Christian Library*, Then and Now,” *American Theological Library Association Summary of Proceedings*, 55 (2001), 139를 보라.

28) 예를 들면, 웨슬리의 설교 19, “The Great Privilege of Those That Are Born of God” (1748), §1.9, Wesley, *John Wesley’s Sermons*. “The eyes of his understanding are now open, and he ‘seeth him that is invisible’. He sees what is the exceeding greatness of his power’ and of his love toward them that believe...” 또한 설교 43, “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1765), §II.1, Wesley, *John Wesley’s Sermons*. “Faith in general is defined... a divine ‘evidence and conviction of’...‘things not seen’—not visible, not perceivable either by sight or by any other of the external senses....”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단순하게 주관적 내면적 감정에 의존하는 열광주의적 경향을 반박하면서 영적 인식에 있어서 감각의 정화와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카리우스의 글을 통하여 강조하였던 것이다.

IV. 웨슬리의 영적 감각론과 칸트 이후 신-인식론

이제 웨슬리의 영적 감각이 칸트 이후 신-인식론의 단점을 극복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탐구해 보겠다. 우선 이를 위해, 웨슬리의 영적 사상에 대해 지금까지 논한 바를 정리해 보겠다. 웨슬리가 자연에 대한 과학적 실험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된 로크적인 패러다임을 종교적 경험 이해에도 적용하려는 시도에 크게 반발하였으며 그러한 시류를 반박하기 위해 영적 감각론을 발전시켰다. 웨슬리는, 우리의 영적 인식을 위한 능력을 간과됨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경험의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였다.²⁹⁾ 이것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 속에 갇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웨슬리는 로크의 방법론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영적 인식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그 자신의 경험론을 구축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웨슬리는 마카리우스를 포함한 초대교회의 사상들을 참조하였다. 이런 점들을 잘 고찰하면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에서 현대 신-인식론에 도움이 될만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가졌을 것이다.

웨슬리는 인간이 신적인 것에 관한 지식을 얻는 길은 감각 기관들이 획득한 감각 소여에 대한 이성적 추론뿐이라는 주장에 만족할 수 없었다. 웨슬리의 경우, 이것은 신자들의 신적 경험과 그들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간접적이었다. 더욱이 웨슬리의 시각에서 보면, 실험자(관찰자)와 관찰대상 사이의 절대적인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연적인 감각 능력에만 의존하는 실험실증주의는 믿음이 추구하는 궁극적 실재나 신적인 것들을 찾는 데 적절한 길이 아니었다. 웨슬리의 경우, 궁극적이고 신적인 실재의 경험은, 경험자와 경험되는 것 사이의 구분을 넘어서는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다. 그것은 경험을 하는 영혼, 감각 기관, 그리고 경험의 원천이 모두 경험의 사건 속에서 모두 연합하는 것이다.

웨슬리의 영적 감각은 그의 시대의 이성주의와 열광주의자들과의 논쟁 속에서 발전하였다. 이런 연유로, 웨슬리는 인간 감각에 발전이 있음을 주장한다. 즉 인간의 감각은 물질적 세계만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이에 더해 영적 현실을 인식하는 단계로 확

29) Runyon, *The New Creation*, 149-51; Theodore Runyon, "The Role of Experience in Religion," *International Journal for Philosophy of Religion* 31 (1992): 187-94.

장된다는 것이다. 웨슬리는, 이런 개념을 통해 신과의 소통과 대면이 있는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초자연적 세계에 대한 인식의 깨어남이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³⁰⁾ 또한 웨슬리의 사상에는 *divinitatis sensum*과 같은 인간 인식에 대한 정(靜)적인 이해에 대한 극복 노력이 들어 있다. 예정론적 결정론과 대조적으로, 웨슬리는 영적 감각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모든 사람의 영적 감각은 새롭게 각성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웨슬리는 새롭게 깨어난 영적 감각은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서, 생각과 감정의 정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장의 단계에 합당하게, 신적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다양하다. 이와 같이, 웨슬리의 영적 감각의 이해는 발전과 변형의 사상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 안에는, 물질적 감각과 영적 감각의 관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딜레마 극복을 위한 세 가지 기준

Coakley는, 그의 글에서, 영적 감각론이 현대 신인식론의 딜레마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³¹⁾ 이 요소들을 참조하여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이 현대 인식론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서술하겠다. 중요한 것은 현대 인식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인식론은 신자들은 세상을 보는 것은 불신자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형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식의 성장과 성숙에는 신앙 고백과 훈련들에 대한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하며, 그 수행의 깊이에 따라 영적 인식의 성숙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인간의 인식 능력은, 한 사람의 인생 여정, 수행, 그리고 삶의 형태에 따라 변화되고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점을 Coakley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하나님 인식은 평평한, 프로쿠루스테스의 침대³²⁾ 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의 인식 능력은 감각 기관들이 점진적으로 정화되는 만큼 그 감각의 대상에게 열려진다.”³³⁾ 두 번째로, 같은 신적 리얼리

30) John Wesley, “An Earnest Appeal to Men of Reason and Religion” (1743), *The Appeals to Men of Reason and Religion and Certain Related Letters*, Gerald Grad ed., Works vol 11 (Oxford: Clarendon Press, 1975), §§ 6-7. 설교 45, “The New Birth,” §II.4.

31) Coakley, 139-41. Coakley는 초대 교부들의 영적 감각 사상을 종합하면서 영적 감각 사상이 이러한 현대 인식론적 딜레마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32) 프로쿠루스테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그의 집에는 철로 만든 침대가 있는데 프로쿠루테우스는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자신의 침대에 누이고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그만큼 잘라내고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억지로 침대의 길이에 맞추어 늘여서 죽였다고 한다. 프로쿠루테스의 침대는 억지로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표현으로 쓰인다.

33) Coakley, 132.

티라 할지라도, 신자의 영적 수행의 정도, 그들의 삶의 형태에 따라 그 이해는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성과 정서의 융합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³⁴⁾ 과학적 관찰의 경우, 관찰자의 관찰대상으로부터 분리된 실험의 적절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된다. 하지만 영적 경험은 이와는 매우 달라야 한다. 영적 경험은 한 사람의 변화를 촉발하는 경험이고, 상호간에 정감을 주고받는 교감의 경험이고, 나아가 연합 하와 일치에 이르는 사랑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 속에는 현대 신-인식론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은 골고루 들어 있다고 말하고 싶다.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신자의 변화, 그리고 신적인 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보이는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차이에 대한 웨슬리의 설명을 하기 위하여, 웨슬리는 ‘새로운 탄생’과 함께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변화 중 하나는 ‘영적 감각’의 회복이라고 강조한다. 이 영적 감각은 이제 신자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준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이전에 신적인 것을 느끼지 못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사람은 분명한 경험으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침상이시며, 나의 길이십니다. 나는 ‘내 모든 길에서’ 당신을 느낍니다.”³⁵⁾

웨슬리는 영적 감각 사상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변화와 점진적 성장의 여정으로 묘사한다. 칭의와 신생의 순간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인식론적인 변화의 순간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의 길이 시작된다.³⁶⁾ 그리고 이러한 인식론적 변화는 일부 선택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숨겨진 지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초대이다. 그것은 인간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라는 초대인 것이다.³⁷⁾ 여기서 가능하게 된 것은 용서에 대한 지적 동의와 같은 지성적

34) 이와 관련해서 Coakley는 Wittgenstein의 말, “It is love that believes the resurrection.”을 인용하고 있다. *Ibid.*, 142, 147.

35) those born of the Spirit are “now sensible of God, and he [or she] can now say by sure experience, ‘Thou art about my bed, and about my path’; I feel thee in ‘all my ways.’” 웨슬리 설교 19, “The Great Privilege of Those That Are Born of God,” §I.8. 이와 관련하여 웨슬리 설교 45, “New Birth,” Wesley, Works, §II.4 참조.

36) Runyon, *The NewCreation*, 80

37) 여기서 하나님의 이미지에 관한 마카리우스의 이해와 웨슬리의 이해를 비교해 보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Plested에 따르면, Macarius는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영혼이라고 이해했다 (Plested, 34). 마카리우스는 이렇게 진술한다. “It was not of Michael and Gabriel, the archangels, that God said, ‘Let us make [man] after our image and likeness, but of the intellectual essence (*noera ousia*) of man, that is, his immortal soul” (II.15.22; Wesley는 발췌본에서 이 부분을 신지 않았다). 마카리우스는 또한 이렇게 말한다. “The body is in a sense the icon of the soul, the image of the *imago Dei*” (I.18.7.1 - 3). 따라서 마카리우스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영혼이라고 여겼으며, 이 영혼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점에서 마카리우스의 이해는 웨슬리의 이해와 상당히 다르다.

지식만이 아니다. 새로운 삶의 길은 사모하게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성화의 성령에게 응답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포함한다. 깨어난 영적 감각은 우리로 하여금 신적 선물들을 알아보게 한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탄생’으로 “활성화된” (“quickened”)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완전을 향하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준다.³⁸⁾

Outler가 주장하듯이, 웨슬리는, 마카리우스를 포함하여 유수의 고대의 기독교 저자들을 참조하면서, 그의 독창적인 *ordo salutis* 혹은 “구원의 질서/여정”을 이끌어 내고 그 정황 속에 영적 감각에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 *ordo salutis*는 선재은총, 인간의 자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웨슬리의 사상 중 가장 특징적인 교리인 *teleosis* (perfecting perfection)로서의 완전의 교리 등의 근간이 되고 있다.³⁹⁾ 다시 말하면, 마카리우스를 포함한 초대 기독교 저자들에 대한 웨슬리의 연구는 “성화와 완전

웨슬리 역시 하나님의 이미지를 인간성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본다. 하지만 그에게 이것은 좀더 관계적이다. 그의 설교 “The Image of God”에서 웨슬리는 이렇게 설명한다. “Human beings as receiving the love of God and then reflecting that love toward all other creatures” (§ 1.2; Runyon, *New Creation*, 13에 인용됨). 다시 말해, 웨슬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a human capability or inherited possession”이 아니라 “a loving relationship called forth by the divine grace”이다 (Runyon, 13). 웨슬리는 이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세 가지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 세 가지 길은 자연적, 정치적, 도덕적 이미지이다 (설교 45, “The New Birth,” § 1.1). 자연적 이미지는 이해력(이성) 의지, 그리고 자유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선물들로 말미암아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의식적인(conscious) 관계를 맺을 수 있다 (Runyon, 14). 정치적 이미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미지이다. 이것은 인간이 “vicegerent upon earth, the prince and governor of this lower world”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주신 “faculties for leadership and management”이다. (웨슬리, “General Deliverance,” § 1.3; Runyon, 16 - 17). 도덕적 이미지는 “the chief mark of the human relationship to God”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맺음인데 이 안에서 사람들은 창조주로부터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을 받으며, 이렇게 받은 것을 온 세상에 전달한다. 이런 점 때문에, 웨슬리는 이러한 관계를 “spiritual respiration”이라고 지칭한다 (Runyon, 18).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관계적이므로, 웨슬리의 경우, 이 이미지가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런언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도만큼 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삼중적 이미지는 선한 방향으로 향할 수도 있지만 악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Runyon, 13). 이런 점에서 웨슬리에게 새로운 탄생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 뉘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영적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이다. 이러한 웨슬리의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관계적 이해는 웨슬리 당대의 이신론자들과 칸트의 이해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는 점은 관심 있게 바라볼 대목이다. 당시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성이라고 주장했으며, 칸트는 의식이라고 했다 (Runyon, 13).

38) 영적 감각의 갱생과 활성화라는 웨슬리의 영적 감각에 대한 이해의 배경에는 초대 동방교회 회의 “신화”(神化, divinization, *theosis*) 사상이 놓여 있다. 웨슬리는 이러한 사상을 그의 영국 교회 전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초대 기독교 저자들의 저술들을 직접 접함으로써 흡수하였다.

39) Outler, introduction to Wesley, Works, I: 74.

이 정적인(a static) 상태가 아니라, 성령이 부여하는 생명에 근거한 동적이며 (dynamic) 성장하는 과정이며, 완전한 사랑을 목표로 나가는 과정임을 보게 하였다.”⁴⁰⁾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독교 신자들은, 마치 거부할 수 없는 힘에 끌려가듯이 성령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감각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이다.⁴¹⁾

웨슬리에게는 완전을 향한 성화는 “은혜에서 은혜로” 이어지는 점진적이고 성숙해가는 변화였다. 그의 설교, “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에서,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 시간부터 성화의 점진적인 활동은 시작된다”⁴²⁾ Maddox가 말하는 바와 같이, 웨슬리의 성화에 관한 가르침들은,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가는 점진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⁴³⁾ 따라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활성화시키는 성령은 “이러한 실재적이고 변혁하는 과정의 즉각적이고 무매개적인 원인이다(immediate cause).⁴⁴⁾ 즉 이 변혁은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힘과 현존에 우리가 깊이 참여하는 실재적인 변혁의 과정이다.”⁴⁵⁾ 성령의 은혜로운 활동을 통하여, 인간은 변형되고, 갱신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와 닮은 안에서 회복된다. 따라서 웨슬리는 성화를 이렇게 설명한다. 즉 성화는 “[인간의] 영혼에 깃들인 하나님의 생명이며, 신적 본성과 그리스도 안에 있던 정신(the mind), 혹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미지에 따라 우리의 마음(the heart)를 갱신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⁴⁶⁾

결론적으로,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은 구원의 질서라는 상황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특히 거듭남이라는 변형의 순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다. 변형의 순간 영적 감각은 활성화되며 이후 이어지는 완전을 향한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따라간다. 이러한 구원의 질서라는 개념은 Coakley가 제시하는 요건의 첫 번째에 거의 일치한다.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 Coakley는 부활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은, “그들이 윤리적 영적 준비를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해왔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감지하는 훈련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지”에 따

40) Hoo-Jung Lee, “Experiencing the Spirit in Wesley and Macarius,” in *Rethinking Wesley’s Theology for Contemporary Methodism*, ed. R. L. Maddox (Nashville: Kingswood, Books, 1998), 205.

41) Albert Outler, “Introduction,”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1, (Nashville, TN: Abingdon, 1988), 75.

42) “From the time of our being ‘born again’ the gradual work of sanctification takes place.” Wesley, Sermon 43, “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18.

43) Maddox, *Responsible Grace*, 177 - 78.

44) Lee, 204; 또한 Maddox, *Responsible Grace*, 121 - 23 참조.

45) Lee, 204.

46) Wesley, “Journal (13 Sep. 1739),” in *Journals and Diaries II*, ed. W. Reginald Ward and Richard P. Heitzenrater, in Wesley, *Works*, 19:97. 여기서 우리는 웨슬리의 성화라는 주제가 동방 기독교 저자들의 저술에 나오는 *theosis*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다양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말한다고 말하는 데, 이는 웨슬리의 점진적 성화와 이를 위한 신자들의 수련에 대한 가르침을 떠올리게 한다⁴⁷⁾ 또한 Outler가 강조한 바와 같이 웨슬리는 성화와 완전을 결코 정적인(靜的, static) 의미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는 점도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의 특성이 Coakley가 말하는 요건에 잘 부합한다. 즉, 웨슬리는 구원이, 한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범정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정적인 구원 이해가 근대의 시기에 영적 감각에 대한 정적인 이해를 야기했다. 웨슬리에게 성화는 은혜 안에서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영적 은혜에 영적 감각을 통하여 응답하고 협력하는 속에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정이다.⁴⁸⁾

Coakley의 두 번째 제안은 영적 감각 전통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찾고 그것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겪는 변화의 중요성을 드러낸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⁴⁹⁾ Coakley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한다. 이 여정은 “첫 단계에서의 윤리적 ‘돌아섬’, 그 다음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려는 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영적/감각적 지식으로 온전한 충만한 친밀함을 포함한다.”⁵⁰⁾ 이러한 과정과 관련하여, 웨슬리는 한 사람의 영적인 삶에서 새로운 탄생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그는 칭의의 순간을 새로운 탄생의 계기로 본다. 이와 같이, 새로운 탄생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영적 감각의 활성화로 본다. 이렇게 각성된 감각들과 함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후정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웨슬리 영성의 핵심은 마음과 삶에 있는 정화된 완전한 사랑이다. 무엇보다도, 웨슬리의 영성에는 신적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죄에 물든 열정으로부터의 정화된다는 가르침도 있다.⁵¹⁾ 이런 웨슬리의 가르침들은 Coakley가 말하는 두 번째 요건과 많은 부분 공명된다. 웨슬리의 경우, 완전의 개념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충만해 지는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충만해진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의 모든 부분, 즉 지성(the mind)과 마음(the heart)과 성격과 생명을 다스린다. 거룩해져 감에 따라, 순수한 사랑은 충만함을 향해 증가해 간다. 반면에 죄에 물든 열정은 점점 감소해가면서 뿌리가 뽑혀진다.⁵²⁾ 이와 같은 웨슬리의 정화에 관한 가르침은 Coakley가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정화를 강조하는 것과 거의 일치한다. Coakley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 사람의 ‘정화’를 통해 일어나는 인식론적 역량

47) Coakley, 139.

48) Lee, 205.

49) Coakley, 139-40.

50) *Ibid.*

51) Lee, 205. 이 가르침은, 마카리우스를 포함한 초기 기독교 저자들이 중요하게 강조했던 apatheia 개념과 가까워 보인다.

52) *Ibid.*

의 실재적 변화이다.”⁵³⁾

마지막으로, 웨슬리의 마음의 정화에 관한 가르침은 Coakley가 말하는 세 번째 요건, 지식과 정서의 융합과 많은 면에서 공명된다. Coakley는 영적 감각 사상의 전통이 지성적인 것뿐 아니라 정감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웨슬리는 종종 “이성적 열광주의자” (“reasonable enthusiast”)라고 불렸다. 또 웨슬리가 기독교를 “마음의 종교” (“religion of the heart”)라고 정의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웨슬리는 그의 *An Earnest Appeal to Men of Reason and Religion*에서 감리교인들은 “이성과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독교인들은 진정한 정서로 가득할 뿐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⁵⁴⁾ 이와 같이, 웨슬리는 한 사람의 영성 생활에서 이성 뿐 아니라 정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다.

*The Character of a Methodist*에서 웨슬리는 진정한 감리교인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의해 온전하게 정화되어 있으며,⁵⁵⁾ 동시에 그 마음이 하나님 한분에게 고정되어 있다. 그의 모든 열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리고 그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의 법을 온전히 준수한다. 성화의 길에서 지성과 마음의 역할에 관하여, 웨슬리는 이렇게 강조한다.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성화되면, 완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the mind)’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걷는 것’이다. 즉 그분 안에 있던 모든 마음(the mind)을 가진다는 것, 언제나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다는 것, 다른 말로하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 마음과 생명을 다해 헌신하는 것이다.”⁵⁶⁾

이에 더하여, 신 인식론에 있어서의 정감적인 것과 지성적인 것의 융합의 중요성에 관하여, 로크적 인식론의 특성들에 대한 웨슬리의 비판은 눈여겨 볼만하다. 웨슬리 당대의 로크주의자들은 주장했다. 관찰자(주체)와 관찰 대상(객체)의 분리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어떤 정서와 감정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웨슬리는 이러한 것들은 신성과 신적 리얼리티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필요한 적절한 선결 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영적 경험은 신자(관찰자)가 신성과 신적 리얼리티(관찰 대상)에 참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또한 한 사람의 변형을 동반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형은

53) “What happens in this process is a transformation of ones’ actual epistemic capacities through their ‘purgation.’” Coakley, 140.

54) Cragg, introduction to Wesley, *An Earnest Appeal*, 40; Wesley, *An Earnest Appeal*, §§ 27, 56.

55) Wesley, *The Character of a Methodist*, in *The Methodist Societies: History, Nature, and Design*, ed. Rupert E. Davies, in Wesley, *Works*, 9:32 - 42.

56) Wesley,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 15, Whaling, *John and Charles Wesley*, 316.

지성과 마음 뿐 아니라 한 사람의 모든 본성이 다 참여하는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Runyon은 이렇게 언급한다. 웨슬리의 영적 인식론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성령이 우리를 끌어당겨 하나님의 리얼리티 속으로 들어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⁵⁷⁾ 이와 같이,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은 Coakley가 제시하는 현대 인식론이 그 난점들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건들과 가까운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에 대한 연구는 신 인식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 인식론에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는 말

이 논문에서 나는 웨슬리의 영적 감각에 대한 가르침이 현대 인식론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려고 시도하였다. 웨슬리는 초기 근대 시기에 살았다. 이 시기는 이성이 권위를 가지기 시작한 시기이고, 합리적 실증적 접근이 인식과 지식의 습득에 중요한 방법으로 등장한 시기였다. 이 시기 시작된 과학적 방법론, 실험 실증주의 등, 새로운 접근법들은 새로운 인식과 지식 확보의 통로로 인류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에는 땀가가 있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자연적 감각과 이성에 치중하고 의존하게 되었다. 이런 경향 속에서 웨슬리는, 그의 동시대인들과 달리, 이러한 경향이 초월적 종교적 경험과 인식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가 보기에는 이러한 경향은 인간의 지식, 경험, 이해를 물리적 실재에만 국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웨슬리는 우리의 이성과 감각이 성령의 도움과 정화를 필요로 한다는 주장을 담은 영적 감각 사상은 주창하였다. 그는 과학적 합리적 추론의 한계가 신경형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으며, 사람들에게 그것을 넘어서서 더 폭넓은 세계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담은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은 이제 근대에서 포스트-모던으로 넘어가는 현재의 인류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게 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길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은 현상의 세계, 자연의 세계에만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에 대한 반발이었으며,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영적 인식의 차이를 결정론적으로 이해하려고 태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었다. 이러한 어력의 과정에서 웨슬리는 초기 기독교 전통에 있던

57) Runyon, *The New Creation*, 80.

감각의 정화와 발달에 관한 가르침들을 참조였다. 따라서 그리고 웨슬리의 사상은 자연 세계만을 삶과 인식의 무대로 전제하려는 우리들의 태도를 제고하게 한다. 또한 우리들의 인식 능력에 관해서 결정론적으로 생각하던 태도를 다시 보게 한다. 즉 우리들의 감각과 인식 능력에 변형과 발전의 가능성 있음을 깨닫게 한다. 그 발전은 신적 리얼리티를 감지하는 데로 나아가며, 신적인 것을 경험, 인식 분별함을 통하여 신적인 것과의 연합의 완성까지 나아간다. 뿐만 아니라, 웨슬리는 이러한 감각과 인식의 변형과 점진적인 발달과 성숙을 위해서는 신적인 것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성령과 협력하는 정화의 노력과 규칙에 따라 훈련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 즉 마음과 감각의 새로운 탄생, 변형, 진보, 정화를 강조하고 한 사람의 영적 여정에서의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사상은 신적인 실재와의 소통과 대면과 연합의 경험을 말하는 영적 인식을 이해하는 약점을 보이던 현대 인식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세계는, 웨슬리가 우려했던 대로 모든 사람은 초월적 실재로부터 분리한 자연계 속에 국한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와 넘쳐나는 정보,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한계 속에 매몰된 듯이 느껴지고, 궁극적인 것과의 관계 맺음과 같은 영적인 면에서는 어쩔 줄 모르는 공허와 빈곤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 더욱이 이런 속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세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정화되고 변형과 발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들의 감각의 발전과 변형을 이야기 하고 우리에게 더현재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는 인식의 가능성을 말하는 영적 감각 사상은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공부는 우리의 인식의 지평의 한계와 단점을 보게 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고 확장할 것인지를 질문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을 우리의 인식이 한 곳에 국한 되거나 매몰되어 있다면 그것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초월의 세계가 인간다움에 중요함을 강조하고 우리의 감각이 정화되고 연단되어야 참된 리얼리티를 보다 더 잘 볼 수 있다는 점을 근대의 시대정신 속에서 강조하고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 참고문헌 ■

- Calvin,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1. Edited by John T.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Coakley, Sarah. "The Resurrection and the 'Spiritual Senses': On Wittgenstein, Epistemology and the Risen Christ." In *Powers and Submissions: Spirituality, Philosophy and Gender*, 130 - 152. Oxford: Blackwell Publishers, 2002.
- Guyer, Paul. "Kant, Immanuel." In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5, edited by Edward Crag, 177 - 200. London: Routledge, 1998.
- Heitzenrater, Richard P. "John Wesley's *A Christian Library*: Then and Now." *American Theological Library Association Summary of Proceedings* 55 (2001): 133 - 46.
- Kant, Immanuel. *Critique of Pure Reason*. 2nd ed. *The Cambridge Edition of the Works of Immanuel Kant*. Edited by P. Guyer and A. Wo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Lee, Hoo-Jung. "Experiencing the Spirit in Wesley and Macarius." In *Rethinking Wesley's Theology for Contemporary Methodism*, edited by R. L. Maddox, 197 - 212. Nashville: Kingswood Books, 1998.
- Luby, Daniel Joseph. *The Perceptibility of Grace in the Theology of John Wesley: A Roman Catholic Consideration*. Rome: Pontifical University of St. Thomas, 1994.
- Macarius (Pseudo-) of Egypt. *Pseudo-Macarius: The Fifty Spiritual Homilies and the Great Letter*. Translated and edited by George A. Maloney. New York: Paulist Press, 1992.
- Maddox, Randy, and Jason E. Vickers, 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Wesle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Outler, Albert, ed. *John Wesley*. New York: Oxford, 1964.
- Reese, William L. "Kant, Immanuel." In *Dictionary of Philosophy and Religion: Eastern and Western Thought*, new and enlarged ed., edited by William L. Reese, 372 - 77. Atlantic Highlands, NJ: Humanities Press, 1996.
- Rivers, Isabel. *Reason, Grace, and Sentiment: A Study of the Language of Religion and Ethics in England 1660 - 1780*. 2 vo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Rohlf, Micahel. "Immanuel Kant." In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Winter 2012 ed, edited by Edward N. Zalta <https://plato.stanford.edu/entries/kant/>, accessed July 10, 2018.
- Runyon, Theodore. *The New Creation: John Wesley's Theology Today*. Nashville: Abingdon, 1999.
- Sheldrake, Philip. *A Brief History of Spirituality*.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2007.
- Wesley, John. "An Earnest Appeal to Men of Reason and Religion" (1743), *The Appeals to Men of Reason and Religion and Certain Related Letters*, Gerald Grad ed.,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11. Oxford: Clarendon Press, 1975.
- _____, *The Works of John Wesley*. Edited by Albert C. Outler et al. Vol. 1.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 _____, *The Works of John Wesley*. Edited by Albert C. Outler et al. Vol. 9,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2003.
- _____, *John Wesley's Sermons: An Anthology*. Edited by Albert C. Outler and Richard P. Heitzenrater.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 _____, *John Wesley's Sermons: An Anthology*. Edited by Albert C. Outler and Richard P. Heitzenrater.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 _____,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Whaling, F. ed. *John and Charles Wesley: Selected Prayers, Hymns, Journal Notes, Sermons, Letters and Treatises*. Mahwah, NJ: Paulist Press, 1981.
- _____, *The Journal of the Rev. John Wesley*. Edited by Nehemiah Curnock. London: Epworth Press, 1960.
- Wesley, John, ed. *An Extract from the Homilies of Macarius*. A Christian Library: Consisting of Extracts from and Abridgments of the Choicest Pieces of Practical Divinity Which Have Been Published in the English Tongue. Vol. 1. London: T. Cordeaux, 1819 - 1827.

논 찬 1

“미디어 시대의 영성 생활: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 과 칸트 이후 인식론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이 주 형 박사

(연세의료원)

영적 감각에 대한 이론적 체계는 기도 수련을 통해 영적 변화를 추구하는 기독교 영성에서 중요한 학문적 담론의 주제이다. 특히 개별 영혼의 영성형성을 돕는 영성 실천과 영성 지도 영역에서 영적 감각을 일깨우고 분별로 안내하기 위한 이론적 체계 구축은 핵심적인 과제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온라인 프로그램과 미디어를 통한 기도수련과 영성지도를 안내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미디어 시대의 영성생활을 화두로 던진 저자의 탐구는 시의적절성과 적실성 측면에서 훌륭한 연구 주제라고 사용된다. 인쇄술의 발달이 종교개혁을 촉진했던 것처럼, 일상에서 장시간동안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생각과 사고, 가치관과 세계관에 영향을 받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영성 생활은 어떤 변화와 영향이 발생할지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은 이미 이 논문이 가진 시대적 가치를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자는 현대사회를 위한 영적 경험 이론 체계를 구축하면서, 웨슬리의 영적 감각론이 현대인들의 영성 생활에 변화와 갱신을 유도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토대는 사라 코글리로부터 이론적 도움을 받은 흔적이 여러 군데 역력하다. 우선, 현대 유럽의 인식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칸트의 인식론 비난으로부터 출발한다. 실제와 경험의 세계를 Noumena와 phenomena로 구분하여 이성의 역할을 순수이성과 실천 이성으로 분리시킨 칸트의 신神 인식론이 결국 기독교인들의 영적 경험을 수용하기에 한계를 지닌다고 비판한다. 칸트의 신神 인식론에 그 기초를

세운 로크주의적 접근과 바르트적 접근이 현대 기독교의 감각 경험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전자는 정보와 지식은 과학적 접근방식을 통한 실증주의적 접근이어야 한다는 근대적 사고체계이며, 후자는 그에 대한 반론으로 계시의 신적 권위를 주장한 신정통주의적 해석이다.

연구자는 두 사상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영적 감각을 일깨우며, 하나님을 향한 경험을 심화시키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관찰과 경험의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는 로크주의자/실증주의적 접근은 실적 실재를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적 실재에 참여하여 변형과 발전의 가능성을 깨닫도록 안내하는, 웨슬리의 영적 감각론이 담지하고 있는 영적 인식론이 현대사회의 영적 경험을 새롭게 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여러 측면에서 그 학문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첫째, 기독교 영성학의 탐구방법론적 측면에서, 연구자는 웨슬리의 영성을 전유appropriate를 시도한다. 즉, 웨슬리의 영성이 과거뿐 아니라 현대 교회와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영성전통이며, 전유의 방법론을 통해 그 영적 가치와 효용성을 재발견한다.

둘째, 웨슬리의 영적 감각론이 현대 사회의 영적 변화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현대 신학자이며 종교철학자인 사라 코글리의 이론과의 대화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셋째, 근대를 넘어 현대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성주의와 열광주의 틈바구니에서 영적 감각의 진정성과 순수성, 초월적 세계에 대한 인식으로의 가능성을 소개하고자 연구자의 노력은, 영적 경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뢰할만한 이론적 토양이 절실한 한국 기독교 영성학계에 환영받아 마땅하다.

건설적이고 발전적 담론과 소통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현대 인식론의 한계를 설명하는 역사적 뿌리를 칸트와 로크 그리고 칼 바르트로 이어지는 사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근대 시대에도 이성의 한계를 절감하며, 감정과 정서적 경험이 인간 인식에 근원이라 설파한 철학자들도 있다. 예를 들면 이성의 절대 우위를 주장하던 근대 시대에 스피노자는 감정과 정서적 경험이 이성 선행하거나 연합한다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과학주의와 실증주의의 한계가 이미 포스트모던적 상황에서 분명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웨슬리의 사상이 영적 변화와 성장으로 인도하는데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신지요?

둘째, ‘영적 감각’용어가 웨슬리 고유의 개념인지 아니면 후대 학자들의 개념 정리인지가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웨슬리의 고유한 개념이라면 논지

와 담론의 정확성을 위해 원자료에 대해 부연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웨슬리의 영적 감각론이 마치 코글리의 이론에 합치되거나 그 정당성을 부여받는 듯 한 표현들이 여러 페이지에 연이어 등장합니다 (p.14 "이러한 구원의 질서라는 개념은 코글리가 제시하는 요건의 첫번째에 거의 일치한다." p.15 "웨슬리의 정화에 관한 가르침은 코글리가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정화를 강조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 p.16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은 코글리가 제시한 현대 인식론이 그 단점들을 극복하는데 더 필요한 세 가지 요건들과 가까운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웨슬리 사상의 정통성과 역사적 권위를 후대 학자인 코글리에로부터 찾는 것은 역사적 선후관계를 혼동하는 것처럼 비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미디어 시대에 영적 감각을 일깨우는 방법으로 웨슬리의 사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미디어에 노출된 현대인들의 삶에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언급이 부재합니다. 웨슬리의 영적 감각 이론이 한국 교회 내의 영성 실천과 영성 지도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접근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논 찬 2

“미디어 시대의 영성 생활: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 과 칸트 이후 인식론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권 혁 일 박사

(영락교회)

간혹 목회 현장에서 교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와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받는다. 이처럼 하나님 인식과 관련된 ‘영적 감각’(spiritual senses)은 학문적인 주제일 뿐만 아니라 본래적으로 목회적인 주제다. 남기정 박사는 목회자와 연구자로서 영적 감각론에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천착해 왔다. 특히 그는 고대 사막 교부 마카리우스(Macarius of Egypt: 300-391)의 영적 감각론과 근대 영국 신학자 겸 목회자인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의 영적 감각론을 비교하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남기정 박사가 오늘 발표한 짧은 소논문이 영적 감각에 대한 그의 많은 지식과 통찰을 압축해서 담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본 논찬에서는 발표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후에 발표문에서 분량의 제한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내용들을 명료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남기정 박사는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이후의 현대 인식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영적 감각에 대한 존 웨슬리의 가르침을 그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발표자에 의하면, 본체(noumena)와 현상(phenomena)의 구분에 기초하고 있는 칸트의 형이상학은 “지식과 탐구의 한계를 [육체적] 감각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영역에 국한”함으로써 “신적 계시, 신성과의 대면과 연합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는 “신학과 영성분야에 커다란 허들을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칸

트적인 분리는 서구의 17세기, 18세기의 지성적 활동을 종합한 것”이며, 현대 신(神)인식론적 딜레마를 고착시킨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발표자는 현대 신인식론의 주요한 두 축을 ‘로크주의적’(Lockean) 길과 ‘바르트적’(Barthian) 길로 분류한 사라 코클리(Sarah Coakley)의 견해를 따라, 두 가지 길 모두 “신적 경험에 있어서, 신자들의 경험과 비신자들의 경험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신앙의 깊이 차이, 그들의 신과의 친밀함의 차이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신인식의 차이에 대해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현대 신인식론의 딜레마는 본체와 현상, 혹은 초월과 내재, 혹은 인식의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상정하며, 주체의 특성과 잠재력을 간과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적시한다.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남기정 박사는 사라 코클리가 초대 교부들의 영적 감각 사상을 바탕으로 제시한 현대 신인식론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들을 갖대로 존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이 이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은 통시적으로는 사막 교부 마카리우스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공시적으로는 당대의 이성주의자들과 열광주의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웨슬리의 사상에서 “영적 감각이란 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인간의 감각”이다. “인간의 통상적 인식 능력이 실은 상당히 실추된(失墜~, deteriorated) 상태에 있어서, 현재의 인간의 인식은 물질계에만 국한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은혜의 작용으로 영적 감각이 활성화”되어 인식 능력이 회복되면, 사람은 초자연적 세계, 신적 현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한 “진정한 영적 경험을 위해서는 영혼의 정화와 성숙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발표자는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 즉 마음과 감각의 새로운 탄생, 변형, 진보, 정화를 강조하고 한 사람의 영적 여정에서의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사상은 신적인 실재와의 소통과 대면과 연합의 경험을 말하는 영적 인식을 이해하는 약점을 보이던 현대 인식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힘주어 말하였다.

이와 같은 남기정 박사의 연구는 오늘날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체험을 추구하고, 그 가능성과 중요성을 설파하고자 하는 오늘날의 신자들과 목회자들과 연구자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학회의 주제어인 ‘미디어 시대’는 감각적 즐거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욕망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미디어의 발달과 확장이 어우러져 ‘눈에 보이는’(visible) 쾌락이 우상처럼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지배하는 때다. 이러한 때에 이성 또는 과학이라는 ‘합리적인’ 또는 ‘계몽된’ 눈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invisible) 신을 눈에 보이는 “만들어

진 신”(The God Delusion)으로 축소시켜 인간의 감각과 사고의 틀 속으로 쑤셔 넣으려는 시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여전히 초월적 세계와 영적 감각을 주장하는 ‘고지식한’ 남기정 박사의 연구는 오늘날 눈에 보이는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까지 ‘회심’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논찬자의 추측일 뿐이다. 왜냐하면, 발표문에서는 “미디어 시대의 영성 생활”이라는 주제를 붙인 것과 서론에서 “동영상 매체, 가상현실, 증강현실까지 동원하는 새로운 미디어의 발달”이 사람들의 영성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제기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문과 결론에서는 미디어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발표자는 연구의 목표를 “경험은 어떻게 생겨나고 지식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그 중에서도 현대의 신인식론과 웨슬리의 영적 감각론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지만, 이와 같은 연구가 미디어 시대의 영성 생활에 주는 의의가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발표자는 웨슬리에게 있어서 “영적 감각이란 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인간의 감각”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정의만 본다면 악의 영향력 아래서 “실추된 상태”에 있는 인간의 인식 능력, 또는 감각은 영적 감각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나 “영적 감각들의 깨어남과 성숙” 또는 정화와 활성화를 주장한 대목에서는 인간에게 영적 감각은 “새로운 탄생” 이전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면 웨슬리는 인간에게 영적 감각은 언제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가? 그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지식이나 훈련을 통해 후천적으로 계발된 것인가?

아울러 발표자는 “웨슬리는 이러한 감각과 인식의 변형과 점진적인 발달과 성숙을 위해서는 신적인 것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성령과 협력하는 정화의 노력과 규칙에 따라 훈련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아직 영적 감각의 깨어남·활성화·변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식 능력이 실추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신적인 것에 대해 헌신하고, 규칙에 따라 훈련하도록 추동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복음의 선포나 교육을 통해 습득된 지식인가? 아니면, 그런 사람도 자신의 의지나 훈련과 관계가 없이 수동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일종의 계시 사건, 또는 영적 경험을 부분적, 단편적으로라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가? 다른 말로, 영적 감각을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탄생”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영적 감각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실추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 체험 또는 지식을 얻어서 회심하고 “새로운 탄생”을 경험할 수 있는가?

또한 남기정 박사는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은 “칼빈의 *divinitatis sensum*과 같은 근대 초기의 정적(靜的, static) 영적 인식론과의 투쟁이었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예정론적 결정론과 대조적으로, 웨슬리는 영적 감각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모든 사람의 영적 감각은 새롭게 각성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웨슬리는 새롭게 깨어난 영적 감각은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깔뱅 연구자들 중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깔뱅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신적 감각/지각(*divinitatis sensum*, I.iii.1) 을 이야기한 것은 당대의 종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이나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변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모든 사람들 속에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나 거부를 변명할 수 없음 논증하기 위해서다(롬 1:19; 2:14-15). 그래서 그는 영적 감각에 대한 사상을 정교하게 발전시키거나 설명하지는 않았다.

비록 신적 지각에 대한 그의 설명에서 본래적인 상태와 왜곡된 상태를 구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표자의 견해처럼 깔뱅이 “인간의 인식의 기능을 고정 불변한 것으로 간주”했다거나 순간적인 도약이 일어나는 분리적인 단계로 생각했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깔뱅은 신적 지각을 씨앗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것은 “종교적인 성향이 자라나는” “씨앗”과 같으며(I.iii.2), 그러한 “종교의 씨앗이 모든 사람 안에 신적으로 심기워졌음을 경험히 증명한다”(I.iv.1).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사람의 안에는 신적 지식의 씨앗이 처음부터 기이하게 심겨져있다(I.v.15). 씨앗이란 점진적으로 싹을 틔우고 자라는 것이다. 또한 깔뱅 신학에서 칭의를 통해 의롭다고 선언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연합 속으로 자라가야 한다. 곧, 성화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논찬을 마치며, 영적 감각과 신인식론에 대한 좋은 연구로 배움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남기정 박사께 깊이 감사드린다. 서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이 주제는 학문적으로만이 아니라 목회적,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이므로, 이 주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더욱 깊어지고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논 찬 3

“미디어 시대의 영성 생활: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 과 칸트 이후 인식론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최 태 관 박사

(감리교신학대학교 / 조직신학)

본 논문에서 저자는 미디어 시대의 영성생활이라는 주제로 웨슬리의 영적감각의 중요성을 해명한다. 영국 성공회 신학자이며 종교철학자인 사라 코크리의“부활과 영적 감각”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로크주의적 역사적 접근과 바르트적 접근 방법 사이에서 존 웨슬리의 영적감각의 가치를 해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은 먼저 이 두 가지 시각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경험의 양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경험자들과 비신자들의 경험의 사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신앙의 깊이나 친밀함의 차이에 대해 의미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4) 저자는 그것을 현대 인식론의 딜레마로 여기고 있다. 바르트적 접근은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계시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인식능력을 최소화하는 반면에, 로크주의자는 자연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방식을 통해서 신자들과 비신자들의 신인식의 차이를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결국 칸트 이후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정당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5) 이 두 가지 주장을 비판함으로써 저자는 인식론적 패러다임이 실재와 현상, 초월과 내재를 분리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인식의 주체와 대상을 끊어놓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저자는 오히려 웨슬리의 영적 감각이 오히려 영성 생활을 발전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5) 18세기의 존 웨슬리는 신적계시와 인간이해에 대해 가지는 비판적 태도에 반발하고 물질적 세계와 구분되는 영적 세계를 보게 하는 영적 감각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5) 저자에 따

르면, 영적 감각은 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인간 감각을 말한다.“(7) 저자가 발견한 영적 감각은 은혜의 작용으로 초자연적 세계를 볼 수 있게 능력을 말한다.

신적 계시를 검증하는 방안으로 과학적 조화와 이성적 반추를 주장한 로크주의자였던 이성주의자들에 맞서 웨슬리는 영적인 감각을 주장하며 자연적 영역을 넘어서는 신적 영향력을 강조했다.(7)다른 한편, 그는 열광주의자들에 맞서 자연적 감정에 집착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자연적 감성과 이성을 넘어 존재하는 영적 세계를 강력히 주장했다.(8) 저자는 양자에 대한 웨슬리의 비판에서 영적 감각의미를 분명히 주장했다. 초기 교부들의 사상에 대한 연구에서 영적 감각론이 구체화된다. 영적 감각이란 분명히 자연세계와 초자연적 세계를 인식하는 포괄적인 능력이고 이는 영혼의 정화 성숙을 통해서 가능하다..결국 초월을 통하여 열광주의자들과 이성주의자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9) 그러면서 저자는 칸트 이후 신인식론을 보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으로 웨슬리는 감각기관에 의해 획득한 감각소여에 대한 이성적 추론뿐이라는 주장에 만족할 수 없었고 궁극적이고 신적인 실재의 경험의 길을 위해 경험자와 경험되는 것 사이의 구분을 넘어서 모두 하나로 연합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영적감각이 발달한다고 주장했다.(11).더 나아가 초자연적 세계에 대한 인식이 깨어남으로써 신적현실에 대한 인식으로 발전한다고 보았다..따라서 이 두 가지 구분을 넘어서기 위해 감각적 기관들의 점진적 발전과 감각의 대상에 대해서 열려지는 신자의 수행에 따라 그 이해가 달라지는 지점을 저자는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칭의와 신생은 인식론적 변화의 순간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길이다..(12) 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개된 길이다.. 구체적으로 인간성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시도이다.. 새로운 삶의 길은 신앙의 대상을 사모하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신적능력을 깨닫게 하는 힘이다.(13) 이와같은 신적능력을 통해 웨슬리는 성화와 완전이 정적인 능력이 아니라 동적이고 성장하는 과정이며 안전한 사랑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이 그리스됨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점진적인 성장을 의미한다.(14)

두 번째 제안은 영적 감각전통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찾고 그것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한사람이 겪는 변화의 중요성을 드러낸다..(14) ”웨슬리는 한사람의 영적인 삶에서 새로운 탄생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칭의의 순간을 새로운 탄생의 계기로 본다..(15) 웨슬리의 영성의 해김은 정화된 완전한 사랑이다. 웨슬리의 완전의 개념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순사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한다.“ (15) 저자는 웨슬리의 마음의 정화에 대한 가르침은 코크리가 말하는 세 번째 요건 지식이 정서의 융합과 많은 면에서 공명된다고 보았다. 저자에 따르면, 웨슬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완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the mind)’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걷는 것’이다. 즉 그분 안에 있던 모든 마음(the mind)을 가진다는 것, 언제나 그분이 걸어

가신 길을 걷는다는 것, 다른 말로하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 마음과 생명을 다해 헌신하는 것이다.”(16) 감각적 경험과 이성적 인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신적인 것과의 연합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헌신의 통전적 인식이다. 이와 같은 주장들을 종합해 볼 때 지성과 영성이라는 갈등의 골을 극복하고 초월적 실재와의 관계로 나아감으로써 인간은 진정한 신적 실재를 대면하고 연합을 경험함으로써 인식론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글은 울리히 벡이 주장하는 신들이 도래하는 시대에 개인종교로서 웨슬리의 영적 감각의 재발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특히 이성과 영성의 극단적 대립에서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전통종교와 고립된 신비주의를 넘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자기만의 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기독교 영성이 자기중심적 종교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자기만의 신에서 울리히 벡이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와 에티힐레줌이라는 한 유대인 여성이 나치 정권에 저항하고 자신의 민족종교인 유대교의 한계를 뛰어넘음으로써 고난당하는 약한 신을 재발견함으로써 고난당하는 내러티브에서 웨슬리의 영적 감각이란 내러티브를 발견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논찬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일에 있음을 주장하고 인간이 신을 대면함으로써 그와 연합하는 실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존 웨슬리의 주장이 현재화 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은 자기 대면적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이성이나 극단적 열광주의를 극복하는 길로 보인다. 티리히가 궁극적 관심으로서 신과 유한자로서 인간의 양극적 관계에서 새로운 존재의 도래를 주장했던 것보다도 일맥상통하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본 논문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몇 가지 논평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선 웨슬리의 영적 감각론은 배태된 것은 17세기 영국의 독특한 시대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어 오늘날의 시대로 뛰어넘어 바로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20세기 포괄자론을 주장한 칼 야스퍼스나 혹은 티리히와 같은 현대 신학자들이 이미 주객분열의 한계를 넘어 존재하는 궁극적 실재의 길을 주장했던 예들을 볼 때 영적감각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독교 중심적 이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이 지점에서 웨슬리의 현재적 의미를 밝히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바르트에 대한 비판도 조직신학자가 보기에는 너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타당한 근거들이 충분히 소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웨슬리의 영적 감각론은 기독교 안에서도 감리교 안에 갇힐 수 밖에 없는 한계의 아쉬움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오히려 지금 현대 사회에 도래하고 있는 신의 귀환이라는 독특한 시대적 상황에서 웨슬리의 영성을 종교학적이고 종교철학적인 시각에서 그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한다.

제 5 발표

뉴스의 담화분석: JTBC “앵커브리핑”을 중심으로

최 병 례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 상담심리)

여 한 구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 목회상담학)

I. 들어가는 말

현대 사회는 정보와 가상현실로 대변되는 네트워크의 시대이다. 인터넷이 일상화 되면서 정보는 더 이상 제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통하게 된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개인의 욕망이나 꿈이 사회적으로 용인받고 인정받는 것이다. 인간이 관계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등과 오해가 생기고 살인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간은 외부 정보를 기반으로 사고과정을 거쳐 판단과 실행을 한다. 인간의 행동과 태도는 이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 소통은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외부로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 활동을 하도록 한다. 때로는 위험과 위기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인간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 사회의 정보는 인간의 힘을 잘 보여주며, 정보가 곧 안전이자 자산이 되고 있다. 지식산업은 최첨단 시대를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는데,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받을 수 밖에 없다.¹⁾ 이는 왜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박사학위 연구논문의 일부를 요약 및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 제1저자 *** 교신저자

곡된 정보로 인해 인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인들은 뉴스를 통해 수집되거나 접한 정보를 통해 판단을 하게 된다. 판단은 곧 의사소통과 태도로 그 결과를 드러내게 된다. 최근 가짜뉴스가 혼란을 주거나 갈등과 분쟁을 확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오해를 일으키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때로는 그런 상황이 긍정적 결과를 만들기도 하지만, 부정적 결과로 이어져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만들기도 한다.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가 심리적 자극을 주어 모방자살이 나타나기도 한다. 동독과 서독의 분단과 통일을 상징하는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데도 1989년 11월 샤보스키의 여행 자유화 조치와 관련한 여행법 개정안 발표에서 오해와 실수, 그리고 언론의 오보가 중요한 촉매가 되었다.²⁾ 가짜뉴스가 아니어도 보도내용과 그 논조에 따라서 대중이나 사회는 자극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뉴스를 진행하고 전달하는 기자나 앵커의 심리·정서적 반응과 이해는 중요한 공적 역할이 된다. 왜곡된 정보나 재생산된 뉴스는 여론을 왜곡하거나 개인과 대중의 반응을 편향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혼란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³⁾

언론을 포함한 매스미디어의 전달방식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과 기술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장 신뢰받는 뉴스조차 사건과 사고와 같은 사실적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되고, 해석된다는 것을 막연한 방식이 아니라 분석적 이해를 통해 본질적 가치에 접근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언론의 보도에 대한 텍스트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텍스트가 주는 작용에 대해 분석하고 살피려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기법과 작용이 언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도를 통해 복합작용을 한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언론사와 다양한 개인 매체를 통해 본질적 가치와 의미를 찾고 삶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으로써 심리분석과 담론분석은 상담에서 내담자의 진술에 대한 평가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 보도는 내담자의 진술과 유사하며, 자신의 경험이나 취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주관적 가치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언론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에 대한 연구로 문제를 인식하고 사람들의 정서와 인식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인식과 판단에 오류를 발생시키며, 사회갈등을 만드는 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기를 예방하려는 것이다.⁵⁾

언론의 역할은 사회적 의미공유와 의미생성 과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뉴스로 대표되는 언론은 일반적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히 전달하는 기본 기능에서 벗어나 해

1) 김병홍, “대중매체 언어와 자본주의: 텔레비전 뉴스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71(2015), 27-55.
 2) 김영희, 『베를린장벽의 서사(독일 통일을 다시 본다)』 (서울: 창비, 2016), 12.
 3) 조종혁, 『커뮤니케이션과 상징조작(현대사회의 신화)』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4), 28.
 4) 김영진, 『언어심리』 (서울: 학지사, 2018), 12.
 5) 조종혁, *op. cit.*, 16.

식된 정보를 전달하려는 추세에 있다. 신문기사와 같은 활자화 된 자료를 넘어 정서를 반영한 언어를 전달하는 방송은 다양한 작용이 발생한다.⁶⁾ 특히 앵커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유명세 같은 주변 요소에 의해 다른 인식과 영향력이 생길 수 있다.⁷⁾ 이런 점에서 방송에서 기초 자료를 이차자료로 재생산하거나 생각할 여지를 남기면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현대사회의 특징인 양방향 소통방식은 기사를 재생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함으로써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장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반면에 이런 작용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소통방식에 대한 조작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기도 하다. 커뮤니케이션은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뉴스의 방식은 충분히 의미있는 언론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활동이다. 그럼에도 언론의 공적 기능에서 그 상호작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일방적 교류는 위기를 만들 수 있으며, 지배적 위치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신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언론은 사건이나 사실과 시청자를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대면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⁸⁾ 사회적 교류의 경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사회적 책임과 함께 자정능력을 가져야 한다. 의사결정과 판단은 인지적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처리하고 반응하는 과정은 태도와 행동을 만들어 낸다. 판단은 객관적 정보의 취합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적합한 자료들을 취합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고 인식하는 과정은 중요한 방식이 된다. 다양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검토하는 방식을 넘어 최종자료를 통해 인식하는 방식에 익숙해지는 환경에서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획득하는 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론의 정보는 객관적 정보를 우선해야 함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케이블 방송의 확대와 유튜브 등 개인미디어의 발전과 SNS를 통한 뉴스의 재생산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미디어의 전달방식과 내용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병행되지 않을때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방송과 언론은 물론이고 마케팅과 광고 및 공익적 목적의 다양한 활동에서도 정보를 취합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학적 관점에서 이런 작용은 특정 학문 영역의 기술적 차원을 넘어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만든다. 언론의 다양성과 가치적 측면에서 인식과 평가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동일 정보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개인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반응 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 정체성과 개인의 정체성 사이의 상호작용과 간섭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사회적 정체성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거나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⁹⁾

6) 유수정, “종합편성채널 메인 뉴스의 차별화에 관한 연구: 주제와 논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5.

7) 오미영, 심재철, “TV 뉴스 앵커 스타일에 대한 지상파 방송기자 연구,” 「한국방송학회」 23/5(2009), 132-172; 최양호, “TV뉴스 앵커의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전문성 비교분석,” 「한국언론학보」 44/1(1999), 468-488.

8) 조종혁, *op. cit.*, 21.

언어적 측면에서 뉴스는 권위 있는 취재원에 의한 것으로 사실성을 위한 수사학의 핵심으로 정보와 전달 목소리들(인터뷰, 보도, 영상순서, 그리고 담화 표현) 사이의 복잡한 관계 형성과 관련하여 구성에 큰 영향을 준다.¹⁰⁾ 언론이나 방송 등에 사용되는 사건과 이를 설명하는 방식의 담화는 사실성(factuality)을 위한 수사학(rhetoric of factuality)으로 뉴스의 생산 과정에서 표준적으로 이용되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다. 언어뿐만 아니라 보도실(newsroom)의 공간 배치, 초기 화면과 주제 음악, 뉴스 앵커의 외모 등 시각적·청각적 기호들도 포함된다.¹¹⁾ 커뮤니케이션에서 시간과 공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비언어적 매체는 의미공유와 확장을 시킨다고 할 수 있다.¹²⁾ 비언어적인 것은 몸의 움직임이나 얼굴표정이나 옷과 같은 개인적 요소들과 보도를 위한 자료와 공간 등을 통해서도 반영할 수 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활용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상황조작을 포함한다.¹³⁾ 이런 점으로 인해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들은 시청자의 평가와 판단에만 의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JTBC의 앵커브리핑은 이런 요건들을 잘 갖추고 있다. 뉴스시간에 방송되며, 방송국의 사장이자 비교적 공정하다는 신뢰가 있는 인물이 직접 방송하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일반 보도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¹⁴⁾

보도와 전달의 내용을 구성하는 담론은 이야기의 인지적 측면에서의 중요한 특징을 반영한다. 담론은 특정 관점에서 사회적 관행들을 구성하거나(constructions) 표시하는 것(signification)이다. 담론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했는가를 표현하기 위한 ‘일치성’(congruent)과 ‘대비’, 그리고 ‘은유적’(metaphorical) 선택의 문체와 사건의 구성(construction)에서 배열(configurations)로 정리된다.¹⁵⁾ 앵커브리핑은 특정 사건에 국한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단위를 넘어 여러 자료를 조합하여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와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보도에서 일치성 담론과 은유적 담론은 실제로 구분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도에서 사실을 기본으로 하는 일치성에 은유적 담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앵커브리핑의 방식은 은유적 담론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스의 보도와 언론사나 앵커의 개인적인 철학과 견해의 반영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가를 잘 볼 수 있다.¹⁶⁾ 뉴스는 소위 데스크라고 불리는 편집장이나 회사의 입장을 반영하는 가치에 따라 담론과 구체적 표현들의 사용에 영향을 받게 된다.¹⁷⁾ 데스크와 대립되는 경우에는

9) 노먼 페어클립/ 이원표 옮김, 『대중매체 담화 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2004), 356.

10) 최양호, *op. cit.*, 468-488; *Ibid.*, 139.

11) 오미영, 심재철, *op. cit.*, 132-172.

12) 최양호, *op. cit.*, 468-488.

13) 조종혁, *op. cit.*, 25.

14) 양성희, “공정방송의 간판스타 손석희 아나운서,” 「월간 말」 78(1992), 228-231.

15) 노먼 페어클립/ 이원표 옮김, *op. cit.*, 140.

16) 유수정, *op. cit.*, 8.

생략이나 배제되기도 한다. 이는 앵커브리핑의 내용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언론의 중립성을 넘어 언론사와 기자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뉴스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넘어 다양한 경험들을 반영하고 표현하기 위해 담론을 사용한다. 은유적 적용은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경험 이외의 다른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서로 다른 관심 및 관점에 상응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이념적 함축(loadings)을 가질 수도 있다.¹⁸⁾

본 연구대상인 뉴스의 앵커브리핑의 표현은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을 잘 보여준다. 이런 방식은 광고나 마케팅에서 자주 보이며, 뉴스를 가장한 광고의 형태로 나오기도 한다.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가 아니라 원하는 방식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최종 자료를 접하는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오판하게 하거나 여론을 조작하기도 한다. MBC에서는 ‘내가 본 뉴스는 진실인가?’라는 슬로건을 걸고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언론의 이런 행태를 사례 분석하고 있다. 언론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청률을 높여 충성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극적 뉴스나 정확하지 않거나 왜곡된 보도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이유이다.¹⁹⁾ 결국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나 의지에 간섭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문제를 다루는 것은 심리와 상담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뉴스는 분석과 비평을 받아야 한다. 사회이론은 언론이 가진 과대성과 위험성에 대한 균형기능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뉴스의 내용을 토대로 활발한 비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사회이론은 언어의 사회적 성격과 언어의 기능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종종 텍스트에 대한 구체적 분석없이 추상적 방식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담화분석은 언어학 및 언어 연구에서 개발된 정밀한 텍스트 분석의 전통을 통해 사회·문화적 분석에 기여한 측면을 볼 수 있다.²⁰⁾ 뉴스 전달자인 앵커를 통해 전달되는 보도내용은 소위 이야기 또는 담화를 통해 표현되고 전달된다.²¹⁾

본 연구는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믿는 뉴스 보도의 형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심리적 작용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뉴스에서의 변화와 중요한 시사점들을 검토하여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을 선정하여 보도 형식과 앵커의 진행방식에 대한 분석을 언어를 기반으로 하여 접근한다. 본 연구는 기존 공중과 3사를 위협하고, 한때는 가장 신뢰받는 뉴스를 제공한다는 평을 받았던 JTBC 뉴스의 자료 분석을 통해 뉴스의 변화와 재생산에 대해 분석하려는 것이다. 텍스트의

17) 최양호, *op. cit.*, 468-488.

18) 노먼 페어클립/ 이원표 옮김, *op. cit.*, 141.

19) 유수정, *op. cit.*, 21.

20) 노먼 페어클립/ 이원표 옮김, *op. cit.*, 78.

21) 최양호, *op. cit.*, 468-488.

담화구성이 주는 내용을 분석하여 다양한 표현의 방식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왜곡된 상황이나 인식에서도 소통을 할 수 있다.²²⁾ 이를 통해 정치나 경제의 사회적 활동과 개인의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작용에 대해 이해하고 인식함으로써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담화분석, 혹은 텍스트 분석을 기반으로 대중매체나 사회조사연구에서의 텍스트 분석방법을 기초로 상담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뉴스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담화분석을 기반으로 할 것이다. 보도된 뉴스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분해하여 뉴스와 연관된 팩트와 인트로와 클로징을 분석하여 하나의 뉴스가 어떻게 재생산 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²³⁾ 이를 통해 문체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야기의 진술과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연구의 목적을 수행할 것이다. 멘트 분석은 기본적으로 사례분석이나 이야기 분석의 방법에서 접근할 수 있다. 상담에서 내담자의 언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연구방법에서의 담화분석이나 사례분석, 또는 질적 연구방법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⁴⁾ 기존 연구는 대부분 통계를 기본으로 하는 양적평가를 선호해 왔다. 본 연구의 언어분석은 언어학이나 커뮤니케이션학에서는 물론이고 철학이나 신학, 그리고 문학과 심리학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언어학과 심리학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또 인간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²⁵⁾ 언어는 인간이 지식을 탐구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며 소통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언어를 다루고 분석하는 것은 인간의 내적 가치를 포함해서 삶의 다양한 방식에 대한 중요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²⁶⁾

본 연구의 한계는 보도의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결정을 내리는 배경이 되는 ‘상황이나 맥락’을 만드는 선택설계자(choice architect)나 전달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시청자의 작용이나 반응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²⁷⁾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응형 뉴스나 독자반응비평과 같은 수신자 맥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고려사항이 수신자에 대한 폄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여전히 거대 권력으로서 언론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설계의도를 이해하려는 비평적 방법은 쌍방향 소통을 위한 우선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시청자의 반응에 대

22) 김선진, “종합편성 채널 메인 뉴스 차별화 요인 연구: 종합편성 채널과 공중파 방송 메인 뉴스 비교를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35(2012), 321-330.

23) 노먼 페어클립/ 김지홍 옮김, 『담화분석방법』 (경기: 경진, 2015), 79.

24) 한국문화사회학회, 『문화사회학의 관점으로 본 질적연구 방법론』 (서울: 휴머니스트, 2018), 12.

25) 김영진, *op. cit.*, 21.

26) 민춘식, “심리언어학의 발전과 양상에 관한 연구,” 『Veritas』 5(1986), 81.

27)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 안진환 옮김, 『넛지』 (서울: 리더스북, 2009), 16.

28) *Ibid.*, 17.

한 객관적 지표를 통한 평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다양성과 앵커의 전문성이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와 대중의 눈높이가 높고, 정보에 대한 보편화가 이루어져 특정 뉴스에 대한 독점력이 떨어졌다는 점과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신속성의 장점이 사라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은 부각된다.²⁹⁾

II. 심리와 담화분석

1. 심리에서의 언어이해

언어는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주요 도구이다. 심리과정은 내적으로 일어나는 작용과 과정이기 때문에 외부로 쉽게 드러나거나 관찰되지 않는다. 심리학은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고 다루는 학문적 체계로 심리현상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포함한다. 현대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설문지나 검사지는 주관적인 심리상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표준화해서 심리과정을 평가한다. 외부로 드러나는 태도나 현상에 대한 이해를 넘어 배후의 심리과정과 결과를 드러나도록 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언어는 정보처리와 인지과정 이해에 주요 도구로 기억 내용의 인출이나 문제해결과 같은 정보처리 과정에서 주로 언어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³⁰⁾ 언어는 복잡한 지식구조나 문제해결의 과정을 드러내는 데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주요 수단으로 관계 형성, 상호작용 등 현상이해의 핵심 도구이다.

프로이트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실수 행위에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가 아니라 생각지 않았던 의도가 있다고 했다. 고유명사를 망각하거나 이름과 단어군을 왜곡시키거나 잊어버리는 등의 언어와 관련된 부분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의 사용을 통해 인간의 병리가 나타나는 것처럼 언어는 인간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반영하기도 한다. 잘못 말하기는 심리분석의 과정에서 특정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서 심리학 연구의 지평을 확장시켰다.³¹⁾ 인간의 언어사용에서 혼동, 왜곡, 융합 등의 관계에서 단어나 문장을 구성하는 음의 하나하나 혹은 단어를 전혀 특수한 방법으로 연결시킨 원인의 심리적 매커니즘을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정서나 생각을 언어를 매개로 전환할

29) 최재목, 『융합인문학』 (서울: 이학사, 2016), 7.

30) 조명한 외, 『언어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3), 21.

31)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한우 옮김,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과주: 열린책들, 2007), 76.

수 있음을 나타낸다. 언어를 통해 사고전환을 가져올 수 있으며, 삶의 태도나 행동양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심리과정에 대한 분석과 연구에서 언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심리학 연구에서 언어자료의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대부분 구조화된 언어반응을 중심으로 분석해 왔고, 비구조화된 언어반응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상담에서 축어록을 분석하거나 심리분석을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이는 대화과정에서의 표현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분석들이었다. 해석의 주관성은 객관적 분석을 어렵게 했고, 동일한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언어를 통해 사람들은 정서적 반응을 하기도 하고, 특정 행동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언어를 분석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언어분석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개발되어 왔다. 이런 분석방법들은 고유 학문의 영역에서 발전되어 왔다. 문학이나 언어학적 차원에서도 개발되었고, 심리학이나 상담학은 물론이고 마케팅이나 코칭 등 다양한 응용 영역에서 발전하고 있다.

2. 언어자료의 분석

언어는 소통을 주도한다. 물론 소통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의 조합을 통해 활성화되지만, 언어적 메시지는 중요한 인지적 작용을 한다. 특히 현대 사회의 교육은 인지적 능력을 통해 소통의 방식을 부호화한다. 현대 사회 이론은 언어의 사회적 성격과 현대 사회에서의 기능에 대해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사회 이론은 텍스트에 대한 구체적 분석없이 통찰력을 추상적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³²⁾ 사회적 관행과 특정한 언어 사용은 일상적 상황에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³³⁾ 구체적 언어 사용과 힘의 행사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는 힘의 작용(workings)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³⁴⁾ 언어를 분석하는 것은 주관성에 의존하지 않고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지향하려는 노력이 있다. 언어는 일반적으로 구조적 형식, 그리고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활용되는 언어적 메시지는 상징성과 함께 안정적인 소통의 의미를 부여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³⁵⁾ 담론분석이나 언어자료분석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 분석방법이 있다. 상담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은 표현된 언어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곤 한다. 언어분석의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 언어자료분석(verbal data analysis)에 대한 기법들은 심리학이 과학으로 정립되던 초기부터

32) 노먼 페어클럽/ 김지홍 옮김, *op. cit.*, 78.

33) 김영진, *op. cit.*, 24.

34) 노먼 페어클럽/ 이원표 옮김, *op. cit.*, 78.

35) 최윤희,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4), 15.

시작되었다. 인간의 행동에 대한 관찰과 평가만으로 인간을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다.³⁶⁾ 상담이나 심리에서의 언어분석은 참여자들의 심리과정을 내성(introspection)하고, 언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것이었다. 내성법은 자기보고식이라는 한계로 인해 보고내용의 주관성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즉각적 반응이 아닌 시차로 인해 방어와 저항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왜곡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었다. 행동주의에서는 내성으로 얻어진 언어보고는 과학적 타당성이 있는 자료(data)로 간주될 수 없다고 했다.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이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함으로 내성법에 불신을 보였다. 이로 인해 내성법에 의한 언어적 자료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에서 한동안 외면당하게 되었다.³⁷⁾

심리학의 발전은 인지주의에 이르러 언어분석을 체계적인 접근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보인다. 인지주의는 지각, 기억, 언어 등에 집중되었고, 언어분석의 종속 측정치는 반응시간, 반응정확성 등이었다. 언어반응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단어쌍 학습에서는 기억 내용을 언어적으로 인출한 것이 종속 측정치로 사용되었지만, 단순한 답변, 긴 발화나 글, 또는 대화 내용이 종속 측정치로 분석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단어 수, 어절 수, 통사적 지표 등은 명료하지만, 언어의 ‘내용’이 분석대상이 되면서 속성상 분명하게 정하기 힘든 주관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³⁸⁾ 인지적 연구에서 대화분석의 주제가 초기 기억이나 지각의 문제를 넘어서서 문제해결, 추론, 이해, 지식표상 등 상위인지과정으로 옮겨가면서 반응시간이나 정반응 같은 기존 측정치에 의존하는 제한점이 나타났다. 이 과정들은 시간적 전개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시간 차이보다 표상의 내용, 문제풀이 순서 등이 더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언어 반응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석기법이 개발되었고, 심리학 내에서 발달된 대표적인 분석방법으로 인지 연구에서 사용된 프로토콜분석(protocol analysis) 및 언어자료분석(verbal data analysis)을 비롯해서 각종 담화분석의 방법들이 나타났다.³⁹⁾

언어를 분석하는 것은 단어를 분석하는 방법에서부터 문장이나 맥락을 분석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언어분석은 정신분석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지 들리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된 이야기 속의 단어를 분석하거나 연상단어들을 통해 내면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었다.⁴⁰⁾ 상담은 기본적으로 언어적 표

36) *Ibid.*, 21.

37) 이정모, “심리학의 개념적 기초의 재구성(2): 인지과학적 접근에서 본 ‘마음’ 개념의 재구성 과 심리학 외연의 확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2(2007), 1-38.

38) 정혜선, “심리학 연구에서 언어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3(2014), 674.

39) 노먼 페어클립/ 김지홍 옮김, *op. cit.*, 17.

40)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한우 옮김, *op. cit.*, 144-145.

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언어분석의 중요성이 대두 되었다. 물론 언어 외의 다른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 언어는 점차 문자로 전환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과 세상의 소통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⁴¹⁾ 다양한 언어분석의 방법들 중에서 대표적인 분석방법은 프로토콜 분석(protocol analysis)과 언어자료 분석(verbal data analysis)을 들 수 있다. 프로토콜 분석은 언어반응이 수집되는 방식에 따라서 언어자료가 인지 및 기타 심리 현상의 연구에 타당한, 정당한(legitimate)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가능하다. 언어반응 수집을 언어반응이 과제수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동시적으로 수집되었는가 아니면 과제수행이 종료된 후에 수집되었는가에 따라 동시적 보고(concurrent report) 또는 회상적 보고(retrospective report)로 구분한다.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 과정을 언어적으로 보고하는 동시적 보고와 달리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 회상하면서 보고하는 회상적 보고는 실제 일어난 처리 보다는 기억된 처리를 반영하게 되고, 왜곡이나 주관적 사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기억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차적 구성내용이 포함되거나, 개인의 지식과 믿음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언어자료의 수집과정에서 유도된 질문으로 원하는 답을 추론해서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⁴²⁾ 이런 점들은 분석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언어자료의 수집 방법이 연구대상이 되는 정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회상적 보고 대신 동시적 보고를 사용하고, 인지과제 수행에서 참가자들의 가용한 정보를 언어화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소리내어 말하기(Talk Aloud), 소리내어 생각하기(Think-Aloud)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된 언어자료를 프로토콜(protocol)이라고 한다. 언어자료 분석(Verbal data analysis) 또는 언어분석(Verbal Analysis)은 언어자료를 주 분석대상으로 하며, 프로토콜 분석과 유사하지만 언어반응 수집 방법에 큰 차이점이 있다. 프로토콜 분석은 언어반응 자료 수집방법을 중시하는데, 자료수집 방법이 대상자의 인지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언어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분석의 자료 수집에서 중요한 맥락을 알 수 있다. 언어는 인간의 사고와 인지에 작용하기 때문에 인출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정보수집의 과정에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상호적으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와 대화분석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활용가능한 분석은 프로토콜보다는 언어자료 분석에 기초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해 표현되고 전달된 영상은 정교하게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시청자를 설득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 방법에서의 우려는 최소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언어자료분석을 기반으

41) 이기주, 『언어의 온도』 (경기: 말글터, 2017), 292.

42) 이시이 히로유키/ 김윤희 옮김, 『콜드리딩』 (서울: 엘도라도, 2012), 12.

로 한 담화분석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담화분석

비평적 담화분석은 언어 사용의 두 가지 측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과 사회적으로 구성 요소가 되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하기보다 둘 사이의 긴장 관계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언어와 텍스트는 사회적 정체성, 사회적 관계 그리고 지식 및 믿음 체계를 형성한다. 담화분석과 유형은 언어 사용의 특정한 예와 이용 가능한 담화 유형들 사이의 복잡하고도 창의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비평적 담화분석은 공동체, 사회적 제도나 기관, 그리고 사회적 영역에서의 유형들에 의해 형성되고 서로 다른 담화 유형 사이의 관계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담화 질서의 구성 성분은 장르와 담론의 주요 범주를 구분하고 특정 관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⁴³⁾ 담화는 언어나 글의 흐름 및 연속체라는 의미로 연속된 단어와 문장의 조합으로 결합력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담화는 언어형식과 기능 간의 관계를 통해 언어사용 상황과 언어분석을 하는 것이다. 담화분석의 단위는 한 문장 이상으로 다른 문장과의 관계와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담화분석은 언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게 되지만 그 자체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언어 분석은 담화분석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담화는 특정 상황 맥락 속에서 의사소통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발화체로 텍스트와 상황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된다.⁴⁴⁾ 텍스트는 맥락 속에서 흔히 여러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담화의 수단이며 텍스트 없이 담화는 언어 행위가 될 수 없다. 담화는 사회적 맥락 상황 속에서 텍스트와 맥락이 활발히 상호작용하면서 구축된다. 담화가 생산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텍스트의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담화는 하나의 계획된 행위이며 아이디어와 내용을 구축하고 그것을 표현하려면 구성에 필요한 구조, 적절한 어휘 등의 다양한 선택과 조정이 필요한 과정이다.⁴⁵⁾ 이는 방송이나 강연에서 화자의 담화의 의미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뉴스 구성이나 뉴스에서의 주관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담화 목적 실현을 위해 담화의 구성은 목적규명 단계, 플랜작성 단계, 그리고 텍스트실현 단계로 이루어진다. 담화는 텍스트 내용 선택, 생략될 정보 선택, 결속성을 위한 내용 구성, 격식화 정도 선택, 문장 유형 선택, 구문 선택, 담화 엔티티(entities)의 기술 방식 선택, 어휘 선택 등을 통해 담화 생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무엇을 말할 것인가와 어떻게 말할 것인가의 내용과 수사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런 과정은 기존 지식을 변형하는 지식변

43) 노먼 페어클립/ 이원표 옮김, *op. cit.*, 81.

44) 노먼 페어클립/ 김지홍 옮김, *op. cit.*, 20.

45) 김태욱, 『담화 텍스트 언어시학』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0), 14.

형모델로 나타나며, 담화를 표현하려는 메시지 전달자의 초기의 전달 내용이 여러 수사적 정신작용을 거쳐 수정 보완되어 완결 또는 실현된다. 담화는 이런 표현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지식이 직접 나올 수 없다. 아이디어가 실현되기 위한 담화 지식은 수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담화로 실현된다. 담화 생산자가 전문가일수록, 담화 장르가 공식적일수록 이들의 관계는 더욱 긴밀하고, 세련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뉴스에서의 담화구성에 대한 것이다. 단순한 뉴스를 보도하는 차원을 넘어 담화로 구성되어 나타날 때, 그 과급력과 효과는 더 클 수 있다. 특히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나 기자라는 신분을 통해 전달될 때, 2차 생산물인 담화의 과급력은 더 클 수 있다. 심리적으로 의도된 의미가 전달되거나 과급될 수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비언어 행위는 통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종종 심리·정서적으로 화자의 의도에 따라 왜곡될 수도 있다.⁴⁶⁾ 담화를 구성함에 있어서 내용문제 영역과 수사문제 영역으로 설정하여 그들의 상호작용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식변형 모델은 이를 잘 보여준다. 지식 말하기 모델과 지식변형 모델에서 지식 말하기 모델은 미경험자나 아이들이 사용하는 텍스트 작성의 기본 모델로서 수사적 문제가 개입되지 않고 아는 그대로 별 수정 없이 직접 말하거나 쓰는 경우이며 지식변형 모델은 노련한 전문가나 경험자 모델로서 수사적 표현 양식을 통해 지식이 변형 수정되어 나타난다. 내용 지식이 내용문제 영역으로 들어가 내용의 개념을 형성하고 전체 내용을 계획하고, 이러한 내용문제 영역 즉 무엇을 말할 것인가와 수사문제 영역, 즉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두 영역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완결된 담화로 실현된다.⁴⁷⁾ 특히 대중매체를 통한 언어는 단순한 대화가 실시간 전달되는 것만이 아니라 의도성에 의해 편집된 자료나 연출된 장면들과 함께 다양한 작용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⁴⁸⁾ 이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민감함 경우에 더 많은 작용과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악용될 때 심각한 문제가 된다. 자료가 선용된다는 긍정적 측면을 넘어 왜곡된 정보가 일상화 될 수 있음을 고려해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언론을 통해 나타나는 인간의 정서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담화가 주는 작용에 대한 것이다. 이는 스토리텔링이나 담화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삶의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문성에 대한 것이다. 연구는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들의 담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부여된 맥락에 대한 문제는 실제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된다.

46) 최윤희, *op. cit.*, 21.

47) 홍윤희, “학술발표 담화에서 화자의 관점 선택의 효과 -화자, 청자, 화제 중심 발언을 대상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32(2013), 315-342.

48) 김병홍, *op. cit.*, 27-55.

III. 뉴스분석의 과정

1.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언론의 담화분석을 위해 JTBC뉴스 속 코너인 앵커브리핑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22일 첫 방송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 4년 6개월에 걸쳐 방송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다룬 자료들 가운데 방송사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자료들 중에 10개를 무작위로 선별하여 앵커의 멘트를 중심으로 보도내용을 분석하였다. 자료 가운데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주제로 하는 방송은 제외했다. 자료는 언론사에서 제공한 원고를 기본으로 하되, 방송자료와 비교하여 방송원고를 중심으로 하여 전문을 분석하였다. JTBC의 앵커브리핑을 선택한 것은 앵커브리핑을 진행하는 손석희 아나운서는 과거 언론사에게 공정하고 냉철한 보도 원칙과 상대적으로 중립적이라는 평이 있었으며, 현재는 JTBC 보도를 책임지는 사장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을 통한 정보의 활용에 대한 평가의 대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⁴⁹⁾ 이는 본 연구가 한 개인의 의사표현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언론사의 보도방향에 대한 가치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뉴스보도가 아니라 앵커브리핑은 뉴스와 이슈가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으며, 시사적인 내용과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과 종종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에 언론의 입장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실을 통해 언론사의 입장을 드러내곤 하지만, 앵커브리핑은 사실과 보도의 중간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언론사의 사장이 직접 진행한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있다.

자료의 분석은 담화분석방법 가운데 대중매체 담화분석의 기호분석(semiotic analysis)을 중심으로 하였다. 방송에서 뉴스 시청자의 용어로 전환하는 중재자로서의 기능, 대화적 의사소통 스타일, 기사 구성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언어 관련 기호 및 관행을 분석한다.⁵⁰⁾ 기호학적 특징으로 뉴스에 포함되어 있는 범주와 분류들을 포함하여 분석하되, 대화중심으로 구성되지 않기에 대화분석방법은 고려하지 않았다. 뉴스 담화가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구성되고, 전달을 위한 다양한 장치가 활용되어 왜곡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앵커의 개인적 이미지나 역량과 편집화면 등의 구성은 가급적 배제하고 방송된 원고자료를 기본으로 하였다.

49) 양성희, *op. cit.*, 228-231.

50) 노먼 페어클립/ 김지홍 옮김, *op. cit.*, 37.

2. 분석절차와 방법

1) 분석의 과정과 절차

텍스트 분석은 구조와 행위의 속성과 변증의 방법과 매개작용들을 분석하고, 서로 얽힌 담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내용은 각각의 갈래와 하위담화, 그리고 정체성의 모습을 구성요소로 분석한다. 분석의 초점은 텍스트에서 사건, 상황 관계, 사람 등의 표현에 맞추어진다. 기본적으로 매체 텍스트는 단순히 ‘실제를 반영’하지는 않는다. 매체는 이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 이해관계 그리고 목적에 따라 다르게 실체를 만든다. 그리고 텍스트 생산 과정에서 선택을 통해 형성된다. 표현 과정 분석은 결국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는가로 구체적으로는 포함된 것과 배제된 것에 대한 것, 그리고 분명한것과 그렇지 않은 것, 전경과 배경, 주제화와 비주제화의 내용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어떤 과정 유형(process type)과 범주가 사건을 표현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정선택을 하게 하는 사회적 동기와 이념 및 지배 관계에 대한 선택에 대한 분석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 표현에 대한 분석에서 한 가지 장기적 목표는 이런 선택대상들의 관계(networks of available options)를 기술하는 것이다.⁵¹⁾ 이를 통해 담화의 실체와 정체성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변증법적 관계와 자료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작동을 통해 반영된다.

담화의 변증법은 표상적 의미인 담화가 갈래로 구현되면 행위로 드러난 의미가 되며, 정체성 모습으로 심어지면 정체성 확인이 되고, 갈래와 정체성 모습을 포함하여 행동과 정체성 담화로 나타내면 표상적 의미가 된다. 서로 얽힌 자료들은 각각의 성격과 인용발화를 분석하여 자료의 성격을 분석하고 관계를 통해 드러난 상호작용을 살펴야 한다. 이 작용을 분석하면서 갈래와 갈래 내부의 구조를 분석해야 한다. 텍스트의 갈래 및 언어적 특징은 무엇이며, 분석을 통해 갈래 활동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의사소통의 기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문장들 사이에 있는 의미 관계와 문장 속에서 절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의미 관계는 다양한 언어적, 문법적 작용을 통해 분화와 역접 관계를 통해 구조화될 수 있다. 이 과정은 인과관계, 조건관계, 시간관계, 순접관계, 부연관계, 그리고 역접 또는 양보 관계 등으로 연결된다. 이를 통해 논지가 확장되고 합법화가 된다. 합법화전략은 권위확보, 합당성부여, 도덕적 평가, 그리고 신화만들기의 4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지고, 작용이 전달되는 특별한 과정으로 이어진다. 담화가 만들어지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런 논의나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각 요소들이 잘 반영되면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51) 노먼 페어클립/ 이원표 옮김, *op. cit.*, 158.

2) 분석의 방법

(1) 2014년 10월 8일 앵커브리핑 내용

먼저 오늘(8일)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① 축구 한일전의 한 장면입니다. 유난히 한일전에 목숨 거는 분들 많으시죠.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독 일본을 상대할 때 특유의 '투혼'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축구는 질 때보다 이길 때가 훨씬 많고요. 최근 끝난 아시안게임만 보더라도 금메달 숫자가 79 : 47, 우리가 압도적 우위입니다.

② 그런데 사뭇 다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19:0, 0:19...우리가 0이고 일본이 19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짐작하셨는지요? 유독 한국이 일본에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분야, 바로 노벨과학상 수상 성적표입니다.

③ 어제 발표된 노벨 물리학상이 일본인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가면서 일본은 축체 분위기입니다. 일본의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는 총 19명입니다. 그래서인지 노벨상 시즌인 매년 10월만 되면 우리나라는 노벨상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④ 혹시 배가 아프십니까? 아니면 차라리 일본이 부럽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현실을 보면 배아픔과 부러움은 더욱 극명해집니다.

⑤ 지금 보시는 건 일본인이자면 누구나 지갑에 한두 장씩 넣고 다니는 천 엔짜리 지폐입니다. 지폐 속 인물은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노벨상 후보에 올랐던 세균학자 노구치 히데요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지폐에 과학자의 얼굴을 넣었다는 건 일본이 얼마나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⑥ "지방대를 졸업하고, 지방기업에서 하고 싶은 연구를 했더니 노벨상을 받았다."고 말한 나카무라 슈지 교수, 지방 정밀업체 직원 신분으로 노벨상을 거머쥔 다니카 고이치, 그리고 해외유학 한번 가지 않고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마사카와 도시히데 교수 등의 사례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⑦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중앙일보>가 한국물리학회 소속 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진행했는데요. "다시 대학에 간다면 물리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한 숫자가 2002년, 2007년 모두 절반을 넘겼습니다. 반 이상이 만족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⑧ 작년 국감자료만 봐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27개 연구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점점 늘어나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38%에 달합니다. 또한 기초체력으로 꼽히는 연구개발 투자 역시 일본보다 우리가 6배가량 뒤져있습니다. 19대 0이라는 한일 간 스코어는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⑨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어찌 보면 매우 식상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라'...시험에서 1등한 학생이 '교과서만 봤다'고 답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일본 역시 처음부터 노벨상과 가깝지는 않았습니니다.

⑩ 지난 1901년 1회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 일본인이 첫 거론된 이후 일본의 첫 노벨상은 그로부터 반세기 뒤인 패전 이후에나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노벨상으로부터 또다시 반세기 남짓한 시간을 더 투자한 결과 과학 분야 노벨상 19개를 모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⑪ "실패만 겹쳐 20년 동안 매일 울고만 싶어지는 좌절의 연속이었다" 지난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야마나카 신야 교수의 말입니다.

⑫ 신야 교수가 매일 울고만 싶었던 2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기초과학이란 기본에 충실했던 일본의 저력 때문이었을 겁니다.

⑬ 그리고 한국의 첫 노벨화학상 수상이 좌절된 오늘 밤. 축구 한일전 패배보다 지금의 상황을 더 뼈아프게 여겨야 할 우리야말로...조금 울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 구조적 분석

전체 1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맥락이 섞여 있다. 일본노벨상과 한국노벨상과 관련된 부분이 각각 6개와 4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한 넋지는 3개이다. 넋지는 두 개의 도입과 1개의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야기는 일본의 노벨상 수상과 관련 이야기, 한국의 노벨상 수상탈락 관련 이야기, 그리고 축구한일전의 세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다. 세 이야기는 서로 교차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일전 축구를 시작으로 일본의 노벨상과 한국의 현실, 그리고 마무리로 이어진다. 이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면서, 담론은 3가지의 주제군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되고 전개된다. 넋지는 이야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지만, 주의를 환기시키고 문제에 집중하기 위한 장치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⁵²⁾ [표 1]에서 넋지로 활용된 한일전 축구경기는 노벨상 수상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노벨상은 축구경기와 같이 시합으로 경쟁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은 명료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축구경기를 넋지로 사용함으로써 노벨상도 한일간의 경쟁구도로 이끌고 있으며, 과학의 발전이나 기초학문적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차원에서 인식하게 한다.

| 일본노벨상 | 넋지 | 한국노벨상 |
|------------|----------|------------|
| | ① 한일축구경기 | |
| | ② 축구스코어 | |
| ③ 일본노벨상 수상 | | |
| | | ④ 베이핀과 부러움 |

52)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 안진환 옮김, *op. cit.*, 8.

| | | | |
|------------------------|--|--------------|-------------|
| ⑤ 일본지폐 | | | |
| ⑥ 지방대 출신 | | | |
| | | | ⑦ 연구원 직업만족도 |
| | | | ⑧ 기초과학투자 부족 |
| | | | ⑨ 방향-기초에 충실 |
| ⑩ 노벨상후보 최초 거론 후 수상 50년 | | | |
| ⑪ 신야교수인터뷰 | | | |
| ⑫ 기초과학에 충실한 일본 저력 | | | |
| | | ⑬ 축구현재 상황 탄식 | |

[표 6] 이야기 맥락분석

(3) 내용분석

방송국에서 제공한 앵커브리핑 자료는 총 13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단은 서로 다른 맥락의 이야기가 각각 교차와 간섭 및 부연 등의 관계를 통해 상호작용하고 있다. 서로 다른 문장들이 제시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①과 ⑬은 이야기의 시작과 끝으로 축구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언뜻 보기에는 분명 축구 이야기이지만 ⑬에는 ‘한국의 첫 노벨화학상 수상’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①은 축구의 승리와 환호가 나오고, ⑬에는 축구의 패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두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축구는 일제강점기에 굳센 체력과 강인한 투쟁심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한국인의 정서와 일치했고, 1929년부터 시작된 경평축구는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매개가 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담론을 이어가는 매개가 된다. 1948년 해방과 함께 국제축구연맹(FIFA)에 가입하였고, 2002년 일본과 함께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는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발전과 현재적 위상과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성을 갖는다. 앵커는 이런 축구를 매개로 노벨화학상 수상 좌절을 연계하여 정서적 감흥을 이끌고 있다. 이는 자아비판과 동시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해결책이나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축구 한일전의 한 장면입니다. 유난히 한일전에 목숨 거는 분들 많으시죠. 축구뿐 아니라 우리는 유독 일본을 상대할 때 특유의 '투혼'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 축구는 질 때보다 이길 때가 훨씬 많고요. 최근 끝난 아시안게임만 보더라도 금메달 숫자가 79:47, 우리가 압도적 우위입니다(①).

그리고 한국의 첫 노벨화학상 수상이 좌절된 오늘 밤. 축구 한일전 패배보다 지금의 상황을 더 뼈아프게 여겨야 할 우리야말로...조금 울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⑬).

앵커는 인사말과 함께 뉴스브리핑을 시작하면서 축구 한일전의 골 넣는 장면에

대한 소개를 시작한다(①). 한일전에 대해 유독 승리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정서적 반응을 자극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한다. 축구 한일전 한국이 골을 넣는 장면과 세리머니를 하는 감동적인 장면과 함께 우리의 저력을 설명하고 아시안게임의 결과를 통해 일본에 대한 민족적 감정을 끌어내고 있다. 한일전이라면 경기에 관심이 없어도 무조건 응원하는 정서를 반영함으로써 주목을 끌고 있다. 앵커의 기술은 열광하던 순간을 재현시키면서 한일전이라는 구도를 통해 흥미를 이끌어 낸다. 더욱이 일본을 상대할 때 나타나는 투혼과 아시안게임의 금메달 숫자를 제시함으로써 수치상으로도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전체 메달 숫자가 아니라 금메달 숫자를 제시함으로써 정보제공에서 과장이라고 느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은 인천에서 열린 게임으로 한국은 228개(금-79, 은-70, 동-79)의 메달을 땀으며, 일본은 200개(금-47, 은 76, 동-77)의 메달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메달의 총개수와 금메달과 동메달의 숫자는 한국이, 은메달의 숫자는 일본이 앞서고 있다. 한국이 일본에 비해 메달 숫자에 우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가장 격차가 많이 나는 금메달의 숫자를 비교함으로써 앵커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일본과의 비교에서 여러 수치가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지표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자료는 앵커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분명 아니다. 앵커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오히려 충돌하는 정보이다.

앵커는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이 앞선 것을 드러내는 순간 전혀 다른 수치를 제시한다. 19:0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수치로 노벨과학상 수상 실적에 대한 것이다. 이 자료의 수치로도 비교가 되지만, 앵커는 이를 성적표라고 함으로써 정서적 평가로 이끌고 있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생리학·의학상, 평화상, 경제학상의 6개 분야에서 수상이 이루어진다. 과학상은 물리학과 화학의 영역에 대한 비교는 상당한 의도성이 보인다. 객관적 지표를 통해 앵커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정서적 구도에 파문을 일으킨다. 이미 한일전 축구라는 도식을 통해 전혀 다른 영역인 과학 분야에서 정서적 자극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사뭇 다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19:0, 0:19...우리가 0이고 일본이 19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짐작하셨는지요? 유독 한국이 일본에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분야, 바로 노벨과학상 수상 성적표입니다(②).

노벨상 수상 실적과 함께 이어지는 ③에서 일본인의 수상에 대해서 언급한다. 여기서 앵커는 3명의 수상자가 나왔음을 언급하면서 총 19명을 나타내며 실제 수상횟수가 아닌 수상자 지표를 이야기함으로써 자극적 정보전달이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물론 앵커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노벨과학상 수상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그 숫자가 몇 명이든 관계없는 것이겠지만, 정서적 자극을 통해 콤플렉스로 연결하고 있다.

어제 발표된 노벨 물리학상이 일본인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가면서 일본은 축제 분위 기입니다. 일본의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는 총 19명입니다. 그래서인지 노벨상 시즌 인 매년 10월만 되면 우리나라는 노벨상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③).

앵커의 정서적 자극은 ④를 통해 잘 드러난다. 정보를 통해 노벨상 콤플렉스를 구도로 설정하고, ‘배아픔’과 ‘부러움’을 통해 정서자극을 강화시킨다. 이는 다시 현실 적인 이야기로 연결된다. 일본인의 지폐 속 인물로 알려진 노구치 히데요는 일본의 세 균학자로 매독 병원체인 스피로헤타를 발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가 노벨상 후 보에 올랐다는 것과 노벨상 수상에 대한 연관을 짓는 것에 대한 연관성은 희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는 일본의 과학에 대한 태도를 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혹시 배가 아프십니까? 아니면 차라리 일본이 부럽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현실을 보면 배아픔과 부러움은 더욱 극명해집니다(④).

지금 보시는 건 일본인이란면 누구나 지갑에 한두 장씩 넣고 다니는 천 엔짜리 지 폐입니다. 지폐 속 인물은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노벨상 후보에 올랐던 세균학 자 노구치 히데요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지폐에 과학자의 얼굴을 넣었다는 건 일 본이 얼마나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⑤).

“지방대를 졸업하고, 지방기업에서 하고 싶은 연구를 했더니 노벨상을 받았다.”고 말 한 나카무라 슈지 교수, 지방 정밀업체 직원 신분으로 노벨상을 거머쥔 다나카 고이 치, 그리고 해외유학 한번 가지 않고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마스카와 도시히데 교 수 등의 사례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⑥).

앵커는 이를 다시 한국과 비교하면서 학문연구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물 리학과 관련한 설문조사결과를 제시하는데, 어떤 설문이었는지에 대한 제시도 없으며, 같이 제시된 국감자료도 연구원의 비정규직 비율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다른 수 치나 그 수치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이미 부정적 시각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의 경우 94.4%가 비정규직이었으며, 우체국시설관리단은 98.1%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보면 이런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전달이라 기보다는 작위적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앵 커가 제시한 2014년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32.2%(남자 28.4%, 여자 39.9%)라는 점에

서 다른 직종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직종과의 비교 수치가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곡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중앙일보>가 한국물리학회 소속 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다시 대학에 간다면 물리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한 숫자가 2002년, 2007년 모두 절반을 넘겼습니다. 반 이상이 만족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⑦).

작년 국감자료만 봐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27개 연구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점점 늘어나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38%에 달합니다. 또한 기초체력으로 꼽히는 연구개발 투자 역시 일본보다 우리가 6배가량 뒤져있습니다. 19대 0이라는 한일 간 스코어는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⑧).

앵커의 논지는 비판적 입장에만 머무르지는 않는다. 공익적 목적에 의한 넋지는 이런 자극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개입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⁵³⁾ 앵커는 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라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식상하다는 답을 제시한다. 하지만 그 식상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도 않으며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지도 않는다(⑨). 오히려 일본이 노벨상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반세기나 지나서 가능했음을 제시하면서 좌절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기는 충분히 줄 수 있지만, 구체적 대안이나 논의의 방향에 대한 제시가 없기 때문에 혼란을 줄 수 있다(⑩). 단지 이런 자각이 시간을 지나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자조 섞인 화두를 던짐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어찌 보면 매우 식상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라'...시험에서 1등한 학생이 '교과서만 봤다'고 답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일본 역시 처음부터 노벨상과 가깝지는 않았습니(⑨).

지난 1901년 1회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 일본인이 첫 거론된 이후 일본의 첫 노벨상은 그로부터 반세기 뒤인 패전 이후에나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노벨상으로부터 또다시 반세기 남짓한 시간을 더 투자한 결과 과학 분야 노벨상 19개를 모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⑩).

앵커의 이야기를 통해 도전을 받고, 축구에서 그랬던 것처럼 과학에서도 일본과

53) *Ibid.*, 11.

의 대결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는데, 성공하고 투지를 일으키는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어지는 논지는 빈약해 보인다. 노벨상을 받은 신야 교수의 말을 빌어 긴 시간 버틸 수 있었던 것이 ‘기초과학에 충실했던 일본의 저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고, 일본의 노벨상 수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기에 다른 기초학문 분야에 투자하는 나라들과의 비교도 부족하다. 어떤 점에서 개인의 실패와 버틸 수 있는 힘은 사회환경의 뒷받침을 통해 좋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개인능력과 연관되어 있음도 중요하다. 신야교수가 버틸 수 있는 20년은 기초과학이란 기본에 충실했던 일본의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노벨상의 저력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실패만 겹쳐 20년 동안 매일 울고만 싶어지는 좌절의 연속이었다” 지난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야마나카 신야 교수의 말입니다(⑩).

신야 교수가 매일 울고만 싶었던 2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기초과학이란 기본에 충실했던 일본의 저력 때문이었을 겁니다(⑪).

3. 의미분석의 내용과 평가

앵커는 노벨상 수상자 발표에서 3명의 일본 과학자가 공동수상을 한 것과 우리나라는 1명도 수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극을 주고 있다. 한국의 과제도 노벨과학상을 받기 위해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직접적으로 기초학문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거나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수용하도록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 노벨상이 한국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노벨상 수상 여부만으로 논지를 이끌어간다. 이는 담화분석에서 지식교환과 활동교환에서 정보의 교환, 정보를 이끌어내고 전달하는 활동과 사실을 진술하는 것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술의 방식에서 이해할 수 있다.

노벨상은 한 나라의 과학기술과 원천기술 및 선진화의 지표가 된다. 국격을 높이기 위해 노벨상 수상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뉴스는 이런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한 개괄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뉴스를 통해 기초학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의 노벨상 수상을 위해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국민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일축구 경기의 골 장면을 도입에서 제시한 것은 관심을 끌었으며, 이를 노벨상 수상과 연관 짓고, 골을 넣었을 때의 통쾌감을 기대하게 한다. 노벨상 수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한일전 축구경기를 통해 극대화시킨다. 이를 위해 체질개

선의 필요성을 전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오래된 정서적 불편감을 반영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과 일본의 노벨상 수상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전체적으로 노벨상 수상을 위한 사회의 전반적 전환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앵커는 현재 환경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과제를 던짐으로써 논지를 이끌고 있지만, 일본과의 비교는 편향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최초의 노벨상 수상 후보가 나온 지 50여 년 만에 최초 수상자가 나왔는데, 한국은 이제 처음 노벨상 후보에 올랐다는 것이다. 노벨상 후보를 배출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무된 일임은 분명하다. 어찌면 한 술에 배 부르려는 국민의 마음이 자극받아 논지가 흐려질 수 있음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노벨상 수상을 위한 노력의 필요에 대해서 논지와 소재를 두고, 넋지를 변경함으로써 다른 방식의 전개를 이끌 수 있다. ⑬에서 마무리 멘트였던 ‘한국의 첫 노벨화학상 수상이 좌절된 오늘 밤’이 아니라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의 첫걸음이 시작된 오늘 밤’이 될 수 있다. 이는 논지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국의 첫 노벨화학상 수상이 좌절된 오늘 밤. 축구 한일전 패배보다 지금의 상황을 더 뼈아프게 여겨야 할 우리야말로...조금 울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⑬).

결론을 한일축구와 대립구도가 아니라 한국의 저력을 부각시킴으로 이를 전환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 후 폐허의 모습에서 불과 40여 년만에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넋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넋지로 구도를 잡으면 일본은 50년 걸린 일을 한국은 더 빠르게 과학기술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넋지의 활용과 전환에 대한 통찰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 하려는 논지와 전달하려는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넋지를 바꿈으로써 경쟁 구도와 정서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자신감을 채워 넣을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정서를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을 통해 드러나는 넋지의 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

IV. 앵커브리핑 담화분석

1. 침묵의 경배(2014년 12월 14일)

1) 보도내용

①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서울 조계사 앞에 예쁜 풍경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일주문 앞에 고운 빛깔의 성탄 트리가 설치된 겁니다. 트리 옆엔 양 볼이 밧그레한 동자승도 서 있군요~ 바라보는 이들을 절로 미소 짓게 하는 장면입니다.

② [이인자/서울 영천동: 같이 포용하고 같이 간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노경란/서울 정릉동 : 종교의 편파 없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정원일/서울 신림동 : 우리나라도 서로 싸우지 말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③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조계종 성탄 트리는 지난 2010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석가탄신일엔 교회와 성당이. 그리고 성탄절엔 불교가 서로의 기념일을 축하하는 선한 동행이 점차 늘고 있는 것이지요.

④ 아름다운 종교의 모습은 얼마 전 터키 최대 이슬람 사원 블루모스크를 방문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침묵의 경배" 이슬람 예법에 따라 신을 벗고 다른 종교를 향해 보여준 2분간의 침묵은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에 대한 최고의 존중을 드러낸 장면으로 회자됩니다.

⑤ 시청 앞 광장에도, 교회 예배당에도, 그리고 국회에도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트리들이 불을 밝히고 있지요. 그런데 조금 다른 이유로 화제를 불러온 트리도 있습니다.

⑥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애기봉 등탑 철거 자리에 9m 높이 성탄 트리를 세운다고 밝혀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한기총은 트리 점등이 복음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지만 북한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주민들 사정은 다릅니다.

⑦ "종교단체 사람들은 점등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주민들은 연말·연초 내내 불안에 떨어야 한다. 누구를 위한 성탄 트리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⑧ 침묵의 경배. 교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차이를 인정하는 포용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조계사 트리 점등식을 진행한 자승 총무원장은 이런 축하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부모와 형제, 이웃은 모두 부처와 같이 대하며 우리 주변의 아픔과 고통을 보듬어 내 자신을 예수로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닦아갑시다."

⑨ 분열과 대립으로 어지러운 2014년 세밑. 모두가 함께 행복할 평화로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2) 분석

‘침묵의 경배’는 성탄절을 대하는 종교인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다. 성탄절 트리 설치와 이웃 종교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훈훈한 세밑의 성탄절을 아름답고 따스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야기는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성탄 트리와 관련된 것으로 종교간의 교류를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애기봉에 세우려는 트리에 대한 것이며, 세 번째는 애기봉 트리 설치 반대의견과 이에

대한 코멘트이다. 첫 번째 단락의 ①과 ②는 도입부로 서울의 조계사에 설치된 성탄 트리와 성탄트리 아래의 동자승의 모습을 미소짓게 만드는 것이라며 시작을 하고 있다. 이어지는 인터뷰는 편견없는 포용과 소통에 대한 것이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서울 조계사 앞에 예쁜 풍경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일주문 앞에 고운 빛깔의 성탄 트리가 설치된 겁니다. 트리 옆엔 양 볼이 밍그레한 동자승도 서 있군요~ 바라보는 이들을 절로 미소 짓게 하는 장면입니다(①).

③과 ④는 종교간 교류와 존중에 대한 내용이다. 터키의 이슬람 사원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에서 침묵의 경배는 다른 종교를 향해 보여준 최고의 존중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계종의 성탄 트리와 교회와 성당에서의 석가탄신일 축하 등 서로의 기념일 축하를 선한 동행으로 설명하였다.

아름다운 종교의 모습은 얼마 전 터키 최대 이슬람 사원 블루모스크를 방문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침묵의 경배" 이슬람 예법에 따라 신을 벗고 다른 종교를 향해 보여준 2분간의 침묵은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에 대한 최고의 존중을 드러낸 장면으로 회자됩니다(④).

두 번째 단락의 ⑤는 이런 교류와 함께 여러 곳에 설치된 성탄 트리를 나열하며, 다른 의미의 성탄 트리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이는 앞의 이야기들과 대비되면서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을 이 끌고 있다. ⑥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세운 애기봉 성탄 트리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감에 대한 이야기이다. 북한의 반발과 이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반영되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애기봉 등탑 철거 자리에 9m 높이 성탄 트리를 세운다고 밝혀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한기총은 트리 점등이 복음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지만 북한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주민들 사정은 다릅니다(⑥).

세 번째 단락의 ⑦은 지역 주민들의 설치 반대의 목소리를 인용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종교단체 사람들이 점등하고 간 이후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⑧은 이를 받아서 교황의 침묵과 경배를 통해 차이를 인정하는 포용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성탄 트리를 설치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독단적이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침묵의 경배. 교황이 우리에게 보여주하고자 했던 것은 차이를 인정하는 포용의 마음

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조계사 트리 점등식을 진행한 자승 총무원장은 이런 축하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부모와 형제, 이웃은 모두 부처와 같이 대하며 우리 주변의 아픔과 고통을 보듬어 내 자신을 예수로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닮아갑시다."(8).

이 단락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행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종교적 가르침을 반영한 조계종의 총무원장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닮아갑시다'라고 마무리한다. 맥락적으로 앵커는 성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 대표되는 개신교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특히 애기봉에 세워지게 되는 성탄트리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입장을 종교적 신념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태도에 대한 종교적 논의는 뒤로하고, 앵커가 제시하는 부분에 대한 논지 전개와 주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③에 소개된 앵커의 이야기에서 '아기 예수 탄생'의 말에서 상대 종교에 대한 가치를 낮춰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석가탄신일'이라는 명칭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기 부처'가 아닌 '부처'가 출생한 날을 의미한다. 예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아기 예수'가 아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표현을 해야 한다. 그 용어가 타종교에서 사용했던 앵커의 언어였던 중요한 것은 이미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적인 성인이고 세계적인 종교의 신을 '아기'로 표현함으로써 비하하는 듯한 태도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앵커가 좋지 않은 예로 제시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세우겠다는 성탄 트리의 문제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비용을 대는 것이고, 실제 설치장소는 군사지역으로 정부의 승인이나 적극적 참여가 없다면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특정 종교단체가 받아야 할 비난이라기보다는 정책적 결정에 대한 전개가 필요하다.

성탄절의 의미를 제시하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종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부결정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 종교의 독단적 결정이고, 존중과 배려가 결여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게 한다. 논지 전개를 위해 사용한 다양한 자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⁵⁴⁾ 이런 방식은 갈등을 부추일 우려가 있다.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의 의도가 반영된 자료들만의 조합으로 충분히 왜곡되거나 오해를 만들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⁵⁵⁾ 이는 어떤 측면에서 잘못된 가정으로 판단과 결정에 왜곡을 만들어 낼 수 있다.

54) 강준만 외, 『넋지 사용법: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꾸는 법』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17), 7.

55)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 안진환 옮김, *op. cit.*, 26.

선택설계자의 태도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 기반하여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된다. 물론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은 자신의 평소의 철학이 반영된 삶과 사고를 하기 때문에 오류나 논란의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비의도적인 넋지도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철학과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Thaler & Sunstein, 28). 자신의 철학을 위해 제시된 것은 다른 철학적 입장에서는 객관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언론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왜곡이나 잘못된 결정을 만들 수 있다. 이는 개입주의의 위험성인 강요가 수반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언론의 보도는 사람들의 일부 선택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정교해야 한다.

2. 삼손의 머리카락(2018년 9월 27일)

1) 내용

① 성서 속의 인물 삼손. 그는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초인적인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힘은 사자를 맨손으로 죽일 수 있을 정도였으니 그는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에 비견될 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머리카락이었다고 하지요. 그는 블레셋,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원망의 대상이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사자를 죽이는 그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죽였으니까요. 블레셋,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데릴라라는 첩자를 삼손의 연인으로 삼게 했고, 결국 그 막강한 괴력의 비밀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의 장면처럼, 삼손은 데릴라의 무릎에서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을 잘리게 되고, 그 힘도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얘기. 물론 삼손은 머리가 자라면서 그 힘을 다시 얻어 이야기의 결말을 향하게 됩니다.

② 머리카락은 인간에게 무엇일까... 삼손의 괴력은 물리적인 것이었지만, 그것을 자유와 상상력, 또 창조적 힘과 치환해서 생각한다면,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강제로 깎아버리는 것은 바로 통제와 부자유, 억압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닐까.

③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독재국가의 권위주의를 관찰하기 위해서 시민의 머리카락을 통제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줄지에 엉터리 이발사가 되어서 학생들의 머리에 일자로 열차 길을 내놓고는 했고, 경찰들도 가위와 바리칸으로 무장한 채 광장에서, 유원지에서, 골목길에서 시민들을 감시했습니다. 비틀즈와 레드제플린이 긴 머리를 휘날리며 최고조에 다다른 전성기의 영감을 쏟아낼 때 말입니다.

④ 우여곡절과 많은 논란이 계속된 끝에 한국 사회는 21세기가 가까워야 학생들의 머리에 자유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두발 자유화... 사실 그 명칭조차도 매우 권위주의적 분위기를 풍기면서 말이지요.

⑤ 그리고 오늘... 서울시 교육청은 이른바 두발 자유화를 말 그대로 완벽하게 실

친하라고 했습니다. 얼마큼 기르든, 염색을 하든, 파마를 하든 맘대로...

⑥ 그걸 왜 교육청까지 나서느냐는 불멘소리 한 편으로는, 이제는 지난 세기부터 버리지 못하고 쥐고 있었던 '두발 자유화'... 그 전근대적인 단어마저도 떨쳐버리게 되는가...싶긴 합니다.

⑦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도, 삼손의 괴력에 맞먹는 상상의 힘과 창조적 힘을 머리 길이와 모양과 색깔만큼 자유롭게 갖게 된다면...

⑧ 다만...삼손은 그 엄청난 힘으로 인해 결국 불행한 영웅이 됐다는 것만 조심한다면...이렇게 말하면 혹시 아이들이 보기엔 끈대일까 잠시 불안해지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2) 분석

'삼손의 머리카락'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두발자유화에 대한 보도와 관련된 것으로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었다는 삼손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다. 이야기는 3개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도입부분으로 삼손의 이야기이며, 두 번째는 머리카락과 관련된 문제제기와 답, 그리고 진행과정에 대한 맥락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두발자유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첫 번째 도입부의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친절하게 삼손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다. 삼손의 흥망을 잘 보여준 이야기를 통해 최근의 두발자유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두발자유화에 대한 논란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와도 연관되는 상징성이 있다. 이를 통해 두발자유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①은 도입부분으로 두발자유화에 대한 주제와 연관되지 않고 단지 머리카락이라는 소재의 연관성만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를 설명함으로써 주목을 끌고 있다. 삼손의 머리카락과 관련한 흥망에 대한 이야기는 '머리카락은 인간에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문제를 제기한다(②). 삼손의 괴력과 대비하여 자유와 상상력, 창조적 힘과 치환해서 설명함으로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것을 통제와 부자유, 그리고 억압의 상징으로 나타낸다.

머리카락은 인간에게 무엇일까...

삼손의 괴력은 물리적인 것이었지만, 그것을 자유와 상상력, 또 창조적 힘과 치환해서 생각한다면,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강제로 깎아버리는 것은 바로 통제와 부자유, 억압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닐까(②)

머리카락과 관련된 상징이나 의미를 성경에서 차용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상황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권위주의적 시대를

살아온 기성세대들에게는 이를 통해 자신들의 학창시절을 되돌릴 수 있는 에피소드를 통해 정서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이는 과거 국내 상황과 연관지으면서 세계적인 뮤지션 비틀즈와 레드제플린을 빗대어 억압과 통제를 부정적으로 설명한다(③).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독재국가의 권위주의를 관철하기 위해서 시민의 머리카락을 통제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줄지에 엉터리 이발사가 되어서 학생들의 머리에 일자로 열차 길을 내놓고는 했고, 경찰들도 가위와 바리칸으로 무장한 채 광장에서, 유원지에서, 골목길에서 시민들을 감시했습니다. 비틀즈와 레드제플린이 긴 머리를 휘날리며 최고조에 다다른 전성기의 영감을 쏟아낼 때 말입니다(③).

두발 논란은 1982년 전두환정권 초기에 잠시 시행되었던 두발자유화와 같은 사회적 허용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낸다. 이는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과거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우여곡절과 많은 논란이 계속된 끝에 한국 사회는 21세기가 가까워져야 학생들의 머리에 자유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두발 자유화... 사실 그 명칭조차도 매우 권위주의적 분위기를 풍기면서 말이지요(④).

현재는 과거와 많이 다르며, 다양한 방면에서 자율과 자유가 중시된다. 그리고 본인의 선택에 대해 존중하려는 인권과 자율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 앵커는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 그리 탐탁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⑤, ⑥). 서울시 교육청의 두발 자유화에 대한 우려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인 개념의 두발자유화가 아닌 진정한 자유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이에 대한 기대는 삼손의 힘과 빗대어 설명으로 이어간다. 괴력의 근원이 머리카락이었던 것처럼 두발자유화가 상상의 힘과 창조적 힘이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삼손의 힘으로 인해 불행한 영웅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교육감도 기성세대도, 그리고 아이들도 모두가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앵커의 이런 우려를 아이들의 시각에서 자신도 끈대가 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던져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도, 삼손의 괴력에 맞먹는 상상의 힘과 창조적 힘을 머리 길이와 모양과 색깔만큼 자유롭게 갖게 된다면...(⑦)

다만...삼손은 그 엄청난 힘으로 인해 결국 불행한 영웅이 됐다는 것만 조심한다면...이렇게 말하면 혹시 아이들이 보기엔 끈대일까 잠시 불안해지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⑧)

앵커의 이야기 전개는 두발자유화라는 논란을 삼손이라는 특정한 이야기를 도입함으로써 두발자유화에 따른 논란보다는 기대와 우려를 나타내면서 생각을 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책에 대한 반영으로 나타난다. 앵커는 삼손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독재국가의 권위주의에 대한 이야기와 자유와 창조성, 그리고 두발자유화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최근의 두발자유화에 따른 우려와 기대를 반영하는 흐름으로 논의의 중심에서 기성세대와 학생들의 간극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V.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앵커의 보도형식이나 내용을 담화분석한 것이다. 담화는 철학, 세계관, 정치적 성향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대중매체의 담화는 시청자들의 의지와 별개로 의도와 목적에 의해 정서 반응이나 특정 행동 유발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언론을 통해 의사소통 교육과 경험을 하는 사람의 일반적 심리와 정서, 그리고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 연구이다. 본 연구를 넘어 향후 연구는 언론사의 보도형태와 보도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과 반응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언론사의 보도는 분명히 청취자들의 선택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명확해 보이지만, 상관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료한 평가는 부족해 보인다. 언론 보도형태에 따라 시청자들이 익숙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시청자들의 정서와 사고가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명확한 상관관계를 살펴 보려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를 위해 JTBC 뉴스 ‘앵커브리핑’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22일 첫 방송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 4년 6개월간의 방송자료 중에서 조회 수가 많은 10개를 무작위로 선별하고 특정 개인대상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제외하였다. 분석된 담화 텍스트는 주요 사건이나 뉴스와 근접성의 감성적, 연상적 유사자료를 조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화분석을 통해 앵커는 사실 자체보다 특정 반응이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담론을 전개하고 있었다. 담화의 구조적 분석과 내용 탐색을 통해 텍스트의 구조, 행위의 속성, 변증의 방법, 그리고 매개작용을 분석하였고, 각각의 하위담화, 그리고 정체성의 모습을 통해 의도를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앵커브리핑 담화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앵커브리핑은 특정 사건에 국한되거나 정보전달의 뉴스 단위를 넘어 여러 자료를 조합하여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둘째,

앵커 브리핑의 방식은 은유적 담론이 강조되어, 뉴스 보도에 언론사나 앵커의 개인적 철학과 견해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앵커 브리핑은 명제의 구조화와 결합 및 순서 배열 등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넛지, 앵커링 등의 심리적 효과가 나타나 시청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뉴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심리적 작용이 뉴스 보도의 담론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뉴스가 왜곡될 수 있거나 원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이 반응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뉴스 보도에 대한 학문적, 심리적, 윤리적 분석과 평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뉴스의 담화와 표현방식에 따라 사실과 변형 등 뉴스의 변화와 재생산 과정을 볼 수 있었다. 대중들의 심리적, 정서적 반응으로 정치, 경제, 사회, 대인관계 등 다양한 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대중매체 분석 방식은 대중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 검증과 분석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뉴스나 보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점차 대중매체의 역할과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미국의 대선으로 촉발된 가짜뉴스와 여론에 대한 조작과 왜곡에 대한 현상에 대한 학문적 책임에 대한 차원에서 이해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통해 언론과 보도가 사회와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

- 강준만 외. 『넛지 사용법: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꾸는 법』.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17.
- 김병홍. “대중매체 언어와 자본주의: 텔레비전 뉴스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71(2015): 27-55.
- 김선진. “종합편성 채널 메인 뉴스 차별화 요인 연구: 종합편성 채널과 공중파 방송 메인 뉴스 비교를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35(2012): 321-330.
- 김영진. 『언어심리』. 서울: 학지사, 2018.
- 김영희. 『베를린장벽의 서사(독일 통일을 다시 본다)』. 서울: 창비, 2016.
- 김태욱. 『담화 텍스트 언어시학』.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0.
- 리처드 탈러, 캐스 스타인. 『넛지』. 안진환 옮김. 서울: 리더스북, 2009.
- 민춘식. “심리언어학의 발전과 양상에 관한 연구.” 『Veritas』. 5(1986): 81-94.
- 박경세. 『퍼스널 TV 특성 및 서비스』. 서울: 한국방송진흥원, 2002.

- 양성희. “공정방송의 간판스타 손석희 아나운서.” 『월간 말』. 78(1992): 228-231.
- 오미영.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3.
- 오미영·심재철. “TV 뉴스 앵커 스타일에 대한 지상파 방송기자 연구.” 『한국방송학회』. 23/5(2009): 132-172.
- 유수정. “종합편성채널 메인 뉴스의 차별화에 관한 연구: 주제와 논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이기주. 『언어의 온도』. 경기: 말글터, 2017.
- 이동귀. 『너 이런 심리법칙 알아?』. 서울: 21세기북스, 2016.
- 이시이 히로유키. 『콜드리딩』. 김윤희 옮김. 서울: 엘도라도, 2012.
- 이완수·박재영. “방송뉴스의 언어와 표현: 뉴스언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4/1(2013): 5-46.
- 이정모. “심리학의 개념적 기초의 재구성(2): 인지과학적 접근에서 본 ‘마음’ 개념의 재구성과 심리학 외연의 확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2(2007): 1-38.
- 정혜선. “심리학 연구에서 언어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3(2014): 671-707.
- 조명한 외. 『언어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3.
- 조종혁. 『커뮤니케이션과 상징조작(현대사회의 신화)』.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4.
- 최양호. “TV뉴스 앵커의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전문성 비교분석.” 『한국언론학보』. 44/1(1999): 468-488.
- 최윤희.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4.
- 최재목. 『융합인문학』. 서울: 이학사, 2016.
- 페어클럽, 노먼. 『담화분석방법』. 김지홍 옮김. 경기: 경진, 2015.
- _____. 『대중매체 담화 분석』. 이원표 옮김. 서울: 한국문화사, 2004.
- 프로이트, 지그문트.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이한우 옮김. 파주: 열린책들, 2007.
- 한국문화사회학회. 『문화사회학의 관점으로 본 질적연구 방법론』. 서울: 휴머니스트, 2018.
- 홍윤혜. “학술발표 담화에서 화자의 관점 선택의 효과 -화자, 청자, 화제 중심 발언을 대상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32(2013): 315-342.

논 찬 1

“뉴스의 담화분석: JTBC “앵커브리핑”을 중심으로” 에 대한 논찬

박 은 정 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 상담심리)

본 논문은 언론을 포함한 매스미디어의 전달방식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과 기술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로 시작된다. 가장 신뢰받는 뉴스조차 사건과 사고와 같은 사실적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되고, 해석된다는 것을 막연한 방식이 아니라 분석적 이해를 통해 본질적 가치에 접근해야 하기에 본 연구는 언론의 보도에 대한 텍스트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텍스트가 주는 작용에 대해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언론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에 대한 연구로 문제를 인식하고 사람들의 정서와 인식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인식과 판단에 오류를 발생시키며, 사회갈등을 만드는 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기를 예방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연구라고 연구자들은 강조한다.

언론의 역할은 사회적 의미공유와 의미생성 과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뉴스로 대표되는 언론은 일반적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히 전달하는 기본 기능에서 벗어나 해석된 정보를 전달하려는 추세에 있다. 신문기사와 같은 활자화 된 자료를 넘어 정서를 반영한 언어를 전달하는 방송은 다양한 작용이 발생한다.¹⁾ 본 논문은 사회적 교류의 경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사회적 책임과 함께 자정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케이블 방송의 확대와 유튜브 등 개인미디어의 발전과 SNS를 통한 뉴스의 재생산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미디어의

1) 유수정, “중합편성채널 메인 뉴스의 차별화에 관한 연구: 주제와 논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5.

전달방식과 내용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병행되지 않을 때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방송과 언론은 물론이고 마케팅과 광고 및 공익적 목적의 다양한 활동에서도 정보를 취합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다양성과 가치적 측면에서 인식과 평가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²⁾ 연구자들은 상담학적 관점에서도 이런 작용이 특정 학문 영역의 기술적 차원을 넘어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만든다고 강조한다.

JTBC의 앵커브리핑은 뉴스시간에 방송되며, 방송국의 사장이자 비교적 공정하다는 신뢰가 있는 인물이 직접 방송하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일반 보도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³⁾ 보도와 전달의 내용을 구성하는 담론은 이야기의 인지적 측면에서의 중요한 특징을 반영한다. 담론은 특정 관점에서 사회적 관행들을 구성하거나 (constructions) 표시하는 것(signification)이다. 담론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했는가를 표현하기 위한 ‘일치성’(congruent)과 ‘대비’, 그리고 ‘은유적’(metaphorical) 선택의 문제와 사건의 구성(construction)에서 배열(configurations)로 정리된다.⁴⁾ 앵커브리핑은 특정 사건에 국한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단위를 넘어 여러 자료를 조합하여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와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보도에서 일치성 담론과 은유적 담론은 실제로 구분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도에서 사실을 기본으로 하는 일치성에 은유적 담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앵커브리핑의 방식은 은유적 담론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스의 보도와 언론사나 앵커의 개인뉴스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넘어 다양한 경험들을 반영하고 표현하기 위해 담론을 사용한다. 은유적 적용은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경험 이외의 다른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서로 다른 관심 및 관점에 상응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이념적 함축(loadings)을 가질 수도 있다.⁵⁾

본 연구대상인 뉴스의 앵커브리핑의 표현은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을 잘 보여준다. 이런 방식은 광고나 마케팅에서 자주 보이며, 뉴스를 가장한 광고의 형태로 나오기도 한다.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가 아니라 원하는 방식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런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문제를 다루는 것은 심리와 상담에서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기존 공중과 3사를 위협하고, 한때는 가장 신뢰 받는 뉴스를 제공한다는 평을 받았던 JTBC뉴스의 자료 분석을 통해 뉴스의 변화와 재생산에 대해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은 텍스트의 담화구성이 주는 내용을 분석하여 다양한 표현의 방

2) 노먼 페어클립/ 이원표 옮김, 『대중매체 담화 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2004), 356.

3) 양성희, “공정방송의 간판스타 손석희 아나운서,” 『월간 말』 78(1992), 228-231.

4) 노먼 페어클립/ 이원표 옮김, *op. cit.*, 140.

5) 노먼 페어클립/ 이원표 옮김, *op. cit.*, 141.

식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왜곡된 상황이나 인식에서도 소통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⁶⁾ 이를 통해 정치나 경제의 사회적 활동과 개인의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작용에 대해 이해하고 인식함으로써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담화분석, 혹은 텍스트 분석을 기반으로 대중매체나 사회조사연구에서의 텍스트 분석방법을 기초로 상담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뉴스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담화분석을 기반으로 하였다. 보도된 뉴스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분해하여 뉴스와 연관된 팩트와 인트로와 클로징을 분석하여 하나의 뉴스가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⁷⁾ 이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야기의 진술과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뉴스에서의 담화구성에 대한 것이다. 단순한 뉴스를 보도하는 차원을 넘어 담화로 구성되어 나타날 때, 그 파급력과 효과는 더 클 수 있다. 특히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나 기자라는 신분을 통해 전달될 때, 2차 생산물인 담화의 파급력은 더 클 수 있다. 심리적으로 의도된 의미가 전달되거나 과급될 수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비언어 행위는 통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종종 심리·정서적으로 화자의 의도에 따라 왜곡될 수도 있다.⁸⁾ 특히 대중매체를 통한 언어는 단순한 대화가 실시간 전달되는 것만이 아니라 의도성에 의해 편집된 자료나 연출된 장면들과 함께 다양한 작용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⁹⁾ 이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경우에 더 많은 작용과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악용될 때 심각한 문제가 된다. 자료가 선용된다는 긍정적 측면을 넘어 왜곡된 정보가 일상화 될 수 있음을 고려해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언론의 담화분석을 위해 JTBC뉴스 속 코너인 앵커브리핑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22일 첫 방송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 4년 6개월에 걸쳐 방송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다룬 자료들 가운데 방송사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한 자료들 중에 10개를 무작위로 선별하여 앵커의 멘트를 중심으로 보도내용을 분석하였다. 자료 가운데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주제로 하는 방송은 제외했다. 자료는 언론사에서 제공한 원고를 기본으로 하되, 방송자료와 비교하여 방송 원고를 중심으로 하여 전문을 분석하였다. JTBC의 앵커브리핑을 선택한 것은 앵커브리핑을 진행하는 손석희 아나운서는 과거 언론사에게 공정하고 냉철한 보도 원칙과 상대적으로 중립적이라는 평이 있었으며, 현재는 JTBC 보도를 책

6) 김선진, “종합편성 채널 메인 뉴스 차별화 요인 연구: 종합편성 채널과 공중파 방송 메인 뉴스 비교를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35(2012), 321-330.

7) 노먼 페어클립/ 김지홍 옮김, 『담화분석방법』 (경기: 경진, 2015), 79.

8) 최윤희, *op. cit.*, 21.

9) 김병홍, *op. cit.*, 27-55.

임지는 사장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을 통한 정보의 활용에 대한 평가의 대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¹⁰⁾ 이는 본 연구가 한 개인의 의사표현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언론사의 보도방향에 대한 가치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뉴스보도가 아니라 앵커브리핑은 뉴스와 이슈가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으며, 시사적인 내용과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과 종종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에 언론의 입장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앵커의 보도형식이나 내용을 담화분석한 것이다. 담화는 철학, 세계관, 정치적 성향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대중매체의 담화는 시청자들의 의지와 별개로 의도와 목적에 의해 정서 반응이나 특정 행동 유발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언론을 통해 의사소통 교육과 경험을 하는 사람의 일반적 심리와 정서, 그리고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 연구이다. 본 연구를 넘어 향후 연구는 언론사의 보도형태와 보도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과 반응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언론사의 보도는 분명히 청취자들의 선택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명확해 보이지만, 상관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료한 평가는 부족해 보인다. 언론 보도형태에 따라 시청자들이 익숙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시청자들의 정서와 사고가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명확한 상관관계를 살펴 보려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이 JTBC 뉴스의 앵커브리핑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언어담론에 관한 정성스러운 분석과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이 많이 시도하지 않은 연구 작업으로써, 학문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업적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본 논찬자는 연구의 완성도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들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자들은 서론에 ‘뉴스의 담화분석’이라는 주제를 상담심리학적으로 분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나 본문에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인지심리학의 프로토콜이 언어의 담화분석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잠깐 언급하였을 뿐 앵커브리핑에 드러난 담화를 상담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 기준이 될 만한 심리학적 이론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예를 들어, 비록 뉴스가 일방적인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지만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시청자들은 각자의 내적 대상(internal object) 경험들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대상관계 심리학’적 가설도 본 연구의 심리학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10) 양성희, *op. cit.*, 228-231.

둘째, 연구자들은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의 주관적 담화가 뉴스의 객관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들이 구체적으로 앵커 브리핑을 분석한 연구부분에서도 연구자들의 주관적인 기준들과 해석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발견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객관성 유지는 어떻게 그 중심을 잡을 수 있을지에 관한 대안을 제안해주기를 바란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실천신학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으로써 연구 결과가 한국의 실천신학 현장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지에 관한 조명이 좀 더 보강될 수 있기를 제안한다.

다시 한번 새로운 연구주제에 관한 시도와 노력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교훈을 준 연구자들에게 동료 학자로서의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논 찬 2

“뉴스의 담화분석: JTBC “앵커브리핑”을 중심으로” 에 대한 논찬

김 해 영 박사

(KC대학교 / 목회상담)

연구자들은 ‘담화분석’이라는 분석방법을 통해 공정해야 할 공영방송이 그 기능을 잃고 편향되고 왜곡된 사실을 전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담화분석’방법의 구체적 예로 유명한 뉴스채널 방송인 JTBC의 ‘앵커브리핑’의 앵커 멘트를 분석해 내고 있다. 앵커브리핑에서 보도된 내용의 구조와 내용분석 그리고 관련된 사실과 비교 분석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특정한 방향으로 재생산되고 왜곡될 위험이 있는지를 설득력있게 증명해 내고 있다. 매체에 대한 이런 분석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이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 ‘이해관계’ ‘그리고 목적’에 따라 다른 ‘실체’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매체를 통해 뉴스가 생산되어지는 과정 또한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두 연구자가 지적한 것처럼, 왜곡된 정보, 재생산된 뉴스는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할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듣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청취자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특별히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확한 사실을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하는 경쟁적 사회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에게 미칠 부정적 효과는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대중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뉴스가 간단하지만 중요한 이런 원칙들을 지키지 못할 때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한국사회와 그 구성원이 짊어져야 한다. 이들 또한 언론매체로써 국민적 신뢰를 상실할 수 있으며 결국 그들의 모든 전달내용을 의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일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공영방송이나 대중매체를 떠나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와 같은 사적인 영역으로 옮겨 가게 하는지도 모른다. 그나마 공영방송은 최소한의 규제와 법칙에 따라 운영되는 안전장치라도 있는데 이런 개인방송들은 그나마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여과없이 전달되는 정보와 지극히 편향적인 내용들이 온갖 경로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아니면 말고’식 폭로적 내용들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현상 가운데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잘못된 정보속에서 바른 것들을 찾아내는 것은 온전히 수혜자의 몫이 돼 버리고 말았다. 그런 의미에서 왜곡된 보도가 주는 정보전달의 피해와 위험성을 지적하며 ‘매스미디어의 전달방식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과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는 이들의 연구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들 연구의 가치와 중요성에 더해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들이 객관성을 결여한 정보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예로 든 “앵커브리핑”이 적절한 것인지 궁금하다.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앵커브리핑은 객관적인 사실을 신속하게 전하는 뉴스와는 좀 색깔이 틀린 것이 아닌가 한다. 앵커브리핑이 전달되는 방식은 뉴스의 국내외 소식을 다룬 후 그 중간에 앵커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를 선택해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려는 목적을 진행된다고 보여진다. 앵커가 주제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달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기존 뉴스의 전달방식과는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은 ‘매체는 이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 이해관계, 그리고 목적에 따라 다르게 실재를 만든다. 그리고 텍스트 생산 과정에서 선택을 통해 형성된다’고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앵커브리핑은 사실 객관적 사실 보다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된 특정한 대상으로 향해 전달되는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앵커브리핑 보다는 다른 예를 들어서 분석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선택이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둘째로, 뉴스라고 해도 철저한 객관적 기술과 보도가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우리는 뉴스가 객관적인 진술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가 항상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믿는다. 대중매체인 신문이나 방송들이 특정한 계층이나 그들의 사회적 이익을 대변하고 여론을 왜곡시키는 현상을 알고 있다.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예에서도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연구자들이 말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청취자들은 더 이상 단순한 전달되는 뉴스를 단순히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들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매체들을 향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던져진 텍스트’를 진리로 받기만 하는 단순한 ‘독자’가 아니라 새로운 해석에 참여하고 의미를 확장시켜나가는 적극적인 독자로 세력화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뉴스들은 그 독자들의 관심과 취향에 따라 방송을 편집하기도 하고 재배치 해서 청자

들이 원하는 방송을 만들어가게 된다. 이런 현상들은 청취자들의 참여와 세력화가 강해질수록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뉴스라고 하지만 이런 현상에서 자유로운 언론이 과연 가능한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셋째로, 담화분석에 대한 심리학적 내용들이 좀 더 분명하게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연구자들은 서두에서 이 연구가 ‘언론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에 대한 연구’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은 논찬자에게는 많은 부분들이 생소한 영역이다. 그런 점에서 그런 생소한 부분을 바라보게 한 이 연구는 읽는 내내 조직적인 글의 전개와 언어분석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용어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즐거움을 주었다. 이 모든 것에 덧붙여 더 관심을 갖게 한 부분은 과연 연구자들의 제시한 ‘담화분석’방법과 언론의 보도형태를 어떻게 심리적으로 연결했는가 하는 점이었다. 아마도 추측해 보자면 연구 중간에 언급한 ‘심리와 담화분석’에서 다른 내용들이 구체적 예로 제시한 앵커브리핑의 내용들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 심리학적 부분들을 예로 제시한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다루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몇 가지 제안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가치와 의미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난무하는 정보 홍수속에서 그들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혜자인 우리들이 분석적 시각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위험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해도 의심의 눈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런 연구들이 실천신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용기와 도전을 받게 된다.

제 6 발표

디지털시대 학습자 이해를 근거한 디지털 목회 리더 십에 대한 성찰

이 종 민 박사

(충신대학교)

I. 들어가는 말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 종교 현상과 관련하여 “종교 온라인”(religion online)과 “온라인 종교”(online religion)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 전자의 경우는 온라인 상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여 유명해진 교회와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온라인 환경 안에서 종교적 행위와 실천을 실행하는 종교를 의미한다.²⁾ 이와 같은 종교현상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1) S. Gelfgren, “Digital Church and Media-In a Historical and Contemporary Context,” *Masaryk University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6/1(2012), 63.

2) 온라인 종교는 교회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안한다. 즉 Estes는 그의 책에서 “우리는 이제 행위 교회(doing church)를 중지하고 존재교회(being church)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행위교회와 존재교회 간의 차이는 온라인 교회가 생겨나면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교회론적 해석 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가상교회인 Second Life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교회와는 다른 교회이다. 이 교회는 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전세계의 성도들을 연합하는 힘이 있다...지금까지 보아왔던 교회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회이다”라고 주장한다. D. Estes, *SimChurch: Being the Church in the Virtual World*,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9), 18을 보라. 이처럼 온라인 종교는 단순히 온라인을 사용하여 예배를 드리는 정도의 교회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교회론을 주장하는 교회형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성경은 교회를 설명할 때 단순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현대사회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종교 온라인에서 온라인 종교로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하나는 종교 온라인이나 온라인 종교에 개입되어 있는 참가자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세대들 중에서 특별히 온라인 매체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는 세대들이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가 나타내는 특징 또한 이전에 있었던 세대와는 다른 특징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종교 온라인이나 온라인 종교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종교 온라인이나 온라인 종교 안에서 어떠한 형태의 신앙이 가르쳐지고 있고, 이것이 개인적으로나 혹은 공동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신앙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물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본질과 내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신앙의 형태와 그 형성 과정은 언제나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온라인 혹은 온라인 종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훈련방식들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종교 온라인이나 온라인 종교에 개입되어 있는 참여자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신앙 형성의 특징들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목회리더십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디지털 교회”(Digital Church) 안에서 목회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그에 걸맞는 구체적인 사역역량이 무엇인지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종교 온라인과 온라인 종교에 개입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N세대를 중심으로 하여 학습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21세기에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신앙형성 모델들을 바탕으로 하여 신앙교육에 대한 동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

물리적 위치(location)에 따라 교회를 정의하지도 않고, 오히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요4:21-24, 마18:20)으로 규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경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온라인 종교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영적 교회(the universal-spiritual church)의 또 다른 형태로 지역-가상교회(a local-virtual church)를 제안한다. 그러나 온라인 교회들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성찬 집례에 관한 것이다. Estes와 같은 사람들은 성찬에 대해 기념설을 주장하면서 물리적인 성찬의 참여보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측면에서 성찬이 거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해석은 교리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참교회의 표지--‘말씀의 올바른 선포, 올바른 성례의 집행, 그리고 정당한 권징의 실행’--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온라인 교회가 참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종교가 보다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회론적 해석과 그에 따르는 종교행위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털 교회를 효과적으로 목회하기 위한 목회리더십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디지털목회 리더십

기술문명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 매체들이 의사전달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돌에 글을 새겨넣거나 그렸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흙판, 양피지, 혹은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책이 발간되었고, 전자문명이 나타나면서 소리를 송출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영상을 제작하고 방송하는데 다양한 장비들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기독교의 목회 현장에도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매체들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십계명을 담은 돌판에서부터 시작하여 돌에 회를 칠하고 글을 쓰는 일들이 벌여졌는가 하면, 양피지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전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기 되기도 하였다. 이뿐만만이 아니라 때로는 조각상, 그림, 아이콘, 서적 등이 사용되었다. 최근에 들어 라디오, TV뿐만 아니라 인터넷까지 복음전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미디어와 기독교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어떤 매체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즉 오늘날 목회의 대상 중에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20-30대의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며, 이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신앙형성 모델은 무엇일까라는 것이다.

1. 디지털목회를 위한 학습자 이해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20-30대 세대를 일컬어 “N세대”, “밀레니엄 학습자” 혹은 “디지털 원주민”라고 부른다.³⁾ 이들 세대의 학습자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3) “N세대”에 대해서는 Tapscott가 그의 책 *Growing up Digital: The Rise of the Net Generation*(1998)에서 처음으로 소개하고, 계속되어진 연구를 통해 N세대가 따르는 8가지 규범-자유(freedom), 맞춤형제작(customization), 통합(integrity), 정밀조사(scrutiny), 협동(collaboration), 오락(entertainment), 혁신(innovation), 속도(speed)--을 제시한다. D. Tapscott, *Grown Up Digital: How the Net Generation is Changing Your World*. Toronto: McGraw-Hill, 2009을 보라. Oblinger와 Oblinger(2005)도 그들의 전자책 *Educating the Net Generation*에서 N세대 학습자의 특징을 소개하였다. “밀레니엄 학습자”에 대해서는 Wilson과 Gerber가 그의 논문에서 1982년에서 200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의 학습자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그들의 특징에 대해 “야심, 혁신, 낙관, 그리고 고차원적 협동작업능력을 드러내는 동시에 스트레스, 관습성, 그리고 과도한 부모의존에 높은 점수를 보여준다”고 설명하

드러내는데 그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다양한 디지털미디어기술들을 활용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디지털 기기들을 작동함에 있어서 이전 세대의 학습자와는 달리 매우 전문가적 소질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할 때 오늘날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학습활동을 하는 학습자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디지털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관점(generation-oriented perspective)이고 또 다른 하나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관점(digital techno-deterministic perspective)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연구는 Prensky의 연구가 있다. Prensky는 오늘날의 학생들은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된 디지털 언어를 구사하는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이라고 부르면서, 이러한 세대의 학습자를 일컬어 “근본적으로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학생들이라고 정의한다.⁴⁾ 디지털 원주민으로서의 학습자들이 나타내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첫째 특징은 속도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이 접하는 자료를 빠르게 스캔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환경에 대해 관용능력이 부족하며, 정독이나 숙독 같은 학습을 좋아하지 않고, 추상적인 사고를 발전시키는 것을 어려워 한다. 특별히 인터넷 환경 속에서 속도가 느릴 경우 매우 힘들어한다. 둘째 특징은 다중작업을 하고 싶어하고, 그러한 필요를 쉽게 감지한다. 그래서 지루한 것을 스스로 방지하면서 다중작업을 스스로 선택한다. 그렇지만 암기하는 것을 싫어하고, 비효율적으로 공부시간을 사용할 뿐 아니라, 쉽게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기는 경향이 있다. 셋째 특징은 텍스트 즉 문자보다는 그림 즉 이미지를 선호한다. 그래서 시각적이면서 공간적인 기술이 발달된 반면 깊이 있는 반성적 사고를 하는 정신적 역량이 부족할 때가 있다. 넷째 특징은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진행해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로 인해 비구조화된 영역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용이한 반면에 논리적이면서 선형적인 사고에 필요한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

였다. M. Wilson, & L. E. Gerber, “How generational theory can improve teaching: strategies for working with the Millennials,” *Currents in Teaching and Learning* 1/1(2008), 29을 보라. Taylor는 밀레니엄 학습자의 특징 14가지--① Consumer orientation, ② Entertainment orientation, ③ Entitlement, ④ Instant gratification, ⑤ Short event horizon, ⑥ Adaptability & pragmatism, ⑦ Excellence, ⑧ Skepticism, ⑨ Cynicism, ⑩ Intellectually disengaged, ⑪ Safety issues, ⑫ Stressed, ⑬ Civility issues, ⑭ Diverse--를 제시하였다. M. L. Taylor, “Generation NeXt comes to college: 2006 updates and emerging issues,” In *A collection of papers on self-stud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Vol. 2)*, ed. Susan E. Van Kollenburg, (Chicago, IL: Higher Learning Commission, 2006)을 보라. 마지막으로 “디지털 원주민”에 대해서는 Prensky가 그의 논문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2001)에서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4) M. Prensky,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On the Horizon* 9.5(2001), 1

5) M. Prensky, *Digital game-based learning*, (New York: McGraw-Hill, 2001b), 442.

우가 있다.

다섯째 특징은 공동작업과 지속적인 연결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 네트워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에 적용하기도 하고, 진정성 있는 정보수집에 대해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미디어를 통하여 사회성을 형성하는데 지나치게 학습비용을 지불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여섯째 특징은 읽고 듣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시를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가려는 적극성이 있다. 반면에 인내심 부족으로 인해 기본적인 교육내용을 간과하거나 누락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다. 일곱째 특징은 일과 놀이를 복합 혹은 융합시킨다. 이 과정에서 인지적 흥미유발은 학습을 촉발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자기규제성이 결여되는 역효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여덟째 특징은 게임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자신들의 노력에 대하여 즉각적인 피드백과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피드백은 학습동기를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학습을 방해하기도 한다. 아홉째 특징은 게임이나 TV, 영화에 나타나는 실제상황처럼 환상적인 상황을 선호한다. 이러한 조건이 잘 갖춰질 경우에는 놀라운 교육효과를 거두기도 하지만 그러한 조건이 현실에서 이루어지 않을 때에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열째 특징은 디지털미디어 기술이란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필수적인 것 중의 하나라고 기대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이 부족한 환경에서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한다. 이러한 특징은 폐다고지적으로 볼 때 디지털 원주민들이 개념적 이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반대로 신기술 자체로 인해 학업이 방해받기도 하고 부족한 기술로 인해 불필요한 인지적 하중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산적인 학습 습관에 대해 연구한 학자는 Thompson이다. 그는 연구를 통하여 디지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몇몇 특성들이 평균값(3.88) 이상으로 생산적인 학습 습관에 의미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⁶⁾ 예를 들자면 가장 높은 학습 습관은 빠른 웹서칭 기술(5.36)이고, 이어서 학습자 스스로 기술능력이 학업에 필수적이라고 느끼는 자의의식(4.86)이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비선형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4.61)고 대답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웹페이지를 빠르게 스캔하는 능력(4.10), 학습하는 동안 계속해서

6) 본 연구는 미국의 중서부에 있는 대학교에 등록된 신입생 중 약 38%에 해당하는 3000명 중에서 388명의 샘플을 추출하여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설문 내용은 디지털 원주민의 특징을 묻는 질문과 생산적인 학습 습관을 묻는 질문 8-point scale로 자기평가하는 형식을 취했다 (첫번째 질문에서 1은 전통적인 특징이고 8은 디지털 원주민적 특징을 나타내고, 두 번째 질문에서 1은 비생산적이고, 8을 생산적인 습관을 나타낸다). P. Thompson, "The Digital Natives as Learners: Technology Use Patterns and Approaches to Learning." *Computer & Education* 65(2013), 18.

서 친구와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4.09), 문자보다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3.99), 다중 작업을 선호하는 것(3.98) 그리고 일과 놀이를 복합시키는 것(3.97)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디지털 원주민들은 기존의 세대와는 다르게 디지털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변화된 세대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스 교육환경에서 디지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 학습자들은 생각하는 방식이나 상대방과 상호소통하는 방법이나 외부세계를 지각하는 형식이 아날로그적 교육환경에서 학습하던 학습자들과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는 이러한 학습환경의 변화는 학습자의 두뇌구조에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다중작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학습자로 향상시켰다는 주장을 하게 만든다.⁷⁾

이상의 연구 결과가 디지털 세대를 중심으로 한 관점에서 학습자의 특징을 살펴본 것이라면, 이제는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학습자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디지털미디어 시대에서 학습자들이 나타내는 특징이 단지 20-30대에 해당하는 특정 세대에 국한하는 특징이라기 보다는 세대를 뛰어넘어 나타나는 학습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러한 학습자의 특징은 단순히 세대적인 관점에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환경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드러내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는 연구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육환경에서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학습자들이 세대적인 제한을 뛰어넘어 독특한 학습자의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Bullen과 Morgan이 6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이용에 따른 디지털 학습자의 특성을 연구한 리서치가 있다.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학습자들은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사회적 관계와 교육적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핸드폰과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전형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반면에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특별히 교육적 목적에 있어서는 작동법의 수월성, 편의성, 그리고 비용에 따라 디지털 통신기술이 결정된다는 의견이 세대 간에 차이 없이 모든 디지털 학습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들은 광범위하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반면에 특정 프로그램 기술들은 교

7)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제시되었던 Prensky의 논문과 책을 참조해 보라.

8) M. Bullen, & T. Morgan, "Digital Learners not Digital Natives," *La Cuestion Universitaria* 7(2011). 61.

육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답하였다.⁹⁾

특히 연구 결과 중에서 인터뷰에 참석한 디지털 학습자들이 보여준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세대 구분없이 디지털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때, 강의를 집중해서 수강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의 방해 받지 않으며, 손으로 하는 노트필기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반면에 디지털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디지털을 활용한 수업이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교육이나 질문에 대해서는 호응이 매우 적게 나타난다. 이는 디지털 기술과 교육의 만족도는 디지털 학습에 있어서 또다른 변수가 작용함을 암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디지털 학습자들은 보다 혁신적인 방법의 사용과 함께 학습을 강화시켜주는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이 학습자의 학습에 도움이 될 때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Bullen과 Morgan은 효과적인 디지털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을 제안하였다. 첫째, 교수자는 학습자가 N세대이거나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신화적 개념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필요에 기초하여 디지털 교수-학습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이 최고의 교수법은 아닐 수도 있지만, 좋은 교수법은 단지 학습자를 세대적 접근을 통해 이해하기 보다는 학습자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실제적인 상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수-학습법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교수자는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적합한 디지털 정보통신기기와 기술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를 무작위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간단한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온라인에 업로드 함으로 학생들이 반복해서 이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¹⁰⁾ 마지막으로 디지털 학습자는 당연히 최신 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할 뿐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데 능숙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연구 조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디지털 학습자들은 정보통신기술에 접하는 정도의 스펙트럼이 넓은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도

9)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등교수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에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소위 'Google Meet' 혹은 'Zoom'과 같은 인터넷 화상회의 프로그램들이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0)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표적인 방법들 중의 하나는 실시간 영상강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술 사용에 대한 수월성과 디지털 환경의 용이성에 따라 학습 만족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이 수월하지 않은 교수자는 학습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디지털 환경이 낙후한 학습자의 경우에는 제공하는 학습 콘텐츠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다 고려하여 수업에 가장 적합한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교수-학습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¹¹⁾

따라서 디지털 학습자에 대한 이해는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세대간 특징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심층적으로 볼 때 세대를 뛰어넘어 디지털 정보통신기술과 기기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하여 학습자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특징이 단순히 세대 간의 특징으로 이해하는 단편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관점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통합하여 디지털 학습자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박휴용은 포스트휴머니즘적 시각에 입각한 학습자 특성을 제시한다. 포스트휴먼시대란 AI의 등장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사되고 있는 새로운 인간이해의 틀이다. 왜냐하면 고전적 인간이해에 있어서는 인간과 기계가 구분되었지만, 포스트휴먼시대 가운데 놓이게 된 인간은 더 이상 고전적인 시각에 따라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즉 트랜스휴먼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과 기계가 융합되는가 하면, 포스트휴먼에 와서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선이 무너지기 시작한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포스트휴먼적 학습환경이란 “알고리즘, 빅 데이터, 플랫폼 등에 기반한 정보처리 기술, 인공지능, 드론과 무인자동차를 포함한 로보틱스 기술, 셀룰러 네트워크 및 Wi-Fi 기술, 센싱 기술, 착용 기술, 유비쿼터스 컴퓨팅 등을 바탕으로 한 통신기술,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만물 인터넷, 스마트 홈, 소셜미디어 기술의 발달 등과 같은 생활기술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식의 학습환경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포스트휴먼적 학습환경 속에서 학습하는 학습자의 특성에 대해 박휴용은 6가지를 제시한다. 네트워크적 학습자, 가상학습 환경의 학습자, 모바일적 정체성을 가진 학습자, 사이버공적 학습자, 인간-사물의 상호능동성에 적응하는 학습자, 그리고 학습-예능의 혼성성을 활용하는 학습자이다.¹²⁾ 그리고 이러한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학습의 형태는 사이버공간의 학습, 바이오로이드적 학습, 그리고 네트워크적 학습이라고 주장한다. 각각의 학습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은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서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면서 이루어지는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교류에 의한 학습”이라는 것이다.¹³⁾ 이는 단지 학습의 주체가 변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 보다는 학습 환경이 새로워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1) *Ibid.*, 65.

12) 박휴용. “포스트휴먼 시대 학습자의 존재론적 이해와 학습이론 패러다임의 변화,” *교육방법연구* 31/1(2019), 126.

13) *Ibid.*, 131.

학습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습자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박용의 포스트휴먼적 학습환경과 그에 따르는 학습자의 유형 분류는 디지털 목회를 구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치 기독교가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하여 신학적 플랫폼을 바꿨던 것처럼¹⁴⁾ 디지털 목회는 “포스트휴먼”이라는 새로운 인간상을 중심으로 하여 신학적 플랫폼을 제시할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다. 기존에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학습의 주체인 시대와는 달리, 인간 또한 다른 사물들과 동등한 객체로 이해되어지는 과학기술의 발달 앞에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신앙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학습모델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복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인간의 학습환경이 변했기 때문이고, 이러한 변화된 학습환경에서 효과적인 신앙형성을 위해 새로운 교육방법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2. 디지털목회를 위한 신앙형성 모델

신앙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디지털목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종교실태를 살펴보면, 오늘날 시대는 지난 20년 전보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대가 더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 신앙형성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비율이 증가한 세대임을 알 수 있다. 바나 리서치에 의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1990년대는 30%정도 였는데, 2014년에는 43%로 대략 1/3정도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의 종교에 대한 성향을 살펴보면, 적극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49%이고, 최소한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8%인 반면에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은 사람은 10%이고 한번 교회를 갔지만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는 사람이 33%로 조사되었다. 이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종교로부터 멀어져 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을 세대별로 조사해 보았더니 밀레니엄 세대(1984-2002년생)는 4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X세대(1965-1983년생)가 40%, 베이비붐어세대는 35%, 그리고 그 이상의 세대는 28%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은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조직화된 교회로부터 눈을 돌리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대가 젊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형성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14) 한춘기는 기독교신학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 크게 6 단계의 신학적 플랫폼이 전환되었다고 약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초기교부시대는 삼위일체논쟁, 칼케돈회의를 전후한 기독교론 논쟁, 동·서방교회의 분열 속에 나타난 속죄론 논쟁, 중세교회의 성례론 논쟁, 종교개혁시대의 구원론 논쟁, 그리고 근대의 교회론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한춘기, 『기독교교육신학[1]』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5). 35.

다.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 가운데서도 다양한 형태의 신앙형성에 대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별히 새로운 세대들은 신앙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Roberto는 그의 책 “Faith Formation 2020”에서 하나님과 영적생활에 대한 갈망의 정도와 조직화된 종교에 대한 수용-거부의 정도를 중심으로 하여 신앙형성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열정적인 신앙과 적극적인 관여’를 추구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세 번째는 ‘종교집단에 소속도 되어 있지 않고 종교에 관심도 없는’ 유형이다. 네 번째는 ‘종교집단에는 참여하지만 헌신은 하지 않는’ 유형이다.¹⁶⁾

한 걸음 더 나아가 Mercadante는 오늘날 세대는 영성을 추구하지만 종교적이기를 거부하는 세대라고 규정하면서 5가지 유형의 신앙형성의 경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¹⁷⁾

반대자는 기구화된 종교로부터 멀리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에는 조직화된 종교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공격을 받았거나 조직종교에 대해 분노하는 ‘항의적 반대자’가 있는가 하면, 단순히 조직화된 종교로부터 떨어져 나와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떠돌이 반대자’가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종교적 혹은 영적인 행위가 전적으로 기능적이라고 여긴다. 예를 들어 주어진 행위, 가르침, 혹은 안내가 그들을 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탐험가는 여정을 즐기지만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는 영적 여행자와 같다. 이들 여행자들은 전통적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종교 예배에 가끔 참석한다. 신학적으로 이들은 이질적인 믿음과 기교 그리고 영적 행위들을 혼합하고 접목하는 하이브리드 신앙인이다.

구도자는 영적인 고향을 찾고 있다. 그들은 초기의 종교적 정체성을 되찾거나, 약간 다른 무엇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전혀 새로운 종교나 대체의 영적 그룹에 참여한다.

이주민은 새로운 영역 세계로 옮겨 새로운 정체성과 공동체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라는 기풍(독립,

15) G. Barna, & D. Kinnaman. *Churchless*. (Carol Stream, IL: Tyndale, 2014), 접속 2020.5.21. <https://www.barna.org/churchless#.VMdqTcZLzds>

16) Roberto, John. *Faith Formation 2020: Designing the Future of Faith Formation*. Naugatuck, CT: Lifelong Faith Associates. 2010.

17) L. Mercadante, *Belief with Borders: Inside the Minds of the Spiritual but not Religiou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64.

자유, 비교조주의, 개방적이고 질문하는 자세)과는 정반대로 헌신과 절개 그리고 그룹의 충성을 요구한다.

이들 유형들 중에서 특별히 디지털목회와 관련하여 집중해서 관찰해야 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 매우 영적이라고는 하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종교집단에는 참여하지만 여전히 헌신하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다양성의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회이다. 그 중에서도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종교적 다원주의는 현대 사회의 한가지 특징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종교적으로 다원화된 세속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형성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Taylor는 “시대가 지날수록 우리는 의문과 불확실의 상황 속에서 비록 신앙을 지키면서도 여전히 한눈을 팔면서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¹⁸⁾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은 두 가지 양극단을 가는 영향이 있다. 하나는 자신이 삶 속에서 신앙이라는 요소를 삭제해 버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만이 경험하는 새로운 내러티브와 도덕적 코드 혹은 정체성을 그들의 삶에 첨가하는 이들이 있다.¹⁹⁾ 특별히 1982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이러한 특징을 더 잘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목회를 통해 신앙을 형성할 때,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다. 예를 들어서 Hess는 미디어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는 세대가 신앙을 형성하는 데 3가지 관점에서 도전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권위의 문제이다. 예를 들자면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의 등장은 기존에 있던 위계질서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형태일 상방향적 의사소통을 통한 권위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진정성(authentic)이다. 기존 종교 안에서 당연히 여겨지고 유지되어오던 신앙에 대해 그 실재성을 되묻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종교성에 대해 “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라는 식의 규정이 신앙형성에 있어서 참된 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위와 진정성을 시험할 수 있는 참된 종교단체(agency)에 대한 갈망이다. 이전에는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앙형성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디지털 문화와 다원화된 종교문화 속에서 더 이상 신앙형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하나의 수단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²⁰⁾

18) Charles Taylor, *A Secular Age*,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11.

19) Andrew Root, “Faith Formation in a Secular Age,” *Word & World* 37/2(2017), 130.

20) Mary E. Hess. “Digital Storytelling: Empowering Feminist and Womanist Faith Formation with Young Women,” Mia Lovheim, *Media, Religion, and Gender: Key Issues and New Challenges*, (London, Routledge, 2013), 170-171.

White는 온라인 학습 환경 안에서 정서적 요소와 관계적 요소에 보다 많은 주의를 집중하는 교수법을 통해 학생의 영성 형성(spiritual formation)을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²¹⁾ 특별히 Palmer의 이론을 근거하여 교수자가 가져야 하는 소양으로는 취약성(vulnerability), 진정성(authenticity), 그리고 통합성(integrity)를 제시하고, 인터넷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로는 안전성(safety), 투명성(transparency), 경계성(boundaries), 그리고 친밀성(intimacy)를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제시된 다양한 신앙형성의 특성들을 디지털목회과 관련하여 종합하여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부류의 사람들이 디지털목회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부류는 종교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지만 영적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신앙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Roberto가 말하는 것처럼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유형에 속하는 사람인 동시에 Hess가 말하는 것처럼 기존 종교에 회의를 느끼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진정성’있는 신앙공동체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White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인도하는 종교지도자의 ‘진정성’을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고, 동시에 자신이 속하게 될 종교단체의 ‘투명성’과 ‘친밀성’을 다각도로 탐색한 후에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위를 탐색하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다.

또 다른 부류는 종교집단에 참여는 하지만 물리적인 차원에서 헌신을 머뭇거리면서 자신의 신앙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종교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다. 심지어는 현대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가나안 성도’에 속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Roberto가 말하는 것처럼 ‘종교집단에 소속도 되어 있지 않고 종교에 관심도 없는’ 유형의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자신이 헌신할 만한 공동체를 찾아 끊임없이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Hess가 말하는 것처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권위’가 나타나는 교회를 기대하고 있고, White가 말하는 것처럼 ‘취약성’을 넘어 의미있는 ‘통합성’을 추구하는 교회지도자를 찾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선을 넘지 않는 ‘경계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신앙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공동체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성숙”하기를 기대하면서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다.

21) Parker Palmer는 관대성(hospitality), 안전성(safety), 통합성(integrity), 취약성(vulnerability), 그리고 친밀성(intimacy)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학습공동체를 규정하였다. R. White, “Promoting Spiritual Formation in Distance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Journal* 3/2(2006), 304-305.

3. 디지털목회를 위한 목회자의 역할

지금까지 디지털목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회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 먼저 디지털목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20-30대의 세대적 특징과 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통신기술과 기기를 바탕으로 한 포스트휴먼적 인간이해를 살펴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목회 대상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신앙형성의 유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목회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의 특징과 신앙유형을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목회리더십을 구상해 볼 수 있을까? 일반교육학에서는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모델을 여러 종류로 제시하고 있다.²²⁾ 이러한 모델들은 모두 정보통신 기술분야에서 새롭게 개발되어지는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모델을 구상한 것이다. 이러한 구상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리더십의 핵심역량을 신기술에 대한 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기술”이란 단지 지식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기술로 인지되는 것이거나 효율적인 절차와 운영을 위해 새롭게 습득해야 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기술이란 기술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이 오래된 기술이든 새로운 기술이든 상관없이 지속적인 발전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환경과 역동적인 변화의 단계를 맞이하게 될 때 나타나는 기술의 적용을 의미한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나 신기술이란 교수자와 학습자 혹은 교육공동체가 그 기술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점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의 기술과 적용을 신기술이라고 부른다. 동시에 그 기술이 내재하고 있는 가능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가능성이 충분히 실현되거나 적용되지 않은 것을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²³⁾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디지털목회는 교회적 패러다임이나 교육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신기술이다. 물론 종교 온라인을 통하여 디지털미디어가 교회와 목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미 알고 있고, 그 가능성을 확신하지만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22) 기존의 교육학적 내용지식에 테크놀로지 지식을 융합한 테크놀로지-교수내용지식을 활용한 TPACK모형(Technological Pedagogical and Content Knowledge Model), 테크놀로지가 기존의 기술을 대체-향상-재설계-창조하는 기능을 강조하며 스마트기기 활용을 통한 SAMR 모형(Substitution Augmentation Modification Redefinition Model),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정보기술수용하여 활용하는 TAM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등이 있으며 그 외에 Replacement Amplification Transformation Model, Technology Integration Matrix Model, 그리고 Technology Integration Planning Model 등이 있다. R. Kimmons & C. Hall, “Emerging Technology Integration Models” In *Emergence and Innovation in Digital Lear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ed. G. Veletsianos, 52, (Edmonton: Athabasca University Press, 2016)

23) G. Veletsianos,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Emerging Technologies and Emerging Practice in Distance Education,” 7-10. In *In Digital Lear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Edmonton: Athabasca University Press, 2016)

과 연관하여 볼 때 그 가능성이 충분히 실현되거나 적용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더욱이 종교 온라인을 넘어 온라인 종교가 등장한 오늘날의 시점에서 포스트휴먼이라고 학습자의 특성을 지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목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아무도 확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미디어라는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목회에 있어서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신기술에 대한 태도적 관점에서 목회자가 갖춰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량과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디지털목회에 있어서 목회자가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량을 생각해 보면, 디지털 학습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운영역량이라 할 수 있다. Gros, Garcia 그리고 Escofet의 연구에 의하면 학습을 돕기 위한 디지털기기 사용은 학습자의 특성보다도 교수-학습 방법에 의해 더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즉 일반적으로 N세대에 속한 학생들이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여 학습에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가설과는 달리, 오히려 학습을 지도하는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페다고지와 교수-학습 모델에 따라 그 효과가 더 의미 있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²⁴⁾ 이는 단지 신기술을 잘 알고 있는 디지털 원주민 세대를 대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가설을 뒤집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지식과 기술의 문제라기 보다는 신기술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의 관점을 시사하는 연구이다.

더 나아가 김혜정과 임희석은 디지털 교과서의 특징을 소개하고 교수자가 디지털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 구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교과서의 주요 기능은 읽기, 탐색과 참고, 책갈피, 노트, 그리고 평가이다.²⁵⁾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을 기반으로 교수자가 학습을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여 진행하고자 할 때 디지털 교과서가 갖춰야 하는 기능은 첫째, 편리한 콘텐츠 선택 조절 기능이다. 이것은 교수자로 하여금 수업을 진행하는 흐름에 따라 교수 콘텐츠를 선택하고 수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기능, 크기조절기능, 혹은 위치이동기능 등이 포함된 편집기능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는 학생들의 교과서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교수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표시하거나 판서를 할 수 있는 조작기능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보다 융합적

24) Begona Gros, Iolanda Garcia, & Anna Escofet, "Beyond the Net Generation Debate: A Comparison of Digital Learners in Face-to-Face and Virtual Universities," *The International Review of Research in Open and Distance Learning*, 13.4(2012), 191.

25) 각각의 기능을 부연하여 설명하면, 읽기란 "문자, 그림 등의 상징물을 통해 의미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이고, 검색 및 참고는 "검색 행위를 통해 단어나 목표로 하는 내용, 이미지, 사전적 의미 등을 함께 찾는 기능"이며, 책갈피는 "읽은 곳을 표시해 둘 수 있는 기능"이고, 노트란 "학습 사항을 여백에 적거나 중요한 부분을 표시해 둘 수 있는 기능"이며, 평가란 "해당 단원을 학습한 후 충실히 학습하였는지 평가하는 기능"이다. 김혜정, 임희석. "교사와 학습자를 위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11/2(2013), 35.

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해 외부의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다른 교수자 혹은 학생들과 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연결기능이나 공유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⁶⁾ 이러한 기능들이 시사하는 것은 단지 디지털교과서에서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이 지식적인 내용이거나 운영적 차원에서의 기술이라기 보다는 교과서를 교수자와 학습자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디지털목회에서 사용되어지는 콘텐츠의 포맷과 각각의 프로그램이 교수자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학습자라고 할 수 있는 성도가 상호작용이 용이하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될 때, 실제적으로 디지털을 통한 신앙형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량들을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목회의 목회자는 Roberto가 말하는 5가지 디지털 전략을 활용하여 디지털목회의 적용범위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확장 프로그래밍, 거꾸로 프로그래밍, 온라인 프로그래밍, 멀티-포맷 프로그래밍, 준비-향후 프로그래밍이 있을 수 있다.²⁷⁾

다음으로 디지털목회에 있어서 목회자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가상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회에서 목양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와의 인격적 이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목회운영역량이 필요

26) *Ibid.*, 37.

27) 각각의 전략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확장 프로그래밍(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모이는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일 예배를 집으로 확장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매일성경읽기, 기도하기, 성경공부하기, 신앙적 대화하기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 2. 거꾸로 프로그래밍(우리는 문서, 오디오, 비디오, 그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온라인 학습 공간에서 오프라인에서 배우는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수업 혹은 프로그램을 거꾸로 뒤집을 수가 있다. 그러면 오프라인 모임은 상호작용활동, 토론, 프로젝트 기반 학습, 혹은 행위와 발표 등을 활용한 모임으로 전환한다). 3. 온라인 프로그래밍(우리는 완전한 온라인 신앙형성 경험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사순절 커리큘럼”을 온라인으로 매일 집에서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기도와 매일 성경읽기, 경건의 시간, 사순절 성경공부 자료들, 비디오, 봉사활동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4. 멀티-포맷 프로그래밍(우리는 비디오와 오디오 녹음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멀티포맷을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는 소그룹 혹은 개인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온라인 상호작용과 토론을 운영할 수 있는 온라인 클래스를 사용하라. 이러한 방법은 그동안 고정된 시간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5. 준비-향후 프로그래밍(우리는 온라인 포맷을 운영하여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킬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적절한 콘텐츠(경험, 활동, 비디오/오디오, 자료들)를 가지고 행사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관여시키고, 학습과 성장을 유지·적용하며,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상호작용과 대화를 시행하라). J. Roberto, *Reimagining Faith Formation for the 21st Century*, (Naugatuck, CT: LifeLong Faith Associates, 2015), 접속 2020.5.21. http://www.lifelongfaith.com/uploads/5/1/6/4/5164069/catholic_education_brisbane_masterclass_roberto.pdf. 22-23.

하다. Bailey와 Storch는 블로그를 활용한 온라인 교회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제 진정한 의사소통을 위한 새로운 열정이 여기 있다. 사람들은 개방되어 있고 정직한 대화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한다....일방적 의사소통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말한다.²⁸⁾ 이는 새로운 형태의 목회역량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이다. 즉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회가 성립되었고, 그곳에서는 직접 방문을 통한 심방목회가 목회의 주된 역량이었다. 그러던 것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지역적으로 범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한 심방문화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환경이 조성된 오늘날 교회는 새로운 형태의 목회역량이 요구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특별히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차원적인 신앙콘텐츠의 제공이 이제 효과적인 목회를 위한 필수요건이 되어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디지털목회의 대상이 되는 성도들이 요구하는 실제적인 필요를 잘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면, 그것은 이지현의 연구이다. 이지현은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중심의 피드백 설계를 위한 이론적 탐구에서 피드백이 디지털 학습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에 대해 3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강조한다. 첫째, 디지털 환경 학습에서 사용되어지는 피드백은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는데 사용되어진다. 둘째,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되는 피드백은 교수자나 전문가와의 민주적인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면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피드백이 사용될 때 그 효과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동료학습자로부터 주어지는 피드백은 지식의 사회적 구성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²⁹⁾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디지털목회에서 목회자는 보다 개별적이면서도 관계지향적인 피드백을 성도에게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질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타당성이 구비된 양질의 피드백을 제공할 때 성도의 신앙성숙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White는 영성형성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면서 교사의 역할은 산과 혹은 정원사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적인 삶을 발전 시켜갈 때 성령의 사역을 도와 개인이 영성형성을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디지털목회에 있어서 목회자의 목양역량을 성도의 필요에 즉각적이면서 질 높은 피드백을 통해 실제적인 영적성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디지털목회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Zuck가 바울서신을 연구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정서적이면서도 관계적인 측면으로 개개인을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략들을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³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

28) B. Bailey & T. Storch, *The Blogging Church*, (San Francisco: Jossey-Bass, 2007), xiv.
 29) 이지현.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중심 피드백 설계 원리 및 전략에 대한 이론적 탐색.” *교육공학연구* 29/3(2013), 519-520.

들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다차원적인 목회적 접근이 가능한 목회역량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III. 나오는 말

우리는 어느 때보다 목회가 힘들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특별히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는 포스트휴먼사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때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딥러닝이라는 메커니즘의 발달로 인해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과 기계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즉 기계의 성장과정은 조작할 수 있는 인간이 정작 인간 자신은 누구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모순이 빠지게 되었다. 특별히 종교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더 깊은 차원의 신앙적 영성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시대적 한계를 바라보면서 디지털목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몇 가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목회의 대상이 되는 인간은 단순한 의미에서 시대적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세대적 이해로 단순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정보통신기술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접하고 있는 다양한 세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학습자의 특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특별히 중요한 사실은 포스트휴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습자의 특성들과 그들이 보여주는 학습유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변하지 않는 복음을 끊임없이 변하는 세대 속에 어떤 모양으로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목회리더십의 관심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오늘날 세대가 드러내고 있는 다양한 신앙형성의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목회의 대상이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특별히 무신자의 비율이 50%가 넘게 나타나는 오늘날의 한국사회를 보면서 보다

30) ① 수신자의 이름을 부름, ② 수신자의 복지에 대한 고려를 표현, ③ 수신자와 함께 하고 싶은 바울의 열망을 소개, ④ 일상적인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⑤ 친구에 대한 안부인사, ⑥ 개인적인 권면, ⑦ 집단의 영성진보에 대한 칭찬, ⑧ 수신자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 ⑨ 바울을 위해 기도할 것을 수신자에게 요청, ⑩ 편지를 쓰는 목적을 규정하고 학습자를 위한 목표를 의사소통함, ⑪ 개인적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질문을 사용, ⑫ 조력자를 사용함, ⑬ 동역자를 사용, ⑭ 떨어져 있을 때도 근면할 것을 권면함, ⑮ 내적 동기를 소통함, ⑯ 개인적인 어려움을 표현함, ⑰ 동시대적 묘사를 사용, ⑱ 수신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함, ⑲ 개인적인 묘사를 사용, ⑳ 성령의 능력을 위해 성령께 의존함. R. White, "Promoting Spiritual Formation in Distance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Journal* 3/2(2006), 308-309.

창의적 방법으로 복음을 제시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 주변을 맴돌고 있는 탐색자들과 구도자들을 위하여 교회가 변하지 않는 복음의 콘텐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모색이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다.

■ 참고문헌 ■

- 김혜정, 임희석. “교사와 학습자를 위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11/2(2013), 33-42.
- 이지현.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중심 피드백 설계 원리 및 전략에 대한 이론적 탐색.” 교육공학연구 29/3(2013), 517-540.
- 박휴용. “포스트휴먼 시대 학습자의 존재론적 이해와 학습이론 패러다임의 변화.” 교육방법연구 31/1(2019), 121-145.
- 한춘기. 『기독교교육신학[1]』.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5.
- Bailey, B., & Storch, T. *The Blogging Church*, San Francisco: Jossey-Bass, 2007.
- Barna, George and Kinnaman, David. *Churchless*. Carol Stream, IL: Tyndale, 2014, 접속 2020.5.21. <https://www.barna.org/churchless#.VMdqTcZLzds>
- Bullen, Mark. & Morgan, Tannis. “Digital Learners not Digital Natives.” *La Cuestion Universitaria* 7(2011). 60-68.
- Estes, D. *SimChurch: Being the Church in the Virtual World*,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9.
- Gelfgren, S. “Digital Church and Media-In a Historical and Contemporary Context.” *Masaryk University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6/1(2012), 63-72.
- Gros, B., Garcia, I. and Escofet, A. “Beyond the Net Generation Debate: A Comparison of Digital Learners in Face-to-Face and Virtual Universities.” *The International Review of Research in Open and Distance Learning*, 13.4(2012), 190-210.
- Hess, Mary E. “Digital Storytelling: Empowering Feminist and Womanist Faith Formation with Young Women.” In *Media, Religion, and Gender: Key Issues and New Challenges*, ed. Mia Lovheim, Media, Religion and Culture Series, 169-182. London: Routledge, 2013.

- Kimmons, Royce & Hall, Cassidy. "Emerging Technology Integration Models." In *Emergence and Innovation in Digital Lear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ed. G. Veletsianos, 51-64, Edmonton: Athabasca University Press, 2016.
- Mercadante, Linda. *Belief with Borders: Inside the Minds of the Spiritual but not Religiou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Oblinger, Diana. G. & Oblinger, James. L., Eds. *Educating the Net Generation*. Educause. 접속 2020.5.2. http://www.praxis.or.kr/html/sub3_02.html.
- Prensky, Marc.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On the Horizon* 9.5(2001), 1-6.
- Prensky, Marc. *Digital game-based learning*, New York: McGraw-Hill, 2001.
- Roberto, John. *Faith Formation 2020: Designing the Future of Faith Formation*. Naugatuck, CT: Lifelong Faith Associates. 2010.
- Roberto, John. *Reimagining Faith Formation for the 21st Century*. Naugatuck, CT: LifeLong Faith Associates, 2015, 접속 2020.5.21. http://www.lifelongfaith.com/uploads/5/1/6/4/5164069/catholic_education_brisbane_masterclass_roberto_.pdf
- Root, Andrew. "Faith Formation in a Secular Age." *Word & World* 37.2(2017), 128-141.
- Tapscott, D. *Growing Up Digital: The Rise of the Net Generation*. Toronto: McGraw-Hill, 1998.
- Tapscott, D. *Grown Up Digital: How the Net Generation is Changing Your World*. Toronto: McGraw-Hill, 2009.
- Taylor, Charles. *A Secular Age*.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 Taylor, Mark L. "Generation NeXt comes to college: 2006 updates and emerging issues." In *A collection of papers on self-stud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Vol. 2)*, ed. Susan E. Van Kollenburg, 48-55. Chicago, IL: Higher Learning Commission, 2006.
- Thompson, Penny. "The Digital Natives as Learners: Technology Use Patterns and Approaches to Learning." *Computer & Education* 65(2013), 12-33.
- Veletsianos, George.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Emerging Technologies and Emerging Practice in Distance Education," In *Emergence and Innovation in Digital Lear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ed. G. Veletsianos, 3-16. Edmonton: Athabasca University Press, 2016.
- White, Roger. "Promoting Spiritual Formation in Distance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Journal* 3/2(2006), 303-315.

Wilson, M., & Gerber, L. E. "How generational theory can improve teaching: strategies for working with the Millennials." *Currents in Teaching and Learning* 1/1(2008), 29-44.

논 찬 1

“디지털시대 학습자 이해를 근거한 디지털 목회 리더십 에 대한 성찰”에 대한 논찬

이 은 철 박사

(백석대학교)

연구자는 시대의 발전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시 학습자 이해를 근거하여 디지털목회 리더십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디지털시대 학습자들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첫째, 디지털시대 학습자들의 특징은 속도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둘째, 다중작업을 선호하고, 셋째,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를 선호하고, 넷째,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진행하고, 다섯째, 공동작업과 지속적인 연결성을 선호하고, 여섯째, 읽고 듣는 것보다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선호하고, 일곱째, 일과 놀이를 복합 또는 융합시키고, 여덟째, 자신들의 노력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원하고, 아홉째, 환상적인 상황을 선호하고, 열째, 디지털미디어 기술은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디지털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교수-학습전략은 첫째, 학습자의 필요에 기초하여 디지털 교수-학습을 구상해야 하며, 둘째,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적합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셋째, 디지털학습자가 최신 디지털 기술에 모두 익숙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는 더 나아가 포스트휴먼적 학습환경을 제시한다. 이를 살펴보면, 포스트휴먼적 학습환경 속에서 학습하는 학습자의 특성에 대해 박휴용의 연구를 토대로 6가지를 제시한다. 네트워크적 학습자, 가상학습 환경의 학습자, 모바일적 정체성을 가진 학습자, 사이버그적 학습자, 인간-사물의 상호능동성에 적응하는 학습자, 그리고 학습-예능의 혼성성을 활용하는 학습자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학습의 형

태는 사이버공간의 학습, 바이오로이드적 학습, 그리고 네트워크적 학습이라고 주장한다. 각각의 학습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은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서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면서 이루어지는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교류에 의한 학습”이라는 것이다. 이는 단지 학습의 주체가 변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 보다는 학습 환경이 새로워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습자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는 포스트휴먼적 학습환경을 설명하고, 다양한 신앙형성유형을 제시하고, 디지털 목회와 관련하여 신앙형성 유형 중에 두 가지 부류의 유형들을 디지털 목회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종교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지만 영적인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신앙유형이며, 둘째는 종교집단에 참여는 하지만 물리적인 차원에서 헌신을 머뭇거리면서 자신의 신앙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자는 디지털목회에 있어서 목회자가 가져야 할 역량을 첫째는 디지털 학습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운영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가상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회에서 목양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성도와의 인격적이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의 목회운영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자가 제시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위의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환경에서 그리고 산업사회의 구조와 교육환경 까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목회자의 리더십과 디지털 목회자 리더십을 제안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별히 디지털시대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교수-학습적 지원 방안에 대해 매우 다각적인 정보를 제시한 것은 이 연구의 참다운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앙형성 유형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함께 신앙유형에 따라 디지털 목회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제시하고, 각각의 역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와 함께 제시한 것은 매우 탁월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 연구는 전체적인 구조의 짜임새에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의견 제시 등은 매우 높게 평가한다.

다만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연구자는 디지털시대 학습자들의 특성을 매우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목회자 리더십을 제시할 때, 크게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학습자들의 특성과 교수-학습적 시사점을 접목하여, 디지털 목회자의 역량에 대해 제시한다면 보다 완성도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연구자가 디지털 목회 대상으로 제시한 두 가지 신앙형성 유형은 교회적으로 고려할 때, 건강한 신앙유

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연구자는 디지털목회 대상으로 제시한 두 가지 신앙 유형의 건강성을 분석하고, 이들을 디지털 목회를 통해서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고, 그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추가로 제시한다면 매우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논찬을 정리하면서 위 연구는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목회적 방향의 제시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목회에 대한 다양한 프레임을 구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다양한 정보와 관점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연구라고 평가하며 본 논찬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논 찬 2

“디지털시대 학습자 이해를 근거한 디지털 목회 리더십 에 대한 성찰”에 대한 논찬

남 선 우 박사

(열림교회)

이종민 박사의 연구는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목회자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귀중한 연구라 할 수 있겠다. 연구자는 이를 위해 먼저 다양한 교육학적 이론을 제시하며 디지털 시대의 학습자를 분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근거로 디지털 목회 리더십에 대한 성찰로서 역량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처음으로, 디지털 시대의 학습자 이해하기 위해 “디지털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관점(generation-oriented perspective)”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관점(digital techno-deterministic perspective)”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디지털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관점으로는 Prensky(2001)의 연구를 인용하여 현시대의 학습자를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으로 정의하며 첫째, 속도에 대한 강한 열망, 둘째, 다중작업의 선택, 셋째, 텍스트 보다 이미지 선호, 넷째, 비선형적 정보습득, 다섯째, 공동작업의 선호, 여섯째, 경험을 통한 학습, 일곱째, 일과 놀이의 융합, 여덟째, 즉각적인 피드백, 아홉 번째, 환상적인 상황 선호, 열 번째, 디지털 미디어의 선호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연구를 디지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몇몇 특성들이 생산적인 학습 습관에 의미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연구를 한 Thompson(2013)의 연구와 연결하여 새로운 학습 환경과 학습 구조의 변화가 필요함을 논하였다.

두 번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관점으로는 Bullen과 Morgan(2011)의 연구

를 인용하여 학습자의 특징을 특정한 세대적 구분을 뛰어 넘어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학습자로 분석하고 이를 교수-학습 전략으로서 첫째, 교수자는 학습자의 필요에 기초한 디지털 교수-학습을 구상해야 하고, 둘째, 교수자는 학습에 적합한 디지털 정보통신기술과 기술들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교수자는 학습자가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할 것이라는 단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논하였다.

연구자는 앞선 두 가지 관점을 종합하여 디지털 학습자에 대한 이해는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세대간 특징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심층적으로 볼 때 세대를 뛰어넘어 디지털 정보통신기술과 기기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하여 학습자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이와 같은 주장에 덧붙여 박휴용(2019)의 포스트휴머니즘을 차용하여 디지털 학습자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와 분석을 시도하여 디지털 시대의 학습자를 단지 학습의 주체가 변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학습 환경이 새로워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며, 학습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습자 또한 다양하게 변화되어야 함을 논하며 디지털 목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디지털 목회 필요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복음이 변해서가 아닌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인간의 학습 환경이 변했기에 효과적인 신앙형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의 필요성으로 논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목회 리더십에 대한 성찰을 위해 디지털목회를 위한 신앙형성 모델과 목회자의 역량을 제시하였다. 먼저 디지털 목회 리더십에 대한 성찰을 위해 Barna와 Kinnaman(2014)와 Roberto(2010)의 연구를 인용하여 세대별 교회 출석을 분석과 신앙 형태를 분석하여 세대가 젊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형성에 관심을 두지 않음을 논하며, Mercadante(2014)의 연구의 신앙형성 경향을 차용하여 디지털 목회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을 “하나의 부류는 종교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지만 영적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신앙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과 “종교집단에 참여는 하지만 물리적인 차원에서 헌신을 머뭇거리면서 자신의 신앙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았다.

둘째, 디지털 목회를 위한 목회자의 역할을 제시하며 디지털 목회에 있어서 목회자의 역량을 제시하였다. 주요 역량으로는 첫째, 디지털 학습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운영 역량, 둘째, 성도와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 및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목회 운영역량을 제시하며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지금까지 연구자의 연구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는 앞서 논찬자 밝혔듯이 4차 산업혁명시대 속에서 목회를 해야 하는 많은 목회자에게 귀중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연구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학습자 분석을 위해 학문의 경계를 뛰어 넘어 다양한 이론을 깊이 성찰하고 융합을 통해 새로운 논리적 접근을 시도 한 것과 더불어 단순히 디지털 환경이 구성되면 모든 것이 잘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닌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교수-학습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한 부분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나은 연구가 되기 위하여 연구자에 몇 가지 질문 및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논찬자의 입장에서 본 연구의 가장 귀중한 공헌은 디지털 시대의 목회자 역할이자 역량 분석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연구자가 제시한 목회자의 역량 중 첫 번째인 “디지털 학습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운영역량”을 설명함에 있어서 페다고지와 교수-학습 모델의 필요성,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의 주요 기능 및 갖춰야 할 기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논찬자의 생각으로는 맥락성에서 조금 이탈한 것이 아닌지 사료된다. 디지털 목회에 있어서 기술운영역량과 페다고지와 교수-학습 모델,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의 주요 기능과 디지털 교과서가 갖춰야 할 주요 기능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자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연구자께서 제시하신 디지털 목회자의 두 번째 역량인 “성도와의 인격적이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목회운영 역량”을 설명하면서 피드백을 제시했다. 이는 연구자가 앞서 분석한 디지털시대의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방법을 함께 제시해 준다면 좀더 좋은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제 7 발표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¹⁾

이 승 진 박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I. 들어가는 말

인류의 역사는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communication through media)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변 세계와의 의사소통(또는 소통, communication)을 추구해왔으며,²⁾ 지식과 정보를 소통함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부를 축적해 왔다. 인류 문명이 원시적인 수렵 시대로부터 농경시대와 산업화시대를 거쳐 지식정보화 시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소통을 매개하는 미디어 역시 비약적인 발전을 거쳐 왔다.

미디어 발전의 역사는 구술이나 이미지, 또는 문자에 의존하던 전 미디어 시대(pre-media age)와 인쇄 활자와 TV나 라디오와 같은 전자매체를 사용하던 미디어 시대(media age), 그리고 무선 인터넷으로 기존의 모든 미디어가 융합된 하이미디어 시

1)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4299).

1) Mitchell Stephens, 이광재, 이인희 역 『뉴스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2.

2) 연구자는 의사소통(意思疏通, communication)을 줄여서 '소통'(疏通)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 한다. communication은 사람들 사이에 생각이나 사상, 언어, Text, 감정이나 정서, 그리고 의지까지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교류와 소통을 의미하는 반면에, '의사소통'은 communication을 통해서 사람들끼리 교류하고 상호작용하는 내용을 주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뜻이나 생각에 국한하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이다.

대(high media age)로 구분된다.³⁾ 2천년대 들어서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무선 인터넷 기술은 그 이전에 사용된 모든 미디어들을 전방위적으로 융합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소통을 위한 모든 미디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소통 현장에서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 사라지고 전 인류가 뉴미디어 생태계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전지구적 규모의 의사소통 네트워크(global communication network)를 형성하고 있다.⁴⁾

| | pre-media age | | | media age | | | high media age |
|--------|---------------|------|------|-----------|------|------|--------------------------------------|
| | 구술시대 | 형상시대 | 문자시대 | 활자시대 | 청각시대 | 영상시대 | 융합시대 |
| 구어 | ○ | | | | | | media convergence 미디어 융합 시대 |
| 그림 | ○ | ○ | | | | | |
| 문자 | ○ | ○ | ○ | | | | |
| 인쇄물 | ○ | ○ | ○ | ○ | | | |
| 라디오/전화 | ○ | ○ | ○ | ○ | ○ | | |
| TV | ○ | ○ | ○ | ○ | ○ | ○ | |
| 인터넷 | ○ | ○ | ○ | ○ | ○ | ○ | ○ |

융복합 미디어를 통한 소통의 시대는 필연적으로 현대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조.중.동.과 같은 거대신문사들이나 방송3사(KBS와 MBC, SBS)나 언론사들은 한국사회에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⁵⁾ 예전의 한국인들이 정보 소통을 위하여 기존의 언론사에 높은 신뢰도를 부여하였다면 오늘날에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인터넷 포털사의 언론에 더 많은 의존도를 보인다. 강내원에 의하면 신문과 인터넷 뉴스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높을수록 TV 방송국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⁶⁾

이렇게 융복합 하이미디어 또는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한국의 기독교 목회자들과 신자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인터넷과 모바일 휴대폰이 추구하는 인류의 행복, 또는 인간 능력이 극대화된 가상현실의 세계는 보

3) I. Fang, *A History of Mass Communication: Six Information Revolutions*, 심길중 역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역사: 6단계 정보혁명』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2).

4) 위의 도표는 다음을 참고하라. Cf., 김문조, 『융합사회의 소통양식 변화와 사회진화 방향 연구』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37.

5) 김영주, “신문산업의 위기와 사업다각화: 신문사의 뉴미디어 사업 진출 현황과 의미”, 『관훈저널』 95 (2005,6):11-20. 송종길, “매체별 신뢰도의 유사성 및 차별성 분석 연구: 기자와 수용자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2 (2007,4): 180-202.

6) 강내원, “시민의 매체 이용과 언론사에 대한 신뢰: 매체별 이용패턴에 따른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0/3 (2010,9):5-46.

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달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반대로 어떤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가? 뉴미디어 생태계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한국 교회가 선포하고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뉴미디어 생태계가 주도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기독교 목회자들과 신자들은 교회 안팎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독교 복음을 소통하고 확산해야 할 것인가?

II. 선행연구와 연구방법론

최근에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국내 신학자들의 연구가 시작되고 있지만 필자의 판단에 의하면 뉴미디어 생태계의 변동에 따른 현대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기독교적인 의사소통의 전략이나 효과적인 설교의 전달에 관한 연구는 다소 미진한 상황이다.

먼저 문영빈은 “정보미디어시대의 종교학의 새 지평”(2008)에서 정보미디어 시대가 구텐베르크의 매체혁명을 능가하는 전대미문의 미디어빅뱅(Media Big Bang)의 시대를 열었음을 설명한다.⁷⁾ 그는 또한 디지털테크놀로지의 혁명이 종교경험에서 매체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매체의 근원적 종교성에 관한 새로운 질문을 제시하고 있음을 직시하면서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의 시스템이론을 응용하여 매체학과 인지과학, 시스템학을 창조적으로 융합한 메타방법적 틀로 매체종교학과 인지종교학, 그리고 시스템종교학을 제시한다.⁸⁾ 문영빈의 연구는 뉴미디어 생태계의 등장으로 인한 종교학의 새로운 과제를 거시적이고 통전적인 프레임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연구 주제의 성격과 범위 때문에 뉴미디어 생태계 안에서의 기독교적인 의사소통이나 설교의 효과적인 전략은 다루지 않았다.

윤영훈은 “복음주의 운동의 대중적 문화 미디어 필그림”(2010)에서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주요 발자취를 추적하면서 복음주의 기독교와 매스미디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⁹⁾ 윤영훈에 의하면 그동안 복음주의 기독교는 언제나 미디어 기술을 적극 활

7) 문영빈, “정보미디어시대의 종교학의 새 지평: 매체학, 인지과학, 시스템이론의 창조적 융합”, 『종교연구』 52 (2008, 09): 191-228. 문영빈은 이후에도 “뉴미디어, 종교체험, 예배: 가상체험의 매체신학적 조명”(2010)에서 뉴미디어를 통한 가상세계에서의 종교적 체험의 속성을 “계시적 가상체험”으로 설명한다. 문영빈, “뉴미디어, 종교체험, 예배: 가상체험의 매체신학적 조명”, 『기독교교육정보』 25 (2010, 4):227-260.

8) Cf., Niklas Luhmann, *The Reality of the Mass Media*, trans. Kathleen Cross,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2000).

9) 윤영훈, “복음주의 운동의 대중적 문화 미디어 필그림”,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8/1 (2010, 4):81-105. Cf., Quentin J. Schultze, *American Evangelicals and the Mass Media* (Grand Rapids: Zondervan, 1990), 24.

용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뉴미디어 생태계의 도래로 말미암아 신선하고 설득력 있는 문화 콘텐츠의 예술성과 창작능력, 그리고 미디어 문화에 대한 보다 성숙한 비평 능력과 의식의 고양을 제안하였다.

김명찬은 “새로운 모바일 디지털시대의 변화에 대한 예배의 세대별 대응 모색”(2010)에서 뉴미디어 시대를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로 규정하고 새로운 모바일 디지털(SNS) 시대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독교 예배의 세대별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¹⁰⁾ 김명찬에 의하면, 20대 이하 디지털문화에 노출된 세대에게는 컨버전스 예배나 이머징 예배 양식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김명찬은 찬양과 영상 중심의 감성 세대인 30-40대에게는 콘서트 예배와 멀티미디어 예배, 그리고 구도자 예배나 열린 예배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연구 주제의 성격과 범위 때문에 뉴미디어 생태계가 구성하는 가상현실과 이를 극복할 기독교적인 의사소통과 설교의 전략은 다루지 않았다.

고원석은 “현대 미디어철학의 관점과 기독교교육의 과제”(2011)에서 발터 벤야민(W. Benjamin)과 마셜 맥루언(M. McLuhan), 빌렘 플루서(V. Flusser), 권터 안더스(G. Anders), 그리고 니일 포스트먼(N. Postman)과 같은 미디어 생태학자들의 통찰에 근거하여 뉴미디어 생태계의 속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현대 기독교교육의 과제로서 가상현실에서 뛰놀기와 가능성의 감각, 그리고 미디어 숭배의 성찰을 연구하였다.¹¹⁾ 고원석은 뉴미디어 시대에 한국교회가 학습자의 일상적인 리얼리티를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미디어 상상력의 중요성과 아울러 기독교 내러티브와 드라마를 결합한 비블리오드라마(Bibliodrama)를 제안하였다. 고원석의 논문은 현대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함과 동시에 기독교 교육의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주제의 성격과 범위 때문에 기독교적인 의사소통과 설교의 효과적인 전략은 직접 다루지 않았다.

이주아도 “한국 청소년의 위기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 모색: 모바일 미디어를 중심으로”(2012)에서 현대 청소년 문화를 지배하는 모바일 미디어를 기독교 청소년 교육 현장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하였다.¹²⁾ 하지만 모바일 미디어에 대한 미디어 생태학

10) 김명찬, “새로운 모바일(소셜네트워크서비스) 디지털시대의 변화에 대한 예배의 세대별 대응 모색”, 『신학과 실천』 24 (2010,09): 337-365. Cf., Rich Ling, 배진환 역, *How Mobile Communication is Reshaping Social Cohesion*, 『모바일 미디어와 새로운 인간관계 네트워크의 출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11) 고원석, “현대 미디어철학의 관점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장신논단』 41 (2011, 7):289-314. Cf., W. Benjamin, 최성만 역 『발터 벤야민 선집2』 (서울: 도서출판 길, 2009), 44; V. Flusser, 김성재 역 『피상성 예찬: 매체 현상학을 위하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290-91; N. Postman, *Technopoly*, 김균 역 『테크노폴리: 기술에 정복당한 오늘의 문화』 (서울: 궁리출판, 2009),33.

적인 분석이나 기독교 설교 소통 전략은 다루지 않았다.

최근에 민장배는 “미디어를 통한 신앙 교육 활성화 방안”(2016)에서 한국교회가 교육 현장에서 멀티미디어를 적극 활용할 방안으로 홈페이지와 사이버 강의, 블로그와 유튜브,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신앙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¹³⁾

이승진은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설교 생태계의 변화”(2013)에서 현대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21C 한국사회 내의 기독교 메시지의 소통과 확산에 심각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첫째로 한국교회 안팎으로 설교 메시지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그 결과 설교 메시지에 행동-가치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으며, 설교자의 인격적인 진정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설교 메시지의 다양한 편향성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¹⁴⁾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는 기독교적인 의사소통과 설교의 전략은 후속연구로 남겼다. 본 논문은 이 분야의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응답하려는 한 가지 시도이다.

최근에 조성호는 “현대 멀티미디어 문화의 특성과 기독교 영성의 상관관계 연구”(2015)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대 멀티미디어 문화가 기독교 신학과 영성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미디어 문화와 기독교 영성의 상관관계를 과거지향적인 연역법의 접근방식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귀납법을 요청하는 것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였다.¹⁵⁾ 조성호의 연구는 맥루언과 월터 옹(Walter Ong)의 미디어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에 근거하여 미디어 문화와 종교의 관계, 미디어 문화와 기독교 영성의 관계, 그리고 미디어 문화와 영성의 변화를 깊이 있게 분석하였고, 현대 멀티미디어 문화에 대하여 기독교가 자발적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귀납법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연구 주제의 성격과 범위 때문에 기독교적인 의사소통과 설교에 실천적인 전략은 다루지 않았다.

최근에 김병석은 “인공지능시대, 예배 공동체 설교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2016)에서 인공지능(AI)이 현대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인공

12) 이주아, “한국 청소년의 위기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 모색”,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3 (2012.10): 351-375.

13) 민장배, “미디어를 통한 신앙 교육 활성화 방안” 『신학과 실천』 48 (2016, 02):495-518.

14) 이승진,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설교 생태계의 변화”, 『복음과 실천신학』 27(2013년): 301-334; Harold Innis, *Empire and Communication* (Toronto: Dundurn Press, 2007), 7; Alexander John Watson, *Marginal Man: The Dark Vision of Harold Innis* (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2006), 313; Neil Postman, *Amusing Ourselves to Death: Public Discourse in the Age of Show Business*, 정탁영 공역, 『죽도록 즐기기』 (서울: 참미디어, 1997), 20,44.

15) 조성호, “현대 멀티미디어 문화의 특성과 기독교 영성의 상관관계 연구”, 『신학과 실천』 46 (2015, 9):385-412.

지능 로봇은 성경 내용에 대한 분석과 회중의 상황과 필요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기독교 설교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며 예배 공동체 설교의 자리를 기도를 통한 딥 스피릿(Deep spirit)의 영역 안에서 확보할 것을 요청하였다.¹⁶⁾ 김병석의 논문은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를 계기로 한국사회에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비등한 상황에서 인공지능기술을 기독교 목회자들의 핵심적인 역할인 예배와 설교 사역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상과 같이 여러 신학자들이 최근 한국사회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과 이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에 미치는 과장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 생태계의 변동이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과 그 속에서의 효과적인 설교 전략에 관한 연구는 좀 더 깊이 있는 수준으로 진척되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이런 연구 과제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뉴미디어 생태계의 변동이 기독교적인 의사소통의 환경에 미친 영향과 그러한 환경 속에서의 기독교 설교의 효과적인 전략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리차드 오스머(Richard Osmer)가 제시하는 이론신학과 목회 현장의 실천을 통합하는 4단계 실천신학의 연구방법론을 활용할 것이다.¹⁷⁾ 리차드 오스머가 제시하는 실천신학의 연구방법론은 서술과 분석, 규범, 그리고 전략의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서술 단계는 ‘오늘날 현대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적인 의사소통의 환경을 감싸고 있는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필자는 21세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뉴미디어 생태계의 실상과 뉴미디어 생태계가 매개하는 가상현실과 사이버스페이스, 그리고 매개된 현실의 파급력에 대해서 서술할 것이다.

이어서 둘째 분석 단계는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기독교적인 의사소통의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러한 영향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 둘째 단계에서는 뉴미디어로 매개되는 사이버스페이스와 가상현실, 그리고 시뮬라크르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상현실 속에서의 아우라의 상실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소통 양식에 미친 영향으로 사회적인 권위 구조의 쇠퇴와 양극화의 심화, 영적인 설득력 구조의 붕괴, 인식론적인 경계선의 상실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다.

16) 김병석, “인공지능(AI) 시대, 예배 공동체 설교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신학과 실천」 49 (2016, 5):159-184.

17) Richard Osmer,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김현애, 김정형 공역,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과제』 (서울:WPA, 2012), 27-59. 한재동, “통합과 귀납의 패러다임, 실천신학의 실천신학적 이해”, 「신학과 실천」 제 35호 (2013, 05):64.

셋째 규범 단계는 앞서 확인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신학적인 규범을 확립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기독교적인 복음의 확산과 소통을 위한 매체의 중요성을 신학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기독교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뉴미디어의 가상현실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계승할 수 있는 신학적인 규범과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마지막 전략 단계는, ‘그러면 우리 설교자들은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뉴미디어의 부정적인 파장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소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하는 단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첫째와 둘째 단계의 뉴미디어 생태계 현상에 관한 서술과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할 것이고, 다음의 후속 논문에서는 앞의 논문에서 제시된 이론적인 기초 위에서 기독교적인 의사소통과 설교의 소통에 관한 신학적인 규범을 마련하고 그 규범을 실천할 기독교적인 의사소통과 설교의 실천적인 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III.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생태학적인 분석

1. 뉴미디어 생태계의 등장

최근 한국사회는 비약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덕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2015년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지수’에서 조사대상 167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을 1위로 선정하였다.¹⁸⁾ ‘ICT 발전지수’는 ITU가 각 나라 국민들의 ICT 접근성과 ICT 이용도, 그리고 ICT 활용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국가별 ICT 발전 정도를 평가한 것이다. 한국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지만, 2014년에는 덴마크에게 1위를 내주었다가 2015년에 다시 1위를 재탈환하였다. 한국은 세 가지 부문별 순위에서 ICT 접근성은 9위를, ICT 이용도는 4위를, 그리고 ICT 활용능력은 2위를 차지하였으며, 이 세 가지 범주를 종합한 ICT 발전지수는 종합 1위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정보통신기술력 덕분에 오늘날 무선 인터넷은 현대인들에게 공기과 같은 필수재로 정착되었고, 인터넷이 모든 사물들 속에 내재하는 사물 인터넷(IoT)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인터넷은 현대인의 가시권에서 완전히 사라질 단계를 앞두고 있다.¹⁹⁾ 2014년 스위스에서 열

18) “세계 최고 수준의 ICT 환경을 토대로 지능정보사회 조기구현”, 「미래창조과학부」(2016년 11월 22일 보도자료),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 2년 연속 1위”, <국가지표체계-ITU ICT 발전지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44.

린 다보스 포럼에서 구글의 CEO인 에릭 슈미트는 ‘인터넷은 사라질 것’이라고 선언해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에릭 슈미트의 주장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 시대가 도래하면 무선 인터넷 기술이 현대인이 사용하는 모든 사물들 속에 전자 신경망처럼 장착되어, 마치 공기나 전기처럼 일상생활 속에 너무나도 깊숙이 스며들어서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듯이, 인터넷도 일상품화(Commoditization)하여 그 존재감을 현대인들이 더 이상 의식하기 어려워질 것을 예견한 것이다.²⁰⁾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력은 어떤 방식으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을 구성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CPND로 집약된다. 정법근에 의하면 현대의 미디어는 콘텐츠(Contents)와,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그리고 디바이스(Device)의 네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현대인들 모두를 무한대의 의사소통을 위한 생태계의 환경을 형성한다.²¹⁾ 달리 말하자면 현대인은 CPND 환경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소통하면서 살고 있다. 권혁인과 나운빈에 의하면, CPND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부 구축 과정에서 파생된 개념으로써 “플랫폼을 기본 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프라(네트워크)를 통하여 콘텐츠와 소비자의 디바이스 사이의 원활한 소통과 유통 거래를 추구하는 가치사슬체계”라고 한다.²²⁾

CPND의 네 가지 요소 중에 첫째 요소인 콘텐츠(contents)는 미디어를 통해서 유통되는 모든 정보 자료들로서 텍스트와, 이미지, 뉴스, 웹페이지, 음원, 동영상, e-book 등등이 해당된다. 둘째로 플랫폼(platform)은 좁은 의미로는 온라인 상에서 콘텐츠를 제공, 유통하는 기술적인 기반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를 가리키기도 하고, 좀 더 넓은 의미로는 다음(daum)이나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톡처럼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사업체나 그러한 사업체가 제공하는 콘텐츠 저장소를 가리키기도 한다. 셋째 네트워크는 콘텐츠를 공급, 유통하는 플랫폼(저장소)을 소비자들과 연결시켜주는 통신사(SK telecom, KT, LG U+)들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디바이스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고 소비하는 각종 전자기기들(컴퓨터, 모바일 휴대폰 기기, 단말기)을 가리킨다. 이상의 네 가지 미디어 요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시공간의 장벽이 사라지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의사소통

19) 이성우, “새로운 산업혁명과 국제정치질서의 전망”, 『국제정치논총』 57/1 (2017,03) :313-346.
Klaus Schwab, 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바흐의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 현재, 2016);
Jeremy Rifki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안진환 역, 『3차 산업혁명: 수평적 권력은 에너지 경제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민음사, 2012).

20) 정법근, “사물인터넷 시대의 C-P-N-D 생태계 동향”, 『정보통신방송정책』 27권/3호 No 594 (2015,2):29-30.

21) 최창현, “C-P-N-D 생태계와 ICC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3 (2014): 7-16.

22) 권혁인, 나운빈, “CPND 생태계 관점의 전자책 시장 활성화 요인 연구: 출판사 실무자 AHP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3/4 (2015,4): 51-59.

네트워크로 연결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융복합의 의사소통 연결망은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이 질문에 응답하려는 학문적인 시도가 미디어 생태학이다. 미디어 생태학(media ecology)은 다양한 미디어들이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체 과정을 생태계(ecosystem)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다. 미디어 생태계(media ecosystem)는 전통적인 생물학적인 개념의 생태계와 유사성을 공유하면서도, 의사소통하는 인간과 소통을 위한 미디어,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사이의 소통 작용을 위한 일정한 체계를 의미한다.²³⁾ 미디어를 활용하여 소통하는 현대인들의 소통 전반의 환경을 거시적이고 입체적인 생태계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 미디어 생태학이다. 그래서 이동후에 의하면, 미디어 생태학은 현대인들의 소통 과정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CPND 전체를 소통의 환경으로 이해하고자 현대인들이 소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미디어 기술과 현대인들의 공생적인 상호관계를 고찰하는 학문이다.²⁴⁾

미디어 생태학(media ecology)이란 용어가 학문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계기는, 닐 포스트만이 1968년에 뉴욕대학교에 박사과정 프로그램으로 개설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²⁵⁾ 하지만 이전부터 마샬 맥루언이나 그 이후 자크 엘룰(Jacques Ellul), 해럴드 이니스(Harold A. Innis), 루이스 뎀포드(Lewis Mumford), 월터 옹(Walter Ong)과 같은 여러 학자들도 미디어 생태학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1960년대부터 전자 미디어가 현대인들과 현대 문명에 미칠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과장에 관하여 비평적인 탐구를 시작하였다.²⁶⁾

최근 10-20년 어간에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는 뉴미디어 생태계는 현대인의 삶을 철저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²⁷⁾ 미디어 생태학자들이 뉴미디어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뉴미디어는 새로운 시공간(사이버스페이스)과 새로운 세계(가상현실)를 만들어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모바일인터넷이 결합된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new media ecosystem) 환경은 현대인들에게 이전과 다른 시공간을 제시하며, 이전의 물리적인 시공간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와의 만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서 새로운 현실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

23) Casey Man Kong Lum, 이동후 역, 『미디어 생태학 사상』 (서울: 한나래출판사, 2008), 48-92; 김유석, “미디어 생태계의 평형상태를 위하여: 분해자로서의 소비자를 위하여”,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8,4):3-18.

24) 이동후, “뉴미디어의 이해: 미디어 생태학의 지적 실천과 함의”, 「한국방송학보」 29/5 (2015):32-66.

25) Casey Man Kong Lum, 『미디어 생태학 사상』, 51ff.

26) Casey Man Kong Lum, 51ff.

27) 김성도, 『호모 모빌리쿠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21-22, 381.

2. 가상공간 속의 가상현실

미디어(media, 매체)의 어원은 ‘중재하다’나, ‘중간에 있다’, ‘가르다’, 혹은 ‘나누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mediare’에서 유래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태고 이래로 항상 뉴스와 소식을 빨리 듣기를 원한다.²⁸⁾ 예전에는 세상 돌아가는 뉴스나 중요한 정보는 항상 물리적인 시공간의 현실세계로부터 직접 얻었다. 하지만 CPND의 뉴미디어 생태계가 조성된 오늘날에 현대인들은 모든 뉴스나 정보를 뉴미디어가 만들어낸 사이버스페이스 속에서 얻는다. 21세기에 뉴미디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CPND 정보통신 기술력 덕분에 현대인들은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속에서 무한대 분량의 뉴스와 정보 콘텐츠를 빛의 속도로 공급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미디어가 독립적으로 정보나 뉴스만을 전달하지 않고 소통 과정에서 그 이상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디어 생태학자들은 현대의 뉴미디어가 뉴스나 정보 콘텐츠를 빛의 속도로 전달하여 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의 변화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주목한다.

20세기 중반에 이전 문명사에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전자 미디어들(라디오, TV)이 등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셜 맥루언은 ‘미디어가 메시지다’이며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라는 혁신적인 명제를 제시하였다. 라디오나 TV가 등장하기 이전에 미디어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라디오와 TV, 그리고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들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미디어를 통해서 메시지 수용자가 전에 제공받지 않았던 전혀 다른 메시지들을 함께 전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구의 근대화 이전의 뉴스들은 수용자와 완전히 분리된 세상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 주었을 뿐, 두 세상을 하나의 세상으로 관계맺도록 연결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TV나 SNS를 통한 뉴스는 뉴스가 발생한 시공의 상황과 뉴스를 전달 받는 수용자의 시공 상황을 하나의 세상으로 연결하고 결합한다.

대표적인 미디어 학자인 마셜 맥루언은 이러한 변화를 미디어 생태학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그에 의하면 문자가 인간의 인지구조에 미친 영향은 선형적 사고라고 한다.²⁹⁾ 하지만 20세기 초 전자혁명의 도래로부터 시작된 전자시대(electronic age), 또는 입체적인 시청각 미디어가 지배하는 뉴미디어는 정보 전달의 입체감과 즉

28) Mitchell Stephens에 의하면 1702년 영국 윌리엄 왕의 사망 소식이 미 본토에 전해지는데 2개월 9일이 걸렸고, 1800년 조지 워싱턴 사망 소식이 미 북부 지역에 전달되는 데는 3주일이 걸린 반면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소식은 사건 발생 30분 내에 전 미국인의 70%가 알게 됐다. Mitchell Stephens, 이광재, 이인희 역, 『뉴스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314.

29) Marshal McLuhan, 『미디어의 이해』, 138-39.

흥성, 그리고 현존성을 전달한다. 이런 배경 때문에 마셜 맥루언은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 미디어는 ‘인간 감각의 확장’, 또는 ‘인간의 소통 감각(능력)의 확장’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셜 맥루언은 현대 미디어를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의 도구로만 국한하지 않고 현대의 모든 기술문명 전체를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의복은 피부의 확장이고, (자동차와 기차의) 바퀴는 발의 확장, 책자나 신문은 인간의 눈을 통한 소통 능력의 확장, 라디오는 귀의 확장, 전기회로는 인간의 중추신경 체계의 확장이다. 뿐만 아니라 전깃불은 밤에도 낮처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소통) 시간의 확장이고,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는 인간 기억력의 확장이고, 인터넷은 사람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소통 공간(communication space)을 확장하고 새로운 소통 관계를 형성한다.

현대의 뉴미디어 생태계가 만들어낸 사이버스페이스(또는 가상공간)과 그 속에 형성된 소통 공간의 위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 또는 가상공간)는 인공두뇌학(cybernetics)을 의미하는 사이버(cyber)와 공간을 의미하는 스페이스(space)의 합성어로서 물리적인 시공간으로 구성된 현실 세계가 아니라 컴퓨터 미디어나 인터넷 미디어가 매개하여 사람의 두뇌 속에서 지각할 수 있도록 구성된 또 다른 공간(또는 세상)을 의미한다.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라는 용어는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이 1982년에 발표한 소설 『뉴로맨서』(*Newromancer*)에서 처음 등장하였다.³⁰⁾ 깁슨의 사이버스페이스는 컴퓨터 시스템 속에서 특정한 좌표값을 갖는 매트릭스(matrix, 모체 또는 기반)를 가리키며, 컴퓨터 사용자는 실제 현실 세계 속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육체가 특정 시공간의 한계로부터 벗어나 컴퓨터 매트릭스 속으로 몰입되고 포획되어 그 속에서도 물리적인 시공간의 생태계 환경에서처럼 자유로운 인식활동을 향유할 수 있다. 현실 세계 속에서 육체는 일정한 시공간의 좌표에 속박되어 있지만, 수 많은 컴퓨터로 연결된 네트워크와 상대하는 정신은 그 네트워크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자유롭게 사고하며 그 매트릭스 속에 존재하는 대상들과 의사소통을 진행하거나 교감을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깁슨이 1982년에 과학소설(SF, scientific fiction) 『뉴로맨서』(*Newromancer*)를 통해서 세상에 소개한 사이버스페이스는 그로부터 채 20년도 되지 못하여 전 세계인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바뀌었다. 그리고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창립자인 존 페리 발로우(John Perry Barlow)는 1996년에 최초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네티즌들의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을 발표하였다.³¹⁾ 이 선언문에서 존 페리 발로우는 기존의 물리

30) William Gibson, *Newromancer*, 김창규 역 『뉴로맨서』 (서울: 황금가지, 2005).

31) 전문 참조(<https://www.eff.org/cyberspace-independence>).

적인 시공 환경 속에 위치한 일반 사회와 철저한 단절을 선언하고 기존 사회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면서 뉴미디어 생태계를 통해서 형성된 가상공간 속에서 인간의 완전한 자유와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³²⁾

뉴미디어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된 사이버스페이스(가상공간)는 컴퓨터나 무선 인터넷을 매개로 형성된 공간(CMS, computer mediated-space)이고 핵심 기능이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가상공간은 곧 소통 공간(communication space)이다. 컴퓨터와 모바일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축된 사이버스페이스는 인류에게 제 3의 새로운 시공간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이 물리적인 현실 세계와의 전인격적인 접촉이 없이도 그 속에서 의사소통과 교감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가리켜서 가상공간(virtual space)이나, 인공환경(artificial environment)이라고 부르고, 그 속에서 접촉하는 상호작용의 대상을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또는 인공현실(artificial reality)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뉴미디어 생태계가 만들어낸 사이버스페이스(가상공간)는 뉴스와 정보 콘텐츠들을 빛의 속도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였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CPND로 형성된 뉴미디어 생태계가 만들어내는 가상공간(virtual space)의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현대인들이 가상공간 속의 가상현실과 상호작용하며 교감하는 과정이나 방식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3. 가상현실 속에서 매개된 상호작용

우리 인간은 타자와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나누며 교감을 나누려면 그 양자의 중간에 미디어를 이용한다. 우리 인간은 중간의 미디어(매체)가 없이는 결코 타자나 사회, 그리고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도 없고 의사소통을 나눌 수 없다. 소리를 듣더라도 음파의 진동을 전달할 공기 매질이 필요하고, 소통을 위해서도 중간에 소통 매체가 활용된다. 그런데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1세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정보통신 기술과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은 뉴미디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CPND를 통해서 소통하고, 뉴미디어 생태계가 형성하는 가상공간 속에 존재하는 가상현실과 소통한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물리적인 시공 환경 속의 실제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과는 매우 차별화된 방식으로 가상공간 속의 가상현실과 의사소통을 나누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interaction)하는 방식의 독특성은 과연 무엇일까? 미국의 미디어 학자인 존 톰슨(John Thompson)에 의

32) 이연호, 조화순, 『가상현실 내에서의 사회구조의 형성과 변화』 (서울: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16.

하면 현대의 매스 미디어의 독특성은 세 가지 유형의 상호작용들의 구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³³⁾ 첫째는 사람들이 소통 대상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진행하는 면대면 상호작용(face-to-face interaction)이다. 면대면 상호작용의 소통에서는 눈에 보이며 귀에 들리는 대상으로부터 전달받는 의미가 전부이다.

그런데 편지나 전보, 또는 전화기가 등장하면서 면대면 상호작용과 전혀 다른 방식의 소통이 일어난다. 전화(나 최근의 문자)를 통한 소통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통이지만, 풍부한 소통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면대면 상호작용과 다르다. 매체를 통한 상호작용은 면대면 상호작용과 달리 매체를 통해서 전달 가능한 특정 정보나 사실들만 전달되며, 소통 방식도 매체에 의존하는 매개된 상호작용(mediated interaction)으로 진행된다.

존 톰슨이 주목하는 세번째 상호작용은 신문이나 TV, 또는 비디오와 같은 매스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관계이다. 오늘날 개인들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타인과 상호작용의 소통에 참가하지만, 세번째 상호작용은 이전의 두 가지 상호작용과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이전의 두 상호작용이 대화의 차원을 가진 인격적인 상호작용이라면, 매스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개인이 매스 미디어를 상대로 독백을 하거나 독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존 톰슨은 이를 가리켜서 ‘매개된 의사-상호작용’(mediated quasi-interaction)이라고 부른다.³⁴⁾

현대인들이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나 직접 가보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 혹은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 마치 당사자의 시각으로 말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실시간 사건을 보도하는 TV 방송이나 무선 인터넷을 통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 속에 형성된 가상공간 속에서 가상현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파급력 있는 정보 콘텐츠를 얻었기 때문이다.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 속에서 소통하는 현대인들은 물리적인 시공 환경 속의 현실 세계와 직접 소통하지 않고 뉴미디어 네트워킹을 통해서 매개된 현실과 소통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존 톰슨이 주목하는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이다.

이런 이유로 미첼 스티븐슨(Mitchell Stephens)에 의하면, 현대의 뉴미디어 생태계가 만들어낸 가상공간과 그 속의 가상세계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매개된 현실 세계’(mediated reality)에 살고 있다고 한다.³⁵⁾ 매개된 현실 세계는 물리적인 시공으로 구성된 현실 세계와 전혀 다르다.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서는 인간의 능력이나 욕망이

33) Anthony Giddens, *Sociology*, 김미숙 공역 『현대 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1992), 380-382.

34) Anthony Giddens, 『현대 사회학』, 381.

35) Mitchell Stephens, 이광재, 이인희 역 『뉴스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429; 이기상, “현상과 미디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존재론 연구』 30 (2012): 1-34.

일정 수준 제약을 받는 세계인 반면에 가상공간 속에서는 인간의 욕망이나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무한대의 세상이다. 물론 인터넷에 실명제를 도입하여 가상공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실명제와 익명성 보장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은 쉽게 마련될 수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인터넷이 만들어낸 가상공간 속에서 실명제와 익명성 보장 사이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긴장이 형성되는 이유는 물리적인 시공간의 면대면 상호작용과 가상공간의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시공간의 면대면 상호작용의 주체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개인 인격체라면, 가상공간의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의 소통을 나누는 주체는 ‘아바타’(avatar)와 같은 사이버 자아(cyber self)이기 때문이다. 21세기 현대인들이 뉴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타인과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의 차원에서 소통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아바타이다. 아바타/avatar의 어원은 힌두교에서 지상 세계로 강림한 신의 육체적인 형태를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아바타라’에서 유래되었다. 힌두 신화에서는 신이 현세를 방문하는 동안에 인간이나 동물의 몸을 잠시 빌려서 나타나며 아바타는 이러한 일시적인 육체(temporary body)를 가리킨다. 21세기에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는 현실 세계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사용자를 대신하는 그래픽 애니메이션 캐릭터이며, 인터넷 가상공간 속의 3차원 영상이나 가상현실 게임, 또는 채팅에서 자신을 대신 표현하는 그래픽 아이콘으로 현실의 자아를 대신하는 사이버 자아이고 가상의 인격체이다.³⁶⁾

21세기 이전의 사람들은 물리적인 시공 환경 속에서 면대면의 상호작용으로 소통하였다. 하지만 21세기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현대인들은 면대면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가상의 인격체인 아바타를 대리자로 내세워서 가상공간 속의 가상현실과 상호작용을 나누고 그 속의 사이버 자아들과 의사소통을 나눈다. 물리적인 시공간의 생태계 환경 속에서 소통하는 참 자아(A)는 동일한 생태계 환경을 살아가는 다른 참 자아(B)와 일정한 시공의 환경을 함께 공유하며 소통한다. 하지만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가상공간 속에서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을 나누는 사람은 그 가상세계 바깥의 참 자아가 아니라 참 자아를 대신하는 아바타, 곧 사이버 자아(A')가 또 다른 사이버 인격체들(B', C', D'...)과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을 나누면서 의사소통을 나눈다.³⁷⁾

그렇게 뉴미디어 생태계 안의 가상공간에서 사이버 자아인 아바타들끼리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으로 소통을 나눈다면 그러한 소통은 과연 진정성이 있는 소통일까? 혹시 진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헛된 소통을 나누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

36) 이종윤, 윤주현, “역할 이론을 활용한 아바타의 사례 연구”, 「sigforum」 (2011,12): 174-191.

37) 이호규, “주체형성 장치로서의 가상공간과 커뮤니케이션 모델; 르페브르와 푸코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2) (2010.06): 191-192, 173-213.

해서 가상공간이 만들어낸 가상현실의 인식론적인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4. 가상공간 속의 아바타와 시뮬라크르

사이버스페이스는 정보 수용자들에게 새로운 현실, 즉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또는 인공현실(artificial reality)을 만들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세계로부터 가상현실 세계로 이주시킨다. 뉴미디어 생태계가 물리적인 시공의 생태계 환경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상공간으로 이주시키는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있다.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은 인간의 욕망을 속박하지 않고 그 욕망을 극대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탱크가 돌진하는 현대의 전쟁을 보도하는 실시간 뉴스 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전쟁의 현장감(sense of presence, 또는 현존감)을 제공하고 시청자 개개인이 전쟁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 같은 실재감(sense of reality)을 제공한다. 이러한 현장감과 실재감은 현대의 거대한 조직 사회 속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확인하고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의 위치에서 향후 안보정세를 위하여 중요한 판단이나 깊이 있는 사고, 또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91년 1월 중동의 쿠웨이트에서는 이라크군을 격퇴하기 위하여 미국 주도의 34개국 다국적 연합군의 격퇴 작전이 시작되었다. 이 때 CNN 방송은 미국의 폭격기가 전함에서 발진하는 모습부터 시작하여 이라크군을 향한 폭격기의 폭격 장면까지 실시간으로 방영하여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전쟁을 마치 “비디오 게임 전쟁”과 같은 느낌을 심어 주었다. 당시 미국인들과 전 세계의 수 많은 시청자들이 CNN 방송에 몰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방송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불의와 폭력을 행사하는 이라크의 후세인을 자신이 처벌하는 현장감이나 실재감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장감과 실재감이 때로는 역사 현실을 살아가는 시청자들의 민주의식의 발전과 성숙을 가져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88년 대한민국의 13대 국회는 제 5공화국 정부 시절 각종 권력형 비리 문제와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진실 규명을 위한 “5공화국청문회”를 진행하였고, 그 내용이 언론의 TV를 통해서 생중계로 보도되었다. 홍석경에 의하면, 5공청문회 TV 중계방송은 “전국민을 간접적으로 청문회라는 의회 절차 속에 참여시키서 5공화국 시절에 억압되었던 것들을 욕하고 뺏아 내고 두들기고 탈신화했던 TV가 매개하는 한판 곳”으로 해석한다.³⁸⁾ 청문회 방송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폭로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다. 홍석

38) 홍석경, “전환기 한국 방송의 이데올로기: 민주화, 시청률, 중산층”, 『문화와 사회』 2/2 (1989,05): 673-691.

경에 의하면, 당시 5공청문회 TV중계방송은 5공 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정당화해야 하는 도시 중산층의 이데올로기적 구성물에 부응하는 해독 구성체로 기능했다는 것이다. 2011년 중동 지역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 역시 튀니지 청년의 분신사살이라는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이 이슬람 독재정권 하의 여러 나라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한 기제로 인터넷과 미디어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³⁹⁾

이렇게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현대인들에게 물리적인 생태계 환경에서 직접 경험할 수 없는 현장감과 현존감을 제공하는 배경에는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그 세계에 참여하는 시청자들이나 가상세계 접속자들에게 역사 현실의 생태계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초현실의 세계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학자인 장 보드리야르(Baudrillard)에 의하면, TV나 비디오와 같은 전자 매체는 시청자들에게 매체 없이 직접 눈으로 대면하는 현실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사람들이 전혀 지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초현실 세계(hyper reality world)를 구성한다.⁴⁰⁾

장 보드리야르에 의하면 TV와 같은 현대의 전파매체들은 이전 시대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초실제 세계(hyper reality world)를 만들고 이 초실제의 세계 안에서는 사람들의 실제 행위와 미디어의 프레임을 통해서 가공된 이미지들이 뒤섞이면서 구성된다. 장 보드리야르는 사람들이 실제세계에서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없는 가상의 이미지들을 가리켜서 시물라크르(simulacre)라고 부른다. 시물라크르는 현실세계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지만 마치 그것이 존재하고 또 사람들이 지각하거나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을 의미한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공물, 또는 실제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지는 가공물이나 그런 대상의 이미지가 시물라크르(simulacre)이다.

2016년말 미국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를 이기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주류 언론사의 예측을 깨고서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트럼프가 한 편으로는 막말 과묵으로 언론에 주목을 끌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리얼리티 TV쇼를 진행하면서 미국인들에게 자신을 성공한 기업가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몰락한 미국의 중산층의 표심을 공략하는 공약을 제시하여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SNS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쪽은 단연 트럼프였다.⁴¹⁾

39) 인남식, “2011 아랍 정치변동의 성격과 함의”, 『국제정치논총』 51/4 (2011,12):237-254.

40) Anthony Giddens, 『현대 사회학』, 378.

41) 이치문, “미국과 한국의 뉴미디어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한국 선거에서의 인터넷과 SNS 활용과 변천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6,05):167-187.

오늘날 일반 대중에게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하고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현실 세계가 아니라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매개된 실재 (mediated reality)와 가공된 시물라크르(simulacre) 이미지들이다. CPND로 구성된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인들 앞에 가상공간을 만들고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욕망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제들을 활용하여 현대인들을 가상세계 속으로 유인하여, 그 속에 존재하는 사이버 자아인 아바타와 소통을 유도하거나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의 이미지보다 더 현실감을 주는 초현실의 이미지인 시물라크르와 매개된 상호작용을 나누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뉴미디어 생태계의 매개된 실재와 비현실적인 시물라크르의 이미지들은 기독교적인 소통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물론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21세기에 전세계적으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 의식의 함양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본 논문은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기독교적인 의사소통과 설교의 전략을 심층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먼저 기독교적인 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⁴²⁾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다음에, 후속 논문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독교 설교의 효과적인 전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V.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메시지의 발신자와 메시지, 미디어, 수신자, 그리고 소통 당사자가 공유하는 생태계 환경과 같은 여러 요소가 동원된다.⁴³⁾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는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설교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 과제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신자들을 다음 세 꼭지점의 중심부에 위치시킨다. 그 세 꼭지점이란 현대인들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역사 현실 세계와 뉴미디어 생

42) 앞서 간략히 고찰한 바와 같이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인들의 민주주의의 함양에 긍정적인 기여를 제공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Cf., 조항제, “한국의 민주화와 미디어 : 정부와 시장 주류 미디어의 관계” 『한국언론정보학보』 16 (2001.05):168-206; 신광영, “한국의 민주화, 시장화와 언론노조운동”, 『한국언론정보학보』 57 (2012.02): 69-83.

43) Michael Quicke, *360-Degree Preaching*, 이승진 역 『전방위 설교』 (서울: CLC, 2012). Robert Stephen Reid, *The Four Voices of Preaching: Connecting Purpose and Identity Behind the Pulpit*,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6).

태계가 구축하는 가상현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응답의 자리이다. 이 세 가지 꼭지점의 중앙에 위치한 목회자들은 현대의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의 영향을 전방위적으로 느끼는 신자들을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으로 안내하여 그 나라의 통치에 부응하는 삶을 살도록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한 두번째 단계에서는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 한국 사회의 소통 구조에 미친 영향을 전통적인 권위 구조의 쇠퇴와 영적인 설득력 구조의 붕괴, 그리고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의 양극화 심화의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1. 전통적인 설득력 구조의 쇠퇴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에 미친 심대한 영향은 일반 사회와 기독교 교회를 막론하고 전통적인 권위 구조가 예전과 같은 영향력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만일에 기독교 교회가 뉴미디어 시대에도 계속해서 전통적인 권위 구조를 고집한다면 뉴미디어 생태계는 당연히 기독교 교회에 부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데이비드 웰즈(David Wells)는 20세기 이후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영향력이 점차 퇴조하는 원인을 교회가 의존해왔던 전통적인 권위 구조의 붕괴에서 찾고 있다.⁴⁴⁾ 데이비드 웰즈에 의하면 과거 서구 사회를 하나로 묶어 준 것은 전통과 권위, 그리고 권력이었다고 한다. 전통이란 “한 세대가 그 뒤를 잇는 다음 세대에게 축적된 지혜와 지식과 가치를 전달하는 통로”이다. 과거에는 가정이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감당했다. 하지만 인본주의와 기술혁신, 그리고 상업주의의 등장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이전 세대가 축적한 지혜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전통적인 가정과 공교육의 역할이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전통적인 권위 역시 무의미해지고 있다.⁴⁵⁾

데이비드 웰즈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와 신자 내면의 신앙의 상호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신자 내면 속에 신앙으로 뿌리내리려면 반드시 내면적인 신앙을 외적으로 인증해주는 외부적인 네트워크가 동원되어야 한다.⁴⁶⁾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소통하고

44) David Wells, 김재영 역 『신학실증』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144-5.

45) 예를 들어 2105년 9월 28일부터 발효된 ‘김영란법’은 OECD 부패 지수 37위권 밖의 ‘부패공화국’으로 평가를 받는 한국 사회에 단군 이래 최대의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긍정적으로는 공직사회나 교육계에 형성된 부정적인 갑을관계가 청산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탱했던 전통적인 권위 구조와 설득력 구조도 함께 쇠락하고 있다. 황지태 외,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국민의식조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1-469.

확산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내면적인 신앙을 외부적으로 인증해주고 확인해 주는 설득 메커니즘이 바로 설득력 구조이다. 사회학자 피터 버거(Peter Berger)는 외부적인 사건이 사람들의 내면세계에서 의미와 가치를 확보하도록 중재하는 연결고리를 가리켜서 ‘설득력 구조’(plausibility structure)라고 한다.⁴⁷⁾ 근대 이전 중세 시대에는 높다란 교회 건물이나 그 건물 안에서의 장엄한 예배 예전, 현실 사회와 연결된 강력한 설교 메시지, 그리고 교회 바깥의 기독교적인 사회 구조, 복음적인 법률 체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목회자들과 신자들의 실제 거룩한 삶, 기독교적인 도덕과 윤리 체계와 같은 사회적인 하부구조(social infrastructure)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신자들의 내면적인 신앙으로 뿌리내리도록 하는 ‘설득력 구조’ 역할을 감당했다.

하지만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현대인들은 내면의 신앙을 확보하거나 또는 판단에 기초한 행동을 할 때 더 이상 전통적인 ‘설득력 구조’를 따르지 않는다. 이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가치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은 인터넷과 사이버스페이스 속의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전통적인 권위 구조와 설득력 구조가 쇠퇴하면 현대인들에게 새롭게 부각되는 설득력 기제와 의사소통의 구조는 무엇인가? 전통과 권위가 사라진 현대사회를 여전히 하나의 사회집단으로 결속해 주는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21세기 현대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설득력 구조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뉴미디어가 텔레비전 방송과 무선 인터넷이다.

데이비드 웰즈에 의하면 현대의 텔레비전이 현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능은 다음 세 가지다.⁴⁸⁾ 첫째는 현대의 텔레비전은 현대인들이 문화를 따라가기 위하여 알아야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매개체 노릇을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텔레비전은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기만을 추구하는 타인 지향적인 인간형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현대의 텔레비전은 과거에서부터, 외부 세계에서부터, 공동체 의식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변형된 내면 지향적 개인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권위 구조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21세기 현대인들에게 TV 방송이 새로운 설득력 구조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쿡방(또는 먹방)과 같은 리얼리티 방

46) David Wells, 김재영 역 『신학실증』, 148.

47) Peter L. Berger, *A Far Glory* (New York: Anchor Books, 1992), 45. Peter Berger에게 있어서 현대인들의 설득력 구조 상실은 세속화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Peter Berger는 “사회 및 문화의 어떤 영역이 종교의 제도와 상징체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가리켜서 세속화(secularization)라고 부른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전의 종교적인 제도나 상징체계가 효과적인 가치판단의 근거로 작용하는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Peter Berger, *The heretical imperative*, 서광선 역, 『이단의 시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1), 35. Cf., Dempsey, Ron D., 김순일 역 『성경만큼이나 관심있게 보아야 할 교회 밖 풍경』 (서울: 요단, 2004), 39-65.

48) David Wells, 『신학실증』, 265.

송물의 증가이다. 20세기까지 사람들은 배고픔을 면하거나 노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려는 신체동력의 관점에서 음식을 섭취하였다면, 오늘날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공허의 시대에는 의미 있는 체험과 타인과의 공감을 위해서 식사 시간을 갖는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의미 있는 식사와 같은 개인의 소비 생활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TV나 인터넷의 먹방(또는 쿡방)이 소개하는 식생활 패턴을 그대로 모방하는 시청자들이 엄청난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⁴⁹⁾ 먹방'은 '먹는 방송'의 줄임말로 쿡방이라고도 한다. 2009년 1인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 먹는 모습을 방송하는 문화가 생겨났고 이후로 최근까지 TV에서 유명 연예인이 음식을 먹는 방송이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다. 방송에 소개된 식당이 전 국민에게 홍보되어 수 많은 방문객이 쇠도한다거나, 방송에 소개된 음식 재료가 시장이나 식품 마켓에서 순식간에 동이 나기도 한다. 또 쿡방을 진행하는 셰프가 소개한 레시피는 전국민이 즉시로 그대로 따라 만들어 먹는 전국민의 획일화된 메뉴로 부상한다. 이렇게 뉴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은 TV의 리얼리티 쇼(ex., 먹방이나 쿡방)를 통해서 무슨 음식을 어떤 메뉴로 요리하여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면서 음식이나 식사와 관련된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을 형성, 유지하고 있다.

2.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의 괴리감

그렇다면 CPND로 구성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은 현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을까? 오늘날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가상공간 속에는 거의 무한대의 지식과 정보 콘텐츠가 넘쳐난다. 뉴미디어 기술 덕분에 현대인은 이전 인류와 비교할 수 없는 거의 무한대의 지식과 정보를 확보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뉴미디어 생태계가 앞으로 인류에게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그 이유는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가상세계는 사람이 항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잠깐 보여주는 창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 창문이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창문은 현실 세계를 향하여 열린 창문이 아니라 그럴듯한 현실감이나 현장감, 또는 현존감을 제공하는 시뮬라크르의 창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상공간에서는 자아의 분신인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나 시뮬라크르와 상호작용을 즐기더라도, 자아는 결코 사이버 공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하거나 지속할 수 없다. 자아가 살아내야 하는 세계는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가상 현실 세계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접촉할 수 있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현

49) 김형우, "1인 가구와 방송 트렌드 변화; 먹방, 쿡방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교육」 5/1 (2015. 06.): 152-170.

실 세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뉴미디어 생태계가 구성한 가상세계에 열광하고 인터넷 중독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⁵⁰⁾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에 의하면 근대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과학기술이 예술의 영역에 적용되어 고유한 예술작품들을 거의 무한 복제가 가능한 시대가 시작되었다. 원래 예술 작품은 그 작품의 고유한 생명력과 같은 아우라(aura)를 가지고 있다. 아우라는 라틴어로 공기나 공기의 독특한 향기를 의미하며 인간에게는 그 한 인격체를 둘러싸는 신비한 광채의 현상이나 또는 한 인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고유한 정서적 또는 정신적 작용과 영향 전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예술작품에 대한 대량 복제가 가능한 시대에는 수 없이 복제된 사본들 때문에 특정 작품 고유의 아우라(aura)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⁵¹⁾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시뮬라크르에는 사물 고유의 현실감을 발산하는 아우라가 없다. 실제 현실 세계는 자아가 인지를 하든 인지를 못하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가상현실은 겉으로 보자면 인터넷 공간 속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시뮬라크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 내면에 내재화된 실재감(sense of presence)이다. 오늘날에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세계적인 명소들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 장소에 대한 실재감과 기시감(既視感·데자뷰, déjà vu)을 얻을 수 있다.⁵²⁾

그런데 가상세계가 제공하는 실재감이나 기시감, 현장감, 혹은 현존감은 중요한 차원에서는 실제 현실 세계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상세계가 제공하는 실재감이나 현장감은 그러한 시뮬라크르를 제공하는 미디어 권력의 수사적인 의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첼 스티븐슨에 의하면 “뉴스가 풍요해지면서 일어난 변화는 미디어를 통해 주장되는 세계(obtrusive world as announced)와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세계(unobtrusive world as is)가 서로 경쟁한다는 점이다.”⁵³⁾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현실 세계의 실재와 사이버 공간 속의 왜곡된 이미지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개’에 관한 만화로 설명한다.⁵⁴⁾ 피터 스타이너(Peter Steiner)은 1993년 6월 5일자 미국의 주간잡지 ‘뉴욕커’(The New

50) 최근 한국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관하여 다음을 참고. Cf., 이유섭,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아동, 청소년, 청년을 위하여”, 『한국라강과현대정신분석학회 학술발표대회 프로시딩』 (2014, 11): 45-62; 신은화, “포르노그래피 중독과 치유”, 『인간연구』 33 (2017, 01): 171-204.

51) 고원석, “현대 미디어철학의 관점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장신논단』 41: 291-3.

52) 윤태진, “정서적 참여와 실재의 재구성: 한국 리얼리티 텔레비전 쇼의 작동방식에 대한 고찰”, 『방송문화연구』 23/2 (2011,12): 7-36.

53) Mitchell Stephens, 『뉴스의 역사』, 440.

54) Anthony Giddens, 『현대 사회학』, 392.

Yorker)에 게재한 카툰의 글로 인터넷 공간의 왜곡된 시뮬라크르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통렬하게 고발하였다: “인터넷에서는 아무도 당신이 개(dog)라는 사실을 모른다.” 오프라인의 현실 세계에서는 개처럼 행동하더라도 온라인에서는 미디어 권력의지에 의하여 조작된 이미지들인 시뮬라크르의 환영만 떠돌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는 아무도 모니터 앞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수준의 사람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런데 21세기 뉴미디어 생태계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놀라운 점은 인터넷상에서는 모두가 개(dog)이고 모두가 그 개를 좋아한다는 것이다.⁵⁵⁾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제공하는 시뮬라크르의 환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현대인들은 피터 스타이너의 예리한 통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 혹은앞으로도 소통이 진행되는 모든 공간에는 소통 당사자들의 권력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이고, 권력에 대한 비평의식이 없으면 소통 과정 전체가 권력 의지에 의하여 왜곡되기 때문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통 매체는 권력으로부터 결코 중립적일 수 없고,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되는 시뮬라크르 속에는 현실과 다른 이미지를 소통하려는 미디어 권력의 의지가 개입될 수 밖에 없다. 특정한 시공의 환경에 참여하는 참여 당사자들은 반드시 그 시공 환경을 주도하고 소통을 장악하려는 권력 의지를 형성한다.⁵⁶⁾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에 의하여 형성된 가상 세계와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서로 경쟁하는 대표적인 영역이 권력이 집중된 정치계이다. 현대인들은 뉴미디어 생태계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과 면대면 상호작용의 기회를 박탈당해서, 실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정치 지도자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실제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정치 지도자의 생각이나 그 삶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일반 대중들에게는 뉴미디어의 가상세계가 제시하는 가공된 시뮬라크르가 그 지도자의 전체 모습이다.

문제는 CPND로 구성된 뉴미디어 생태계의 소통 네트워크가 점차 전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소통 참가자들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그 미디어를 관리하고 운용하는 권력(권력자 개인이거나 권력집단)의 의지가 미디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 겉으로는 소통 참여자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 정신이 미디어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 대중이 미디어 권력이 주도하는 왜곡된 시뮬라크르의 통제력에 맞서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실제 현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현장감(또는 현존감, sense of presence)과 가상현실 속의 왜곡된 시뮬라크르로부터 얻는 현장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55) <http://fritsahlefeldt.com/2016/06/07/on-the-internet-dog-drawing/>

56) 김승현 외, “공간, 미디어 및 권력: 새로운 이론틀을 위한 시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3/2 (2007, 12): 82-121.

현실 세계에서 소통을 하거나 상호작용할 때 소통의 당사자들이 확인하는 현장감과 실재감은 특정한 시공의 고유한 물리적인 환경 속에 공존함으로 발생하는 현장감이요 실재감이다. 그 현장감과 실재감은 그 시공의 환경 속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막연한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다. 소통 당사자가 특정한 시공의 고유한 물리적인 환경 속에 상대방과 함께 공존하면서 면대면 상호작용하여 나누는 소통 사건에서는 머릿 속에서 인식하는 메시지의 내용과 그 내용이 지시하는 실제 대상 사이에 이상적으로는 소통의 일치도가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다. 현실 세계 속에서 소통할 때의 자아가 느끼는 현장감과 실재감은 그 느낌이 지시하는 실제 시공의 소통 환경이나 소통 대상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하지만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가상현실과 소통할 때는 자아가 상호작용하는 대상은 실제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가상 공간 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 무관한 현장감이나 실재감을 느낄 수 있다.⁵⁷⁾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체험하는 현장감이나 현존감은 현실 세계에서의 지행합일이나 지행일치의 간격을 제대로 좁혀주지 못한다.⁵⁸⁾ 사이버스페이스 속의 가상현실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은 허상의 이미지들이고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시뮬라크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가 증가할수록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사이의 거리감도 함께 증가한다.

3. 정보 무력감과 지행불일치

닐 포스트만에 의하면 TV나 인터넷과 같은 전자 미디어 시대 이전에는 정보 수용자 편에서의 정보-행동의 일치도가 매우 높아서, 소통되고 공유되는 정보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행동-가치(action-value)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온갖 정보와 이미지들이 무한대로 쏟아지자, 행동-가치가 배제된 정보로 변질되면서 정보 수용자의 실존적인 삶이나 실천적인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보 무력감을 증폭시키고 있다⁵⁹⁾

57) 현존감의 영역이나 범위를 좁히다면 가상현실의 현존감은 특정 주체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공동체적인 윤리를 구현하는 거시적인 삶의 지평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가상현실이 제공하는 현존감의 부정적인 기능에 주목하고자 한다.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Cf., 이형래, “가상현실에서 아바타를 통한 정보전달 시 뇌의 활성화와 현존감의 관계”, 「인지과학」 17/4 (2006,12): 357-373.

58) 이운선, “한나 아렌트의 '탄생성(natality)'의 교육학과 양명의 '치량지'(致良知) : '공적 감각(公的 感覺)'과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인간교육을 위해서”, 「양명학」 18 (2007,07): 5-62.

59) Neil Postman, 95-7.

‘소유와 정기고’가 부르는 ‘썸’이라는 유행가는 현대인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현실 속에서 느끼는 초현실적인 기시감과 이로 인한 정보 무력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 “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로 시작되는 썸은 ‘요즘 따라 내 끼인듯 내 끼 아닌 내끼 같은 너. 니 끼인 듯 니 끼 아닌 니 끼 같은 나’ 때문에 ‘헛갈려’하는 현대 청년의 심리를 잘 보여준다. 이성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싫어하지는 자신의 감정을 확신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느끼는 사랑과 결혼의 의무감은 현실 세계에서 일종의 롤모델로 존재하는 부모님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사랑과 결혼생활로부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로부터 학습한 비현실적인 감정이 주도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CPND로 형성된 뉴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이리 저리 표류하는 왜곡된 시뮬라크르가 제공하는 사랑스러운 감정이나 결혼을 향한 열정이나 의무감은 그 자체로 한결같이 모호하고 자신의 인생과 결혼하려는 상대방 인생 전체를 책임져 줄 것 같은 확신도 전혀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실제 세계가 제시하는 현존감과 가상공간의 시뮬라크르가 제시하는 환상적인 기시감이나 현존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시뮬라크르의 환상이 때로는 실제 세계에 대한 이해와 그 대응 능력을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나 무선 인터넷에 빠져드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21세기 한국사회의 소통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휴대전화와 이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한 김성도는 휴대전화 때문에 빠질 수 있는 환상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휴대전화가 접근하도록 해 주는 세계가 완전한 객관성이 세계라는 환상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휴대전화가 제시하는 세계는 완전히 주관성으로 이뤄진 개인의 세계일뿐이다.”⁶⁰⁾

앞으로 사물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인공지능시대가 열리면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은 더욱 전방위적으로 물리적인 현실 세계의 생태계를 대체할 것이다. 사물인터넷 시대가 열리면 인터넷은 마치 생활 속에서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지만 생존에 필수적인 공기처럼 그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사물인터넷이 구성하는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은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러한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제시하는 가상세계와 그 세계에서 매개된 소통에 참여하는 사이버 자아, 그리고 조작된 시뮬라크르는 결코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 현실 세계를 대체하지 못하며, 뉴미디어 생태계가 발전할수록 두 세계 사이의 괴리감과 이질감 역시 증대할 것이라는 점이다.

60) 김성도, 『호모 모빌리쿠스』, 382.

V. 나가는 말

21세기 한국사회는 거대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전 국민이 CPND로 구성된 미디어 생태계속에서 무한대의 정보와 뉴스 콘텐츠들과 실시간 상호 작용하고 의사소통을 나누면서 물리적인 시공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보 콘텐츠들이 제공하는 현장감과 현존감, 그리고 실재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류가 걸어온 오랜 역사의 시간과 비교하면 최근 15-20년 어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난 전대미문의 현상이다.

그렇다면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은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먼저 뉴미디어 생태계 현상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은 콘텐츠(Contents)와,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그리고 디바이스(Device)의 네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치사슬 체계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CPND의 가치사슬체계는 뉴스와 콘텐츠를 소비하려는 현대인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무한대의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되 여기에 더하여 정보가 가지는 현장감과 현존감, 그리고 실재감까지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설교하고 확산하는 책임을 맡은 목회자들은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는 신자들을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으로 안내하여 그 나라의 통치에 부응하는 삶을 살도록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에서 연구자는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 한국 사회의 소통 구조에 미친 영향을 전통적인 권위 구조의 쇠퇴와 영적인 설득력 구조의 붕괴, 그리고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의 양극화 심화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의사소통과 설득을 위해서는 권위가 중요하지만, 뉴미디어 생태계는 전통적인 권위 구조와 설득력 구조를 무너뜨리면서 현대인들의 설득력 기체의 빈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권위 구조나 설득력 구조를 따르지 않고 뉴미디어의 가치사슬체계를 채우고 있는 가공된 시뮬라크르 이미지들에 의하여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뉴미디어 생태계의 위력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생태학자들의 지적에 의하면 가상공간이 제공하는 가상현실과의 상호작용이나 교감은 면대면 상호작용이 아니라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에 불과하며 그 속에서 교감을 나누는 인격체 역시 역사 현실을 살아가는 실제 인격체를 모방하는 사이버 자아인 아바타(avatar)이거나 그 세계에서 상호작용하는 이미지들 역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초현실의 이미지들인 시뮬라

크르에 불과하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제 현실과 가상 현실의 괴리감이 점차 심화되고 정보 무력감도 더욱 깊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독교 설교의 전략은 무엇일까? 다음 후속 연구를 통해서 그 해답을 모색할 차례이다.

■ 참고문헌 ■

- Benjamin, Walter. 최성만 역. 『발터 벤야민 선집2』 서울: 도서출판 길, 2009.
- Berger, Peter. *A Far Glory*. New York: Anchor Books, 1992.
- Berger, Peter. *The heretical imperative*. 서광선 역. 『이단의 시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1.
- Casey Man Kong Lum. 이동후 역. 『미디어 생태학 사상』 서울: 한나래출판사, 2008.
- Dempsey, Ron D., 김순일 역. 『성경만큼이나 관심있게 보아야 할 교회 밖 풍경』 서울: 요단, 2004.
- Fang, I. *A History of Mass Communication: Six Information Revolutions*. 심길중 역.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역사: 6단계 정보혁명』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2.
- Flusser, V. 김성재 역. 『피상성 예찬: 매체 현상학을 위하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Gibson, William. *Newromancer*. 김창규 역. 『뉴로멘서』 서울: 황금가지, 2005.
- Giddens, Anthony. *Sociology*. 김미숙 공역. 『현대 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1992.
- Innis, Harold. *Empire and Communication* Toronto: Dundurn Press, 2007.
- Ling, Rich. *How Mobile Communication is Reshaping Social Cohesion*. 배진환 역. 『모바일 미디어와 새로운 인간관계 네트워크의 출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Luhmann, Niklas. *The Reality of the Mass Media*. trans. Kathleen Cross.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2000.
- Osmer, Richard. *Practical Theology : An Introduction*. 김현애, 김정형 공역. 『실천 신학의 네 가지 중심과제』 서울:WPA, 2012.

- Postman, Neil. *Technopoly*. 김균 역. 『테크노폴리: 기술에 정복당한 오늘의 문화』 서울: 궁리출판, 2009.
- Postman, Neil. *Amusing Ourselves to Death: Public Discourse in the Age of Show Business*. 정탁영 공역. 『죽도록 즐기기』 서울: 참미디어, 1997.
- Quicke, Michael. *360-Degree Preaching*. 이승진 역. 『전방위 설교』 서울: CLC, 2012.
- Reid, Robert Stephen. *The Four Voices of Preaching: Connecting Purpose and Identity Behind the Pulpit*.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6.
- Rifkin, Jeremy.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안진환 역. 『3차 산업혁명: 수평적 권력은 에너지 경제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민음사, 2012.
- Schultze, Quentin J. *American Evangelicals and the Mass Media* Grand Rapids: Zondervan, 1990.
- Schwab, Klaus. 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 현재, 2016.
- Stephens, Mitchell. 이광재, 이인희 역. 『뉴스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 Watson, Alexander John. *Marginal Man: The Dark Vision of Harold Innis*. 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2006.
- Wells, David. *No Place for Truth*. 김재영 역. 『신학실중』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6.
- 강내원. “시민의 매체 이용과 언론사에 대한 신뢰: 매체별 이용패턴에 따른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0/3 (2010,9): 5-46.
- 고원석. “현대 미디어철학의 관점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장신논단」 41 (2011, 7): 289-314.
- 권혁인, 나운빈. “CPND 생태계 관점의 전자책 시장 활성화 요인 연구: 출판사 실무자 AHP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3/4 (2015,4): 51-59.
- 김명찬. “새로운 모바일(소셜네트워크서비스) 디지털시대의 변화에 대한 예배의 세대별 대응 모색”. 「신학과 실천」 24 (2010년 9월): 337-365.
- 김문조. 『융합사회의 소통양식 변화와 사회진화 방향 연구』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 김병석. “인공지능(AI) 시대, 예배 공동체 설교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신학과 실천」 49 (2016, 5): 159-184.
- 김성도. 『호모 모빌리쿠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 김승현 외. “공간, 미디어 및 권력: 새로운 이론틀을 위한 시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3/2 (2007, 12): 82-121.

- 김영주 “신문산업의 위기와 사업다각화: 신문사의 뉴미디어 사업 진출 현황과 의미”. 「관혼저널」 95 (2005,6): 11-20.
- 김유석. “미디어 생태계의 평형상태를 위하여: 분해자로서의 소비자를 위하여”.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8,4): 3-18.
- 김형우. “1인 가구와 방송 트렌드 변화; 먹방, 쿡방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교육」 5/1 (2015. 06.): 152-170.
- 문영빈 “정보미디어시대의 종교학의 새 지평: 매체학, 인지과학, 시스템이론의 창조적 융합”. 「종교연구」 52 (2008년 9월): 191-228.
- 문영빈. “뉴미디어, 종교체험, 예배: 가상체험의 매체신학적 조명”. 「기독교교육정보」 25 (2010, 4): 227-260.
- 민장배. “미디어를 통한 신앙 교육 활성화 방안”. 「신학과 실천」 48 (2016, 02): 495-518.
- 송종길. “매체별 신뢰도의 유사성 및 차별성 분석 연구: 기자와 수용자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2 (2007,4): 180-202.
- 신광영. “한국의 민주화, 시장화와 언론노조운동”. 「한국언론정보학보」 57 (2012.02): 69-83.
- 신은화. “포르노그래피 중독과 치유”. 「인간연구」 33 (2017, 01): 171-204.
- 윤영훈. “복음주의 운동의 대중적 문화 미디어 필그림”.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8/1 (2010, 4): 81-105.
- 윤태진. “정서적 참여와 실제의 재구성: 한국 리얼리티 텔레비전 쇼의 작동방식에 대한 고찰”. 「방송문화연구」 23/2 (2011,12): 7-36.
- 이기상. “현상과 미디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존재론 연구」 30 (2012): 1-34.
- 이동후. “뉴미디어의 이해: 미디어 생태학의 지적 실천과 함의”. 「한국방송학보」 29(5) (2015,9): 32-66.
- 이성우. “새로운 산업혁명과 국제정치질서의 전망”. 「국제정치논총」 57/1 (2017,03): 313-346.
- 이승진.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설교 생태계의 변화”. 「복음과 실천신학」 27 (2013): 301-334.
- 이연호, 조화순. 『가상현실 내에서의 사회구조의 형성과 변화』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 이유섭.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아동, 청소년, 청년을 위하여”. 「한국라깡과현대정신분석학회 학술발표대회 프로시딩」 (2014, 11): 45-62.
- 이은선. “한나 아렌트의 '탄생성(natality)의 교육학과 양명의 치량지(致良知): 공적 감

- 각(公的 感覺)과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인간교육을 위해서”. 「양명학」 18 (2007,07): 5-62.
- 이종윤, 윤주현. “역할 이론을 활용한 아바타의 사례 연구”. 「sigforum」 (2011,12): 174-191.
- 이주아. “한국 청소년의 위기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 모색”.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3 (2012.10): 351-375.
- 이치문. “미국과 한국의 뉴미디어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한국 선거에서의 인터넷과 SNS 활용과 변천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6,05): 167-187.
- 이형래. “가상현실에서 아바타를 통한 정보전달 시 뇌의 활성화와 현존감의 관계”. 「인지과학」 17/4 (2006,12): 357-373.
- 이호규. “주체형성 장치로서의 가상공간과 커뮤니케이션 모델: 르페브르와 푸코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2) (2010.06): 173-213.
- 인남식. “2011 아랍 정치변동의 성격과 함의”. 「국제정치논총」 51/4 (2011,12): 237-254.
- 정법근. “사물인터넷 시대의 C-P-N-D 생태계 동향”. 「정보통신방송정책」 27/3 (594) (2015,02): 29-30.
- 조성호. “현대 멀티미디어 문화의 특성과 기독교 영성의 상관관계 연구”. 「신학과 실천」 46 (2015, 9): 385-412.
- 조향제. “한국의 민주화와 미디어 : 정부와 시장 주류 미디어의 관계”. 「한국언론정보학보」 16 (2001.05): 168-206.
- 최창현. “C-P-N-D 생태계와 ICC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3 (2014): 7-16.
- 한재동. “통합과 귀납의 패러다임, 실천신학의 실천신학적 이해”. 「신학과 실천」 35 (2013, 05):43-88.
- 홍석경. “전환기 한국 방송의 이데올로기: 민주화, 시청률, 증산층”. 「문학과 사회」 2/2 (1989,05): 673-691.
- 황지태 외.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국민의식조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논 찬 1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찬

김 병 석 박사

(숭실대학교 / 예배와 설교학)

I. 뉴미디어의 과학적 진보와 시공간 개념

뉴미디어 시대는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인 기존의 개념을 확장시킨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현 시대는 뉴미디어 생태계에서는 콘텐츠(Contents)와,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디바이스(Device)로 의사 소통하여 전통적인 설득 구조를 와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연구자는, 뉴미디어 생태계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공간, 가상현실이라는 한계에 놓여 있는바 매개된 의사 상호간의 작용에 불과하여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의 괴리감에 정보 무력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관찰한 것이다.

본 연구는, 에릭 슈미트의 주장을 빌려, 뉴미디어 생태계는 무선 인터넷, 사물 인터넷의 확장 가운데 현대인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존재를 인식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뉴미디어 생태계는 새로운 세계의 공간, ‘사이버스페이스’로 이전의 물리적인 시공간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며, 인간 소통의 감각과 그 능력을 확장 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다.

사실, 물리적인 시공간을 극복하는 인간의 노력과 과학적 진보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직접 말로 전달하던 전달방식이 편지나 다른 매체를 통한 전달로 발전하고, 또한 과학적 진보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공간과 거리

에서 전달되는 시간차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이 등장한 후, 정보를 수용하는 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빨라졌고, 이제는 그 시간차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빨라서 즉시 세상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면에서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뉴미디어 생태계는 갑자기 출현하여 현 시대를 당황스럽게 했다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시작된 과학의 편리성이 인터넷과 결합되어 급속히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과학적 진보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마치 새로운 등장처럼 보이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편, 현 시대의 과학적 진보는 정보 전달의 다각적인 확장으로 청각, 시각, 후각 기타 인간의 모든 오감 등, 감각을 기억하여 전달하는데 공간 차를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에 도달하려 한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봄 꽃의 모양과 색깔, 그 향기와 기온의 느낌 등을 그대로 재생시켜 서울의 어떤 가상공간에 실현시킬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교회에 응용하면, 예루살렘 성지의 모습과 향취, 그 느낌을 그대로 서울 어떤 예배당 공간에 재현시키는 기술을 선보일 수도 있다. 때문에 이는 보이는 시각뿐만 아니라, 후각의 향기도 전달하고 피부가 느끼는 감각이나 온도, 습도까지 공간차를 극복하여 다른 곳에 ‘현실의 실재’를 가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완성해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것들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이하게 될 시공간 차 극복에 대한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I. 뉴미디어 생태계에 있는 진실과 거짓

상황이 이렇다보니, 물리적인 실재가 존재하는 가운데, 가상현실이나 가공된 현실이 어떤 조작된 현실로 전달될 수 있는 미디어 디지털 세계에 대한 단점과 오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어떤 사실이 미디어 매체를 통과할 때 거짓과 가짜 뉴스로 둔갑될 수 있으며, 여기에 손쉽게 접근하거나, 그것이 다른 변형된 형태로 조작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뉴미디어 생태계는 더욱 디지털 정보 매체에 대한 경각심과 사용자의 윤리의식 강화에 그 중요성을 요청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뉴미디어 생태계가 앞으로 인류에게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가상세계는 사람이 항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잠깐 보여주는 창문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 창문은 ‘그럴듯한 현실감이나 현장감, 또는 현존감을 제공하는 시뮬라크르의 창문에 불과’하다는 것이 연구자의 문제제기이다. 더구나 뉴미디어 생태계는 시뮬라크르에 속해 사물 고유의 현실감 있는 ‘아우라’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실재성에 대한 왜곡, 불일치와 거짓 정보에 대한 진실성 오류는 매체가 등장한 오래전부터 늘 있어왔던 문제였다고 보인다. 과거에는 그 오류가 적게 드러나 보였지만, 이제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빠르게 번지는 뉴미디어 생태계의 매체를 통한 진실의 왜곡 수위를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체를 통한 전달은 이처럼 전달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전달하는 자의 ‘어떤 관점’과 ‘어떤 특별한 의도’에 의하여 사실과 진실에 대한 굴곡 및 변형에 따른 결과가 예측될 수 있다. 이것은 전달자 혹은 매체 주체자의 ‘가치관,’ ‘의도성,’ 그리고 사실을 보고 ‘해석한 결과’에 따른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전달 매체에 따른 오류와 왜곡뿐만 아니라, 어떤 사실과 사건을 보는 개개인에 따라서 다른 관점, 다른 해석, 다른 각도로 인한 전달로 각 사용자 이해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는 특별히 뉴미디어 시대에만 경험하는 왜곡은 아닐지 모른다. 예수님 당시에 도 예수를 구주로 인식하는 자와 반대로 예수를 이단 예언자로 보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으로서의 구별이라는 점과 동시에 사람 자체가 가진 시각차와 그의 개별적인 선택적 상황 내지는 그 의도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어떤 기자는 A타입과 입장에서 사건을 보고 하나의 매체가 되어 기사를 작성하여 수용자에게 그 정보를 전달한다. 반면에 어떤 기자는 B타입으로 그와 같이 한다. 말 한마디에도 존재하는 의미에 대한 차별성이 있을 수 있는데, 뉴미디어시대의 다양한 각도, 다각적 방식에 의한 정보 매체에 따른 다변화를 예측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사회에 충격을 가져 온 보도를 보더라도, 그 사건 중심에 선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로 오프라인 사회에 존재했으나, 그들의 사이버 공간 안에서는 악한 존재로 활보하고, 피해자들을 미디어, 사이버 공간에서 협박하고 악행 하는 무서운 존재로 있었다는 사실은 뉴미디어 생태계에서의 심각한 위협성을 드러낸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매체 전달자나 뉴미디어에 속한 사람들의 ‘윤리의식과 가치관’은 뉴미디어 생태계의 중요한 핵심적 가치로 위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논의를 위한 질의

1. 이상적인 현장 실재감 일치는 어떻게 보편적인 것으로 현실화 될 수 있는가?

연구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공 환경을 주도하고 소통을 장악하려는 권력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연구자는, ‘미디어를 관리하고 운용하는 권력(권력자 개

인이거나 권력집단)의 의지가 미디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고,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 정신이 미디어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 대중이 미디어 권력이 주도하는 왜곡된 시뮬라크르의 통제력에 맞서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면대면 상호작용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 ‘고유한 물리적인 환경 속에 상대방과 함께 공존하면서 면대면 상호작용으로 나누는 소통 사건에서는 실제 대상 사이에 이상적으로는 소통의 일치도가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현실 세계 속에서 소통할 때의 자아가 느끼는 현장감과 실재감은 그 느낌이 지시하는 실제 시공의 소통 환경이나 소통 대상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설명한다.

연구자가 설명하듯, 현장 실재감의 전달과 의미전달은 ‘이상적’으로 판단되는 현장 실재감 일치이지, 현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개별적인 주체적 수용자에 따른 주관성 개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에 따른 오류 가능성도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과정 가운데 작동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2. 가상현실에 있는 정보 무력감의 해소 가능성은 무엇인가?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가상현실은 정보 무력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가상현실과 현장 실재감에 있는 왜곡과 괴리 현상에 대한 해소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에 더불어 가짜 뉴스, 미디어를 통해 만들어지고 변형된 왜곡의 전달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앞으로 더욱 미디어 생태계는 진보 증가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보았듯이, 앞으로 미디어 온라인 영상 없는 세상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면대면 현장감을 더하는 가운데, 부분적인 미디어 기체의 사용이 앞으로 하나의 대안이라면, 그 기준은 어떤 것으로 모색 가능한가?

3. 뉴미디어 생태계에서 필요한 권위는 어떤 영역, 누구에게 부여된, 어느 정도의 권위를 의미하는가?

본 연구는 뉴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권위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연구자는,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 한국 사회의 소통 구조에 미친 영향을 첫째, 전통적인 권위 구조의 쇠퇴, 둘째, 영적인 설득력 구조의 붕괴, 셋째,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의 양극화 심화의 관점에서 평가’ 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의사소통과 설득을 위해서는 권위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뉴미디어 생태계는 전통적인 권위 구조와 설득력 구조

를 무너뜨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연구자는 전통적인 권위 구조의 확립이 뉴미디어 생태계에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즉 이 같은 설명을 토대로 살펴 볼 때, 연구자는 의사소통과 설득을 위하여 권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이를 회복하는 소통기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의사소통과 설득을 위하여 ‘권위’를 중요한 것으로 부각시키는데, 이 권위는 어느 정도 선에서 누구에게 부여된 권위인가? 만일 회중과의 소통을 위하여 설교자에게 권위가 필요하다면 설교자 개인에게 주어진 권위가 아니고, 위로부터 임하는 영적 권위 일 것이다. 한편, 신설교학(New Homiletics)에서는 설교자 개인이 가진 권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청중에게 들려지는 수용자 입장에서의 설교를 추구한다. 만일 설교자와 회중 사이에 권위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영적인 권위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설교자든 회중이든 어떤 인간의 권위는 이 같은 영적 소통 안에서 제거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설교자와 회중 사이에 회복되어야 하는 권위는 어느 영역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누구에게 부여된 권위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IV. 나가는 글

본 연구는, 현 시대가 급속도로 경험하고 있는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그 장점과 약점에 대한 기술을 설득력 있게 논거 하였다. 뉴미디어 생태계는 현대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현 직면된 현실이다. 이에 연구자는, 현대인들은 현실과 미디어를 통한 가상현실,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고 그 가운데 괴리감의 심화와 거기에서 발생하는 정보 무력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더 나아가서 뉴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독교 설교의 전략은 무엇인지 다음 후속 연구에 대한 귀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같은 현시대의 시의적절한 귀한 연구를 해 주신 이승진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논 찬 2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찬

조 지 훈 박사

(한세대학교 / 설교학)

요약

1. 저자는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신학자의 연구를 요약한 뒤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설교 전략에 대한 연구는 좀 더 깊이 있는 수준으로 진척되지 않았다고 진단한다. 이 진단을 근거로 이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뉴미디어 생태계의 변동이 기독교적인 의사소통의 환경에 미친 영향과 그러한 환경 속에서의 기독교 설교의 효과적인 전략”에 대한 것이다.

2. 저자는 자신이 연구를 위해 리차드 오스머(Richard Osmer)의 이론 신학과 목회현장의 실천을 통합하는 4단계 실천신학의 연구방법론을 활용한다. 오스머의 실천신학 연구방법론은 서술, 분석, 규범, 전략 단계로 진행된다.

3. 저자는 가장 먼저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생태학적 분석을 시도한다. 미디어 생태학은 다양한 미디어들이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개 과정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디어 생태학은 현대인들의 소통 과정에서 필수적인 CPND(Contents, Platform, Network, Device) 전체를 소통의 환경으로 이해하고서 현대인들의 소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미디어 기술과 현대인의 공생적인 상호관계를 고찰하는 학문이다.

4. 미디어 생태학자들에 따르면 뉴미디어는 새로운 시공간(사이버스페이스)과 새로운 세계(가상현실)를 만들어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모바일인터넷이 결합된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new media ecosystem) 환경은 현대인들에게 이전과 다른 시공간을 제시하며, 이전의 물리적인 시공간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와의 만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서 새로운 현실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

5. 뉴미디어 행태학자들은 뉴미디어가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저자는 존 톰슨의 연구를 기반으로 미디어를 통한 세 가지 종류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말한다. 첫째, 소통 대상자 간에 얼굴을 마주하고 진행되는 면대면 상호작용이다. 면대면 상호작용의 소통에서는 눈에 보이며 귀에 들리는 대상으로부터 전달받는 의미가 전부이다. 둘째, 편지나 전보, 또는 전화를 통한 소통이다. 이런 매체를 통한 소통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통이지만, 풍부한 소통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면대면 상호작용과 다르다. 매체를 통한 상호작용은 면대면 상호작용과 달리 매체를 통해서 전달 가능한 특정 정보나 사실들만 전달되며 소통 방식도 매체에 의존하는 매개된 상호작용이다. 셋째, 신문, TV, 또는 비디오와 같은 매스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관계이다. 앞의 두 상호작용이 대화의 차원을 가진 인격적인 상호작용이라면, 매스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개인이 매스 미디어를 상대로 독백을 하거나 독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상호작용을 ‘매개된 의사-상호작용’(mediated quasi-interaction)이라고 한다.

6. 현대인들은 뉴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가상공간과 그 속의 가상세계의 ‘매개된 현실세계’에 살고 있다.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서는 인간의 능력이나 욕망이 일정 수준 제약을 받지만 가상공간 속에서는 인간의 욕망이나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7. 물리적인 시공간의 면대면 상호작용의 주체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개인 인격체라면, 가상공간의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의 소통을 나누는 주체는 ‘아바타’와 같은 사이버 자아이다. 21세기에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는 현실 세계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사용자를 대신하는 그래픽 애니메이션 캐릭터이며, 인터넷 가상공간 속의 3차원 영상이나 가상 현실 게임, 또는 채팅에서 자신을 대신 표현하는 그래픽 아이콘으로 현실의 자아를 대신하는 사이버 자아이고 가상의 인격체이다. 현대인들은 뉴미디어 생태 환경 속에서 면대면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가상이 인격체인 아바타를 대리자로 내세워서 가상공간 속의 가상현실과 상호작용을 나누고 그 속의 사이버 자아들과 의사소통을 나눈다.

8. 저자는 가상공간에서 사이버 자아인 아바타들끼리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으로 소통을 나누는 것이 진정성 있는 소통인지를 묻는다.

9. 사람들이 뉴미디어 생태계가 제공하는 가상공간에 빠져드는 것은 이 공간에서 인간의 욕망을 속박하지 않고 그 욕망을 극대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10. 물론 가상현실을 통한 현장감과 실재감이 역사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민주 의식의 발전과 성숙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가상현실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도 부정적인 부분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11. 장 보드리야르는 사람들이 실제 세계에서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없는 가상의 이미지들을 가리켜서 시뮬라크르라고 불렀다. 시뮬라크르는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지만 마치 그것이 존재하고 또 사람들이 지각하거나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이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공물, 또는 실제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지는 가공물이나 그런 대상의 이미지가 시뮬라크르인 것이다.

12. 오늘날 일반 대중들은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매개된 실재(mediated reality)와 가공된 시뮬라크르에 의해 설득되고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CPND로 구성된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인들 앞에 가상공간을 만들고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욕망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제들을 활용하여 현대인들을 가상세계 속으로 유인하여, 그 속에 존재하는 사이버 자아인 아바타와 소통을 유도하거나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의 이미지보다 더 현실감을 주는 초현실의 이미지인 시뮬라크르와 매개된 상호작용을 나누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13. 그렇다면 이러한 뉴미디어 생태계의 매개된 실재와 비현실적인 시뮬라크르의 이미지들은 기독교적인 소통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14. 이 논문의 주된 관심을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설교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15. 저자는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세 꼭지점의 중심부에 있다고 말한다. 세 꼭지점은 현실 세계, 뉴미디어 생태계가 구축하는 가상현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응답의 자리이다. 이어 저자는 목회자들이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신자들이 이 영향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6. 저자는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 커뮤니케이션 매커니즘에 미친 심대한 영향 중 하나로 전통적인 권위 구조의 해체를 들고 있다.

17. 저자는 데이비드 웰즈의 연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신자의 내면에서 신앙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면적인 신앙을 외적으로 인증해주는 외적 네트워크가 동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의 메시지를 소통하고 확산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내면적인 신앙을 외부적으로 인정해주고 확인해주는 설득 메커니즘이 바로 설득력 구조이다.

18.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현대인들은 내면의 신앙을 확보하거나 또는 판단에 기초한 행동을 할 때 더 이상 전통적인 ‘설득력 구조’를 따르지 않는다. 이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가치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은 인터넷과 사이버스페이스 속의 가상현실이다.

19. 현대인들에게 새롭게 부각되는 설득력 기제와 의사소통의 구조는 무엇인가? 전통과 권위가 사라진 현대 사회를 여전히 하나의 사회집단으로 결속해 주는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21세기 현대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설득력 구조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뉴미디어가 텔레비전 방송과 무선 인터넷이다.

20. 오늘날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가상공간 속에는 거의 무한대의 지식과 정보 콘텐츠가 넘쳐난다. 뉴미디어 기술 덕분에 현대인은 이전 인류와 비교할 수 없는 거의 무한대의 지식과 정보를 확보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뉴미디어 생태계가 앞으로 인류에게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그 이유는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가상세계는 사람이 항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잠깐 보여주는 창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 창문이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창문은 현실 세계를 향하여 열린 창문이 아니라 그럴듯한 현실감이나 현장감, 또는 현존감을 제공하는 시뮬라크르의 창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1. 가상공간에서는 자아의 분신인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나 시뮬라크르와 상호작용을 즐기더라도, 자아는 결코 사이버 공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하거나 지속할 수 없다. 자아가 살아내야 하는 세계는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가상현실 세계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접촉할 수 있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 세계이다.

22. 가상세계가 제공하는 실제감이나 기시감, 현장감, 혹은 현존감은 중요한 차원에서는 실제 현실 세계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상 세계가 제공하는 실제감이나 현장감은 그러한 시뮬라크르를 제공하는 미디어 권력의 수사적인 의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23. 옛날이나 지금, 혹은 앞으로도 소통이 진행되는 모든 공간에는 소통 당사자들의 권력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비평의식이 없으면 소통 과정 전체가 권력 의지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통 매체는 권력으로부터 결코 중립적일 수 없고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되는 시뮬라크르 속에는 현실과 다른 이미지를 소통하려는 미디어 권력의 의지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특정한 시공의 환경에 참여하는 참여 당사자들은 반드시 그 시공 환경을 주도하고 소통을 장악하려는 권력 의지를 형성한다.

24. 겉으로는 소통 참여자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 정신이 미디어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 대중이 미디어 권력이 주도하는 왜곡된 시뮬라크르의 통제력에 맞서기가 쉽지 않다.

25. 그렇다면 실제 현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현장감(또는 현존감)과 가상현실 속의 왜곡된 시뮬라크르로부터 얻는 현장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현실 세계에서 소통을 하거나 상호작용할 때 소통의 당사자들이 확인하는 현장감과 실제감은 특정한 시공의 고유한 물리적인 환경 속에 공존함으로 발생하는 현장감이고 실제감이다. 그 현장감과 실제감은 그 시공의 환경 속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막연한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다. 소통 당사자가 특정한 시공의 고유한 물리적인 환경 속에 상대방과 함께 공존하면서 면대면 상호작용하여 나누는 소통 사건에서는 머리에서 인식하는 메시지의 내용과 그 내용이 지시하는 실제 대상 사이에 이상적으로는 소통의 일치도가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다. 현실 세계 속에서 소통할 때의 자아가 느끼는 현장감과 실제감은 그 느낌이 지시하는 실제 시공의 소통 환경이나 소통

대상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26. 널 포스트만에 의하면 TV나 인터넷과 같은 전자 미디어 시대 이전에는 정보 수용자 편에서의 정보-행동의 일치도가 매우 높아서, 소통되고 공유되는 정보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행동-가치(action-value)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온갖 정보와 이미지들이 무한대로 쏟아지자, 행동-가치가 배제된 정보로 변질되면서 정보 수용자의 실존적인 삶이나 실천적인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보 무력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27. 이렇게 실제 세계가 제시하는 현존감과 가상공간의 시뮬라크르가 제시하는 환상적인 기시감이나 현존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시뮬라크르의 환상이 때로는 실제 세계에 대한 이해와 그 대응 능력을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많은 사람이 휴대전화나 무선 인터넷에 빠져들고 있다.

28.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제시하는 가상세계와 그 세계에서 매개된 소통에 참여하는 사이버 자아, 그리고 조작된 시뮬라크르는 결코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 현실 세계를 대체하지 못하며, 뉴미디어 생태계가 발전할수록 두 세계 사이의 괴리감과 이질감 역시 증대할 것이다.

평가

인터넷과 모바일이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요즘 매스 미디어의 문제를 설교학적으로 관점에서 고찰한 저자의 논문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오늘날 성도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가상현실에 빠지는 이유는 가상현실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는데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상세계에서는 실제 세계에서는 이를 수 없거나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보지 못한 것을 여행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가상세계가 갖는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가상세계는 현실 세계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그렇다. 또한 가상세계가 주는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왜곡된 형태로 현실을 이해하고 반응한다.

둘째, 이 논문을 통해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말씀과 괴리되고 있고 좀체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설교자의 말보다 가상현실이 제공하는 정보가 더 설득력을 갖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설교자의 말보다 가상현실이 제공하는 정보를 더 신뢰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성도들 사이에서 가짜 뉴스가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삶의 변화를 말하는 목회자의 설교가 성도의 삶 속에서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질문

첫째, 저자는 면대면 소통이 배제된 사이버상에서의 소통은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하면서 현실의 시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은 반대로 왜곡이 가능성이 없거나 낮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의 면대면 소통에서도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고 싶다.

둘째, 가상공간에서 기독교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기독교에 대한 폄박이나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와 같이 면대면 예배가 불가능할 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해야 하는가?

성과 세대와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 사이버 세계의 영향은 무차별적이다. 이에 대한 목회적, 신학적 논의와 대안이 절실한 이유이다. 이런 때에 귀한 논문을 통해 새로운 통찰과 더 많은 논의를 위한 디딤돌을 놓아주신 이승진 교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한국 신학계에서 사이버 세계의 영향력과 이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응, 나아가 기독교의 입장에서 사이버 세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한다.

제 8 발표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중년기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 현상학적 연구

김 보 연 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 상담심리학)

■ 초 록 ■

본 연구의 목적은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중년기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를 현상학적으로 기술하고 그 적응 과정을 목회 상담자로서 돕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질적 연구 방법 중에 폴 프렌시스 콜라지(Paul Francis Colaizzi)의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성인애착유형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를 통해 불안정 애착과 회피 애착이 높다고 여겨지는 크리스천 중년기 여성 10명 중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7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진행은 연구 참여자 7명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심층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중년기 여성들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 원인을 중년기 요인과 자녀와의 관계 요인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심리적 증상과 신체적 증상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양육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자신들이 어릴 때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생긴 불안정 애착 경험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주 양육자와의 사이에서 부정적인 경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 즉 좋았던 경험도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또한 주 양육자가 자신을 미워해서 정상적인 애착 형성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애착 형성이 불가능한 환경이었음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었다.

둘째, 참여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불안정 애착이 자신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중년기 위기를 극복하는데 장애가 됨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불안정 애착 경험이 자신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심한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셋째, 참여자들은 자신의 불안정 애착 경험이 자신의 성장과정 뿐 아니라 대인관계, 사회생활, 신앙생활 등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넷째,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면접상담 과정 중에 자신들이 경험한 스트레스의 본질이 무엇인지 편안하게 진술하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참여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려면 연구자 자신이 불안정 애착 경험을 점검하고 상담을 통해 회복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 째, 참여자들은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자의 지지를 통해서 자신이 보호받고 이해받고 있음을 알게 되어 안정 재 애착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불안정 애착 경험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불안정 애착 경험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자는 자신이 어릴 때 거부당한 경험으로 인해 하나님께도 거부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교회 공동체는 이들이 안정 재 애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 공동체는 평신도 리더나 목회 상담자를 안정 재 애착 형성의 전문가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문가 훈련은 중년기 성도들의 성숙과 교회 공동체의 기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불안정 애착, 중년기 여성, 양육 스트레스, Colaizzi의 현상학

I. 들어가는 말

현대 사회는 의학의 발달로 개인의 수명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 국가통계포털 조사결과를 보면 평균 기대수명이 여자 85.4세, 남자 79.3세로 대부분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산다고 한다. 이렇듯 긴 생애 중에서도 자녀 양육의 중추적 역할

을 담당하는 중년기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 결과로 자녀 양육에 있어 사랑과 돌봄이 결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통계 포털에서 조사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통계를 보면 매우만족 0.24%, 만족0.80%, 약간만족 1.22%, 보통 6.10%이다.¹⁾ 반면 약간 불만 9.35%, 불만족 42.89%, 매우 불만족 8.42%, 모름/무응답 5.22%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간 관계를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도 안 되는 반면에 관계에 불만족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전체 응답의 60%를 차지한다. 이러한 부모 자녀 관계의 불만족은 후에 사회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에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방송에서 인천에 사는 17세 여고생이 어린아이를 유인, 납치하여 살해한 강력 사건이 발생하여 보도되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릉에서 10대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랑과 돌봄의 결핍으로 인해 가정, 더 나아가 지역 사회가 정상적인 양육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지지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부모가 ‘안전기지’로서 자녀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 재에착을 형성하면 자녀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여기고,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²⁾

일반적으로 중년기에 들어선 어머니들은 동시에 청소년기나 청년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전환기에 들어서게 된다. 이 때 중년기 어머니는 자녀들의 신체적 성장에 발맞춰 심리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해야 하고, 자녀들과 반영적 의사소통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심리적 성장의 중심에 해당하는 자아개념과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³⁾ 하지만, 중년기 여성이 양육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중년기 여성은 신체적, 정서적, 관계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양육 스트레스는 더 과중하다고 볼 수 있다.⁴⁾ 자녀 양육스트레스는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낳고 가족의 응집력과 결속력을 약화시킨다. 특히 중년기의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신체적 문제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여러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년기에 느끼는 위기 경험은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그 중에서 여성이 원 가족 안에서 겪은 관계적 갈등이나 불화 등이 큰 변인이

1) 국가통계포털, kosis.kr/ (2006년~2014시점)

2) Mario Mikulincer & Phillip R. Shaver, Attachment in Adulthood: Structure, Dynamics, and Change (New York: Guilford Press, 2007), 7-9.

3) 이근홍,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고양: 공동체, 2006), 132-133.

4) 홍은선, 민경화, “중년 여성의 성인 애착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탈중심화, 수용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4) (2016): 587-611.

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는 부모가 그 부모세대와 형성한 애착관계와 큰 관련이 있으며 부모세대로부터의 불안정애착 경험이 극복되지 못할 때는 자녀와의 갈등으로 대물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이 본 연구자가 불안정 애착에 주목한 이유다. 부모세대와의 애착의 질은 양육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와 가족 기능에도 파급력을 지닌다. 이 결과는 주 양육자인 부모가 본인의 어린 시절에 어떠한 양육을 받았는지, 원 가족에서의 애착의 질이 자녀의 양육 태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년기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로 위기감을 느낄 때 이를 잘 인지하고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자가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내담자들은 거의 중년기 크리스천 여성들이다. 연구자는 이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을 크게 세 가지로 발견하였다. 첫째, 내담자들은 대부분 과거에 주 양육자와의 불안정 애착을 경험하였다. 둘째, 이들은 공통적으로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증상과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셋째, 이들은 대부분 양육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들이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 현상의 본질은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해당 연구는 내담자들이 겪고 있는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현상을 고찰하여 목회상담자로서 그 극복과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한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 아닌 탐색적 연구임을 밝힌다.

1. 불안정 애착

신디 하잔(Cindy Hazan)과 필립 셰이버(Philip R. Shaver)는 연구를 통해 애착회피는 타인에 대한 표상, 애착불안은 자신에 대한 표상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유아기 때 형성된 주 양육자와의 애착 경험은 개인의 성장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에는 주 양육자와 애착이 잘 형성된 경우는 청소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어 안전기지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애착은 개인의 성격 발달과 대인관계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끼치며, 아동기를 넘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⁵⁾ 켈리 브레넌(Kelly A. Brennan)과 캐더린 클락(Catherine L. Clark)과 필립 셰이버(Phillip Shaver)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차원으로 이해하였다. 애착불안은 관계에 매달리고 유기와 거부에 대해 두려워하며, 애착회피는 친밀한 관계와 대인관계에서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다.⁶⁾

5) Cindy Hazan & Philip R. Shaver,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1987): 511-524.

진미경은 애착불안은 자기중심성과 관련해 통제지배가 상대적으로 높은 정적 관련이 있으며 대인관계 문제는 모두 정적 관련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즉, 애착 불안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만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며 거부당하거나 버림받을까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크다. 이러한 애착 관련 두려움으로 인하여 건설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관계에 집착하고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통제하려는 모습은 대인관계를 통한 거절이나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⁷⁾

홍진이와 한기백은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모 애착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신뢰와 정서적인 보살핌을 경험하게 되므로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적게 느끼고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거절에 대해서 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부모와 안정 애착으로 자신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자신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⁸⁾ 즉 부모와 안정 애착이 형성된 경우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반대로 불안정 애착이 형성된 경우 부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표상을 갖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이 버림받거나 거부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관계에 집착하거나 매달리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2. 양육 스트레스

파울라 에라즈리즈-아레라노(Paula Errazuriz-Arellano)와 엘리자베스 하비(Elizabeth Harvey)와 다라 타카르(Dhara Thakar)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사회적 지원 여부, 어머니의 우울정도, 어머니의 성격, 부모의 애착관계, 배우자의 지원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양육 스트레스는 결국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⁹⁾ 성인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양육자의 우울증이나 성격과 같은 정신적 특성이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다고 보고하고 있다.¹⁰⁾ 예를 들어, 자

6) Brennan, K. A., Clark, Catherine L., & Shaver, P. R.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Press, 1998): 46-76.

7) 진미경, "대학생의 성인 애착과 대인관계문제 및 이성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6(4) (2013): 285-300.

8) 홍진이, 한기백,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5) (2015): 367-389.

9) P. A Errazuriz Arellano, E. A. Harvey, and D. A. Thakar,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Parenting Practices," *Family Relations* 61(2) (2012): 271-282.

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이고 일에 대한 만족감을 가진 어머니들은 양육 스트레스를 덜 지각했다.¹¹⁾ 반면 우울하고 자기 효능감이 낮은 어머니 집단에서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¹²⁾

이팅 창(Yiting F. Chang)과 마크 파인(Mark A. Fine)는 자녀 기질과 관련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해 연구를 하였다. 자녀의 기질이 까다로운 기질일 경우, 자녀의 성마름 때문에 어머니는 더욱 예민해지고 이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서 어머니의 자기 효능감이 감소하고 양육 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에 따라서 경감된다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 특히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이 양육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카타르지나 루비에프스카(Katarzyna Lubiewska)와 로무알드 더비스(Romuald Derbis)는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와 애착 그리고 삶의 만족의 상호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이 클수록, 그리고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이희정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양상을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 행동이 어려워져 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였다.¹⁶⁾ 정희정은 ‘영유아기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대해 부모가 갖는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탐색’ 연구를 통해 부모로서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자녀 양육방법에 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부모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상담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본 결과 2010년에는 19.5%에서 2015년에는

10) M. S. Park & J. Kim, "Casual Study of Parenting Efficacy Based on the Effect of Parental Resources and Parenting Stress in Low Income Family,"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Quarterly* 17(1) (2013): 179-198.

11) M. Mulrow, Y. M. Caldera, M. Pursley, & A. Reifman, "Multi level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2002): 944-956.

12) S. T. Lipscomb, L. D. Leve, G. T. Harold, J. M. Neiderhiser, D. S. Shaw, X. Ge, & D. Reiss, "Trajectories of Parenting and Child Negative Emotionality during Infancy and Toddlerhood: A Longitudin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82(5) (2011): 1661-1675.

13) Y. F. Chang & M. A. Fine, "Modeling Parenting Stress Trajectories among Low-Income Young Mothers Across the Child's Second and Third Years: Factors Accounting for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4) (2007): 584-594.

14) R. L. Brock & E. Lawrence,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Stress Spillover in Marriage: Does Spouse Support Adequacy Buffer the Effec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1) (2008): 11-20.

15) Katarzyna Lubiewska and Romuald Derbis, "Relations between Parenting Stress, Attachment, and Life Satisfaction in Mothers of Adolescent Children," 14(2) (2016): 87-112.

16) 이희정,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예측변인과 중단적 변화: 어머니 양육 행동과 유아의 또래 방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패널」 36(4) (2015): 209-227.

48.1%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상담 내용도 영유아기 자녀 행동에 관한 상담에서 부모의 개인 내적인 심리 상담을 해 주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상담을 의뢰한 부모의 문제가 단순한 양육 기술의 부족이 아닌 개인 내적인 통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¹⁷⁾ 이것은 곧 현대 사회가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에 있어 요구하는 수준이 높고 많은 책임을 전가하여 부모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⁸⁾

II. 이론적 배경

1. 애착에 대한 이해

애착은 존 보울비(John Bowlby)가 처음 사용한 이론으로 애착이란 ‘정서적 유대 관계로서 어머니와 유아간의 정서적 유대’를 정의하는 용어이다. 보울비는 애착을 ‘유아와 양육자 사이에서 생후 1년 동안 형성된 특별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즉, 애착이란 가까운 사람과 연결하려는 지속적인 정서적 결속뿐만 아니라 위협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다른 사람에게 접근 및 유지가 손상되었을 때 회복하려는 행동이다.¹⁹⁾ 유아는 애착대상인 어머니와 상호작용을 추구하고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이 때 어머니가 유아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하면 유아는 어머니와 안정애착을 형성하게 된다.²⁰⁾

초기 애착이론은 애착행동에 대해 주 양육자의 민감한 반응을 촉진하여 영아의 생존을 보호하게 된다는 생존기제 개념으로 시작되었다. 인간은 생애 초기부터 양육자로부터 돌봄과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심리적 기제를 가지고 태어난다. 보울비는 이를 영아의 행동 중 젖 빨기, 울기, 미소 짓기, 따라다니기 등에서 발견하여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애착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보울비는 이러한 행동이 영아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뿐만 아니라 의미있는 대상과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기초가 된다고 했다.²¹⁾

17) 정희정, “영유아기 자녀의 부적응행동에 대해 부모가 갖는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탐색”, 『한국치료놀이학회지』 6(1) (2106): 37-51.

18) 정희정, “성경적 상담을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박사청구논문, 총신대학교, 2008), 1.

19) 김유진, “영아의 안정애착 유발요인 연구”, 『대한아동복지학회』 2(2) (2004): 1-15.

20) John Bowlby, Attachment, 김창대 역, 『애착: 인간애착행동에 대한 과학적 탐구』 (과주: 나남, 2009), 273-278.

21) John Bowlby,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1958): 350-73.

도널드 위니컷(Donald Winnicott)은 “모성적 환경을 떠난 아기란 생각할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그는 유아의 발달을 어머니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단계에서 점차 상대적 의존을 거쳐 독립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육자가 유아의 불안을 충분히 안아주고 유아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어야 하지만 동시에 유아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양의 환경적 실패를 경험하게 하여 현실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니컷은 충분한 돌봄과 약간의 환경적 실패를 경험하도록 돌보는 이러한 어머니를 ‘충분히 좋은 어머니’라고 표현했다. 그는 어머니를 두 형태로 나눠 설명한다. 첫 번째 어머니는 아이를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해 주고 자율적인 자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대리자 역할을 한다. 이러한 어머니를 위니컷은 ‘환경 어머니’라고 불렀다. 환경 어머니는 크게 ‘안아주기’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쓰지만 이는 전체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두 번째 어머니는 ‘환경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아이가 젖을 빨거나 사랑도 했다가 미워도 할 수 있는 가상의 존재인 ‘대상 어머니’이다.

위니컷의 ‘환경 어머니’의 개념은 보올비의 ‘안전기지’를 제공하는 어머니와 비슷한 개념이다.²²⁾ 또한 위니컷은 충분히 좋은 엄마로 안아주기를 제공하려면 양육자 자신이 먼저 경험해야 한다고 했다.²³⁾ 애착이론에서 애착의 지속성과 비슷한 주장이다.²⁴⁾ 애착 이론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관찰에 기초를 둬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시켰으며, 정상적 발달을 관찰하여 정신병리를 이해하고 치유적 도움을 주는데 기여하였다.

가. 안정 애착 이해

유아는 주 양육자인 엄마와 분리될 때 한동안 분리불안으로 인해 엄마를 부르거나 따라가려 하고 때로는 고집스럽게 엄마를 찾는다. 하지만 몇 번의 분리와 재회를 통해서 안정 애착된 유아들은 주위를 탐색하기 위해 어머니와도 떨어지고 낯선 사람에게도 관심을 보인다. 어머니와 재 결합시 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하고 어머니와의 접촉에 의해 쉽게 진정되어 안정을 찾고 다시 탐색에 집중하는 행동을 보인다.²⁵⁾ 안정 애착 유형의 특징은 어머니를 안전기지로 삼아 낯선 환경에서도 즐거움과 자신감과 호기심을 갖고 환경을 탐색하며 놀이에 몰두하고 양육자와 떨어질 때 적절히 고통을

22) 대상 어머니는 환상적 존재로서 아기의 창조물이며 자신의 일부를 투사한 것으로 관찰 가능하고 경험 가능한 보올비의 양육자 엄마와는 일지하지 않는다.

23) Donald Winnicott, *The Maturation Processes and The Facilitating Environment*, *Studies in the Theory Emotional Development*, 이재훈 역, 『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68-70.

24) Donald W. Winnicott, *The Child and the Family: First Relationships* (New York: Routledge, 2007), 19.

25) 정옥분, 정순화, 황현주, 『애착과 발달』 (서울: 학지사, 2015), 41.

표현할 줄 알고 재결합할 때 쉽게 진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머니와의 안전한 관계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을 갖고 있는 유아들의 반응이다.²⁶⁾

유아가 안정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 첫째, 유아의 요구에 신속하고 민감하게 양육자가 반응하고, 둘째, 유아 스스로 믿음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고, 셋째, 양육자가 따뜻한 사랑과 돌봄으로 일치된 의사소통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요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한마디로 ‘안전기지’가 되어준 것이다. 실제로 안정형 유아를 둔 어머니는 대체로 감수성이 높았다. 이를 ‘응답성’이라고 하는데 유아의 바람이나 욕구를 재빨리 파악하고 즉각 상응하되 아이가 원하는 수준 이상으로는 하지 않고 유아의 요구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다.²⁷⁾

안전기지가 되어 준 양육자 밑에서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자라서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잘 맺고 혼자 있을 때도 편안하고 안정적이다. 이런 유아는 감정 조절도 잘 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도 가지고 있다. 자신과 남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있기 때문에 자신과 남 모두를 존중할 줄도 한다. 안정 애착유형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객관적으로 보는 메타 인지가 발전하게 된다. 이런 사람은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안정 애착이 주는 기여도이다.²⁸⁾

나. 불안정 애착 이해

불안정 애착은 부모의 무관심이나 일관되지 않은 행동, 학대 같은 부적절한 양육 태도에서 형성된다. 흔히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은 가까운 관계에도 안정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을 경험하기도 하고 타인에게 다가가고 깊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까워지면 심리적 압박을 느끼기도 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원하나 막상 혼자 있게 되었을 때는 고독감으로 힘들어하기도 한다. 이처럼 불안정 애착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 이를 회피애착, 저항애착, 혼란애착 3가지로 분류하여 유형화하였다.

1) 회피애착 유형의 유아들은 주 양육자와 떨어져 있을 때 저항하지 않고 문 앞까지 따라가거나 우는 것 같은 애착 행동을 하지 않아 겉으로 보기엔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으로 더 적은 호기심이나 인내심을 보이며 놀이를 계속 진행한다. 자기세계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립심이 강한 것 같고 담담해 보인다.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돌아와도 회피하고 강한 신체 접촉도 보이지 않고 안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 유형은 주 양육자의 양육기술이 떨어지고 유아가 신호를 보낼 때 민감하게 반응해 주지 않은 경우에, 부모 자신이 대인관계에서 회피적인 관계를 맺고 있

26) Mario Marrone, Attachment and Interaction, 이민희 역, 『애착이론과 심리 치료』, 77.

27) Takaeshi Okada, Aichaku Approach, 이정환 역, 『애착수업』 (서울: 푸른숲, 2018), 78.

28) Takaeshi Okada, Aichaku Approach, 이정환 역, 『애착수업』, 86.

을 때 발생한다.²⁹⁾

2) 저항애착 유형의 유아들은 낯선 사람에 대해 경계를 보이고, 불안해하며 어머니 옆에 계속 붙어 있으려하고 놀이에 몰두하지 못한다. 어머니와 분리될 때도 심한 분리불안을 보이며 힘들어 한다. 어머니에게 달려가 위안을 얻는 것 같지만 마지못해 안겨 있는 듯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³⁰⁾ 주 양육자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몹시 힘들어하고 화가 나 있다. 이들은 불안해하고 지나치게 매달리고 의존성이 심하고 저항감도 뒤섞여 있다. 이 유형은 주 양육자가 관심을 끌려는 유아의 신호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머니의 비 일관적인 양육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3) 혼란애착 유형의 유아들은 회피와 복합된 반응을 보인다. 낯선 상황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돌아오면 처음에는 다가서서 안겼다가 이내 화난 듯이 밀어 버리거나 어머니에게서 떠나는 양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접촉에 대한 욕구는 강하나 어머니로부터 무시당하거나 학대를 받는 데서 오는 공포가 공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³²⁾ 주 양육자와 재결합 시 어찌할 줄을 몰라 당황하는 반응을 보이고 비조직적이며 혼란되고 방향성이 없는 행동패턴을 보인다.³³⁾ 이런 유형은 아이가 주 양육자에게 위로받고 안정감을 느껴야 할 상황에 양육자가 가학적인 행동으로 아이를 두려움과 공포에 빠뜨린 경우에 주로 형성된다.³⁴⁾

위와 같은 불안정 애착경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유아는 과도한 불안, 좌절, 수치심, 죄책감 등을 느끼게 된다. 이로써 유아는 자신을 점점 무가치하게 여기게 되어 심리, 성격구조에 병리적 문제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2. 중년기 여성 이해

중년의 문제를 많이 연구한 학자는 융이라 할 수 있다. 융은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을 호소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 중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고

29) Karl Heinz Brisch, Bindungsstörungen Von Der Bindungstheorie Zur Therapie, 장휘숙 역, 『애착장애의 치료: 이론에서 실제까지』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9), 31.

30) 정옥분, 정순화, 황현주 공저, 『애착과 발달』, 42.

31) Jeremy Holmes, John Bowlby & Attachment, 이경숙 역, 『존 볼비와 애착이론』, 174-175.

32) David J. Wallin, Attachment in Psychotherapy, 김진숙, 이지연, 윤숙경, 『애착과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2018), 43-45.

33) K., Lyons-Ruth, B., Repacholi, S., Mcleod, & E. Silva, "Disorganized Attachment Behavior in Infancy: Short-term Stability, Maternal and Infant Correlates, and Risk-Related Subtyp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 (1991): 377-396.

34) Colby Pearce, A Short Introduction to Attachment and Attachment Disorder, 이민희 역, 『애착장애의 이해와 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1), 32-33

한다. 그는 연구를 통해 무기력의 원인이 중년에서 오는 신경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³⁵⁾ 융은 중년기를 35세~40세로 보고 인생을 반으로 나누어 두 번째 시기의 출발로 보았다. 이 시기는 주요 변화와 전환의 가능성에 직면하는 시기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믿었다. 융은 삶의 활력이 사라졌을 때는 전환의 가능성으로 유익한 변화를 위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⁶⁾ 인생의 전반기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 및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간다면 후반기는 자신의 내면을 무의식의 세계, 자신의 욕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즉 전반기에는 의식의 세계를 세우고 후반기에는 무의식의 세계를 다져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중년여성들은 시대적으로 앞의 세대를 섬기고 뒤의 세대를 돌보느라 정신을 다해 살아온 세대이다. 우리나라 중년여성들은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자신의 정서적 표현을 억제하는 모습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온 세대이다.³⁷⁾ 중년기의 신체적 변화와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한 뒤 생기는 역할의 변화로 자신의 삶에 회의를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는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다.

바르다 뮐라우어(Varda Muhlauer)와 조앤 크리스러(Joan C. Chrisler)는 중년기에 경험하는 노화는 인생주기의 변화에 있어 경험, 성숙, 발달에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은 중년기의 변화에 대해 자신을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³⁸⁾ 과거의 연구는 중년기를 건강과 질병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나 현대는 신체, 정신, 사회 측면의 통합체로 인식하며 심리사회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설리반은 중년기 여성은 자녀의 성장으로 인해 지금까지 해오던 역할이 감소될 뿐 아니라 자녀를 훈육할 때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자녀가 어머니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 자녀 양육에 한계를 느끼고 갈등을 하게 된다. 자녀 양육으로 인해 자아발견과 생활 만족감에 혼란이 오면서 자아정체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³⁹⁾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경험하는 갈등을 미숙하게 대처함으로써 좌절감과 죄책감으로 스트레스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우경은 한국인의 정서에 의해 압력을 받는 여성은 개인보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이나 고립감

35) Carl G. Jung, *Man and His Symbols*,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이부영 편 (서울: 집문당, 1983). 109.

36) 김서정, “중년남성의 외도경험에 관한 현상” (박사학위논문, 서울벤처대학원, 2017), 8.

37) 이상복, “화병에 관한 목회상담 기법연구”, 『목회와 상담』 18 (2012): 84-121.

38) Varda Muhlauer, Joan C. Chrisler, *Women over 50: Psych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Springer, 2001), 29-31.

39) Kenneth Sullivan, Anna Sullivan, “Adolescent-Parent Sepa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6(2) (1980): 93-99.

과 분노가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였다.⁴⁰⁾ 억압된 스트레스는 많은 통제
로 이어질 수 있고 자녀들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받지 못하여 불안정 애착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민감한 성격이 될 수도 있
다.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여성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신경이 과민해져 건강염려증과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대인관계에서도 자신이 공감 받지 못하거나 수용 받지 못
할 때 공격적으로 변하여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⁴¹⁾

3. 양육 스트레스 이해

양육 스트레스란 ‘자녀 양육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어려움과 곤란으로 인해 부모
가 역할에 대한 불편함과 부담감을 경험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이다.⁴²⁾ 양육 스트레
스는 부모라면 누구나 경험하지만 반복하여 매일 경험하고 누적되는 경우, 또 그 정도
가 심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의 안녕에 심리
적으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하게 된
다. 결국 양육 스트레스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들다고 느끼게 되는 어려움과
부담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⁴³⁾

웨슬리 백커(Wesley Becker)는 양육태도를 ‘주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
나는 내면적이고 외면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전 생
애 발달에 영향을 주고 인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영유아기
시기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애착 관계가 형성된 경우 자녀들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지만 불안정애착 관계가 형성된 경우 심한 공격성과 불안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시기 일관된 주 양육 대상과 그와의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⁴⁴⁾
양육 스트레스가 높으면 삶에 대해 만족감이 없어지고 자신 뿐 아니라 가족과 자녀와
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초래한다.⁴⁵⁾

40) 이우경, “중년기 여성의 스트레스, 마음챙김, 자기: 자애, 정서적 안녕감간의 관계 구조분석
과 마음챙김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8), 172.

41) 김용태, 『중년의 배신』 (서울: Denstory, 2016). CD 1, 2.

42) 남미애, “청소년양육 미혼모의 우울과 전반적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44) (2013): 1-20.

43) 조영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련성
탐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07), 22.

44) W. C. Becker,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 of Parental Discipline. Eds. In Review
Child Development Research, M. L. Hoffman & L. W. Hoffma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1964), 169-171.

45) K. A. Crnic, & M. T. Greenburg, “Transactional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mily
Style, Risk Status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in Two Year Old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12 (1990): 343-362.

리차드 아비딘(Richard R. Abidin)은 양육 스트레스의 원인을 유아의 특성, 부모의 특성,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양육 스트레스가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부모의 능력이나 기질과 성향에 따라, 자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며 양육 스트레스를 다르게 인식하고 지각한다고 주장했다.⁴⁶⁾ 그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자녀도 부적응 행동으로 변화되어 공격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정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⁴⁷⁾

양육태도는 그 가정만이 갖고 있는 고유 문화양식으로,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고 보호할 때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이다.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해 교육하는 모든 행동에 대한 반응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내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는 자신의 부모에 의해 습득된 양육태도를 자신의 자녀에게 전수하고, 또 그 자녀들이 결혼하여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⁴⁸⁾

III.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은 20세기 초 에드먼드 후설(Edmund Husserl)에 의해 제창되었다. 후설이 살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실증주의와 역사주의가 팽배했던 시기였다. 후설은 어떻게 다양한 학문 분야에 하나의 시각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학문적 의문을 제기하며 현상학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각 학문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밝히고 학문의 기초를 마련하는 일련의 시도를 하였다.⁴⁹⁾ 현상학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기술하여 경험한 본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⁵⁰⁾ 현상학적 주요개념은 지향성(Intentionality), 생활세계(Life World), 판단중지(Epoche), 현상학적 환원(Phenomenological Reduction), 자유변경(Free Variation)이다.

46) Richard R. Abidin, "The Determination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1(1992): 407.

47) Richard R. Abidin, "The Determination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1(1992): 412.

48) 남명자,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2011), 58.

49) Edmund Husserl, *Ideen Zu Einer Reinen Phanomenologie und Phanomenologischen Philosophie*, 이종훈 역, 『순수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 1』, 50-51.

50) 권향원, "현상학과 사회과학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5(1) (2016): 357.

가. 지향성(Intentionality)

지향성은 의식의 본질 구조로서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항상 무엇에 관한 의식으로서 대상을 향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⁵¹⁾ 이는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의식하는 것은 언제나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은 서로 불가분적으로 상호관계성을 갖게 된다. 이 상호관계성은 직접 현장을 체험하면서 현상학적 시선전환을 통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⁵²⁾

나. 생활세계(Life World)

생활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실제로 이들이 사는 일상생활 세계를 의미한다.⁵³⁾ 생활세계는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이나 앎의 터전인 동시에 우리의 체험이 일어나는 곳이다.⁵⁴⁾ 생활세계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 그 양상은 다르게 보이게 된다. 따라서 연구자의 경험은 연구자의 관점과 태도에 상응하는 세계가 되고 이 세계를 연구자가 경험한다는 것은 현상의 본질을 탐색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⁵⁵⁾

다. 판단중지(Epoche)와 현상학적 환원(Phenomenological Reduction)

판단중지와 현상학적 환원은 연구자의 자세로 지향성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지식, 선 이해, 선입견 등을 의식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음으로 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여 옳은지 혹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다.⁵⁶⁾ 판단이 중지된 지식이나 선입견은 판단중지를 통하여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⁵⁷⁾ 현상은 괄호치기 작업을 통해 환원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를 현상학적 환원이라 한다.⁵⁸⁾

51) 이종훈, 『후설 현상학으로 돌아가기』 (과주: 한길사, 2017), 527.

52) Edmund Husserl, 신오현 편역, 『심리현상학에서 선행현상학으로』 (서울: 민음사, 1994), 141.

53) 김홍우, “현상학과 삶의 정치”, 『한국행정학회』 (2008): 263-279.

이정빈, 『질적 연구방법과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8), 50.

54) 이근호,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현상: 독특성과 보편성 사이의 변증법적 탐구양식”, 『교육인류학연구』 10 (2007): 41.

55) 이근호, “질적 연구방법론으로서의 현상: 독특성과 보편성 사이의 변증법적 탐구 양식”, 41.

56) 이남인, “현상학적 환원과 현상학의 미래” 89-121.

57) 김영천, 정상원, 『질적연구방법론 V: Data Analysis』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2017), 434.

58) 김영천, 정상원, 『질적연구방법론 V: Data Analysis』 434-435.

라. 자유변경(Free Variation)

자유변경은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다.⁵⁹⁾ 우리가 어떤 것을 체험할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 속으로 입력된다. 그러면서 체험자의 의식이 개입이 되고, 편집 혹은 왜곡될 수 있다. 그 체험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본질로 볼 수 있는지 명료한 형태로 밝히는 수단인 것이다.⁶⁰⁾ 자유변경을 통해 체험 안에 있는 것들을 의미단위로 변경하여 본질을 찾아낸다. 종합하면 현상학적 연구는 체험을 탐구할 때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식과 선 이해를 판단중지하고, 괄호 안에 넣고 떨어뜨려 놓음으로 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를 통해 그것들로부터 해방되어 체험의 본질적 요소와 구조에 접근하게 된다.⁶¹⁾

2. 현상학적 연구방법

현상학의 목적은 인간이 일상 생활세계에서의 주관적 경험과 실존을 회복하는 데 있다. 인간이 경험한 그 자체로 돌아가서 본질을 직관하는 것이다. 현상학은 인간이 경험한 ‘생활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다.⁶²⁾ 또한 현상학적 연구는 현상 확인, 연구의 구조화, 자료수집,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의 현상학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목적은 연구 대상이 경험하는 현상을 기술(Description)하여, 그 본질을 인식하는 것이다. 실증주의는 주체와 객체가 서로 얽혀있는 현상이나 체험의 차원으로부터 주관적인 것을 배제하는 작업을 기초로 하는 반면, 현상학은 주관을 중시하며 주관 앞에 드러난 현상이 함축한 어떤 의미를 탐구한다. 현상학은 인식의 주관성과 객관성을 인정하며 주관과 객관 모두를 실제로서 인정하는 이중성을 지닌다.

현상학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이들의 삶에 의미를 두는 시각에 흥미를 가져야 한다. 이때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고 참여자들이 취하거나 찾는 의미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공감은 타인의 세계관, 경험, 느낌, 입장, 위치에서 보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며, 중립성은 신뢰관계를 촉진하고 연구자가 개방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장기간의 참여 관찰과 비 구조화된 심층적 면접방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공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시각으로 어떤 선입견이나 가설을 지니지 않은 채 연구 참여자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59) 이원일, “기독교 교육 과정론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연구”, 『신학과 교회』, 14 (2000): 357-383.

60) 이남인, “현상학과 질적 연구방법”, 『철학과 현상학 연구』 24 (2005): 91-122.

61) 김영천, 정상원, 『질적연구방법론 V: Data Analysis』, 435.

62) 조수경, “내재화문제를 지닌 학교부적응 고등학생 대상 게슈탈트 집단상담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2017), 65.

진실과 확증과 반증의 증거를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흥미, 관점, 가치, 의미는 물론 편견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3. 콜라지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콜라지는 메를로-폰티(Merleau-Ponty)의 영향을 받은 심리학자로서 인간을 다루는 심리학은 자연과학의 방법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인간과학에서는 생활세계에서 일상의 경험을 통하여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⁶³⁾ 연구방법은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여 주제묶음으로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의 본질적 구조의 타당성을 참여자로부터 다시 확인하는데, 이러한 전후 과정은 주제에 그 의미가 반영되어 주제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게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연구 현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해낸다. 2단계는 의미 있는 진술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중복되는 표현은 배제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재 진술한다. 3단계는 의미 있는 진술과 재 진술로부터 의미를 구성한다. 4단계는 구성된 의미로부터 주제(Theme), 주제묶음(Theme Clusters)으로 범주화한다. 5단계는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철저히 기술한다. 6단계는 선행 단계에서 확인된 경험현상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진술한다.⁶⁴⁾

콜라지는 연구자 자신의 선입견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구하는 동안 이러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인식해야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자는 자신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연구 참여자의 경험의 본질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지각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고 밝혔다.⁶⁵⁾ 이에 본 연구자는 콜라지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크리스천 중년기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 경험과 적응과정을 도출하여 살펴보고 있다.

63) Paul Francis Colaizzi, *Reflection and Research in Psychology: A Phenomenological Study of Learning* (New York: Kendall & Hunt Publishing Company, 1973), 1, 3.

64) 신경림 외, 『질적 연구 방법론』, 251-252.

65) Paul Francis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ical*. S. Valle & King (E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59-62.

IV.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연구 자료 수집

1.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는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얻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왜냐하면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연구하려는 경험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존 크레스웰(John W. Creswell)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는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어야 하고 이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⁶⁶⁾ 이에 연구자는 크레스웰의 주장처럼 연구 참여자의 적절성을 깊이 고려해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첫째로,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크리스천 중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켈리 브레넌(Kelly Brennan)과 캐서린 클락(Catherine Clark) 그리고 필립 셰이버(Phillip Shaver)가 공동 개발한 성인애착 유형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중에 불안과 두려움과 회피애착이 높은 10명을 1차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둘째로, 참여자는 의사통이 가능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크리스천 중년기 여성이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전에 상담으로 신뢰가 형성된 분들로 우선 대상자를 삼았다. 왜냐하면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에 신뢰 형성 정도가 참여자의 자기 노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셋째로, 참여자 본인 사례를 사례연구나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동의한 자여야 한다. 심층면접을 하기 전에 충분히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참여자에 한해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진행하였다. 이에 자발적 참여 의지를 보인 7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 7명은 40세 이상에서 56세 이하의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크리스천 중년기 여성이다. 참여자의 연령은 40~44세 2명, 45~49세 2명, 50~54세 1명, 55세~56세 2명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적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적 배경

| 참여자 | 현재나이 | 학력 | 직업 | 원 가족 | 가족관계 |
|-----|------|----|-----------|----------|--------------------------|
| 1 | 50 | 고졸 | 보험 설계사 | 3녀 장녀 | 딸(20, 대학1), 딸(18, 고2) |

66) John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조홍식 외 역,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서울: 학지사, 2005), 145.

| | | | | | |
|---|----|------|------------|------------|----------------------------|
| 2 | 45 | 대졸 | 주부 | 3남1녀 막내 | 아들(19, 고3) |
| 3 | 43 | 대졸 | 편의점 운영 | 1남1녀 막내 | 아들(17, 고1) |
| 4 | 55 | 고졸 | 주부 | 2남2녀 장녀 | 딸(25, 대학원2), 딸(22, 대학3) |
| 5 | 45 | 대졸 | 네일아트 | 1남8녀 막내 | 딸(19세, 고3) 딸(15세, 중2) |
| 6 | 56 | 대학원졸 | 어린이집 원장 | 1남5녀 막내 | 딸(19, 고3) |
| 7 | 40 | 대졸 | 회사원 | 1남1녀 막내 | 딸(12세, 초등5), 딸(9세, 초등2) |

2. 연구 자료 수집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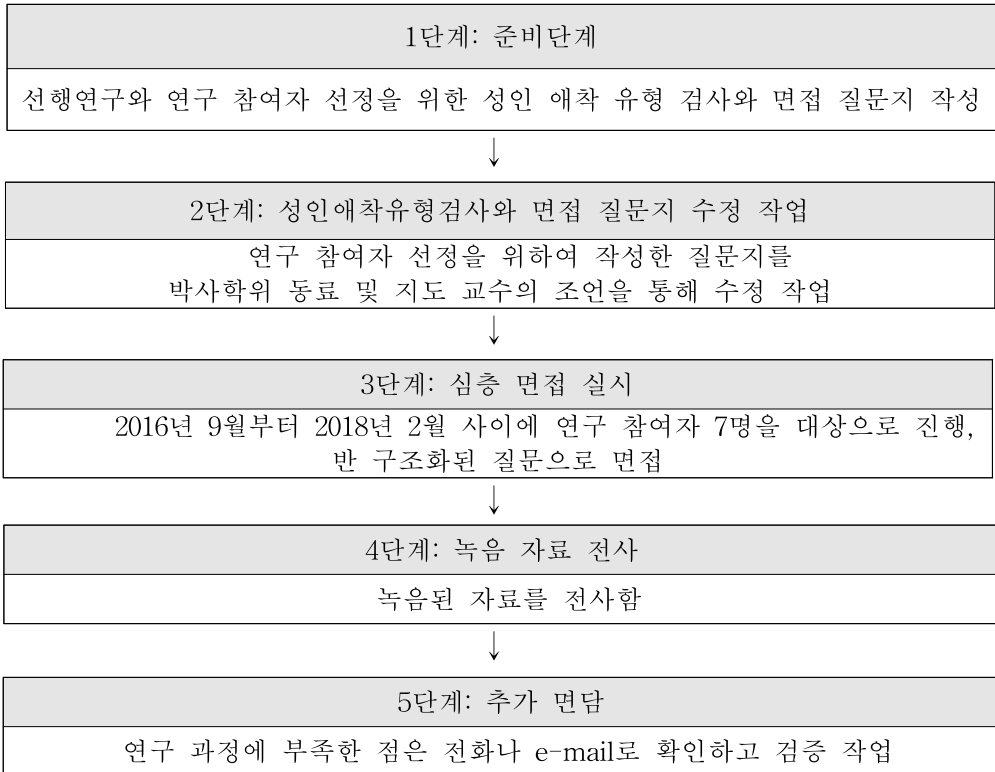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연구 기간이 길었던 것은 연구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연구자는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 여러 번의 검증과 전문가인 박사들의 경험을 토대로 질문지를 수정하였다. 심층 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내용은 반복 청취하고 전사 작업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확한 서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연구자는 참여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심층 면담 기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윤리 서약에 위배되지 않게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면접은 연구자가 소속된 상담소에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주 1회 매 회기 상담 시간은 50분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참여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하도록 라포를 형성하고 신뢰할 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본 연구는 자신의 부모와의 불안정애착을 경험한 크리스천 중년기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자는 면접 질문지를 중년기, 양육스트레스, 자녀관계, 원가족 관계, 배우자 관계로 구분하였다. 또 양육 스트레스의 원인은 주 양육자와 어떤 애착을 형성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 내용으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는지, 어머니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또 원 가족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경험은 무엇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또한 이 경험이 현재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질문하였다. 또 중년기가 양육 스트레스의 요인이 된다고 사료되어 중년기가 시작되었음을 느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중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질문하였다. 또 양육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양육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또 참여자들은 모두 크리스천이기에 신앙 안에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연구를 위해 다음 [표 2]의 자료 수집 과정을 도식화 하였다.⁶⁷⁾

[표 2]

연구자료 수집과정



V. 연구 과정 및 연구 과정 평가

1. 연구 과정

콜라지의 현상학적 연구 절차는 첫째로 참여자의 녹취를 모두 전사하여 읽는 단계이다. 자신이 탐구하려는 현상과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것을 전사하여 읽으며 관련된 감각을 획득한다. 둘째는 의미 있는 문단이나 문장 도출하기 단계이다. 프로토콜 기술 안에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한다. 이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같거나 유사한 문장은 소거하여 통일해 준다. 셋째는 의미 있는 진술 문자화하기 단계이다. 의미 있는 진

67) 정혜숙, 심우찬, “국내 사회복지 질적 연구 논문 심사의 발전적 방향에 관한 탐색”, 「사회복지연구」 48(1) (2017): 55-89.

술들의 의미를 문자로 기술하는 노력이며, 이 노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것으로 도약하는데, 완전한 도약이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진술되어 전사된 글 속에 있는 문장과 구가 구성된 의미와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사된 글 속에 감추어진 의미를 밝혀내고 드러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연구자의 성찰과 그러한 성찰 과정 속에서 현상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넷째는 의미를 주제의 묶음(Clusters of Themes)으로 통합하기 단계이다. 앞 단계에서 도출된 의미들을 주제의 묶음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수행된다. 이는 앞서 논의한 체형의 본질적 구조의 구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는 타당성을 확보하는 단계로 연구자는 구성된 주제의 묶음으로서 기술된 연구 결과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내어 이들로부터 이러한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받는다.⁶⁸⁾

2. 연구 과정 평가

이곤 구바(Egon, G. Guba)와 이본나 링컨(Yvonna S. Lincoln)은 질적 연구의 평가 기준은 사실적 가치(Truth Value)와 외적 타당도인 적용성(Applicability), 신뢰도에 해당되는 일관성(Consistency)과 객관성에 해당되는 중립성(Neutrality)을 따를 때 충족된다고 한다.⁶⁹⁾

첫째, 사실적 가치(Truth Value)는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참여자의 지각과 경험의 진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참여자에게 면담 기록 내용과 분석 결과를 보여주어 연구자가 기술한 내용과 분석 결과가 참여자의 경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⁷⁰⁾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녹음한 내용을 확인하고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생생하게 반영하고자 노력 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자료를 갖고 지도교수에게 자문을 구하고 동료 박사 2인에게 도움을 받아 연구 주제에 의미를 찾고 의견을 나누고 자문을 구하였다.

둘째, 적용성(Applicability)은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를 연구 상황 이외의 맥락에서 연구 자료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적용성은 연구 참여자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또한 참여자가 아닌 다른 대

68) 김영천, 정상원, 『질적연구방법론 V: Data Analysis』, 449-450.

69) Yvonna S. Lincoln and Egon, G. Guba, *Naturalistic Inquiry* (New York: Sage Publications, INC, 1985), 290.

70) Egon, G. Guba and Yvonna S. Lincoln,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2), 103-104.

상자에게 연구 결과를 읽어보게 하여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의미 있고 적용성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⁷¹⁾ 이에 본 연구자는 적용성을 위해 지도 교수와 동료 박사 2 명에게 검토를 받고 특정 상황에도 적용성이 있는지 의견을 나누고 자문을 구했다. 또한 적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대상자에게 연구 결과를 읽어 보게 하였는데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의미 있게 적용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은 양적 연구의 신뢰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결과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학자에게 연구 결과 평가를 의뢰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 과정 전반과 연구 결과에 관해 평가를 받고 주제 범주화에 대한 수정 작업을 거쳐 연구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참여자의 진술 내용을 다른 출처의 자료 내용과 비교하여 일관성을 확인하기도 한다.⁷²⁾ 본 연구자는 지도교수와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연구 계획부터 연구방법, 자료 수집과 분석절차 등의 전 연구과정을 구체적인 평가를 받으며 연구를 진행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넷째, 중립성(Neutrality)은 양적 연구의 객관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 과정과 결과에서 모든 편견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대한 선 이해, 가정, 편견 등을 개인일지에 기술하는 작업을 연구가 완결될 때까지 계속 해야 한다. 또한 면담 자료와 문헌 내용과 자신이 인식한 모든 것을 메모하여 내용들을 상호 비교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⁷³⁾

VI. 연구결과

연구자는 연구를 위해 반 구조화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원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크리스천 중년기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현상과 본질을 잘 드러낸 문장들을 의미단위로 집합하였고 이를 주제와 주제묶음 그리고 범주로 구성하였다. 연구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의미 있는 문장이 206개, 주제가 33개, 주제묶음이 8개, 범주가 3개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3개의 범주화는 ‘양육 스트레스 요인’, ‘양육 스트레스 원인’, ‘문제해결을 위한 접

71) Egon, G. Guba and Yvonna S. Lincoln,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103, 115.

72) Egon, G. Guba and Yvonna S. Lincoln,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122-123.

73) Egon, G. Guba and Yvonna S. Lincoln,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124.

근'으로 구분하여 전개하였다.

1.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 대한 연구자의 분석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을 통해 드러난 현상을 연구자는 진술을 근거하여 분석을 하고자 한다. 참여자들은 초기 면담 시 자신들의 경험을 말하려 할 때 조금은 망설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차분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참여자들은 면담 중 눈물을 보일 때도 있었고 감정이 격해져 진술을 못하고 침묵할 때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면담 환경이 편안해서 큰 부담 없이 말할 수 있었다고 했다. 물론 참여자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듣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 본 연구자는 참여자들과 공감적 경청으로 신뢰 쌓기에 공을 들이며 내담자의 보폭에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 갔다. 때론 면담 시간이 정한 시간을 넘기기도 하고 면담 중 참여자의 침묵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도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훈련이고 본 연구자가 견뎌야 하는 일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원 가족 부모와의 관계에서 거의 모든 참여자들은 아버지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이며 보수적인 성격 때문에 받은 상처와 갈등을 이야기하였다. 몇몇 참여자들은 자신 역시 아버지처럼 나이 들어가면서 힘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베이비붐 세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고 할 일도 많아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였다. 성인이 될 때까지 겪은 아버지의 남존여비 식의 훈육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 병어리 냉가슴 앓듯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지금도 과거에 차별받은 억울한 일이 떠오르면 억울함에 화가 치민다고 했다. 한편 참여자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어린 나이지만 부모의 말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착한 딸 역할을 하면서 살아 왔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대만큼 인정받지 못했다고 했다. 중년기는 자신들의 심리적인 증상과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다. 자녀와의 관계는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부모와 부정적인 경험으로 어릴 때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에게는 자신들의 아픔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참여자들은 자신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자신의 부모님도 좋은 부모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겪었던 부정적 경험들이 자신들의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신들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부정적인 경험들을 전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를 진술하면서 자녀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때 겪는 감정 경험이 자신들이 부모에게서 겪은 부정적 경험보다 배나 힘들

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불안정 애착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 세대에 걸쳐 전수되고 있음을 참여자들이 알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를 통해 어릴 때 상처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힘들어한다고 진술한 참여자도 있었다. 본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주 양육자와 자녀와의 애착 형성이 중요함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중년의 나이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노년기의 삶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어릴 때 주 양육자와의 잘못된 애착 형성으로 인한 상처로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까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도록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의 자녀는 물론 후손들까지도 계속해서 원 가족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을 해야 한다. 사람들은 발달 과정에서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 양육자와의 불안정애착을 경험하여 어릴 때 충분히 경험해야 하는 발달 단계들을 거치지 못했다.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것은 재미있기 때문이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놀이를 통해 얻는 즐거움은 두 가지 치료적 가치를 지닌다고 한다. 하나는 즐거운 마음이 아동에게 행복감과 안정감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즐거움이 삶의 스트레스에 강력한 해독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⁷⁴⁾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 나이에 자신들이 감당하기 힘겨운 집안일을 돌보느라 자라는 과정에서 그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했다. 또 놀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함에도 오히려 주 양육자들에 의해 강압적으로 그 기회를 빼앗겼다. 이로 인한 잔상들이 남아 사춘기 시절에는 부정적인 감정들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것은 성인이지만 어른으로써 미성숙하고 비 인격을 가진 주 양육자들에 의한 독선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현재 중년기 증상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스트레스가 더 힘들게 경험되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 요인은 자신이 어렸을 때 경험한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 관계가 원인이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자녀와의 갈등에서도 자신의 불안정 애착 경험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이 때문에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보상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원 가족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잘못된 애착관계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았다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는데 실제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운 삶인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다가올 노년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연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참여자들에게 현재 중년기 증상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술하면서 자신들이 이미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웃음을 보이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반추

74) 박은정, “상실을 경험한 아동을 한 놀이목회상담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4), 52.

해 보면서 대부분 부모에게 착한 딸로 살았고, 또한 자녀들에게는 착한 엄마의 역할로 남편에게는 착한 아내의 역할을 하며 살았음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때론 자신들이 실제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억누르며 억압하며 눈치를 보고 살아왔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들은 이제까지는 타인을 위한 삶으로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진술하였다. 앞으로는 자신에게 솔직하고 싶다고 하였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진솔하게 살고 싶다고 하였다.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고 진술하였다.

2.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 대한 상담적 함의

본 연구 참여자들은 어릴 때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으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 볼 수 있다. 불안정 애착이 흔히 주 양육자의 양육 태도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비춰볼 때 참여자들이 ‘부모세대와의 관계에서 형성한 불안정 애착을 어떻게 다시 안정 애착으로 형성하도록 돕는가’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된다. 우선 정신분석가인 위니컷에 따르면 유아의 문제는 유아의 책임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으로,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에 따라 유아의 발달이 달라진다고 한다.⁷⁵⁾ 유아의 발달은 얼마나 좋은 환경이 제공되는가에 좌우되며 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머니’라고 한다.⁷⁶⁾ 위니컷의 ‘충분히 좋은 어머니’는 아이를 충분히 먹이고 재우며 아이가 불안해 할 때 위로해 주고 공감해 주는 엄마의 활동을 의미한다.⁷⁷⁾ 유아는 엄마와 맺었던 다양한 관계와 경험들을 통하여 자신의 자아 구조에 자연스럽게 통합을 이루게 된다. 이 때 ‘충분히 좋은 엄마’는 유아의 자아 구조에 내용을 채우면서 유아가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⁷⁸⁾

만일 ‘충분히 좋은 엄마’를 제공하는 데 실패하면 유아의 자아 구조는 불안정해진다. 완전한 엄마(perfect mothering)를 하려거나 유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경우는 자아를 제대로 발달시킬 수 없게 된다. 완전한 방식으로 돌보려고 하면 유아의 욕구에 맞추기보다는 엄마의 요구에 아이를 맞추게 된다. 이 경우 유아는 자신을 돌보는 엄마의 요구에 민감해지고 자신의 요구에 민감해지지 않는다. 대상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을 자유롭게 탐험하기 어렵게 된다. 자아의 구조 속에 있어야 할 필수적

75) Donald W. Winnicott, *The Maturation Processes and the Facilitating Environment*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65), 39-40.

76) Scharff Jill Savege and David E. Scharff, *The Primer of Object Relations Therapy*, 오규훈, 이재훈 공역, 『대상관계 심리치료』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8), 60.

77) D. W. Winnicott, *Home Is Where We Start From: Essays by a Psychoanalyst*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6), 124.

78) 김용태, 『가족치료이론』 (서울: 학지사, 2013), 211.

내용들이 부족하거나 외부의 요구에 민감한 방식으로 맺은 여러 가지 표상들과 경험들이 유아의 자아 구조에 포함되게 된다. 이 때 유아는 자신의 내적 요구와 엄마 또는 외부 환경에서 주어지는 자극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점차 유아는 좋은 형상들과 나쁜 형상들이 어떤 방식으로 관련을 맺어야 하는지 스스로 알게 된다. 이러한 관련이 일정한 방식으로 생기는 과정을 통합이라고 부른다.

클라인에 의하면 인간은 대상을 추구하는 존재로 태어난다고 한다. 이러한 인간은 대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환상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환상은 인간이 발달을 이루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면서 대상과의 관계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과 미움의 환상이라는 힘을 가지고 태어나 이러한 힘으로 대상과 관련을 맺고자 한다고 한다.⁷⁹⁾ 인간은 환경과 적극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살아나가는 존재이며 풍부한 환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유아들은 환경과 적극적으로 관련을 맺으려는 노력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양육의 질은 아이의 성격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돌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아이에게 상반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 부정적 영향을 받은 아이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결혼을 해서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 서로 간의 관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완벽한 부모 노릇은 아이의 모든 욕구들을 완벽하게 충족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모는 아이로 하여금 조금의 좌절이나 결핍이 없도록 양육자 노릇을 하지만 역으로 아이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자신의 모든 행동에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부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부모가 아이의 욕구를 잘못 판단하여 아이의 욕구를 지나치게 만족시키려다가 아이의 욕구를 충족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모의 욕구를 아이를 통해서 충족하려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아이는 원하지 않는데도 부모는 아이가 원한다고 생각하여 아이에게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 때 아이는 거부하는 태도를 취해보지만 부모는 아이의 거부하는 태도에 이해나 공감을 하기 보다는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 역설적으로 부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완벽에 대한 욕구로 인해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못하고 오히려 아이를 좌절시켜 버리고 만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이 안정 재 애착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에 깊은 이해와 적용을 필요로 한다.

우선 유아의 안정 애착은 양육자의 반영기능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반영기능이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믿음, 느낌, 태도 등에 정신적 표상 상태를 생각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타인의 행동의 의미를 알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다. 반영기능

79) Melanie Klein, *The Psycho-Analysis of Children* (New York: Vintage, 1997), 7-10.

의 핵심적인 요소는 양육자가 유아의 울음이나 표정과 같은 신호들을 해석하고 이에 적절한 반응을 제공하는 부모의 민감성(parental sensitivity)이다. 이는 비논의 성공적 담아주기(containing)와 위니컷의 반영하기(mirroring)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 모든 내용은 내담자의 불안정 애착을 안정 애착으로 재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담사의 주의집중과 경청 그리고 깊은 공감의 필요함을 가리키고 있다. 주의집중과 공감적 경청은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상담 전체에서 사용하는 기술이다. 주의집중은 상담자가 신체적으로 내담자를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집중은 눈 맞춤, 표정 상체 기울임, 비언어 등으로 전달한다. 경청은 내담자가 전달하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명확하거나 불명확한 메시지를 특별하게 포착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공감적 경청은 내담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 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에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한 바를 내담자에게 표현해주는 것이다.⁸⁰⁾ 이를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경험에 함께하며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을 탐색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다. 주의집중과 경청을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가 제공하는 사실적 정보를 잘 수집하고 정리함으로써 내담자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담자의 가치와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상담자는 주의집중과 공감적 경청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담자의 가치에 대한 인정에 대해 유념하여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공감적 경청은 불안정 애착을 재 애착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특히 연구자가 크리스천 중년기 여성들이 상담 중 표현하는 행위와 욕구 그리고 감정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본 연구자는 양육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부모들에게 공감적 경청을 통해 이들이 채우지 못한 애착을 재 애착하도록 촉진했을 때 참여자들의 감수성을 높일 뿐 아니라 자녀의 감정이나 욕구도 좀 더 잘 수용하고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공감적 경청이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의 민감성과 몰입도를 높이는 것으로 비취볼 때 크리스천 중년기 여성들에게 공감적 경청이 불안정 애착을 안정 애착으로 변하게 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리스천 중년기 여성들이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하는데 효과적인 것이 공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감지하고 인정하는 능력이다.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참조틀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내담자의 행동, 사건, 감정에 대해 상담자의 판단 없이 내담자를 수용하는 것이다.⁸¹⁾ 자기심리학에서는

80) 송재영, “초심상담자와 경력상담자의 공감반응의 차이분석”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4), 37.

81) Rosemary A. Thompson, Counseling Techniques, 김춘경 역, 『상담기법』 (서울: 학지사, 2007), 342.

공감을 자료 수집의 주된 수단이고 치료를 위한 일차적 도구로 간주한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경험 안으로 들어가 느껴봄으로 다른 사람의 심리적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상담사는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 속으로 전적으로 몰입해 들어감으로써 그 세계를 보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은 재 애착형성에도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변화를 가져 오는 조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본 연구자는 공감을 보듬어주는 측면과 담아내는 측면에 기여하는 의사소통으로 크리스천 중년기 여성들을 깊고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불안정 애착을 재 애착하는 매우 유효한 도구임을 언급하고자 한다.

3. 목회상담적 함의

하나님과의 애착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한가에 따라 좌우된다. 그 이미지에 따라 심리적 안정감과 친밀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역으로 내면에 고통과 불안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하나님 이미지가 주 양육자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 특히 아버지로부터 입은 심리적 외상은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연구 발표되었다.⁸²⁾ 아동들의 경우, 부모와의 친밀한 교제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사랑이 많고 용서하시는 따뜻한 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다.⁸³⁾ 부모와의 애착 유형이 어떠한가는 하나님 이미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애착에도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양육자를 사랑이 없고 매정하며 인색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이미지도 그러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에 대한 애착이 불안정 할 수밖에 없다.⁸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애착은 가정 안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다.⁸⁵⁾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서 속 인물인 모세, 이삭, 사무엘, 입다에 대해 성경을 조명하여 애착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모세를 언급하고자 한다.

신명기 34장 10~12절에서는 모세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82) Floyd McClung, *The Father Heart of God* (Eugene: Harvest, 1985), 15-16.

83) Michael St. Clair, *Human Relationships and Experience of God: Object Relations and Religion*, 이재훈 역, 『인간관계 경험과 하나님 경험』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23-24.

84) Michael St. Clair, *Human Relationships and Experience of God: Object Relations and Religion*, 이재훈 역, 『인간관계 경험과 하나님 경험』, 39.

85) Michael St. Clair, *Human Relationships and Experience of God: Object Relations and Religion*, 이재훈 역, 『인간관계 경험과 하나님 경험』, 38.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라고 극찬하고 있다. 하지만 모세의 출생은 그리 유복하지 못했다. 친모인 요게벳이 모세를 임신했을 때는 이집트에 사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압제가 극에 달했을 때였다. 모세의 출생은 부모를 제외하고는 환영받지 못한 출생이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는 임신 내내 ‘이 아이가 아들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너무나 불안했을 것이다. 결국 아들이 태어나자 요게벳은 역설적이게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를 유기해야만 했다.⁸⁶⁾ 실제 박해를 당하는 환경 속에서 모세는 한 동안 멸절 불안과 유기 불안을 경험하며 자랐을 것이다. 이러한 불행 속에서 모세는 유모이자 친모인 요게벳의 안정적인 돌봄을 통해 외상적 경험이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우선 양육자는 유아가 배가 고플 때 젖을 주고 안기고 싶을 때 안아주는 모성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 다음 유아는 분리-개별화 단계에서 대상항상성 시기를 지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모성적 돌봄을 통해 안정애착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것을 통해 모세는 대상항상성, 즉 양육자나 중요한 사람에게 가져야 할 대상들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통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상항상성이 잘 형성되면 위니컷의 말처럼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 지게 된다.⁸⁷⁾ 모세는 어머니와의 안정 애착으로 아마도 이 능력이 발달되었을 것이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과의 안정애착으로 하나님과도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목회상담을 원하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개인 내적 원인과 요인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 외부 환경적 문제나 시대적 흐름 속에서 파생된 문제도 있어서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삶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⁸⁸⁾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에게 안정 애착인 영적 안전기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교회 공동체 전체의 기능이 약화되고 공동체의 기능은 저하될 것이다. 본 연구자는 교회 공동체가 중년기 여성이 호소하는 양육 스트레스 문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목회상담적 함의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 공동체는 우선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문제들을 좀 더 세밀하고 깊이 있게 파악하는 일에 힘을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간 한국 교회는 지속적으로 공동체성을 잃고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도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이 신앙문제가 아니면 개인의 문제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렇다

86) John H. Walton, Victor H. Matthews, Mark W.Chavals & Craig Keener, Bible Background Commentary, 김세운, 김지찬, 송인규 역, 『IVP 성경배경주석』 (서울: IVP, 2000), 111.

87) Donald Woods Winnicott, The Maturational Processes and the Facilitating Environment (London: Karnac, 1990), 29.

88) 오성춘,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54-55.

보니 목회자의 개입은 신앙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성도들의 문제들 중에는 그 파급력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과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것들이 많다. 따라서 교회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성도들의 가정이나 심리 문제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돌봄과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들은 소그룹 리더나 평신도 대표들을 전문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크리스천 중년기 여성들이 불안정 애착과 양육 스트레스로 우울과 불안을 느끼면서 많은 고립감과 좌절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험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수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공동체는 중년기 부모들이 안정 재 애착을 이룰 수 있도록 목회상담이나 목회적 돌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 경험으로 내면에 깊은 상처를 받은 성도들이다. 교회 안에도 참여자들 같이 자신들의 부모에게 불안정애착을 경험한 중년기 성도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시대적으로 지금 한국의 어머니들은 남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미덕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면서 대부분 자신들의 감정조차 표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아픔을 가진 부모세대에서 자란 중년의 성도들은 불안정 애착이라는 상처를 간직한 채 부정적인 환경에서 삶을 지탱해 왔다. 만약 교회 공동체가 이런 상처를 가진 성도들에게 심리적·영적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계속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만약 중년기 부모들이 안정 재 애착을 성공적으로 형성하게 된다면 자녀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들을 처리하는 데도 용이할 것이다. 안정 재 애착을 위한 목회적 돌봄을 통해서 중년기 부모들은 신앙생활에서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안정 재 애착을 위한 부모 교육을 통해 중년기 부모들이 '좋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 교회 공동체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크리스천 중년기 여성이 겪는 양육 스트레스는 중년기 위기와 맞물려 부정적 시너지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크리스천 부모교육 등을 통해서 중년기 신앙의 혼란이나 불안도 다뤄줄 필요가 있다. 현재 교회에서 중추역할을 하는 성도들은 대부분 집사, 권사의 직분을 맡은 중년기 세대들이다. 이들이 심리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경우 교회 공동체는 전반적으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교회 공동체는 중년기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건강한 부모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중년 성도들이 부모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 이들이 지고 있는 마음의 짐들을 가볍게 해 줄 책임이 있다. 성도들의 마음이 건강할 때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⁸⁹⁾ 교회에서 부모 교육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묶일 필요는

없겠지만 교회 공동체가 중년의 성도들에게 영적 돌봄을 제공하여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으로 본다.

VI. 나가는 말

본 연구는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크리스천 중년기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부모세대에서의 불안정 애착이 양육에 미치는 파급력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몇 가지 연구의 제한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중년 여성 7인이 연구 참여자로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자신들의 중년기 위기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진술하다가 심층 면담이 진행되면서 자신들이 부모와의 사이에서 형성한 불안정 애착 경험이 양육 스트레스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식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현상학적 진술을 토대로 부모의 불안정 애착 경험이 자녀 양육 스트레스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 학문적으로 좀 더 밝힐 수 있는 질적 연구나 부모의 불안정 애착 경험이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어떠한 상관관계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크리스천 중년기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양적 연구가 미진할 뿐만 아니라 관련 치유 프로그램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 질적 연구나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중년기에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건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부모의 불안정 애착을 깊이 있게 다루는 목회상담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89) 이석철, 『교육을 통한 치유: 치유목회의 기초』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0), 97-238.

■ 참고문헌 ■

1. 국문서적

- 권향원. “현상학과 사회과학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5(1) (2016): 357.
- 김서정. “중년남성의 외도경험에 관한 현상”. 박사학위논문, 서울벤처대학원, 2017.
- 김영천, 정상원. 『질적 연구 방법론 V: Data Analysis』.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2017.
- 김용태. 『중년의 배신』. 서울: Denstory, 2016.
- 김유진. “영아의 안정애착 유발요인 연구 아동복지연구”. 「아동복지연구」 2(2) (2004): 1-15.
- 김홍우. “현상학과 삶의 정치”. 「한국행정학회」 (2008): 263-279.
- 남명자.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2011.
- 남미애. “청소년양육 미혼모의 우울과 전반적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44 (2013): 1-20.
- 박은정. “상실을 경험한 아동을 한 놀이목회상담 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4.
- 송재영. “초심상담자와 경력상담자의 공감반응의 차이분석”.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4.
- 신경림 외.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7.
- 오성춘.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 이근호.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현상: 독특성과 보편성 사이의 변증법적 탐구 양식”. 「교육인류학연구」 10 (2007): 41-64.
- 이남인. “현상학적 환원과 현상학의 미래”. 「철학과 현상학 연구」 54 (2012): 89-121.
- 이남인. “현상학적 환원과 현상학의 미래”. 「철학과 현상학 연구」 54 (2012): 89-121.
- 이석철. 『교육을 통한 치유: 치유목회의 기초』.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0.
- 이우경. “중년기 여성의 스트레스, 마음챙김, 자기: 자애, 정서적 안녕감 간의 관계 구조분석과 마음 챙김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8.
- 이월일. “기독교 교육 과정론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연구”. 「신학과 교회」 14 (2000): 357-383.
- 이정빈. 『질적 연구방법과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8.
- 이희정.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예측 변인과 중단적 변화: 어머니 양육 행동과 유아의 또래 방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패널」 36(4) (2015):

209-227.

- 조수경. “내재화문제를 지닌 학교부적응 고등학생 대상 계슈탈트 집단상담 과정에 대한 현상 학적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성신여자대학교, 2017.
- 조영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련성 탐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07.
- 정옥분, 정순화, 황현주. 『애착과 발달』. 서울: 학지사, 2015.
- 정혜숙, 심우찬. “국내 사회복지 질적 연구 논문 심사의 발전적 방향에 관한 탐색”, 『사회복지연구』 48(1) (2017): 55-89.
- 정희정. “미술치료사의 질적연구 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대학원, 2017.
- 진미경. “대학생의 성인 애착과 대인관계문제 및 이성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6(4) (2013): 285-300.
- 홍은선, 민경화. “중년여성의 성인 애착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탈중심화, 수용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4) (2016): 587-611.
- 홍진이, 한기백.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애착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5) (2015): 367-73.

2. 번역서적

- Bowlby, John. *Attachment*. 김창대 역. 『애착: 인간애착행동에 대한 과학적 탐구』. 파주: 나남, 2009.
- Brisch, Karl Heinz. *Bindungsstorungen Von Der Bindungstheorie Zur Therapie*. 장휘숙 역. 『애착장애의 치료: 이론에서 실제까지』,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9.
- Creswell, John W.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조홍식 외 역,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서울: 학지사, 2005.
- Holmes, Jeremy. *John Bowlby & Attachment Theory*. 이경숙 역. 『존 볼비와 애착이론』. 서울: 학지사, 2014.
- Husserl, Edmund. *Ideen Zu Einer Reinen Phanomenologie und Phanomenologischen*. 이종훈 역. 『순수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1』. 파주: 한길사, 2009.
- Jung, Carl Gustav. *Man and His Symbols*. 이부영 역.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서울: 집문당, 1983.
- Marrone, Mario. *Attachment and Interaction*. 이민희 역. 『애착이론과 심리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 Michae. St. Clair, *Human Relationships and Experience of God: Object Relations and Religion*, 이재훈 역, 『인간관계 경험과 하나님 경험』 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2000.
- Pearce, Colby. *A Short Introduction to Attachment and Attachment Disorder*. 이민희 역. 『애착장애의 이해와 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1.
- Savege, Scharff Jill and Scharff, David E. *The Primer of Object Relations Therapy*, 오규훈, 이재훈 공역, 『대상관계 심리치료』. 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2008.
- Thompson, Rosemary A. *Counseling Techniques*, 김춘경 역, 『상담기법』, 서울: 학지사, 2007.
- Victor Harold, Matthews, John H. Walton, Mark W. Chavals & Craig Keener, *Bible Background Commentary*, 김세윤, 김지찬, 송인규 역, 『IVP 성경배경주석』 서울: IVP, 2000.

3. 영문서적

- Abidin, R. R. "The Determination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1. (1992): 407-412.
- Becker, W. C.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 of Parental Discipline. In Review Child Development Research*, M. L. Hoffman & L. W. Hoffman(Eds.). NY: Russell Sage Foundation. 1964.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Press, 1998.
- Brock, R. L. & Lawrence, E.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Stress Spillover in Marriage: Does Spouse Support Adequacy Buffer the Effec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1) (2008): 11-20.
- Chang Y. F. & Fine, M. A. "Modeling Parenting Stress Trajectories among Low-Income Young Mothers Across the Child's Second and Third Years: Factors Accounting for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4) (2007): 584-594.
- Colaizzi, F. Paul.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onald S. Valle, and Mark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Crníc, K. A. & Greenburg, M. T. "Transactional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mily Style, Risk Status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in Two Years old."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12 (1991): 343-362.
- Errazuriz-Arellano, P. A., Harvey, E. A., and Thakar, D. A.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Parenting Practices." *Family Relations* 61(2) 271-282.
- Guba, Egon, G. and Lincoln, Yvonna S.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2.
- Hazan, C., & Shaver, P. R.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1987): 511-524.
- Lincoln, Yvonna S. & Guba, Egon, G. *Naturalistic Inquiry*. New York: Sage Publications. INC. 1985.
- Lipscomb, S. T., Leve, L. D., Harold, G. T., Neiderhiser, J. M., Shaw, D. S., Ge, X., & Reiss, D. "Trajectories of Parenting and Child Negative Emotionality during Infancy and Toddlerhood: A Longitudin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82(5) (2011): 1661-1675.
- Lubiewska, Katarzyna and Derbis, Romuald. "Relations between Parenting Stress, Attachment, and Life Satisfaction in Mothers of Adolescent Children." *Polis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4(2) (2016): 87-112.
- Lyons, Ruth, K., Repacholi, B. Mcleod, S. & Silva, E. "Disorganized Attachment Behavior in Infancy: Short-term Stability, Maternal and Infant Correlates, and Risk-Related Subtyp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 (1991): 377-396.
- Floyd McClung, *The Father Heart of God* Eugene, Ore. : Harvest House Publishers, 1985.
- Mikulincer, M., & Shaver, P. R. *Attachment in Adulthood: Structure, Dynamics, and Change*. Guilford Press, 2007.
- Mulsoy, M., Caldera, Y. M., Pursley, M. & Reifman, A. "Multi-level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2002): 944-956.
- Park, M. S. & Kim, J. "A Casual Study of Parenting Efficacy Based on the Effect of Parental Resources and Parenting Stress in Low Income Family." *Korea*

-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Quarterly 17(1) (2013): 179-198.
- Patton, Michael Q.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California: Sage, 2014.
- Sullivan, K., Sullivan, A., Adolescent-Parent Sepa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6(2) (1980): 93-99.
- Winnicott, Donald W. *The Child and the Family: First Relationships*. New York: Routledge, 2007.
- _____, *The Maturation Processes and the Facilitating Environment*. London: Karnac, 1990.

4. 사전 및 신문

국가통계포털, kosis.kr/ (2006년~2014시점)

논 찬 1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중년기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 현상학적 연구”에 대한 논찬

송 준 용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 상담심리)

김보연 박사의 연구는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중년기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히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중년기 여성이 갖고 있는 심리적 불안상태가 초기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기인한다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년기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를 질적 연구 중 현상학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중년여성들이 신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천적 함의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많은 중년여성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연구들에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귀한 연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1. 논문의 주요 내용

김보연 박사는 연구에서 첫째,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중년기 여성들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원인을 중년기 요인과 자녀와의 관계 요인으로 진술하였으며, 심리적 증상과 신체적 증상을 통해 자신들이 받은 양육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자신들이 어릴 때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생긴 불안정 애착 경험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또한, 주 양육자와의 사이에서 부정적인 경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 즉 좋았던 경험도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또한 주 양육자가 자신을 미워해

서 정상적인 애착 형성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애착 형성이 불가능한 환경이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서 수용을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둘째, 참여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불안정 애착이 자신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중년기 위기를 극복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불안정 애착 경험이 자신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심한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셋째, 참여자들은 자신의 불안정 애착 경험이 자신의 성장과정 뿐 아니라 대인관계, 사회생활, 신앙생활 등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넷째, 연구를 통해 불안정 애착 경험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서 불안정 애착 경험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며, 자신이 어릴 때 거부당한 경험으로 인해 하나님께도 거부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교회 공동체가 중년여성들이 안정 재 애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회 공동체는 평신도 리더나 목회 상담자를 안정 재 애착 형성의 전문가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2. 논문의 공헌점

첫째, 중년여성의 불안정애착을 원인으로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 또는 대인간 의사소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김보연 박사의 중년기 여성에 관한 연구는 교회 내에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논의를 위한 문제제기

첫째, 보울비는 애착이론에서 인간들이 서로 강한 애정적 결속을 만들려는 경향과 그 결속이 위협받거나 끊어졌을 때 일어나는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이해하여 개념화를 하려고 하였다. 애착이론에서 개인차(필요할 때 언제든 애착대상과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에 따라 애착유형이 다르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불안정애착을 경험한 중년여성들이 초기 부모와의 양육태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으로 드러난 주제와 의미가 어떻게 진술되었는지 생략되어 있고 결론 부분에서 분석을 하였다.

둘째, 보울비는 애착과 상실에서 유아의 정서적 불안정, 애착대상의 폭력성과 우

울이 불안정 애착의 원인이 되며, 마찬가지로 애착과 상실은 중년기 여성의 특징 가운데 나타나는 불안감이나 중년기의 특성상 나타나는 빈둥지증후군 등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로 인해서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이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한다. 연구자의 연구에서도 양육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로 기술하고 있다. 이미 연구자는 이론적 배경에서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에서 리차드 아비딘이 이야기한 세가지 요인으로 유아의 특성, 부모의 능력이나 기질과 성향에 따라, 자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며 양육 스트레스를 다르게 인식하고 지각한다고 서술함으로써 논문이 이미 결론이 나있는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한 듯 한 인상을 주고 있어 목적이 불분명한 연구가 된듯하다.(p.9) 따라서 김보연 박사의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현상학적 연구”로 연구를 진행해서 다양한 의미와 주제를 통해서 목회상담적 함의를 진행했다면 더욱 다양한 의미와 내용을 담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셋째, 애착 행동의 유형에서 안전기지의 확립은 타인과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연구자가 제안한 교회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논 찬 2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중년기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 현상학적 연구”에 대한 논찬

신 영 호 박사

(한국마인드온상담연구소)

김보연 박사의 논문은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크리스천 중년기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로, 이에 대한 선행연구나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목회적 대응방안의 관점에서 접근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연구자는 불안정 애착이 중년기에 느끼는 위기 경험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주목하고 연구했다는 점이다. 중년이 겪는 스트레스는 매우 다양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는 부모가 그 부모세대와 형성한 애착과 불안정 애착이 영향을 준다는 상담 현장의 근거를 중심으로 연구를 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담 현장에서 중년기 여성들은 심리적 어려움과 신체적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 원인을 주 양육자와의 불안정 애착에서 비롯된 것을 인지하게 된 것이 스트레스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으며, 더 나아가 자녀 양육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한 원 가족의 불안정 애착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본 논문은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중년기 여성이 삶의 현장에서 매우 다양한 문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지만, 무엇보다 자녀 양육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단순한 문제로 끝나지 않고 대물림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목회상담을 통한 영혼 구원과 치유라는 시대적 사명을 가진 한국교회에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여겨진다.

논찬 자는 위와 같이 김보연 박사의 논문을 이해한 것을 정리했으며, 이 논문이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과 대물림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중년 여성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중년의 나이는 자신의 삶을 보다 건강하게 세우고, 앞으로 닥칠 노년기의 삶이 아름답게 무르익도록 준비하는 시기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가 상처로 남아 중년의 삶을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가족은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 어린 시절 양육자에게 겪었던 상처와 아픈 정서가 성장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수되고 있는 것에 충격과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자의 이러한 공헌과 더불어 몇 가지 질문 및 논의를 심화시키기를 요청한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 결과에서 상담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양육의 질은 아이의 성격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돌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아이에게 상반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 부정적 영향을 받은 아이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결혼을 해서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 서로 간의 관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p19)

연구자의 상담 사례에서 나타난 정의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모들은 애착이나 부정적 정서가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지조차 모르는 시점에서, 자녀의 부정적 요소가 부모의 탓이 되어 또 다른 마음의 짐이나 죄책감으로 오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연구자는 목회 상담적 함의에서 모세의 어린 시절 양육과정을 예로 들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모성적 돌봄을 통해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것을 통해 모세는 대상 항상성, 즉 양육자나 중요한 사람에게 가져야 할 대상들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통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p21)

모세의 어머니는 애굽의 산아제한 특명과 탄압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양육을 잘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연구자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안정 애착이 중요하고, 그 모델로 모세를 예로 든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는 장면이 나온다. 그 후 이 사실이 탄로 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장면은 위에서 설명한 안정 애착의 모델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불안정 애착이 중년 여성의 삶과 양육 스트레스라는 이중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일깨워주신 김보연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이어져 우리 사회가 애착의 부재로 마음마다 상처로 얼룩진 아픈 사회가 아니라, 상처를 성숙으로 승화시키는 당당한 부모, 더 나아가 한 국교회 모든 가족과 성도가 주체가 되어 사명을 다하길 소망해 본다.

제 7 발표

『디다케』와 『사도 전승』을 통한 영성과 기독교 리더십의 상호관계 연구

조 성 호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 영성과 리더십)

■ 초 록 ■

2020년을 시작하던 지난 1월만 하더라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급작스럽게 그리고 급속히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왕관이라는 의미를 지닌 코로나(corona)-19 바이러스가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엄청난 숫자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수많은 이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은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의학적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를 동반한 이번 사태 속에서, 뜻밖에 한국교회의 주일예배가 관심사로 대두되었으며 이는 다시 한국교회가 지향하는 기독교의 가치와 지향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로 확장되었다. 즉 단순히 정해진 시간과 공간을 전제로 한 예배담론 차원을 넘어 예배의 근본적인 근거와 궁극적 목적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신자의 삶 전반에 나타나는 효과 등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된 상황을 의미한다. 교단 지도자들의 강경한 정부 비판과 이에 대한 교회 안팎의 신랄한 비판이 맞물리면서 상황은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었고, 한국교회가 고수한 예배와 영성, 리더십 등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본 연구는 그와 같은 한국교회의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질병과 연계된 사회적 상황에서, 예배의 형성과 기능이 기독교 영성과 리더십에 주는 함축적인 요소들을 탐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같은 취지는 전염병을 위시한 질병은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바, 그런 역사적 경험이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어떤 영성과 리더십으로 발전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위기상황에 접목 가능한 원리들을 찾아내

는 논리적 절차를 추구한다. 이 목적을 위해 특히 예전 연구의 기원에 해당하는 저술로 평가받는 『디다케』와 『사도 전승』를 선택한 후 그 내용과 저술 당시의 역사적 배경 등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현 상황과 접촉할 개연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밟았다. 여기서 한 가지 밝히고 싶은 점은 두 고전이 주로 초기교회의 예배와 교회 직제를 연구하는 저술로 인식된 점으로부터 탈피하여 당시 시대 상황을 재구성하고 본 연구의 목적과 연계된 요소들을 찾아내려고 애쓴 진행 과정이다. 그를 통해 예배는 영성과 리더십과 직결되는 포괄적인 내용을 암시하며 삶과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되는 다양한 요건들을 내포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하여 결국 예배는 교회 공동체 내부자들을 위한 폐쇄적 형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통로의 구실을 해야 하며, 교회 밖 사회 성원들을 위한 복음과 선교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구체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한국교회에 적용하는 데 주력한다. 물론 이 글이 한국교회의 신학적 대응 전체를 포괄할 수 없겠지만, 더 넓고 깊은 토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배, 영성과 리더십, 『디다케』, 『사도 전승』

I. 들어가는 말

예배(禮拜)라는 용어로 번역되는 한국 단어는 특정한 관계를 향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예배는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된 분리나 고립 상태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상호관계를 전제하며, 그 관계성의 기초에서 상대를 지극히 높이는 경외심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지향한다. 이런 의미는 비단 한글 표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영어 단어인 ‘Worship’이나 구약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의 ‘샤하아’(shachah)와 ‘아바드’(abad), 그리고 신약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프로스쿠네인’(proskunein) 등은 특정한 신적 존재를 향한 공경 또는 감사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¹⁾ 또한 관계성에 근거한 기독교 예배의 특징은 초월적 신성인 하나님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신약성경에서 기독교인들이 드린 최초의 예배를 나타내는 ‘떡을 뼀’(breaking bread)이라는 표현이나 ‘레이투르기아’(leiturgia: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 그리고 예배 시작을 일반적으로 인사로부터 시작하는 전통은 하나님께 공경과 감사를 올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호 협력

1) 김순환, 『예배학 총론: 예배와 삶의 통섭을 추구하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21-23.

과 결속의 인간관계 역시 매우 중요한 예배의 핵심가치라는 사실을 명시한다.²⁾ 이는 하나님을 향한 신자들의 신앙심과 타인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예배를 구성하는 최우선의 가치를 지니며, 그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영성과 신학이 구성된다는 논리적 전개 과정을 상징한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타인들과의 교제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이런 본질은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관계성에 기반을 둔다는 당위성으로 확장되었다.³⁾ 즉 예배에 담긴 역사적 경험과 신학적 의미는 철저히 예배를 관계성 차원에서 형성하고 이런 구조적 특징을 다시 영성과 신학 전반으로 전달하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예배는 그 자체로 독립적 의미를 지니는 실체가 아니며, 다른 모든 신학적 내용을 통제하는 원리로 군림하지 않는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을 지향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방법론적 기제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 근원적인 특성 속에서 신앙생활을 체득한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의 탄압과 압제 그리고 전쟁과 질병 같은 재난들을 거치며 자신들만의 고유한 사회적 집단으로 정착했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 영성과 리더십을 논할 때, 예배를 축으로 형성된 일련의 관계성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는 단지 예배에만 국한되는 한계를 초월하며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필요충분조건으로 자리매김할 당위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런 명제는 2020년 벽두부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휘몰아친 코로나 광풍과 맞물려 그 가치와 의미를 더욱 강하게 정립하고 있다.

II. 21세기 한국사회와 기독교 고전(古典)

1. 불안과 분노의 지배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분노와 불안은 특정 세대에 국한된 지역적 사안 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광범위한 심리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준과 관점에 따라 세대를 판가름하는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각 세대는 독특한 실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분노와 불안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특히 2020년에 들어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2) 조기연, 『묻고 답하는 예배학 Cafe』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19; 33; 65.

3) 가톨릭 신학자인 오먼은 초대교회 영성의 특징을 분류하면서 예전에 중심을 두었던 사실과 공동체 및 사회를 향한 관계성 지향을 주요한 내용으로 선정했다. 이 사실은 예배가 지닌 관계성의 요소가 영성의 내용으로 확장되었고, 이는 다양한 예전들을 통해 다시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확대된 전개과정을 설명한다. Jordan Aumann/이홍근·이영희 옮김, 『가톨릭 전통과 그리스도교 영성』 (경북 왜관: 분도출판사, 2007), 46-49.

는 사람들에게 건디기 힘든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사회와 교회 모두에게 이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고민과 성찰을 유도하는 매개로 작용했다. 건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한 코로나 사태는 각 지역에 따라 고유한 요소들과 결합하면서 다양한 논의들을 일으켰는데, 한국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라는 시민 및 정부의 요청과 주일예배 방식에 대한 교회의 의견이 충돌을 빚는 일이 벌어졌다.⁵⁾

이와 같은 대립 구도가 이어지면서 교회 내부에서조차 교회의 사회적 봉사와 연관된 예배의 본질 및 기능에 대한 신학적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는 다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불쾌감을 표시하는 계층과 서로 첨예한 감정적 대응을 보이는 일로 확대되었다. 과연 기독교 예배의 근본적인 본질은 무엇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떠한가 하는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신자의 마음가짐과 행동방식은 어떤 구체적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지에 관한 총체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촉발되면서 그동안 무심했던 한국교회의 예배 관련 신학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더욱이 전통적인 교회의 리더십 구조에 대해 누적된 불만이 위급한 상황을 대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과열음을 일으키면서, 예배로부터 야기된 논쟁은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예배 및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과 비평이 급격히 고조되는 최근 상황에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 예배의 형식과 내용이 사회적 위기와 어떤 유기적 상호관계를 살펴보는 과정은 단순히 기독교 예배의 가치와 의미뿐 아니라 21세기 현대사회에 부합한 한국교회의 리더십과 영성에 대한 교훈을 유추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전제조건들 속에서 본 연구는 단순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촉발된 오늘날의 사태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공시적 관점 대신 초대교회 시절에 작성된 『디다케』와 『사도전승』과 같은 저술들을 탐구하는 통시적 방법론을 따른다. 교회와 사회

4) 조성돈 교수는 한국인들을 노인세대, 신중년세대, 밀레니얼세대로 구분한 통계조사를 통하여 각 세대들마다 복잡한 요인들로 인한 불안과 분노를 경험 중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조성돈, “인구변동, 기독교의 역할과 신학교육의 과제,” 「한국신학논총」 18(2019), 12-25.

5) 다른 대표적 개신교단들과 마찬가지로 연구자가 소속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경우 총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하여 예배와 연관된 교회 신앙을 강제하는 행정조치에 단호히 대응하는 견해를 밝혔다. 남원준, “교회신앙 강제·금지 단호히 대응,” 「한국성결신문」, (2020.3.27.), 접속 2020.4.4., <http://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95>.

6)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는 교회 내부의 신자들 사이에 개인주의가 만연한 모습이 일반화되고 있다. 엘룰에 따르면 이런 성향은 대규모 시장문화 및 소비주의로부터 발발한 소비자들의 심리상태의 영향을 받았으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쉽게 공동체를 바꾸거나 이탈하는 것에서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따른 개인주의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는 피상적으로 변모되고,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태도 역시 존중과 신뢰 대신 의구심과 회의적 기준이 팽배하게 된다. Jacques Ellul, *The Technological Society*, trans. by John Wilkinson (New York: Vintage Books, 1964), 153; 406.

의 상호관계나 신자로서뿐 아니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기독교인에 해당하는 공통의 사항이기 때문이다.

2. 『디다케』와 『사도 전승』

이 저술들은 기독교의 여러 신학적 주제 중 특히 교계 제도와 예배에 관한 근거와 토대 측면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는 원시기독교공동체로 출발한 기독교회가 중앙집권적인 체계 및 권위의 부재와 외부의 압력과 박해라는 악재를 견디며 점차 신흥종교로 발전하는 과정을 탐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디다케』와 『사도 전승』은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뜻한다. 물론 저자, 저술 시기와 장소, 세부 내용 등과 관련된 다양한 주장들이 전개되면서, 두 저술의 저작에 얽힌 함의된 일치나 동의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 사실이다. 그런데도 두 자료 모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복원하는 소중한 자료의 임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기독교 신학과 영성의 여러 내용을 유추하는 원천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두 저술에 관한 간략한 고찰과 더불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예배 논쟁과 연관된 측면들을 살펴보는 인과론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디다케』는 초대교회 시기의 교회와 예배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룬다. 그로 인해 오늘날에도 주로 예배학자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성찬 및 다양한 예전들의 원형을 복원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⁷⁾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소재목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실상 열두 사도들의 저작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 탓에 저작의 기원을 유대교적 배경에서 회자되던 『두 가지 길』 및 당시 유행하던 여러 예전 및 생활 관련 저술들을 편집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⁸⁾ 이처럼 세부 내용에서 기독교 예전과 교회 목회의 규범들, 이원론적 가치관 등의 주제를 다루

7) 초대교회라는 명칭과 개념은 전적으로 후대인들에 의해 설정된 시대구분인 까닭에 주후 1~5세기 동안 벌어진 교회와 사회의 상호관계에 관한 시각이 반영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우선 초대교회가 교회라는 신앙공동체를 중심으로 예전과 리더십을 형성했음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교회를 막연하고 추상적인 집단으로 인식하지 않고 고대의 시대 상황에 반응하는 사회적 면모를 지닌 점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디다케』는 기독교 영성에서 성경의 중요성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직접 명시하는 흔적을 보여주는데, 이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유대교와의 연속성 및 차별성 형성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재로 사용한 매개가 성경이었음을 암시한다는 측면에서 성경에 대한 강조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조성호, “밀고 당기기: 디다케,” 『활천』 797(2020), 148-151.

8) 김형락, “디다케- 열 두 사도들의 가르침,”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편, 『신학고전 20선』 (경기도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 2016), 34.

고 있지만,⁹⁾ 『디다케』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기독교 공동체의 형성 과정에 관한 고민과 성찰로부터 기원한다. 왜냐하면 종교적 가르침과 예전의 형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특정한 신앙공동체의 현존 없이 불가능하며, 그 공동체가 속한 주변 환경과의 필연적인 연관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즉 예배 및 목회 규범 그리고 신자들이 걸어야 할 인생의 길에 관한 내용은 점진적인 발달 과정을 밟고 있던 공동체가 지닌 실제적 고충을 암시하며, 그와 같은 고충은 신앙공동체 내부뿐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주변 사회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¹⁰⁾ 한편으로는 다양한 예전을 포함한 초대교회의 여러 세부사항에 관한 미시적 접근이 가능하며,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당시 시대적 배경 및 교회와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거시적 이해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사도 전승』 역시 여러 측면에서 『디다케』와 유사한 공통점이 있다. 『디다케』처럼 히폴리투스로 알려진 저자의 정확성에 역사적으로 많은 의구심을 받고 있지만, 당시 시대 배경을 바탕으로 점차 일관성과 통일성을 지닌 하나의 단일한 조직체로 성장하던 교회의 완만한 흔적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¹¹⁾ 또 그 과정에 담긴

9) 기본적으로 『디다케』는 1부: 두 가지 길(1~6장), 2부: 교회 전례(7~10장), 3부: 교회 규범(11~15장), 4부: 예수 내림(16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에서 볼 수 있듯, 2부와 3부는 교회의 예전과 규범을 다루는데, 그 전제와 마무리가 유대교를 포함한 고대 종교 및 사상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원론적 그리고 종말론적 세계관이라는 점에서 교회 공동체 내부의 예전과 규범을 외부의 사회적 시각이나 가치관과 연관시키려한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저자 미상/정양모 옮김, 『디다케』(경북 외관: 분도출판사, 1998), 5-10.

10) 『디다케』와 『사도 전승』이 유대교적 전통과의 연속성을 지닌다는 지적에 긍정한다면, 예전 및 예전 수행의 주체에 해당하는 종교지도자들에 관한 1세기 예루살렘의 현실은 예수를 포함한 원시기독교회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암시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1세기 예루살렘에서는 가난을 자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율법학자나 랍비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의 대가를 받을 수 없었던 까닭에 구조적으로 가난한 계층에 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중풍 병자, 앓은뱅이, 절름발이 등처럼 걸식하는 자들과 그들을 구호하는 구호품 모금 행위가 매우 일반화된 모습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예루살렘 성소 주변에 머물면서 성전에 출입하는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런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유대인들의 전통과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기독교회의 저변에 빈자들과 환자, 장애인들을 향한 배려가 처음부터 내재해 있었으며, 이런 사회적 현상이 기독교 예전과 윤리적 기준의 형성 과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Joachim Jeremias/한국신학연구소 번역실 옮김, 『예수시대의 예루살렘』(충남 병천: 한국신학연구소, 1994), 160.

11) 『디다케』에 비해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사도 전승』은 기독교의 조직이 훨씬 더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신자와 예비자들을 따로 나누고 봉사자와 감독들, 장로들과 같은 직분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구분한 점, 과부들이나 동정녀들처럼 여성 신자들의 특수한 직무에 관심을 지닌 점 등은 원시적 형태의 구조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14장과 24장에 등장하는 치유 및 병자들에 관련된 내용이다. 14장은 치유의 은사를 묵시 중에 받았다고 말하는 이에게 안수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데, 이는 신적인 능력의 판단 여부를 교회 안팎의 공감대와 연결하려는 의도를

교회 안팎의 상황을 추론할 수 있는 자료들을 품고 있는 동시에 교회가 당시 현존 사회질서에 대해 어떤 자세를 지니고 있는지 등과 관련된 유효한 내용을 전달한다는 점도 『디다케』와 비슷하다. 두 저술이 서로를 의식하면서 의도적이고 논리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했다는 추론은 근거가 없지만, 2020년 한국교회가 경험 중인 여러 상황에 접목 가능한 영성과 리더십에 관한 자료들을 지녔다는 차원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3. 초대교회의 사회적 정황과 교회의 반응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발발 이후, 질병으로 고난을 겪는 사회를 향해 교회가 지닐 자세에 대한 언급과 연구가 활발해졌다. 그리고 그 논의 초기에 많이 언급된 내용이 2세기경 발발한 로마제국 영토의 산발적인 전염병들에 대응한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그로 인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전도 효과 증가추세이다.¹²⁾ 스타크에 따르면 정부의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 사회적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교회는 그 시기의 다른 종교와 철학 등과 달리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 설명을 제공하는 성과를 거둔 동시에 그런 성찰을 적극적인 참여로 옮기는 과정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결과를 낳았다.¹³⁾ 이런 현상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에 관한 묘사로부터 기인한다. 예수는 율법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제의적 행위들을 재해석하

엇볼 수 있다. 즉 공동체의 내부자끼리만 통용 가능한 은사 대신 교회 외부인들에게도 동의할 얻을 수 있도록 치유 은사를 확대하자는 취지는 교회가 더 이상 사회와 단절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의식을 드러내는 구절이기 때문이다. 또 24장에 등장하는 병자들을 위한 선물에 관한 내용은 필요에 따른 공급의 양을 정하고 병자들의 어려운 환경을 돕기 위한 봉사와 나눔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권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스타크의 책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이처럼 적극적으로 병자들에게 다가가는 일은 당시 시대 상황에서 드문 경우이며, 이런 사회적 속성들이 기독교인들의 고유한 특성으로 정착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Hypolyte/이형우 옮김, 『사도 전승』 (경북 왜관: 분도출판사, 1992), 111; 147.

12) 로드니 스타크의 저술 속에 등장하는 내용에 따르면 질병이 창궐했던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보인 태도는 이교도들의 그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여타 종교의 사제들이나 철학자들은 전염병이 발발할 때, 그 지역을 먼저 떠나며 다른 이들에게 신들의 진노가 왜 질병의 형태로 임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으나, 기독교인들은 신학적 성찰의 결과를 거쳐 삶과 죽음의 의미를 제공할 뿐 아니라 병자들을 향한 돌봄과 환대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기록된 까닭이다. 낮은 의학 수준과 열악한 질병 관리대책을 지닌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기독교인들이 보인 신학적 응답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단지 이론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처하는 자세는 당시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창출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스타크는 주장한다. Rodney Stark, *The Rise of Christian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77-82.

13) 4세기경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아누스(Julian)은 362년에 쓴 서신에서 헬라파인들(The Hellenists)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선과 환대의 덕목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불평을 적었다. Julian, "Letter 22: To Arsacius, High-Priest of Galatia," 「Letters of Julian」, (2012.12.10.), 접속 2020.5.5., https://en.wikisource.org/wiki/Letters_of_Julian/Letter_22.

는 과정에서 병자들과 죄인들을 돌보는 일을 인간으로 강립한 자기 인생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설정했기 때문이다.¹⁴⁾ 유대교의 분파로 시작한 원시기독교공동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을 기준으로 유대교의 윤리와 제의 및 상징기호체계를 완전히 일신했다는 타이센의 주장을 신뢰한다면, 유대교 지도자들의 강력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꾸준히 지속한 기독교 예전과 윤리의 속성이 포용적인 환대와 헌신을 표방하는 기독교의 사회적 특징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쉽게 동의할 수 있다.¹⁵⁾ 이와 같은 일련의 내용이 암시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예수 운동과 신흥종교로서의 기독교 탄생은 철저히 사회적 거리감의 초월 및 소멸을 전제했으며,¹⁶⁾ 이는 전염병과 같은 사회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나타난 기독교의 대응 논리와 자세를 결정하는 결정적 지침으로 작용했음을 나타낸다.¹⁷⁾

또 다른 차원에서 가늠할 수 있는 『디다케』와 『사도 전승』의 사회적 의미는 기독교 외부의 그리스 철학사상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디다케』는 두 가지 길에 대한 권면으로 글을 시작하면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구분한다. 물론 인생을 이처럼 두 갈래 길로 나누는 방식이 기독교에만 고유한 세계관은

14) Bart D. Ehrman, *The New Testament: A Historical Introduction to the Early Christian Writing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90-91.

15) 타이센에 의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써 나타난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별적 특성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타자(동물)를 희생시키는 전례를 깨고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 남을 구원하는 자기 포기로 발현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선동 구호에 머무는 차원을 넘어 이웃 사랑이라는 하부계층의 덕목을 가장 중요한 구원의 선결 조건 및 파급효과로 제시하는 대담한 단계까지 나아갔다. 그렇게 판단하면, 기독교는 자신들의 독자성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으로부터 적극적인 사회적 약자 돕기에 나섰으며, 그런 포용적인 환대와 참여 및 거리감의 극복 등으로 인해 이전의 유대교 전통들을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하는 결과를 달성했다. Gerd Theißen/박찬웅·민경식 옮김, 『기독교의 탄생: 예수 운동에서 종교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74-94.

16) 카르티지의 감독이었던 시프리아누스는 질병이 만연하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동료 그리스도인들 환자뿐 아니라 비기독교인 환자들 역시 돌볼 것을 강력히 권면하고 있다. 물론 그가 돌봄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병에 걸린 이들에 제한된 것은 아니다. 그의 목록에는 선생들(teachers), 관료들(officials), 과부들(widowers), 고아들(orphans)이 총체적으로 포함되며, 그 연속선에서 병자(the sick), 약자(the infirm), 가난한 자(the poor), 장애인(the disabled), 죄수들(prisoners) 등을 향한 환대와 돌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Adolf Harnack, *The Mission and Expansion of Christianity in the First Three Centuries*, (Gloucester, MA: Harper & Row, Publishers, 1972), 160-162.

17) 유세비우스가 쓴 것으로 알려진 『교회사』에도 페스트 발병 시 다른 종교의 자기방어적인 전염병 대책방식과 기독교인들의 태도를 대조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다른 이교도들과 달리 기독교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난을 겪었으며 다른 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사랑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기술했다. 물론 이 글의 작성 의도에 대해 다소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낼 수 있지만, 초대교회가 지니고 있던 전염병 사태와 감염된 환자들에 대한 태도를 암시적으로 엿볼 수 있다. Eusebius Pamphilus/엄성욱 옮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0), 398-401.

아니다. 유대교를 포함하여 무수히 많은 종교와 사상들에서 이런 이분법적 이해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플라톤 철학의 영향은 초대교회 기독교의 가치관 형성에 적지 않은 자취를 남겼으며,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로 세분된 『디다케』의 분류방식 역시 훌륭한 삶의 조건으로 지성의 획득 여부를 결부시킨 플라톤의 철학 세계를 떠오르게 한다. 소피스트들과 달리 플라톤은 행위의 원리를 행위로부터 행위자 자신으로부터 찾았으며, 내적 상태의 완성도 여부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견을 제시했다.¹⁸⁾ 즉 선과 악을 서로 독립적인 실체로 전제하는 다신론의 입장을 거부하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 상반된 인생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시각을 의미한다. 『디다케』 역시 이와 유사한 시각을 지니고 있다. 죽음으로 이끄는 악한 길은 마음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이며, 정욕에 불타는 마음은 우상숭배와 똑같은 반열로 설명하기 때문이다.¹⁹⁾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혹자들의 오해와 달리 플라톤 철학이 고전적인 이원론적 세계를 구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록 ‘이데아’를 참된 세계 또는 본질로 제시했지만, 현실의 일상을 형성하는 ‘instances’과 이데아는 상호 분리할 수 없는 필요충분조건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²⁰⁾ 『디다케』와 플라톤으로부터 유추 가능한 공통된 결론은 비록 서로 다른 행위와 삶의 결과로 귀결될지라도 개인과 사회는 별도의 양식으로 현존하는 이분법적 구도가 아니며, 오히려 상호 이질적인 존재 양식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는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영혼의 지향을 통하여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하는 절차를 제시한다는 논리적 명제이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면, 플라톤이 생각한 세상은 하나의 일원론적 체계를 기반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영역을 긍정하되 두 세계는 중재자들의 기능을 통해 하나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원론적 체계 속에 두 영역의 독립과 연결을 동시에 긍정하는 플라톤 철학의 구조와 『디다케』에서 모두 발견되는 이런 세계관은 교회의 전례들과 규범들 속에 담긴 초대교회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작지 않다. 논리적 측면에서 양자는 내면에 흐르는 근원적 원리가 서로 다른 표현양식을 하나

18) 김태경, “플라톤에서 사람됨과 훌륭한 삶,” 한국서양고전철학회 엮음, 『플라톤 철학과 그 영향』 (서울: 서광사, 2001), 75.

19) 저자 미상, 『디다케』, 35.

20) 핀들레이는 플라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오해 중 하나가 플라톤이 이데아(Idea)와 instances를 단절된 개념으로 이해한 점이라고 지적한다. 실상 플라톤이 설명하려는 바는 인간 삶의 본질과 궁극적 결과를 결정하는 요소가 초월적인 영역에 속하며, 그에 도달하기 위한 마음의 상태 유지 및 지성의 탐구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는 판단이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플라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서술한다. 물론 그와 같은 플라톤의 철학적 구조가 당시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한 후, 민주주의 정치체도를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귀족 중심적 정치 체제를 주장한 플라톤과 아테네 귀족 계층의 희망에 근거한다는 분석은 별도의 논의사항에 속한다. John N. Findlay, *Plato and Platonism*, (New York: Times Books, 1978), 20-23.

의 연결고리로 묶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런 운용원리는 예전과 규범을 구성하는 방식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교회는 유대교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고백을 가장 중요한 기준과 원리로 적용하는 한편, 서로 다른 실체들을 하나의 유기적 연장 선상에서 파악하는 역설적 방법론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배타적 공격성을 극복하고 창조적인 수용력을 극대화했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런 창조적인 수용력은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다양한 신분과 직위에 속한 이들을 기독교 공동체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생활규범으로 구현되었다.²¹⁾ 따라서 기독교의 근원에 해당하는 예수와 초대교회의 생활상은 철저히 이웃을 위한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행동강령을 당연한 과제로 요청했으며, 그를 위해 유대교와 그리스 철학의 주요 논리와 원리를 독창적으로 재정립하고 자기 포기예 기반을 둔 공동체의 규율로 확정하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밟았다는 점을 긍정할 수 있다.²²⁾

『디다케』와 『사도 전승』이 복잡해지는 초대교회 안팎의 정세를 반영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 정황 속에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유대교의 전통과 반복되는 질병에 대한 대응방식 등을 통해 검증된 강력한 포용성을 자신들의 윤리와 예전, 규범 및 존재 양식에 접목했다는 점 역시 명백하다. 교회가 경험한 실존적 경험과 독자적으로 형성한 내면의 신학 이해가 그러하다면, 그것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영성과 결과로 판단할 수 있는 리더십 역시 연속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할

21) 『디다케』 12장에 등장하는 구절은 여행자나 손님 또는 공동체에 속하기를 희망하는 외부인들에 대한 교회의 자세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비록 기본 지침을 설정하고 진지한 판단 능력을 요청하는 전제조건을 잊지 않았지만, 외부인을 향한 기초 자세는 매우 긍정적인 포용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로부터 세례를 포함한 여러 예전과 생활규범이 확립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적어도 시리아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으며,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카리스마에만 의지하지 않고 사회질서와 적극적인 상호관계 속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명시한다. Josef Weismayer·Gisbert Greshake·Wilhelm Geerlings/전현호 옮김, 『디다케에서 아우구스티노까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7), 30.

22) 이와 관련하여 초대교회 형성기에 해당하는 로마 사회의 관습 중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논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당시 로마 사회가 여성들의 결혼과 관련하여 남성 주도적인 가부장제의 외양을 지닌 점은 사실이지만,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면모도 지니는 등 서로 다른 이중적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오히려 유대교 전통에서 여성들의 이혼 요청이 금지되었으나, 로마문화는 남성 간통의 경우 여성들도 먼저 이혼을 요구할 권한을 지니도록 허용했으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성들의 직업 활동을 긍정한 면모도 보였다. 초대교회가 여성에 대한 이런 이중적 차원을 자신들의 규범으로 받아들였을 개연성은 매우 높으며, 그 결과 당시 로마 사회보다 더 높은 여성들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가설도 신중하게 긍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도 전승』의 10장과 30장의 과부들에 관한 언급과 12장의 동정녀에 대한 기록은 (만일 히폴리투스가 정말 『사도 전승』의 저자라면) 주 후 3세기의 로마 상황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Everett Ferguson, *Backgrounds of Early Christianity*,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3), 65-72.

수밖에 없다.

3. 초대교회 영성과 리더십

『디다케』와 『사도 전승』을 통해 교회와 사회의 긴밀한 연결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던 초대교회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근거로부터 교회가 자신들과 이질적인 사회적 요소를 창의적으로 수용하며, 자기 포기과 이웃 사랑이라는 윤리 규범을 실천했다는 개연성을 추론할 수 있었다. 그럼 이런 두 저술의 숨은 배경들은 단순히 추상적 이론이나 형이상학적 신비 추구에 국한된 소수의 주장이었을까? 역사는 실존했던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 디다케』와 『사도 전승』에 등장한 교회와 사회의 필연적인 상호관계 및 그로 인해 강조된 자기 포기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타나시우스에 의해 기록된 『성 안토니의 생애』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공의회로 설명되는 기독교론과 삼위일체 신학을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목적을 나타내는 동시에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영웅이나 지도자의 모델을 제시하는 복합적 의도를 담고 있다.²³⁾ 안토니는 실존 인물이며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인지도가 매우 높은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 안토니의 명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이 작품은 단순한 문학적 호기심 차원을 넘어 교회가 추구하는 영적 교훈 및 신학적 교육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해 제작된 결과물이다. 즉 신자들에게는 영성훈련과 신학적 학습을 추구하는 교육 목적을 지닌 동시에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소개하며 기독교인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홍보하는 목적을 지녔음을 뜻한다. 이를 현대인의 용어로 표현하면 제자훈련과 선교 및 전도의 목적을 고취할 의도로 기술한 전기(傳記) 형태의 『성 안토니의 생애』는 안토니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피상적인 수준 외에 교회가 지향하는 영성과 신학이 교회 밖 세상의 문학적 경향성과 논리적 이해 그리고 다수가 지닌 상식과 역동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그런 아타나시우스의 의도로 재현된 안토니

23) 아리우스의 기독교론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독자적인 주장을 내세웠던 아타나시우스는 그런 자신의 기독교론에 최적화된 인물로 안토니를 선정한 후 그가 보인 삶의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 애덕(愛德)의 결합을 당시 유행하던 문학 장르에 담아 표현했다. 이를 통해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실존적인 삶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밝힘으로써 자신이 설명하려고 시도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제시하려고 애썼으며,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결합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와 신자들이 지향할 생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안토니를 통해 묘사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안토니는 아타나시우스의 기독교론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 기재인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비신자들에게 신실한 기독교인의 정형을 알려주고 싶은 계몽적 또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Athanasius/엄성욱 옮김, 『성 안토니의 생애』 (서울: 도서출판 은성, 2009), 6-17.

가 자기를 포기하는 절제와 금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자신이 체험한 신성을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과 치유 행위 등으로 표현하는 내용은 초월적인 신성을 질병과 기근 또는 전쟁과 가난 등으로 신음하는 실존 인물들의 삶과 결합하려고 시도했던 신학적 의도와 영성을 암시한다.²⁴⁾

신비체험과 사랑의 실천 그리고 교회의 내부자들을 위한 영적 구심력 강화와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적인 목적의 조합이 시도된 예는 아타나시우스에 의한 안토니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삼위일체론 형성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바실리우스는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특성을 신학과 철학의 결합을 통해 표현하려고 애썼으며, 인간이 영적인 요소와 육체적 요소의 기묘한 혼합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면서 육체적 쾌락의 단념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통한 수덕생활(修德生活)을 강조하고 이를 영성의 가장 높은 단계로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²⁵⁾ 서방교회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애덕(愛德)을 모든 기독교 윤리의 요약이며 완전한 정의라고 표현하면서 애덕(愛德)의 불완전함을 통해 영성의 완덕(完德)에 도달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랑의 실천이 내세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유기적인 영성을 드러냈고,²⁶⁾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베네딕토 수도회의 사상을 이어받아 악습 및 욕정과 싸우는 영적 투쟁을 윤리적 덕목과 연결하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영성의 최고 단계인 관상과 필연적인 연관성 속에 두었다.²⁷⁾

24) 기독교론과 삼위일체 신학을 제정하기 위해 모인 니케아-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결정 사안들이 무엇이었던나의 논쟁 외에 소집 및 진행 과정에 얽힌 요소들로부터 교회의 영성과 리더십에 담긴 교회와 사회 사이의 복합적인 역동성을 탐색할 수 있다. 우선 공의회 소집은 로마 제국의 평화에 장애를 준다고 판단된 교회의 분열을 해결할 목적으로 황제에 의해 진행되었다. 교회의 신학적 주제를 세속 권력의 정점에 있던 황제가 해결하려고 했다는 역사적 모순은 그리스도로서 예수의 신학적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질차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 동방과 서방교회로부터 온 감독과 주교들, 즉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논리적 명제로 결정했으며 이 방식 역시 오늘날도 흔히 볼 수 있는 다수결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지극히 인간적인 제도와 방식에 의해 하나님의 신성이 결정되고 그에 대한 반론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일련의 상황은 정통과 이단의 경계에 대한 구분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세속 사회와 교회가 지닌 상호관계가 상황에 따라 얼마나 다양하게 변모하는지를 여실히 나타내는 좋은 선례로 작용하는 셈이다. 황명길, 『기독교 7대 공의회와 신학』 (경기도 과주: 고려신학교 출판부, 2014), 83-97; 134-137.

25) Jordan Aumann/이홍근·이영희 옮김, 『가톨릭 전통과 그리스도교 영성』 (경북 왜관: 분도출판사, 2007), 67-68.

26) Jordan Aumann, 『가톨릭 전통과 그리스도교 영성』, 92-94.

27) 그레고리우스 1세는 지도자로서 강조한 이런 영성과 신념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겼다. 그는 이교도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도의 직책이 관상과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했고 관상 역시 신분의 높고 낮음 및 문화의 다양성과 관계없다는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여러 민족의 기질과 차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선교에 크게 이바지하는 결과를 유도했다. 아울러 소박한 실천 강령 및 정절 등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지향하는 영성이 세속 삶에서 세부적이고 실제로 드러나도록 노력했다. 여러 공의회를 거치면서 형성된

여러 구조적 문제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리더십과 교회의 영성이 변화하는 시대상을 깊이 성찰하는 과정과 필수적으로 연결될 개연성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최고의 영적 단계를 여러 개념과 용어로 추구하면서도 교회 내부 및 외부의 이교도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확장할 책임 역시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디다케』와 『사도 전승』에 등장하는 내용이 초대교회와 당시 로마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대화와 소통의 흔적을 내포하듯, 안토니와 바실리우스 및 아우구스티누스와 그레고리 1세 등은 영성과 리더십의 기준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교회의 내부에 머물지 않고 교회 경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될 이유를 명확히 지지하고 있다.²⁸⁾

4. 오류의 발생과 영성 및 리더십의 왜곡

초대교회와 초기 공의회들이 지닌 영성과 리더십에 대한 함축적 요소들과 달리 중세교회 시기에 진행된 여러 공의회는 교황권의 상승과 보편적인 효력 발휘를 목표로 지닌, 소위 교황 주재 공의회들이었다.²⁹⁾ 그리고 오늘날 가톨릭교회의 교황을 영적 지도자로 인식하는 선입견과 달리, 세속 군주들의 통치방식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리더십이 만연했으며 수없이 많은 추문과 권력다툼으로 얼룩진 오욕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다.³⁰⁾ 기독교 공동체의 영성과 리더십을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이 교회의 성직자들과 수도원의 수도자들이었던 초기 모습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변질되었고, 역설적으로 영성과 리더십을 파멸시킨 가장 본질적인 원인으로 전락하고 만다. 특히 11세기경부터 시작된 중세교회의 본격적인 역사는 그레고리우스 7세 이후, 황제 및 세속 군주와의 충돌과 정권 다툼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종교개혁의 이유가 될 만큼 중세교회의 영성과 리더십을 극단적으로 타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³¹⁾ 그리고 이런 혼돈

핵심교리들과 예전의 형식들은 이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리더십과 영성에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교회가 사회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속해서 갱신한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Jordan Aumann, 『가톨릭 전통과 그리스도교 영성』, 105-112.

28)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전염병과 특별한 연관성을 지닌다. 그의 전임자가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교황 직위에 오른 것은 물론 교황으로서의 직무를 전염병이 창궐하던 거리를 돌며 기도와 찬송을 이어간 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렬이 거행되는 기간에도 8명이 사망했지만, 그레고리우스 1세는 자신이 계속 응혈이 멈추지 않는 와중에서도 교황으로서 업무를 중단하지 않았다. Philip Schaff/이길상 옮김, 『교회사 전집:그레고리우스 1세부터 그레고리우스 7세까지』 (경기도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206.

29) Hubert Jedin/최석우 옮김, 『세계 공의회사』 (경북 왜관: 분도출판사, 2006), 49.

30) Bob Curran, *Unholy Popes*, (New York: Fall River Press, 2010), 208.

31) 박정수, 『교회사 클래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90-93.

과 무질서는 동시대에 여러 교황이 난립하는 부끄러운 교회의 자화상으로 이어졌다. 더구나 점차 강해지는 민족주의 정서와 동떨어진 교회 리더십의 부정부패로 인해 교황의 권위는 찾아볼 수 없는 지경까지 몰렸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의회 우위설이라는 괴상한 이론까지 등장하게 되었다.³²⁾ 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김과 희생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던 기독교 영성과 리더십은 통치와 정복이라는 오류와 왜곡으로 타락했고, 그 이후에도 교권주의라는 망령에 허우적거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교회와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한 부끄러운 기독교 공동체의 과거는 교황과 관련된 리더십과 영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동시대 인물들과 교회 지도층으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은 후, 시대의 흐름 속에 재해석 과정을 밟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통 계시에 따라 조국 프랑스를 구한 영웅이 되었지만, 권력욕에 사로잡힌 이들에 의해 마녀로 정죄 받은 잔 다르크는 후일 성녀로 추앙받는 역전 현상을 보였다.³³⁾ 또 교회를 대적하는 이단의 오명을 썼다가 훗날 종교개혁의 기수로 재평가된 존 후스와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이단으로 판정받았다가 수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존 웨슬리 등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교회와 사회의 필요충분조건 관계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들이다.³⁴⁾ 긍정적인 초대교회의 선례이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중세 이후의 여러 사건과 인물들이든지, 교회의 영성과 리더십 형성 과정에는 항상 교회를 둘러싼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이 연관되어 있다. 부작용과 역기능이 만연한 경우에 교회는 사회의 필요와 요청에 역행하며 상식과 기준을 이탈하는 오류를 범했고, 교회의 영성과 리더십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경우는 문화와 윤리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사회 개혁을 선도하는 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³⁵⁾

5. 종교개혁 전통의 자기모순

중세교회의 구조적 폐해를 비판하는 이들은 종교개혁의 결과가 가톨릭교회의 리

32) 박정수, 『교회사 클래스』, 99-100.

33) 예영수, 『이단 정죄와 역사의 아이러니』 (서울: 국제크리스천학술원, 2007), 40-53.

34) 예영수, 『이단 정죄와 역사의 아이러니』, 54-67; 80-89.

35) 그렇더라도 이 시기의 교회와 수도공동체 전체를 일방적으로 폄하할 수는 없다. 12세기부터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도 수도회”의 경우 과거보다 훨씬 계몽된 지성의 수준을 수용하기 위해 공부를 장려하는 적극적인 조치와 같은 개방적인 조치를 실행했으며, 교구에 소속된 ‘참사 수도회’들은 공동체 내부에서 설교와 행정, 단식과 기도처럼 본래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 외에 병자들을 돌보고 죽은 이들을 매장하는 일들도 적극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추상적인 사상의 변화뿐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시도했던 영성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Jesús Álvarez Gómez/강운자 옮김, 『수도생활 역사 II』 (서울: 성 바오로 출판사, 2002), 112-114; 135-137.

더십 및 영성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혁신시켰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한 교리들이 성직자 및 교계 제도 그리고 수도회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서열화와 수직적 위계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사실은 자명하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성공 배후에 잠재된 여러 원인 중 특별히 독일의 정치 권력 구도와 연계된 정황들은 기본적으로 영성과 리더십의 형성이 순수하게 기독교 공동체 내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비판의 주제가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³⁶⁾ 물론 종교개혁은 교회의 부패를 일신하고 성경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회복하겠다는 영적 지향성으로부터 비롯된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형성된 중세시대의 영성과 리더십을 특징지을 수 있는 대표적 요소가 교황제도가 수도회였던 점을 고려하면, 종교개혁은 영성과 리더십에 관한 사회적 불만과 요구와 분리되지 않는 연속성을 지녔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특성은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 영성과 교회 리더십에 연관된 핵심가치가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역할로 작용한다. 즉 사회변화에 둔감하고 구성원들의 실제 필요를 도외시하는 태도는 기독교 영성과 교회 리더십 형성에 결정적인 장애 요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뜻이다.³⁷⁾ 교회의 리더십과 영성을 세속적 가치관과 이분법적 단절의 패러다임으로 분류한 후, 세속 사회를 향한 배타적 태도가 신실한 기독교인의 표상인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사는 그런 고정관념이 근본적으로 왜곡된 명제라는 점을 명시한다. 마치 고립된 외딴 섬에 갇혀있는 삶일수록 하나님과 가까운 신앙의 유형이라는 논리와 유사하지만, 영성과 리더십은 혼순간도 교회와 사회의 역동적인 순환 관계를 떠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사회의 급속한 변화여건과 전개과정을 교회가 적극 자신

36) 중세 후기에 이미 이탈리아와 독일지역은 지역적으로 정치 권력이 분할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7명의 선제후는 황제의 직접 통치를 제국 도시들과 함께 상업과 경제의 중심지 구실을 했으며 시민들의 법적인 안전을 보장하면서 시의회의 활동을 점차 교회의 전통적인 역할이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을 선도했다. 이처럼 세분된 독일지역의 정치와 경제 지형도는 황제나 지역 영주의 절대 권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교회의 조직적인 타락과 성직자들의 부패를 비판할 수 있는 토양으로 작용했으며, 결국 종교개혁의 성공을 유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독일 종교개혁의 성공 원인을 중앙집권적인 정치 체제가 부재했던 당시 상황으로부터 찾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이처럼 영성과 리더십이 교회와 사회의 밀접한 상호작용 또는 상호관계를 필요충분조건으로 요청한다는 사실을 종교개혁의 진행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Karl-Heinz zur Mühlen/정병식·홍지훈 옮김,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7-21.

37) 12~13세기 동안 교회의 재정은 지나칠 정도로 비대해졌으며, 이에 대한 저항으로 탄생한 여러 수도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교회는 재산 증식에 최선을 다했으며 이런 노력의 여파는 성직 매매나 성직자들의 성적인 타락 등과 연관되면서 교회 지도자들의 영성과 리더십에 심각한 결격사유로 작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이런 현실을 지적하는 일부 수도사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교회 밖으로 제명하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신비주의 집단의 발생이나 이단의 횡행, 인문주의자들의 활동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종교개혁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을 겪게 된다. Jesús Álvarez Gómez, 『수도생활 역사 II』, 166-171.

들의 영성 및 리더십의 구성요소로 받아들였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³⁸⁾

사회변화에 둔감한 영성과 리더십이 기독교회 내부에 존립기반을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은 과거의 사건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20세기 이후 현대사회의 영성과 리더십 형성과정에서도 사회의 여러 요소와 환경들은 과거로부터 전래한 전통적인 모습을 일신하는 결정적 이유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현대사회에서 영성이라는 주제가 다시 기독교 신학의 주목을 받는 배경에 동일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⁹⁾ 유진 피터슨은 이런 점을 훨씬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그에 의하면 ‘신학’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인간의 지성적 노력으로 규정되는 반면, ‘영성’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 계시한 내용을 평범한 모든 이들의 삶과 가정 또는 직업 등에서 구현하는 대상으로 정의된다.⁴⁰⁾ 따라서 영성은 단순히 이론과 명제로 정리되는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믿는 바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삶을 망라한다. 이 내용은 교회 또는 기독교 예전이나 특정한 신앙 등과 국한된 내용과 접촉하는 일부분만 영성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영성은 교회 안팎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 전반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구성 원리를 지닌다는 선언이다.⁴¹⁾ 이런 논리에 따르면, 영성은 반드시 사회변화에 민감

38) 흔히 경건주의 운동이 개인의 회심과 회개를 통한 중생체험 이후 세속적 욕망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강조하는 전통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 독일 경건주의의 대표적 인물인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란케(August Herman Franke)는 할레대학교의 교수로 봉직하면서 교아원, 학교, 도서관 등을 설립하는 동시에 개신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근대정신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17~18세기의 유럽 사회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각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회심 체험을 강조하면서 차츰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참여하는 형태를 보인 한편, 여전히 독립적인 공동체를 유지하며 쾌락에 대한 율법주의적 태도를 유지한 점 등은 새로운 문화적 정황 속에서 영성과 리더십의 방향성을 놓고 고민하던 과도기적 현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Bradley P. Holt/ 엄성욱 옮김, 『기독교 영성사』 (서울: 도서출판 은성, 2002), 168-169.

39) 가톨릭 신학자 마이클 다우니는 오늘날 영성의 재발견이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 회의에 빠진 현대인들의 경향성과 공동체로서의 인간 이해가 붕괴되고 인류가 공멸의 위기에 봉착한 현실, 하나님을 대체했던 신념들의 붕괴 등으로부터 촉발되었다고 적었다. 이는 근대의 과학적 사고와 산업혁명에 이은 생활방식의 변화 이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신앙의 무가치성에 대한 확신은 전쟁을 포함한 여러 위협요소로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영성의 재발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견해인 셈이다. 결론적으로 영성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은 언제나 개인 및 공동체의 사회 환경과 직결된다는 점이 재확인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Michael Downey/안성근 옮김, 『오늘의 기독교 영성 이해』 (서울: 도서출판 은성, 2001), 32-35.

40) Eugene H. Peterson/이종태·양혜원 옮김, 『현실, 하나님의 세계』 (서울: IVF, 2006), 26.

41) 영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복음주의 전통은 이처럼 교회 내부의 예전과 교리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저변에 흐르는 다양한 이슈들을 향한 신학적 태도와 영적 해석을 표출한다. 비록 회개를 촉구하는 자세는 청교도 운동이나 경건주의 등과 유사했지만 복음주의는 근대의 합리주의적 지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며 이에 바탕을 둔 다양한 사회 참여를 실행에 옮겼기

한 반응을 보여야 하며 그런 전제조건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영성은 성경과 교회 역사가 제공하는 영성의 구성방식과 완전히 이질적인 유사영성에 불과하다. 따라서 영성과 리더십을 논할 때, 교회와 사회와의 상호 연계성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무지의 발로이다. 즉 영성과 리더십을 순수한 교회 내적인 요소들로만 채운다는 폐쇄적 개념과 배타적 태도를 버리고, 양자의 필연적인 상호 결합을 당연하게 간주하는 전제 아래 그 융합의 기준과 목적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

6. 영성과 리더십에 대한 오해와 착각

영성과 리더십은 교회와 사회의 밀접한 또는 필연적인 상호관계를 전제하며, 그런 상호작용이 부재한 리더십 및 영성의 구성은 성경의 계시에 근거한 기독교 본래 정신과 무관한 내용으로 전락한다는 점을 탐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과 리더십에 얽힌 오류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의 역사 이해에서 오는 오해와 착각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런 오해와 착각은 인간 공동체의 역사를 승자와 패자의 관점으로 구분한 후, 주로 승자의 시각 또는 엘리트 집단의 의견을 정통으로 인정하는 진영논리 및 이분법적 대결 구도와 연관된다.⁴²⁾ 역사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에 대결과 갈등을 전제하며 승자의 위치를 점한 진영 및 인물들에게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특권을 부여하는 태도는 모든 사회 구성을 수직적 위계질서에 편입시키는 경향을 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경직된 사회구조는 이질적인 집단이나 개인에게 대단히 공격적이고 폐쇄적인 본성을 지닌 채, 다양한 의견을 배척과 압제의 대상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공격적이고 배타적 분위기에서 태동하는 영성과 신학은 언제나 지배와 정복을 지향하는 왜곡된 특징을 나타내며, 그에 따른 리더십과 교회의 예전 및 목회는 세속 집단의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정복과 지배의 속성으로 변질되는 수순을 밟는다.

종교개혁 발발 이후 종교개혁의 전통은 여러 갈래로 갈라지며 다양한 행태로 변

때문이다. 흔히 개인 내면의 성결을 강조하는 수준으로 인식하는 고정관념과 달리 복음주의는 점차 변해가는 문화와 사회질서에 반응한 영성과 리더십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며, 이런 경향은 후일 존 웨슬리에 이르러 정점에 도달한다. Bradley P. Holt. 『기독교 영성사』, 169-171.

42) 쉘드레이크는 승리주의와 엘리트주의 또는 수정주의자들의 역사관에 의해 지극히 현실 참여적인 기독교의 복음과 영성이 물질적인 실제 너머의 추상적인 내용으로 전개되었다고 비판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교회와 사회를 차별적인 실제들로 나누고 상호 적대적 감정을 지니도록 유도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데, 시대의 흐름 속에 이런 성향은 강력한 교권주의로 발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비록 저자는 명시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지만, 이런 현실은 중세 가톨릭교회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며 비뚤어진 역사관을 지닌 모든 종교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데,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 전통도 예외가 아니다. Philip Sheldrake, *Spirituality & History*, (Maryknoll, NY: Orbis Books, 1998), 65-67.

모되었고 그 속에서 각기 고유한 특색을 나타내기 시작했다.⁴³⁾ 한편으로는 교회와 사회의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지속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에 대한 교회의 우월한 위치 또는 배타적 자세로부터 야기된 오류들이 중세교회의 그것과 유사한 결과를 드러내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⁴⁴⁾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명칭과 개념으로 치장했을 뿐, 종교개혁 태동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중세교회의 왜곡된 폐단이 개신교 공동체들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흔히 보수주의를 근본주의와 혼동하는 이가 있는데 보수주의와 근본주의의 차이점은 자신들의 신념을 특정한 그룹들의 정체성과 결부시킨 후 정치적 운동으로 확대하는 현실 참여적 방법론에 있다. 즉 자신들의 신념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에 성경해석방법론의 의도적인 오류를 일으켜 영성의 형식과 내용을 변형시키는 한편, 그것을 실제 적용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변질된 기독교 리더십을 합리화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태도를 뜻한다.⁴⁵⁾ 이런 결과는 사회와 교회 모두를 진영논리에 함몰시켜 극단적인 양극화와 서열화를 양산하는 기폭체로 작용하며, 조금이라도 의견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들에게 신성모독이나 이단 등의 명칭을 붙여 심판의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현실을 생산하는 원인이 된다. 심지어 진리담론

43) 홀트는 종교개혁 전통의 분화를 ①루터교회와 독일 경건주의 ②존 칼뱅에 의한 개혁주의 ③재세례파 ④영국 국교회 등의 4갈래로 구분하면서, 각 지역의 특수성과 정치 지형에 따른 다양성을 서술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은 지리적인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내부 사정과 근대로 접어들면 급속히 발생한 돌발변수들에 의해 빠르게 자신들만의 교회 형태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독일과 영국은 물론 개혁주의가 강세를 보인 스위스 및 북유럽 국가들은 민족국가 형태에 부합한 국가교회로 재편되는 모습을 겪었고, 경건주의와 재세례파는 국가와의 접촉을 가급적 줄이며 교회가 지극히 사적 영역에 포함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집권적인 중세교회의 특성이 국가교회에 상당 부분 전이된 현상은 당연한 귀결이라 판단되며, 이런 성향에 반발한 결과가 경건주의와 재세례파의 후예들에게 전수된 것 역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이다. Bradley P. Holt. 『기독교 영성사』, 138-150.

44)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등장한 기독교 근본주의 운동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기본적으로 근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 정신에 입각한 자유주의 및 진보주의적인 시대정신에 반발하는 사조를 개신교 진리와 결부시킨 변종으로 과거의 교리적 틀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강화시킬 요량으로 교회 공동체를 근본주의적 교리로 결속시킨 후 외부의 문화를 혼합적, 반종교적, 비종교적 등의 형용사로 규정하는 배타적 자세를 취하는데, 이런 교회의 대사회적 태도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는 특성을 지닌다. 최대광, “기독교 근본주의의 정의와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 소경희 엮음, 『종교 근본주의: 비판과 대안』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11), 56-57.

45) 이길용 교수는 근본주의의 속성이 변화를 거부하는 외양 속에 자신들이 믿는 바가 종교적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내재하여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변화된 세계 및 삶의 환경과 그에 따른 확대된 인식 체계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한계로부터 야기된 열등감과 불안감을 축소하는 일종의 방어기제로 판단되는데,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경제적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길용, 『종교로 읽는 한국 사회』 (경기 의왕: 도서출판 꽃자리, 2016), 47-48.

차원에서 타협이 불가한 다른 종교들과 정치적인 제휴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경우가 난무하며,⁴⁶⁾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신앙의 근간을 오도하는 일 역시 자주 발생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일련의 내용은 종교개혁 이후 발생한 개신교회들의 리더십과 영성 측면의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종교개혁 발발의 표면적 원인이 중세 가톨릭 교회의 교권주의 및 수도회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영성의 퇴보와 타락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종교개혁 전통에 속한 후예들 역시 변형된 형태로 근본적인 문제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을 『디다케』나 『사도 전승』의 저술 내용 및 취지와 비교하면, 초대교회의 발전에 나타난 긍정 요소에 역행하는 부정적 역기능이 쉽게 판별된다. 즉 두 저술은 교회나 성직제도 또는 예전과 교리 등을 절대화하는 주객전도 방식으로부터 이탈하여 교회의 존재 목적 및 기독교 영성과 리더십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지니고 발전적인 방향성을 추구한 한편, 역사 속에 명멸한 많은 교회는 자신들을 목적으로 설정한 후 성경과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객체화하는 오류를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야기된 한국교회의 예배 및 영성과 리더십에 관한 논쟁은 교회와 사회의 상호 필연적인 관계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 고취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양자의 융합이 지녀야 할 당위성과 운용원리 그리고 방향성 설정에 담긴 기준 등에 대해 많은 점을 암시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는지 아닌지는 단순히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국한된 지엽적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본래 기독교 영성과 리더십의 본질과 역할에 어느 정도 충실한지에 따라 파악될 사안이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드리는 예배에 관한 결정은 그 결정의 내면에 교회를 목적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기독교 본래의 가치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개 역할에 충실한지를 감별하는 작업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 정밀한 검증과정 없이 공간개념에 의한 예배 여부로 사회적 인식에 맞선 대결 구도는 선교를 위한 방법론 차원은 물론 기독교 영성과 리더십의 구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IV. 나가는 말

이 연구를 통해 영성과 리더십이 서로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사실

46) 이길용 교수는 종교학과 신학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종교학을 경험학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런 시각은 종교학이 종교의 사실 여부나 참된 종교를 판명하는 목적을 지닌다는 진리담론의 관점 대신 인간의 종교적 체험이 지니는 내용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이해담론의 차원이라는 해석에서 비롯된다. 이런 설명에 근거한다면 근본주의는 이해담론의 주제를 진리담론의 결과로 추론하는 논리적 역지를 발휘하는 형식적 오류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이길용, 『종교로 읽는 한국 사회』, 73-76.

이나 기독교회의 예전이 교회 밖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기체적 현상이라는 점 역시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디다케』와 『사도전승』에 관한 연구는 기독교 예전과 직제의 근원을 탐구하는 의미 이외에 교회 내부의 영성과 리더십의 형성 원리 및 과정에 관한 연구와 교회와 사회 사이에 벌어지는 긴밀한 상호작용의 의미와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긍정한다면, 고대사회를 기반으로 작성된 두 문헌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논쟁에 빠진 한국교회의 예배 및 신앙생활의 고민을 향한 자료로서의 활용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예배의 존재 목적은 단지 신자들의 모임과 친교에 있거나 교회 및 교계 체도를 유지하는 일차적 범주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배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기독교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그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갱신되는 교훈임을 기억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과 기억은 내면의 의식작용에 머무르지 않고 교인들의 일상에서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질 당위성을 지니며,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아닌지를 포함하여 모든 신앙 행위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에 부합한 여부를 따져봐야 할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예배는 그 자체로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적으로 설정될 수 없으며 철저히 수단과 도구의 기능에 부합할 신학적 개연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배의 본질은 21세기 들어 급격히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과 예기치 못한 질병 사태에 한국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한다. 그동안 잊고 있던 예배의 근본정신을 회복하는 동시에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의 영성을 지도할 리더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재해석하며 새로운 문화와 시대정신에 부합한 내용 창출에 더 진지하고 성실한 열정을 쏟아야 한다.

■ 참고문헌 ■

- 저자 미상/정양모 옮김. 『디다케』. 경북 왜관: 분도출판사, 1998.
- 김순환 『예배학 총론: 예배와 삶의 통섭을 추구하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김태경. “플라톤에서 사람됨과 훌륭한 삶.” 한국서양고전철학회 엮음. 『플라톤 철학과 그 영향』. 서울: 서광사, 2001.
- 김형락. “디다케- 열 두 사도들의 가르침.”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엮음. 『신학교전 20선』. 경기도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 2016.
- 남원준. “교회신앙 강제·금지 단호히 대응.” 「한국성결신문」. (2020.3.27.). 접속

- 2020.4.4., <http://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95>.
- 박정수. 『교회사 클래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예영수. 『이단 정죄와 역사의 아이러니』 (서울: 국제크리스천학술원, 2007.
- 이길용. 『종교로 읽는 한국 사회』. 경기 의왕: 도서출판 꽃자리, 2016.
- 조기연. 『묻고 답하는 예배학 Cafe』.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조성돈. “인구변동, 기독교의 역할과 신학교육의 과제.” 『한국신학논총』 18(2019), 11-27.
- 조성호. “밀고 당기기: 디다케.” 『활천』 797(2020), 148-151.
- 최대광. “기독교 근본주의의 정의와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 소경희 엮음, 『종교 근본주의: 비판과 대안』.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11.
- Athanasius/엄성옥 옮김. 『성 안토니의 생애』. 서울: 도서출판 은성, 2009.
- Aumann, Jordan/이홍근·이영희 옮김. 『가톨릭 전통과 그리스도교 영성』. 경북 왜관: 분도출판사, 2007.
- Curran, Bob. *Unholy Popes*. New York: Fall River Press, 2010.
- Downey, Michael/안성근 옮김. 『오늘의 기독교 영성 이해』. 서울: 도서출판 은성, 2001.
- Ehrman, D. Bart. *The New Testament: A Historical Introduction to the Early Christian Writing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Ellul, Jacques. *The Technological Society*. trans. by John Wilkinson. New York: Vintage Books, 1964.
- Ferguson, Everette. *Backgrounds of Early Christianity*.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3.
- Findlay, N. John. *Plato and Platonism*. New York: Times Books, 1978.
- Gómez, Á. Jesús/강운자 옮김. 『수도생활 역사 II』. 서울: 성 바오로 출판사, 2002.
- Harnack, Adolf. *The Mission and Expansion of Christianity in the First Three Centuries*. Glouchester, MA: Harper & Row, Publishers, 1972.
- Holt, P. Bradley/ 엄성옥 옮김. 『기독교 영성사』. 서울: 도서출판 은성, 2002.
- Hyppolyte/이형우 옮김. 『사도 전승』. 경북 왜관: 분도출판사, 1992.
- Jedin, Hubert/최석우 옮김, 『세계 공의회사』 (경북 왜관: 분도출판사, 2006
- Jeremias, Joachim/한국신학연구소 번역실 옮김. 『예수시대의 예루살렘』. 충남 병천: 한국신학연구소, 1994.
- Julian. “Letter 22: To Arsacius, High-Priest of Galatia.” 『Letters of Julian』, (2012.12.10.). 접속 2020.5.5., https://en.wikisource.org/wiki/Letters_of_Julian/Letter_22.

- Mühlen, zur Karl-Heinz/정병식·홍지훈 옮김.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Pamphilus, Eusebius/엄성욱 옮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0.
- Peterson, H. Eugene/이종태·양혜원 옮김. 『현실, 하나님의 세계』. 서울: IVF, 2006.
- Schaff, Philip/이길상 옮김. 『교회사 전집:그레고리우스 1세부터 그레고리우스 7세까지』. 경기도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 Sheldrake, Philip. *Spirituality & History*. Maryknoll, NY: Orbis Books, 1998.
- Stark, Rodney. *The Rise of Christian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 Theißen, Gerd/박찬웅·민경식 옮김. 『기독교의 탄생: 예수 운동에서 종교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Weismayer, Josef·Greshake, Gisbert·Geerlings, Wilhelm/전현호 옮김. 『디다케에서 아우구스티노까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7.

논찬 1

“『디다케』와 『사도 전승』을 통한 영성과 기독교 리더십의 상호관계 연구”에 대한 논찬

조 성 돈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 목회사회학)

논문을 읽어 나가면 통찰력을 얻거나 지식을 얻게 된다. 대부분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얻게 되는데 이 논문을 읽으면서는 이 둘을 다 얻게 되었다. 논문은 영성과 기독교 리더십에 대해서 통시적 관점으로 일괄하고 있다. 초대교회 문서인 ‘디다케’와 ‘사도 전승’에서 시작하여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이르기까지 2천 년이 넘는 시간을 넘나들고 있다. 그런데 흐트러지지 않으며 직선으로 선을 그어 내려가는 듯, 한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1. 논문에 대한 이해

논문은 예배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는 일반적인 예배의 정의에 더하여 ‘하나님과의 교통과 타인들과의 교제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이런 본질은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관계성에 기반을 둔다는 당위성으로 확장되었다’고 한다. 즉 저자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방향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성’으로 이해한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시작하여 타인들과의 교제, 즉 코이노니아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나니 예배는 교회에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한다. 즉 공동체의 내부적 의미의 폐쇄적 형식을 뛰어넘게 된다. 그리고 복음과 선교, 봉사와 섬김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넓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디다케’와 ‘사도전승’을 이해해 나간다. 특히 디다케를 언

급하며, 이것은 특정한 기독교 공동체의 형성과정에 대한 고민과 성찰에서 나온 것으로 보며, 그러한 특정한 신앙공동체의 ‘현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더하여 그 공동체가 속한 주변 환경과의 필연적인 연관성에서 이해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후 저자는 초대교회가 지녔던 유대교와 그리스 철학의 영향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하여 외부에 대하여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적 수용력을 극대화했음을 지적한다.

중세교회를 지나면서 교황제로 말미암아 섬김과 희생의 기독교 영성과 리더십이 통치와 정복이라는 왜곡된 형태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개혁을 넘어서 ‘사회변화에 둔감하고 구성원들의 실제 필요를 도외시하는 태도는 기독교 영성과 교회 리더십 형성에 결정적인 장애 요인’임을 드러냈다.

이렇게 역사를 통시적으로 살피며 저자가 내린 결론은 영성과 리더십이 교회와 사회의 밀접한 상호관계에 터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결과 갈등의 상황에서 수직적 위계질서에 편입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렇게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분위기에서 태동하는 영성과 신학은 언제나 지배와 정복을 지향하는 왜곡된 특징’을 나타낸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코로나-19 앞에 선 한국교회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예배를 드리는지 아닌지는 단순히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국한된 지엽적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본래 기독교 영성과 리더십의 본질과 역할에 어느 정도 충실한지에 따라 파악될 사안이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드리는 예배에 관한 결정은 그 결정의 내면에 교회를 목적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기독교 본래의 가치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개 역할에 충실한지를 감별하는 작업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2. 논문과의 대화

한국교회는 현재 코로나-19 사태 이후 극심한 불안과 갈등 속에 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예배를 포기한 2달 여의 시간이 지난 이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예배를 포기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이 옳은 것인가, 또 그러한 것이 신학적인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한국교회는 개교회 중심의 특유한 조직 구성에 따라 이에 대한 정당한 지침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각 교회가 나름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결정을 지었다. 이는 각 교회 내부적 의사결정 구조의 작용도 있었지만 사회의 여론이나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우리의 위치와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자리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역사적인 고찰을 통한 통시적 관점은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에 적절한 답이 될 것 같다.

아쉬운 점은 너무 장황하다는 것이다. 2천 년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시대별로 조금씩 다루다 보니 이해를 쫓아가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본문 이상가는 각주도 집중도를 흐리게 하는 어려움을 안겨준다.

저자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영성과 기독교 리더십’의 관계에 대한 부연설명이다. 함께 붙여 쓰며 동일한 의미인 듯 쓰이다가도 상호관계에 대한 쓰임도 있어서 기존 이해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 논문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다. 영성과 리더십의 전환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명확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3. 나아가며

논문은 이 시대에 필요한 질문에서 시작하는 실천적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대의 요구에 대해서 2천 년의 역사를 살피며 영성과 기독교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일괄하는 대 작업을 이루었다. 오늘날 깊은 고민과 신학적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다. 특히 성도들 앞에 서야하는 목회자들에게는 회소식일 것 같다.

논 찬 2

“『디다케』와 『사도 전승』을 통한 영성과 기독교 리더십의 상호관계 연구”에 대한 논찬

윤 성 민 박사

(강남대학교 KNU참인재대학 / 설교)

2019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을 일으켰다.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최악의 경제적 위기와 대공황을 우려했고 백신과 치료제도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나라별로 이에 대응하고 경제적 해법과 백신과 치료제를 찾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은 연일 보도되고 있다. 폐쇄된 공간에서 밀접 전파로 인한 집단감염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New Normal)을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마침내 6.25 전쟁에서도 모인 주일예배를 흔들어 버렸다. 2018년에 발생했던 스페인 독감처럼 유럽에 휘몰아친 코로나19는 모든 유럽인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다 못해 호소할 정도로 그 파괴력은 전시 상황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독일 메르켈 총리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설교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봉사해야 하는가? 논찬자는 신학자와 목사로서 이 질문 앞에 때로는 두려움을 느낀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 교회와 목사, 그리고 신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물음 앞에서 걱정을 넘어선 사회에서 이미 변두리가 된 교회가 더욱더 변두리로 밀려나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조성호 박사는 이번 논문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교회의 대응, 교회 안팎의 신랄한 비판 앞에서 한국교회의 예배와 영성, 리더십을 다시금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한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교회와 신학자가 내놓은 연구와 해법은 단비와도 같다. 오늘 이 논문의 첫

번째 공헌은 바로 이점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기독교 고전을 통해서 영성과 기독교 리더쉽의 의미를 새롭게 찾는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논찬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뿌리가 없는 어설픈 신학적 담론이 아닌, 기독교 전통을 읽고 해석하면서 그 해법을 찾으려는 저자의 방법론이 올바른 교과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조성호 박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기독교의 고전 중의 고전인 『디다케』와 『사도 전승』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이 두 책의 표면적으로 나타난 교회의 예배와 직제에 관한 분석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당시 사회와의 관계에서 교회 안으로 형성되고 내포되어 있는 영성과 리더쉽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신약성경에서 기독교인이 드린 최초의 예배 의미를 말하였다. 그것은 “떡을 뺨(breaking bread)이라는 표현이나 ‘레이투르기아’(leitourgia: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 그리고 예배 시작을 인사로부터 시작하는 전통은 하나님께 공경과 감사를 올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호 협력과 결속의 인간관계 역시 매우 중요한 예배의 핵심가치”라는 정의를 명확하게 두고 이 논문의 논거를 전개한다. 코로나19에서 위로 드러지는 예배와 더불어 기독교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는 기독교인의 상호 협력과 결속의 인간관계이다. 이것은 게르트 타이센 교수는 역사적 예수는 경전(문자주의)을 넘어선 가치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추구했다는 점과 일맥상통하다. 조성호 박사는 “예배는 교회 공동체 내부자들을 위한 폐쇄적 형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회 밖 사회구성원들을 위한 복음과 선교,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구체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부와 교회가 예배로 인한 불편한 갈등에서 문제를 제기한 저자는 기독교는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기독교가 그 원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종교의 공공성과도 출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논찬자 또한, 이에 동감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논문은 로마 제국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기독교인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언급하고 설명하였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 돌보고 보살핌으로 생존율을 높였다. 이 모습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교훈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작금의 상황에서 연구할 가치가 높다. 이 논문의 두 번째 공헌은 바로 이점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초대교회라면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조성호 박사는 『디다케』에서 기독교 공동체의 형성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교회도 성찰해야함을 언급한다. 공동체가 진지한 고민과 자기 성찰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주변 환경과의 필연적인 연관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디다케』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초대교회의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그 당시 교회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저자는 『디다케』와 『사도 전승』에서 유사한 공통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2020년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경험 중인 접목 가능한 영성과 리더십을 찾는다. 논문의 본문은 초대교회가 교회 안과 밖의 정세를 반영하려는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한 예로 성 안토니의 생애를 통해서 교회가 지향하는 영성과 신학이, 교회 밖 세상의 문학적 경향성과 논리적 이해, 그리고 다수가 지닌 상식과 역동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야함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집단 전염을 방지하려는 통제와 이에 반발하여 다투려는 교회를, 그의 신학적 교회사적 논거로 집어 삼킬 것만 같은 신학적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 논문에서는 초대교회의 이런 이타적인 모습이 교회사에서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세상을 향한 초대교회의 영성과 리더십은 중세교회 시기에 교황권의 상승과 교황 주재 공의회에서 사라졌고, 종교개혁의 배경 가운데 존재했던 정치 체제 등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성과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했다. 결국 이 논문의 저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식 예배의 모임에 관한 한국교회의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에서 한국사회 안에서의 기독교 영성과 리더십의 본질과 역할을 다시금 되짚어 보면서 한국교회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 이 논문의 세 번째 공헌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성과 리더십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저자는 예배의 존재 목적을 신자의 모임과 친교를 넘어선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공헌에도 불구하고 논찬자가 생각하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남기고자 한다. 교회의 영성과 리더십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의 여러 목적까지도 상실해 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예배와 설교는 세상과 소통하면서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인 행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예배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행위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교회와 정부, 종교의 자유와 종교의 공공성의 갈등에서 교회는 전염을 막는 공적 가치를 지키면서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영성과 리더십에 강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을 잠시 잊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든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교회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천지로 인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 대전염 이후에 이태원의 클럽 등과 같이 산발적인 전염이 일어나고 있다. 나이트와 클럽보다 교회를 더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 이것은 86그룹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형상이다. 이 그룹들은 군사독재정권 시절부터 정치적 우파 세력과 결탁한 교회를 보아온 세대이다. 교회를 향한 그들의 분노와 미움 때문에 교회를 향한 비난은 때로는 포퓰리즘적인 성향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논찬자는 교회가 코로나19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외침과 함께 교회가 밟고 있어서 내뱉는 비판도 막아내고, 또다시 동시에 교회를 다시금 성찰해 보면서, 86그룹을 품을 수 있는 새로운 선교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정부는 왜 클럽보다 교회를 더 통제하려고 했는가? 신천지와 같은 이단세력들과 일부 교회에서도 코로나19가 집단적

으로 확산된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떠한 흐름이 있다. 전광훈 씨가 광화문에서 우파와 뭉쳐서 문재인 정권의 퇴진운동을 하고 있을 때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그리고 신천지 집단 감염이 일어날 때도 매주일 사랑제일교회는 우파와 뭉쳐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집회를 하고 있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교회는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다. 비단 교회만을 탓하기에는 86그룹인 세대와 풀어야만 할 상황이 복잡하다. 논찬자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넓은 가슴으로 이런 역사적 사회적 상처를 품고 있는 86그룹을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한국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해 본다. 결국,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교회의 본질을 다시금 검토하고 성찰해 볼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조성호 박사의 이번 논문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사모하고 회복해야 할 롤모델로 부르짖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2020년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이런 신학적 작업들은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할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코로나19는 한국교회의 본질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였다. 오랜만에 여러 번 읽고 이해해야 할 좋은 학술논문을 써 주신 조성호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제 10 발표

17-18세기 유럽 경건주의 시대와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실천 방안 연구

김 윤 기 박사

(호서대학교 / 한국디아코니아 목회연구소)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교회가 섬김과 봉사 즉, 디아코니아 실천에 등한시함으로 공신력을 잃고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17~18세기 유럽 경건주의 시대와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 실천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디아코니아 실천 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오늘날 교회를 의미할 때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섬김(diakonia)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service’ 섬기다의 뜻이다. 예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섬김의 모범을 보여 주셨다.¹⁾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디아코니아(diakonia)란 세상을 향한 섬김과 봉사를 의미하며²⁾ 디아코니아는 신학적 개념이자 기독교인의 사회적 실천의 이름이고, 일반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봉사’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한다.³⁾ 하나님은 세상을 변혁하기 위한 신성한 계획에 봉사하도록 세계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디아코니아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모든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1) 황병준, 『미래교회트렌드』 (고양시: 올리브나무, 2015), 248.

2) Karl P. Donfried, “Ministry: Rethinking the Term Diakonia,” *Concordia Theological Quarterly* 56/1 (Jan 1992), 3.

3) John N. Collins, *Diakonia Studies: Critical Issues in the minist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127.

봉사할 임무가 있다. 그리하여 WCC에서는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중심으로서 복음의 필수적인 차원이며, 복음을 알리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선언하였다.⁴⁾ 예수는 말씀과 행동을 통해 ‘정의’를 핵심 가치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신학적 근거에서 디아코니아는 ‘정의와 변화’를 촉진하는 ‘대안과 실천’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⁵⁾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 부름 받은 교회가 실천해야 할 가장 첫째 되는 사명이다.

예수는 자신을 섬기는 자, 시중드는 자로 규정하였고, 그의 삶을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였다. 예수의 섬김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섬김이었다. 디아코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에 속한다. 그리스도인은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다.⁶⁾ 예수의 가르침에는 디아코니아 복음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예수는 죄악으로 어두워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든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예수는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힘써 그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으며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시고, 결국에는 그의 부활로 보이게 하셨듯이, 그의 제자들의 섬김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며 예수를 세상에 나타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예수의 지체들(diakonoi)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의 일을 행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의 디아코니아로 보이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신의 디아코니아를 통하여 진정한 사회 변화를 이루실 것이다.⁷⁾ 디아코니아는 죄악으로 어두워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디아코니아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복음 사역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은 교회와 제자들의 디아코니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 복음 사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이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섬김과 봉사로 디아코니

4) Nordstokke. Kjell, “Ecumenical Diakonia,” responding to the signs of the times,” *The Ecumenical Review* 66/3 (Oct 2014), 266-67.

5) Leer-Helgesen. Arnhild, “Rethinking Diakonia and Transforming Our World,” *The Ecumenical Review* 70/1 (Mar 2018), 151.

6) Paul S. Chung, “Engaging God’s Mission and Diakonia in Life of Public Spheres: Justification and Economic Justice,” *A Journal of Theology* 49/2 (Summer 2010), 142.

7) Gert Breed, “Finding guidelines on social change in the two-tiered narrative and diakonia in the Gospel of John,” *Theological Studies* 71/2 (2015), 1.

아 복음 사역을 실천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교회의 핵심 사상은 사랑(caritas)이라 하였으며, 루터는 참된 교회는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며, 성령의 교제 안에서 교통과 사귄, 상호간 사랑이 일어나게 된다고 보았다. 존 웨슬리(John Wesley)는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인 믿음의 공동체, 성화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규정하였으며⁸⁾ 하나님이 제정하신 진정한 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가르쳤다. 이러한 점에서 디아코니아 실천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은 교회의 본질 회복과 디아코니아 실천에 있다. 이제 한국교회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성서적인 교회의 본질 회복의 길과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 실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디아코니아의 이론적 고찰

1. 성서적 고찰

디아코니아란 무엇인가?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디아코니아는 단순히 구호물자 배포나 복지서비스로만 이해 할 수 없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다. 디아코니아는 진정한 제자의 본질이며, 행동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본질이다. 디아코니아는 영광스런 영의 직분(고후3:7-9)이며,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서 하나님 사랑의 열매이다.

헬라어 디아코니아(διακονια)가 의미하는 봉사는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명사 디아코니아(διακονια)는 디아코네오(διακονέω: 봉사하다, 섬기다)에서 유래 했으며, 봉사하는 활동, 곧 ‘섬김’과 ‘봉사’를 의미한다. 헬라어 디아코니아는 처음부터 식사의 시중을 들고, 식사를 준비 하는 것과 같은 겸양의 행위로 이해되었으⁹⁾ 진정한 사랑의 봉사 수행에 대하여 사용된다.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활동을 디아코니아로 묘사하였다(엡4:11-12). 또한 이 단어는 공동체에서 ‘어떤 직무나 의무의 수행’에 대해 사용된다. 명사 디아코노스의 의미는 식사의 시중을 드는 자(마22:13)이며, 주인의 종(servent)을 의미한다.

디아코니아의 성서적 고찰을 볼 때, 일반적으로 성서적 디아코니아 개념은 이웃

8) 한국조직신학회, 『교회론』 (서울: 기독교서회, 2017), 55, 114-55.

9) 한스 쾨링/ 정지런역, 『교회』 (서울: 한들출판사, 2011), 557-58.

에 대한 봉사과 사랑의 의무를 명시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포로 된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노인, 과부, 고아, 나그네, 그리고 노예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다. 출애굽기 20:2절에 나타난 가난하고 중 되었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구약성서에서 디아코니아의 모든 측면을 관통하고 강조한다.¹⁰⁾ 구약성서 안에서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근거하고 있다.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자이시며, 가난한 자를 돕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디아코니아 정신으로 상호 연대하고 곤경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선한 관리인이다. 구약성서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탄원을 하며 이것을 통해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다.¹¹⁾ 또한 구약성서의 사회법은 사회적 약자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웃 사랑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며, 디아코니아 실천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구현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섬기는 자’, ‘시중드는 자’라는 명칭으로 유일하면서도 명백하게 자신을 ‘규정’하였다(눅22:27). 예수는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주려고 왔다.(막 10:43-45).¹²⁾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인가에 대하여 서로 논쟁하였을 때(막9:34), 예수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심으로 섬기는 자가 큰 자이며 으뜸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중적 사역은 ‘자비의 사역과 용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다(눅7:22; 행10:38). 예수의 모든 삶은 말로나 행동으로나 ‘diakonia’였으며, 그것은 십자가에서 가장 잘 보인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복음과 선행을 분리할 수 없다. ‘증거의 사역’과 ‘사랑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역’이라 할 수 있다.¹³⁾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는 ‘가장 위대한 자는 바로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예수는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¹⁴⁾

10) Paul S. Chung, “Diakonia and Economic justice,” *The Ecumenical Review* 66/3 (Oct 2014), 302.

11) 홍주민, 『디아코니아학 개론』 (경기도:한국디아코니아연구소, 2010), 44-46.

12) Alexandros K, Papaderos, “Liturgical Diakonia: Biblical and Theological View of Diakonia,” *Mid-Stream* 18/2 (Apr 1979), 135.

13) Walter J. Bartling, “Ministry to Ministers: an Examination of the New Testament Diakonia,” *Concordia Theological Monthly* 33/6 (Jun 1962), 331.

14) John N. Collins, *Diakonia Studies: Critical Issues in the Ministry*, 87-100.

예수 그리스도는 말과 함께 행위로도 봉사하였다. 그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병든 자를 고치며,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회복시켜 주었다. 이처럼 예수의 섬김은 사람들의 필요(needs)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하였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섬기는 자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20:21)”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예수의 명령대로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며, 교회의 사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아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로부터 추론되어야 할 것이다.¹⁵⁾ 초대교회는 예수의 디아코니아 사역을 고스란히 계승했으며, 디아코니아 실천을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로 이해함으로 복음 전도와 사회봉사를 더불어 실천하였다.¹⁶⁾ 신, 구약의 모든 사역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통치를 증언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들을 모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디아코니아 실천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봄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이다. 디아코니아 사역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룩한 섬김 사역’인 것이다.¹⁷⁾

2. 신학적 고찰

성령은 디아코니아 실천의 원동력이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로 부름 받은 신앙 공동체로서 봉사를 통해서 그 사명 활동에 참여한다. 교회는 디아코니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교회는 디아코니아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처럼 종의 길을 따른다(막10:45). 디아코니아의 힘은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사회구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 교회를 그의 도구로 사용했던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¹⁸⁾ 누가복음 4장 18-19절은 예수의 디아코니아 사역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성서적 근거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에 대한 철저한 헌신이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화해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통해 밝혀지고 견고해진다.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교회는 디아코니아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처럼 종의 길

15) John R. W. Stott,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London: Falcon Books, 1975), 23-24.

16) 박영호, “초대교회의 사회봉사 고찰,” 「복음과 실천신학」 13(2007), 118-19.

17) John Knox, “The Ministry in the Primitive church,” *The Ministry in Historical Perspectives* 11,13.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서울: 한울출판사, 2006), 105에서 재인용.

18) John N. Collins, *Diakonia: Re-interpreting the Ancient Sourc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23.

을 따르는 것이다.¹⁹⁾

디아코니아는 거룩한 사랑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 그의 은혜와 사랑, 그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긍휼, 축복에 대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교회 자체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엘레에몬(사랑과 자비의 공동체)이다. 디아코니아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현 방법이다.²⁰⁾ 교회는 성도들의 디아코니아 실천을 통하여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세워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봉사와 섬김의 뿌리와 목적은 사랑이다. 이와 같이 디아코니아 실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교회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의 표시(sign)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는 지표이기도 하다.²¹⁾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마음에 기록한 자들로서 그의 형제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며 원수에게까지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²²⁾

거룩한 사랑의 섬김은 하나님과 죄악 된 세상이 화해를 이루고, 교회와 지역사회가 하나 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진정한 회년의 기쁨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할 때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디아코니아 실천을 통하여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할 것이다. 그러므로 디아코니아 실천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신앙 고백적 행위이며, 구원 받고 거듭난 자(성화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의 표현’이며 이 세상에서 펼쳐가는 “하나님의 화해 사역”인 것이다.

3. 디아코니아 목회

디아코니아는 세상에 대한 겸손한 봉사이며, 디아코니아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내고 선포한다. 디아코니아는 구원받은 세상과 인간의 삶을 향하여 그

19) Carlos. Ham, “Ecumenical Chronicle, Colombo: Theological Perspectives on Diakon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World Council of Churches* 64/3 (Oct 2012), 384.

20) Alexandros K. Papaderos, “Liturgical Diakonia: Biblical and Theological View of Diakonia,” *Mid-Stream* 18/2 (Apr 1979), 135-36.

21) Carlos. Ham, “Ecumenical Chronicle, Colombo: Theological Perspectives on Diakon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384.

22) Oscar. Sherwin, *John Wesley- Friend of the People*, (New York: Twayne Publishers, 1961), 108.

리스도의 사랑의 주권을 실제로 실현하는 것이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사역이다.²³⁾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비의 마음으로 겸손히 봉사하는 것이 디아코니아 목회라 할 수 있다. 스토틀는 최고의 선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베푸는 봉사이며, 이웃을 섬기는 삶이 곧 ‘성례전’이라고 하였다.²⁴⁾ 여기에서 스토틀는 디아코니아 실천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디아코니아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의 한 방편이며, 디아코니아 목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김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 할 수 있다.

디아코니아 목회는 위로(on) 향하는 목회라 할 수 있는바, 루터는 이웃을 섬기는 디아코니아 실천 즉, 자선 행위는 예배 행위로 보았다. 루터에게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며, 자선 행위는 ‘예배 후의 예배’라 할 수 있다. 루터는 이웃 섬김의 일을 기독교인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성례전’으로 이해하였고, ‘가난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들의 권익을 위해 싸우고 도와줘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²⁵⁾ 또한 디아코니아 목회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아래(under)로 향하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기본이 되는 사명으로,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 겸허하게 아래로부터 사랑을²⁶⁾ 실천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디아코니아 목회는 지역사회를 위하여(for)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역이다. 디아코니아 실천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인간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²⁷⁾

2013년 영국성공회-루터교 예루살렘 세계총회 보고서에서는 요한복음 15:14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것’이라 하였다. 디아코니아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이고, 또한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신실한 응답으로 예배와 증거를 함께 나누는 가교(bridge)라 하였다.²⁸⁾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달하는 가교가 된다. 세

23) John N. Collins, *Diakonia: Re-interpreting the Ancient Sourc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21-22.

24) John R. W. Stott,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London: Falcon Books, 1975), 26.

25) 김용성, “종교개혁500주년기념특강, 루터의 종교개혁은 오늘의 한국감리교회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총보출판국, 2017), 11.

26) Kjell Nordstokke, “Ecumenical Diakonia: responding to the signs of the times,” 269.

27) John Wesley, *John Wesley's Theology: A Collection from His Works* (Nashville: Abingdon Pree, 1954), 202.

상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보냄을 받은 자들의 디아코니아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세상에 전달하는 가교가 되는 것이다. 디아코니아 실천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며, 교회와 지역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해 주는 사랑의 가교라 할 수 있겠다. 교회는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거룩한 뜻을 가지고 봉사하는 섬김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세워진 곳이며,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봉사하는 곳이다.²⁹⁾ 디아코니아 실천은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며,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다.³⁰⁾ 교회의 모든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³¹⁾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디아코니아 목회는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랑과 구원의 가교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게 될 대상교회들에서 디아코니아 목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구원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II. 17~18세기 유럽 경건주의 시대

1. 슈페너의 구조를 통한 디아코니아

17세기 초반 필립 야곱 슈페너(Philipp Jacob Spener, 1635~1705)가 태어나고 성장하였던 시대의 독일 사회는 30년 종교전쟁으로 인한 유린과 폐해로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참혹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고 정부의 기능은 정지 상태에 있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 속에서 시대적 요구(needs)에 응답한 사람이 슈페너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needs)에 응답하여 경건주의 디아코니아 실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바, 슈페너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운동을 시작하여 소그룹 공동체가 누룩처럼 전체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회심과 모범적인 삶을 중시하는 경건주의 운동에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공헌했다. 또한 그는 생애 말기인 1705년에 이르기까

28) David Carter, “To Love And Serve The Lord. Diakonia in The Life of The Church. The Jerusalem Resport of The Anglican-Lutheran international Commission(ALIC III),” *One in Christ* 47 (2013), 156.

29) *Ibid.*, 158.

30) *Ibid.*, 157.

31) *Ibid.*, 162.

지 베를린에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경건주의 운동에 앞장선 촉발자였으며 상담자로 활동하였다. 특히 1693년에는 구걸하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슈페너를 찾아온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에게 “공적인 기관은 신분이나 신앙심에 상관없이 인간 존엄에 기초해서 부양해야 한다.”고 하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구제하도록 선제후에게 조언하였다.³²⁾

슈페너는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행한 프랑크푸르트 돌봄(diakonia) 사역은 독일과 유럽에 모범적 사례가 되어 빠르게 확산되었다. 슈페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처음으로 “사랑의 구조 안에서, 구조를 통하여 실현되는” 사상이 조직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슈페너의 구조를 통한 디아코니아 실천의 노력들은 병원, 병자구호, 빈민구호, 교육촉진과 노동촉진 등으로 발전하였고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적 국가적 보호 사업이 되었다는 점은 그의 위대한 공헌이라 할 수 있다.³³⁾

2. 프랑케의 기관을 통한 디아코니아

독일의 할레에서 자신의 이름과 같은 자선기관을 창설했던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 (A. H. Francke, 1663~1727)는 슈페너의 친구이자 제자였으며 열정적인 추종자였다. 특히 프랑케는 할레대학에서 신학 연구의 표준을 수립하고 제기하는데 공헌을 했다.³⁴⁾ 특히 프랑케 부자(父子)는 할레를 중심으로 교육, 외방선교, 의료선교, 사회복지활동, 출판선교를 통해서 독일교회 변혁에 큰 영향을 끼쳤다.³⁵⁾ 프랑케는 목회자였으나 교회 설립보다는 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하여 기관중심의 봉사 및 선교 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선구자이다.³⁶⁾

프랑케는 디아코니아 활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증거로 보았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이웃에 대한 필요(needs)를 채워주는 것으로써 위기에 처한 이웃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였다. 프랑케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랑은 가난한 고아들을 느끼게 되는 사랑이며, 이 사랑은 그들을 실제로 도와주는 것이다.³⁷⁾ 그리고 이렇게 실제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것은 이웃의 영

32) 김옥순, 『디아코니아 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11), 199-204.

33) 홍주민, “종교개혁과 디아코니아,” 『신학연구』 46 (2004.12), 283.

34) Philip J. Schroeder, “August Hermann Francke, 1663-1963,” *Concordia Theological Monthly* 34/11 (Nov 1963), 665.

35) 김용성, “종교개혁500주년기념특강, 루터의 종교개혁은 오늘의 한국감리교회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독교대한감리회』 (2017), 13.

36) 강원돈, “기독교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본 요한 헨리히 비헤른의 복지 사상,” 『기독교사회윤리』 14 (2007), 17.

37) 김옥순, 『디아코니아 신학』 210-11.

혼을 돌보는 것이며, 이 땅위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프랑케는 1695년 가난한 자를 위하여 빈민학교(고아원)를 설립하였고, 1696년에는 2,000명 이상의 젊은이를 수용할 수 있는 캠퍼스를 만들었으며, 그 곳에 병원, 종합학교, 고아원, 교사양성소, 농장, 농업 영농업체, 제과점, 양조장 등과 연계하여 대형 무역업체를 만들어 나갔다.³⁸⁾ 프랑케는 그 안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호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혼합된 시설물을 세워나갔다. 오늘날의 시설중심의 디아코니아는 프랑케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프랑케의 고아원 설립은 독일 디아코니아 역사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³⁹⁾ 무엇보다도 프랑케는 교육 기관을 통해 철저한 개혁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이처럼 프랑케는 독일의 30년 전쟁이후에 일어난 기관 중심의 디아코니아실천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3. 친첸도르프의 공동체를 통한 디아코니아

헤른후트(Herrnhut) 공동체의 창시자인 친첸도르프(N. L. von Zinzendorf, 1700~1760)는 독일 경건주의를 꽃 피운 사람으로 독일 드레스덴에서 귀족의 신분으로 태어났다.⁴⁰⁾ 시민 계급에 속한 슈페너와 프랑케는 신학을 전공한 목사였으나, 친첸도르프는 제국의 백작이었으며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평신도였다.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경건주의의 대부분은 루터교 내에 머물렀지만, 친첸도르프는 자신의 독자적인 조직인 “헤른후트 공동체”를 만들어 독립된 교단을 형성했다는 점이다.⁴¹⁾

친첸도르프는 드레스덴(Dresden)에서 자신의 사유지를 제공하여 정착하도록 하였고, 이 정착지를 ‘주님이 지켜보시는 곳’이라는 뜻의 “헤른후트(Herrnhut)”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곧 “헤른후트 공동체”의 기원이다.⁴²⁾ 친첸도르프가 중심이 된 이 공동체는 1740년경에 독일 형제교회의 전성기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공동체 안에서의 “속회”(band)와 같은 소규모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1732년에는 속회 수가 80여개나 되고 500여 명의 공동체로 늘어났다. “그리스도인의 가족으로서의 완전한 섬김의 공동체”라 할 수 있는 헤른후트 공동체는 독신 형제들의 양털실 제조업, 독신 자매들의 섬유 자수품들은 유럽 왕실에까지 알려졌으며, 공동체의 더닝거(Durninger) 회사는 국제적 명성을 얻었고, 농장과 제과점의 운영은 모범적이었다. 이들의 모든 이익금은 공동기금인 “어린양의 금고”에 넣어졌다.⁴³⁾ 이러한 공동체는 서로가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각

38) 홍주민, “종교개혁과 디아코니아,” 284.

39) 홍주민, 『디아코니아학 개론』 128.

40) 정인모, “독일 경건주의 운동 고찰,” 『독일언어문학』 78(2017.12), 245.

41) 이성덕, “친첸도르프와 할레 경건주의,” 『한국교회사학회지』 22(2008), 1-2.

42) 홍주민, 『디아코니아학 개론』 133.

자의 위치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의 존재를 닮아간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였다. 헤른후트 공동체는 가난하고 병든 학생을 사랑으로 돌봐 주었으며, 도시 근교에 가난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세웠다. 이들을 학비 없이 무료로 교육하였으며 이곳에서 160여 명의 어린이가 공부할 수 있었다.⁴⁴⁾ 헤른후트는 후에 존 웨슬리의 영국 사회개혁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전하여 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은 분명히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신분, 서로 다른 방법들로 디아코니아 실천을 추구하였던 경건주의자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비록, 디아코니아 실천의 방법은 다르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사회적 상황과 요구(needs)에 응답하며 ‘디아코니아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위대한 증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이들의 영향을 받아 영국 사회를 개혁했던 ‘존 웨슬리’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4. 웨슬리의 사회 개혁을 통한 디아코니아

부패한 영국사회를 개혁하는데 성공했던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는 독일의 경건주의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웨슬리가 미국 조지아 주에서 선교사역에 실패하고 영국에 돌아온 이후,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통하여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으며,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⁴⁵⁾ 18세기의 영국은 사회적인 혼란과 도덕적 부패로 인해 어두워져 있었고 모든 도시마다 술집으로 가득했으며 이로 인한 음주와 폭음, 음란한 생활, 강간, 살인, 강도 및 폭력 사태가 발생하였다. 범죄 행위로 인해 감옥의 숫자는 증가하였고 교육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게으름과 무절제한 생활로 인하여 가정은 파괴되었다. 이것은 사회를 크게 손상시킨 상습적 질병이 되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매우 낮았고, 그들의 삶의 조건은 비인간적인 상황이었다. 12세 이하의 어린이도 광부로 일해야 했다.⁴⁶⁾

웨슬리는 이처럼 암울했던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질병을 치유하고, 도덕성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개혁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빈부의 격차에 대한 ‘화해의 다리 역할’을 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영국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웨슬리는 그의 신학을 ‘실천적인 신학(practical divinity)’으로 이해하였다. 웨슬리 운동의 기초는 교리적, 이론적, 형이상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윤리적, 실용적, 실험적이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하

43) 홍주민, “종교개혁과 디아코니아,” 286-87.

44) 김옥순, 『디아코니아 신학』 225-26.

45) John Pollock, *John Wesley*, (Wheaton: Victor Books, 1989), 97.

46) Hwang. Jong Yun, “A Transformation of Young Adult Groups In the Social Holiness Movement,” *Wesley Theological Seminary* (2012), 7.

나눔을 찬양하는 유일한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거듭남을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성결’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요, ‘거룩한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다.⁴⁷⁾ 웨슬리는 “기독교인은 사회적 곤경에 선행으로 응답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그러므로 웨슬리에게 성화는 사랑이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완전한 성화’이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사랑’으로 요약했다.⁴⁸⁾

웨슬리의 디아코니아 실천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사역(구제 기금, 빈민 은행): 웨슬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정기적인 모금운동을 하였고 빈민 은행을 설립했으며, 가난한 사람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까이하였으며 그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았다. 웨슬리는 이들을 돕기 위하여 호화로운 집과 값 비싼 옷, 음식, 오락을 부인했다.⁴⁹⁾

둘째, 의료 및 교육 사업: 웨슬리는 1746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무료진료소를 시작하였고,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약국을 설립하다.⁵⁰⁾ 웨슬리의 의료사역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광산촌에서 무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영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영국사회의 고위층 부자들은 호화로운 음식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⁵¹⁾ 이러한 시대에 웨슬리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기초지식을 가르치고, 이교적 영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기독교 진리로 인도함으로 지혜와 성결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으로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셋째, 교도소 활동과 제도개혁: 웨슬리는 가난한 수감자들의 도덕적, 사회적 상태를 개선하고 향상 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수감자들의 사면을 위하여도 힘썼다. 이러한 교도소 활동은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냈다. 점차적으로 알코올 중독과 매춘이 사라지고, 싸움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며, 주일 예배 등과 같은 규칙적인 예배가 그들의 규정이 되었다. 이러한 교도소 활동은 웨슬리의 대표적인 모범 사역의 하나가 되어 영

47) Harold. Wells, “John Wesley (1703-1791) And the Call to a Holy Life,” *Touchstone* 34/2 (Jun 2016), 57-58.

48) Jong Yun. Hwang., “A Transformation of Young Adult Groups In the Social Holiness Movement,” 20.

49) Harold. Wells, “John Wesley (1703-1791) And the Call to a Holy Life,” 60.

50) Oscar. Sherwin, *John Wesley- Friend of the People*, (New York: Twayne Publishers, 1961), 133.

51) Gary L. Ball-Kilbourne, “The Christian as Steward in John Wesley’s Theological Ethics,” *Quarterly Review* 4/1 (Spr 1984), 49.

국을 넘어 프랑스, 네델란드, 미국으로 확대되었다.⁵²⁾

넷째, 노동 운동과 노예 해방 운동: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갑작스런 산업화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부자들이 생겨났지만 수십만 명이 가난으로 고통당하고 굶어 죽고 있었으며 그들의 노동환경은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대에 웨슬리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노동운동을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예 제도 폐지 및 해방운동의 노력으로 1833년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⁵³⁾ 이처럼 당시에 영국의 웨슬리와 감리교도들은 가난하고 재난 가운데 고통 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국 사회의 절박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성서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에 기초하여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17~18세기 유럽의 경건주의자들의 디아코니아 실천은 당시 혼란과 가난으로 절박했던 시대적 요구(needs)에 응답했던 신앙 고백적 사역이다. 시대적 요구에 응답했던 경건주의 디아코니아 실천가들은 ‘디아코노스’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겸허히 응답했던 ‘하나님의 사역자’였으며, ‘하나님의 대리자’였다. 그러므로 진정한 경건이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책임적 행동을 수반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섬김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V. 사례연구

본 장에서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교회 안과 밖에서 실천하고 있는 디아코니아 사역은 무엇이며, 그 특성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와 문헌연구 방법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⁵⁴⁾ 수상한 132개의 교회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교회들은 기윤실의 사회복지 위원회가 교계 관계자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현장실사를 통해 시상교회로 엄선하였는바, 이것이 연구자가 위의 교회들을 대상교회로 선정한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연구자는 기윤실에서 공개한 문헌자료를 통해 132개 대상교회 디아코니아 실천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이를 근거로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실천의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윤실이 공개하고 있는 1,000여 페이지 분량의 문헌자료를 중심

52) 김영선, “존 웨슬리의 사회복지 목회,” 「한국개혁신학」 19(2006), 90-91.

53) John Pollock, *John Wesley*, 235-37.

54)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길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을 제정하고 매년 시상하고 있다. 이 상의 목적은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로 자리 매김 되도록 돕는데 있다.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대상 교회들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기타 보도 자료 및 영상자료 등을 활용하였고, 부분적으로는 E-mail, 전화 상담 및 방문 인터뷰도 필요에 따라 이루어 졌다. 종교인구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윤실의 문헌 자료 분석을 통해 대상교회들의 일반적 특성을 발견하였고, 사업 현황, 교회의 규모 분포, 대상교회들의 교단별, 지역별 특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상교회들의 사업 범주로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가정을 위한 사업, 교육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사업, 문화 사업과 노인을 위한 사업 등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이로써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대상교회들의 4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들은 기윤실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을 수상한 132개 교회를 대상으로 한정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치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혀둔다.

1. 대상교회들의 특성 분석

1) 규모별 특성

132개의 대상교회들 중 100명 미만의 교회가 44개 교회(34%), 101명에서 300명까지의 교회가 24개 교회(19%), 301명에서 500명까지 9개 교회(6.6%), 501명에서 1,000명까지 15개 교회(11.3%), 1,001명에서 3,000명까지 28개 교회(21.6%), 3,000명 이상이 12개 교회(7.5%)이다. 이로써 300명 미만의 교회가 68개로 전체132개 교회의 53%에 해당한다. 이처럼 교회 규모별 특성으로 보건대 소형 교회들도 지역사회를 위한 디아코니아 실천에 모범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바, 소형 교회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2) 지역별 특성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이 24교회(18.3%), 인천이 7교회(5.3%), 대구 3개 교회(8.3%), 대전 3개 교회(2.3%), 광주 3개 교회(1.5%), 울산과 전주가 각각 2개 교회(각 1.5%), 부산, 수원, 포항, 제주가 각각 1개 교회(각 0.75%), 그리고 충북이 6교회(4.5%), 충남과 전북이 각 11개 교회(각 8.3%), 전남 9교회, 경북과 경남이 각각 5개 교회(6.8%), 강원이 7개 교회(5.3%)로 나타났다. 기독교인구 비례로 볼 때 지역별 디아코니아 참여도는 강원, 충남, 충북, 전북과 전남 순이며, 부산지역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 교단별 특성과 참여도

<표1> 대상 교회들의 교단별 특성과 참여도

| 교단 | 감리교 | 구세군 | 그리스도 | 성결교 | 순복음 | 장로교개혁 | 장로교교신 | 장로교기장 | 장로교대신 | 장로교백석 |
|------|-----------|-----------|-----------|---------|---------|-----------|---------|---------|--------|------------|
| 교인수 | 1,334,178 | 61,023 | 14,032 | 163,052 | 107,700 | 1,121,872 | 473,497 | 300,000 | 60,888 | 1,403,273 |
| 교회수 | 6,710 | 548 | 139 | 1,020 | 4,123 | 8,582 | 2,056 | 1,650 | 723 | 7,100 |
| 수상교회 | 10 | 7 | 1 | 8 | 2 | 2 | 8 | 17 | 2 | 2 |
| 규모대비 | 0.14 | 1.28 | 0.72 | 0.78 | 0.04 | 0.02 | 0.39 | 1.03 | 0.28 | 0.03 |
| 교회대비 | 7.7 | 5.3 | 0.75 | 6 | 1.5 | 1.5 | 6 | 13 | 1.5 | 1.5 |
| 교단 | 장로교개혁 | 장로교통합 | 장로교합동 | 장로교합신 | 침례교 | 공동체 | 다문화 | 기타 | | 총합계 |
| 교인수 | 23,569 | 2,789,102 | 2,764,428 | 151,516 | 801,437 | | | 552,620 | | 11,169,234 |
| 교회수 | 113 | 9,050 | 11,937 | 924 | 2,854 | | | 26,354 | | 83,883 |
| 수상교회 | 1 | 42 | 20 | 1 | 6 | 2 | 1 | | | 132 |
| 규모대비 | 0.88 | 0.46 | 0.17 | 0.11 | 0.21 | | | | | |
| 교회대비 | 0.75 | 32 | 15 | 0.75 | 4.5 | 1.5 | 0.75 | | | 100 |

위의 <표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들은 장로교 통합 42개 교회, 장로교 합동 20개 교회, 장로교 기장 17개 교회, 감리교 10개 교회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상교회들을 대상으로 각 교단의 규모대비 디아코니아 참여도를 분석해 보면 구세군(1.28%), 장로교기장(1.03%), 장로교재건(0.88%), 성결교(0.78%), 그리스도교(0.72%)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단별 특성을 볼 때 장로교 합동과 통합, 장로교 개혁과 백석, 감리교, 순복음교회 등은 디아코니아 실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사업별 특성

대상 교회들의 사업별 분포 내역을 볼 때, 가족복지 지원사업(66개), 지역사회 보호사업(165개)⁵⁵⁾, 지역사회 조직사업(35개), 교육사업(55개), 문화사업(42개), 자활사업(20)개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복지 지원 사업은 가정문제상담(2), 지역아동센터(19), 아동복지(7), 성폭력상담(1), 결손가정지원(4), 가족복지사업(1), 여성지원(7), 임산부학교(1), 엄마학교(1), 가정봉사원파견(4), 빈집수리(1), 미혼모, 자보호(1), 목욕봉사(4) 이동 목욕차(2), 아기학교(1), 환자지원(1), 식재료나눔(1), 다문화가정지원(8) 등이다.

지역사회 보호 사업은 노인복지(42), 효도손빨래방(1), 반찬배달(17), 무료급식(22), 주간보호센터(7), 야간보호센터(2), 무료진료(1), 물리치료실(1), 노인대학(10), 경로잔치(1), 경로식당(3) 노인상담(1), 푸드뱅크(11), 치매예방사업(2), 도시락배달(2), 외국인노동자복지(8), 개안수술(3), 장애우지원(8), 연탄나눔(3), 지역아동센터(19), 암환자쉼터(1)

55) 괄호 안의 숫자는 사업별 실천 교회 수이다.

등이다.

지역사회 조직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11), 취약계층 지원사업(1), 친환경농업지원(1), 시민연대조직(1), 녹색(초록)가게(2), 마을축제(4) 문화축제(2), 이웃돕기바자회(3), 장애인복지관(2) 평생교육(2), 도시재생사업(1), 지역사회교육(1), 출소자,재소자지원(2), 사랑의 집짓기(2)등이다.

교육, 문화 사업은 청소년복지(10), 공부방(7), 영어교실(2), 미술교실(4), 장학사업(17), 학원선교(2), 급식비지원(1), 유치원(2), 도서관(6), 한자교실(2), 행복한 홈스쿨(1), 청소년비전센터(1) 청소년문화센터(1), 지역문화센터(6), 지역음악회(1), 노인여가 프로그램(2), 도서문화교실(1), 평생교육원(2), 지역마을축제(6), 주민문화교실(10), 희망사업(4), 환경운동(6), 주부대학(3)등이다.

자활 사업으로는 가족복지자활(1), 취약계층 지원사업(1), 취업알선(1), 기능훈련센터(1), 공동작업장(1), 경노일터(1), 농산물직거래(3), 장애인자립프로그램(2), 생명직거래사업 및 생협(1), 장애인자립지원(1), 지역사회 섬김카페(1), 직업자활(1), 폐교학교돕기(1), 가족자활사업(1), 노인일자리(1), 빈곤상담(1), 재래시장돕기 및 택시타기운동(1)등이다.

이로서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실천의 사업별 특성을 볼 때, 노인사역, 아동 사역, 청소년 사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정사역이나 여성사역, 이주민 사역 등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특성 및 실천 방안

1. 역사적 이해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 실천은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올 무렵 근세조선은 사회적, 도덕적으로 깊이 부패한 상태였으며 열악하고 불결한 환경, 전염병, 미신 등으로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의 요구를 채워주기에 너무나 미약하였다. 이러한 시기의 한국사회는 30년 전쟁으로 국가의 기능을 상실하고 황폐화 되었던 독일과 유럽의 17~18세기의 상황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암담한 상황 속에서 18~18세기 유럽 경건주의 디아코니아 실천운동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한국의 개신교회와 초기 선교사들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사회적 필요에 응답하고자 했으며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대안을 제시해주고자 노력했다.⁵⁶⁾

서구 열강의 개국 압력과 세력 다툼으로 나라가 큰 혼란에 빠져있던 구한말(1885

~1910)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 그리고 사회 개혁 중심으로 디아코니아 사역을 실천해 나갔다.⁵⁷⁾ 초기 선교사들의 의료 사업은 병원설립 사업, 나환자 치료사업, 콜레라 퇴치사업이었다.⁵⁸⁾ 조선 선교 초기에 개신교 선교사들은 보수적인 신앙과 청교도적인 생활이념으로 한국사회의 구습과 비합리적 의식구조 앞에서 술, 담배, 아편, 남녀불평등, 아편 등의 풍습을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⁵⁹⁾ 일제 식민 시대의 디아코니아 실천은 사회 경제가 붕괴되고 농민들이 영세 소작인,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현실 속에서 단순히 의식주, 의료, 교육, 노동 등에 국한되지 않고 식민 통치의 사회적 구조 악에 항거하며 독립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특히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농촌사업, 절제운동, 공창 폐지운동, 물산장려 운동이 활발했다.⁶⁰⁾ 이 시기는 교육 및 의료기관 등을 통한 기관 중심의 섬김 사역이었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는 6.25 한국전쟁과 남북의 분열, 군부독재, 산업화와 도시화, 경제위기 등으로 엄청난 역사적 시련기를 맞이하게 된다.⁶¹⁾ 교회와 선교사들은 1957년도에 560개의 고아원을 설립 운영하였고, 70개의 모자원과 70개의 양로원을 운영하였다.⁶²⁾ 김진홍목사의 할빈교회 두레공동체 운동 또한 이시기에 나타난 운동이다. 이 시기에 교회는 공동체를 통한 디아코니아 사역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외국원조기관에 의한 사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바⁶³⁾ 1960년대 이후 외국 원조의 감소와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교회 성장에 치중함으로 구조적인 차원의 사회사업 활동은 계속되지 않았다.⁶⁴⁾

1990년을 전후하여 교회 성장의 정체와 사회적 공신력의 상실을 통한 한국교회의 위기감은 교회 개혁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 결과로 일부 교회들은 사회봉사관(사회복지과, 사회선교관, 봉사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한 디아코니아 실천을 활발히 전개하였다.⁶⁵⁾ 이제 한국교회는 유럽의 디아코니아 실천을 거울삼아

56) 김한옥, 『기독교 사회사의 역사와 신학』 (서울: 실천신학연구소, 2006), 385-86.

57) 박영호, “21세기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복음과 실천신학」 12 (2007), 93-128.

58) 김은수, “해방 이전 한국교회 사회봉사선교의 역사적 특징,” 「선교신학」 32 (2013), 144-47. 알렌(H. N. Allen) 선교사(1885년 광혜원) 설립, 1913년까지 30여 처에 병원 설립. 북장로교회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북감리회의 아펜젤러(H. G. Appenzeller)는 경신학교와 배제학당을 설립. 1886년 스크랜턴 부인(M.F. Screnton)은 고아원으로 시작하여 이화학당을 설립하였다.

59) 김한옥, 『기독교 사회사의 역사와 신학』 397.

60) 박영호, “21세기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105.

61) 김한옥, 『기독교 사회사의 역사와 신학』 421.

62) 김은섭, “사회변동에 따른 한국기독교사회복지의 역사,” 「교회사학」 7(2008), 165-66.

63) 박영호, “21세기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108.

64) 김성철, “교회사회복지실천역사의 기독교사회복지학적 고찰,” 「유관순연구」 22(2017), 157.

65) 조학례, “한국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역사에 관한 연구,” 509.

이 땅 위에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유럽의 경건주의 디아코니아 실천운동이 17~18세기 참혹했던 유럽사회를 오늘날의 복지국가로 견인했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시대적 요청에 겸허히 응답하며 사회적인 필요(needs)를 채워가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섬기는 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의 삶을 본 받아 디아코니아 실천에 보다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의 역사적 이해 위에서 기윤실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을 수상한 132개 교회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디아코니아의 특성

기윤실의 자료 분석을 통해 볼 때, 오늘날 지역사회의 요구에 응답하는 교회는 다섯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담임목사의 분명한 목회 철학이 있는 교회: 디아코니아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들은 담임자가 분명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다. 담임목사가 분명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나눔과 섬김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헌신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었다. 또한 목회자의 디아코니아 실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성도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섬기도록 하였다. (염광교회, 광양 대광교회, 후영순복음교회 등)

둘째, 지역사회에 교회를 개방하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교육관, 식당, 주차장 등 교회의 시설들을 개방하고 있다. 그 중 80%는 교회의 대 예배당을 개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들은 여러 가지 디아코니아 사역들을 통하여 필요로 하는 교회공간들을 개방하고 있다. (녹양교회, 해성교회 등)

셋째, 주민의 요구(needs)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 지역교회는 지역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역을 실천하기 위하여 낮은 곳으로 내려가 주민과 소통하며 그들의 요구(needs)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대상교회들은 교회가 원하는 봉사활동을 하기 보다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들을 파악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목민교회, 도림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 등)

넷째, 재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들의 총 예산 중에 복지 관련 예산을 보면, 대부분의 대상교회의 경우 전체 예산의 10% 이상, 300명 미만 소형 교회는 30% 이상을 책정하고 있으며, 특별헌금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교회가 많았다. 교회가 효과적인 디아코니아 사역을 위해서는 복지 관련 예산을 짜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계명성 교회 등)

다섯째,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하는 교회: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정도는 교회

시설의 개방이 잘 이루어지고 모든 교인이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일수록 그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⁶⁶⁾ 오늘날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국가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디아코니아를 실천하고 있는바, 서울의 목민교회, 강남교회, 제천의 명락교회, 인천의 주안장로교회 등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공교회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역의 유관 기관과 상호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디아코니아 실천을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들은 목회 철학을 가진 교회, 지역사회에 교회를 개방하는 교회, 주민의 요구(needs)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 재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는 교회,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하는 교회라는 5가지의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다.

3. 디아코니아 7가지 실천 방안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으로 ‘디아코니아’를 꼽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이제 연구자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근거와 깨달음 위에서 한국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디아코니아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디아코니아 신학에 근거한 목회 철학을 세우는 것이다.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대상교회들은 모두 디아코니아 신학에 근거한 분명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성서적인 디아코니아 신학 위에 다시 세워져야 한다. 디아코니아 신학의 정립은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디아코니아 신학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며 성도를 성도답게 할 것이다. 교회가 디아코니아 신학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서적 섬김과 봉사의 신앙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교육을 통해 성서적 섬김과 디아코니아적인 신앙관을 고취시켜야 한다. 디아코니아적인 신앙이란 예수님의 첫째 계명대로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의 필요를 따라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디아코니아 실천에 대한 인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위하여 성서적 섬김과 봉사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도 이를 실천해 나갈 전문 인력이 고갈된다면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할

66) 김동배, “제10회 교회상 심사 총평,” 「기독교윤리실천운동자료집」, (2012.12.), 접속 2019.10.20., <https://cemk.org/resource/2592/>.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디아코니아 신앙과 영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응답하는 것이다. 교회는 언제나 지역사회 ‘안에’ “지역사회와 ‘함께’ 존재하며 지역사회를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속에 존재하는 교회는 민감한 순발력으로 지역사회의 요구(needs)에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다원화 사역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먼저 지역사회의 문제와 상황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요구가 무엇이지를 바로 알고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교회의 핵심사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디아코니아 사역을 실천함에 있어서 개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교회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역을 찾아서 개발하고 실시하면 된다. 교회는 각각 집중사역을 만들어 효과적인 디아코니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은 교회는 지역의 시설이나 기관과 연계하여 협력하고 지원하는 사역 또한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여섯째, 사역을 전문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디아코니아 사역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담당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교회는 전문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지역교회들의 섬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질적인 측면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양질의 섬김 서비스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조직 구성이 요구된다.

일곱째, 네트워크 사역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약점 중 하나는 각 교단과 교회의 독립성으로 하여금 연합 사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디아코니아 사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에 있는 교회간의 교류와 연합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며, 각각의 교단간의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 이것은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로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정보 교환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VI. 나가는 말

지금까지 연구자는 디아코니아의 이론적 이해와 17-18세기 유럽 경건주의 시대의 디아코니아 실천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기윤실에서 선정한 132개 대상교회를 통해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실천의 특징과 디아코니아 실천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실천의 다섯 가지의 특성으로는 목회 철학확립, 교회 개방, 주민의 필요 분석, 재정 확보, 유관 기관과 협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디아코니아 실천을 위한 일

곱 가지 방안으로는 첫째 디아코니아 신학과 목회 철학 정립, 둘째 교회 핵심사역 설정, 셋째 자원봉사자 발굴 양성, 넷째 지역사회 필요에 대한 응답, 다섯째 성서적 섬김과 봉사 신앙 고취, 여섯째 사역의 전문성 및 활성화 일곱째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협력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교단별, 분야별, 지역별로 연구가 필요하며, 디아코니아 신학, 디아코니아 목회, 디아코니아 사역 매뉴얼, 자원 봉사자 교육 등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디아코니아 실천은 사랑의 섬김 사역이다.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며, 단순히 구제하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다.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섬김-디아코니아’는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행동이다. 예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섬기는 자로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로 부름 받은 자들 또한 ‘섬기는 자’로 부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한 사역으로 디아코니아를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디아코니아 실천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예수의 지체들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를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한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의 디아코니아로 보게 될 것이다.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며,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복음 사역이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와 제자들의 디아코니아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고 사랑의 사람을 찾으신다. 이제 한국교회는 디아코니아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할 것이다. 세상은 그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디아코니아 실천이란 복음적 사랑의 섬김 사역으로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의 한 방편이라 하겠다.

■ 참고문헌 ■

- Arnhold, Leer-Helgesen. "Rethinking Diakonia and Transforming Our World." *The Ecumenical Review* 70/1 (Mar 2018), 147-62.
- Ball-Kilbourne, Gary L. "The Christian as steward in John Wesley's theological ethics." *Quarterly Review* 4/1 (Spr 1984), 43-54.
- Bartling, Walter J. "Ministry to ministers: an examination of the New Testament Diakonia." *Concordia Theological Monthly* 33/6 (Jun 1962), 325-36.
- Breed, Gert. "Finding guidelines on social change in the two-tiered narrative and diakonia in the Gospel of John." *Theological Studies* 71/2 (2015), 1-8.
- Carlos, Ham. "Ecumenical Chronicle, Colombo: theological perspectives on Diakon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World Council of Churches* 64/3 (Oct 2012), 383-92.
- Carter, David. "To Love And Serve The Lord. Diakonia in The Life of The Church. The Jerusalem Resport of The Anglican-Lutheran international Commission(ALIC III)." *One in Christ* 47 (2013), 155-62.
- Chung, Paul S. "Diakonia and economic justice." *The Ecumenical Review* 66/3 (Oct 2014), 302-12.
- Chung, Paul S. "Engaging God's Mission and Diakonia in Life of Public Spheres: Justification and Economic Justice." *A Journal of Theology* 49/2 (Summer 2010), 141-54.
- Collins, John N. *Diakonia: Re-interpreting the Ancient Sourc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Collins, John N. *Diakonia Studies: Critical Issues in the minist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Donfried, Karl P. "Ministry: Rethinking the Term Diakonia." *Concordia Theological Quarterly* 56/1 (Jan 1992), 1-15.
- Hwang, Jong Yun. "A Transformation of Young Adult Groups In the Social Holiness Movement." *Wesley Theological Seminary* (2012), 1-13.
- Jones, David. "Diakonia." *Presbyterion* 4/2 (Fall 1978), 90-94.
- Kjell, Nordstokke. "Ecumenical Diakonia: responding to the signs of the times." *The Ecumenical Review* 66/3 (Oct 2014), 265-73.
- Papaderos, Alexandros K. "Liturgical diakonia: biblical and theological view of

- diakonia.” *Mid-Stream* 18/2 (Apr 1979), 134-41.
- Schroeder, Philip J. “August Hermann Francke, 1663-1963.” *Concordia Theological Monthly* 34 /1 (Nov 1963), 664-68.
- Sherwin, Oscar. *John Wesley- Friend of the people*. New York: Twayne Publishers, 1961.
- Stott, John R. W.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London: Falcon Books, 1975.
- Wells, Harold. “John Wesley (1703-1791) And the call to a holy life.” *Touchstone* 34/2 (Jun 2016), 51-62.
- Wesley, John. *John Wesley’s Theology: A Collection from His Works*. Nashville: Abingdon Pree, 1954.
- 강원돈. “기독교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본 요한 헨리히 비헤른의 복지 사상.” 「기독교 사회윤리」 14(2007), 7-35.
- 김기용. “지역사회선교의 기회와 도전.” 「신학과 실천」 58(2018), 576-99.
- 김동배. “제10회 교회상 심사 총평.” 「기독교윤리실천운동자료집」. 2012.12. 접속 2019.10.20. <https://cemk.org/resource/2592/>.
- 김성철. “교회사회복지실천역사의 기독교사회복지학적 고찰.” 「유관순연구」 22(2017), 141-178.
- 김영선. “존 웨슬리의 사회복지 목회.” 「한국개혁신학」 19(2006), 81-101.
- 김옥순. 『디아코니아 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11.
- _____. “다문화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 역할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41 (2014), 447-85.
- _____. “디아코니아신학 관점에서 본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42(2014), 663-98.
- 김용성. “종교개혁500주년기념특강, 루터의 종교개혁은 오늘의 한국감리교회에 무엇을 의미 하는가.” 「기독교대한감리회」 (2017), 1-30.
- 김은섭. “사회변동에 따른 한국기독교사회복지의 역사.” 「교회사학」 7 (2008), 155-81.
- 김은수. “기독교 사회복지의 신학적 패러다임.” 「신학사상」 112(2001), 163-82.
- 김은수. “해방 이전 한국교회 사회봉사선교의 역사적 특징.” 「선교신학」 32 (2013), 143-47.
- 김한욱. 『기독교 사회사의 역사와 신학』. 서울: 실천신학연구소, 2006.
- 박영호. “21세기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복음과 실천신학」 12 (2007), 93-128.
- 박영호. “초대교회의 사회봉사 고찰.” 「복음과 실천신학」 13(2007), 99-124.

- 이성덕. “친젠도르프와 할레 경건주의.” 『한국교회사학회지』 22(2008), 129-57.
- 이수한. “복지선교를 통한 선교적 교회성장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58(2018), 703-25.
- 정인모. “독일 경건주의 운동 고찰.” 『독일언어문학』 78(2017), 237-55.
- 최무열. “국교회의 위기 극복과 대사회적 신뢰성 회복방안으로서의 디아코니아 활용에 관한 소고.” 『신학과 실천』 47(2015), 519-49.
- 한스 쾨링/ 정지런역, 『교회』. 서울: 한들출판사, 2011.
- 한영제. 『기독교대백과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1992.
- 황병준. 『미래교회트렌드』. 경기도 고양시: 올리브나무, 2015.
- 황순환. “구약성서에 나타난 디아코니아 정신.” 『선교 신학』 5(2002), 1-12.
- 홍주민. 『디아코니아학 개론』. 오산: 한국디아코니아연구소, 2010.

논 찬 1

“17-18세기 유럽 경건주의 시대와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실천 방안 연구”에 대한 논찬

김 한 호 박사

(서울장신대학교 / 춘천동부교회, 디아코니아연구소)

한국교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모든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더군다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의 모든 것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의 본질 사역인 ‘디아코니아’가 꼭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교수님의 이 글은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때와 맞물려 시의적절하게 쓰인 글이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디아코니아’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수님께서서는 I 장 <들어가는 말>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공신력을 잃고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의 원인을 “디아코니아 실천에 등한시함”이라고 분석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디아코니아에 대한 정의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디아코니아의 정당성을 밝혀주면서 앞으로 이 글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논리정연하게 서두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신학적인 근거로 디아코니아를 밝히면서 “예수는 말씀과 행동을 통해 ‘정의’를 핵심 가치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디아코니아와 정의의 관계성을 설명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디아코니아와 예수님의 정의가 어떠한 상관관

계가 있는지 그 근거를 보완해준다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II 장에서는 <디아코니아의 이론적 고찰>을 성서적 고찰, 신학적 고찰, 디아코니아 목회 세 개의 주제로 나누어 짜임새 있게 글을 전개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디아코니아의 학문적 근거로 성서를 고찰하며 디아코니아의 정당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성서적 고찰과 신학적 고찰을 구분 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성서적 고찰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신학적 고찰은 신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인데, 신학적 작업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더 명확한 신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글이 전개되고, 보충된다면 훨씬 더 풍성한 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III 장에서는 <17~18세기 유럽 경건주의 시대>의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디아코니아 사역을 경건주의와 연결 지었다는 점에서 신선한 도전이 되었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건주의 디아코니아를 소개해주고 있어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실천’을 추구하였던 경건주의자들에 대해 소개해 주시면서 이들 모두가 “자신들의 사회적 상황과 요구(needs)에 응답하였다.”고 평가한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신학은 그 시대마다 요청되는 특수성에 따라 응답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디아코니아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IV 장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교회의 실질적인 디아코니아 사역의 실태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헌연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이 연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방문 인터뷰도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신 교수님의 열정이 느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대상교회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사하시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학자로서의 진지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V 장에서는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특성 및 실천 방안>에 대하여 서술하고 계시는데,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글을 전개해나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문을 통해 디아코니아에 대한 교수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이렇게 열정을 가진 교수님을 글로나마 알게 되고, 교류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논문에서 디아코니아의 핵심을 ‘실천’으로 보고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임을 강조해주신 교수님의 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디아코니아 목회라는 주제를 다루시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목회’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교수님께서서는 디아코니아 목회를 너무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었다는 점입니다. 디아코니아 목회는 단순히 교회가 사회복지적인 시각에서 외부로 향한 섬김을 실천하는 것을 뛰어넘어 교회의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등 목회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도 얼마든지 디아코니아를 접목하여 접근하고, 사역할 수 있음을 다루어 주었다면 조금 더 통전적인 차원에서의 디아코니아를 소개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 세계의 위기 상황과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도전 앞에 디아코니아를 통해 어떻게 하면 회복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이 논문을 통하여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방대한 자료까지 조사해 가시면서 열정으로 논문을 준비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후속 연구를 기대하며 논찬을 마치겠습니다.

논 찬 2

“17-18세기 유럽 경건주의 시대와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실천 방안 연구”에 대한 논찬

김 동 진 박사

(루터대학교)

I. 들어가는 말

독일 디아코니아 운동의 선구자 요한 힌리히 비헤른(Johann Hinrich Wichern, 1808~1881)이 1856년 쓴 <디아코니아와 디아코니아직에 관한 보고서(Gutachten über die Diakonie und den Diakonat)>에 따르면, 비헤른은 디아코니아를 신학에 대한 외부적인 활동이 아닌, 심장의 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신학이라는 학문과 밀접한 연관이 없다면, 디아코니아의 실천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비헤른의 신학적인 자극은 프리드리히 폰 보델슈빙(Friedrich von Bodelschwingh der Ältere, 1831-1910)으로 하여금 빌레펠트(Bielefeld) 베텔공동체 안에 신학교를 설립하게 했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은 신학이 실천적이고 디아코니아적인 섬김의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20세기 신학의 거장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가 등장하면서 신학적 작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지만, 민족사회주의(Nationalsozialismus) 이전 시대의 지식은 너무나 미비하여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척박한 디아코니아 신학적 토양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은 하인츠 디트리히 벤틀란트(Heinz-Dietrich Wendland, 1900-1992)의 노력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경험이 있고, 가까이에서 나치즘을 지켜보면서 독일 개

신교회 안에 사회윤리의 큰 결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이론과 실천의 괴리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후 그는 디아코니아를 위한 신학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벤틀란트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 독일 디아코니아학의 연구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고, 그동안 수많은 학자를 배출해 냈습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에서 수학하신 훌륭한 학자들에 의해 디아코니아 신학의 진전을 이루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반색할 만한 일이며, 한국실천신학의 한 부류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음도 흡족할 만한 일입니다. 특히 디아코니아 연구에 관한 새로운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반가운 마음을 감출 수 없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도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 논문의 주요 내용

논자는 우선 디아코니아의 이론적 고찰을 성서적 관점, 신학적 관점 그리고 목회적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바, 이 논문의 목적은 디아코니아의 실천을 등한시함으로써 공신력을 잃은 한국교회를 향해 디아코니아 실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한국교회로 깨우기 위한 이론적 뒷받침으로 읽힙니다.

다음으로 17~18세기 유럽 경건주의 시대의 주요 인물들을 살피면서 그들의 디아코니아 활동을 소개합니다. 필립 야콥 슈페너(Philipp Jacob Spener, 1635-1705),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August Hermann Francke, 1663-1727), 친첸도르프(Nikolaus Ludwig von Zinzendorf, 1700-1760) 그리고 경건주의에 큰 영향을 받은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까지 소개하면서, 진정한 경건이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섬김의 삶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에서 선정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을 수상한 123개 교회를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디아코니아 실천의 특성이 무엇인지, 규모별, 지역별, 교단별, 사업별로 그 특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노인사역, 아동사역, 청소년사역을 중심으로 디아코니아를 실천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정사역, 여성사역, 이주민사역 등은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디아코니아의 역사적 이해와 더불어 다섯 가지의 디아코니아 특성과 일곱 가지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의 자료 분석을 통해 나타난 다섯 가지의 특성은 첫째, 담임목사의 분명한 목회 철학이 있는 교회, 둘째, 지역사회에 교회를 개방하는 교회, 셋째, 주민의 요구(Needs)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 넷째 재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는 교회, 다섯째,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하는 교회라고 설명

합니다.

이어서 디아코니아를 위한 7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 첫째, 디아코니아 신학에 근거한 목회 철학을 세우기
- 둘째, 성서적 섬김과 봉사의 신앙을 고취시키기
- 셋째,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 넷째,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응답하기
- 다섯째, 교회의 핵심사역을 설정하기
- 여섯째, 사역을 전문화하고 활성화하기
- 일곱째, 네트워크 사역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

3. 토론을 위한 질문

논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질문하려 합니다. 논자는 논문의 목적을 17~18세기 유럽 경건주의 시대를 고찰하고 그에 근거한 디아코니아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7~18세기 경건주의 시대의 디아코니아 활동을 연구한 결과가 오늘날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실천을 위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경건주의 운동은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약 한 세기 반이 지나 종교개혁의 정신이 희미해질 무렵, 또다시 교회 안에 독단적 교의만을 고집하는 교조주의(dogmatism), 만인사제직을 뒤로하고 성직자 중심으로 분열시키는 교조주의(clericalism), 참된 교회론은 사라지고 ‘보이는 교회’의 권위만을 강조하는 교권주의(ecclesiasticalism)가 극에 달해 있을 때, 종교개혁의 참된 본질로 돌아가자는 갱신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루터의 칭의론을 기초로 한 경건주의는 믿음과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디아코니아의 실천을 이어갔습니다.

요한 헨리히 비헤른이 말한 것처럼, 디아코니아의 실천은 신학적인 작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 17~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이 우리 시대의 디아코니아 신학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으로 논자는 디아코니아 목회에서 위로(on) 향하는 목회와 아래(under)로 향하는 목회로 이원화하면서, 루터의 성례전적인 이해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루터는 1520년 종교개혁의 3대 논문 가운데 하나인 <교회의 바벨론 감금(De captivitate Babylonica ecclesiae)>에서 성서에 의해서 확실하게 뒷받침이 되는 세례와 성만찬만을 성례전으로 인정했고, 사죄 선언은 넓은 의미에서만 성례전으로 인정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시행하는 칠성례(七聖禮)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례전

의 의미를 엄격하게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에 대한 루터의 이해는 ‘섬김’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는 미사(Messe)라는 용어 대신 예배(Gottesdienst)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Gottesdienst’라는 독일어가 ‘하나님(Gott)의 섬김(Dienst)’으로 풀이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섬김’으로 이해하지만, 루터는 반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으로 이해했습니다. 성례전을 통해 인간을 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물론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섬김’과 ‘인간의 섬김’이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인간의 섬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반응으로써 나타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섬김에 무게가 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디아코니아와 루터를 연결하려면 루터 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 신학(Die Theologie des Kreuzes)의 빛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과 믿음이라는 수직적 차원(하나님과의 관계)의 한 축이 있고, 정의와 사랑이라는 수평적 차원(이웃과의 관계)의 한 축이 만나는 교차점에 십자가가 있다는 루터교 신학자 칼 브라텐(Carl E. Braaten)의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4. 나가는 말

한국교회봉사단(한교봉)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종교에 관한 질문에서 개신교라고 응답한 사람이 29.2%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천주교(20.2%)가 뒤를 이었습니다. 불교라고 답한 사람은 3.8%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잘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는 천주교가 24.4%로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개신교는 21.2%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천주교가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잘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관한 질문에서 가장 순수하게 봉사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55.2%나 되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사회봉사 활동은 개신교가 가장 적극적이지만, 진정성은 결여되어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신교가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0%가 사회봉사 활동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보여주기식’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2.4%, 형식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16.3%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사회봉사활동하는 교회의 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논자가 디아코니아 7가지 실천 방안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교회마다

디아코니아 신학에 근거한 목회 철학을 세우고, 성서적 섬김과 봉사의 신앙을 고취시키며, 디아코니아를 교회의 핵심 사역의 자리로 배치시키고, 보다 더 효과적인 디아코니아 사역이 되도록 전문성을 갖추며, 상호 협력하는 등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교회가 늘어나는 것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밝게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의 7가지 실천 방안은 디아코니아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한국교회들에게 좋은 길을 제시해 준다고 봅니다.

1848년 9월 22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교회(Schlosskirche Wittenberg)에서 열렸던 제1회 교회의 날 행사에서 요한 헨리히 비헤른의 즉흥연설이 독일 디아코니아 운동의 거대한 물결을 일으켰던 것처럼, 김윤기 박사님의 논문이 한국 디아코니아 운동에 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논문으로 디아코니아를 향해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신 김윤기 박사님에게 감사드리며, 논찬을 마치겠습니다.

제 11 발표

요안네스 카시아누스 (Ioannes Cassianus, ca. 360-ca. 435)의 ‘철저한 가난’ (Radical Poverty) 이해와 독특성

나 현 기 박사

(한신대학교 / 초대교회사학)

I. 들어가는 말

요안네스 카시아누스는 5세기 초반 로마제국 갈리아(Gallia) 남부 지역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현존하는 2개의 수도문헌인 『수도원 제도집』 (*De institutis*, 이하 제도집)와 『사막교부들과의 담화집』 (*Collationes patrum*, 이하 담화집)을 남겼다. 이 두 문헌을 통해 카시아누스는 갈리아 지역 수도사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동로마 지역의 수도생활 방식, 특별히 이집트 지역의 수도관습과 가르침(영성신학체계)을 전달하고자 했다.¹⁾

『제도집』은 12권의 책으로 구성되어있고 공주수도생활 방식에 어울리는 수도훈련에 관한 내용(1-4권)과 8가지 중요한 악덕(eight principal vices)의 원인과 치료(5-12권)를 주로 다룬다. 『담화집』은 이집트 사막교부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총 24개의 담화형식의 글이다. 이 책은 크게 세부분(1-10, 11-17, 18-24)으로 나뉜다. 두

1) 카시아누스 연구자들은 카시아누스가 5세기 초반에 갈리아지역의 마셀리아 (Massilia, 오늘날 프랑스 마르세유)에 도착했고 415년-425년경에 수도문헌을 작성했다는데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문헌을 언 뜻 보면 수도생활과 관련된 주제들을 복잡하고 일관성 없이 나열한 책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카시아누스 연구자들인 드 보귀에(Adalbert de Vogüé)와 프리스터스(Lauren Pristas)는 이 수도 문헌들은 의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혀냈다.²⁾

책의 구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카시아누스는 다양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도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들을 문헌 중간 중간에 반복해서 설명한다. 이를 통해서 두 권의 문헌으로 하나로 연결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제도집』 1권, 4권, 12권과 『담화집』 24번째 담화는 큰 주제들이 끝나고 다른 주제로 연결되는 두 문헌의 구성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들이다. 카시아누스는 이 부분에서 수도생활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난 혹은 청빈의 주제, 즉, “재산의 자발적이고 철저한 포기”(radical poverty)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두 권의 책을 구조적으로 하나로 연결시킨다. 또한 가난이라는 주제를 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각인시키고자 했다.

필자는 이 연구 논문에서 첫째, 카시아누스가 자신의 수도문헌에서 왜 가난을 강조하고 있는지 둘째, 에바그리우스(Evagrius of Pontus, ca. 345-399)의 영향을 깊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 그의 영성신학에서 “가난”이라는 주제가 차지하는 신학적 의미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사실 카시아누스 연구자들은 그동안 카시아누스가 구조적으로 가난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순한 수사적 반복으로만 생각했다. 그 원인과 영성신학적 의미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가난의 주제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은 카시아누스의 수도문헌이 작성된 5세기 초 갈리아의 수도원 상황과 카시아누스의 수도문헌의 관계를 파악하지 않았던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카시아누스가 가난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그의 수도문헌이 쓰였던 5세기 초 갈리아지역 수도원의 상황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이어서 카시아누스의 영성신학에서 그의 가난이해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의미를 설명할 것이다.

II. 카시아누스의 수도문헌 구조에 나타난 가난의 중요성³⁾

『제도집』과 『담화집』에서 카시아누스가 강조하고 있는 수도원적 가난의 의미

2) Adalbert de Vogüé, “Understanding Cassian: A Survey of the Conferences,” *Cistercian Studies Quarterly* 19 (1984): 101 - 121; Lauren Pristas, “The Theological Anthropology of John Cassian,” (PhD diss., Boston College, 1993), 17 - 34, 128 - 129.

3) 카시아누스의 가난 주제와 수도문헌의 구조에 관한 자세한 연구는 다음 연구 논문을 참고할 것. 나현기, “요안네스 카시아누스의 수도문헌에 나타난 5세기 초 갈리아 수도사 비판과 가난(Radical Poverty)의 중요성”, 『한국교회사학회지』 (2017년 4월), 7-15.

는 『제도집』의 서론 격에 해당하는 1권에서 파악할 수 있다. 1권의 주제는 이집트 공주수도원(the cenobitic community) 수도사들이 입는 수도복의 상징적 의미이다. 카시아누스는 각각 수도복의 상징을 설명하면서 수도문헌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가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카시아누스가 주장하는 가난이란 수도생활의 초기 단계에서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온전히 포기하는 행위를 말한다.⁴⁾ 이어서 자급 자족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발적 가난의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⁵⁾ 카시아누스는 이런 생활 방식이 바로 이집트 사막 교부들(Egyptian Desert Fathers)이 추구해왔던 방식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이런 가난의 방식을 그의 글 전체에서 이상화한다. 이처럼 재산의 확실하게 먼저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내적 정화의 단계로 가는 초석이다.⁶⁾ 둘째, 이러한 철저한 자발적 가난은 성서의 인물을 본질적으로 따르는 것이며, 특별히 예루살렘교회의 이상을 본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한다.⁷⁾ 셋째, 자발적이면서도 급진적인 가난을 강조하지만 인간본성의 연약함 또한 깊이 고려한다. 따라서 카시아누스는 자발적이고 철저한 가난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수도생활 전 과정에서 인간 탐욕의 끈질긴 유혹을 끊임없이 경계 과정으로 이해한다.⁸⁾

『제도집』 1권에서 보여주는 가난에 대한 이해가 4권, 12권, 담화집의 결론인 24권에서 다시 등장한다. 카시아누스는 이 부분들에서 “진정한 수도사란 누구인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내리고자 시도한다. 그의 대답은 세상의 부를 철저히 버리고 수도생활가운데 일어나는 탐욕과 싸우며 나아가는 길이 바로 수도사의 길이라는 것이다. 물론 카시아누스의 수도문헌 다른 부분에서도 가난에 대한 주제는 다시 언급된다. 예를 들어 8가지 악덕(eight principal vices)중에 하나인 탐욕(avarice)을 다루는 『제도집』 7권, 가난의 3가지 유형을 다루는 3번째 담화, 예루살렘교회의 등장과 쇠퇴를 다루는 18, 21번째 담화에서 가난에 대한 설명은 반복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의 신학은 두 문헌 속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드 보귀에는 『담화집』은 내용적으로 두 그룹의 담화들로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그룹은 1, 3, 5, 7, 9, 11, 14, 16, 18, 21 담화들이다. 이 담화들은 주로 예바그리우스의 영향아래 수도생활의 영적 진보의 단계에서 궁극적 목적들로 제시한 “마음의 청결(puritas cordis),” “사랑(charity),” “쉽없는 관상(unceaing contemplation)”의 주제

4) *De institutis* 1.1.1 - 1.2.1, 1.4, 1.6, 카시아누스의 『제도집』의 라틴어 원문은 Jean Claude Guy, ed., *Sources Chrétiennes* 109 (Paris: Éditions du Cerf, 1965)와 영어 번역본은 Boniface Ramsey, trans., *John Cassian: The Institutes*, *Ancient Christian Writers* 58 (New York: Newman Press, 2000) 버전을 참고했음을 밝힌다.

5) *De institutis* 1.5.

6) *De institutis* 1.7.

7) *De institutis* 1.1.2 - 4.

8) *De institutis* 1.9.

로 돌아가며 그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 그룹의 담화들과 짝을 이루는 2, 4, 6, 8, 10, 12, 13, 15, 17, 19, 20, 22-23 담화들은 수도사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첫 번째 그룹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도생활의 궁극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들을 주로 언급한다. 드 보귀에는 담화집의 첫 번째 그룹들은 수도생활의 목표로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두 번째 그룹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주제를 내용적으로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프리스트어스는 드 보귀에의 분석을 보완한다. 카시아누스는 담화집 서론에서 “제도집은 수도사들의 외적이고 보이는 삶”에 관한 책이고 담화집은 “내적인 삶”에 관한 책이어 서로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⁹⁾ 프리스터스는 카시아누스의 언급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두 권의 책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앞서 언급했듯이 프리스터스는 『제도집』과 『담화집』을 연결하는 4개의 주요지점들에 관심을 갖는다. 1권은 『제도집』 첫 부분(1권-4권)의 서론이고 4권은 『제도집』 첫 부분의 결론이면서 두 번째 부분인 5권-12권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12권은 『제도집』 두 번째 부분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하나는 담화집의 24번째 담화인데 이것은 담화집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모두는 앞서 언급했듯이 『제도집』 1권에서 주장한 수도원적 가난의 의미를 계속 반복하고 독자들에게 상기시킨다. 따라서 먼저 세 개의 주요 지점들(1, 4, 12권)은 『제도집』의 주제들을 하나로 연결시킨다. 또한 『담화집』의 첫 번째 그룹에 속한 담화들은 수도생활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면서 카시아누스의 『담화집』을 구조적으로 연결시킨다. 그런데 담화집의 결론에 해당하는 24번째 담화는 다시 수도생활의 첫 시작인 재산의 철저한 포기과 자발적 가난이라는 주제를 다시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제도집의 1권, 4권, 12권과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카시아누스의 『제도집』과 『담화집』은 외형적으로 이집트와 동방의 수도전통을 갈리아에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최근 연구자들은 카시아누스는 에바그리우스의 대표적인 신학체계인 영성생활의 발전 단계와 목표, 그리고 목표에 이를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갈리아에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을 동의한다.¹⁰⁾ 그런데 그의

9) *Collationes* 1Praef. 5 (ACW 57:30; SC 42:75): “Proinde ab exteriori ac uisibili monachorum cultu quem prioribus digessimus libris, ad inuisibilem interioris hominis habitum transeamus, et de canonicarum orationum modo ad illius quam apostolus praecipit orationis perpetuae iugitatem ascendat eloquium, ut quisquis iam superioris operis lectione Iacob illius intelligibilis nomen carnalium uitiorum subplantatione promeruit, nunc etiam non tam mea quam patrum instituta suscipiens diuinae iam puritatis intuitu ad meritum et ut ita dixerim dignitatem transiens Israhelis, quid in hoc quoque perfectionis culmine debeat obseruare similiter instruat.” 카시아누스의 『담화집』의 라틴어 원문은 E. Pichery, ed., *Collationes Patrum*, 3 vols. SC 42, 54, and 64. Paris: Éditions du Cerf, 1955 - 1959.

수도문헌을 하나로 엮어서 『제도집』과 『담화집』을 상호 연결하는 것은 수도생활에 대한 첫 시작인 철저한 가난에 관한 주제들이다. 이러한 구조는 독자들에게 수도생활의 첫 시작인 자발적이고 철저한 가난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자하는 카시아누스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카시아누스는 제도집과 담화집을 통해서 갈리아 독자들에게 돈과 재산을 온전히 포기하고 가난해지는 것이야말로 수도생활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쉽게 이를 수 없는 도전적인 과제를 주장하고 있다.

III. 카시아누스의 5세기 초 갈리아 수도원에 대한 평가와 가난

『제도집』과 『담화집』의 구조를 간략히 분석하고 거기서 가난의 주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역할 그리고 카시아누스가 주장하는 가난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은 왜 카시아누스는 자발적이고 철저하게 재산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사는 문제를 강조하는가이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떠난 수도사들에게 가난한 삶은 당연한 듯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집』과 『담화집』이 쓰였던 5세기 초반의 갈리아 주류 수도사 집단의 생활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그동안 카시아누스의 가난이란 주제와 관련해서 『제도집』과 『담화집』의 역사적 상황을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카시아누스 문헌의 배경을 분석한 연구는 루소(Philip Rousseau)가 처음 시작했다. 그는 카시아누스의 글은 “이집트의 엄격했던 수도 전통과 괴리되고, 사회적이며 교회 정치적 야망에 휩싸였던 갈리아 수도사들과 투쟁”의 한 가운데서 쓰인 문헌이라고 주장했다.¹¹⁾ 그 이후로 최근에 굿리치(Richard Goodrich)가 가난의 주제와 5세기 초 갈리아 수도사들의 수도생활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¹²⁾ 그의 연구는 카시아누스의 수도문헌은 5세기 초반의 갈리아 수도사들의 주류집단의 독특한 특징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카시아누스가 글을 썼던 동기는 당시 갈리아 교회 지도자들의 일반적인 관습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그 갈리아 상황 속에서 이집트에서 배운 자신의 신학을 전달하고자하는 열망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10) 에바그리우스의 영성의 발전 단계에 대한 카시아누스의 수용을 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것. *De institutis* 4.1 - 43; John Cassian, *Collationes partum* 19.1 - 16 ed. E. Pichery, SC 64 (Paris: Éditions du Cerf, 1955-1959); Boniface Ramsey, trans., *John Cassian: The Conférences*, ACW 57 (New York: Newman Press, 1997), 669 - 682.

11) Philip Rousseau, “Cassian: Monastery and World,” in *The Certainty of Doubt: Tributes to Peter Munz*, eds. Miles Fairburn and W. H. Oliver (Wellington, New Zealand: Victoria University Press, 1996), 84.

12) Richard Goodrich, *Contextualizing Cassian: Aristocrats, Asceticism, and Reformation in Fifth-Century Gaul*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7.

5세기 갈리아 교회의 특징을 브라운(Peter Brown)은 “갈리아 교회의 귀족화”(the aristocratization of the Church in Gaul) 라고 정의 내린다.¹³⁾ 로마시대 갈리아 지역 다수의 귀족¹⁴⁾들이 5세기 초반, 그리스도교의 지도자가 되려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역사적 현상을 브라운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굿리치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카시아누스의 수도문헌의 중요한 관심은 “갈리아의 귀족출신 수도사들의 부에 대한 엄격하지 못한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¹⁵⁾

카시아누스의 눈에 비친 갈리아 수도원에 대한 비판은 『제도집』 서론에서부터 등장한다. 갈리아지역 수도원은 수도원의 원류이고 사도적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수도 관습과 가르침을 결핍하고 있다고 본다.¹⁶⁾ 또한 갈리아 수도원이 행하고 있는 통일되지 않는 수도 규칙과 관습들은 제대로 수도 훈련을 받지 않거나 자격 없는 수도원장들이 만든 것이고 카시아누스가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규칙들과도 동일하지 않았다.¹⁷⁾ 제대로 된 수도원칙과 규율, 그리고 신학이 부재한 갈리아에서 모든 수도생활의 시작이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에 대한 철저한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갈리아 수도사들은 재산과 돈을 자기 수도원으로 가지고 들어올 뿐 아니라 이전의 귀중품들을 수도원 안에서도 여전히 소유하고 있었다.¹⁸⁾ 갈리아 수도사들은 자급자족의 생활 방식을 하지 않고 게으른 생활 때문에 쉽게 셀 수 없는 유혹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이 지역[갈리아지역]에서 우리가 체계적인 수도원을 볼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갈리아 수도사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을 부양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그곳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의 환대에 의해서 충분한 의식주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게으름과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지를 못한다. 이집트의... 스스로 일하며 자급자족으로 살아가는 수도사들은 하나

13) Peter Brown, Peter Brown, *The Rise of Western Christendom*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 1997), 65.

14) 당시 귀족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유동적인 개념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5세기 갈리아 귀족은 로마 갈리아지역에서 특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파울리누스(Paulinus)와 같은 로마 전 지역에서도 손에 꼽힐 만한 최고의 부를 누리던 귀족 뿐 아니라 갈리아의 작은 지방 도시들에 땅과 정치적 파워를 소유한 지방 귀족들까지도 포함한 개념임을 밝힌다 (F. D. Gillard, “Senatorial Bishops in the Fourth Century,” *HTR* 77 [1984]: 153 - 175).

15) Peter Brown, *Through the Eye of a Needle: Wealth, the Fall of Rome, and the Making of Christianity in the West, 350-550 AD*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415.

16) *De institutis Praef* 5, 7.

17) *De institutis Praef* 8.

18) *De institutis*, 4.15.1.

의 악마하고만 싸우면 되지만 반면에 게으른 자들은 셀 수 없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파괴된다.”¹⁹⁾

결론적으로 카시아누스의 눈에 비친 갈리아 수도원에는 체계적인 이집트 사막교부들의 가르침이 부재하다. 특별히 수도 생활 초기에 이루어야 할 완전한 가난에서 시작해 단계를 밟아가며 영적 진보를 이루게 해주는 신학과 실재적인 규율이 부재하다고 판단한다. 카시아누스가 주장하고 이상화 하고 있는 이집트 영성신학의 근간에는 에바그리우스가 제시하는 내적 정화단계에 이르는 과정이 자리 잡고 있다. 첫 시작은 재산의 철저한 포기에서 시작하는데 이전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한 갈리아 수도사들은 결국 탐욕과 교만의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음의 청결과 궁극적 하나님을 관상하는 수도원의 목표에 달성하는 일을 실패하고 만다.²⁰⁾ 시작이 좋지 못하니 좋은 과정도 좋은 결과도 없는 것이다. 결국 카시아누스의 판단으로는 갈리아 수도사들은 수도적 완전(monastic perfection)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다.

프린츠(Friedrich Prinz)에 의하면 고대후기 갈리아 수도원은 크게 두 부류의 수도운동의 영향 하에 있었다. 하나는 수도사의 투르의 마르티누스(Martin of Tours, ca.316-ca. 397), 파울리누스와 술피키우스 세베루스가 주도했던 갈리아 북부지역의 수도운동이었다. 다른 하나는 아를의 호노라투스(Honoratus of Arles, ca. 350-429)와 그의 레랭 수도원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 갈리아 지역의 수도원 운동이 그것이다.²¹⁾ 카시아누스는 이 두 지역의 수도원 운동의 흐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들이 남겨놓은 수도 전통과 관습들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5세기 초반에 갈리아 교회에는 유달리 많은 지역의 귀족계층들이 적극적으로 수도사와 교회의 주교가 되려고 했다. 주된 이유는 갈리아지역에 반달족, 비시고트족과 같은 게르만족의 침입과 콘스탄틴 3세가 일으켰던 내전으로 인해 로마체제하에서 권리를 누리던 귀족 지배 계층들의 토대가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²²⁾ 현대 많은 서양사가들의 5세기 야만족의 침입이 고대후기 갈리아 사회 뿐 아니

19) *De institutis*, 10.2.

20) *De institutis* 4.3.1 - 4.4

21) Friedrich Prinz, *Frühes Mönchtum im Frankenreich: Kultur und Gesellschaft in Gallien, den Rheinlanden und Bayern am Beispiel der monastischen Entwicklung*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1965), 19 - 93.

22) John Bagnell Bury, *History of the Later Roman Empire: From the Death of Theodosius I to the Death of Justinian*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58), 1: 185 - 211; A.H.M. Jones, *The Later Roman Empire 284-602 A Social, Economic, and Administrative Survey* (Baltimore, Marylan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1:182 - 192, 238 - 265, 1027 - 1031. 게르만족의 갈리아 침략에 대한 최근 연구서로 다음의 연구서를 참고 할

라 서로마 지역에 예상했던 것보다 큰 피해를 주지 않았고 사회·정치적 변동은 미비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티젠 (Ralph Mathisen)은 분명히 5-6세기 내·외적으로 일어나 로마 제국의 사회, 정치적 변동이 귀족들의 개종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²³⁾ 그는 현대 역사가들이 야만족의 침입이 로마의 사회·정치적 변화에 준 영향이 전통적인 주장보다 미비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지배계층에게 주었던 공포와 실제적인 특권 상실에 대한 그들의 염려마저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분명 야만족의 지속적인 침입과 내란은 귀족계층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이다.²⁴⁾

마티젠은 5세기 갈리아의 귀족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수도사와 지역교회를 책임지는 주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러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특권의 상실과 미래의 삶에 대한 공포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들의 자구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야만족의 침입은 분명히 그들이 공직에서 활동하거나 재산을 증식하고 사회적 교류에 대한 기회를 점점 제거했다. 이러한 특권 상실은 귀족계층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찾도록 만들었다. 갈리아의 고위 행정관료(prefect of the pretorium)이며 귀족 집안 출신이었던 아폴리나리스 시도니우스 (Sidonius of Apollinaris, ca. 430-ca. 480)의 서신에는 당시 귀족들이 느꼈던 고통과 그리스도교로 개종해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잘 보여준다. 그는 야만족의 침입과 내란 등으로 약해져가는 로마제국정부 아래서 결국 귀족들이 선택할 것은 그 지역을 탈출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 혹은 수도원과 교회의 보호아래로 피신해서 그곳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⁵⁾

것. P. Heather, "Why Did the Barbarians Cross the Rhine?," JLA 2 (2009): 3 - 4; Allen E. Jones, *Social Mobility in Late Antique Gaul: Strategies and Opportunities for the Non-Elit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1 - 15.

23) Ralph Mathisen, *Roman Aristocrats in Barbarian Gaul: Strategies for Survival in an Age of Transition*.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3x; 5세기 갈리아 귀족과 교회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서를 함께 참고하기 바란다. John Matthews, *Western Aristocracies and Imperial Court AD 364 - 425* (Oxford: Clarendon Press, 1975); Raymond Van Dam, *Leadership and Community in Late Antique Gau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24) 아게루키아(Ageruchia)에게 보낸 제롬의 『서신』과 마르세이유의 갈리아 귀족 살비안 (Salvian of Marseilles)이 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하여』 (*De gubernatione Dei*) 6권에 당시 갈리아의 지배계층들이 느꼈던 공포와 특권 상실의 위기감이 잘 표현되어 있다 (Jerome, *Epistulae* 123 ed. Isidore Hilberg, CSEL 56.1 [Vienna: Tempsky, 1996]; W. H. Fremantle, trans., *Jerome: Letters and Select Works*, NPNF 1/6 [1893; repr.,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94], 230 - 238; Salvian, *De gubernatione Dei* 6.13 ed. Georges Lagarrigue, SC 220 [Paris: Éditions du Cerf, 1975]; Jeremiah F. O'Sullivan, trans., *The Writings of Salvian, the Presbyter*, FOTC 6 [New York: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47], 174).

25) Sidonius, *Epistulae*, ed. and trans. W. B. Anderson, LCL 29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6), 2.1.4: "Si nullae a republica vires, nulla praesidia, si nullae,

5세기 초반 로마제국은 서로마의 지역의 통제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었다. 지방 귀족들의 특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도 없었다. 특별히 야만족에게 침략 당했던 지역의 중앙통제력은 상실되었다. 각 지역 중심으로 야만족들과의 협상, 재산과 생명보호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했다. 여기서 갈리아의 지방 도시들의 문화와 행정의 중심이었던 교회와 수도원들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²⁶⁾ 5세기가 되고 생존의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많은 갈리아 귀족들은 귀족으로서 세상의 명성을 얻는 일 보다는 동일한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그리스도교 지도자가 되어 “하늘의 귀족”(heavenly aristocrat)이 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정체성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하늘의 귀족”이 되어 신의 명예를 얻는 것이 보다 영예로운 일이라는 것이다. 마티젠은 이런 정체성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귀족의 신분에 대한 이러한 재해석이야말로 5세기 갈리아 귀족들이 스스로 찾아낸 일종의 “생존전략”이었다고 설명한다.²⁷⁾

위기시대에 귀족들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수도원으로 들어와 수도원장이 되었고 그 뒤로 주교가 되어 각 지역을 대표하였다. 그런데 5세기 갈리아 귀족들이 개종하여 수도생활을 했던 모습은 어떠했을까? “하늘의 귀족”이 되기 위해 수도생활을 결심한 귀족들의 수도원적 가난에 대한 태도는 카시아누스의 가난 이해와는 사뭇 달랐다. 갈리아 북부 지역을 넘어서 서방수도원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던 『마르티누스의 생애』 (*Vita Martini*)의 저자인 세베루스(Sulpicius Severus)는 마르티누스의 생애와 이후 갈리아 귀족 수도사들이 모방했던 중요한 특징을 설명한다. 이집트의 세상과 결별하여 극단적으로 은둔하고 있는 수도사들과 달리 마르티누스는 수 많은 방문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²⁸⁾ 그는 세속의 공동체에서 주교가 되어 사람들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수도생활과 그 덕을 유지 할 수 있었던 마르티누스야말로 이집트의 은둔 수도자들보다 더욱 고귀하다고 주장한다.²⁹⁾

세베루스의 이러한 주장 속에서 갈리아의 수도원 생활은 세속의 주교가 되는 일과 무관치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가난은 철저한 가난과 은둔 생활을 통한 내적 정화를 강조하는 이집트 방식을 수도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5세기 갈리아의 많은 수도문헌들은 개종한 귀족 수도사들은 기존의 재

quantum rumor est, Anthemii principis opes, statuit te auctore nobilitas seu patriam dimittere seu capillos.”

26) Van Dam, “The Pirenne Thesis and Fifth-Century Gaul,” 326 - 330; Harries, “Christianity and the City in Late Roman Gaul,” in *The City in Late Antiquity*, ed. John Rich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2), 77-98; J. H. W. G. Liebeschuetz,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City*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61 - 167; Ian N. Wood, *The Merovingian Kingdoms 450 - 751* (London: Pearson Education, 1994), 20 - 32.

27) Mathisen, *Roman Aristocrats in Barbarian Gaul*, 89-104.

28) Sulpicius Severus, *Dialogi* ed. Charles Halm, CSEL 1 (Vienna: C. Geroldi, 1866), 1.24.

29) *Dialogi* 1.24.

산을 수도생활하면서 보존하거나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준다.³⁰⁾ 그들은 개인 후원자들과 교회에서 후원을 받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또한 후원금이나 기존의 재산들을 수도원과 자신이 맡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 (예를 들어 기독교 교리연구, 수도문헌을 쓰는 일, 손님들과 가난한 이들을 환대하고 교회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갈리아 수도사들에게 자발적이고 철저한 수도원적 가난은 귀족시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를 문자 그대로 포기하는 일이 아니었다. 귀족시절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했다면 수도사가 되고 주교가 되어서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에 가치 있게 쓰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공통된 가난 이해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카시아누스가 5세기 초반 남부 갈리아에 도착했을 때 갈리아의 수도문화를 보면서 비판했던 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된다. 이집트식 가난과 수도 방식을 이상화하고 거기에 자신의 영성체계를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졌던 카시아누스에게 개종한 갈리아 귀족들의 태도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부를 포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태도는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카시아누스의 눈에는 돈과 재산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이겨내고 진정으로 “하늘의 개종한 수도사요 감독”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갈리아의 수도사들은 직접 노동하지 않았고, 게을렀으며 수도생활의 최대 목적인 내적 정화를 이루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악마의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쉽사리 수도생활을 정리하고 교회의 높은 자리가 주어질 경우 떠나고 말았다고 카시아누스는 주장한다. 이런 현상을 갈리아의 수도방식이 이집트 방식보다 더욱 존경받을 만하다고 용감하게 주장했던 세베루스 자신도 숨기지 못했다.³¹⁾

따라서 카시아누스는 5세기 갈리아 귀족들이 형성해 온 수도원 문화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첫걸음은 당연히 철저한 가난에서 시작하여 탐욕에 물들지 않고 영적인 정화를 해나가는 일에서 시작한다. 카시아누스의 수도문헌은 단순히 동로마 교회의 수도원 운동 관습을 전하는 책으로만 결코 기획되지 않았다. 그는 구조적으로

30) Sulpicius Severus, *Vita Martini* ed. J. Fontaine (Paris: Éditions du Cerf, 1967), 10.6-7; Paulinus, *Epistulae* ed. G. Hartel, Corpus Scriptorum Ecclesiasticorum Latinorum 29 (Vienna: Tempsky, 1894), 13.20; P. G. Walsh, trans., *The Letters of Paulinus of Nola*, ACW 36 (Westminster, MD: Newman Press, 1967), 136; Hilary, *Sermo de vita sancti Honorati* ed. Marie-Denise Valentin, SC235 (Paris: Éditions du Cerf, 1977), 20-21; Vincent, *Commonitorium* 1.3 ed. R. Demeulenaere, Corpus Christianorum Series Latina 64 (Turnhout: Brepols, 1985); Rudolph E. Morris, trans., *Commonitories* The Fathers of the Church 7 (New York: Fathers of the Church, 1949), 268.

31) Sulpicius Severus, *Sulpicii Severi chronica* ed. Chislaine de Senneville-Grave, SC 441 (Paris: Éditions du Cerf, 1999), 2.32.2; Alexander Roberts, trans., *The Sacred History of Sulpicius Severus Book II*,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2/11 (1894; repr.,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94), 112.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영성신학’의 첫 단추인 ‘자발적이고 철저한 부의 포기를 통한 가난과 그것의 지속적인 유지’를 자연스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카시아누스의 수도 문헌은 일종의 갈리아 수도원과 교회개혁을 위한 문서였다.

IV. 갈리아의 수도원 개혁을 위한 대안으로서 이집트 사막 교부들의 가난과 카시아누스의 철저한 가난이해의 독특성³²⁾

『제도집』 서론에서 카시아누스는 갈리아 수도원 개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로마, 특별히 이집트의 수도원 제도를 갈리아 수도원에 확립하는 것”이다.³³⁾ 카시아누스가 말하는 이집트 제도(Aegyptiorum instituta)란 “이집트 수도원의 가르침, 관습과 수도생활의 구조”이다.³⁴⁾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카시아누스는 단순히 이집트의 제도만을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다. 5세기 초 갈리아 수도원의 상황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어 자신의 “수도원 영성 신학”을 전달하고자 했다. 카시아누스가 제시하는 대안은 다양하게 그의 수도문헌에 언급되고 있으나 “가난”의 주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가난이어야 하는가? 카시아누스는 기본적으로 이집트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그의 가난 이해는 안토니우스 (Antony), 파코미우스(Pachomius), 에바그리우스와 관련된 수도문헌들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듯 보인다. 그 이유는 이집트 수도원을 그리스도교의 첫 시작인 예루살렘교회와 사도들에게 연결시키고 그 사도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이어나가고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교 그룹이 이집트 수도원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집트 수도사들을 이상적인 공동체로 제시함으로써 카시아누스는 갈리아 수도사들에게 이집트 지역(Nile Delta, Scetis, and Kellia)에서 오랫동안 수도생활 했던 자기 경험을 정당화 시킨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달하는 이집트 수도 신학과 관습이야말로 기존의 동로마교회 수도원 운동에 관해서 갈리아에서 지키고 있는 여타의 수도 규율과 신학보다 우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카시아누스에 의하면 이집트 수도원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도적 전통에 그 기원을 둔다. 카시아누스는 이집트 사막교부들의 기원을 사도행전 4장에서

32) 카시아누스의 이집트 사막교부들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 연구 논문을 참고할 것. 나현기, “요안네스 카시아누스의 이집트 수도원적 가난이해의 중요성과 그 의미,” 『서양고대사연구』 (2017년 2월), 115-124.

33) *De institutis Praef.* 3.

34) Stewart, *Cassian the Monk*, 29.

등장하는 예루살렘교회와 연결시킨다.³⁵⁾ 예루살렘교회는 예수의 말씀에 근거해 사도적 완전성을 보여주었다. 사도적 완전성은 소유재산에 대한 극단적인 포기과 공동소유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첫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이상적인 사도적 생활방식을 점점 포기하기에 이른다.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그 시작인데 그들은 로마의 이방인들을 선교하겠다는 열망으로 예루살렘의 생활방식을 유연하게 만들었고 특별히 재산의 포기과 공동소유라는 방식을 이방인들에게 강권하지 않았다.³⁶⁾ 이처럼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사도적 방식과 떨어진 사건으로 해석하는 카시아누스의 이해는 사도행전의 저자의 의도와는 거리가 있다. 역사적으로 카시아누스는 처음으로 이러한 해석을 제시하면서까지 예루살렘 사도회의 이후의 선교역사를 그리스도교 경건과 윤리가 타락해 가는 역사로 규정짓고 그것을 유일하게 계승한 집단으로서 이집트 수도공동체를 부각시킨다.³⁷⁾

둘째, 카시아누스 시대까지 유일하게 사도적 생활 방식을 있는 그대로 구현한 집단인 이집트 수도사들은 예루살렘교회에서 기원하는 수도방식으로 공주수도방식(the cenobitic community)과 그 이후에 좀 더 사도적 수도 방식을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 만든 독거수도방식(the anchoritic community)을 만들었다.³⁸⁾ 공주수도원은 "함께 모여 생활"하면서 "한 명의 수도원장의 판단"아래 유지되는 공동체 이다.³⁹⁾ 그들은 함께 수도원(cenobium)에 거하면서 노동한다. 선배 수도사들과 수도원장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복종과 겸손의 덕을 익힌다. 독거수도방식의 수도사들은 공주수도원 생활을 하며 복종과 겸손의 덕을 완벽히 이룬 이들이 택하는 방식이다. 홀로 머물며 내적 악마의 유혹과 싸우며 신적 관상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고자 전 생애를 헌신한다.⁴⁰⁾ 카시아누스는 공주수도과 독거수도 방식만이 사도들이 제시한 철저한 가난을 완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러한 수도적 방식을 가장 잘 구현한 파코미우스 공동체와 안토니우스를 직접적으로 거명하면서 존중한다.⁴¹⁾

셋째, 카시아누스에 의하면 이집트 수도원은 단일하고도 보편적인 수도신학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집트의 공주수도자들과 독거 수도자들은 영적 발전을 위한 정교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에

35) *De institutis* 2.5.1; *Collationes* 18.5,21.30.

36) *Collationes* 18.5.2.

37) De Vogüé, "Monachisme et église dans la pensée de Cassien," in *Theologie de la vie monastique: études sur la tradition patristique*. (Paris: Aubier. 1961), 219 - 220.

38) *Collatines* 18.5.4 - 6.4.

39) *Collationes* 18.4.2

40) *Collationes* 19.4.1 (SC 64:41; ACW 57:671).

41) 제도집 4권과 3번째 담화에서 각각 파코미우스 공동체와 안토니가 이상적인 수도 공동체와 창시자로 언급된다.

바그리우스가 주장한 영적발전 체계를 말한다. 에바그리우스는 하나님에 관한 지속적인 관상(contemplation)을 최종목적으로 하고 실천적 단계 (practical phase)에서 "무정념" (passionlessness)를 달성하고 이어서 신비적 관상의 단계로(이 단계는 만물 안에서 신적 관상단계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관상 단계로 나뉜다) 나아가는 내적 정화의 단계를 제시했다.⁴²⁾ 에바그리우스의 영성체계는 기본적으로 연속적이며 진보적인 발전을 강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처럼 카시아누스는 세 가지 이집트 수도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바탕으로 이집트 수도원을 이해하고 그들의 신학과 관습을 갈리아 수도원과 교회개혁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원적 청빈에 대한 이집트식 모델 중에서 안토니우스와 파코미우스 그리고 에바그리우스의 가난 이해가 카시아누스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다.

안토니우스와 파코미우스 그리고 에바그리우스의 수도문헌들은 카시아누스의 글에서 종종 인용된다. 그들의 가난이해는 서로 다른 상황과 공간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하나로 정리해서 공통점을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집트 사막교부들의 가난이해는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수도사들은 그들의 철저하게 버리고 수도생활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³⁾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말씀과 예루살렘 공동체의 사도적 이상을 따르는 것이다. 결코 철저한 가난 없이는 수도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또한 수도사들은 노동을 통한 자급자족으로 삶을 유지하면서 잉여생산물은 무조건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 평생 부의 욕망과 싸우는 가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재산과 부, 돈을 포기하는 "외적가난" (physical or external poverty)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안토니우스, 파코미우스, 에바그리우스는 수도사가 어떻게 영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밝히는데 깊은 관심을 보인다.⁴⁴⁾ 따라서 그들에게 철저히 재산을 포기하는 일은 수도생활의 목적이라기

42) Evagrius, *Gnosticus* ed. Antoine and Claire Guillaumont, SC 356 (Paris: Éditions du Cerf, 1989), 49. 에바그리우스의 문헌에서 8가지 악한 로기스모이(λογισμοί)에 대한 분석은 the *Practicus* (SC 171), the *De octo spiritibus malitiae* (PG 79:1145d - 1164d), and the *De malignis cogitationibus* (SC 438:148 - 301) 참고할 것.

43) Athanasius, *Vita Antonii* ed. G. J. M. Bartelink, SC 400 (Paris: Éditions du Cerf, 1994), 1-3.1; F. Halkin, ed., *Vita Prima in Sancti Pachomii Vitae Graecae* SH 19 (Brussels: Société des Bollandistes, 1932), 24; Evagrius, *Rerum monachalium rationes* (PG 40:1253a - 1260c), 1-8; Robert E. Sinkewicz, trans., *Evagrius of Pontus: The Greek Ascetic Corpus*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4-9.

44) *Vita Antonii*, 3.2-53.3; Evagrius, *De malignis cogitationibus* ed. Guillaumont and P. Géhen, SC 438 (Paris: Éditions du Cerf, 1998), 19; Evagrius, *To Monks in Monasteries and Communities and Exhortation to a Virgin* 8, 16, in *Evagrius of Pontus: The Greek Ascetic Corpus*, trans. Robert E. Sinkewicz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123.

보다는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일 뿐이다. 탐욕(물질과 부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 *avarice*)은 영적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탐욕이 제거되자마자 내적인 열망에서 자유로워지고 부는 사용가능하다. 모든 부는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며 선한 것이다. 이런 태도 때문에 철저한 가난에 대한 그들의 묘사는 분명하지만, 중심 주제는 아니다.

안토니우스, 파코미우스 그리고 예바그리우스의 수도문헌들이 보여주는 가난 이해를 카시아누스는 있는 그대로 갈리아의 독자들에게 개혁을 위한 대안으로서 결코 제시하지 않는다. 그는 갈리아의 상황을 고려하고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려는 열망 때문에 이집트 사막교부들이 주장하는 “외적 가난”의 두 가지 원칙, 즉 부에 대한 철저한 포기과 수도원 삶 전체를 통해서 탐욕에 빠지게 하는 물질과 부, 돈을 멀리하면서 자급자족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본래 문서보다 훨씬 더 강조하고 빈번하게 이상화한다.⁴⁵⁾ 카시아누스는 모든 이집트 수도사들이 그런 이상적 가난을 완벽하게 추구하고 성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의 모델을 따르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카시아누스의 가난 이해는 5세기의 갈리아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을 근거로 이집트의 문헌들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상화 시키고 때로는 과대평가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바로 그것을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한다. 끝으로 그렇다면 갈리아 상황과 이집트적 경험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카시아누스가 제시하는 가난의 특징이 무엇인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카시아누스는 철저하게 부를 버리는 것을 이상화하고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수도문헌의 구조 속에서 그러한 가난을 지속적으로 반복,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반복의 숨은 의미는 아마도 카시아누스는 부유한 귀족 수도사들에게 완전한 가난을 성취하고 그 가난의 길을 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길임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는 가난의 이집트적 원리를 존중하면서 모든 초보 수도사들에게서 나온 부가 결코 수도원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수도사들은 일단 수도생활에 입문해서는 직접 노동하면서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해야 한다. 잉여생산물이 나올 경우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고 최소한의 의식주만을 소유해야 한다. 그러나 “외적가난”은 수도사들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다. 내적인 탐욕을 조절하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부를 향한 내적 욕망이 극복되어야 진정으로 소유와 물질을 꺼리는 행동이 온전해 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카시아누스는 대부분의 갈리아 수도사들이 탐욕과 게으름에 빠져 있음을 발견한다. 그들은 노동하지 않았고 부를 소유했으면 심지어 후원도 받았다. 그

45) *Collationes* 3.3.1, 3.4.2, 3.6.2; *De institutis* 4.3.2-4.4에서 각각 『안토니의 생애』와 『파코미우스의 규칙서』(*Præcepta* 49) 보다 더욱 “외적 가난”이 강조되고 이상화된 주장을 발견할 수 있다.

들은 이 탐욕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부를 제대로 포기하지 못했고 결국 영적완전을 추구하는 길에서 멀어져갔다. 아마도 이런 갈리아 공주수도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은 인간 실존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카시아누스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영혼은 쉴새 없이 욕망들(vitia)에게 공격당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의지(human will)는 아담의 타락이후에도 완전하게 상실된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 욕망”(physical desire)과 “영적 욕망”(spiritual desire)의 끊임없는 유혹들 속에서 쉽게 균형을 상실하는 아주 연약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다.⁴⁶⁾ 선(the good)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욕망을 제거할 때만 가능하다.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평생에 걸친 수덕훈련이 요구된다. 그런데 수덕생활은 탐욕 때문에 곧 실패하기 마련이다. 인간의 탐욕은 항상 물질, 돈, 재산의 배후에 놓여있다. 결국 갈리아 수도사들은 탐욕을 내적으로 제거하는 일과 부를 버리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여기서 부를 버리는 외적 가난과 탐욕을 제거하는 내적 가난의 관계에서 탐욕은 어렵긴 하지만 극복가능하며 극복된 탐욕의 상태에서 물질이나 재화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주장하는 에바그리우스에 비해서 카시아누스의 관점은 훨씬 회의적이다. 그는 수도의 길은 처음 포기했던 재화 또는 작은 것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버리고 탐욕의 마음을 업애고 다시 유혹당하고 탐욕에 물드는 반복적인 과정이므로 철저한 청빈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힘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쉽게 수도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진정한 수도의 길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런 가난 이해는 카시아누스가 주장하는 수도원의 영적 발전 과정 이론에 변화를 가져온다. 에바그리우스가 주장하는 실천적이고 윤리적 단계에서 관상적이면서 신비적 단계로 넘어가는 직선적이고 진보적인 영적 성장보다는 카시아누스는 실천적인 초기 단계와 그 초기 단계의 목표인 “마음의 청결”(puritas cordis, 에바그리우스의 “무정념”(apatheia)와 동일한 개념)의 관계를 상호 순환적으로 보고자 한다.⁴⁷⁾ 갈리아 수도상황에 카시아누스 영성신학에서 철저한 부의 포기과 가난, 탐욕, 그리고 타락한 상황에서 인간의 영혼과 욕망의 문제가 카시아누스 신학의 중심 주제가 된 것은 당연하다. 그는 에바그리우스의 이론과 갈리아의 상황을 접목시키고자 한다. 타락한 인간 본질과 구원 가능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카시아누스는 “마음의 청결”과 “하나님 나라”(regnum Dei, 신적 실재에 대한 끝없는 관상)는 이 세상에서 성취할 수 없

46) *Collationes* 3.5, 4.11.2-3, 7.16, 17, 13.6-7, 32.1 - 4, 8.21.1 - 9, 23.3.11. 채드윅 (Owen Chadwick)은 카시아누스의 타락이후 인간의 이해는 “병든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완전한 자유의지가 상실된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는 유혹에 쉽게 물들어 버릴 수 있는 인간영혼의 상태에 대한 카시아누스의 인간이해를 잘 설명한 것처럼 보인다 (Owen Chadwick, John Cassian, 2nd ed. [London, New York and Melbou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126.

47) *Collationes* 14.2 (SC 54:184; ACW 57:505): “Nam haec πρακτικῆ absque theoretica possideri potest, theoretica uero sine actuali omnimodis non potest adprehendi.”

는 것으로 주장한다.⁴⁸⁾ 그러나 인간에게 희망은 존재한다. 수도사는 마음의 청결을 일시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관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맛을 보고 종말론적 희망을 갖는다.

확실히 카시아누스는 과정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에바그리우스의 영성발전 단계 중에서 실천적이며 윤리적인 단계를 끊임없이 강조한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에바그리우스에게 그 단계는 8가지 악덕(eight vitia)을 조절하는 금욕적 덕(ascetic virtues)을 쉽 없이 수련하는 것이다. 카시아누스의 관점에서 실천적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금욕적 덕은 수도사가 “마음의 청결”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일시적이다. 아무리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청결”의 경험은 금욕생활에 더욱 용기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결국 수도원적인 덕을 강화시킨다.⁴⁹⁾ 타락한 인간의 현재적 상황에서 “마음의 청결”과 실천적, 윤리적 단계에서 8가지 악덕과 싸우며 덕을 함양하는 일은 언제나 순환적 관계를 이룬다.

카시아누스가 제안하는 갈리아 수도사들에게 함양해야 하는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덕은 다음과 같다. 가난(renunciation)의 덕, 복종(obedience)의 덕, 겸손(humility)의 덕이 그것이다.⁵⁰⁾ 진정한 가난의 덕은 재물을 포기하고, 탐욕을 완벽하게 제거할 때 이루어진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덕이다. 가난의 덕은 복종과 겸손의 덕을 낳는다. “마음의 청결”은 세 가지 덕을 모두 이룰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카시아누스의 입장에서 온전한 가난은 평생을 두어 수련하여도 제대로 도달할 수 없으므로 “마음의 청결” 역시도 완벽하게 이 땅에서 성취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에바그리우스와 달리 카시아누스는 “마음의 청결”이 결코 모든 덕을 이룬 다음에 성취될 수 있다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이처럼 카시아누스가 갈리아의 독자들에게 전하고자하는 영성체계에 관한 이론은 ‘진보’를 통한 ‘완성’이 아니라 ‘끝없는 순환 과정’을 토대로 한다.

48) *Collationes* 1.13.1 (SC 42: 90); cf. *De institutis* 5.14.4: “Inhaerere quidem deo iugiter et contemplationi eius quemadmodum dicitis inseparabiliter copulari impossibile est homini ista carnis fragilitate circumdato.” 카시아누스의 하나님 나라 개념은 누가복음 17장21절과 로마서 14장 17절의 성서 본문에서 차용하였다. 실천적 단계에서 악덕을 모두 완전하게 제거하였을 때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상태는 영원한 순수성과 성령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카시아누스는 “마음의 청결”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에바그리우스가 *Practicus*에서 주장하는 “하늘나라”(the kingdom of heaven)와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개념을 통해서 카시아누스의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님에 관한 관상의 단계”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vagrius, *Practicus* 3-4).

49) Columba Stewart, *Cassian the Mon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40.

50) *De Institutis*, 4.43. 여기에서는 가난의 덕과 겸손의 덕 두가지 덕만이 강조된다. 그런데 4권 전체를 통해서 카시아누스는 복종의 덕이 겸손의 덕을 낳는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세가지 덕은 카시아누스가 갈리아 수도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겸손의 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De institutis* 4.39.2, 12.23, 복종의 덕은 *De institutis* 4.7-9, 4.10, 4.30.1, 가난의 덕은 *De institutis* 4.34-36에 잘 설명되어 있다.

셋째, 카시아누스의 가난이해는 예루살렘교회의 사도적 이상과 항상 연결된다는 것이다. 사도행전의 첫 공동체는 젊은 부자에게 예수가 주었던 말씀(마태복음 19:21)을 문자 그대로 실현했던 공동체였다.⁵¹⁾ 부의 포기를 통한 가난을 완성하고 “마음의 청결” 획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상을 이루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카시아누스는 예루살렘 공의회(사도행전 15:1-19)의 결정 이후 그 예루살렘교회는 ‘경제적 불순결’(economic impurity)한 상태에 놓이기 시작했다.⁵²⁾ 그 이후 교회는 예루살렘교회의 가난의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사이의 지속적인 갈등에 놓이게 되었다. 이처럼 카시아누스에게 철저한 가난은 사도시대 예루살렘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가능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이다. 카시아누스는 독자들에게 부의 포기는 결코 비현실적 비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사도행전 4장의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갈리아 수도사들은 가난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빨리 포기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자발적이고 철저한 가난을 수행해야 한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카시아누스의 『제도집』과 『담화집』에서 중요한 주제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자발적이고 철저한 재산의 포기와 가난의 유지”가 왜 강조되는가, 그리고 그 주제가 카시아누스의 영성신학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았다. 에바그리우스와 카시아누스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했던 스투어트(Columba Stewart)는 “요안네스 카시아누스의 8가지 중요 악덕의 체계의 오리겐과의 관련성”이라는 연구논문에서 카시아누스는 “오리겐주의 신학의 위대한 전통을 수용했고, 창조적 숙고를 통하여 오리겐주의 신학을 그의 것으로 만들고 전달했다”고 주장한다.⁵³⁾ 필자는 스투어트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카시아누스가 강조하는 “가난”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모으고 그것의 동기와 에바그리우스의 신학적 이해와의 차이점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가난을 이해하고 신학적 의미를 검토하는 방법으로서 필자는 어떻게 카시아누스가 갈리아 수도 공동체적 상황을 평가했고 그가 5세기 갈리아 수도원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였는가를 질문하고 답했다. 이런 견지에서 그동안 카시아누스 연구가들이 의미 없는 단순한 수사적 반복으로 간주했던 “가난”의 주제를 되살리고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노력했

51) *De institutis* 2.5.1; *Collationes*, 18.5, 21.30.

52) *Collationes*, 18.5.2-3, 21.30.2.

53) Columba Stewart, "John Cassian's Schema of Eight Principal Faults and His Debt to Origen and Evagrius," in *Jean Cassien entre l'orient et l'occident*, ed. Cristian Badilita and Attila Jakab (Paris: Beauchesne, 2003), 217-218.

다. 카시아누스에게 수도생활은 지속적인 “포기” (renunciation)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철저한 가난을 이루는 실천을 수도생활의 중심적인 테마로 삼고 카시아누스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수도원의 덕, 마음의 청결, 종말론, 수도생활의 궁극적 목적)을 재구성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국 카시아누스의 수도원적 가난에 대한 연구와 5세기 초 갈리아 수도사들의 상황과 연결시킴으로서 그동안 간과된 주제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켰다는 것이 이 논문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Athanasius. *Vita Antonii*. Edited by G. J. M. Bartelink, SC 400 Paris: Éditions du Cerf, 1994.

Evagrius, *Gnosticus*. Edited by Antoine and Claire Guillaumont, SC 356 Paris: Éditions du Cerf, 1989.

_____, *Rerum monachalium rationes*. PG 40:1253a - 1260c,

_____, *De malignis cogitationibus*. Edited by Guillaumont and P. Géhen, SC 438 Paris: Éditions du Cerf, 1998.

Hilary. *Sermo de vita sancti Honorati*. Edited by Marie-Denise Valentin, SC235 Paris: Éditions du Cerf, 1977.

Jerome, *Epistulae*. Edited by Isidore Hilberg, CSEL 56.1 Vienna: Tempsky, 1996.

John Cassian. *De institutis coenobiorum et de octo principalium vitiorum remediis*. Edited by Jean Claude. SC 109 Paris: Éditions du Cerf, 1965.

_____, *Collationes Patrum*. Edited by E. Pichery. SC 42, 54, and 64. Paris: Éditions du Cerf, 1955 - 1959.

Paulinus. *Epistulae*. Edited by G. Hartel, Corpus Scriptorum Ecclesiasticorum Latinorum 29 Vienna: Tempsky, 1894.

Salvian. *De gubernatione Dei*. Edited by Georges Lagarrigue. SC 220 Paris: Éditions du Cerf, 1975.

Sancti Pachomii Vitae Graecae. Edited by F. Halkin. SH 19 Brussels: Société des Bollandistes, 1932.

Sidonius. *Epistulae*. Edited by and Translated by W. B. Anderson. LCL 296

-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6.
- Sulpicius Severus. *Dialogi*. Edited by Charles Halm. CSEL 1 Vienna: C. Geroldi, 1866.
- _____, *Vita Martini*. Edited by J. Fontaine Paris: Éditions du Cerf, 1967.
- _____, *Sulpicii Severi chronica*. Edited by Chislaine de Senneville-Grave. SC 441 Paris: Éditions du Cerf, 1999.
- Vincent. *Commonitorium*. Edited by R. Demeulenaere. Corpus Christianorum Series Latina 64 Turnhout: Brepols, 1985.

2차 자료

- 나현기. “요안네스 카시아누스의 수도문헌에 나타난 5세기 초 갈리아 수도사 비판과 가난 (Radical Poverty)의 중요성.” 「한국교회사학회지」 (2017년 4월).
- 나현기, “요안네스 카시아누스의 이집트 수도원적 가난이해의 중요성과 그 의미.” 「서양고대사연구」 (2017년 12월).
- Brown, Peter. *Through the Eye of a Needle: Wealth, the Fall of Rome, and the Making of Christianity in the West, 350-550 AD*.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 Bury, John Bagnell. *History of the Later Roman Empire: From the Death of Theodosius I to the Death of Justinian*.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58.
- Chadwick, Owen. John Cassian, 2nd ed. London, New York and Melbou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 Gillard, F. D. “Senatorial Bishops in the Fourth Century.” *HTR* 77 (1984).
- Goodrich, Richard. *Contextualizing Cassian: Aristocrats, Asceticism, and Reformation in Fifth-Century Gaul*.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Heather, P. “Why Did the Barbarians Cross the Rhine?,” *JLA* 2 (2009).
- Jones, A.H.M. *The Later Roman Empire 284-602: A Social, Economic, and Administrative Survey*. Baltimore, Marylan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 Jones, Allen E. *Social Mobility in Late Antique Gaul: Strategies and Opportunities for the Non-Elit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Liebeschuetz, J. H. W. G.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City*. Oxford an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Mathisen, Ralph. *Roman Aristocrats in Barbarian Gaul: Strategies for Survival in an Age of Transition*.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3.
- Matthews, John. *Western Aristocracies and Imperial Court AD 364 - 425*. Oxford: Clarendon Press, 1975.
- Prinz, Friedrich. *Frühes Mönchtum im Frankenreich: Kultur und Gesellschaft in Gallien, den Rheinlanden und Bayern am Beispiel der monastischen Entwicklung*.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1965.
- Pristas, Lauren. "The Theological Anthropology of John Cassian." PhD diss., Boston College, 1993.
- Rousseau, Philip. "Cassian: Monastery and World." In *The Certainty of Doubt: Tributes to Peter Munz*. Edited by Miles Fairburn and W. H. Oliver. Wellington, New Zealand: Victoria University Press, 1996.
- Stewart, Columba. *Cassian the Mon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 "John Cassian's Schema of Eight Principal Faults and His Debt to Origen and Evagrius," in *Jean Cassien entre l'orient et l'occident*, ed. Cristian Badilita and Attila Jakab Paris: Beauchesne, 2003.
- Van Dam, Raymond. *Leadership and Community in Late Antique Gau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 Vogüé, Adalbert de. "Understanding Cassian: A Survey of the Conferences," *Cistercian Studies Quarterly* 19 (1984): 101 - 121
- Wood, Ian N. *The Merovingian Kingdoms 450 - 751*. London: Pearson Education, 1994.

논 찬 1

“요안네스 카시아누스 (Ioannes Cassianus, ca. 360-ca. 435)의 ‘철저한 가난’ (Radical Poverty)이해와 독특성”에 대한 논찬

백 상 훈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 기독교영성)

이집트 사막에서의 수도생활을 바탕으로 수도사의 삶과 수도원 생활의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서방 수도원의 영성신학적 체계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카시아누스의 ‘가난’ 이해를 다루는 이 논문은 카시아누스의 텍스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면밀한 관심을 토대로 그의 가난 이해를 본연에 자리에 위치시키고 있다. 수도적 삶에서 가난이 갖는 중요성과 기독교 영성신학의 형성에 미친 카시아누스의 사상의 높은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카시아누스에 대한 우리말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매우 소중한 시도임에 틀림없다. 이 논문은 또한 카시아누스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논지를 전개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가치가 높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카시아누스의 주요 저술, 『제도집』과 『담화집』 사이의 그리고 각각의 저술 안에서의 구조적 연결성을 언급하면서 ‘가난’이라는 주제가 연결점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 주제는 두 저술이 상정하고 있는 독자가 갈리아 지역의 수도원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갈리아 수도원은 수도적 삶의 원류인 이집트 수도사들의 생활 관습과 가르침을 결여하는바 이는 귀족 출신 수도사들이 수도적 삶을 사는 중에도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나아가 주변 이방민족의 침략으로 인한 특권 상실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수도사의 삶을 선

택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시아누스는 안토니우스, 파코미우스, 그리고 에바그리우스의 삶과 신학을 기초로 삼아 나뉘는 가난 이해를 제시함으로써 갈리아 수도원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수도사적 삶과 수도원적 영성의 기초를 확립하고자 했음을 이 연구는 밝힌다.

인상적인 것은 카시아누스가 제시하는 가난의 영성신학에 대한 저자의 이해이다. 저자는 카시아누스의 가난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한다. 첫째, 카시아누스는 ‘외적인’ 가난이 ‘내적인’ 가난을 위한 필요조건이요 이를 위해서는 수덕적 삶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도 가난의 온전한 실현의 가능성보다는 그것을 이상으로 삼는 수도사적 태도와 그에 이르려는 수덕적 과정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둘째, 실천적인 단계에서 관상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식의 영성형성을 제시한 에바그리우스와 달리 카시아누스는 이 둘을 상호순환적으로 제시한다. 셋째, 카시아누스의 가난은 사도시대 예루살렘 교회의 청빈과 공동생활이라는 이상과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서 실현가능한 삶의 원칙이다.

카시아누스의 저술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저술들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가난과 수도사적 삶의 내밀한 연관성을 주장하는 이 논문은 충분한 논리적 설득력을 바탕으로 오늘날 신앙인들과 교회의 삶 그리고 목회자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논찬자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저자는 이집트 사막 수도사들에게 외적인 가난은 내적인 가난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으로서 그들의 영성신학의 중심주제는 아닌 반면 카시아누스에게는 갈리아 수도사들에 대한 비판적 권면이라는 목적 때문에 외적 가난이 ‘이상화’되고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는데(10쪽 이하), 이러한 주장은 마치 카시아누스의 영성신학의 초점 자체가 외적 가난에 있다고 주장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 같다.

둘째, 카시아누스의 저술들에 나타난 가난 이해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제시하는 II장에서 저자는 『제도집』 1, 4, 12권 그리고 『담화집』 24권이 수도원적 가난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논문의 본문에서 해당 텍스트를 직접 인용하면서 논평을 제공한다면 독자들의 이해가 보다 더 촉진될 것 같다. 그리고 이 두 저술을 잇는 주제가 자발적이고 철저한 가난이라는 저자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도 텍스트에 대한 논평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IV장에서 저자는 에바그리우스에 비해서 카시아누스가 보다 더 과정을 강조한다고 주장하는데(12쪽), 이에 대한 텍스트 상 논거가 불충분해 보인다. 저자가 제시하는 논거 중 하나인 『담화집』 14-2, “테오레티케를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힘과 능력을 다해 실천적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프락티케는 이론적인 것이 없어도 소유할 수 있지만, 실천적인 것이 없이 이론적인 것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엄성욱 역, 『담화집』 (은성, 2013), 406)를 두고 카시아누스가 “실천적인 초기 단계와 마음의 청결의 관계를 순환적으로” 본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듯하다.

넷째, 가난과 수도사적 삶의 관련성을 주제로 삼는 저자의 연구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연구의 목회적 혹은 교회론적 함의를 약술해 준다면 좋을 것 같다. 혹은 철저한 가난의 의미가 목회자의 정체성 그리고 목회자 개인의 영적 삶에서 갖는 의미가 있다면, 이 연구가 보다 폭넓게 수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논 찬 2

“요안네스 카시아누스 (Ioannes Cassianus, ca. 360-ca. 435)의 ‘철저한 가난’ (Radical Poverty)이해와 독특성”에 대한 논찬

박 세 훈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본 논문은 요안네스 카시아누스의 신학적 이해에서 ‘가난’의 주제가 차지하는 비중과 가치를 재평가하려고 시도한다. 먼저 그의 대표적인 저작인 ‘제도집’과 ‘담화집’의 내용 및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가난’이 카시아누스의 수도원 영성신학에서 핵심적 주제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5세기 갈리아 교회의 역사적 정황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그가 ‘가난’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효과적으로 밝힌다. 이후에 논문에서 저자는 카시아누스가 갈리아 지역의 수도원 개혁을 위해 이집트 사막 수도원의 이상을 단순히 가져오기보다는 새롭게 발전시켜 자신만의 수도원 영성신학을 형성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가난’ 주제가 새롭게 발전되었고 독특성을 보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논문의 주요 흐름에 따라 그 요지를 간략하게 다루고 난 후, 기여점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저자는 요안네스 카시아누스를 2개의 수도문헌인 ‘수도원 제도집(De institutis)’과 ‘사막교부들과의 담화집(Collationes patrum)’의 저자로 명시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 두 책은 가난이라는 주제로 서로 연결된다고 밝힌다. 카시아누스의 대표적인 두 저작을 ‘가난’이라는 주제로 통합해가며 연결하는 점에서 가치가 높으며,

‘가난’ 주제를 그의 대표적인 이해로 재부각 했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있다. 실제로 사막교부들의 영성과 다양한 주제들 중에서 철저히 단순한 삶(radical simple life)의 추구는 극단적 형태의 ‘가난’을 포함했다. 이들은 하루에 한 끼의 식사로 충분하다고 여겼으며, 수면시간도 한 시간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급진적 ‘가난’의 추구는 이집트 수도자들을 통해 카시아누스에게 전해졌으며, 그는 자신의 글을 통해 ‘가난’의 주제를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본 논문은 ‘제도집’과 ‘담화집’ 두 작품의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기록한 요안네스 카시아누스의 저작 의도에 초점을 둔다. 곧 저자의 세계를 염두에 두고 접근해 가는데 이점에서 통찰력 있으며 주장하는 바를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작품 세계의 연관성을 살펴서 가난 주제를 부각하며 그 주제가 요안네스 카시아누스의 핵심 주제임을 주장한 것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제도집’ 1권, 4권, 12권 그리고 ‘담화집’ 24권에서 가난의 주제가 반복적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제도집’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첫 부분(1-4권)의 결론부인 4권과 둘째 부분(5-12권)의 결론부인 12권에서 ‘가난’ 주제를 각각 다루고 있음도 보여준다. 작품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카시아누스가 ‘가난’ 주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다만 이를 주장함에 있어서 직접 인용구를 사용함으로써 요안네스 카시아누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려준다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차 자료의 인용을 좀 더 추가하면 독자들에게 카시아누스의 이해를 보다 생동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요안네스 카시아누스가 보여준 수도원 이상에 대한 연구에서 그가 살았던 역사적 정황(historical context)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본 것은 매우 유용하고 가치 있다. 역사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5세기 초 갈리아 지역의 분위기와 갈리아 수도사들의 탐욕과 게으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그 정황에서 카시아누스가 가난을 재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득력 있게 전개한다.

더불어 5세기 서로마 지역의 정치적 상황과 불안 속에서 귀족들이 종교적 지도자의 위치를 선택하여 수도원에 입회하게 된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유용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점도 기여점이 높다.

무엇보다 저자는 카시아누스가 이집트의 수도원적 이상을 갈리아 지역에 이식하는 것으로만 만족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카시아누스가 5세기 갈리아 지역에 맞게 수도원적 이상을 적용해 갔다고 밝힌다. 이집트에서 형성된 수도원 모델을 갈리아 지역으로 가져와 소개하고 교육하되 그 지역에 맞는 모델을 세워가려한 시도를 보여준 것이다.

카시아누스는 이집트의 사막 수도 형태가 극단적인 고행을 하는 독거수도자들의

모임(the anchoritic community)에서부터 공주 수도로 공동체(the cenobitic community)를 이루는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있었음을 경험했다. 그리고 금욕자들의 추구도 금욕 행위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진보였으며 참된 복음의 삶(genuine gospel life)을 살아가는 것임도 확인하였다. 실제로 안토니우스를 비롯한 독거수도자들도 필요할 때엔 금욕이나 고독의 추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에 드러내는 자선행위를 이어갔다. 세상과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었으나, 그 사회적 관계에서는 분리되지 않은 이집트 사막 수도원의 모델을 보여주었다.

저자는 이런 다양한 모델을 경험한 카시아누스가 갈리아 지역에 동일한 이상을 가지되 새로운 모델을 세워가려는 시도를 했다고 밝힌다. 갈리아 지역의 부에 대한 탐욕의 양상을 발견하고는 이집트 사막 교부들이 주장하는 “외적 가난”의 두 가지 원칙을 더 강조하고 빈번하게 언급했다고 밝힌다. 그 두 원칙은 부에 대한 철저한 포기이며 탐욕에 빠지게 하는 물질과 부를 멀리하며 자급자족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저자는 카시아누스가 단순히 이집트 사막 수도의 이상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자신이 처한 정황에 맞게 발전시켰다는 점을 갈리아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보여준다. 더불어 조정과 적용의 과정에서 ‘가난’의 주제가 핵심 가치가 되었음을 밝히는 점에서 논문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난’ 주제의 강조는 카시아누스가 새롭게 재해석하여 적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막 수도의 이상을 빈번하게 언급함으로써 강조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 이집트 사막 수도원의 모델에 미치지 못하는 갈리아 지역의 수도자들에게 ‘가난’의 덕을 더 자주 언급하고 강조함으로써 “마음의 청결(puritas cordis)”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집트 사막교부들의 수도원과 갈리아 지역 수도원이 각각 위치한 사막과 도시는 서로 상반된 곳이며 수도 운동의 형성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사막 공간은 실제적으로 또한 은유적으로도 ‘정화’의 공간으로 그려진다. 지리학적으로 가난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곳이며 다시 탐욕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물질과 부가 거의 없는 곳이다. 세상에서 등을 돌려서 사막에 자신을 두는 행위 자체가 극단적 ‘가난’의 실천이다. 그러나 갈리아 지역은 이와는 다른 환경이므로 사막 수도자들의 경우보다 가난을 더 자주 강조할 필요가 커졌으며, 이에 따라 카시아누스는 이집트 수도생활의 이상을 수정보다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카시아누스가 사막 수도자들인 안토니우스와 파코미우스, 그리고 에바그리우스의 신학적 이해를 수용하고 발전시켰음을 명시한다.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에바그리우스의 직선적인 영적 성장의 모델에서 더욱 발전적인 신학적 이해를 이뤄냈음을 보여준다. 영적 완전을 향한 직선적 모델 대신에 보다 ‘끝없는 순환과정’으로서의 영적 성장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카시아누스는 가난의 덕, 복종의 덕, 겸손의 덕을 강

조하면서도 이것이 결코 “마음의 청결”이라는 진보 상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유혹 가운데 다시 세 가지의 덕들을 실천하려는 노력과 시도가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외적 가난”을 실천하려는 시도 가운데, 결국엔 내적인 탐욕을 조절해가는 기회와 경험을 더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저자는 비교를 통해 카시아누스가 가진 영적 성장 모델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카시아누스의 수도 영성의 특징으로 ‘가난’ 주제의 강조 뿐 아니라 ‘순환과정’으로서의 영적성장 모델을 제시한 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본 논문은 요안네스 카시아누스의 수도 영성의 특징을 ‘가난’이라는 주제로 압축하여 보여준다. 그의 문헌 연구와 역사적 정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가난’이 카시아누스의 중심 주제가 됨을 보여준다. 향후 카시아누스의 ‘가난’과 에바그리우스를 포함한 사막 수도자들의 ‘가난’ 개념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 연구를 진행한다면, 카시아누스의 ‘가난’의 가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 찬 3

“요안네스 카시아누스 (Ioannes Cassianus, ca. 360-ca. 435)의 ‘철저한 가난’ (Radical Poverty)이해와 독특성”에 대한 논찬

김 교 민 박사

(한신대학교)

1. 논문 요약

나현기 박사는 카시아누스가 남긴 두 개의 수도문헌, 즉 1차 자료인 『수도원 제도집』 (De institutis, 이하 제도집)과 『사막교부들과의 담화집』 (Collationes patrum, 이하 담화집)을 분석하며 첫째 카시아누스가 자신의 수도문헌에서 왜 가난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지, 둘째 에바그리우스의 영향 하에 정립된 카시아누스 영성신학의 주제인 “가난”의 신학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카시아누스 선행연구자들(드 보귀에와 프리스터스)의 연구결과, 즉 『제도집』과 『담화집』이 의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힌 성과를 토대로 나현기 박사는 『제도집』과 『담화집』을 잇는 핵심 주제가 “재산의 자발적이고 철저한 포기”(radical poverty)에 있다는 것을 부각시켰다. 또한 기존 카시아누스 연구에서 가난의 주제가 크게 조명되지 않았던 원인을 5세기 초 갈리아지역 수도원의 상황 분석이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나현기 박사는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카시아누스의 수도문헌을 5세기 초 갈리아지역 수도원의 상황과 연결 짓고 분석함으로써 카시아누스의 가난 주제의 독특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서술했다.

먼저 『제도집』과 『담화집』 구조의 상관관계를 드러내며 카시아누스의 핵심적 주제, 가난의 주제를 밝혔다.¹⁾ 카시아누스의 가난이란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온전히

포기하는 행위”이며 자급자족의 생활 방식과 최소한의 의식주만 해결한 뒤 지속적으로 이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카시아누스는 5세기 초 갈리아 수도원이 “교회의 귀족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비판한 것이었다. 5세기 갈리아 귀족들은 야만족의 침략 앞에 “생존전략”으로서 “하늘의 귀족”이 되는 것을 택했다. 이들은 수도원으로 들어와 수도원장 그리고 주교가 되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위치가 되었다. 귀족시절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던 부를 이제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에 부를 사용했다. 이러한 모습을 카시아누스는 비판하며 5세기 갈리아 귀족들이 형성한 수도원 문화를 개혁하길 원했던 것이다.

나현기 박사는 5세기 갈리아 수도원 개혁을 위한 대안으로서 이집트 사막 교부들의 가난을 이해하고 적용한 카시아누스의 가난 이해를 명료하게 정리했다. 카시아누스의 가난 이해는 이집트 사막 교부들의 수도 관습과 제도 그리고 에바그리우스에게 받은 영향들이 함께 종합된 카시아누스의 독특한 영성신학이었다. 그 영성신학의 시작은 ‘철저한 가난’인 ‘외적 가난’이다. 철저히 자신의 부를 버림을 통해 내적인 탐욕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가난의 단계는 영적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단계이며 끊임없는 수덕의 과정이라는 것을 카시아누스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밝혔다.

2. 논문의 공헌과 질문

본 논문의 가장 큰 공헌은 기존의 연구한계를 극복하며 새로운 해석적 층위를 밝혔다는 점이다. 카시아누스가 작성한 5세기 초 갈리아 수도 상황과 카시아누스의 수도 문헌과의 관계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연구 한계를 정확히 짚어내고 본 논문을 통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며 새로운 역사 해석의 지평을 확장시켰기에 학문적으로 대단히 높은 공헌을 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더불어 해석적 확장과 실천적 적용을 위한 질문을 드리며 논찬을 마치려 한다.

1) 5세기 갈리아 수도원의 수도사들을 향한 카시아누스의 비판을 전적으로 받아

1) 드 부귀에가 분석한 『담화집』 구조

| | | | | | | | | | | | | | | |
|---------|---|---|---|---|----|----|----|----|----|----|---|----|----|----|
| 첫 번째 그룹 | 1 | 3 | 5 | 7 | 9 | 11 | 14 | 16 | 18 | 21 | 수도생활의 영적 지평의 궁극적 목적 “마음의 청결”은 “침묵”은 관상 | | | |
| 두 번째 그룹 | 2 | 4 | 6 | 8 | 10 | 12 | 13 | 15 | 17 | 19 | | 20 | 22 | 23 |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의 역할 - 담화집의 첫 번째 그룹들은 수도생활의 목표로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두 번째 그룹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주제를 내용적으로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들일 수 있는가? 5세기 갈리아 귀족들이 스스로 찾아낸 일종의 ‘생존전략’으로서 수도원으로 들어와 수도원장이 되고 주교가 되며 권력의 자리에 올라선 사실, 또한 자신의 재산을 수도원에 들어와서도 보존하거나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돈을 사용했던 모습을 카시아누스는 그의 영성신학체계 안에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갈리아 수도사들은 자신들의 기존 귀족적 특권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는 데에는 큰 결단이 필요했었을 것이다. 만약 이들의 개종 동기가 신앙 열정,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나눔과 헌신을 위한 신앙 동기가 존재 했었다면 카시아누스의 5세기 갈리아 수도원 수도사들을 향한 비판이 자칫 이들의 뜨거운 신앙 열정과 동기들을 희석시키는 결과가 되진 않는지?

2) 카시아누스가 갈리아 수도사들을 향한 비판의 기준은 ‘이집트식 원리’에 근거한다.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수도주의였다는 분석과 더불어 이집트식 수도주의가 당대 수도사들에게 최고의 권위로서 작동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카시아누스의 저술 이후 5세기 갈리아 수도원과 수도사들의 모습은 변화가 있었는지?

귀한 논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신 나현기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12 발표

공예배에서 회중의 인지구조 연구

박 관 희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회는 일반적으로 《개척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의 과정에서¹⁾ 끊임없이 《전도→방문→등록→정착→양육→사역→재생산》 등의 목회사역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청중은 교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임재경험과 기독교 정체성을 각각 체험함으로써 신앙이 형성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생활 속에서 하나님 임재의식 가운데 신앙의식과 신앙행동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²⁾ 그리고 이것의 중심에 예배가 있다. 문제는 청중이 예배를 경험하면서 3가지 이상의 복잡한 심리과정, 즉 기대-성과 불일치, 인지부조화, 귀인과정을 겪는다는 것이다.³⁾

최근 한국교회에서도 회중이 예배상황 속에서 예배요소를 통해 그들의 예배행동이 어떻게 심리적 반응을 보이며 내적으로 변화되는지 일련의 예배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것은, 다양한 인접학문에 의한 간학문적 접근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한국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구체적인 연

1) 박관희, “개척교회의 자립주기과 그 특성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6(2011), 324-32.

2) 예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배공동체에게 기독교신학과 기독교 정체성을 경험케 하는데 있다.

3) 기대-성과 불일치(expectancy-performance disconfirmation)는 개인이 교회를 방문할 때 방문 이전에 갖고 있던 이미지(기대치)와 교회방문 이후의 실제 경험한 이미지(실제치)를 비교하는 과정이다.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는 한 개인이 선택한 교회에 출석하면서, 과연 교회를 정말 잘 선택했는지에 대한 심리적 갈등/불편함(psychological discomfort)을 의식적으로 해소하려는 과정을 말한다. 귀인과정(attribution process)은 한 사람이 ‘인지부조화’(심리적 갈등) 이후에 인지추론 즉,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만족과 불만족의 원인과 책임을 생각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구 성과물이 아직까지는 없었다. 즉, 회중이 공적예배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 그 심리과정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복미의 많은 예배들이 예배 순서지와 텍스트만으로는 예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종이로 된 예배 순서지를 만들지 않고 빔 프로젝터로만 순서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훌륭하게 정리된 예배의 순서와 형식이 있는 경우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들로 인해 전혀 예상치 못한 다이나믹한 분위기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예배학자가 예배자의 문화와 그들이 소속한 공동체의 역사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 없이 텍스트를 말하는 것은 등산을 이해하기 위해 지도만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배학자는 문화와 문화를 형성하는 인간의 심리적 메커니즘의 이해가 필요하다. 예컨대] 지도는 가야 할 전체의 방향이고 안내일 뿐이다. 그 등산에서 경험되는 고통과 환희, 등산에 이르기 전까지 삶에서 겪었던 내면적 고통과 갈등의 여정, 등산을 한 이후에 경험되는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을 그 지도는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이다. 이러한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간학문적 접근을 시도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예배학은 문화인류학, 의례이론, 문화이론, 심리학 등의 영역과 대화해야 한다.⁴⁾

이와 같은 논의는 현대 심리학의 아젠다이기도 하다. 현대 심리학은 한 개인의

4) 박종환, “김순환 박사의 ‘주요 서구 개신교회 예배의 현황과 그 비교 연구’에 대한 논찬,” 『제40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안양: 한국실천신학회, 2011), 131. 필자는 이것을 ‘문화예배학(Cultural Liturgics)’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문화와 관련한 예배학적 탐구는 예배현상과 인간행동 간의 관계, 즉 예배현상과 그 현상에서 일어나는 인간행동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그래서 문화예배학은 시대별, 나라별, 지역별, 영역별 예배현상과 그 특성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포괄하고, 더 나아가 기존의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면서 예배의 기능과 구조, 역사와 현실을 유기적으로 조망하려는 노력 또한 한다. 복미예전학회도 문화예배학적 연구를 위해 다양한 예배연구 분과를 두고 있다. 안덕원, 허정갑, “교회, 예배, 역사, 그리고 대화-복미예전학회 참석 후기,” 『신학과 실천』 10(2006), 267-78. 김세광, “2008년 복미예전학회 참관기,” 『신학과 실천』 15(2008), 265-73. 개신교에서 문화예배학의 첫 연구는 제임스 화이트에서 출발하였다. James F. White/김석환 옮김, 『개신교 예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근래에 들어 한국 기독교에서도 문화예배학으로서 공적예배가, 공동체의 영적 변화를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현장으로 보려는 신학적 시도가 있어왔다. 허도화, “공동 예배의 영성,” 『신학과 실천』 30(2012), 36-37. Clayton J. Schmit, “Worship as a Locus for Transformation,” *Worship That Changes Lives: Multidisciplinary and Congregational Perspectives on Spiritual Transformation*, ed. Alexis D. Abernethy (Baker Academic, 2008), 25-39. Dohwa Huh, “John Wesley’s Eucharist as a Context for Christian Spiritual Formation,”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51(2007), 233-56. 하지만, 예배자가 예배과정 속에서 어떻게 심리적 반응을 보이며 내적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예배경험 과정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심리과정 전(全)영역을 설명하기 위해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행동(행동주의적 심리학)과 그 반응에 의한 행동을 이끌어내게 하는 심적 구조와 그 과정(인지심리학)을 이해하려는 두 흐름이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의 행동은 내면 영역(주: 마음·욕망·知情·意·양심 포함)이 ‘어떤 메커니즘을 갖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공적예배에서 회중의 인지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크게 3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는 성서적 관점에서 인간의 내면구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있다(그림1). 둘째는 공적예배에서 회중의 인지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표1). 셋째는 공적예배에서 회중의 인지구조를 실증 분석하여 그 관계와 특징을 확인하는데 있다(표2~표4).

II. 인간의 내면구조 메커니즘

인간의 내면은 마치 블랙박스과 같아서, 인간 자신도 그 속을 잘 모른다는데 그 비극이 있다.⁵⁾ 왜냐하면 그 영역이 의식(지·정·의·양심)과 무의식(마음과 욕망)을 포함한 영역이고, 환경의 다양한 자극에 따라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 다양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인간의 내면은 영혼과 육체의 가교 역할을 오감(생리적 요인 또는 신체적 요인)이 하고, 오감은 환경(자극)에 대한 시각중추에 의해 인식 내지 지각하는 생리활동으로, 영혼의 구성요소(이성·감정·의지·양심 포함)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히10:16, 빌4:7).⁶⁾ 이때 마음은 외적 환경과 내적 욕망으로부터 영향을 모두 받는다.

<그림 1>은 이것을 인간의 내면구조(마음·욕망·知情·意·양심) 관점에서 설명한 것으로, 행동주의적 심리학과 인지심리학을 신앙적 또는 믿음의 영역에서 각각 고려한 도식이다.⁷⁾ 이 도식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행동’(행동주의적 심리학)과 ‘그러한

5) 한광희, “인지과학과 인지심리학의 관계고찰 - 정보처리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76(1997), 408.

6) Chris Ravan & Jeudie Williams/김문성 옮김, 『심리학의 즐거움』 (서울: 휘닉스, 2005), 36-38. 심리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심리적 메커니즘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7) 인지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의 정보처리체계로 상정하고, 외부환경에서 들어오는 입력 자극을 이 정보처리체계인 마음이 어떻게 처리하여 출력으로 내어놓는가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것은 인간 마음의 특성을 <입력의 특성 → 출력의 특성>의 함수관계로부터 추론하려는 것이다. 마음을 이해하는 틀을 이와 같이 상정하고 나서, 정보처리체계로서의 마음의 작용을 감각(오감), 지각, 학습, 기억, 언어, 사고, 정서 등의 여러 과정으로 나눈 다음, 각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처리가 일어나는가, 각 과정들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를 묻고, 다음으로 각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지식)구조, 즉 표상구조가 관련되는가를 규명한다. 따라서 마음의 현상, 심리적 사건은 정보의 내용 및 정보를 처리하는 사건으로 개념화한다. 마음에 작용하는 물리적 또는 심리적 조건인 자극 또는 입력을 (I)라 하고, (I)을 받아 이에 작용하는 인간의 마음을 (M)이라 하며, 그 경험의 결과로 인간이 어떠한 형태의 반응 또는 출력을 내어놓

행동을 이끌어내게 하는 심적 구조와 그 과정'(인지심리학)을 성서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통합한 개념이다. 이 관점에서 보는 인간의 마음은 환경의 자극(stimulus)에 따라 오감(기호/취향)을 통해 시각중추와 인지(지각)에 각각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마음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⁸⁾ 즉, 외부의 영향은 일차적으로 그것에 접촉하는 영혼을 거쳐, 가장 중심에 있는 심령(心靈)에 이르고, 인간의 행동은 심령에서 시작해서 몸과 사회적 관계와 영혼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된다.⁹⁾

문제는 인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며 환경(또는 자극)과 상호 작용할 때, 이 때 “세상방식”이 개입된다는데 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은 죄(성)로 물든 세상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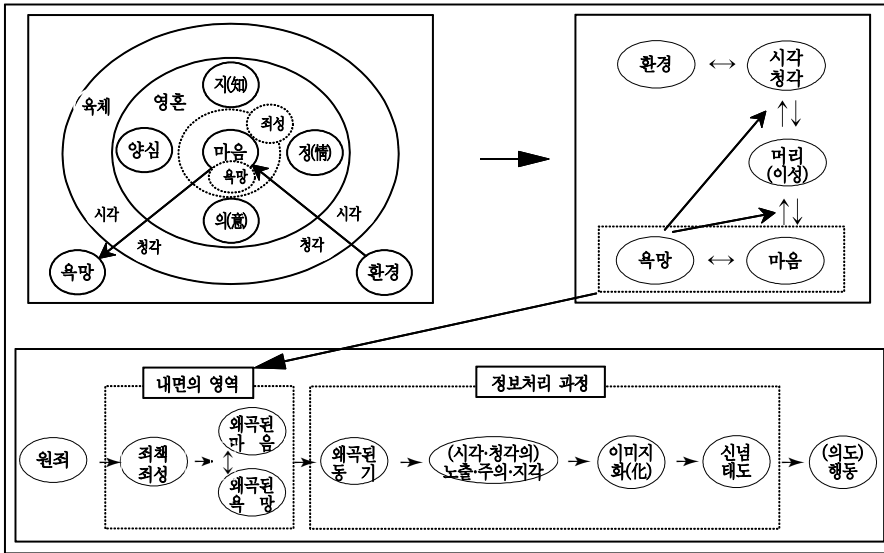
는 것을 (O)라 하고 그 함수관계를 (f)라고 한다면, 마음을 탐구하는 인지과학자들의 과제는 $M=f(I \times O)$ 이라는 관계를 설정하고, 마음의 내용(M)을, $f(I \times O) \rightarrow M$ 의 관계에서 추론하는 것이다. 실제의 연구에서는, 현실 내의 가능한 모든 I와 O를 완벽히 표집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에 의해 표집된(sampled) 제한된 범위의 I'와 O'의 관계로 부터 간접적으로 마음의 특성 (M')을 추론하는 것이다. 비유로 말하면, 영국비밀요원 007이 러시아의 어떤 지방의 큰 복합단지가 군사기지인지 교육기관인지 등을 알아오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하자. 그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멀리 밖에서 망원경을 사용하여 그 단지에 들어가고 나가는 차의 종류와 양, 하물의 종류와 양, 인원의 종류와 양, 그리고 그러한 것 들이 들고 나가는 시간들을 기록함으로써 그 단지의 기능과 작동 특성을 추론할 수 있다. 그가 유능하다면 다른 사람들을 매수하여 특정 물품을 들여보내거나 아니면 방화를 하는 등의 사태를 유발시켜서(I, 그에 대한 그 단지의 사람들과 전체의 반응 특성을 관찰하여서(O) 그 단지의 기능을(f) 알 수 있다. 입력과 출력을 조작 또는 관찰하여 그 사이에 있는 그 단지라는 시스템의 특징(M)을 추론하여 내는 것이다. 인지과학은 마음의 특성을 이렇게 접근하여 탐구하는 것이며,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자연과학의 여러 학문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예: 물리학이나 기상학). 인지심리학은 이러한 개념적 틀을 가지고 마음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는 것이며, 기존의 전통적 행동주의 심리학과 차별화하며, 심적 현상의 개념화, 기술, 경험적 검증에 형식적 접근을 바탕으로 탐구를 전개한다는 의미에서 “인지(Cognitive)”라고 불리게 되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지심리학은 ‘마음의 경험적, 형식적 탐구 과학’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마음을 컴퓨터 은유에 기반을 둔 정보처리체로서 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심리학과는 차별화된다. 이러한 형식적 기술과 탐구를 강조하다 보니, 고전적 인지과학에서는 형식화하기 힘든 정서나 동기 측면보다는 비교적 형식화하기가 쉽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인지 측면을 강조해 왔다. 그렇지만 인지과학에서의 ‘인지’란 이성이나 사고라는 좁은 의미의 인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정서, 동기, 인공 지능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마음’ 전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이정모, “정보처리와 인지심리학,” 『현상과 인식』 7(1983), 85-86. 인지과학과 인지심리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Ulric Neisser, *Cognitive Psychology* (New York: Appleton-Century -Crofts, 1967). George A. Miller, “The cognitive revolution: a historical perspective,” *TRENDS in Cognitive Science* 7(2003/3), 141-144. 이정모 편저, 『인지심리학의 제 문제 I : 인지과학적 연관』 (서울: 성원사, 1996). 한광희, 『인지과학 : 마음, 언어, 기계 - 마음에 대한 인지과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2004). 이정모, 『인지과학 : 학문 간 융합의 원리와 응용』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8) 이와 같은 과정을 “견물생심(見物生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견물생심은 ‘물건을 보면(시각), 가지고 싶은 욕심(욕망)이 생긴다’는 고사성어 이다. 즉, 견물생심은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마음에 불순물과 같은 것이 쌓이게 되어, 이기적/자기중심적 욕망에 사로잡힘을 말한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잠4:23).

9) 신국원, “달라스 윌라드의 마음의 혁신에 비추어 본 인간이해,” 『목회와 신학』 통권 180(2004/6), 117.

즉 ‘죄(성)로 물든 마음’과 ‘죄(성)로 물든 욕망(desire) 또는 동기’로 가득 찬 블랙박스 와 같은 상태가 된다. 여기에서 세상방식이란 인간의 전(全) 영역에서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도록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 즉 세상방식은 정보처리 과정에서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는 ‘무의식적 내적 압력 (DRIVER)’¹⁰⁾이 일어난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예측하기 가 어렵게 된다.

<그림 1> 인간의 내면구조 메커니즘



10) 김용민·박관희·심현구, 『DRIVER: 성격 & 업무유형 검사 매뉴얼』 (청주: MCI, 2015), 7-23. Vann Joines and Ian Stewart/오수희 외 2인 옮김, 『TA이론에 의한 성격적응론』 (서울: 학지사, 2012). Taibi Kahler and Hedges Capers, "The Miniscript,"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4 (1974), 26-42. Taibi Kahler, *Managing with the Process Communication Model* (Little Rock: Human Development Publications, 1979). ‘무의식적 내적압력’(DRIVER)은 만 3-5세(예: 누리과정) 전후로 성격이 형성될 때, 양육자의 양육방식과 양육내용이 피양육자의 머리에 저장되고(예: 녹음된 테이프), 이것이 성인 이후의 삶과 생각 및 행동방식에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예: 재생된 녹음기)을 말한다(저작권 등록: C-2016-024339). DRIVER scale은 “측정도구 개발·평가 플랫폼”인 척도개발 10단계 모형(C-2018-005851)과 척도해석 10단계 모형(C-2019-019154)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개발은 <개념의 정의/특성 설정(1단계)→추정항목의 창출(2단계)→항목의 전문가 집단 검증(3단계)→추정 안정성(4단계)→내용 타당성(5단계)→기준 타당성(6단계)→판별/수렴 타당성(7-8단계)→외적 타당성(9단계)→내적 타당성(10단계)>과 같은 10단계 과정을, 측정도구 평가도 <추정척도의 변환점수화(1-3단계)→합계점수로 순위가 정해진 개별변수(4단계)→상기 개별변수의 하위특성요인 갯수로 구성된 개별변수의 순차적 변화과정(5-6단계)→상기 하위특성요인 갯수의 곱의 배수 유형 설정(7단계)→상기 곱의 배수 유형의 개별분류(8단계)→상기 개별분류의 경로요인으로 구성된 개별변수의 순차적 변화과정(9-10단계)>의 10단계 과정을 갖는다. 구체적인 “측정도구 개발·평가 플랫폼”의 적용 개발 및 해석 사례는 종교적 측면에는 WESI scale, X-Need scale, Religiosity scale(C-2018-005851) 등이 있다. 그리고 비종교적 측면에는 DRIVER scale, DCC scale(C-2016-024339), DDI scale(C-2016-025638), DJL scale(C-2018-003723), GRM scale(C-2020-002564) 등이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마음은 욕망의 지배를 받고, 이것은 다시 이성과 눈에 영향을 주어 욕망에 지배받는 욕망 덩어리인 이성적 눈이 된다. 이때 욕망에 지배를 받는 마음은 지·정·의·양심에 영향을 준다.¹¹⁾ 동시에 환경으로부터 오는 욕망에 대해서도 지각(인식)하지 못하고, 시각과 청각을 통해 이성을 거쳐 마음에 영향을 준다.¹²⁾ 더욱이 타락한 본성을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부패한 마음이 그대로 이성과 눈에 그대로 투영이 된다. 또한 환경으로부터 오는 욕망 역시 이성적 눈을 통해 그대로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된다. 왜냐하면 욕망은 사실상 환경과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각각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¹³⁾

예컨대, 사도 바울도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욕망을 마음의 너울 또는 손수건으로 설명하였다(고후 3:13-18).¹⁴⁾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처럼, 마음의 밭에 검은 씨가 하나씩 떨어져 결국에는 잡초로 뒤덮인 무성한 밭이 되고, 이 밭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 마음의 손수건은 자아에 지배받는 욕망(예: 생존욕, 소유욕, 지배욕, 권력욕, 명예욕 등)이고¹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난다(요일 3:15-17,

11) 백금산, 『만화 구원론』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6), 164-165. 특히 양심은 이성과 감정 및 의지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역할과 기능을 한다. “인간에게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고자 하는 본능(양지양능, 양심)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 양심은 ‘선한 본능’ 또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고자 하는 ‘본능적 속성’이라는 본질적 측면과 이성의 사고력을 사용하여 ‘선악 판단의 자료와 기준’을 준비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선악을 판단하는’ 기능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양심과 이성은 분명히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그리고 양심은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느낌)과도 별개의 것이며, 의지와도 다른 독립적인 것이다.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선한 본능인 양심이 이성의 판단력을 사용하여 기준을 형성하며, 일단 결정된 일을 수행하도록 의지를 움직이고, 감성을 움직여 잘한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후회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김희수, “양심의 속성과 기능에 관한 고찰: 서양 및 기독교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13(2003), 221. Ronald Preston, “Conscience,” in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ed. by James F. Childress and John Macquarrie (Philadelphia, Pennsylvan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117.

12) 신국원, “달라스 윌라드의 마음의 혁신에 비추어 본 인간이해,” 117. R. C. Atkinson and R. M. Shiffrin, “Human Memory: A Proposed System and Its Control Processes,” in K. W. Spence and J. T. Spence, eds., *The Psychology of Learning and Motivation: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Vol. 2, (New York: Academic Press, 1968), 89-195. James R. Bettman, *An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of Consumer Choice* (Massachusetts: Addison-Wesley, 1979), 143-146.

13) 욕구이론은 욕망(욕구)에 영향을 받는 존재인 ‘자아실현적 인간관’(Self-Actualizing man)과 환경(상황)에 영향을 받는 존재인 ‘복잡한 인간관’(Complex Man)이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준다. 필자는 이 두 인간관을 ‘통합적 인간관’으로 정의하고, 통합적 인간관이 욕망(욕구)과 환경(상황)의 영향으로부터 극복하는 열쇠는 ‘영성적 인간관’으로 본다.

14) 김기철, “마음의 너울을 벗고 거울을 비추자,” 『프리칭』 통권 58(2009/2), 23-24.

15) 신국원은 인간 자아는 하나님과 주위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신국원, “달라스 윌라드의 마음의 혁신에 비추어 본 인간이해,” 117.

창3:16).

만약 신자라 할지라도 자아성찰(self-reflection)이 훈련되지 않았을 때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된다. 신자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아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¹⁶⁾ 왜냐하면 ‘죄(성)로 물든 마음’에서 ‘죄(성)로 물든 욕망(desire) 또는 동기’가 나오고, 이것은 다시 지·정·의·양심·행동에 각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¹⁷⁾ 이렇듯 인간은 자신의 행동 유형과 심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나, ‘죄(성)로 물든 마음’과 ‘죄로 물든 욕망 또는 동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통제하거나 스스로 자의적 해결책이 없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히10:22-23, 고후3:13-18).

[마음과의 관계에서] 욕망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지 않는 한 욕망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다르다]. 기독교인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비기독교인은 사물을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는다].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요일 2:15-16; 창3:16)…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점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따라서 기독교인은 무슨 일을 하든 ‘세상’을 바로 간파함으로써 시작해야 [한다].¹⁸⁾

여기에서 말한 욕망(慾望)¹⁹⁾은 욕구와 야망의 합성어로, 죄로 물든 인간 본래의

16) 리차드 스틸/송광택 옮김, 『호트러짐: 예배를 깨뜨리려는 유혹』, 219-220.

17) 동기는 욕망이 충족되도록 마음과 지·정·의·양심 까지 강요하는 내적 충동의 힘(driving forces)을 의미한다(욕망→동기→지·정·의·양심). 그러나 충동 이후 실제로 욕구충족이 이루어졌느냐의 여부는 추구한 행동방식에 따라 좌우된다. 또한 신자/비신자가 취할 행동방식과 그가 선택하는 특징의 목표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은 그의 사고과정, 즉 인식과정과 학습에 근거해서 결정된다. 특히 DuBrin에 따르면, 동기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경향으로, 단순히 신체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움직임까지도 포함하고 그러한 행동이나 움직임은 본질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voluntary)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A. J. DuBrin, *Foundation of Organization Behavior*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84), 64. 동기를 내적인 충동과 힘으로 보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Leon G. Schiffman and Leslie Lazar Kanuk, *Consumer Behavior*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90), 24. J. A. Peare and R. B. Robbins, *Management* (New York: McGraw-Hill, 1989), 462-472. J. Greenberg and R. A. Baron, *Behavior in Organization*, 4th(Boston, Allyn & Bacon, 1993), 114. 동기를 행동하게 만드느 힘으로 보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R. W. Griffin, *Management* (Boston, Houghton Mifflin, 1993), 366. C. L. Bovee et als, *Management* (New York: McGraw-Hill, 1993), 436. Berelson, B., and Steiner G., *Human Behavior*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4), 240.

18) 마틴 로이드 존스/정득실 옮김, 『의학과 치유』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83-84.

심리적 현상이요, 심정적(心情的) 자기주장이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마음에 위치해 있다.²⁰⁾ 즉, 원죄에 의한 죄책(Guilty)과 죄성(Pollution)은 마음과 욕망을 감싸 안은 형태로 각각 영향을 준다. 이때 마음과 욕망은 상호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성령께서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마음에 거하고 계신다.²¹⁾

[사실] 마음은 사람의 의식, 생각, 감정 등 모든 정신적 작용의 총체를 가리킨다.…인간의 모든 기관 중에 오직 ‘마음’만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으며] 이 ‘마음’ 가짐에 따라 사람의 윤리, 도덕 및 신앙적 태도가 달라진다.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삼상12:20),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렘32:40),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잠3:5), 하나님께 충성하기도 한다(느9:8). 반대로 그것은 또한 완악하기도 하고(출4:21, 7:13), 또는 할례를 받아 부드러워지기도 한다(신10:16, 렘9:25). 이 마음은 부패해지기도 하고(잠11:20), 순결해지기도 한다(시24:4).²²⁾ 마태복음 5:8에도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마음’만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이론을 증명해 준다.²³⁾

이렇듯, 인간의 마음은 문제해결의 단초로서 성령의 조명(照明) 하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의 출발점은 공적예배(公的禮拜)가 그 중심에 있다. 왜냐하면 공적예배는 죄인 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며, 블랙박스와 같은 인간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들어나는 할례 받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회중에게는 분별력²⁴⁾이 생기고, 이런 예배경험은 공적예배는 물론 생활예배로의 전환

19) 욕망(desire)은 욕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욕망은 동기에 영향을 준다(욕망→동기). C. Whan Park and Banwari Mittal, "A Theory of Involvement in Consumer Behavior: Problems and Issues", in ed. J. N. Sheth, *Research in Consumer Behavior* (Greenwich, Conn: JAI Press, 1979), 201-231. Deborah J. MacInnis, Christine Moorman, and Bernard J. Jaworski, "Enhancing and Measuring Consumers' Motivation, Opportunity, and Ability to Process Brand Information from Ads", *Journal of Marketing* (1991/10), 32-53.

20) 박영돈,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서울: IVP, 2011), 216-217.

21) David S. Cunningham, "The Trinity", *Cambridge Companion to Postmodern Theology*, ed. Kevin J. Vanhoozer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86. Ian Knox, *Theology for Teachers* (Ottawa, Ontario: Novalis, 1999), 41-49.

22) 김희보, 『구약신학개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75), 60.

23) 정정숙, "예배 음악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1994), 355.

24) "분별력(discernment)은 성서적으로 '마음으로 구분하다'는 어원에서 나온 개념으로, 성령께서 마음으로 성(聖)과 속(俗)의 경계를 갖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다시 말해 분별력은 자아성찰 과정에서 내 자아(自我)의 주장이 작아지면서, 즉 성(聖)에 가까우면서 속(俗)된 것이 감소하여 생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아성찰(自我省察)은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독립적으로 홀로 서 있는 의식적인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분별력은 '하나님의 임재경험'의 결과로부터 나오는 능력(能力)이다. 또한 분별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단1:17). 그래서 분별력은 자아부인의 삶, 즉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다 보면(聖),

과정과 생활예배(또는 삶의 예배)에 각각 밀거름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할례(또는 변화)를 받아야 순종할 수 있고(신30:6),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마12:30-34). 이렇듯, 사람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태도와 행동이 달라진다(눅6:43-45).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사람을 순종케 하고, 순종은 믿음을 완전케 한다(야2:21-24). 또한 생명의 제공자이신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heart)에 좌정하시어 또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dwell), 그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영감을 주시기도 하고(inspiring),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신다(directing).²⁵⁾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배하는, 즉 우리의 생각(지·정·의·양심)과 행동을 계속 지배하고 통제해 온 세상 방식(manner)에 대해 믿음의 형태로 단련하거나 정결케 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잠17:3; 고후3:13-18).²⁶⁾

III. 공적예배와 회중의 인지구조

앞서 상술했듯이, 인간의 내면구조는 인간의 인지구조 보다 넓은 개념이다. 왜

정반대로 세상 방식(俗)이 자연히 마음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인식 내지 지각하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마음과 욕망/동기 및 지·정·의·양심에 영향을 주어, 내적 분별력과 외적 분별력으로 나타난다. 분별력의 내적특징은 통찰력(단1:4) 보다 넓은 개념으로, 구약에서는 ‘마음이 민첩하다’(단5:12), ‘빛으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아는 것’(단2:22)으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추일 때 생기는 것’(고후4:3-6) 등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분별력의 외적특징은 구약에서는 ‘몸에 흠이 없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단1:4)으로, 신약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동하는 것’(마10:16) 등으로 설명하였다. 사이몬 찬의 경우, 분별력을 영적 민감성으로 이해했듯이, 분별력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자아성찰과 함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는 꾸준한 훈련을 통해 연마된다고 하였다.(시27:4). 그래서, R. A. 토레이의 견해처럼, 분별력은 기독교 사역과 일상생활(또는 생활예배)까지 전(全) 영역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깊은 관계를 갖는다(행8:27-29, 야1:5-7).” 박관희, “건강한 교회에서 교회 최적화 모형의 역할 연구,” 「신학과 실천」 35(2013), 272-273. 다음은 분별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들이다. 엘리자베스 리버트/이강학 옮김, 『영적 분별의 힘』(서울: 좋은 씨앗, 2011). 달라스 윌라드/윤종석 옮김, 『마음의 혁신』(서울: 복있는 사람, 2003). 조나단 에드워즈/김창영 옮김,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존 맥아더/송용자 옮김, 『양심 실종』(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안집식, 『세계관을 분별하라』(서울: 죠이선교회, 1998). 유해룡, “영성지도의 시대적 요청과 분별의 주체로서의 마음,” 「신학과 실천」 28(2011).

25) David S. Cunningham, "The Trinity", *Cambridge Companion to Postmodern Theology*, ed. Kevin J. Vanhoozer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86. Ian Knox, *Theology for Teachers* (Ottawa, Ontario: Novalis, 1999), 41-49.

26) 최승락, “믿음 지킴과 하나님이 주권적 다스림,” 「목회와 신학」 통권 183(2004), 58-65. 김동주, “오직 행함으로(Sola Opera)의 신앙관에 관한 역사적 고찰: 루터, 선교의 세기, 한국 기독교의 모델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16(2007), 267.

나하면 인간의 인지구조는 이성(知), 감정(情), 의지(意)와 양심(良心)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해주는 것이라면, 인간의 내면구조는 인간의 영혼(마음·욕망·知·情·意·양심)과 육체가 외부의 자극(환경) 내지 내부의 자극(욕망)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적예배는 각각의 예배요소 속에서 인간의 인지구조(지적, 감정적, 의지적 요소)와 정서적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들어나 할례 반도록 적절하게 어울리며, 균형 있게 기능하도록 도와준다.²⁷⁾ 사실 칼빈도 『기독교강요』 3부 20장 31-32절에서 예배에서 인간의 인지구조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음악의 자극은 사람의 직관의 창문을 활짝 열어서 감정의 샘이 힘 있게 터지고, 상상력의 세계가 역동적으로 펼쳐진다. 음악의 자극으로 그렇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뜨거워진 인간의 기쁨 그릇에 감사와 소망과 예배를 담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감정이 충분히 깨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²⁸⁾

구약의 경우, 예배에서 음악(찬양)은 하나님 영광의 역사적 현현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었다(열하3:13-20). Lovelace와 Rice에 따르면, 언어활동과 음악활동에서 사람의 정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일어나나

27) 김순환, “기념이면서 소통인 예배: 동시대 문화 속 예배 모색,” 『신학과 실천』 20(2009), 94.
 28) 박정순, “구약성경에 나타난 음악의 영적 사역에 대한 소고,” 『신학지남』 57(1990), 206, 224-226. 강만희는 현대 북미 예배예식서에 인간의 인지구조를 반영한 회중찬송의 경향과 특징을 분석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연합감리교회와 미국장로교회, 침례교회의 예배예식서(Worship Planner)]는 현대예배에 적합한 찬송의 메들리를 ①예배시작, ②찬양과 예배, ③초대, ④주의 만찬 그리고 ⑤예배 마무리의 주제에 따라 3-5곡의 찬송 메들리를 제시하였다. 모두 25개의 메들리 세팅을 찬송의 속도변화 별로 ①빠름-보통, ②빠름-느린, ③보통, ④보통-느린, 그리고 ⑤느린 찬양으로 분류하여 각 세트를 나열하였다.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각 찬송의 조성과 추천하는 진조에 필요한 화성진행을 함께 제공하였다. 현대예배음악과 전통찬송을 혼합, 사용하는 예배를 위한 메들리 역시 현대예배찬송에서 사용했던 앞의 다섯 가지 주제에 ①빠른, ②빠른-보통, ③보통, ④보통-느린, ⑤느린 찬양으로 분류하여 25개의 메들리 세트를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3-9곡으로 구성된 24개의 각기 다른 주제에 의한 메들리를 포함하였다. 『침례교 찬송가』(2008)의 경우, 대부분의 찬송에 전통적인 4성부 세팅을 적용하였고 일부는 선율과 건반 혹은 기타반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세팅하였다. 전통 찬송을 현대예배에 적합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하였다. 첫 번째 편집 형태는 반복되는 후렴을 편곡, 확대시켰다. 현대예배에서 찬송의 후렴부분을 반복해 부르는 경우가 많다. 같은 음악을 반복할 대에 다른 화성을 사용하거나 세팅을 달리해서 확대시킨 경우이다. 두 번째 편집 형태는 찬송가의 마지막 절을 편곡한 경우이다. 전통적인 4부 찬송 뒤에 몇 마디의 경과부를 거쳐 전조를 시켜 반음 위의 조성으로 마지막 혹은 마지막 두 절을 다른 화성진행과 반주 형태로 편곡시킨 찬송을 포함시켰다. 경우에 따라 추가부분에 더 긴 엔딩을 추가한 경우도 있다. 세 번째 편집 형태는 마지막 절 편곡 뒤에 긴 코랄엔딩을 포함시킨 것이다.” 강만희, “2000년 이후 출판된 미국 회중찬송가의 경향과 특징,” 『신학과 실천』 35(2013), 157-158.

둘 다 감각(오감)에 의존하는 반면, 음악은 정서에 좀 더 빨리 그리고 강하게 호소하는 경향이 있고, 언어는 지성에 좀 더 직접적으로 호소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언어에서는 마음이 우선 낱말의 의미에 의해 움직여지고, 다음에 상상력은 사상에 작용하고, 그 결과로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한다.²⁹⁾

또한 로이드 존스는 설교와 인지구조 관계에서 이성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기독교 복음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 감정이나 의지에 직접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감정과 의지는 언제나 정신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야 한다. 진리는 정신에 다가가도록 되어 있다. 정상적으로는 진리가 먼저 정신에 들어가 이해된 다음, 정신에 의해 감정과 의지에 영향이 주어져야 한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다. 감정과 의지에 대한 접근은 간접적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정이나 의지에 압박을 부과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호소’해야지 결코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간청’을 해야지 위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내 생각에 이것은 모든 설교자와 사역자들이 언제나 마음속에 이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³⁰⁾

앞의 견해들을 모형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예배에서 회중의 감정이 행동화에 영향을 주려면, 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A). 이 때 이성이 행동화로 나타날 때, 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B). 예배에서 회중의 인지구조는 감정과 이성(A), 또는 이성과 감정(B)이 뒤엉켜있다는 사실이다. 예배담당자는 이것을 고려하여 예배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표 1>은 공적예배의 인지구조 도식(모형)을 예배요소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배에서 회중의 인지구조는 크게 예배 전(全) 영역과 설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두 영역은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선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준다. 예컨대 회중은 예배 전(全) 영역에서 중보기도와 찬양을 통해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마음의 눈으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게 된다(감정).³¹⁾ 그 결과 회중은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깨닫게 되며(이성),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한 성찰과 깨달음은 헌신(결단)의 찬양과 기도와 더불어 회개와 헌신을 통해 결단과 실천으로 이어져(의지), 행동화(行動化)하게 된다.³²⁾ 반면에, 설교 영역에서는 영적 분위기 속에서

29) Austin C. Lovelace & William C. Rice, *Music and Worship in the Church* (Nashville: Abingdon, 1976), 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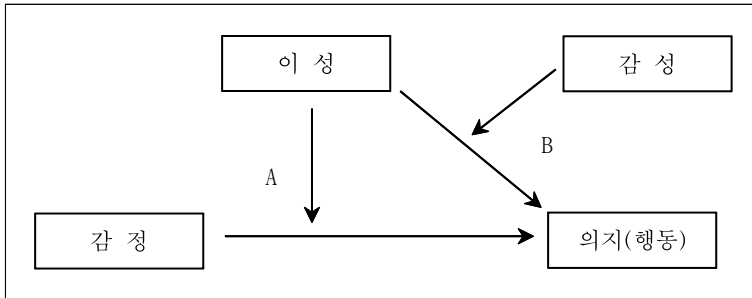
30) 마틴 로이드 존스, 『회심: 심리적인가, 영적인 것인가?』, 73-74.

31) James F. White,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3th ed(Nashville: Abingdon, 2000), 104.

32) 박우삼, “열린 예배와 청년 신앙교육의 관계성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제17집 (2007), 122. 밥 로글리엔/김동규 옮김, 『예배는 체험이다』 (서울: 예수전도단, 2007). 이유정,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의 이성을 통해 전달되면, 감정적인 반응과 의지적 행동으로 나타난다.³³⁾ 그래서 회중은 이 두 영역을 통해 비로소 인간의 인지구조가 마음과 뜻, 그리고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된다(신30:6, 막13:30-34, 고후12:30).

<그림 2> 공적예배의 인지구조 모형



이렇듯 회중의 인지구조는 공적예배에서 설교를 강조하기 보다는 예배요소 그 자체를 강조하게 만드는 개념이다. 그래서 회중의 인지구조는 공적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경험 뿐 아니라, 생활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는데 다양한 방법론(methodology)과 통찰력(insight)을 제공해준다.

<표 1> 공적예배에서 예배자의 인지구조에 대한 위치와 역할

| | 공적예배 | | 예배자의 인지구조 | |
|--------------------------|------|----------|---------------|-------|
| | 구성요소 | | 역할 | 구성요소 |
| 예배 전(全) 영역 과 설교 영역 | 찬양 | | 마음의 문을 열어 줌 | 감정(情) |
| | 말씀 | | 깨닫게 해 줌 | 이성(知) |
| 기도 | 중보기도 | 사모함과 회개 | 의지(意) & 행동 | |
| | 결단기도 | 순종하려는 결단 | | |

IV. 공적예배와 회중의 인지구조에 대한 관계분석

사역의 몇 가지 준거 틀” 「목회와 신학」 (2008/6), 177-183. Wiliam Nagel/박근원 옮김, 『그리스도교 예배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6. 김상구, “초기 기독교 예배형태에 관한 소고,” 「복음과 실천신학」 제13집 (2006), 4-50. 박관희, “의례(儀禮)를 통해 본 기독교 예배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5(2013), 189-213.

33) 마틴 로이드 존스/이정선 옮김, 『회심: 심리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 73-75.

1. 표본의 특성

<표 2>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 변수 | 특성 | 빈도 | 비율(%) | 변수 | 특성 | 빈도 | 비율(%) |
|----------|----------|------|-------|----------|-----------|------|-------|
| 성별 | 남성 | 456 | 35.6 | 교회 직분 | 장로(남) | 48 | 3.9 |
| | 여성 | 824 | 64.4 | | 권사(여) | 32 | 2.6 |
| 가족 위치 | 가구주 | 336 | 26.8 | | 집사 | 520 | 41.9 |
| | 가구주 부인 | 528 | 42.0 | | 일반성도 | 640 | 51.6 |
| | 자녀 | 376 | 29.9 | 신앙 년수 | 1년 미만 | 16 | 1.2 |
| | 가구주 부모 | 16 | 1.3 | | 1-3년 미만 | 80 | 6.2 |
| 교회 신급 | 세례(침례)교인 | 1169 | 91.8 | | 3-5년 미만 | 56 | 4.4 |
| | 학습교인 | 8 | 0.6 | | 5-10년 미만 | 56 | 4.5 |
| | 입교교인 | 56 | 4.4 | | 10-15년 미만 | 120 | 9.4 |
| | 해당 없음 | 40 | 3.1 | | 15-20년 미만 | 264 | 20.6 |
| | | | | 20년 이상 | 688 | 53.8 | |

본 설문은 “한국교회의 예배행동의식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60일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7대 도시에서 20-60세 남녀 12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자료를 분석하였다(95% 신뢰구분 ±2.6). 표본은 비록 무작위추출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연령별,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추출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질문 항목의 정직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익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질문 성격상 예배와 교회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응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비교적 오래 다닌 사람을 주 대상으로 배포되었다. 응답자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은 <표 2>과 같다.

<표 2>에 요약되어 있는 것처럼, 남녀의 비율은 4대 6(남자 35.6%, 여자 64.4%)로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대부분이 교회를 10년 이상(88.3%) 다니고 현재 부부가 같이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이 68.8%임을 감안할 때, 교회의 사정을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세례(침례)를 받은 비율은 91.8%, 교회제직의 비율이 93.5%에 이르고 있어 응답자 대부분은 헌신된 신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표본(응답자)의 특성이 대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어, 한국교회의 교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정보를 비교적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인지구조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및 상관관계

회중의 인지구조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리소(Don Richard Riso)와 허드슨(Russ Hudson)의 에니어그램 진단표를 사용하여 유형을 파악하였다(표 3).³⁴⁾ 그리고 회중의

인지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3가지 조건, 즉 표준화된 설문지의 분석결과로 부터 조사대상자의 설문지 이해도(신뢰성)와 연구자의 설문지 완성도(타당성) 및 인지구조 변수들 간의 상호 관련성 정도(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표 3).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표준화된 설문지가 응답자와 조사자에게 회중의 인지구조 연구에 적합한가를 확인하는 통계검증 과정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3가지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3> 인지구조의 신뢰성과 타당성 및 상관관계

| 문항 구성 | 문항 | 신뢰성 | 타당성 | | | 상관관계 | | | |
|-------|----|-------|--|----------------|--------------------|--------------------|---------|---------|------|
| | | | 요인적재량 (factor loading) | KMO | 타당성 계수 | 이성 | 감정 | 의지 | |
| 이성 | 6 | .8321 | 5번 지식관찰형(.771) 6번 안전주의형(.756) 7번 열정주의형(.763) | .829 (.000) | 75.271 (41.985) | 72.251 (72.251) | 1.00 | | |
| 감정 | 6 | .7755 | 2번 도우미형(.760) 3번 성공주의형(.734) 4번 개인주의형(.767) | | 66.142 (18.265) | | .714*** | 1.00 | |
| 의지 | 6 | .7920 | 8번 자기주장형(.829) 9번 평화주의형(.770) 1번 완변주의형(.737) | | 68.770 (10.482) | | .452*** | .442*** | 1.00 |

첫째, 회중의 인지구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계수를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 신뢰성은 조사대상자가 설문지를 얼마나 잘 이해하였는가, 즉 조사대상자의 설문지 이해도를 나타낸다. 연구 결과, 이성은 Cronbach-Alpha가 .8321로 나타났고, 감정은 $\alpha=.7755$ 를, 의지는 $\alpha=.7920$ 로 각각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수용할만한 신뢰성 계수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이 제시한 신뢰성에 대한 공통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분석 결과 신뢰성이 0.6이상이어서 기독교 욕구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scale)로 간주하여 분석하는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다.³⁴⁾ 그래서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회중의 인지구조의 신뢰성 수준은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측정도구의 신뢰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중의 인지구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계수를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 타당성은 연구자가 설문지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 즉 연구자의 설문지 완성도로서 연구할 변수를 설문지 항목으로 얼마나 잘 표현했는가를 말한다. 다시 말해 조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였느냐를 말한다. 일반

34) Don Richard Riso, Russ Hudson/주혜명 옮김, 『에니어그램의 지혜』 (서울: 한문화, 2000), 26-32.

35) Andrew H. Van De Ven and Diane L. Ferry, *Measuring and Assessing Organizations* (New York: Wiley, 1980). J. C. Nunnally,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1978), 157-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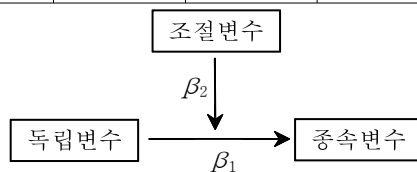
적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는 공통분산(community) 값이 적어도 총분산의 60% 정도를 설명해주고 있는 요인까지를 선정하는데, 여기서 60%를 기준으로 요인의 수를 결정한다는 것은 40%의 정보손실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이성은 75.271을, 감정은 66.142을, 의지는 68.770로 나타났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서 보인 누적분산설명 비율은 각 변수를 측정하는 설문지 문항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충분히 보증하는 수준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고려되고 있는 회중의 인지구조 변수들은 의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셋째, 회중의 인지구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 계수를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 상관관계는 변수들(variables) 간의 상호관련성이 있는가를 말한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회귀모형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은 회중의 인지구조인 이성과 감정 및 의지가 각각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회중의 인지구조 변수들 간에 상호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독립적인 별도의 변수들(또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연구할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이성과 감정은 $r=.714(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성과 의지간에는($r=.452, p<.001$), 감정과 의지간의 관계는($r=.442, p<.001$)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positive correlation)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사용될 회중의 인지구조 변수들은,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연구를 위한 변수들로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예배에서 인지구조(知情意)의 조절효과분석

<표 4> 공적예배에서 인지구조의 조절효과 분석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R ² 의 변화량 | 비표준화 계수 | 표준화 계수 | T-value | 유의확률 (P) |
|------------|---------|----------------------|---------|--------|---------|----------|
| 예배 전(全) 영역 | 상 수 | - | 1.444 | - | 70.350 | .007 |
| | 감 정 | .195 | .099 | .110 | 4.942 | .000 |
| | 이 성 | .204 | .404 | .452 | 16.215 | .000 |
| | 감정 * 이성 | .600 | .555 | .718 | 32.191 | .000 |
| 설교 영역 | 상 수 | - | 1.663 | - | 71.875 | .002 |
| | 이 성 | .204 | .262 | .294 | 15.979 | .000 |
| | 감 정 | .195 | .397 | .025 | 15.768 | .000 |
| | 이성 * 감정 | .672 | .544 | .703 | 38.245 | .000 |



<표 4>는 공적예배에서 인지구조(知情意)의 조절효과 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공적예배에서 회중의 인지구조는 독립변수(이성과 감정 또는 감정과 이성)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³⁶⁾이 존재함으로($r=.714^{***}$), 2개의 변수(이성과 감정 또는 감정과 이성)를 동시에 독립변수로 사용할 수 없다(표 3). 즉, <이성→감정→의지>와 같은 계층적 단계를 밟지만, 회중의 인지구조는 매개효과 보다는 조절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³⁷⁾

구체적으로 예배 전(全) 영역을 보면, 회중의 감정($R^2=19.5\%$)과 감정*이성($R^2=60.0\%$)에 대한 R^2 값이 40.5% 정도로 크게 변화하였고, 모두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래서 회중의 감정이 의지에 영향을 줄 때, 회중의 이성이 의지에 일정 부분 조절작용을 하였다. 이것은 Wiliam Nagel(2006), 김상구(2006), 박우삼(2007), 밥 로글리엔(2007), 그리고 이유정(2008)의 견해와도 일맥상통 한다.³⁸⁾

또한 설교 영역에서도 회중의 이성($R^2=20.4\%$)과 이성*감정($R^2=67.2\%$)에 대한 R^2 의 변화량이 46.8%정도로 크게 변화하였고, 모두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래서 회중의 이성이 의지에 영향을 줄 때, 회중의 감정이 의지에 일정부분 조절작용을 하였다. 이것은 Lovelace와 Rice(1976), 마틴 로이드 존스(1994), 그리고 권성수(2010)의 연구와도 동일하다.³⁹⁾

36)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들 간의 독립성이 없을 때,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에 독립변수들 간에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독립변수들에 대한 회귀계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할 수 없어서 그 자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게 된다. 다시 말해 독립변수들 간에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은 회중의 인지구조 연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효석, 『경상계열을 위한 통계학』 (서울: 형설출판사, 1998).

37) 조절변수(modulating variable)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일종의 원인변수인데, 제2의 독립변수이다. 이 변수는 주로 주변상황(기후, 개인의 선호, 환경 등)을 지칭하기 때문에, 상황변수(situational variable)라고도 불린다. 예를 들어 이용밀도가 높더라도 조우횟수(접촉횟수)가 낮다면, 그리고 혼잡에 너그러운 관광객이라면 혼잡도를 크게 지각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조우횟수나 개인선호 등이 바뀔에 따라 결과변수가 받는 영향력이 변화한다면, 이 변수들은 조절변수에 해당된다.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개입되는, 즉 어떤 변수의 영향을 받아 다른 변수에 그 영향을 전달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변수이다. 예컨대 어떤 스키 리조트 관광객의 km²당 이용자 수, 즉 이용밀도는 이용자의 ‘혼잡지각’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이용만족도’라는 종속변수에 최종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혼잡도 지각’이라는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용밀도만을 사용한 분석은 올바른 인과관계로는 만족도 여부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든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변수가 개입되어 있을 때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양 변수간의 인과관계는 왜곡될 수도 있다.

38) 박우삼, *op. cit.*, 122. 이유정, *op. cit.*, 177-83. Wiliam Nagel, *op. cit.*, 16. 김상구, *op. cit.*, 4-50. 밥 로글리엔/김동규 옮김, 『예배는 체험이다』 (서울: 예수전도단, 2007).

39) Austin C. Lovelace, William C. Rice, *op. cit.*, 19-20. 마틴 로이드 존스, *op. cit.*, 73-74. 권성수, *op. cit.*, 101.

V. 나가는 말

일반적으로 사회는 종교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는 때로는 사회변동 상황이 종교에 영향을 미치거나 종교가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치곤 하였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종교가 개인을 통해 사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가 개인의 종교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의 경우 후자에 속한다. 한국사회는 한국교회에도 세속화의 영향을 주고, 한국교회는 개인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것의 중심에는 공적예배가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예배학에서는 회중의 이성(知), 감정(情), 의지(意)와 양심(良心)과 같은 인지구조가 예배상황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논의되지 못했다.

연구 결과, 회중은 예배 전(全) 영역에서 중보기도와 찬양을 통해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마음의 눈으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였다(감정). 그 결과 회중은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깨닫게 되며(이성),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한 성찰과 깨달음은 헌신(결단)의 찬양과 기도와 더불어 회개와 헌신을 통해 결단과 실천으로 이어져(의지), 행동(行動)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설교 영역에서는 영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의 이성을 통해 전달되면, 감정적인 반응과 의지적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회중의 인지구조는, 예배에서 설교를 강조하기 보다는 예배요소 그 자체를 강조하게 만든 개념이고, 이것은 공적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경험 뿐 아니라, 생활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게 하였다. 이들 개념은 향후 예배학, 특히 문화예배학에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 참고문헌 ■

- 강만희. “2000년 이후 출판된 미국 회중찬송가의 경향과 특징.” 「신학과 실천」 35(2013), 157-158.
- 김기철. “마음의 너울을 벗고 거울을 비추자.” 「프리칭」 통권 58(2009/2), 23-24.
- 김동주. “오직 행함으로(Sola Opera)의 신앙관에 관한 역사적 고찰: 루터, 선교의 세기, 한국 기독교의 모델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16(2007), 267.
- 김상구. “초기 기독교 예배형태에 관한 소고.” 「복음과 실천신학」 13(2006), 4-50.
- 김세광. “2008년 북미예전학회 참관기.” 「신학과 실천」 15(2008), 265-73.

- 김순환. “기념이면서 소통인 예배: 동시대 문화 속 예배 모색.” 『신학과 실천』 20(2009), 94.
- 김용민·박관희·심현구. 『DRIVER: 성격 & 업무유형 검사 매뉴얼』. 청주: MCI, 2015.
- 김효석. 『경상계열을 위한 통계학』. 서울: 형설출판사, 1998.
- 김희보. 『구약신학개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75.
- _____, “양심의 속성과 기능에 관한 고찰: 서양 및 기독교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 개혁신학』 13(2003), 221.
- 로글리엔, 밥/김동규 옮김. 『예배는 체험이다』. 서울: 예수전도단, 2007.
- 리버트, 엘리자베스/이강학 옮김. 『영적 분별의 힘』. 서울: 좋은 씨앗, 2011.
- 맥아더, 존/송용자 옮김. 『양심 실증』.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 박관희. “개척교회의 자립주기와 그 특성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6(2011), 324-32.
- _____, “건강한 교회에서 교회 최적화 모형의 역할 연구.” 『신학과 실천』 35(2013), 272-273.
- _____, “의례(儀禮)를 통해 본 기독교 예배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5(2013), 189-213.
- 박영돈.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서울: IVP, 2011.
- 박우삼. “열린 예배와 청년 신앙교육의 관계성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17(2007), 122.
- 박정순. “구약성경에 나타난 음악의 영적 사역에 대한 소고.” 『신학지남』 57(1990), 206-226.
- 박종환. “김순환 박사의 ‘주요 서구 개신교회 예배의 현황과 그 비교 연구’에 대한 논찬.” 『제40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안양: 한국실천신학회, 2011.
- 백금산. 『만화 구원론』.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6.
- 신국원. “달라스 윌라드의 마음의 혁신에 비추어 본 인간이해.” 『목회와 신학』 180(2004/6), 117.
- 안덕원·허정갑. “교회, 예배, 역사, 그리고 대화-북미예전학회 참석 후기.” 『신학과 실천』 10(2006), 267-78.
- 안점식. 『세계관을 분별하라』. 서울: 조이선교회, 1998.
- 에드워즈, 조나단/김창영 옮김.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 윌라드, 달라스/윤종석 옮김. 『마음의 혁신』. 서울: 복 있는 사람, 2003.
- 유해룡. “영성지도의 시대적 요청과 분별의 주체로서의 마음.” 『신학과 실천』 28(2011).
- 이유정. “예배사역의 몇 가지 준거 틀.” 『목회와 신학』 (2008/6), 177-183.
- 이정모. “정보처리와 인지심리학.” 『현상과 인식』 7(1983), 85-86.

- _____, 『인지심리학의 제 문제 I: 인지과학적 연관』. 서울: 성원사, 1996.
- _____, 『인지과학 : 학문 간 융합의 원리와 응용』.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 정정숙. “예배 음악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1994), 355.
- 존스, 마틴 로이드/정득실 옮김. 『의학과 치유』.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 최승락. “믿음 지키고 하나님이 주권적 다스림.” 「목회와 신학」 통권 183(2004), 58-65.
- 한광희. “인지과학과 인지심리학의 관계고찰 - 정보처리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76(1997), 408.
- _____, 『인지과학 : 마음, 언어, 기계 - 마음에 대한 인지과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2004.
- 허도화. “공동 예배의 영성.” 「신학과 실천」 30(2012), 36-37.
- Atkinson, R. C. and R. M. Shiffrin. "Human Memory: A Proposed System and Its Control Processes." in K. W. Spence and J. T. Spence, eds., *The Psychology of Learning and Motivation: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Academic Press, 1968.
- Berelson, B. and Steiner G. *Human Behavior*.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4.
- Bettman, James R. *An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of Consumer Choice*. Massachusetts: Addison-Wesley, 1979.
- Bovee, C. L. et als. *Management*. New York: McGraw-Hill, 1993.
- Cunningham, David S. "The Trinity." *Cambridge Companion to Postmodern Theology*. ed. Kevin J. Vanhoozer.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DuBrin, A. J. *Foundation of Organization Behavior*.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84.
- Greenberg, J. and R. A. Baron. *Behavior in Organization*. Boston, Allyn & Bacon, 1993.
- Griffin, R. W. *Management*. Boston, Houghton Mifflin, 1993.
- Huh, Dohwa. "John Wesley's Eucharist as a Context for Christian Spiritual Formation."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51(2007), 233-256.
- Joines, Vann and Ian Stewart/오수희 외 2인 옮김. 『TA이론에 의한 성격적응론』. 서울: 학지사, 2012.
- Kahler, Taibi. *Managing with the Process Communication Model*. Little Rock: Human Development Publications, 1979.
- Kahler, Taibi and Hedges Capers. "The Miniscript."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4 (1974), 26-42.

- Knox, Ian. *Theology for Teachers*. Ottawa, Ontario: Novalis, 1999.
- Lovelace, Austin C. & William C. Rice. *Music and Worship in the Church*. Nashville: Abingdon, 1976.
- MacInnis, Deborah J., Christine Moorman and Bernard J. Jaworski. "Enhancing and Measuring Consumers' Motivation, Opportunity, and Ability to Process Brand Information from Ads." *Journal of Marketing* (1991/10), 32-53.
- Miller, George A. "The cognitive revolution: a historical perspective." *TRENDS in Cognitive Science* 7(2003/3), 141-144.
- Nagel, William/박근원 옮김. 『그리스도교 예배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Neisser, Ulric. *Cognitive Psychology*.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67.
- Nunnally, J. C.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1978.
- Park, C. Whan and Banwari Mittal. "A Theory of Involvement in Consumer Behavior: Problems and Issues." in ed. J. N. Sheth. *Research in Consumer Behavior*. Greenwich, Conn: JAI Press, 1979.
- Peare, J. A. and R. B. Robbins. *Management*. New York: McGraw-Hill, 1989.
- Preston, Ronald. "Conscience." in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ed. by James F. Childress and John Macquarrie. Philadelphia, Pennsylvan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 Ravan, Chris & Jeudie Williams/김문성 옮김. 『심리학의 즐거움』. 서울: 휘닉스, 2005.
- Riso, Don Richard and Russ Hudson/주혜명 옮김. 『에니어그램의 지혜』. 서울: 한문화, 2000.
- Schiffman, Leon G. and Leslie Lazar Kanuk. *Consumer Behavior*.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90.
- Schmit, Clayton J. "Worship as a Locus for Transformation." *Worship That Changes Lives: Multidisciplinary and Congregational Perspectives on Spiritual Transformation*. ed. Alexis D. Abernethy. Baker Academic, 2008.
- Van De Ven, Andrew H. and Diane L. Ferry. *Measuring and Assessing Organizations*. New York: Wiley, 1980.
- White, James F./김석한 옮김. 『개신교 예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_____,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Nashville: Abingdon, 2000.

논 찬 1

“공예배에서 회중의 인지구조 연구”에 대한 논찬

최진봉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 예배와 설교)

박관희 박사의 연구는 예배학 분야의 관심주제들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연구대상이 되지 않은 분야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것은 공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들의 행동변화에 영향을 주는 예배자들의 인지적 요소들과 그것들의 상호 관련성을 수치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예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가지고 통계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논찬자는 예배학의 관심내용을 다루어주신 박관희 박사의 시도에 감사를 표하며, 그가 다룬 논점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본 논문에 대한 비평적 평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I. 논점

첫째, 연구자는 II장에서 성서적 관점으로 인지심리학에서 다루는 인간의 내면구성 요소들(의식-지, 정의, 양심; 무의식-마음, 욕망)을 열거하고, 그것들 간의 상호성을 설명하려 했다.

둘째, 본 논문의 III장은 인간의 내면구성요소와 차별될 수 있는, 인지구조, 즉 공적예배에서 작용하는 예배자의 ‘감정-의지-이성’ 간의 상호적 삼각관계를 소개하고 있다.

셋째, IV장은 본 연구의 중심 내용이면서,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의 결과값으로, 예배자들의 이성-감성-의지 간의 상호 관계성을 수치화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II. 비평적 평가

본 논문은 예배에서 예배자의 행동변화에 작용하는 내적 역학들을 수치화하려 했

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그 내용과 연구방법에 있어 학문적 논의와 평가를 가능케 하는 기본 요건들에 대한 미완적인 부분들이 적지 않아 아래의 내용들로 논찬을 제한하고자 한다.

1. 연구자는 ‘공(적)예배’에서의 예배자의 행동유발과 관련된 인지구조의 역학관계를 수치화하고 있다. 그러나 예배학적 관점에서, 본 연구가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공예배’로 제한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연구자는 ‘공예배’에서의 예배자들의 인지반응과 ‘공적이지 않은 예배’에서의 그것이 다르다고 보기에 연구를 ‘공예배’로 제한한 것인지, 과연, 공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 간의 인지 요소간의 역학이 다르며, 그렇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등, 본 연구가 전체해야 할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다. 또한 연구자에게 ‘공예배’는 어떤 예배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제시도 필요하다.

2. 본 논문은 연구자의 예배현장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연구자에게 예배는 ‘설교’를 중심으로 ‘설교’와 그 이외의 다른 ‘모든 부분들’로 이해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는 예배현장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로, 예배현장은 기도와 찬양, 설교를 비롯하여, 성찬이 예배의 중심 요소로 자리하고 있으며, 성찬은 다른 요소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복합적이며 전인적 차원의 변화요소들이 작용한다. 연구자가 성찬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시될 필요가 있다.

3.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언급한대로, 예배학의 과제가 ‘텍스트’ 중심이 아닌, 예배자들의 행위가 발생하는 현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할 때, 예배자들의 인지요소(이성-감성-의지) 간 역학 작용의 변화요인에는 예배자 개인이 아닌, 회집형태의 ‘다중성’이 큰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사적예배가 아닌 ‘공예배’로 했다는 것에서 더욱 그러하다. 예배자 개인이 혼자 기도할 때와 함께 모여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행동변화가 급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설교 역시 그렇다. 이런 점에서, 예배자들의 회집의 다중성과 공동체성이라는 환경적 요소를 제외한 인지구조의 역학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일 수 있다.

4. 본 논문은 학문적(심리인지학) 개념들을 빌어 과학적(통계학적) 분석을 시도함에 있어서 신앙적이며 상식적 개념들을 구분 없이 혼용하고 있다. 즉, 논자는 인간의 심리적 구조(지.정.의,욕망,욕망)를 설명하면서, 종교 교리적 개념인 ‘원죄’나 ‘성령의 조명,’ 또는 일반적이면서 통상적 명칭인 ‘영혼,’ ‘심령,’ ‘생각,’ ‘영적분위기,’ ‘뜻’ 등을 학문적인 분류를 통한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기에 논문을 읽는 논찬자에게 적지 않은 혼돈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제시하는 ‘마음’이 심리학적 개념인지, 일

반적 개념인지 규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연구자는 인간의 내면구조 내에 있는 인지구조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논찬자의 이해력이 부족한 탓일 수도 있는데, 2장과 3장에서 내면구조와 인지구조가 혼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 3장에서 연구자가 김순환의 글을 인용하는 “공적예배는 각각의 예배요소 속에서 인간의 인지구조(지적, 감정적, 의지적 요소)와 정서적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드러나 할례 받도록 적절하게 어울리며, 균형있게 기능하도록 도와준다”는 내용은 많은 부분에서 학문적 언어와 신앙적 언어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는 예들 중 하나의 단적인 부분이다. 이상의 부분들로 인해 논찬자는 본 논문이 전체적으로 학문적 객관성과 연구방법의 적합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지의 의문을 갖게 된다.

5. 연구자는 통계학적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어림과 추정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구자는 4장의 인지구조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및 상관관계에서 신뢰성 계수에 대한 분석값을 설명하면서 신뢰성이 0.6 이상인 점을 들어, “신뢰성 수준은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측정도구의 신뢰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제시한다. 이는 해석자의 주관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유발한다. 뿐만 아니라, 본 논문은 통계학적 개념과 분석 방법을 매우 난해하고 함축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간학문적 연구에서 염두해야 할 요소가 상호간 유의미한 연구의 내용과 언어의 사용에 따른 가해성이라고 할 때, 본 논문이 학술논문으로서 제한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

6. 연구자가 제시하는 <표1> “공적예배에서 예배자의 인지구조에 대한 위치와 역할”은 누구에 의한 어떤 조사에 근거한 표인지, 연구자의 추정인지, 그 관련 정보가 객관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설령, 그 객관적 근거들이 제공된다 할지라도 연구자가 제시하는 각 항목별 내용이 학문적 연구로서 차별화되는 내용인지 묻게 된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은 분석이나 조사방법 없이도 상식적으로 추정가능한 일반적 내용이다.

7. 본 연구의 중심 내용인 4장의 많은 부분이 “2. 인지구조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및 상관관계”의 소개에 할애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본 연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내용이 아닌, 통계분석에 사용되는 기술적 용어나 개념들에 대한 설명들로, 이들은 각주로 내려 소개함이 보다 적합한 내용이다. 역으로, 그 분석에 대한 해석의 내용이 되어야 할 “3. 예배에서 인지구조의 조절효과분석”의 내용은 본 논문의 논지를 생각할 때, 그 질적, 양적 측면에서 미완적이며, 그렇기에 본 논문이 목적으로 한 바가 무엇인지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학술적 논문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완되고, 발전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예비학 분야의 일반에서 관심대상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다루어지지 않는 예비자들의 행동변화의 내적 동인과 그 역학적 관계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려 했다는 점에서 박관희 박사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면서 논찬을 마친다.

논 찬 2

“공예배에서 회중의 인지구조 연구”에 대한 논찬

김 형 락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 예배학)

필자는 2020년 6월에 있을 한국실천신학회 정기 학술대회의 예배분과에서 발표 예정인 박관희 박사의 논문인 “공예배에서 회중의 인지구조 연구”의 논문을 논찬하기로 하였다, 박관희 박사는 호서대학교에서 예배학을 공부했지만 연구의 주 관심이 그가 학부 때부터 연구해 온 통계학에 기반을 둔 양적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기에 박관희 박사의 논문을 논찬하는 일은 솔직히 매우 부담스러웠다. 필자는 통계학이란 학문에 익숙하지 않으며 양적 연구에 대한 방법론도 그다지 많이 다루어보지 못했다. 본 논문을 받아보았을 때도 역시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드러났다. 역시 대부분의 방법론이 양적 연구와 통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더욱 어려운 것은 인지구조 이론이 이 논문의 중심 주제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필자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 논문을 논찬하려고 한다. 결국 논문의 내용보다는 논지와 이 논문에서 나타난 예배학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논찬을 하려고 한다.

[내용요약]

본 논문의 중심 주제는 요약하자면 공예배 안에서 회중이 느끼는 심리적 변화와 이로 인해 형성되는 신앙의 과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박관희 박사는 이 논문에서 회중들은 찬송과 기도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경험(감성)을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을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 신앙체험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져 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과 깨달음으로 발전하며 이는 성도의 결단으로 이어져 실천적 영역에 헌신하게 되는 의지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의지는 실제적 성도의 행

위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논지를 위하여 박관희 박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논문을 발전시켰다.

첫째로 박관희 박사는 인간의 내면구조 메커니즘 연구를 통해 인간에게 주어지는 자극이나 영향이 인간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가장 중심적인 논지는 인간은 자신의 삶의 행동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영향을 받는데 이는 인간이 판단을 하게하는 이성까지 영향을 주게 되며 이를 통해 바르지 못한 행위로 연결됨을 주장한다. 박관희 박사는 인간의 욕망의 문제를 고전적인 신학적 용어인 원죄에서 기인하며 이로 인해 죄성에 물든 인간의 마음과 의지의 문제로 확대시킨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성령의 조명이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극복할 수 있음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예배에서의 하나님 경험 그리고 이것이 삶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둘째로 박관희 박사는 공적 예배에서 회중의 인지구조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는 기독교 예배에 참여한 인간은 예배의 각 순서들에서 자신의 인지구조(지, 정, 의)를 통해 하나님이라는 경험, 인식을 통해 올바른 기독교인의 삶을 결단하는 의지로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이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인 예배음악과 기도 그리고 이성을 자극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세워주는 말씀과 선포된 말씀으로써 설교를 구분하며 이를 통해 회개와 결단을 하게하여 의지적 실천을 통해 행동화하게 한다. 박관희 박사는 이러한 인지구조의 과정을 고려해볼 때 기독교 예배는 이성을 자극하는 설교만을 강조하는 것보다 이성의 자극을 준비시키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설교를 제외한 모든 요소들까지 강조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삶의 예배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로 박관희 박사는 자신의 논지를 증명하기 위한 양적 조사의 결과를 제시한다. 2020년 3월-4월까지 진행된 “한국교회의 예배행동양식 실태조사”라는 제목으로 설문문을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박관희 박사는 이 조사를 위해 7대 대도시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구성하였고 이는 연령별, 성별을 고려하여 조사하였다. 자세한 연구의 내용은 필자가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알 수가 없으나 이 논문에 의하면 설문조사의 결과는 기독교 예배에서 참석한 이들은 예배의 순서를 통해 이성-감정-의지와 같은 단계적 변화를 겪지만 이성, 감정, 의지가 각각 독립적으로 영향을 참석자에게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시에 영향을 주는 조절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결단에 이르게 하는 의지를 도출한다. 따라서 기독교 예배는 말씀의 선포인 설교만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형성시키고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을 하게하는 것보

다 모든 전예배의 순서를 강조함으로 선포된 말씀을 들어서 생기는 이성적 작용을 더욱 강하게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삶의 결단으로 인도해야한다.

[평가 및 질문]

이 논문을 읽어가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함을 느꼈고 한편으로는 예배학의 이론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을 배우는 느낌이 들었다. 답답함은 바로 논문이 제기하는 전문적 영역인 통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대충 눈대중으로 논문을 이해하는 부분이었다. 반면에 오랫동안 예배신학(liturgical theology)의 영역에서 다루어진 주제인 예배가 신앙을 형성시키는 과정을 확증시킬 수 있는 양적연구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아 매우 신선한 느낌이 들었다. 중요한 점은 전문적인 방법과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결국 논문을 읽고 평가하는 학회와 학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논문을 작성해야한다는 것이다. 사실 IV장에 제시된 설문조사와 이에 대한 분석에 대한 내용은 신학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전문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이 논문이 가지는 한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무리 전문적인 내용이다 하더라도 이를 인문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학회에서 이 논문을 발표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이 논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박관희 박사가 예배에서 회중이 어떻게 신앙을 형성시키며 이를 통해 신앙인으로써 삶을 살아가게 하는 과정을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려했는데, 일단 설문조사를 위한 가설을 여러 가지 학문적인 주장들을 중심으로 토대를 만들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회중의 이성, 감성을 통한 신앙의 형성이라는 부분은 예배 신학 영역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놓친 것이라 생각한다. Lex orandi(예배)와 Lex credendi(신학)의 관계에 대한 주제를 연구하는 예배 신학의 영역은 5세기의 아퀴테인의 프로스퍼(Prosper of Aquitaine)의 신학 명제“Ut legem credendi lex statuat supplicandi [예전은 신앙을 형성시킨다]”에서 시작했으며 이 과정을 현대적으로 설명한 아이단 카바나(Aidan Kavanagh)의 주장이 이 논문에서 매우 유용한 가설을 제시했으리라 생각한다. 카바나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적 존재를 경험하는 것의 결과이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예전을 통해 정기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 신앙의 대상을 믿는다.¹⁾

1) Aidan Kavanagh, *On Liturgical Theology* (Collegeville, MN: The Liturgical Press, 1984), 91-92.

카바나는 그의 저서 *On Liturgical Theology*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회중이 신앙을 형성하는 과정을 변증법적으로 설명한다. 예배 속에서 회중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경험이 신앙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3단계를 거쳐 완성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회중은 예배에서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놀람과 혼란을 경험한다. (2) 이 놀람과 혼란의 경험은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와 보이는 은총의 수단인 성례전, 즉 예전을 통해 신앙으로 발전된다. (3) 이 두 과정이 합쳐지면서 회중은 그들이 감정적으로 경험한 것을 이성적인 말씀과 성례전을 받아들이고 이 둘이 융합하면서 신앙이 형성된다. 카바나의 이 3단계 과정은 헤겔의 변증법적인 과정: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위의 과정이 예배에서 감정과 이성의 단계를 통해 신앙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면 이렇게 형성된 신앙은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예배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알렉산더 슈메만의 “오르도로써 예배”²⁾ 개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필자의 생각에 본 논문의 연구를 위한 이론적 가설에 예배 신학적 연구가 도입이 되었다면 예배학 외의 여러 가지 가설들과 연구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연구의 목적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예배를 연구하는 방법은 예배학의 연구 분야에서 다루지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본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질문은 많았으나 학회의 시간 배정을 고려하여 간단하게 예배에서 인지구조의 조절효과 분석에 대해 이곳에 있는 모든 참석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주기를 바란다. 아마도 이 부분이 설문의 결론이고 이 논문의 결론과도 매우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통계학의 언어가 아닌 신학과 인문학의 눈높이에서 이를 설명해주기를 바란다.

2) Alexander Schmemmann, *Introduction to Liturgical Theology*, trans. Asheleigh E. Moorehouse (Crestwood, NY: St. Vladimir's Seminary Press, 2003), 33.

제 13 발표

중년여성의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집단예술치료를 중심으로 -

유 미 녀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 상담심리)

박 경 화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 상담심리학)

I. 들어가는 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17년 세계보건의 날’을 “Depression, Let’s talk”라고 정할 정도로 2030년에는 우울증이 가장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국민 정신질환’이 될 가능성 높은 우울증 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마음의 감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¹⁾ 중년기는 ‘사춘기’라고도 부르는데, 중년기는 인생의 가을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급속한 신체와 심리 정서적 변화를 겪게 되며, 이 급속한 변화는 중년기를 발달적 차원에서 위기의 시기로 인식하게 된다.²⁾ 특히 여성의 중년기는 자신의 임무 역할에 대한 상실감과 안도감이 교차되는 시기로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 본 자료는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유미녀, “집단통합예술치료가 중년여성의 우울 및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 둔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1) WHO global health days, “Depression: Let’s talk-1 Year on,” (World Health Day-7, Apr., 2017).

2) 홍근미, “중년여성의 우울감 해소를 위한 기독교상담 방안,” 「복음과 상담」, 26/1(2018), 275.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신체적으로는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며, 심리적으로는 자아존중감이 상실되고, 사회적으로는 경제적 노후 준비와 관련하여 염려와 불안에 압도되기도 한다.³⁾ 여성은 중년이 되면 신체적 변화, 남편의 은퇴, 자녀의 독립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과 같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상실감과 허무함을 경험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에 대해 전통적으로 기대하는 무한한 희생의 강요, 부정적인 감정은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감정표현의 부재는 여성의 내면에 감추어진 슬픔이 되어 마음의 병, 우울로 나타날 수 있다.⁴⁾

중년기 여성의 우울 유발요인은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다가 배우자의 사망, 실연, 사업실패 등과 같은 외적 사건이나 사고, 이때 발생하는 다양한 정서 경험을 통해 발현된다. 이런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신체적 상실감이나 절망감 등이 우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중년기 우울증 발병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이 시기 여성의 발병률은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참고 살았던 사회를 지나 점차 자기표현이 되고, 지식이 늘면서 우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우울을 주제로 하는 논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선행연구도 2008년 이후 매년 10편 이상의 학위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2008년 19편까지 늘었다.⁵⁾ 우울증은 주로 인지치료적 접근이 우세하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여러 매체를 활용한 연구가 시작하였다. 매체는 주로 예술치료에서 활용되는데, 음악, 미술, 연극, 놀이, 무용, 동작 등의 다양한 예술의 특성에 따라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연극치료 등으로 나뉘고, 2가지 이상의 매체를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예술치료라고 한다.⁶⁾ 통합예술치료는 긍정적 감정을 넘어 억압된 공포와 분노, 질투, 불안, 소외감 등 인간의 기본 정서와 사고를 매체로 표현하도록 하고, 신체조절을 도와 호르몬 분비와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통합예술치료는 중년여성이 겪는 신체변화에 적응하도록 도와준다.

최근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예술치료를 적용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우울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통합예술치료를 적용한 연구는 상당히 드물다. 통합예술치료는 무용, 음악, 미술, 문학 등의 각 예술 분야에서 통합 학문적 상호작용 모형을 기초로 예술과 심리학, 예술과 치료 및 교육의 벽을 허물고 각 전공 분야를 실제 생활의 영역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중년여성의 우울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여러 매

3) Daniel J. Levinson, 『여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김애순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151-153.

4) 김명리, “우울 중년 여성을 위한 미용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

5) 장영주·김미진, “우울에 대한 예술심리치료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예술심리치료연구』, 12/2(2016), 123.

6) 김진숙, 『샤머니즘과 예술치료』, (서울: 학지사, 2010), 18.

체를 활용한 집단통합예술치료의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성을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⁷⁾ 중년기 여성 우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울 극복을 위해 긍정성이나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년여성이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성이 높아지면, 우울 극복은 물론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였다.⁸⁾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들과 달리 우울과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삶의 질이 중년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집단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중년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II. 중년여성의 이해과 특징

1. 중년기 여성의 이해

중년기는 인생의 전반에서 후반으로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생산성 대 침체성이라는 일곱 번째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이다.⁹⁾ 생산성으로 성숙한 성인이 다음 세대를 구축하고 이끄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중년기 성인들은 다음 세대를 인도한다. 즉, 자녀를 낳아 기르고, 젊은 세대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함으로써 인생의 중요한 측면을 통해 사회 존속과 유지를 위해 헌신한다.¹⁰⁾ 성인중기인 중년기에는 외모의 변화, 갱년기 등 신체적·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되며 자녀의 결혼, 노부모의 사망, 은퇴 등의 생활사건을 경험한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책임을 맡게 되는 동시에 인생의 목표와 성취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지난 삶에 대해 재평가하는 시기이다.¹¹⁾ 중년여성은 대부분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신체의 변화를 통해 깨닫기 시작한다. 신체변화는 전 생애에 나타나지만, 중년기 신체변화는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¹²⁾ 중년여성의 경우 식욕부진, 피로감, 불면증, 체중 감소 등을 경험하며 슬픈 감정이 더욱 심해지고 생활에 대한 흥미와 관

7) 박명해·박은아·천성문,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3/3(2017), 24.

8) 이성주, “중년기 여성의 회복탄력성이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65.

9) 정태기, 『위기목회상담』, (서울: 기독교서회, 2012), 196.

10) 문혁준 외 5인, 『정신건강론』, (서울: 창지사, 2017), 98.

11) 문혁준 외 5인, 『정신건강론』, 98.

12) 정옥분,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1), 569.

심이 줄어들면서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중년기에 나타나는 성적 변화 중 여성의 폐경은 가장 대표적인 변화이다. 폐경은 대체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에 나타나며, 폐경을 전후하여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이 나타난다. 얼굴의 홍조, 식은땀, 만성적 피로감, 메스꺼움, 심장 박동의 증가는 대표적인 신체적 증상으로 이러한 신체적 증상과 함께 우울, 초조, 불안정 등 갱년기의 심리적 증상들이 동반된다.¹⁴⁾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중년기 여성들은 신체적 변화, 그리고 자녀의 독립에 따른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갈등하게 될 때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¹⁵⁾ 폐경이 되기 전에 정서적으로 잘 적응해 온 여성이라면 폐경에 따르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지만, 어떤 여성들은 폐경으로 인해 불안, 우울감, 자존감의 상실, 성취감의 결여와 같은 정서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자신은 더는 신체적인 매력이 없으며, 성생활을 상실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변화들로 인해 여성들은 자신의 피로움을 잊거나 벗어나기 위해 술이나 담배에 심취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외부세계와 고립된 채로 혼자 지내거나 우울한 상태로 시간을 보낸다.

중년기는 심리적, 사회적 단서를 획득하는 시기로, 직업과 가족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만, 자신의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이 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위기의식을 경험하며, 자녀가 가정을 떠난 이후에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다.¹⁶⁾ 사회적으로 위축되며 점점 약해지는 자신을 보면서 상실감과 괴리감에 빠져,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평가절하와 비판적 경향이 생기고 갱년기 위기와 더불어 정신병적 우울증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¹⁷⁾ 중년여성의 경우 신체적 노화와 갱년기 증상을 겪으면서 의욕이 감퇴하거나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기 쉬워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는 우울과 깊은 관련이 있다.¹⁸⁾ 특히 여성의 호르몬 불균형은 정서적 안정성 및 성격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남성보다 우울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⁹⁾ 우울의 정도는 중년 기혼여성의 경우, 그간 중심적으로 해오던 어머니 역할이 자녀의 성장과 결혼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의문이나 공허감, 상실감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²⁰⁾

13) 김춘경, “중년기 우울 여성의 우울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1/4(2010), 1902.

14) 이선경·하승연, 『발달심리』, (서울: 교육아카데미, 2010), 296-297.

15) 이평숙, “중년 여성의 분노, 지각된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상태와의 관계,” 「성인간호학회지」, 15/3(2003), 861.

16) 전석균, 『정신건강론』, (경기: 공동체, 2017), 270-272.

17) 이영호, 『정신건강론』, (경기: 공동체, 2017), 86.

18) 박금자, “중년기 여성의 우울 구조모형,”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1(2002), 74.

19) 정원임, “중년여성의 빈둥지중후군 극복을 위한 독서치료 적용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9.

20) 송은미·이승연, “중산층 중년 기혼여성의 건강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과의 관계에서 자아정체

2. 중년기 여성의 특징

1) 중년기 여성의 우울

우울장애는 슬픔, 공허감, 짜증스러운 기분과 그에 수반되는 신체적, 인지적 증상으로 인해 개인의 기능을 현저하게 저하되는 부적응 증상을 의미한다. 우울장애는 삶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드는 정신장애인 동시에 ‘심리적 독감’이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혼란 장애이기도 하다.²¹⁾ 이와 같은 우울증은 단순히 우울한 기분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에 수반되는 다양한 정서표현을 나타내고, 동시에 생각도 우울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행동의 장애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수반한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사회관계를 맺어가는 데에도 어려움을 초래한다. 대표적 우울장애로 주요 우울장애와 기분부전증이 있으며, 주요 우울장애는 우울장애 중 우울증상의 정도가 가장 심한 경우이며, 기분부전증은 주요 우울장애보다 심하지 않은 증상이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DSM-5)의 진단 기준은 제시된 9가지 증상 중 5가지 이상이 최소 2주간 거의 매일 지속되며 과거보다 기능이 저하된 경우로 1) 우울한 기분, 2) 흥미나 쾌락의 상실의 한 가지 증상에 속해야 한다.²²⁾ 중년여성 우울증은 일차적으로 기분의 장애이며, 기분은 지속적인 정서 상태로 일시적인 감정 상태와는 구별되며, 자신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갈수록 진정한 자신에게서 멀어지며, 우울증이 된다.²³⁾ 중년여성의 영성이 행복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와 행복요인이 정적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²⁴⁾ 우울은 우울한 감정의 정도나 지속 기간, 그리고 그 결과가 일시적으로 느끼는 경미한 우울함과 다른 병적인 상태로 인지적 증상이나 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상이 혼합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1> 정신장애 DSM-5의 우울증 진단기준

1. 거의 하루종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2.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 또는 쾌감의 감소
3. 현저한 체중감소 또는 증가, 식욕의 감소 또는 증가
4. 불면 또는 수면과다
5. 정신운동성 초조 또는 지체

감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20/4(2015), 535.

21) 권석만,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7), 300.

22) APA, 『DSM-5 우울장애』, 강진령 옮김, (서울: 학지사, 2017), 11.

23) 최외선 외 4인, 『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2013), 333.

24) 홍주연·윤미, “중년여성의 영성이 행복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2013), 230.

-
- 6. 피로 또는 에너지 상실
 - 7.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 8. 사고능력 또는 집중력의 저하 또는 우유부단
 - 9.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사고 또는 자살기도
또는 자살 기도에 관한 구체적 계획
-

2) 중년기 여성의 자아정체감

중년여성은 남편과 자녀양육을 통해 정체성 경험과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이 끝나감에 따라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체력의 저하, 죽음에 대한 불안감, 삶의 회의감, 전반적 부부의 한계감 등으로 중년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때 자신의 신체적·심리적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는가에 따라 자아정체감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²⁵⁾ 중년기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 지위, 자존심과 우울, 삶의 만족도 등이 중년기 여성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며, 신앙생활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게 형성된다고 하였다.²⁶⁾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자아정체감 수준 간에는 역 상관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서로 역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²⁷⁾ 중년기 여성에 있어 자아정체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는 건강상태와 종교였다.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고 종교를 가진 여성의 자아정체감이 더 높았다.²⁸⁾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과 불안감을 느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진다고 주장하였다.²⁹⁾ 중년여성들은 스스로가 자아정체감 향상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지식 및 습득기회가 부족하므로 치료적 접근이 아닌 폭넓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주는 코칭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결과, 중년여성들은 자신에 대한 성격과 내면세계를 파악하게 하고, 타인과의 상호관계형성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능동적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자아정체감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³⁰⁾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의한 중년 여성의 위기감과 자아정체감, 자아분화 차이의 수준에 대한 연구결과 중년의 위기감은 중년여성의 결혼상태와 건강상태, 자녀 수, 생활수준, 부모형제관계에 영향이 있어 중년여성이 인식하는 자아정체감에 차이가 있으며, 자아정체감이 낮을수록 중년기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25) 박금자·이경혜, “중년여성의 우울 구조모형,”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1(2002), 80.

26) 이경혜, “중년여성 역할적응 자아정체감,” 164.

27) 오명옥·고효정·박청자, “중년기 기혼 남녀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개발연구원」, 16/4(2000), 402.

28) 이복희·박아청·이경혜, “중년기 취업여성 가계경제수준,” 113.

29) 송은미·이승연, “중산층 중년 기혼여성 스트레스, 우울, 불안,” 528.

30) 이나검,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 향상을 위한 미술기반 아트코칭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89.

3) 중년기 여성의 자아존중감

중년기는 심리·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로서,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가치감과 자존감에 혼란을 겪게 되며 특히 여성의 경우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장애 및 자각 증상들이 유발된다.³²⁾ 이처럼 심리적으로는 자신이 없는 낮은 자존감은 중년기 우울증이 되어 불안, 초조, 고민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중년여성은 자신이 우울증이 아니라고 말한다. 주로 기분이 우울하다는 표현 대신에 몸이 아프거나 잠이 오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며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점점 약해지는 자신을 보면서 상실감과 괴리감이 생긴다.³³⁾ 중년기는 정서 발달 과정 속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변화가 오며 인생의 새로운 시기로 들어가는 과도기에 속한다. 여성은 아내, 어머니가 되고 결혼 10여 년이 지나 중년기에 들어서면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중년기에 여성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다시 시작 할 수 있을까 등의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자아정체성의 문제를 유발한다.³⁴⁾ 이 혼란은 더 이상 아내와 어머니 역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자각을 통해 독자적, 자아정체성을 수립하고자 하게 된다. 이 시기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고자 하며,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³⁵⁾

과거 여성들의 최고의 가치감이나 자아개념은 자신보다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로서 역할기능의 결과로 보았으며, 자신의 성공보다 남편과 자식이 성공하는 것에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현대 중년기 여성은 자신의 가치 중요성을 염두에 두으로써 자아존중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³⁶⁾ 중년기 여성은 자녀나 남편의 성공과 동일시함으로써 인해 가족 내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자신의 역할과 기능의 부족으로 인식하게 되어 죄책감, 우울감, 불안 등을 초래하게 된다.³⁷⁾ 심리적으로는 자신이 없는 낮은 자존감이 중년여성의 우울증을 일으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낮은 자존감이나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사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는 이별과 같은 상실의 경험이 우울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³⁸⁾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31) 성윤주·도민정, “중년기 기혼 여성 자아정체감 부부친밀도,” 94.

32) 박금자 외 5인, “중년여성의 지각된 생활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의 관계,” 「전인간 호과학연구소 학술모음집」, 창간호(2002), 109.

33) 전석균, 『정신건강론』, 281-282.

34) 황영선, “우울성향의 중년 여성 사례에서 모래놀이치료의 활용,”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0/4(2007), 92.

35) Duvall, E, and Miller. B. C,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6th ed.)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1985). 79.

36) 김영숙·최규련, “중년기 여성의 내외통제성과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2006), 189.

37) 이복희, “취업 및 미취업 중년기 기혼여성,” 15.

38) 함정선, “중년여성의 라인댄스 체험과 우울증 극복,” 12-14.

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높은 책임감과 주체적 사고, 성실성은 물론 정직함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중년여성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자아존중감에 따라서 개인의 행동 양식, 성취동기, 목표의 계획 및 달성, 자아실현, 사회 적응행동 등이 달라진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중년여성은 스스로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능력이 자신보다 나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며, 자아존중감은 삶의 사고과정, 감정, 욕구, 가치 그리고 목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³⁹⁾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의 적응수준은 높으며, 심리적 안녕은 물론 생활 만족, 행복감, 의욕 및 긍정 감정이 있다.⁴⁰⁾ 자아존중감은 중년여성의 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존감이 높다는 것과 생활의 만족과 우울을 비교적 잘 이겨내고 미래의 삶이 풍요롭게 된다는 것이다. 자존감 회복은 중년여성의 마음의 평안과 자신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한다.

4) 중년기 여성의 삶의 질

중년기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적 변화나 가족관계 혹은 자신의 인생에 관한 내적 통제감의 정도, 자기 일과 역할에 대한 자긍심이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더 좋은 감정을 느끼며 원활한 일상생활과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체적인 삶의 질은 과거와 현재의 인생 전체에 대한 만족도로 평가했다.⁴¹⁾ 중년기 여성들이 심리적 만족이 이루어질 때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의식을 갖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가정생활에서나 사회 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 삶의 회의에 빠질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하였다.⁴²⁾ 중년기 여성 자신의 존재가치에 따른 위기감, 그동안 무시당하고 억압되어온 자아를 찾으려는 갈등과 혼란 속에서 의식 전환이 요구되며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중년기 여성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야 하는 위기에 직면하여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 탐구와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는 특정한 삶의 전환기를 경험하게 된다.⁴³⁾ 삶의 질이 질적인 가치로 인간성장과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 및 심리

39) 김영숙·최규련, “중년기 여성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 181.

40) 서은희·최규련·정영숙, “중년 여성의 노화 불안과 미래 시간 조망 및 행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2(2018), 38.

41) 안은미·허정무, “중년여성 평생학습 참여 주관적인 삶,” 110.

42) 임명남·이명우, “중년여성의 우울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 독서치료 단일사례연구,” 「독서치료연구」, 10(2018), 34.

43) 김미선, “긍정심리 집단상담 중년기 여성 위기 극복,” 31.

적 과정으로 개인의 가치 체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안녕감, 행복감으로 주관적 평가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⁴⁴⁾

삶의 전환기에서 맞게 되는 중년기 여성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인생의 후반기를 위해 성숙하지 않으면 그 갈등과 위기는 개인적 위기를 넘어서 가정과 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에 대한 재평가 및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중년여성이 자신을 재평가하며 중년의 위기를 안정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삶의 질적인 면에서 변화를 위한 사회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⁴⁵⁾ 우울증에 대한 차별과 편견 때문에 우울증 환자와 가족은 모두 우울증을 숨기게 됨으로써 우울증이 만성화되고 치료가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우울증에 대한 편견 해소 방안 모색과 함께 이보다 근본적인 이해와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⁴⁶⁾ 즉 중년기 여성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야 하는 위기에 직면하여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 탐구와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는 특정한 삶의 전환기를 경험하게 된다.⁴⁷⁾ 중년여성의 삶의 만족도는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개인 자신이 인지하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삶의 만족도로 중년여성은 자신의 행복 정도와 만족을 위해 개인의 욕구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싶어 한다. 중년여성이 이 시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중년여성의 삶은 삶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⁴⁸⁾ 중년여성이 정서적 만족감을 갖지 못할 때 삶의 목표에 대한 불안감, 압박감을 경험하게 되며, 또래 여성과 비교하여 위축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며, 중년기 여성은 가정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 심각한 삶의 회의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⁴⁹⁾

3. 중년기 여성의 집단통합예술치료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은 표현하기 힘든 감정과 생각들을 예술 매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도록 함으로써 중년여성이 겪는 다양한 신체

44) 김명소·한영석, “중년여성의 삶의 질과 행복,”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2006/1 (2006), 204-205.

45) 정원임, “중년여성 빈둥지증후군 극복 독서치료,” 9-10.

46) 이화심, “우울증 아내를 돌보는 중년 남성의 심리적 경험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7.

47) 김미선, “긍정심리 집단상담 중년기 여성 위기 극복,” 22-26.

48) 구본진, “중년 여성의 극복력, 희망, 부부친밀감,” 424.

49) 김수진·김세영, “중년여성의 부부친밀감, 우울과 갱년기 증상의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3(2013), 181.

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중년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므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인 급격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요인이라 할 수 있다.⁵⁰⁾ 예술치료는 몸을 움직여 근육활동에 도움을 주며, 상호 통합적 예술 활동을 통해 방어를 감소시키고, 자율성을 향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조화와 통합을 도와서 우울 증상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⁵¹⁾ 최민선과 박은선의 연구에서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자신의 내적욕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수용하면서 스스로 갈등에 대해 인식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가 넓어졌으며, 스스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하며, 심리적 안녕감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되었다. 성인여성에게 자기 인식과 통통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제공하는 데 효과적이고 중요한 중재가 될 수 있다.⁵²⁾ 다양한 예술치료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예술치료가 우울증에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술치료는 심리치료에서 개입하지 못한 신체치료와 의료치료에서 개입하지 못한 우울증 이면 기체에 대한 탐색을 가능하게 하여 우울증에 적절한 치료가 된다.⁵³⁾ 다양한 연구 사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울과 관련된 예술심리치료의 효과성을 알 수 있었으며, 양적 평가와 회기별 질적 내용을 기술한 복합연구가 많았다.⁵⁴⁾ 이에 본 연구에서도 집단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하려고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P시에 소재하고 있는 Y상담센터 교육 수강자 중 BDI의 10점~23점 범위에 속한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경도와 중등도 28명을 각 14명씩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무선할당하였다. 28명의 중년을 대상으로 연구의 의미와 과정을 공지한 후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실험집단

50) 원상화, “다문화가족 심리지원을 위한 국내 예술심리치료 적용 연구 동향 분석,” 「예술심리치료연구」, 13/3(2017), 18.

51) 이은경·원상화, “통합예술치료프로그램이 노년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0/4(2014), 251.

52) 최민선·박은선, “자기성찰을 중심으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3/1(2017), 77-78.

53) 강경선, “우울증과 예술치료적 창조성,” 456.

54) 강여주·김미진, “우울에 대한 예술심리치료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예술심리치료연구」, 12/2(2016), 121.

과 통제집단은 무작위 할당으로 배정되었으며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사전에 두 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선정된 28명 중에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실험집단 14명과 통제집단 14명으로 연구 진행을 시작하였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 14명 중 출석률이 낮은 2명을 제외한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은 사후검사에 참여하지 않은 2명을 배제한 후 12명을 확정하여 무처치를 하였다.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적용의 효과성을 알아보려는 연구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비교모형으로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모형은 <표 2> 와 같다.

<표 22> 연구 설계모형

| 구 분 | 사전검사 | 실험처치 | 사후검사 |
|------|------|------|------|
| 실험집단 | E1 | X | E2 |
| 통제집단 | C1 | Y | C2 |

E1, E2 : 실험집단 사전-사후검사 (우울검사, 자아정체감 검사, 자아존중감 검사, 삶의 질 검사)

C1, C2 :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 (우울검사, 자아정체감 검사, 자아존중감 검사, 삶의 질 검사)

X : 실험처치-집단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Y : 무 처치

실험집단의 독립변수는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두 집단 모두 우울,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삶의 질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험집단에 16회기 프로그램 시행 전과 후에 사전-사후 검사를 시행하여 변화를 측정하였다.

3. 연구도구

1) 우울척도검사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우울을 측정을 위하여 Beck이 개발한 우울척도를 이

영호와 송중용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이미경의 연구로 검증되었다.⁵⁵⁾ 판정기준은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되며 총점은 63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상(1-9), 가벼운 우울(10-15점), 중한 우울(16-23), 심한 우울(24-63)로 구분되었고 Cronbach's α 는 0.84이다. 우울 척도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은 <표 3>과 같다.

<표 23> 우울척도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

| 하위요인 | 문항번호 | 문항 수 |
|--------|---------------------|------|
| 정서적 증상 | 1, 2, 4, 5, 10 | 5 |
| 인지적 증상 | 3, 6, 7, 8, 9, 13 | 6 |
| 동기적 증상 | 11, 12, 14, 15, 16 | 5 |
| 생리적 증상 | 17, 18,, 19, 20, 21 | 5 |
| 계 | 1-20 | 21 |

2) 자아정체감척도검사

자아정체감 척도는 이경혜가 중년기 여성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수정하여 문항분석 후 선정된 20문항을 요인분석 하여 6개의 요인으로 추출된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⁵⁶⁾ 장영림의 연구에서 검증되었으며 총 20개 문항 중 9개 문항은 긍정적인 문항이며, 11개 문항은 부정적으로 문장이 구성되었으며 11개의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주었다. 각 문항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5점 방식으로 평균점수는 1점에서 5점 범위로 환산하였다. 높은 점수일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으며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낮다. 자아정체감 척도(Dignan Ego-identity Scale)에 대한 Cronbach's α 는 0.90이다. 자아정체감척도검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분석은 <표 4>와 같다.

<표 24> 자아정체감척도검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분석

| 하위요인 | 문항번호 | 문항 수 | Cronbach's α |
|--------|--------------------|------|---------------------|
| 정체성 유예 | 2*, 8*, 9* | 3 | 0.566 |
| 목표지향성 | 1, 10, 11 | 3 | 0.670 |
| 정체성 혼미 | 12*, 13* | 2 | 0.840 |
| 친밀성 | 3*, 4*, 5*, 7*, 14 | 5 | 0.703 |
| 자기수용 | 15*, 16* | 2 | 0.732 |

55) 이미경, “집단통합예술치료가 우울한 자활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불안, 우울 및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0.

56) 이경혜, “중년여성 역할적응 자아정체감,” 162.

| | | | |
|-----|-------------------|----|-------|
| 주도성 | 6, 17, 18, 19, 20 | 5 | 0.688 |
| 계 | 1-20 | 20 | 0.900 |

문항: 역점수화

3) 자아존중감척도검사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가 개발한 척도를 자아존중감을 사용하였는데 박송희의 연구에서 검증되었다.⁵⁷⁾ 이 척도는 25개의 문항으로 자기보고식 필답검사로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은 자기존중, 타인과의 관계, 지도력과 인기, 자기주장의 4개 영역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척도 5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0.72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척도검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분석은 <표 5>와 같다.

<표 25> 자아존중감척도검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분석

| 하위요인 | 문항번호 | 문항 수 | Cronbach’s α |
|-------------|-----------------------------------|------|---------------------|
| 자기 비하 | 1 *, 3 *, 15 *, 16 * | 4 | 0.822 |
| 가족(타인)과의 관계 | 6 *, 7 *, 9 *, 10, 20, 21 *, 22 * | 7 | 0.830 |
| 지도력과 인기 | 2 *, 5, 8, 14, 18 *, 25 * | 6 | 0.898 |
| 자기주장과 자신감 | 4, 12, 13 *, 17 *, 19, 23 *, 24 | 7 | 0.811 |
| 계 | 1-24 | 24 | 0.957 |

문항: 역점수화

4) 삶의 질 척도검사

삶의 질 척도-단축형 삶의 질 신뢰도는 0,825로 WHO는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100문항의 삶의 질 원척도와 26문항의 삶의 질-단축형척도를 개발하였다.⁵⁸⁾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WHO가 제작한 WHOQOL-BREF를 번안한 한국판 WHOQOL-BREF를 사용하였고, 각 문항은 1~5점까지 평정되며, Cronbach’s α 는 0.90이었다.⁵⁹⁾ 한국판 WHOQOL-BREF은 5개의 하위요인으로 전반적 영역 2문항

57) 박송희, “REBT 집단상담을 적용한 원예치료가 중년기 여성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정서변화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61.

58) 민성길·김광일·박일호,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지침서』, (서울: 하나의학사), 54-61.

59) 민성길·김광일·박일호,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54-61.

(1, 2), 신체적 영역 7문항(3, 4, 10, 15, 16, 17, 18), 심리적 건강 영역 6문항(5, 6, 7, 11, 19, 26), 사회적 관계 영역 3문항(20, 21, 22), 환경 영역 8문항(8, 9, 12, 13, 14, 23, 24, 25)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 영역에서는 전반적 삶의 질과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삶의 질 척도검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분석은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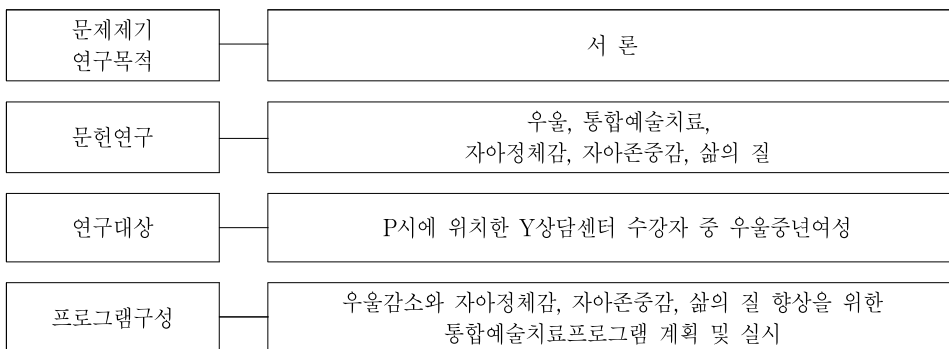
<표 26> 삶의 질 척도검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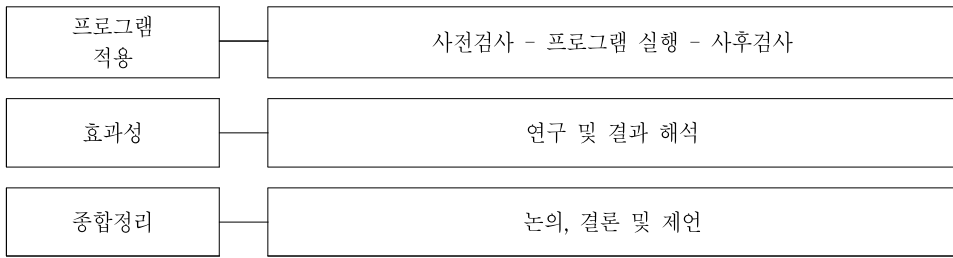
| 하위요인 | 문항번호 | 문항 수 | Cronbach's α |
|----------|------------------------------|------|---------------------|
| 전반적 영역 | 1, 2 | 2 | 0.653 |
| 신체적 영역 | 3, 4, 10, 15, 16, 17, 18 | 7 | 0.793 |
| 심리적 건강영역 | 5, 6, 7, 11, 19, 26 | 6 | 0.808 |
| 사회적 영역 | 20, 21, 22 | 3 | 0.660 |
| 환경적 영역 | 8, 9, 12, 13, 14, 23, 24, 25 | 8 | 0.844 |
| 계 | 1-26 | 26 | 0.933 |

4.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들에게 프로그램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2017년 12월 5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4개월간 주 1회, 회기 당 90분씩 총 16회기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집단프로그램 실에서 진행하였으며 사전-사후검사는 프로그램 회기 시작 전과 종결 후 별도의 시간에 작성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시 실험집단에 사전교육을 받은 심리상담사 4명이 함께하였으며, 각각 회기별 작품사진과 참여자의 행동관찰을 기록하였으며 프로그램 진행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진행과정은 <표 7> 과 같다.

<표 27> 연구진행과정





5. 프로그램 구성

1) 회기 내 프로그램 진행절차

본 연구의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은 매 회기별 도입, 활동, 나누기, 마무리 단계로 진행하였으며, 도입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주제 및 방법에 대한 설명과 현재의 감정을 나눔으로서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하였고, 활동단계에서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으며, 나누기 단계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작품을 감상하고 피드백과 격려를 하였으며, 마무리 단계에서는 전체 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원으로 선 후 서로 안아주기와 인사로 마무리를 하였다. 활동목표를 재인식하고 환경정리를 하도록 하였다. 회기 내 구성은 <표 8> 과 같다.

<표 28> 회기 내 구성

| 단 계 | 활 동 내 용 | 시간 |
|-----|---|-----|
| 도 입 | - 인사 및 현재의 감정 나누기 - 프로그램 주제와 규칙 설명하기 | 20분 |
| 활 동 | - 프로그램 활동 진행하기 | 20분 |
| 나누기 |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자신의 작품 설명과 느낌나누기 - 타인의 작품에 대해 피드백과 격려하기 | 30분 |
| 마무리 | - 전체 활동에 대한 소감나누기 - 원으로 선 후 서로 안아주며 인사와 마무리하기 | 20분 |

2) 프로그램 단계별 구성 내용과 목표

본 프로그램은 초기, 중기, 후기의 3단계 총 16회기로 구성하였다.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은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의 한국예술심리상담사 교육과정을 통한 관련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통합예술치료프로그램 활동 목표는 초기 단계에서는 자신과 타인을 탐색하며 친밀감을 형성하고 다양한 예술매체를 탐색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자발적 참여와 동기를 향상하도록 하였으며, 중기 단

계에서는 자신의 장단점을 탐색하며 긍정과 부정의 자신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수용을 함으로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통한 자율성을 향상하도록 하였다. 자기가치를 인정하고 자기존중을 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지각과 자기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통합을 함으로써 삶의 전반적인 영역인 신체, 정신, 사회, 경제 등의 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 집단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구성개요는 <표 9>와 같다.

<표 29> 집단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구성 개요

| 구분 | ⇒ | 목 표 |
|----|---|---|
| | | ↓ |
| 초기 | ⇒ | 자기인식의 단계 (1회기~6회기) 친밀감 형성을 통한 긴장이완 및 자기탐색 자기지지와 격려를 통한 자기 공감 매체활용을 통한 프로그램에 자발적 동기향상 |
| | | ↓ |
| 중기 | ⇒ | 자기수용의 단계 (7회기~12회기) 자신의 장점, 단점탐색을 통한 적극적 자기수용 긍정과 부정의 자기인식 및 수용 긍정적 대인관계를 통한 자율성 향상 |
| | | ↓ |
| 후기 | ⇒ | 자기통합의 단계 (13회기~16회기) 자기지각과 자기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통합 자기가치인정 및 긍정적인 자기존중 신체, 정신, 사회, 경제 영역의 삶에 대한 만족도 향상 |

중년여성 집단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은 주요 요인인 우울과 자아 정체감, 자아존중감,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회기는 ‘자기소개’, 2회기는 ‘난화 이야기’, 3회기는 ‘나의 인상’, 4회기는 ‘쓰레기 감정’, 5회기는 ‘내면과 외면’, 6회기는 ‘중요한 존재’로 초기 단계는 자기에 대한 지지와 개방을 함으로써 자기탐색을 하도록 했다. 7회기는 ‘나의 첫 기억’, 8회기는 ‘내 안의 분노’, 9회기는 ‘화해와 용서’, 10회기는 ‘내 몸 위로하기’, 11회기는 ‘장점과 단점’, 12회기는 ‘장점물물교환’은 중기단계로 긍정과 부정의 자기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기수용을 하도록 했다. 13회기는 ‘받고 싶고 주고 싶은 선물’, 14회기는 ‘유서액자’, 15회기는 ‘희망나무’, 16회기는 ‘작품전시회’로 자기를 존중하고 삶에 대한 전반적 영역에 향상을 도와 통합하도록 돕는 후기단계인 자기통합단계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중년여성 집단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의 단계별 세부 활동목표는 <표 10> 과 같다.

<표 30> 중년여성 집단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 단계 | 회기 | 주제 | 활동내용 | 활동목표 | 영역 |
|----|----|-----------|--|---|----------------|
| 초기 | | 예비 모임 | - 치료과정 안내 - 검사하기 - 목표설정 | | |
| | 1 | 자기 소개 | - 이름을 쓴 후 끝 글자에 선을 멈추지 않고 이어서 남은 공간에 선으로 꾸민 다음 자기 소개를 함 | - 변화된 자기탐색 및 재인식 - 긍정적 미래에 대한 자기효능감 향상 | 미술 |
| | 2 | 난화 이야기 | - 두 명이 검지손가락을 마주하고 한 사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한 후 바꿔서 함 - 인원을 늘려가며 비언어 난화한 후 집단원들끼리 한 문장으로 글짓기를 함 | - 자기탐색 및 타인탐색 - 긍정적 대인관계형성 | 동작 미술 문학 |
| | 3 | 나의 인상 | - 화지에 자기이름을 쓴 후 왼쪽으로 넘기면 이름을 쓴 사람의 인상 이미지나 모양 등으로 표현함 | - 타인관찰 및 객관적 자기인식 -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 | 놀이 음악 |
| | 4 | 쓰레기 감정 | - '쓰레기 진주'동화책을 듣고 난 후 시, 노래, 글 등으로 나만의 책을 만듦 | - 부정감정의 인식 및 표현 - 주도적 심상탐색 및 자기 공감 | 독서 음악 문학 |
| 중기 | 5 | 내면과 외면 | - 자신이 보는 내 모습과 타인이 보는 내 모습을 상자의 내외부에 꾸밈 | - 인식된 자아와 페르소나 탐색 - 자신의 그림자 이해 및 수용 | 놀이 미술 |
| | 6 | 중요한 존재 | - 현재 나에게 가장 중요 한 존재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림으로 표현함 | - 소중한 자원 탐색 - 자신의 실존적 가치 인식 | 미술 |
| | 7 | 나의 첫 기억 | - 나의 첫 기억을 작품화한 다음 '진 화하기' 동작과 함께 '첫 기억' 속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집단과 함께 외침 | - 미해결 과제 탐색 및 표출 - 공감의 독려 및 부정감정 정화 | 미술 놀이 |
| | 8 | 내안의 분노 | - 가장 두렵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떠올린 후 신문지를 찢고 공으로 만들어 던지며 분노감정을 표출함. | - 분노감정 인식 및 표출 - 정화를 통한 자기 공감 | 동작 |
| | 9 | 화해와 용서 | - 용서하거나 화해하고 싶은 사람,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 후 나눔 | - 부정감정의 표출 및 정화 - 문제해결에 대한 사고확장 | 미술 |
| 종료 | 10 | 내 몸 위로 하기 | - 아픈 곳을 붉은 칼라시트로 붙여준 다음 통증이 있는 곳의 칼라시트를 떼어 풍선에 옮겨 붙인 후 아픔아 떠나가라'를 외치며 침핀으로 풍선을 터뜨림. | - 상처치유에 따른 위안과 안정 - 자기주도적 대처능력 강화 | 동작 놀이 |
| | 11 | 장점과 단점 | - 신체모양을 본뜨고 꾸민 다음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쓴 후 다른 집단 | - 친밀감 강화 및 표현력 증대 - 자기수용 및 타인공감 | 동작 미술 |

| 단계 | 회기 | 주제 | 활동내용 | 활동목표 | 영역 |
|--------|----|--------------------|---|---|----------|
| | | | 원이 장점을 추가함. | | |
| | 12 | 장점 물물 교환 | - 자신의 장점을 몸에 붙인 후에 사려는 이유와 목적을 말한 후 물물교환을 함. | - 자기이해 및 가치감 향상 - 주도적 욕구 반영 및 실행 | 놀이 미술 |
| | 13 | 받고싶고 주고싶은 선물 | - 받고 싶은 선물, 주고 싶은 선물을 잡지 플라주로 표현함 | - 삶에 대한 만족감과 위로 - 감사에 따른 심리적 만족감 강화 | 미술 |
| | 14 | 유서 애자 | - 유서를 쓴 다음 꾸며 봄. | - 인적자원탐색 및 자기수용 | 미술 문학 |
| 후 기 | 15 | 희망 나무 | - 집단을 세 그룹으로 나눈 후 이름을 정한 나무를 꾸민 다음 집단 원들에게 성장에 대한 지지나 희망의 메시지를 포스트잇에 씀. | - 그룹 작업을 통한 집단 응집력 강화 - 삶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 고취 | 미술 문학 |
| | 16 | 작품 전시회 | - 지금까지 완성했던 작품을 전시하고 변화과정을 나눔. | - 변화된 자기탐색 및 재인식 - 긍정적 미래에 대한 자기효능감 향상 | 미술 |

6. 결과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집단통합예술치료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교차분석(카이제곱)을 사용하였으며,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Fisher검증을 실시하였다.
- 2) 연구의 종속변인(우울,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삶의 질)에 대한 하위요인의 내적 Cronbach's α 검증으로 신뢰도 계수를 확인하였다.
-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비교를 위해 사전, 사후에 독립표본,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시기에 따른 상호작용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wo-way mixed ANOVA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집단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집단통합예술치료프로그램 실시 전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구 분 | 실험집단 | | 통제집단 | | |
|------|--------|-----|------|-----|------|
| | N | (%) | N | (%) | |
| 연 령 | 40대 | 4 | 33.3 | 8 | 66.6 |
| | 50대 | 8 | 66.7 | 4 | 33.3 |
| 학 력 | 고졸 | 8 | 66.7 | 1 | 8.3 |
| | 전문대졸이상 | 4 | 33.3 | 11 | 91.7 |
| 결혼상태 | 초혼 | 11 | 91.7 | 12 | 100 |
| | 재혼 | 1 | 8.3 | - | - |
| 결혼연수 | 1~10년 | 1 | 8.3 | 1 | 8.3 |
| | 11~20년 | - | - | 3 | 25.0 |
| | 21~30년 | 7 | 58.3 | 5 | 41.7 |
| | 31년이상 | 4 | 33.3 | 3 | 25.0 |
| 종 교 | 기독교 | 8 | 66.7 | 11 | 91.7 |
| | 불교 | 2 | 16.7 | 1 | 8.3 |
| | 무교 | 2 | 16.7 | - | - |
| 직 업 | 사무/전문직 | 4 | 33.3 | 7 | 45.8 |
| | 판매/서비스 | 6 | 50.0 | 1 | 29.2 |
| | 기타 | 2 | 16.7 | 4 | 25.0 |
| 우울경험 | 있음 | 8 | 66.7 | 7 | 58.3 |
| | 없음 | 4 | 33.3 | 5 | 41.7 |
| 계 | | 12 | | 12 | |

2.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

1) 집단통합예술치료가 우울 감소에 미치는 영향

통합예술치료가 중년여성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사전-사후 검증결과 하위요인 중 정서적 증상, 인지적 증상, 동기적 증상 및 전체 우울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용기반의 통합예술치료가 중년여성의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 변화를 주었으며,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우울정서 감소 및 신체 행동둔화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대인관계 회복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⁶⁰⁾ 초기 단계에서는 ‘자기소개’, ‘난화’, ‘나의 인상’ 등의 주제 활동을 통해 자연

60) 오민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중년기 여성 우울에 미치는 효과,” (평택대학교

스럽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편안한 감정을 공유하며 긴장을 이완시킬 수 있었다. 중기단계에서는 ‘장점과 단점’, ‘장점 물물 교환’ 등의 주제 활동을 통해 친밀감을 강화하고 표현된 자신을 수용하며 자기를 이해할 수 있었다. 후기단계에서는 ‘유서액자’, ‘희망나무’ 등의 주제 활동을 통해 자신을 지각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나아가 긍정적 자기통합을 위한 기대감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증상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였으며 우울 감소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2) 집단통합예술치료가 자아정체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통합예술치료가 중년여성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의 사전-사후검증결과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정체성 혼미, 친밀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수용 및 전체 자아정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점수가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미술기반 아트코칭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행동변화에 효과를 주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긍정심리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년기 여성의 집단 내 친밀성을 높이고 자아정체감을 향상시켰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⁶¹⁾ 초기 단계에서는 ‘자기소개’, ‘나의인상’, ‘내면과 외면’ 등의 주제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집중하여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공감하고 인식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으며 중기단계에서는 ‘나의 첫 기억’, ‘화해와 용서’, ‘내 몸 위로하기’ 등의 주제 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 속 긍정과 부정 속에 형성된 체계를 인정해 볼 수 있도록 도왔다. 후기단계에서는 ‘유서 액자’, ‘작품 전시회’ 등의 주제 활동을 통해 인정된 자기를 통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시각화 작업을 하였으며 집단원과 함께 자기 가치를 지지받으며 친밀감에 따른 긍정적 정체성의 강화를 도왔다. 이를 통해 정체성 혼미, 친밀성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였으며 자아정체감 증가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3) 집단통합예술치료가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통합예술치료가 중년여성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의 사전-사후검증결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비하, 가족관계, 지도력과 인기, 자신감 및 전체 자아존중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화치료 집단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년여성의 긍정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부정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예배무용 집단통합 프로그램이

박사학위논문, 2018), 79; 신우정, “무용기반통합예술프로그램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6.

61) 이나검, “중년여성 자아정체감 향상 아트코칭 프로그램,” 86; 김미선, “긍정심리 집단상담 중년기 여성 위기 극복,” 88.

중년여성의 사회적 지지 및 정신건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면서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62) 초기 단계에서는 ‘내면과 외면’, ‘중요한 존재’, ‘쓰레기 감정’ 등의 주제 활동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집단으로부터 공감과 지지 경험을 받도록 하였으며 중기단계에서는 ‘내 안의 분노’, ‘내 몸 위로하기’ 등의 주제 활동을 통해 자신의 긍정과 부정을 드러냄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후기 단계에서는 ‘희망나무’, ‘작품 전시회’ 등의 주제 활동을 통해 자기 가치를 공고히 하고 긍정적 자기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자기비하를 감소시키고 가족관계, 지도력과 인기, 자신감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였으며 자아존중감 증가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4) 집단 통합예술치료가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통합예술치료가 중년여성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의 사전-사후검증결과 삶의 질 하위요인 중 신체적 영역, 심리적 건강 및 전체 삶의 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용치료프로그램이 우울을 갖은 중년여성의 우울 증세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평생교육원에 재학 중인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노래심리 중심의 집단음악치료에서 삶의 질 하위영역인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영역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결과와는 불일치한다.63) 이처럼 예술치료의 다양한 매체는 효과성 부분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우울 중년여성들이 자신의 부정적, 왜곡된 심상을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자기소개’, ‘난화 활동’, ‘쓰레기 감정’ 등의 주제 활동을 통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강화시켰으며 중기단계에서는 ‘내면과 외면’, ‘중요한 존재’, ‘장점과 단점’ 등의 주제 활동을 통해 자기를 탐색하고 타인의 지지를 통해 긍정적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후기단계에서는 ‘받고 싶고 주고 싶은 선물’, ‘희망 나무’, ‘작품 전시회’ 등의 주제 활동을 통해 자신을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존중하며 삶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희망을 고취 시키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자기 신체 및 심리적 상태에 대한 만족과 더불어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였으며 삶의 질 증가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62) 신경아, “우울증 중년여성을 위한 REBT기반 영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00; 황선아, “예배무용 프로그램 경험이 중년여성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10; 장은영, “집단 음악치료 평생교육원 재학중인 중년 여성의 우울감, 자아존중감, 인지 및 회복탄력성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47.

63) 장은영, “집단 음악치료 평생교육원 재학중인 중년 여성,” 88.

3. 신학적 함의

우울증이 있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상담자가 집단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내담자의 우울,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첫째, 집단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우울에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 따른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보다 의욕적인 접근은 긴장을 완화시키며 긍정적 자기에 대한 기대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둘째, 집단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 하위요인 중 친밀감과 정체성 혼미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자가 내담자 자신을 탐색하고 인식하며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그간의 혼란스러웠던 자신의 긍정과 부정성에 대해 새로이 인식할 수 있었으며 집단원들의 지지와 격려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공감하며 인정할 수 있었다.

셋째, 집단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다. 작품활동을 통해 내담자 스스로의 표현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고 집단원으로부터 긍정적 공감의 표현을 받으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존중할 수 있었다.

넷째, 집단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다. 다양한 매체활용을 통해 보다 자발적 동기를 갖는 태도를 경험하였으며 집단 활동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 자율성을 향상 시킴으로 자신의 삶에 보다 긍정적 기대를 부여할 수 있었다.

집단통합예술치료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우울감 감소와 자아정체성,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통합예술치료를 통해 중년여성의 우울에 치료적 함의가 나타났으며, 중년기 발달과제에서 긍정적 영향과 향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회에서 상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기독교 상담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상담이 실천적 학문이라는 점에서 이론적 근거는 중요한데, 학제 간 연구가 관심을 끌기 전부터 화해를 지향했던 기독교처럼 기독교 상담은 통합의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통합작업이 지연될수록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⁶⁴⁾ 이제는 인간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며 성경을 통해 인간의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좀더 확장되어진 상담자를 요구하고 있다.

중년기 우울증의 문제는 관계와 단절을 의미하는 측면도 있어서 사람은 정신에

64) 여한구, “기독교 상담에서의 성서와 심리상담,” 「신학과 실천」, 44(2015), 248.

너지를 상실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단절은 에너지의 감소로 이어지기에 중년기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사람과의 관계 증진은 자신의 인생전반기의 내면적인 상처를 이해하게 만들고 수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과 성숙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이 가능하다.⁶⁵⁾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담사의 인격적 성숙과 자질은 내담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담자 자신의 성격의 성숙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유익을 주고 치유를 하는 상호작용의 관계성에 참여하려는 포용력을 증시한다. 치료사의 개인적 자질이 치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사역자들의 개인적인 자질이 마음에 대한 치유를 위한 그들의 포용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⁶⁶⁾ 이러한 다양성을 가진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노력이 필요하며 정신적인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신건강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며, 이 정신 건강은 “영적인 건강”이다. 그러나 이런 용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과 영적 건강은 모두 병리적인 현상에서 다르지 않다. 기독교인의 정신질환이 신앙심의 문제와 관련되어 다양하게 나타난다. 신앙인의 영적 건강, 정신건강이 중요한 문제이며, 신앙생활은 건강한 삶이어야 한다. 우울증은 한국의 상황에서 목회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⁶⁷⁾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무력감, 절망감 등의 병리적 증상의 치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때 본 연구에서 통합적 예술치료를 통한 중년여성 우울감 감소와 자아정체성,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교회 내에서의 우울증으로 인한 공동체의 어려움과 개인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적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학적 함의를 갖는다.

V. 나가는 말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자가 집단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중년여성의 우울감소, 자아정체감과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 증가에 향상을 가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추후 연구 및 목회상담에 있어서의 실제적 적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P시 소재의 상담센터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집단통합예술치료를

65) 박철안, “중년기 우울증의 문제와 그 극복의 방안:칼용의 이론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49(2016), 548-549.

66) 마크 맥민, 황규명 공역, 『영혼돌봄의 상담학』,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31-32.

67) 김충렬,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론과 신앙생활,” 「신학과 실천」, 9(2005), 255-257.

실시 한 것으로 결과를 대중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과 신앙을 가진 다수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울증이 있는 중년여성의 특성상 심리적·감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매체에 접근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낮은 자존감과 무기력감, 프로그램 실행의 의욕저하를 고려하여 내담자에게 맞는 다양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교회내에서의 공동체의 변화를 탐색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치료 회기 내에서 검증된 효과성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과제 제시 등을 통해 우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후 목회상담을 통한 검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경선. “우울증과 예술적 창조성.” 「인문과학연구」 38(2013), 439-462.
- 강여주·김미진. “우울에 대한 예술심리치료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예술심리치료연구」 12/2(2016), 156-126.
- 구본진. “중년 여성의 극복력, 희망, 부부친밀감 및 가족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7/4(2008), 421-430.
- 권석만.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7.
- 김명리. “우울 중년여성을 위한 미용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김명소·김혜원·차영호.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 개념분석: 한국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5/2(2001), 19-39.
- 김미선. “긍정심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년기 여성 위기 극복에 미치는 효과: 우울, 자아정체감,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김수진·김세영. “중년여성의 부부친밀감, 우울과 갱년기 증상의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3(2013), 176-187.
- 김영숙·최규련. “중년기 여성의 내외통제성과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2006), 173-199.
- 김춘경. “중년기 우울 여성의 우울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1/4(2010), 1783-1806.

- 김충렬.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론과 신앙생활.” 「신학과 실천」 9(2005), 255-257.
- 문혁준 외 5인. 『정신건강론』. 서울: 창지사, 2017.
- 박금자 외 5인. “중년여성의 지각된 생활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의 관계.” 「전인간호과학연구소 학술모음집」 창간호(2002년), 97-113.
- 박금자. “중년기 여성의 우울 구조모형.”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1(2002), 74.
- 박금자·이경혜. “중년여성의 우울 구조모형.”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1(2002), 69-84.
- 박명혜·박은아·천성문.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3/3(2017), 24.
- 서은희·최규련·정영숙. “중년 여성의 노화 불안과 미래 시간 조망 및 행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2(2018), 21-40.
- 성윤주·도민정. “중년기 기혼 여성의 자아정체감이 부부친밀도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상담」 7(2017), 81-98.
- 송은미·이승연. “중산층 중년 기혼여성의 건강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과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20/4(2015), 531-549.
- 신경아. “우울증 중년여성을 위한 REBT기반 영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안은미·허정무. “중년여성의 평생학습 참여가 주관적인 삶의 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 「노년교육연구」 1(2015), 91-111.
- 여한구. “기독교 상담에서의 성서와 심리상담.” 「신학과 실천」 44(2015), 248.
- 여한구. “우울증에 대한 상담목회적 이해.” 「국제신학」 16(2014), 210-215.
- 오명옥·고효정·박청자. “중년기 기혼 남녀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부의 소통과 부부친밀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개발연구원」 16/4(2000), 393-415.
- 오민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중년기 여성 우울에 미치는 효과.” 평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원상화. “다문화가족 심리지원을 위한 국내 예술심리치료 적용 연구 동향 분석.” 「예술심리치료연구」 13/3(2017), 1-20.
- 이경혜. “중년여성의 역할적응에 따른 자아정체감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지」 15/2(2001), 157-176.
- 이나검.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 향상을 위한 미술기반 아트코칭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이복희·박아청·이경혜. “중년기 취업여성의 가계경제수준, 자아존중감, 역할적응

- 및 자아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4/1(2010), 103-120.
- 이선경·하승연. 『발달심리』. 서울: 교육아카데미, 2010.
- 이성주. “중년기 여성의 회복탄력성이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이영호. 『정신건강론』. 경기: 공동체, 2017.
- 이은경·원상화. “통합예술치료프로그램이 노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0/4(2014), 241-261.
- 이평숙. “중년 여성의 분노, 지각된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상태와의 관계.” 「성인간호학회지」 15/3(2003), 856-864.
- 이화심. “우울증 아내를 돌보는 중년 남성의 심리적 경험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임명남·이명우. “중년여성의 우울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 독서치료 단일사례연구.” 「독서치료연구」 10(2018), 25-44.
- 장영주·김미진. “우울에 대한 예술심리치료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예술심리치료연구」 12/2(2016), 122-123.
- 장은영. “집단 음악치료가 평생교육원에 재학중인 중년 여성의 우울감, 자아존중감, 인지 및 회복탄력성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전석균. 『정신건강론』. 경기: 공동체, 2017.
- 정옥분.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1.
- 정원임. “중년여성의 빈둥지중후군 극복을 위한 독서치료 적용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정태기. 『위기목회상담』. 서울: 기독교서회, 2012.
- 최민순·박은선. “자기성찰을 중심으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3/1(2017), 77-78.
- 최외선 외 4인. 『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2013.
- 함정선. “중년여성의 라인댄스 체험과 우울증 극복.”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홍근미. “중년여성의 우울감 해소를 위한 기독교상담 방안.” 「복음과 상담」 26/1(2018), 275.
- 홍주연·윤미. “중년여성의 영성이 행복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2013), 219-242.
- 황연성. “우울성향의 중년 여성 사례에서 모래놀이치료의 활용.”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0/4(2007), 81-95.

- APA. 『DSM-5 우울장애』 . 강진령 역. 서울: 학지사, 2017.
- Daniel J. Levinson. 『여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 김애순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 Duvall, E. and Miller, B. C.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6th ed.).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1985).
- WHO global health days, “Depression: Let’s talk-1 Year on,” (World Health Day-7, Apr., 2017).

논 찬 1

“중년여성의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집단예 술치료를 중심으로 -”에 대한 논찬

이 세 형 박사

(협성대학교 / 목회상담)

유미녀와 박경화가 연구 작성한 논문을 읽었다. 필자의 공부와 임상 영역이 조지신학, 정신분석, 심층심리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서 본 논문을 접하였을 때 논찬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다. 시일도 늦었고, 누구에게 부탁할 만한 입장도 아니어서 논문을 읽고 느낀 점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제목이 논문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본 논문은 P시에 소재하고 있는 Y상담센터 교육 수강자 중 BDI 10점-23점 범위에 속한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우울, 자아정체감, 자아 존중감, 삶의 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결과를 살펴본 논문이다. 이 점에서 논문의 제목은 “통합예술치료가 중년 여성의 우울, 자아정체감, 자아 존중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정도로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둘째, 이 논문의 공헌은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진행 과정과 프로그램 내용을 작성하여 실시한 점이다. 그것도 단기 프로그램으로서 중년기 여성에게 실시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부분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널리 시행되고 보완되어 두루 중년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교육 상담, 혹은 사회교육 분야의 상담 영역으로 보여진다. 심리 상담의 논문으로서는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셋째, 조금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본 논문은 그 내용에서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인다. 이 논문의 내용은 이미 연구자의 머릿속에 이렇게 결론이 날 것이라는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처음에 의도한 결과를 도출해 낸 것으로 그리 놀라운 것도, 새로운 것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논문이 시도한 기획이 결과 새로운 이론이나 패러다임이 도출되지 않았다.

넷째, 우울,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삶의 질이라는 영역을 선택한 것에 대해 하나의 논문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룬 것 같다는 인상이다. 이 주제를 같이 다루어야 한다면 우울,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삶의 질 각각이 어떤 연관이냐 같이 다루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적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런 중요 개념을 다루는데 이 중요 개념들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다. 인지적 차원이든, 정신분석적 혹은 심층적 차원이든 기본 개념에 대한 심리학적 용어 해석이나 정의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뭔가를 찾아보겠다고 말은 했는데 그 뭔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다섯째, 논문을 수정할 수 있다면 1-8쪽에 이르는 들어가는 말과 중년기 이해는 다시 쓰여져야 한다. 중년기를 어떤 맥락에서 이해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각각의 중심 개념을 정의하는데도 그 줄기와 맥락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심 개념들은 그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신학적 함의 부분에서 필자는 어떤 신학적 함의도 발견하지 못했다.

논 찬 2

“중년여성의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집단예 술치료를 중심으로 -”에 대한 논찬

노 원 석 박사

(개신대학원대학교)

1. 본 연구의 중심논지와 공헌점

‘피로사회’ 속에서 경쟁과 성공의 압박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우울감에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중년 여성의 경우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 중년여성이 갖게 되는 여러 사회 구조적 어려움 가운데 생겨나는 문제들로 인한 우울감을 연구자는 다루었다. 비록 그 분위기가 열어졌다고는 하지만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차별적 대우가 흐르는 가운데 현재의 중년여성은 사회와 가정에서 여러 역할을 감당하였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 연구들은 특별히 치유적 도구로서, 집단통합예술치료를 활용하여 중년여성의 우울,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삶의 질에 끼친 영향 등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었고, 더 나아가 향후 목회상담적 돌봄의 연결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중년여성의 우울과 연관된 논문들이 있었지만, 본 논문은 예술치료적 접근에 근거한 치유적 과정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첫 번째 공헌점이 있다고 하겠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심리 치료적 방법들이 개발되었고, 그 가운데 예술치료는 중년여성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세심하고 효율적인 치유의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본 논문은 중년기 여성의 우울이라는 일반적인 문제를 ‘예술치료’를 통한 영향과 회복이라는 측면에서의 논문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

두 번째 본 논문은 예술치료의 이론적 근거를 넘어서 실제적인 16회기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중년여성의 우울함을 다루어 그 영향과 치유의 계기로 나아갔다는 점에서의 공헌점이 있다. 중년 여성의 우울한 상황을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16주에 걸쳐 각 주제별로 활동목표와 활동내용들을 이끌었다는 부분은 중년여성의 문제를 연구자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들의 치유적 모습을 위해 노력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놀이, 음악, 독서, 동작 등 예술의 여러 영역들을 중년여성의 문제들에 세밀하게 연결하여 조사함으로써 영향과 치유의 방향을 연구했다는 점은 이를 토대로 앞으로 효과적인 집단예술치료의 발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2. 본 연구의 논의점 및 질문들

첫 번째, 본 논문의 중요 키워드는 중년 여성, 삶의 질, 집단통합예술치료 등이라 할 수 있겠다. 중년여성이 느끼는 삶의 질 저하의 영향을 집단통합예술치료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논문이다. 하지만 집단통합예술치료에 할당된 분량은 한 페이지가 채 되지 않는다. 그동안 ‘중년 여성의 이해’의 측면은 그동안 많은 저서와 논문에서 다루어졌고, 연구자도 ‘우울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통합예술치료를 적용한 연구는 상당히 드물다’라고 밝힌 것처럼 본 논문의 독특성 및 공헌점의 일부가 ‘통합예술치료’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소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물론 통합예술치료에 대한 개략적이고 핵심적인 설명이 논문 속에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예술치료의 중요성, 필요성 등의 요소의 비중이 중년여성에 대한 소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느껴진다.

두 번째, 위 논문의 연구대상은 P시의 Y상담센터 교육 수강자 28명의 중년여성이다.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28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연구자는 밝혔다. 그런데, 연구대상의 선정에 있어, 왜 P시이고, 왜 Y상담센터 수강생들인가? 집단 수집원의 수월성 때문인지, 상담센터가 지닌 표본 대상의 적합함에서인지... 선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표본 집단 선정은 연구자의 고유권한이지만 논문의 방향에 있어 표본 선정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리라 여겨진다.

세 번째, 본 논문은 통합예술치료를 통해 우울 감소, 자아 정체성 및 존중감,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분석한 이후 ‘신학적 함의’를 제안하고 있다. 뒤이어 ‘나가는 말’에도 목회상담에 있어서의 실제적 적용을 제안한 것을 보면 본 연구에 있어, 필자의 신학과 교회와의 적용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적지 않은 연구자의 필요한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서론의 문제제기

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리고 연구대상에 크리스천만을 따로 뽑아서 한 것이 아니고, 연구의 내용에도 기독교적 관점이 없어 보이는 데 어떻게 신학적 함의가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중년여성의 우울감과 여러 정서적 어려움을 예술치료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향후 교회에서 이를 진행하는 것으로 혹은 ‘통합’을 통하여 교회에 접목한다는 피상적인 제안으로 과연 신학적 함의의 무게를 대신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본 논문은 중년여성의 우울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집단예술치료라는 다양하고 섬세한 예술 기법들을 활용하여 그 영향에 대한 관계를 체계적으로 기술한 소중한 글이다. 중년여성의 마음의 상처를 예술치료의 중요한 도구로서 실제로 끌어내기 위해 많은 날들 동안 고심하며 애썼을 연구자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도 통합예술치료와 그것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주신 연구자 두 분께 큰 감사를 드린다.

한국실천신학회 각종사업일정

I. 한국연구재단

1. 2010년 12월 28일 등재학술지 선정(22호부터 해당)
2. 2010년 7월 1일 학술대회 지원금 1,500,000원 수령(결과보고서 제출)
3. 2010년 11월 23일 학술지 보조금 2,974,000원 수령(2011년도)
4. 결과보고서 제출(2012년 1.30일)
4. 학술지 발간 정시입력 및 등록 (30-33호)
5. 2011년 5월 30일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2012년도분 지원금 5,160,000원 수령
6. 2011년 12월 30일 제43차 학술대회 연구재단 지원금 600만원 수령
7. 2012년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학술대회 기금 7,400,000원 수령
8. 2012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금 6,000,000원 수령
9. 2013년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학술대회 기금신청, 12월 5,000,000원 수령
10. 2013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7월 30일 신청, 12.18일 평가결과 89.6 등재유지
11. 2013년도 신학과 실천 학술지 보조비 신청 9월 30일, 12월 26일 6,000,000원 수령
12. 2014년 55회 학술대회 한국연구재단 보조금 5월 500만원 수령(2015년도분)
13. 2014년 12월 27일 700만원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보조금 수령(2015년도분)
14. 2015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보조금 5,600,000원(2016년분)
15. 2016년 5월20일 제63회 학술대회 한국연구재단 보조금 9,000,000원 수령(2016년도분)
16. 2016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보조금 5,600,000원(2017년분)
17. 2017년 5월20일 제67회 학술대회 한국연구재단 보조금 3,000,000원 수령(2018년도분)
18. 2017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보조금 6,800,000원(2018년분: NRF연구보조비포함)
19. 2018년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지원사업(2019년도 발행분) 680만원
20. 2019년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지원사업(2020년도 발행분) 800만원

II. 한국실천신학회 홈페이지개설

1. 직접입력 : www.praxis.or.kr 한국실천신학회
2. 혹은 모든 사이트에서 「한국실천신학회」를 치고 홈페이지로 들어감,
3. 모든 학회논문 신학과 실천자료를 볼 수 있음.
4. 회원 등록하고(본 회원은 의무사항) 승인 받은 다음 글쓰기를 할 수 있음.
5. 홈페이지에서 관련사이트에서 학술교육원, 한국기독교학회, 한국연구재단 연결
6. 홈페이지는 학술교육원에서 무료설치 제공(하드 200M/트래픽 600M)
유지비(서버회선사용료) 년 12만원 월1만원
7. 2010년 12월 31일 2017년 12월 31일까지 1,462,145 입금, 학술교육원과 디지털컨텐츠 협약 -

7년간 매년 25% 저작권료 논문 발행자 한국실천신학회에 지불(발행규정7조)

계약자 갑 편집장 위형운을 (주)학술교육원 대표 노방용

8. 2014년 4월 학술교육원과 새홈피 및 관리, 논문시스템관리, DOI시스템관리비와 저작권료와 교환 = 계약자 갑 편집장 위형운을 (주)학술교육원 대표 노방용

III. 신학과 실천 원고모집

■ 2020년도(2015년부터 연 5회 발행)

홈피에 탑재된 투고안내 및 투고규정을 준수하여 투고시스템 계정을 통하여 투고

심사: 원고투고- 규정심사-전공심사 3인-최종심사-원고확정-순서-논문확정자 공고-발행-배송

- 1) 제68호 1월 20일 원고마감, 한글논문 2월 28일 발행- 한글논문
- 2) 제69호 4월 20일 원고마감, 5월 30일 발행- 한글논문
- 3) 제70호 6월 20일 원고마감, 7월 30일 발행- 외국어 논문(영어와 독일어)
- 4) 제71호 8월 20일 원고마감, 9월 30일 발행- 한글논문
- 5) 제72호 10월 20일 원고마감, 11월 30일 발행- 한글논문

5. 게재비 일반논문 30만원(시간강사 15만원) 년회비 완납 필수, 신입회원 년회비 2년분 6만원

연구재단지원논문 50만원, 년회비 완납 필수, 신입회원 년회비 2년분

A4용지 13-15매 초과시 1매당 초과 게재료 2만원

5. 심사비. 2015년부터 심사시스템구축으로 인한 심사비 지급 편당1만원,

2017년 편당 15,000원, 규정심사 편당 1만, 최종심사 편당 1만, 교정비 편당 1만

2018년부터 편당 20,000원, 규정심사 편당 1만, 최종심사 편당 1만, 교정비 편당 1만

6. 논문제출시유의사항

1. 홈페이지 회원가입후에 논문투고시스템 - 유사도검사 10%미만 필수 - 논문투고 학술지 투고규정에서 지원서 및 서약서 양식다운 받아 논문은 원저파일에 기타파일에는 지원서와 서약서, 저작권위임서, 유사도검사서 입력- 완료
2. 각주와 참고문헌은 30개이상 50개미만 필수, 본논문지 5개이상 필수인용, 필히 숙지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규정을 지켜 주실 것, 서론 결론은 A4 1장, 한글 영문초록은 A4 반장 정도 바란스를 맞출 것.
3. 연구윤리규정을 읽고 숙지할 것
4. 논문 구성은 대지는 I. II. III. IV. 소지는 1. 2. 3. 4. 등 서론은 들어가는 말, 결론은 나가는 말
5. 신학과 실천 인용 5개 이상 필수, 그리고 기타 타논문 등재지 이상 인용 5개.
6. 유사도 검사 10%미만을 실시하여 자료를 첨부할 것.

7. 2018년도 개정된 투고규정을 반드시 준수할 것.

IV. 편집위원접수관리 안내

1. 편집위원 전국분포도 접수반영 4개 지역에서 7개 지역으로 확대(강원도 제주도, 외국)
편집위원 : 서울/경기 : 위형윤, 안선희, 최진봉, 김수천
충청도 : 계재광, 반신환
전라도 : 김옥순
경상도 : 김명실, 유재경, 차명호, 주연수
외국: 미국: Sangyil Sam Park 독일 Naham Kim
2. 편집위원 평가 직전 5년간 학술연구논문 및 저역서 및 경력 평가(사회경력, 편집위원경력, 교계, 보직, 연구발표, 등등)
3. 반드시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자 정보에 편집위원의 실적을 제목과 출판사, 출판학회, 논문지, 등을 그때 그때 올려 주시고 공개로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아이디 가능) 한국연구재단에 문의(02-3460-5737) 바람

V. 한국실천신학회 통장개설 안내

1. 총입출입 통장 국민은행 172-601-04-154610 한국실천신학회
2. 논문게재비 통장 신한은행 100-027-851650 한국실천신학회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신학과 실천」 연혁보고

1. 1890년 한국최초 예배서 감리교 미이미교회강례(美以美教會綱例) 아펜셀러 번역, 1924년 한국인 최초 장로교 혼상예식서 발간, 1925년 성결교 최초 교리 및 예식서, 1901년 중국어도서 감리교 목사지법 (牧師之法) 울링거 역, 1919년 한국최초 평양 신학교 객안련 선교사의 설교학, 목회학 책을 출간, 1937년 한국인 최초 목회학 저서 성결교 김응조의 목회학 출간, 그 이후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여 한국실천신학은 전수되었다.
2. 1960년대 후반 한국실천신학회는 한국교회 최초 실천신학 관련교수들이 김소영을 중심으로 소모임과 전국순회 강연을 통하여 한국실천신학회의 모태를 형성하였다.
3. 1970년대 김소영, 박근원 등을 중심으로 실천신학 사전, 예배학 원론 번역 출판.
4. 1972년 제1회 한국실천신학회가 부산호텔에서 창립 김소영, 홍현실, 허경삼, 안형식 등 학술발표회가 시작되었고, 기독교사상 사장으로 김소영, 편집위원 박근원 정장복 등 목회자들을 위한 학문의 장을 제공하였고, 정장복은 교회력에 의한 핸드북, 김종렬은 예배와 강단을 매년 출판하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4대 박근원은 김소영 등과 함께 1992년 한국실천신학회의 주멤버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공동학회가 발족되었고, 그리고 7대 정장복 회장이 학술대회의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1997년 9월 30일 정장복 회장과 9대 김외식 회장의 주도아래 「신학과 실천」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동시에 정장복 회장의 주도로 예배학 사전과 설교학 사전이 출판되었다.
5. 2003년 12대 문성모 회장, 13대 백상열 회장, 14대 위형운 회장, 현재 15대 김윤규 회장, 16대 조기연 회장, 17대 김세광 회장에 이르는 동안 학술대회 년4회 올해 39 회째, 학술지 년4회가 발행되어 현재 33호가 발간되었다.
6. 2003년 12월 28일 「신학과 실천」 제6호부터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 ISSN 1229-7917가 부여되어 정식 출판물 발행 허가를 받게 되었다. 그 뒤에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전국 신학대학교 도서관 등에 약 100부가 발송되고 있다.
7. 2004년 4월 14일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연합회 지학회로 회원가입인증번호 학단연 2004-1호 가입되었다.
8. 2005년 학술교육원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약서 무료로 계약.
9. 2007년 12월 28일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78.3점 (75점이상 합격).
10. 2008년 12월 28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국내학술지발행지원비 신청하여 1,796,000

원 수령.

11. 2009년 12월 28일 신학과 실천 등재후보 계속평가 1차 합격 82점 (80점 이상).
12. 2010년 2월 5일 학술교육원으로부터 무료로 홈페이지 개설, 그리고 11명의 한국실천신학회 이사회 조직하여 사단법인 인가를 위한 준비작업 착수.
13. 2010년 7월 1일 한국연구재단 학술대회 지원비 신청 1,500,000원 수령(2011년 제39회 학술대회를 위한 지원비).
14. 2010년 7월 1일 한국연구재단 「신학과 실천」 학술지원비 신청 2,974,000원 수령.
15. 2010년 7월 1일 등재지 신청하여 12월 28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92점 (80점 이상).
16. 2010년 12월 31일 주식회사 학술교육원 디지털컨텐츠 협약서 5년간 체결 (저작권료 25% 지급 발행 규정 제7조 저작권 본 학회 소유).
17. 2011년 5월 30일 신학과 실천 연구재단으로부터 5,160,000원 지원비를 수령하다.
18. 2011년 12월 31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43회 학술대회 지원비를 수령하다.
19. 2011년도 한국연구재단 신학과 실천 24호-27호 현장실사 합격
2011년 12월 28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123-82-70014 안양세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의무이행자 지정
20. 논문게재의 총수는 1호부터 제33호까지 446편으로 모든 학회원들, 특히 신진학자들의 기고가 큰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를 위한 실천신학자들의 장은 「신학과 실천」 학술지를 통하여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린다.
21. 2012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금 6,000,000원 수령하다.
22. 2013년도 5월경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7월 30일 신청, 12.18일 평가결과 89.6점 등재유지
한국실천신학회 홈페이지 개편 및 논문투고시스템 및 심사시스템 개통
23. 2013년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학술대회 기금신청, 12월 5,000,000원 수령
24. 2013년도 신학과 실천 학술지 보조비 신청 9월 30일, 12월 26일 6,000,000원 수령
25. 학술지 신학과 실천 논문투고 및 심사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학술정보원과 년1백만원 계약(관리비)- 홈페이지에서 클릭
26. 출판된 모든 개별논문에는 온라인논문개별고유코드(DOI)를 부여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해당 원문 및 해당 학술지를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27. 2014년 한국연구재단 학술대회보조금 500만원, 학술지원비보조 700만원 수령(2015년도분)
28. 2014년 10월 30일 연구윤리 국제포럼 교육이수(13시간)
29. 논문게재 총수는 1호부터 현재 37호까지 514편이다.
30. 2014년도 논문게재 38호-42호 총 113편으로 현재 총합계 627편이다.

31. 2015년도 논문게재 43-47호 총 107편 현재 총합계 734편이다.
32. 2015년 7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등재유지 89.75점으로 합격
33. 2015년 12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원비 5,600,000원 수령
34. 2015년 11.20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한국대학기관 생명윤리위원회협의회 연구윤리포럼 이수
35. 2015년 11.20 연구윤리교육 연수과정 수료-한국학술단체연합회
36. 2016년 1.4. 국가과학기술인력 개발원 연구책임자 윤리교육 수료
37. 2016년부터 모든 교수 연구자는 국가과학기술인력 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윤리교육 의무 인터넷교육 필수
38. 2016년 5월20일 제63회 학술대회 한국연구재단 보조금 9,000,000원 수령(2016년도분)
39. 2016년 12월 28일 560만원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보조금 수령(2016년분)
40. 2016년 논문게재수 48호-52호 = 122편 게재
41. 한국연구재단 KCI 2015 인용지수(2016년기준)
논문수(2013+2014)= 208, 피인용횟수(2015기준)= 305, KCI영향력지수(2년 KCI IF)= 1.47, WOS-KCI
통합영향력지수(2년 IF)= 1.47, KCI중심성지수(3년분 기준)= 0.46, 자기인용비율(%) (2년 KCI IF)= 88.2%
42. 홈페이지 논문투고시스템 한국연구재단 문헌 유사도검사 서비스 개설.
43. 2016년 연구윤리교육 김명실(부편집위원장)
1. 제1차 연구윤리포럼 (16년 6월 9일; 진주 경상대학교)
2. 제2차 연구윤리포럼 (16년 10월 19일; 서울교대)
3. 국내 학술정보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DOI 인프라 체계 적용 계획 설명회(16년 8월 30일; 서울 교육회관)
44. 연구책임자를 위한 윤리교육 위형운 편집위원장 유효기간: 2016년 1.1-2019년 1월 4일(3년)
45. 2017년 5월 25일 제67회 학술대회 한국연구재단 보조금 3,000,000원 (2017년도분)
46. 2017년 12월 28일 680만원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보조금 (2017년분, NRF연구비보조포함)
47. 논문총게재수 창간호-현재 57호까지 2,107편: 약 10개 전공분야별 단행본 실천신학대전 발행필요
48. 2017년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포럼 (2017년 9월 28일; 서울교대): 위형운 조재국 김병석 위성동
49. 2017년 국가과학기술인력 개발원 연구책임자 윤리교육 수료: 위형운 김한옥 한재동 조재국 김경진
황병준 김명실 김병석 이후로는 전회원으로 확대, 이수증 게시 생략
50. 2018년도 3월경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예정: 전분야
51. 한국연구재단 2016년도(2017년도 발행분) 학술지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월 28일까지
52. 2018년도 학술지평가 사업설명회 참석(대전 연구재단본부 2018.4.19.)
53. 제23회 한국실천신학회 총회(2018.2.9.) 결의에 따라 동 학회 제68회 정기학술대회(2018.5.19.)
에서 위형운 편집위원장 이임식을 갖고 2018.6.18.에 한재동 신임 편집위원장이 모든 업무를
인수받아 편집위원장 직무를 개시함.
54. 2018년도 연구재단 학술지평가 계속평가(15-17년 직전 3년간 평가) 결과 총90점으로 “등재학
술지 유지” 판정 받음(직전 편집위원장 소관업무).

55. 2018년도(2017년도 신청)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지원사업(2019년도 발행분) 680만원 입금 (2018.11.20.)
56. 2017년도 학술지지원사업(2018년도 발행분) 결과보고서 제출(2018.11.30.)
57.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2018년 정기총회 참석 및 연구윤리포럼 교육이수(2018.12.21.)
58. 연구재단 2019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설명회 참석(성균관대 2019.1.28.)
59. 국가과학기술인력 개발원 연구책임자 윤리교육 수료. 모든 회원들의 동 윤리교육 수료 권장 (<http://cyber.kird.re.kr>).
60. 2018년도 학술지지원사업(2019년도 발행분) 결과보고서 제출(2019.10.29.)
61. 2019년도(2018년도 신청)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지원사업(2019년도 발행분) 800만원 입금

신학과 실천 편집위원장 한재동

한국실천신학회 역대 총회연보

| | |
|--|---|
| <p>제1회 창립총회</p> | <p>1. 일시: 1972년 봄 2. 장소: 부산호텔(부산시) 3. 초대임원 고 문 - 홍현설 회 장 - 김소영 부회장 - 허경삼 총 무 - 안형직</p> |
| <p>제2회 1979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p> | <p>1. 일시: 1979년 11월 16일 2. 장소: 코아레스토랑(서울) 3. 임원개선 회 장 - 김소영 부회장 - 박근원 총 무 - 이기춘</p> |
| <p>제3회 1981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p> | <p>1. 일시: 1981년 2월 18일 2. 장소: 온양 3. 임원개선 회 장 - 김소영(유임) 부회장 - 박근원(유임) 총 무 - 천병욱</p> |
| <p>제4회 1987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p> | <p>1. 일시: 1987년 2월 10일 2. 장소: 리버사이드호텔 3. 김소영회장의 사회로 개최하다 4. 임원개선 회 장 - 박근원 부회장 - 천병욱 총 무 - 정장복</p> |
| <p>제5회 1989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p> | <p>1. 일시: 1989년 10월 13일 2. 장소: 대구 동인교회 3. 천병욱부회장의 개회선언으로 회의가 시작되다 4. 임원개선 회 장 - 박근원 부회장 - 천병욱 총 무 - 정장복</p> |
| <p>제6회 1991년 실천신학회 기총회</p> | <p>1. 일시: 1991년 10월 18일 2. 장소: 유성관광호텔 3. 총회결의사항: 1) 박근원회장의 사회로 개최하다 2) 임원선출 회 장 - 천병욱</p> |

| | |
|---|--|
| | <p>부회장 - 정장복 총 무 - 김외식</p> <p>3) 임원개선 전 선교학회의 분립을 선언 별도로 모임</p> |
| <p>제7회 1993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p> | <p>1. 1993년 10월 15일 2. 장소: 경주 조선포텔 3. 총회결의사항</p> <p>1) 정장복 부회장의 사회로 개최하다 2) 회장-정장복(장신대) 부회장-김외식(감신대) 총무-최희범(서울신대)</p> |
| <p>제8회 1995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p> | <p>1. 일시: 1995년 11월 24일 2. 장소: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3. 총회</p> <p>1) 정장복회장의 사회, 박근원회원의 기도로 개최하다. 2) 최희범총부가 경과 보고하다 3) 임원선거결과: 회 장-김외식교수(감신대) 부회장-최희범교수(서울신대) 총 무-김원재교수(연세대)</p> |
| <p>제9회 1997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p> | <p>1. 일시: 1997년 10월 18일 2. 장소: 아드리아호텔(유성) 3. 회의:</p> <p>1) 김외식회장의 사회와 천병욱회원의 기도로 개최하다. 2) 회장이 학회지 <신학과 실천> 창간호 발간에 관해 소개하고 가 재정보고를 하다. 3) 회무처리: 목회상담회 분립을 박근원회원의 동의와 정장복회원의 재청으로 회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허락하다 4) 임원선거: 정장복회원이 천병욱회원을 회장 후보로 추대하고 박근원 회원이 박은규회원을 부회장후보로 추대하고 정장복회원이 다시 백상열회원을 총무 후보로 추대하여 이를 장성우회원이 동의하고 김세광회원이 재청한 후 회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다.</p> |
| <p>제10회 1999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p> | <p>1. 일 시: 1999. 10. 16(토) 8:30-9:00 2. 장 소: 유성호텔 3. 회 의:</p> <p>1) 회장의 개회선언과 김외식 교수의 기도로 회의를 시작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안을 채택함: 2) 결의안: (1) 97년-99년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를 받기로 함. (2) 임원선거 결과: 회장: 박은규, 부회장: 오성춘, 총무: 백상열 (3) 겨울정기세미나(2월) 발표자는 최근에 학위를 하고 귀국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정하기로함. (4) 투병 중인 천병욱교수님(세브란스병원)을 위해 360,000원을 즉석에서 모금함. (5)<신학과 실천>(제3집) 원고모집은 규정(*)에 의거 계속 하기로 함. 3) 논문에 관한 규정 의결사항</p> |

| | |
|--|---|
| | <p>(1) 한국기독교학회 학회별 논문 발표자 선정 문제는 본 회에 가입한 순서를 참고로 하여 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함.</p> <p>(2) 『신학과 실천』 제3집부터 논문게재 희망자는 누구나 게재료 20만원을 의무적으로 내기로함.</p> <p>(3) 논문게재 우선 순위는 현재 정교수로서 진급 및 업적평가 중에 있는 회원을 우선으로 하며 따라서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는 차선으로 한다.</p> <p>(4) 비회원은 논문게재를 할 수 없다.</p> <p>(5) 논문은 논문작성법에 따라 각주 등 기본형식을 따라야 한다.</p> |
| <p>제11회 2001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p> | <p>1. 일 시 : 2001년 10. 18-20</p> <p>2. 장 소 : 경주 교육문화회관</p> <p>3. 회 의 :</p> <p>1) 박은규 회장의 사회로 개회하다.</p> <p>2) 총무가 사업 및 재정을 보고하니 통과 되다.</p> <p>3) 임원개선 : 현재 임원에 서기, 회계 및 감사를 추가할 것을 결의하고 5인 전형위원회에서(김소영, 박근원, 김외식, 박은규, 백상열)에서 선임한 회장(오성춘), 부회장(문성모), 총무(백상열), 서기(조기연), 회계(이성민), 감사(나동광)을 만장일치로 인준하다.</p> <p>4) 결의사안 : (1) 박근원 교수의 제안에 따라 <실천신학회 역사보고서>를 위한 위원을 선정하기로 하다. (2) 겨울 정기학술 세미나는 임원회에서 날자와 장소를 정하여 연락하기로 하다.</p> |
| <p>제12회 2003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p> | <p>1. 일 시: 2003년 10. 24-25</p> <p>2. 장 소 : 사랑의 교회수양관</p> <p>3. 회 의 :</p> <p>1) 오성춘 회장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다.</p> <p>2) 백상열 총무가 사업 및 학술경과 보고를 하니 통과 되다.</p> <p>3) 이성민 회계가 재정을 보고하니 통과되다.</p> <p>4) 임원개선은 전례대로 전형위원회(김외식 정장복 오성춘 백상열)에서 선임하니 회장(문성모), 부회장(백상열), 총무(위형윤), 서기(조기연), 회계(이성민) 감사(서울장신)로 만장일치로 인준하다.</p> <p>5) 학회지(2004년) 원고모집과 2월세미나 발표자와 시간, 장소는 임원회에 일임하다.</p> <p>6) 학술단체연합회 가입건은 자료준비 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다.</p> |
| <p>2004년 4월 14일</p> | <p>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회원학회 가입 인증(학단연 2004-1)</p> |
| <p>제13회 2005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p> | <p>1. 일 시: 2005년 10월 21일 (금)</p> <p>2. 장 소 : 사랑의 수양관</p> <p>3. 회 의 :</p> <p>1) 사회 : 문성모 회장</p> <p>2) 사업보고 : 위형윤 총무</p> <p>3) 회계보고 : 이성민 회계</p> <p>4) 회칙과 편집규정 수정 및 개정 결의 : 개정 및 수정회칙 참조</p> <p>5) 임원개선: 임원 선정은 전례대로 전형위원회(전희장단 및 현희장단:</p> |

| | |
|--------------------------------------|---|
| | <p>정장복, 김외식, 문성모)에 추천을 의뢰하니 회장: 백상열 부회장: 위형윤 총무: 조기연 서기: 김세광 회계: 나형석 감사: 박병욱, 김운용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임하다.</p> <p>6) 기타토의</p> <p>(1) 학술지 「신학과 실천」 학술진흥재단 평가 협조 요청하기로 하다 (2) 재정모금협조 요청하기로 하다. (3) 학술지 「신학과 실천」 분야별로 묶어 책자화 요청하기로 하다. (4) 세계실천신학회의 설교학회 가입문제 요청하기로 하다. (5) 기타 각분과 위원을 추가로 회장이 임명하기로 하다. (6) 학술지 원고 모집 : 제10호 2006년(봄호) 2월 발간, 제11호 2006년(가을호) 9월 발간을 위하여 원고 모집 광고하다.</p> |
| <p>2007년 6월 27일</p> | <p>사단법인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후보 평가 신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술지 자체평가 : 30점 만점 중 22점 획득 2. 학술지 내용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패널위원평가 : 20점 만점 심사중 2) 주제전문가평가 : 50점 만점 심사중 3) 100점 만점 중 75점 이상 등재 |
| <p>제14회 2007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 : 2007년 10월 19일(금) 5~6tyl 2. 장소 : 대전신학대학교 609호 3. 회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 : 백상열 회장 2) 전회의론 낭독 : 김세광 서기 3) 사업보고 : 조기연 총무(안식년)-위형윤 부회장 4) 회계보고 : 나형석 회계 5) 감사보고 : 감사보고 유인물로 받기로 하다. 6) 결의사항 : 위형윤 부회장 제안 만장일치로 다음사항을 결의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편집위원회 규정, 발행규정, 투고규정, 심사규정 (2) 연구윤리규정 개정 7) 임원선거 : 제안1 무기명 비밀투표 (문성모 전회장) 제안2 기존대로 전형위원회(전회장단)에 위임(정장복 전회장) 제안 하나 제2안으로 결의하다. 전형위원회 발표 : 회장-위형윤, 부회장-조기연, 총무-김세광, 서기-나형석, 회계-김윤규, 감사-김순환 8) 신규임원인사 및 교체식 9) 광고 : 신임 위형윤 회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논문심사보고서 이메일로 보고 (2) 회원확복 200명 이상 (3) 학술진흥재단 논문심사보고 (4) 논문지 2007-2007 계속 평가 (5) 논문지 배부는 각 대학도서관(70)과 필자, 전회장에게만 그리고 회원 정기학술 세미나 참석시 배부 (6) 논문게제비 20만원과 년 회비 3만원 (7) 기금모금목표 : 2000만원 (8) 학회 정기 학술세미나 년 4회(2, 6, 8, 10월) 1회당 3회 발표 (9) 기타 : 제14집 신학과 실천 논문 원고 마감 2008년 1월 30일 까지 |
| <p>2008년 1월 3일</p> | <p>사단법인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선정</p> |

| | |
|--|---|
| <p>2008년 12월 26일</p> | <p>1. 체계평가 21 패널평가 16 주제전문가평가 41.3 = 계 78.3 2. 등재후보선정일 : 2008년 1.3일 등록 2008년 한국학술진흥재단 국내학술지발행 지원비 선정 신학과 실천 1,79600원</p> |
| <p>2009년 임시총회</p> | <p>제14-1회 임시총회 총주제 : 목회현장에서 본 실천신학(현실과 비전) 일 시 : 2009년 2월 6일(금) 오후 9시 30분-10시 장 소 : 호텔 아카데미 하우스(구 크리스찬 아카데미) 3시 30분 - 4시 경건회 사 회 : 위형운 박사(회장/안양대학교 교수) 기 도 : 김금용 박사(학술분과위원장/호남신학대 학교 교수) 설 교 : 김종렬 박사(전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축 도 : 박근원 박사(전 한신대학교 총장) 오후 9시 30분-10시 임시총회 사 회 : 위형운 회장 회 무 : 김세광 총무 안 건 : 1. 회칙개정 2. 논문 신학과 실천 원고모집 일정 3. 학술대회일정 및 발표자 모집 4. 기타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p> |
| <p>2009년 12월 25일</p> | <p>사단법인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를 위한 1차 평가 선정 체계평가 37 패널평가 45 총 82 = 1차통과 2차 평가후 2009년부터 등재지로 인정함</p> |
| <p>2010년 1월 25일</p> | <p>2008년도 국내학술지발행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완료 1. 과제번호 : A00152 2. 학술지명 : 신학과 실천 3. 발행기관명 : 한국실천신학회 4. 지원액 : 1,796,000원 5. 제출기한 : 2010년 2월 28일(일) 6. 제출방법 : 온라인 입력 및 증빙자료 탑재</p> |
| <p>제15회 2010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p> | <p>제15회 정기총회 및 제35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0년 2월 5(금)-6(토) 장 소 : 소망아카데미(수원장안구 하광교동 산 56-1) I. 개최예배 사회 : 조기연 부회장 설교 : 위형운 회장 기도 : 이말테 위원장 2. 안 건: 1. 기도, 전회의록낭독,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감사보고, 회 계보고 하니 수락되다. 2. 임시총회 회칙 상정안 인준 3. 임원 선거는 회 칙에 의거 회장과 감사가 추천: 회장 김윤규 수석부회장 조기연, 부회장 김세광 추천하니 수락되다. 4. 기타임원 추후 신입회장이 공지 5. 이사진 구성 : 전회장, 현회장, 감사2인, 각분과위원장, 추가1인 11인, 이사장일임. 6. 문성모 전회장의 기도로 폐회하다.</p> |

| | |
|--|---|
| <p>2011년 12월 28일 등재지 선정</p> <p>제16회 2011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p> | <p>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2010. 12.28) 평가 92점</p> <p>제16회 정기총회 및 제39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1년 2월 11(금)-12(토) 장 소 : 소망아카데미(수원장안구 하광고동 산 56-1) I. 개최예배 사회 : 김세광 부회장 설교 : 김윤규 회장 기도 : 나형석 총무</p> <p>2. 안 건: 1) 기도, 전회의록낭독,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등재지 선정 연혁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하니 수락되다. 2) 임원 선거는 회칙에 의거 이사회에서 추천한 회장, 부회 장을 위형운 이사장이 보고하니 회장 조기연 수석부회장 김세광, 부회장 나형석, 감사 이요섭, 주승중을 추천하니 수락되다. 3) 신규임원교체 4) 신입 조기연 회장의 집례로 폐회예배로 마치다.</p> |
| <p>제17회 2012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p> | <p>제17회 정기총회 및 제43회 정기학술대회</p> <p>주 제 : 한국사회의 변화와 교회의 역할 일 시 : 2012년 2월 3일(금) 오후 2시 - 4일(토) 12:00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 032-554-6400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 안 건 : 1) 기도, 전회의록낭독,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보고, 감사보고, 회 계보고 하니 수락되다. 2) 임원 선거는 회칙에 의거 이사회에서 추천한 회장, 부회장을 위형운 이사장이 보고하니 회장 김세광 수석부회장 나형석 부회 장 김충렬, 감사 이요섭, 조성돈 추천하니 수락되다. 3) 신규임원 교체 4) 나형석 회장의 성찬집례로 폐회하다.</p> |
| <p>제18회 2013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p> | <p>제18회 정기총회</p> <p>일 시 : 2013년 2월 2일(토) 장 소 : 부천 카리스호텔 사 회 : 김세광 회장 개 회 기 도 : 김윤규 박사(상임이사) 감 사 보 고 : 이요섭 박사, 조성돈 박사(감사) 사 업 보 고 : 김한옥 박사(총무) 회의록 낭독 : 한재동 박사(서기) 회 계 보 고 : 서승룡 박사(회계) 이사회 임원 선임보고 : 위형운박사(이사장) 책임고문 : 위형운 이사장 : 김윤규, 상임이사 : 조기연, 이사 12명. 회장 : 나형석, 수석부회장 : 김충렬, 부회장 : 김한옥. 감사 : 권명수, 문병하 이하 임원은 회장단에서 선임 기 타 토 의 : 안건심의 및 결의사항 성찬집례 : 김세광 목사</p> |
| <p>제19회</p> | <p>제19회 정기총회</p> |

| | |
|-------------------------------------|--|
| <p>2014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p> | <p>일 시 : 2014년 2월 7일(금) 오전 12시30분 - 8일(토) 오후 1시</p> <p>장 소 : 부천 카리스호텔</p> <p>사 회 : 나형석 회장</p> <p>개 회 기 도 : 조기연 박사(상임이사)</p> <p>감 사 보 고 : 권명수 박사, 문병하 박사(감사)</p> <p>사 업 보 고 : 한재동 박사(총무)</p> <p>회의록 낭독 : 최동규 박사(서기)</p> <p>회 계 보 고 : 서승룡 박사(회계)</p> <p>이사회 임원 선임보고 : 김윤규 박사(이사장)</p> <p>회장과 감사인준 : 회장 나형석 박사</p> <p>기 타 토 의 : 안건심의 및 결의사항</p> <p>성찬집례 : 나형석 목사</p> |
| <p>제20회 2015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p> | <p>제20회 정기총회</p> <p>주 제 : 실천신학에서의 융합과 통섭</p> <p>일 시 : 2015년 2월 13일(금) 오후 2시-14일(금) 오후1시</p> <p>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 032-556-0880</p> <p>사 회 : 김충렬 목사</p> <p>개 회 기 도 : 나형석 목사</p> <p>성 경 봉 독 : 한재동 목사</p> <p>설 교 : 김충렬 목사</p> <p>학회 고문, 이사, 임원소개 : 김충렬 목사</p> <p>대회 발표자, 논찬자, 좌장 소개 : 김경진 목사</p> <p>축 도 : 조기연 목사</p> |
| <p>제21회 2016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p> | <p>제21회 정기총회</p> <p>일 시 : 2016년 2월 12일(금) 15시-13일(토) 12시</p> <p>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 032-556-0880</p> <p>사 회 : 김한옥 회장</p> <p>개 회 기 도 : 나형석 박사</p> <p>감 사 보 고 : 김순환, 문병하 박사</p> <p>사 업 보 고 : 김상백 박사(총무)</p> <p>회의록 낭독 : 최진봉 박사(서기)</p> <p>회 계 보 고 : 서승룡 박사(회계)</p> <p>회장과 감사 선임보고 : 김세광 박사</p> <p>회장과 감사인준 : 회장 김한옥 박사</p> <p>기 타 토 의 : 안건심의 및 결의사항</p> <p>폐회선언 : 김한옥 목사</p> |
| <p>제22회 2017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p> | <p>제22회 정기총회</p> <p>일 시 : 2017년 2월 10일(금) 15시-11일(토) 12시</p> <p>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 032-556-0880</p> <p>사 회 : 한재동 회장</p> <p>개 회 기 도 : 김충렬 박사</p> |

| | |
|--|---|
| | <p>감 사 보 고 : 문병하, 서승룡 박사 사 업 보 고 : 황병준 박사(총무) 회의록 낭독 : 최진봉 박사(서기) 회 계 보 고 : 민장배 박사(회계) 회장과 감사 선임보고 : 조재국 박사 회장과 감사인준 : 회장 조재국 박사 기 타 토 의 : 안건심의 및 결의사항 폐회선언 : 한재동 박사</p> |
| <p>제23회 2018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p> | <p>일 시 : 2018년 2월 9일(금) 15시-10일(토) 12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6-0880) 사 회 : 조재국 회장 개 회 기 도 : 김충렬 박사 감 사 보 고 : 신현광, 서승룡 박사 사 업 보 고 : 민장배 박사(총무) 회의록 낭독 : 윤성민 박사(서기) 회 계 보 고 : 김병석 박사(회계) 회장과 감사 선임보고 : 김한옥 박사 회장과 감사인준 : 회장 김경진 박사 감사 신현광 윤성민 박사 편집위원장 선임 : 한재동 박사 폐회선언 : 조재국 박사</p> |
| <p>제23회 1차 임시총회</p> | <p>주 제 : 급격한 사회변화와 실천신학 과제 일 시 : 2018년 5월 19일(토) 9시 30분-15시 30분 장 소 : 장로회신학대학교(여전도회기념 음악관) 회의록낭독: 박은정박사(총무) 회칙 개정 결의</p> |
| <p>제 24회 2019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p> | <p>일 시 : 2019년 2월 15일(금) 2시-16일(토) 12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6-0880) 사 회 : 김경진 회장 개 회 기 도 : 김한옥 박사 감 사 보 고 : 신현광 박사 사 업 보 고 : 서승룡 박사(총무) 회의록 낭독 : 박은정 박사(서기) 회 계 보 고 : 김병석 박사(회계) 회장과 감사 선임보고 : 김경진 박사 회장과 감사인준 : 회장 김상백 박사 감사 윤성민 김병석 박사 편집위원장 선임 : 한재동 박사 폐회선언 : 김경진 박사</p> |
| <p>제 25회 2020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p> | <p>일 시 : 2020년 2월 7일(금) 오후 2시~2월 8일(토) 오후 12시 장 소 : 인천 카리스호텔(032-556-0880) 사 회 : 김상백 회장</p> |

| | |
|--|--|
| | <p>개 회 기 도 : 한재동 박사 감 사 보 고 : 윤성민, 김병석 박사 사 업 보 고 : 서승룡 박사 회의록 낭독 : 박은정 박사 회 계 보 고 : 조지훈 박사 회장과 감사 총회인준 : 김상백 박사 제25대 임원소개 및 신규임원교체 : 25대 회장이 소개 폐회선언 : 김상백 박사</p> |
|--|--|

▶ 한국실천신학회 학술대회 목록 ◀

(1993 - 2020)

<기독교학회로부터 분류 이후>

| | |
|-------|--|
| 1993년 | <p>제1회 정기학술세미나 박근원 박사(한신대 교수), “코이노니아와 실천신학” 윤종모 박사(성공회신대 교수), “해방과 치유를 위한 목회” 염필영 박사(감신대 교수), “실천신학 어떻게 할 것인가?”</p> |
| 1994년 | <p>제2회 정기학술세미나 김원쟁 박사(연세대 교수), “신학교육에 있어서 무의식의 문제” 홍성철 박사(서울신대 교수), “세속화와 회심” 유해룡 박사(대전신대 교수), “영적형성의 모델연구”</p> |
| 1995년 | <p>제3회 정기학술세미나 이호영 박사(계명대 교수), “성찬과 해방”</p> |
| 1996년 | <p>제4회 정기학술세미나 홍명희 박사(목민원 부원장), “포스트모던과 실천신학의 위치”</p> |
| 1997년 | <p>제5회 정기학술세미나 김세광 박사(서울장신대 교수), “문화변동에 따른 21세기 예배의 변화 전망”</p> |
| 1998년 | <p>제6회 정기학술세미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 2. 5-6 2. 장소: 청주 수안보 파크호텔 3. 발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김한옥 박사(서울신대 교수), “현대목회와 평신도-목회적 교회를 위한 교회의 형태적 생리학적 존재형식”, II. 손운산 박사(이화여대 교수), “상처입은 한반도적 자아치유를 위한 상담목회” |

| | |
|--------------|--|
| <p>1999년</p> | <p>제7회 정기학술세미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 2. 5-6 2. 장소: 이천 미란다호텔 3. 발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김원정 박사(연세대 교수), “한국교회의 목회적 과제로서의 심리적 성숙과 영적 성숙” II. 김은수 박사(전주대 교수) “뉴에이지 운동과 선교적 과제” |
| <p>2000년</p> | <p>제8회 정기학술세미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 2. 11-12 2. 장소: 유성 로얄호텔 3. 발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정인교 박사(서울신대 교수), “21세기설교의 갱신-영상설교는 설교의 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II. 김진영 박사(평택대 교수), “관계를 통한 자기정체성 발견-유교와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
| <p>2001년</p> | <p>제9회 정기학술세미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 2001년 2. 2-3 2. 장소: 유성호텔 3. 발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주승중 박사(장신대 교수), “교회력과 성서일과를 통한 설교” II. 박노권 박사(목원대 교수), “회심의 심리학적 이해: 공헌과 한계”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black;"/> <p>제10회 정기학술세미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 2001년 10. 18-19 2. 장소: 경주교육문화회관 3. 발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이기춘 박사(감신대 교수), “실천신학회, 교회음악회, 목회상담학회의 회고와 전망” II. 김순환 박사(한국성서대 교수), “성찬의 4중행위와 한국교회 예배의 내일” 4. 논찬: 나동광 박사(경성대 교수) |

| | |
|--------------|--|
| <p>2002년</p> | <p>제11회 정기학술세미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 2002년 2. 1-2 2. 장소: 유성호텔 3. 발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이성민 박사(감신대 교수), “포스트모던 실천신학의 방법론으로서의 ‘몸 뜻’ 해석학” II. 김경진 박사(장신대 교수), “초기 한국교회의 장로교 예배” <hr/> <p>공동워크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 2002년 7. 1-3 2. 장소: 울릉도 3. 실천신학회회원을 위한 공동 워크샵 <p>제12회 정기학술세미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 2002년 10. 18-19 2. 장소: 사랑의 교회수양관 3. 발표: I. 김운용 박사(장신대 교수), “새로운 설교학 운동과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추구” (프레드 B 크래독의 설교신학을 중심으로). 4. 논찬: 이성민 박사(감신대 교수) |
| <p>2003년</p> | <p>제13회 정기학술세미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 2003년 2. 4 - 5 2. 장소: 청부상당교회 3. 발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김충환 박사(호신대 교수), “예배, 찬양 그리고 워십댄스” II. 김성대 박사(경성대 교수), “시편 표제에 나타난 음악관련 용어 연구” <hr/> <p>공동워크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 2003년. 8. 5-6 2. 장소: 속리산 3. 실천신학회 회원을 워크샵 <hr/> |

| | |
|--------------|---|
| | <p>제14회 정기학술세미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 2003년 10. 24 - 25 2. 장소: 사랑의 교회수양관 3. 발표: I. 허도화 박사(계명대 교수), “생명과 생태를 축하하는 예배” 4. 논찬: 문병하 박사(그리스도신대 교수) |
| <p>2004년</p> | <p>제15회 정기학술세미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 : 2004년 2월 6일(금) - 7일(토) 2. 장소 : 울곡교회 단양수양관(가홍순목사 숙식제공) 3. 발표 : 1. 예배 : 사회 : 위형윤 박사(안양대 교수) 기도 : 백상열 박사(은진영성수련원원장) 설교 : 문성모 박사(대전신대 총장) 2. 발표자 : 허정갑 박사(연세대 교수) 제 목 : 기독교 입교 : 세례와 견신례 논찬자 : 김금용 박사(호신대 교수) 3. 발표자 : 차명호 박사(호서대 교수) 제 목 : 한국교회와 미래목회 패러다임의 변화 논찬자 : 김한옥 박사(서울신대 교수) <p>제16회 정기학술세미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 : 2004년 6월(토) 11시 2. 장소 : 후암백합교회 3. 발표 : 1. 발표자 : 김금용 박사(호신대 교수) 제 목 : 설교와 예배준비의 의미에 대한 연구 논찬자 : 김윤규 박사(한신대 교수) 2. 발표자 : 조기연 박사(서울신대 교수) 제 목 : 카톨릭교회 예배 논찬자 : 문상기 박사(침례신대 교수) <hr/> <p>제17회 정기학술세미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 : 2004년 10월 22 - 23일 2. 장소 : 대전유성관광호텔 3. 발표자 : 문병하 박사(그리스도신대 교수) 21세기 한국교회를 위한 영적 리더쉽과 지도자론 논찬자 : 나형석 박사(협성신대 교수) |
| <p>2005년</p> | <p>제18회 정기학술세미나</p> |

1. 일시 : 2005년 1월 28(금) - 29일(토)
2. 장소 : 아우내재단 한국디아코니아 자매회
3. 예배 : 사회 : 위형운 박사(총무/안양대 교수)
 설교 : 문성모 박사(회장/대전신대 총장)
 기도 : 백상열 박사(부회장/은진영성아카데미 원장)
4. 발표 :
 - I. 발표자 : 안덕원 박사(서울신대 겸임교수)
 제 목 : 기독교 예전에 있어서 새로운 교회연합운동의 모색
 과 전망
 논찬자 : 김순환 박사(한국성서대 교수)
 - II. 발표자 : 홍주민 박사(한신대 오래교수)
 제 목 :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 실천을 위한 디아코니아학
 의 가능성 모색
 논찬자 : 김윤규 박사(한신대 교수)

제19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 2005년 6월 18(토)
2. 장소 : 분당새벽월드 평화센터
3. 예배 : 사회 : 문성모 박사(회장/대전신대 총장)
 설교 : 김소영 박사(영남신대 명예총장/마닐라 장신대 총장)
 기도 : 백상열 박사(부회장/왕대리교회 목사)
4. 발표 : 1. 좌 장 : 위형운 박사(총무/안양대 교수)
 발표자 : 조재국 박사(연세대교수)
 제 목 : 한국교회 설교언어의 상징적 구조와 기능에 관
 한 연구
 논찬자 : 이명희 박사(침신대 교수)
 2. 좌 장 : 김운용박사(장신대 교수)
 발표자 : 김충렬 박사(한국상담치료연구소 소장)
 제 목 : 빅토 프랭클의 삶의 의미론과 신앙생활
 논찬자 : 차명호 박사(전 호서대 교수/강북교회 목사)
5. 종합평가 : 박근원 박사(한신대 명예교수)

제20회 정기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

1. 일시 : 2005년 10월 21(금)-22(토)
2. 장소 : 사랑의 수양관
3. 발표 : 1. 좌 장 : 주승중 박사(장신대 교수)

| | |
|--------------|---|
| | <p>발표자 : 나형석 박사(협성대 교수) 제 목 : 성찬과 하나님의 나라 논찬자 : 조기연 박사(서울신대 교수)</p> <p>4. 정기총회 : 1. 회칙수정 및 개정 2. 임원선거 및 이사, 각위원장 선임</p> |
| <p>2006년</p> | <p>제21회 정기학술세미나</p> <p>1. 일시 : 2006년 2월 4일 2. 장소 : 감리교신학대학교 3. 개회예배 사회 : 조기연 박사 (총무) 찬송 : 246장 기도 : 나형석 박사 (서기) 성경 : 안선희 박사 설교 : 백상열 박사 (회장) 인사말 : 김외식 박사 (감신대총장) 주기도</p> <p>4. 발표 제1발표 : 좌장 : 김한옥 박사 (서울신대 교수) 발표 : 김세광 박사 (서울장신대 교수)</p> <p>제목 :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본 예배 논찬 : 허정갑 박사 (연세대 교수)</p> <p>제2발표 : 좌장 : 김윤규 박사 (한신대 교수) 발표 : 박해정 박사 (감신대 교수) 제목 : 한국 초기 감리교회의 성만찬 이해 (1885-1935) 논찬 : 주승중 박사 (장신대 교수)</p> <hr/> <p>제22회 정기학술세미나</p> <p>1. 일시 : 2006년 6월 3일 (토) 2. 장소 : 안동교회 3. 개회예배 사회 : 조기연 박사 (총무) 기도 : 위형윤 박사 (부회장) 성경봉독 : 김세광 박사 (서기)</p> |

| | |
|--------------|--|
| | <p>설교 : 백상열 목사 (회장)</p> <p>4. 발표</p> <p>제1발표 : 좌장 : 김운용 박사 (장신대 교수) 발표 : 김순환 박사 (한국성서대 교수) 제목 : 성서정파와 강해설교의 접목 가능성과 실제 논찬 : 정인교 박사 (서울신대 교수)</p> <p>제2발표 : 좌장 : 이성민 박사 (감신대 교수) 발표 : 김성민 박사 (협성대 교수) 제목 : 민담의 분열과 C.G.용의 개성화 과정 -기독교 영성수련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p> <p>논찬 : 이재훈 박사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소장) 논찬2 : 김충렬 박사 (한국상담치료연구소 소장)</p> <hr/> <p>제23회 정기학술대회 : 기독교공동학회</p> <p>1. 일시 : 2006년 10월 20일 (금) 2. 장소 : 대전신학대학교 3. 발표 : 기도 : 백상열 박사 (회장) 좌장 : 조기연 박사 (서울신대 교수) 발표 : 허정갑 박사 (연세대 교수) 제목 : 성만찬적 교회론 -성도의 고제를 중심으로- 논찬 : 안선희 박사 (이대 교수)</p> |
| <p>2007년</p> | <p>제24회 정기학술대회</p> <p>1. 일시 : 2007년 2월 9일 ~ 10일 2. 장소 : 미란다 호텔 (경기도 이천) 3. 개회예배 사회 : 조기연 박사 (총무) 기도 : 위형운 박사 (부회장) 성경봉독 : 백상열 박사 (회장) 설교 : 박근원 박사 (전 한신대 총장) 축도 : 정장복 박사 (한일장신대 총장)</p> <p>4. 발표</p> <p>제1발표 : 좌장 : 김운용 박사 (장신대 교수) 발표 : 김한옥 박사 (서울신대 교수) 제목 : 한국교회 소그룹 목회의 상태와 발전 방안</p> |

| | |
|--------------|--|
| | <p>논찬 : 문병천 박사 (그리스도신대 교수)</p> <p>제2발표 : 좌장 : 김윤규 박사 (한신대 교수)</p> <p>발표 : 평신도 목회의 퍼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구</p> <p>논찬 : 최종인 박사 (평화교회 목사/서울신대 외 래교수)</p> <p>제3발표 : 좌장 : 위형윤 박사 (안양대 교수)</p> <p>발표 : 주승중 박사 (장신대 교수)</p> <p>제목 : 21세기 한국교회 예배를 위한 영성</p> <p>논찬 : 남호 박사 (목원대 교수)</p> <p>.....</p> <p>제25회 정기학술세미나 : 기독교공동학회</p> <p>1. 일시 : 2007년 5월 18일 (금)</p> <p>2. 장소 : 한세대학교</p> <p>3. 발표 : 인사말 및 기도 : 백상열 박사 (회장)</p> <p>좌장 : 나형석 박사 (협성대 교수)</p> <p>발표 : 박근원 박사 (한신대 명예교수/ 한국실천신학회 회장(1987~1991/ 한국기독교학회회장(1991~1993))</p> <p>제목 : 한국실천신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p> <p>논찬 : 위형윤 박사 (안양대 교수)</p> |
| | <p>제26회 정기학술대회(영어발표) : 기독교공동학회</p> <p>1. 일시 : 2007년 10월 19일 (금)</p> <p>2. 장소 : 대전신학대학교</p> <p>3. 발표 : 기도 : 정장복 박사 (한일장신대 총장 / 제8대 회장)</p> <p>좌장 : 나형석 박사 (협성대 교수)</p> <p>발표 : 주인옥 박사 (장신대 강사)</p> <p>주제 : Shared Poiesis(쉐어드 포이에시스)</p> <p>논찬 : 김순환 박사 (한국성서대 교수)</p> |
| <p>2008년</p> | <p>제27회 정기학술대회</p> <p>1. 일시 : 2008년 2월 2일 오전 10시 - 4시 30분</p> <p>2. 장소 : 연세대학교 루스채플</p> <p>3. 개최예배</p> <p>사회 : 김세광 박사 (총무)</p> |

| | |
|--------------|---|
| | <p>기도 : 나형석 박사 (서기) 설교 : 문성모 박사 (12대 회장) 축도 : 박근원 박사 (4. 5대 회장)</p> <p>4. 발표</p> <p>제1발표 : 좌장 : 위형운 박사 (회장 / 안양대 교수) 발표 : 이요섭 박사 (세종대 교수) 제목 : 크리스천의 리더십에 관한 고찰 논찬 : 조재국 박사 (연세대 교수)</p> <p>제2발표 : 좌장 : 김윤규 박사 (한신대 교수) 발표 : 반신환 박사 (한남대 교수) 제목 : 노인자살의 특징과 목회적 개입 논찬 : 김충렬 박사 (한국상담치료연구소 소장)</p> <p>제3발표 : 좌장 : 김순환 박사 (한국성서대 교수) 발표 : 김상백 박사 (순복음신학대학원대 교수) 제목 : 도시사회에서의 영성목회에 대한 연구 논찬 : 조성돈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 교수)</p> <p>종합토론 : 좌장 : 김세광 박사((성루장신대 교수)</p> |
| <p>2008년</p> | <p>제28회 정기학술대회</p> <p>1. 일시 : 2008년 6월 7일 오전 9시 30분 - 4시 30분 2. 장소 : 안양대학교 아리관 105(CEO Room) 3. 개최예배</p> <p>사회 : 김세광 박사 (총무) 기도 : 이요섭 박사 (세종대학교 교수) 특송 : 안양대학교 쌍투스 중창단 -지휘 : 손인오 (영혼의 아름다운 소리 연구소 소장) 설교 : 위형운 박사(안양대학교 교수 / 회장) 약사 : 문성모 박사(서울장신대학교 총장 / 제12대 회장) 축도 : 박근원 박사(전한신대 총장 / 제4-5대 회장)</p> <p>4. 발표</p> <p>제1발표 : 좌장 : 김윤규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발표 : 조성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 제목 :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와 그 현실 논찬 : 이현웅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p> <p>제2발표 : 좌장 : 조재국 박사(연세대학교 교수) 발표 : 정재영 박사(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 제목 : 자살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과 교회의</p>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책임</p> <p>논찬 : 김선일 박사(서울장신대 연구교수)</p> <p>제3발표 : 좌장 : 김경진 박사(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p> <p> 발표 : 김충렬 박사(한국 상담치료 연구소 소장)</p> <p> 제목 : 기독교인의 자살과 그 대책</p> <p>논찬 : 반신환박사(한남대학교 교수)</p> <p>제4발표 : 좌장 : 김금용 박사(호남신학대학교 교수)</p> <p> 발표 : 김순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p> <p> 제목 : 예배, 타나토스를 넘어선 승리의 아담네시스</p> <p>논찬1 : 주승중 박사(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p> <p>논찬2 : 이명희 박사(침례신학대학교 교수)</p> <p>종합토론 : 좌장 : 김세광 박사(서울장신대 교수)</p> |
| <p>2008년</p> | <p>제29회 정기학술대회</p> <p>총주제 : 한국교회 예배갱신과 구역공동체를 위한 빈곤복지와 디아코니아</p> <p>일 시 : 2008년 9월 6일(토)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p> <p>장 소 : 분당한신교회 별세홀(지하2층)</p> <p>I. 9시 30분 - 10시 아침간식 및 접수와 친교</p> <p>II. 10시 - 10시 30분 경건회</p> <p> 사 회 : 김세광 박사(총무/서울장신대학교 교수)</p> <p> 기 도 : 김윤규 박사(회계/한신대학교 교수)</p> <p> 특 송 : 테너 손인오 (영혼의 아름다운소리 연구소 소장)</p> <p> 설 교 : 이운재 박사(분당한신교회 담임목사)</p> <p> 인 사 : 위형운 박사(회장/안양대학교 교수)</p> <p> 축 도 : 이말테 목사(루터대학교 교수/국제관계진흥회위원장)</p> <p>III. 정기학술발표회</p> <p>10시 30분 - 11시 제1발표 : 이현웅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p> <p> 주 제 : 한국교회 예배신학의 외연 확장을 위한 한 모델로서 존 칼빈(John Calvin)의 예배와 나눔의 실천</p> <p> 좌 장 : 주승중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p> <p>11시 20분 논 찬 : 한재동 박사(나사렛대학교 교수)</p> <p>11시 30분 질 의 : 이승진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p> <p>11시 30분 - 12시 제2발표 : 나형석 박사(서기/협성대학교 교수)</p> |

| | |
|--|---|
| | <p>주 제 : 고든 래트롭의 예배비평론과 한국교회 예배갱신을 위한 합의 연구</p> <p>좌 장 : 정인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p> <p>12시 20분 논 찬 : 조기연 박사(부회장/서울신학대학교 교수)</p> <p>12시 30분 질 의 : 이명희 박사(침례신학대학교 교수)</p> <p>12시 30분 - 13시 30분 점심식사 교회식당(분당한신교회에서 제공)</p> <p>13시 30분 - 14시 제3발표 : 손의성 박사(배재대학교 교수)</p> <p>주 제 : 구역을 중심으로 한 빈곤복지의 신학적 근거와 실천에 관한 연구</p> <p>좌 장 : 이요섭 박사(세종대학교 교수)</p> <p>14시 20분 논 찬 : 이승열 박사(예장 총회사회봉사부 총무)</p> <p>14시 30분 질 의 : 조성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p> <p>14시 30분 - 15시 제4발표 : 허우정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p> <p>주 제 : 하인츠 바그너(Heinz Wagner)의 디아코니아 이해와 한국교회</p> <p>좌 장 : 김순환 박사(감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p> <p>15시 20분 논 찬 : 홍주민 박사(한신대학교 연구교수)</p> <p>15시 30분 질 의 : 김충렬 박사(한국상담치료연구소 소장)</p> <p>15시 30분 - 16시30분 종합토론: 좌장 : 위형운 박사(회장/안양대학교 교수)</p> <p>총평논찬 : 김윤규 박사(회계/한신대학교 교수)</p> <p>질의응답 : 다같이</p> |
| | <p>제30회 정기학술대회 : 기독교학회와 공동학회</p> <p>일 시 : 10월 17일(금)-18일(토) 장소 : 침례신학대학교</p> <p>발표자 : 기독교학회 : 안선희 박사(이화여자대학교 교수)</p> <p>논 찬 : 황금봉 박사(영남신학대학교 교수)</p> <p>발표1 : 홍주민 박사(한신대학교 연구교수)</p> <p>주 제 : 섬김의 길로서의 선교 확장 방안</p> <p>논찬1 : 김윤규 박사(한신대학교 교수)</p> <p>발표2 : 김금용 박사(호남신학대학교 교수)</p> <p>주 제 : 한국교회의 위기와 설교학적 한 답변</p> <p>논찬2 : 허도화 박사(계명대학교 교수)</p> |

2009-1

제31회 정기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총주제 : 목회현장에서 본 실천신학(현실과 비전)

일 시 : 2009년 2월 6일(금) 오후 3시-7일(토) 오전 12시

장 소 : 호텔 아카데미 하우스(구 크리스찬 아카데미)

I. 2월 6일(금) 오후 3시 - 30분 접수와 인사

II. 3시 30분 - 4시 경건회

사 회 : 위형윤 박사(회장/안양대학교 교수)

기 도 : 김금용 박사(학술분과위원장/호남신학대학교 교수)

설 교 : 김종렬 박사(전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축 도 : 박근원 박사(전 한신대학교 총장)

III. 4시 - 5시 주제강연 : 목회현장에서 본 실천신학(현실과 비전)

사 회 : 김세광 박사(총무/서울장신대학교 교수)

강 연 : 박종화 박사(경동교회 담임목사)

IV. 제I 학술발표회(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눔)

A그룹(천은실) 5시-40분 제1발표: 권명수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주 제 : 루돌프 보렌과 박근원 실천신학 구조 비교

좌 장 : 정인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6시 00분 논 찬 : 이승진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6시 10분 논 찬 : 홍주민 박사(한신대학교 연구교수)

6시 30분 질의응답

B그룹(622호) 5시-40분 제2발표: 차명호 박사(부산장신대학교 교수)

주 제 : 창조에 대한 예배학적 고찰과 적용

좌 장 : 이광희 박사(평택대학교 교수)

6시 00분 논 찬 : 김순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6시 10분 논 찬 : 손의성 박사(배제대학교 교수)

6시 30분 질의응답

V. 저녁식사 6시 30분-7시 10분(식사와 숙박 경동교회에서 제공)

식사기도 : 이말테 목사(루터대학교 교수)

VI. 제II 학술발표회(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눔)

A그룹(천은실) 7시-40분 제3발표: 김성민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주 제 : Madame Guyon의 신비주의와 영성

좌 장 : 조재국 박사(연세대학교 교수)

8시 00분 논 찬 : 김충렬 박사(한일장신대 교수/한국상담치료
연구소장)

8시 10분 논 찬 : 반신환 박사(한남대학교 교수)/25

8시 30분 질의응답

B그룹(622호) 7시-40분 제4발표: 김광건 박사(서울장신대학교 교수)

주 제 : 리더십 변수들에 관한 개론적 고찰

좌 장 : 이요섭 박사(세종대학교 교수)

8시 00분 논 찬 : 조성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8시 10분 논 찬 : 정재영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8시 30분 질의응답

VII. 8시 30분-9시 30분 제III 학술대회와 자유토론(전체모임 : 천은실)

주 제 : 최근 실천신학의 흐름에 관한 분석과 전망

좌 장 : 김윤규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1. 회원들의 정보교환과 최근 관심
2. 최근 신학대학들의 과목변경 및 전망
3. 제1. 2. 3. 4. 발표에 대한 검토와 보완
4. 기타 학문적 동향

VIII. 9시 30분-10시 제IV 임시총회

사 회 : 위형윤 회장 / 김세광 총무

- 안 건 : 1. 회칙개정
2. 논문 신학과 실천 원고모집 일정
 3. 학술대회일정 및 발표자 모집
 4. 기타 사업계획

IX. 10시- 취침 및 자유시간 : 가 분과 모임 등

X. 2월 7일(토)

오전기상 6시 30분-8시 간단한 산책 : 택일 4.19 묘지/ 북한산

안 내 : 김윤규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 | |
|---------------|--|
| | <p>8시 30분-9시 30분 아침식사 식사기도 : 김순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p> <p>XI. 제III 학술발표회(전체모임: 천은실) 오전 9시 30분-10시 10시 제5발표 : 한재동 박사(나사렛대학교 교수) /87 주 제 : 예배경신의 내포적 의미와 그 실현 범위 좌 장 : 김경진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10시 30분 논 찬 : 박해정 박사(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106 10시 40분 논 찬 : 백상열 박사(직전회장/왕대리교회 담임목사) 11시 질의응답</p> <p>XII. 제IV 종합토론(전체모임: 천은실) 11시-11시 30분 좌 장 : 나형석 박사(협성대학교 교수)</p> <p>XIII. 제V 점심 및 폐회 11시 30분-12시 폐회기도 : 김종렬 박사(전 영남신대 총장)</p> |
| <p>2009-2</p> | <p>제32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09년 5월 30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장 소 : 서울장신대학교 강신명 홀</p> <p>I. 예 배 사회 : 위형윤 박사(회장) 기도 : 이말테 박사(루터대학교 교수) 설교 : 김외식 박사(전 감신대학교 총장) “한국실천신학회의 회고와 전망”</p> <p>II. 발 표 제1발표 : 심상영 박사 “...분석심리학과 무의식...”(한국심층심리연구소장) 좌장 : 김종렬 박사(한일장신대 교수) 논찬1 : 반신환 박사(한남대 교수) 논찬2 황병준 박사(호서대 교수) 제2발표 : 하도균 박사(서울신대 교수) “대거부락 전도운동에 관한 소고” 좌장 : 차명호 박사(부산장신대 교수) 논찬1 : 김선일 박사(웨신대 교수) 논찬2 이요섭 박사(세종대 교수) 제3발표 : 조기연 박사(서울신대 교수) “예배의 일반적 이해” 좌장 : 김순환 박사(서울신대 교수) 논찬1 : 한재동 박사(나사렛대 교수) 논찬2 이현웅 박사(한일장신대 교수) 제4발표 :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 교수) “기독교봉사개념의 기초...”</p> |

| | |
|---------------|---|
| | <p>좌장 : 홍주민 박사(한신대 연구교수) 논찬1 : 이승렬 박사(예장사회부총무) 논찬2 허우정 박사(실천신대 교수) 제5발표 : 최동규 박사(서울신대 교수) “한국포스트모던 문화와 교회 성장...” 좌장 : 조재국 박사(연세대 교수) 논찬1 : 백상렬 박사(은진아카데미 원장) 제6발표 : 류원열 박사(연대/장신대 강사) “웨슬리의 설교연구”</p> <p>좌장 : 주승중 박사(장신대 교수) 논찬1 : 이승진 박사(실천신대 교수) 논찬2 김경진 박사(장신대 교수) 제7발표 : 조창연 박사(대한신학대 교수) “한국사회의 변화 ... ” 좌장 : 정인교 박사(서울신대 교수) 논찬1 : 조성돈 박사(실천신대 교수) 논찬2 이명희 박사(침신대 교수)</p> <p>종합토론 좌장 : 김윤규 박사(한신대 교수) 응답 : 김종렬 박사(목회교육원원장) 폐회기도 : 백상렬 박사(은진아카데미 원장)</p> |
| <p>2009-3</p> | <p>제33회 한국실천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교회성장동력교회 연구모임 일 시 : 9월 5일(토) 장소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원목실 주 제 : 1. 한국교회 성장동력교회 연구 2. 다음 발표 연구모임 : 11월 21일 세브란스병원 원목실 참석자 : 위형운 김윤규 조재국 조기연 김세광 김순환 이요섭 박해정 조성돈 정재영 최동규</p> |
| <p>2009-4</p> | <p>제34회 한국실천신학회 학술대회 : 한국기독교학회공동학회 일 시 : 10월 16일(금) 오후 1시- 17일(토) 1시 40분 장 소 :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주 제 : 21세기 한국문화와 기독교 ▶ 16일(금) 12시 30분 - 1시 등 록 ▶ 16일(금) 1시 - 7시 개회예배 및 주제강연</p> |

| | |
|--------|--|
| | <p>▶ 16일(금) 7시 - 8시 20분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1) 예배분과</p> <p>주 제 : “기념이면서 소통인 예배 : 동시대 문화 속 예배 모색”</p> <p>좌 장 : 김 윤 규 박사(한신대학교 교수)</p> <p>발 표 : 김 순 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p> <p>논 찬 1 : 김 경 진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p> <p>논 찬 2 : 정 인 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p> <p>▶17일(토) 8시 - 9시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2) 상담분과</p> <p>주 제 : “기독교인 자살과 목회적 대응 -상담학의 관점에서- ”</p> <p>좌 장 : 이 명 희 박사(침례신학대학교 교수)</p> <p>발 표 : 김 충 털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p> <p>논 찬 1 : 김 성 민 박사(협성대학교 교수)</p> <p>논 찬 2 : 반 신 환 박사(한남대학교 교수)</p> <p>▶ 17일(토) 8시 - 9시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3) 목회사회분과</p> <p>주 제 : “인간의 생명과 존엄한 죽음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p> <p>좌 장 : 김 윤 용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p> <p>발 표 : 조 재 국 박사(연세대학교 교수)</p> <p>논 찬 1 : 조 성 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p> <p>논 찬 2 : 허 도 화 박사(계명대학교 교수)</p> |
| 2010-1 | <p>제35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p> <p>일 시 : 2010월 2월 5일(금) 오후 5시- 6일(토) 11시</p> <p>장 소 : 수원 소망아카데미</p> <p>주 제 : 한국교회 예배와 상담 그리고 복음전도</p> <p>I. 예배 : 제15회 총회년보 참조</p> <p>II. 제15회 정기총회 : 총회년보 참조</p> <p>III. 학술발표</p> <p>총주제 : 한국교회의 예배와 상담 그리고 복음전도</p> <p>1. 김병훈 박사 : 긴장에너지의 세가지 유형</p> <p>좌장 : 김충털 논찬1 이시철 논찬2 권명수</p> <p>2. 김충환 박사 : 구약시대에 나타난 트럼펫과 예배</p> <p>좌장 : 김한옥 논찬1 조재국 논찬2 김수천</p> <p>3. 홍순원 박사 : 성만찬의 사회윤리적 함의</p> |

| | |
|---------------|--|
| | <p>좌장 : 이현웅 논찬1 김경진 논찬2 김순환</p> <p>4. 김선일 박사 : 신학적 관점에서 복음전도</p> <p>좌장 : 나형석 박사 논찬1 문병하 논찬2 최동규</p> <p>IV. 폐회 : 별지와 같이 제15대 임원진 구성 발표</p> <p>제1대 이사회 이사 발표</p> <p>손인오 목사(영혼의 아름다운소리 연구회 소장)</p> |
| <p>2010-2</p> | <p>제36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p> <p>주 제 : 바람직한 한국교회의 실천신학적 방향과 실제</p> <p>일 시 : 2010년 6월 12일(토) 10:00 - 16:00</p> <p>장 소 : 초동교회 난곡홀 (02-765-0528)</p> <p>I. 접수 및 친교</p> <p>II 개회 예배 초동교회 난곡홀 인도: 조기연 교수 (1부회장)</p> <p>기도: 나형석 교수 (제1총무)</p> <p>설교: 강석찬 박사 (초동교회 담임목사)</p> <p>축도: 박근원 박사 (전한신대총장. 제 4대 5대 회장)</p> <p>알림: 나형석 교수</p> <p>III. 논문발표 - 분과학회별 나누어 지정호실</p> <p>1. 목회상담분과</p> <p>발제자: 김홍근(한세대) “애도를 통한 내면화과정과 새로운 자기 표상형성”</p> <p>좌장: 김성민(협성대) 논찬1: 반신환(한남대) 논찬2: 김병훈(호서대)</p> <p>2. 예배분과</p> <p>발표자: 김순환(서울신대) “개신교성찬예배를 위한 제언”</p> <p>좌장: 나형석(협성대) 논찬1: 주승중(장신대) 논찬2: 김경진(장신대)</p> <p>3. 설교분과</p> <p>발제자: 최진봉(장신대) “성례적 설교”</p> <p>좌장: 김윤규(한신대) 논찬1: 이승진(실천신학대학원) 논찬2: 전창희(협성대)</p> <p>4. 디아코니아분과</p> <p>발표자 홍주민(한신대) “독일사회국가 체계에서 교회 디아코니아의 역할 연구”</p> <p>좌장: 이승열(장로회총회사회봉사부총무) 논찬1: 김옥순(한일장신대) 논찬2: 황병배(협성대)</p> <p>5. 목회상담분과</p> <p>발표자: 박노권 (목원대) “렉시오 디비나의 활용가능성”</p> |

| | |
|---------------|---|
| | <p>3. 정재영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 : “정주채 목사의 용인 향상교회”</p> <p>4. 이요섭 박사(세종대 교수/ 교목실장) : “김학중 목사의 안산 꿈의 교회”</p> <p>III. 5시 30분 - 6시 종합토의 좌 장 : 조성돈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 위원회 간사) 총 평 : 조재국 박사(위원장)</p> <p>질의응답 : 전체 축도: 위형윤 교수 (이사장)</p> <p>“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4) 아멘</p> <p>IV. 6시 - 6시 30분 폐회 및 저녁식사</p> |
| <p>2010-4</p> | <p>제38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한국기독교학회와 공동 학술대회</p> <p>일 시 : 10월 22일(금) 오후 1시- 23일(토) 1시 30분 장 소 : 온양관광호텔 주 제 : 한국 그리스도인의 인간성 성찰</p> <p>▶ 22일(금) 12시 30분 - 1시 등 록 ▶ 22일(금) 1시 - 7시 개회예배 및 주제강연</p> <p>▶ 22일(금) 7시 10분 - 8시 30분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1) 상담분과 주 제 : “그리스도인의 특성과 전일성 회복” 좌 장 : 최재탁 박사(서울신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성 민 박사(형성대학교 교수) 논 찬 1 : 반 신 환 박사(한남대학교 교수) 논 찬 2 : 안 석 박사(서울기독교대학교 교수)</p> <p>8시 30- 9시 5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2) 예배분과 주 제 : “세례,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는 모태 ” 좌 장 : 박 해 정 박사(감리교대학교 교수) 발 표 : 조 기 연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차 명 호 박사(부산장신대학교 교수) 논 찬 2 : 진 창 희 박사(협성대학교 교수)</p> |

| | |
|---------------|--|
| | <p>▶ 23일(토) 8시 50 - 8시 55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3) 디아코니아분과</p> <p>주 제 : “예전의 해석학적 의미로서의 디아코니아 활동” 좌 장 : 홍 주 민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옥 순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논 찬 1 : 황 병 배 박사(협성대학교 교수)</p> <p>8시 55- 9시 2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4) 설교분과</p> <p>주 제 : “이명직 목사의 설교세계” 좌 장 : 주 승 중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발 표 : 정 인 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이 승 진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논 찬 2 : 김 순 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p> |
| <p>2011-1</p> | <p>제39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제16회 정기총회</p> <p>일 시 : 2월 11일(금) 오후 2시- 12일(토) 오전 12시 장 소 : 수원 소망아카데미 (경기대학교 입구 좌회전) 주 제 : “목회현장을 위한 간학문간 대화: 설교의 통합적 논의”</p> <p>▶ 11일(금) 14시 00분 - 15:00 등 록 ▶ 11일(금) 15:00 -15:30 개회예배</p> <p>▶ 11일(금) 15시 40분 - 17:0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1)</p> <p>주 제 : “한국감리교회의 세례 갱신과 설교에 대한 연구”</p> <p>좌 장 : 김 세 광 박사(서울장신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형 래 박사(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김 형 락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2 : 이 승 진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p> <p>18시 30- 19시 5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2)</p> <p>주 제 : “현대설교의 위기와 설교에서 힘을 주는 요소로서의 의지력의 적용성 연구 ”</p> <p>좌 장 : 정 인 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충 렬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논 찬 1 : 가 요 한 박사(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목사) 논 찬 2 : 조 성 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p> <p>20시 00 - 21시 2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3)</p> |

| | |
|---------------|---|
| | <p>주 제 : “의미있는 설교-성찬 예배를 위한 실천적 제안” 좌 장 : 김 운 용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발 표 : 나 형 석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논 찬 1 : 안 선 희 박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논 찬 2 : 조 기 연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p> <p>▶ 12일(토) 8시 55- 9시 2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4) 주 제 : “미디어 선포를 통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좌 장 : 김 순 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발 표 : 황 병 배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논 찬 1 : 한 재 동 박사(나사렛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2 : 류 원 렬 박사(평택대학교 교수)</p> <p>9시 30- 10시 5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5) 주 제 : “설교의 디아코니아적 접근” 좌 장 : 이 현 응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발 표 : 홍 주 민 박사(한국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최 진 봉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2 : 김 수 천 박사(협성대학교 교수)</p> <p>10시 50-11시 20 종합토의 : “목회현장과 간학문적 대화” 좌장: 김 윤 규 박사(한국신학대학교)</p> <p>11시 30- 12:00 제16회 정기총회 폐회예배-성만찬예배 인도: 조기연 박사(서울신학대학교)</p> <p>12 : 00 : 점심식사</p> |
| <p>2011-2</p> | <p>제40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5월 28일(토) 10:00- 15:30 장 소 : 신촌성결교회 신축분당:소예배실 주 제 : “변화하는 시대의 교회를 위한 실천신학의 가능성 모색”</p> <p>▶ 11시 20분 - 12:1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1) 주 제 : “내면아이 치료와 목회상담” 좌 장 : 김 성 민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발 표 : 오 제 은 박사(숭실대학교 교수) 논 찬 1 : 권 명 수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논 찬 2 : 류 제 상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3 : 안 석 박사(서울기독교신학대학교 교수)</p> |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2)

주 제 : “임상적 의사소통의 과정에 관한 연구”
좌 장 : 오 규 훈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병 훈 박사(호서대학교 교수)
논 찬 1 : 박 중 수 박사(강남대학교 교수)
논 찬 2 : 양 유 성 박사(평택대학교 교수)

▶ 13시 00 - 13시 5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3)

주 제 : “영적지도의 시대적 요청과 분별의 문제”
좌 장 : 김 세 광 박사(서울장신대학교 교수)
발 표 : 유 해 룡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이 강 학 박사(햇빛트리니티대학원대학교 교수)
논 찬 2 : 오 규 훈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4)

주 제 : “신학으로 미디어 읽기”
좌 장 : 이 요 섭 박사(세종대학교 교수)
발 표 : 이 길 용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성 석 환 박사(안양대학교 교수)
논 찬 2 : 최 동 규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14시 00 - 14시 5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5)

주 제 : “주요 서구 개신교회 예배의 현황과 그 비교 연구”
좌 장 : 문 병 하 박사(그리스도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순 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박 중 환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논 찬 2 : 한 재 동 박사(나사렛대학교 교수)
논 찬 3 : 김 경 진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6)

주 제 : “디아코니 질 관리경영에 관한 연구”
좌 장 : 김 윤 규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옥 순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논 찬 1 : 홍 주 민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논 찬 2 : 이 범 성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14시 50-15시 10 총 평 : 김 세 광 박사(수석부회장)

좌장: 김 윤 규 박사(한국신학대학교)

15시 10- 15:30 폐회기도회

| | |
|--|---------------------------------|
| | 인도: 조기연 박사(회장) 축도: 김윤규 박사(직전회장) |
|--|---------------------------------|

| | |
|--------|--|
| 2011-3 | <p>제41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p> <p>일 시 : 9월 24일(토) 장 소 : 세종대학교 애지헌교회 주 제 : “한국교회 성장동력세미나”</p> <p>▶ 11시 00 - 12:00 제1발표 주 제 : “한국교회 개혁모델:거룩한 빛 광성교회” 좌 장 : 나 형 석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발 표 : 조 성 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 교수)</p> <p>▶ 13시 00 - 14시 00 제2발표 (1) 주 제 : “오산평화교회 성장동력 분석과 적용” 좌 장 : 김 윤 규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발 표 : 하 도 균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p> <p>▶ 14시 00 - 15시 00 제2발표 (2) 주 제 : “오순절 영성목회로 성장하는 지구촌순복음교회” 좌 장 : 김 세 광 박사(서울장신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상 백 박사(순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p> <p>▶ 25:30 - 16:00 폐회기도회 인도: 조기연 박사(회장) 축도: 위형윤 박사(한국실천신학회 이사장)</p> |
| 2011-4 | <p>제42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한국기독교학회의와 공동학술대회</p> <p>일 시 : 10월 21일(금) ~ 22일(토) 장 소 : 온양관광호텔 주 제 : “글로벌시대의 한국신학”</p> <p>▶ 21일(금) 20시 00분 - 22:00 주제발표 (1) 주 제 : “한국교회 예배의 배경, 윤곽 그리고 내용” 좌 장 : 나 형 석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경 진 박사(장로회신대학교 교수)</p> |

| | |
|--------|---|
| | <p>▶ 21일(금) 17시 00 - 18시 30 학회별발표 (1) 주 제 : “한국교회의 종교성” 좌 장 : 정 인 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발 표 : 조 성 돈 박사(실천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 정 재 영 박사(실천신학대학교 교수)</p> <p>▶ 22일(토) 08시 20 - 09시 20 학회별발표 (2) 주 제 :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 좌 장 : 문 병 하 박사(그리스도신학대학교 교수) 발 표 : 최 동 규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 하 도 균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p> <p>▶ 25:30 - 16:00 폐회에배 및 성만찬 인도: 정장복 목사(한국기독교학회 회장)</p> |
| 2012-1 | <p>제43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제17회 정기총회 주 제 : 한국사회의 변화와 교회의 역할 일 시 : 2012년 2월 3일(금) 오후 2시 - 4일(토) 12:00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4-6400)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p> <p>▶ 2.3일(금) 15시 30분 - 17시 제1발표(주제발표) : 대연회장 주 제 : 한국사회의 변동과 기독교 발표자 : 조성돈 박사 좌 장 : 조기연 박사 논찬1 : 최현중 박사 논찬2 : 정재영 박사</p> <p>▶ 2.3일(금) 17시 00 - 18시 30분 학회별발표 (1) 제2발표 : 텅거벨 주 제 :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 전문성을 위한 신학적 성찰과 정책 방향 발표자 : 김옥순 박사 좌 장 : 위형윤 박사 논찬1 : 김한호 박사 논찬2 : 이범성 박사</p> <p>제3발표 : 피터펜 주 제 : 장 칼뱅의 인간이해와 목회적 돌봄 발표자 : 안 석 박사 좌 장 : 권명수 박사 논찬1 : 안민숙 박사 논찬2 : 채희용 박사</p> |

| | |
|--------|---|
| | <p>▶ 학회별발표 3 발표자: 김충렬 박사 주제: 한의 개념과 열등감의 상관성 연구 좌장: 김성민 박사/ 논찬1: 김홍근 박사/ 논찬2: 최재락 박사</p> <p>▶ 학회별발표 4 발표자: 최광현 박사 주제: 영성과 가족치료: 목회영성과 가족치료의 만남 좌장: 양유성 박사/ 논찬1: 정보라 박사/ 논찬2: 송민애 박사</p> <p>▶ 학회별발표 5 발표자: 김옥순 박사 주제: 디아코니아 관점에서 본 보편적 복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좌장: 홍주민 박사/ 논찬1: 김한호 박사/ 논찬2: 이범성 박사</p> <p>▶ 학회별발표 6 발표자: 오방식 박사 주제: 자기초월의 관점에서 바라본 토마스 머튼의 자기이해 좌장: 유해룡 박사/ 논찬1: 권명수 박사/ 논찬2: 이강학 박사</p> <p>▶ 학회별발표 7 발표자: 나형석 박사 주제: 희생으로서의 성찬 좌장: 김운용 박사/ 논찬1: 허정갑 박사/ 논찬2: 김명실 박사</p> <p>▶ 종합진행: 조기연 박사 폐회기도: 김윤규 박사</p> |
| 2012-3 | <p>제45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제: 제3차 한국 10대 교회성장동력 분석 발표회 일시: 2012년 9월 15일(토) 10:00-13:00 장소: 연세대학교 루스채플</p> <p>개회예배 좌장 조재국 박사(연세대학교 교수)</p> <p>제1 발표 :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신앙교회 발 표 자 : 위형운 박사(안양대학교 교수) 논 찬 : 이만규 목사(신양교회 담임목사) 질의응답</p> <p>제2 발표 : 하나님의 가족을 구현하는 참 교회: 목산교회 발 표 자 : 이 명 희 박사(침례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 윤창선 전도사(목산교회담임교역자)</p> |

| | |
|--------|--|
| | <p>질의응답</p> <p>제3 발표 : 열정으로 성장하는 군산성광교회 발 표 자 : 서승룡 박사(한신대학교 외래교수) 논 찬 : 양태운 목사(군산성광교회 담임목사)</p> <p>질의응답</p> <p>점심식사 임원회의</p> |
| 2012-4 | <p>제46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한국기독교학회와 공동학술대회</p> <p>일 시 : 10월 21일(금) ~ 22일(토) 장 소 : 온양관광호텔 주 제 : “통일과 화해”</p> <p>제1발표 북한이탈 주민의 자기표상 이해에 기초한 목회적 돌봄 발표자: 김홍근 박사(한세대학교 교수) 논찬자: 권명수 박사 안석 박사 좌 장: 이광희 박사</p> <p>제2발표 한국적 설교를 위한 한 시안으로서의 판소리설교에 관한 연구 발표자: 정인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논찬자: 이성민 박사 류원렬 박사 좌 장: 김옥순 박사</p> |
| 2013-1 | <p>제47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제18회 정기총회</p> <p>일 시 : 2013년 2월 1일(금) ~ 2일(토) 장 소 : 부천 카리스호텔 주 제 : 실천신학 학문적 위치와 미래</p> <p>개회예배</p> <p>제1발표 : 대연회장 총좌장 : 김경진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주제 1 : 실천신학의 실천신학적 이해 발표자 : 한재동 박사(나사렛대학교 교수) 주제 2 : 실천신학의 사회과학적 방법론 소고 발표자 : 박관희 박사(교회리서치연구소 대표)</p> <p>주제 3 : 실천신학의 역사적 변천과 미래적 과제 발표자 : 김세광 박사(서울장신대학교 교수)</p> <p>- 저녁식사 -</p> <p>제2발표 : 대연회장 총좌장 : 김충렬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주제 4 : 디아코니아신학의 실천신학적 위상과 그 과제들</p> |

| | |
|----------------------|--|
| | <p>발표자 :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주제 5 : 교회성장학의 학문적 특성과 실천신학의 방향 발표자 : 최동규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주제 6 : 영성인가? 아니면 상담심리치료인가? 영성지향적 상담심리치료로서의 기독교(목회)상담학 발표자 : 안 석 박사(서울기독대학교 교수)</p> <p>전체모임 및 인사</p> <p>제2회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p> <p style="text-align: center;">- 아침식사 -</p> <p>제3발표 : 대연회장 총좌장 : 김홍근 박사(한세대학교 교수) 주제 7 : 실천신학적 지평확대를 위한 예배학적 모색 발표자 : 김순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p> <p>폐회예배 - 성찬집례 : 김세광 박사 - - 사랑의 오찬 -</p> |
| <p>2013-2</p> | <p>제48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3년 6월 1일(토) 오전 10시-오후 4시 장 소 : 협성대학교 주 제 : 한국 교회와 사회를 위한 실천신학의 추구</p> <p>개회예배</p> <p>제1발표: 이상훈 박사 주제: 공공신학 윤리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 사회 좌장: 이승열 박사/ 논찬1: 김옥순 박사/ 논찬2: 김한호 박사</p> <p>제2발표: 황병배 박사 주제: The Rainer Scale을 통해 본 한국 불신자 유형조사와 효과적인 전도를 위한 선교적 통찰 좌장: 조재국 박사/ 논찬1: 조성돈 박사/ 논찬2: 최동규 박사</p> <p>제3발표: 김성민 박사 주제: 정신에너지와 정신치료: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의 회심체험에 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 좌장: 김충렬 박사/ 논찬1: 홍영택 박사/ 논찬2: 나형석 박사</p> <p>제4발표: 김형락 박사</p> |

| | |
|---------------|--|
| | <p>주제: 성찬예식의 기호학적 이해: Charles Sanders Peirce의 기호학을 중심으로 좌장: 이명희 박사/ 논찬1: 조기연 박사/ 논찬2: 안덕원 박사 - 점심식사 -</p> <p>제5발표: 조영창 박사 주제: 텍스트로서 은유적 설교문의 신학적 이해를 위한 방법에 관한 연구: 가다머, 은유, 그리고 설교문의 신학적 해석 좌장: 김세광 박사/ 논찬1: 이성민 박사/ 논찬2: 최진봉 박사</p> <p>제6발표: 김정은 박사 주제: 화해의 영성 좌장: 유해룡 박사/ 논찬1: 김수천 박사/ 논찬2: 이강학 박사</p> <p>제7발표: 유재원 박사 주제: 한국형 이머징 예배의 가능성 모색 좌장: 민장배 박사/ 논찬1: 김순환 박사/ 논찬2: 박해정 박사 - 휴식시간 -</p> <p>제8발표: 전창희 박사 주제: 설교와 성경해석학 좌장: 정인교 박사/ 논찬1: 이현웅 박사/ 논찬2: 니형석 박사</p> <p>제9발표: 하도균 박사 주제: 교회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복음전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좌장: 박해정 박사/ 논찬1: 김선일 박사/ 논찬2: 정재영 박사</p> <p>제10발표: 신경섭 박사 주제: J. 칼빈과 C.G.용의 종교체험 비교연구 좌장: 권명수 박사/ 논찬1: 원영재 박사/ 논찬2: 박영의 박사 - 종합토론 및 폐회 - 진행: 김세광 박사 폐회기도: 조기연 박사</p> |
| <p>2013-3</p> | <p>제49회 정기학술대회개회 및 한국영성신학회 창립예배 주 제 : 제4차 한국10대 성장동력교회 분석 일 시 : 2013년 9월 28일(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2시 20분 장 소 : 은평감리교회(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53-16)</p> <p>학술대회 전체 좌장 : 김윤규 박사 제1발표: 김한호 박사 주제: 디아코니아 목회와 교회성숙</p> |

| | |
|---------------|---|
| | <p>논찬: 허우정 박사 (김옥순 박사)</p> <p>제2발표: 김선일 박사 주제: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전도: 레슬리 뉴비긴을 중심으로 논찬: 정재영 박사</p> <p>제3발표: 안석 박사 주제: 성장에 관한 정신역동적 고찰 논찬: 고유식 박사</p> <p>제4발표: 조재국 박사 주제: 한국교회 성장동력의 분석과 평가 논찬: 위형운 박사</p> <p>한국영성신학회 창립총회 한국실천신학회 임원회</p> |
| <p>2013-4</p> | <p>제50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한국기독교학회와 공동 학술대회</p> <p>일 시 : 10월 18일(금) ~19일(토) 장 소 : 온양관광호텔 주 제 : 정의와 평화</p> <p>제1발표 디아코니아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의, 평화, 생명살림 발표자: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논찬자: 김한호 박사 이범성 박사 좌 장: 이승렬 박사</p> <p>제2발표 기독교 성찬 성례의 사회윤리적 책임에 대한 연구 발표자: 김명실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논찬자: 김형락 박사 이세형 박사 좌 장: 나형석 박사</p> <p>제3발표 자살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 발표자: 이준호 박사(한신대학교) 논찬자: 김충렬 박사 권혁남 박사 좌 장: 김홍근 박사</p> <p>제4발표 이머징 교회 운동의 설교연구: 댄 김벌과 마크 드리스콜을 중심으로 발표자: 유재원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논찬자: 최영현 박사 박종환 박사 좌 장: 김운규 박사</p> <p>제5발표 『베네딕트 수도규칙』의 엄격성과 유연의 문제 발표자: 유해룡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논찬자: 김경은 박사 권명수 박사 좌 장: 이강학 박사</p> <p>제6발표 독일사회시장경제와 교회의 역할</p> |

| | |
|---------------|---|
| | <p>발표자: 조성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논찬자: 김한옥 박사 황병준 박사 좌 장: 최현중 박사</p> |
| <p>2014-1</p> | <p>제51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제19회정기총회 일 시 : 2014년 2월 7일(금)-8일(토)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031-554-6400) 주 제 : 다문화문제와 한국교회</p> <p>영성신학 발표: 오방식, “요한 카시아누스의‘관상’에 대한 연구” 좌장: 배덕만/ 전공논찬: 김수천/ 비전공논찬: 이필은(교육)</p> <p>교회성장 발표: 김성영, “개신교 목사의 다문화교육 태도에 관한 통합적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좌장: 김선일/ 전공논찬: 이길용/ 비전공논찬: 민장배(예배)</p> <p>예 배 발표: Malte RHINOW, “18, 19 세기의 조선 천주교인들의 새벽기도(회)” 좌장: 김성대/ 전공논찬: 문호주/ 비전공논찬: 안치범(선교)</p> <p>디아코니아 발표: 홍주민, “다문화사회와 디아코니아-민관협력도움 시스템의 가능성: 성남외국인센터의 예” 좌장: 이승열/ 전공논찬: 허우정/ 비전공논찬: 이범성(에큐메니즘)</p> <p>상담치료 발표: 양유성, “목회상담에서 은유의 의미와 기능” 좌장: 김병훈/ 전공논찬: 김동영/ 비전공논찬: 홍순원(윤리)</p> <p>영성신학 발표: 최광선, “생태위기와 기독교 영성: 창조세계를 책으로 실행하는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는 가능한가?” 좌장: 김상백/ 전공논찬: 김경은/ 비전공논찬: 최진봉(설교)</p> <p>교회교육 발표: 이수인, “교회학교 교사들의 효과적인 훈련을 위한 구성주의적 접근 방법의 적용 가능성 연구” 좌장: 신현광/ 전공논찬: 신승범/ 비전공논찬: 김안식(사회복지)</p> <p>예 배 발표: 신동원, 주제: 다문화상황에서의 결혼예식에 대한 고찰 좌장: 안선희/ 전공논찬: 김정/ 비전공논찬: 성민경(교육공학)</p> <p>설 교 발표: 나광현, “포스트모던 상황에서의 설교를 위한 대화적, 협력적 소통을 통한 메시지 창안(invention) 이론에 대한 연구”</p> |

| | |
|---------------|---|
| | <p>좌장: 이현웅/ 전공논찬: 류원열/ 비전공논찬: 성신형(종교와 사회) 디아코니아 발표: 김옥순, “한국적 다문화 사회와 교회의 디아코니아 역할에 관한 연구” 좌장: 홍주민/ 전공논찬: 김한호/ 비전공논찬: 김경(상담) 예 배 발표: 전창희, “초대교회 알몸 세례(naked baptism)에 대한 고찰” 좌장: 차명호/ 전공논찬: 성현/ 비전공논찬: 김정두(조직신학) 상담치료 발표: 최재락, “죄의식과 용서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성찰: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좌장: 김성민/ 전공논찬: 권정아 / 비전공논찬: 이혁배(윤리) 설 교 발표: 최영현, “다문화 상황에서 이머징 설교의 가능성과 신학적 의미” 좌장: 정인교/ 전공논찬: 김금용/ 비전공논찬: 오오현(상담) 목회사회 발표: 정재영, “종교세속화의 한 측면으로 소속 없는 신앙” 좌장: 김순환/ 전공논찬: 정근하/ 비전공논찬: 김동환(윤리)</p> |
| <p>2014-2</p> | <p>제52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4년 5월 31일 (토) 오전 10시-오후 4시 장 소 :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주 제 : 교회의 정체성을 밝히는 실천신학</p> <p>제1 발표: 김순환 박사 주제: 미래교회의 주역, 영유아 및 아동 층 예배를 위한 소고 좌장: 유재원 박사 / 논찬1: 김세광 박사 / 논찬2: 신형섭 박사</p> <p>제2 발표: 김기철 박사 주제: 거울메타포로 풀이하는 ‘다음’의 영성 좌장: 안석 박사 / 논찬1: 고유식 박사 / 논찬2: 최주혜 박사</p> <p>제3 발표: 이강학 박사 주제: 영적 분별: 이나시오 로올라와 조나단 에드워즈 비교 좌장: 오방식 박사 / 논찬1: 최광선 박사 / 논찬2: 김경은 박사</p> <p>제4 발표: 김옥순 박사 주제: 한국교회의 미래 디아코니아목회와 실천현장을 위한 방향성 좌장: 이승렬 박사 / 논찬1: 김한호박사 / 논찬2: 허우정 박사</p> <p>제5 발표: 김 정 박사 주제: 초대 시리아 기독교의 세례와 금욕주의 좌장: 전창희 박사 / 논찬1: 나형석 박사 / 논찬2: 최진봉 박사</p> <p>제6 발표: 김성민 박사</p> |

| | |
|--------|---|
| | <p>주제: 엑카르트의 신비주의와 분석심리학 (ppt) 좌장: 김충렬 박사 / 논찬1: 정지련 박사 / 논찬2: 권명수 박사 제7 발표: 김수천 박사</p> <p>주제: 기독교적 묵상의 영성 신학적 의미 분석 좌장: 유해룡 박사 / 논찬1: 오방식 박사 / 논찬2: 백상훈 박사 제8 발표: 나인선 박사</p> <p>주제: 페미니스트들은 하나님을 “성부: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가? 좌장: 위형운 박사 / 논찬1: 김명실 박사 / 논찬2: 한재동 박사 제9 발표: 양동욱 박사</p> <p>주제: 한국교회의 대안적 비전 형성을 위한 설교학적 방법론 연구 좌장: 김명찬 박사 / 논찬1: 최진봉 박사 / 논찬2: 김세광 박사 제10 발표: 하도균 박사</p> <p>주제: 세속화 시대의 효율적인 복음전도에 관한 연구 좌장: 최동규 박사 / 논찬1: 구병옥 박사 / 논찬2: 최재성 박사</p> |
| 2014-3 | <p>제53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4년 10월 11일 (토)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장 소 : 영도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130-22번지) 주 제 : 이단 사이버 종파의 사회적 악영향에 대한 실천적 과제</p> <p>제 1 발표 : 이치만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이단 발흥의 역사적 연구를 통해 본 한국교회의 과제” 좌장: 김상백 박사 논찬: 김명실 박사</p> <p>제 2 발표 : 김충렬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광신도의 문제와 상담 치료적 대응: 기독교 상담학의 관점에서” 좌장: 안 석 박사 논찬: 김성민 박사</p> <p>제 3 발표: 탁지일 박사, 부산장신대학교 교수 “이단 사이버 현황분석 및 한국교회의 실천적 과제” 좌장: 박해정 박사 논찬: 문병하 박사</p> <p>제 4 발표: 안 석 박사, 서울기독교대학교 교수 “신앙인가 아니면 병리인가? : 유사 신앙에 대한 상담심리학적 연구 좌장: 김성민 박사 논찬: 고유식 박사</p> |
| 2014-4 | <p>제54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한국기독교학회와</p> |

| | |
|---------------|--|
| | <p>공동학술대회</p> <p>일 시 : 10월 31일(금) -11월 1일(토) 장 소 : 온양관광호텔 주 제 : 평화</p> <p>제1발표 안덕원 박사(헥블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엘런 페이지의 평화의 영성과 리더십” 좌장: 김윤규 박사 논찬자: 계재광 박사, 김정 박사</p> <p>제2발표 김충렬 박사(한일장신대학교) “평화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 좌장: 김명실 박사 논찬: 김성민 박사, 황병준 박사</p> <p>제3발표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 전통속에 나타난 여성 디아코니아에 관한 연구” 좌장: 이승열 박사 논찬: 김한호 박사, 박인갑 박사</p> <p>제4발표 김양일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후기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공적설교신학 구축을 위한 연구” 좌장: 정인교 박사 논찬: 류원렬 박사, 최진봉 박사</p> |
| <p>2015-1</p> | <p>제55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p> <p>주 제 : 실천신학에서의 융합과 통섭 일 시 : 2015년 2월 13일(금) 오후 2시-14일(금) 오후1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 032-556-0880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p> <p>제1발표: 윤은주 <한국사회의 융합과 통섭> 주제: 한국교회의 통일선교와 인권운동 좌장: 김한옥 / 논찬1: 황병배 / 논찬2: 이범성 / 논찬3: 정재영</p> <p>제2발표: 문화랑 <예배와 성장발달심리학의 융합과 통섭> 주제: 예전이 어떻게 신앙을 형성하는 가에 대한 연구 좌장: 이말테/ 논찬1: 김순환 / 논찬2: 김형락 / 논찬3: 김은주 저녁식사</p> <p>제3발표: 여한구 <성서와 심리학의 융합과 통섭> 주제: 기독교 상담에서의 성서와 심리상담 좌장: 김충렬 / 논찬1: 김병훈 / 논찬2: 김성민 / 논찬3: 박종수</p> <p>제4발표: 허요한 <드라마와 설교의 융합과 통섭> 주제: 신학과 드라마의 만남: 드라마터지(dramaturge)로서의 설교자에 대한 연구 좌장: 김윤규 / 논찬1: 정창균 / 논찬2: 이승진 / 논찬3: 김현애</p> <p>제5발표: 윤성민 <사회학과 영성신학의 융합과 통섭> 주제: 독일에서 본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녹색성장안에서의 교회의 영성</p> |

| | |
|---------------|--|
| | <p>좌장: 김경은 / 논찬1: 김수천 / 논찬2: 김상백 / 논찬3: 전창희 제6발표: 김옥순 <사회의 융합과 통섭> 주제: 디아코니아와 사회복지의 만남은 가능한가? 좌장: 이승렬 / 논찬1: 허우정 / 논찬2: 김한호 / 논찬3: 천병석 제7발표: 조재국 <교육과 선교의 융합과 통섭> 주제: 대학교회의 목회적 성격과 선교적 과제 좌장: 조기연 / 논찬1: 신현광 / 논찬2: 조성돈 / 논찬3: 이현웅 아침식사 제8발표: 안석 <소통으로서의 융합과 통섭> 주제: 용서에 관한 기독교 상담적 고찰:엔라이트의 용서치유에 관한 연구 좌장: 김홍근 / 논찬1: 고유식 / 논찬2: 전영운 / 논찬3: 오오현 제9발표: 김선일 <신학과 포교의 융합과 통섭> 주제: 전도적 관점에서의 회심이해 좌장: 최동규 / 논찬1: 허성업 / 논찬2: 최종인 / 논찬3: 조은하 제10발표: 김명실 <예배학과 여성학의 융합과 통섭> 주제: 한국 기독교 결혼예식서들 속에 나타난 양성평등과 가정에 대한 이해들 좌장: 민장배 / 논찬1: 나형석 / 논찬2: 전창희 / 논찬3: 신형섭 제11발표: 김명희 <타종교와의 융합과 통섭> 주제: 에노미야 라쌀의 선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영성적 대화 좌장: 유해룡 / 논찬1: 김수천 / 논찬2: 유재경 / 논찬3: 이상억</p> |
| <p>2015-2</p> | <p>제56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p> <p>주 제 : 교회의 정체성을 밝히는 실천신학 일 시 : 2015년 5월 16일(토) 오전 9시 - 오후 2시 30분 장 소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604-5 한세대학교</p> <p>제1발표: 유해룡 주제: 교회를 살리는 실천적 영역으로서의 영성신학 좌장: 이강학/ 논찬1: 김수천/ 논찬2: 백상훈</p> <p>제2발표: 이승진 주제: "설교 플롯과 반전의 깨달음" 좌장: 이현웅/ 논찬1: 오현철/ 논찬2: 김양일</p> <p>제3발표: 정근하 주제: 교회 오너십의 관점에서 본 효과적인 일본선교 방안연구 좌장: 조성돈/ 논찬1: 김선일/ 논찬2: 황병준</p> <p>제4발표: 김형락 주제: "기독교 예배의 근원적 샘을 찾아서: 삶의 예배, 예배의</p> |

| | |
|---------------|---|
| | <p>삶” 좌장: 안덕원/ 논찬1: 차명호/ 논찬2: 유재원 제5발표: 정보라 주제: 목회상담에서의 변화이해: 거킨의 “영혼의 삶”에 대한 비 관적 고찰 좌장: 김홍근/ 논찬1: 권명수/ 논찬2: 김동영 제6발표: 김경한 주제: 한국성결교회전도부인의 활동과 복음전도활성화에 관한 연구 좌장: 김선일/ 논찬1: 구병옥/ 논찬2: 조재국 제7발표: 옥진한 주제: 존 웨슬리의 디아코니아실천에 관한 연구 좌장: 김옥순/ 논찬1: 박인갑/ 논찬2: 김한호 연구윤리교육 발표: 위형운 박사</p> |
| <p>2015-3</p> | <p>제57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 제: 교회와 경제 일 시: 2015년 9월 12일(토) 장 소: 우리중앙교회(박영균 목사사무, 강남구 개포동)</p> <p>제1발표: 정일웅(전 총신대 교수/신학대학 총장협의회 회장) 주제: 한국 선교사에 나타난 교회의 경제활동 좌장: 김충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논찬1: 이명희(침신대학교 교수) 논찬2: 성신형(숭실대학교 교수) 제3발표: 위형운(안양대학교 교수/한국학술진흥원 총재) 주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의 경제정의 좌장: 안석(크리스천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논찬1: 조무성 (고려대학교 교수) 논찬2: 최진경(웨스트민스트 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제5발표: 조재국(연세대학교 교수/교목실장) 주제: 한국교회의 헌금이해와 재정운용에 관한 연구 좌장: 김윤규(한신대학교 교수) 논찬1: 정재영(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논찬2: 홍순원(협성대학교 교수) 종합토의 인도: 한재동(나사렛대학교 교수)</p> |

| | |
|---------------|---|
| <p>2015-4</p> | <p>제58회(10월) 학술대회 및 한국기독교학회와 공동학회</p> <p>주 제: 정의 일 시: 2015년 10월 23일-24일 장 소: 온양관광호텔</p> <p>공통주제 사회자: 조성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발제자: 정재영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제 목: “시민사회에서 교회와 사회정의” 논찬자: 황병준 박사(호서대학교 교수)</p> <p>자유주제 사회자: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발제자: 최현중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제 목: “독일통일의 종교사회학적 분석” 논찬자: 민장배 박사(성결대학교 교수)</p> |
| <p>2016-1</p> | <p>제59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제21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총회</p> <p>주 제: 갈등과 화해(학제간 대화) 일 시 : 2016년 2월 12일(금) 15시-13일(토) 12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6-0880)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p> <p>제1발표: 강문규 <교회교육의 갈등과 화해> 주제: 한국 사회갈등의 요인들에 대한 화해의 기독교 교육적 모색 좌장: 신현광/ 논찬1: 고원석 / 논찬2: 김웅기 / 논찬3: 유은희</p> <p>제1발표발표: 오방식 <영성신학의 갈등과 화해> 주제: 토마스 머튼의 비폭력에 대한 연구 좌장: 유해룡/ 논찬1: 이강학/ 논찬2: 김경은 / 논찬3: 윤성민</p> <p>제2발표: 최현중 <목회사회리더십의 갈등과 화해> 주제: 다종교 사회의 긴장과 공존: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 좌장: 조성돈/ 논찬1: 김명희/ 논찬2: 정재영/ 논찬3: 장진원</p> <p>제2발표: 이현웅 <설교신학의 갈등과 화해> 주제: 공감과 설교의 실천적 만남: 설교학적 측면에서의 공감에 대한 이해 좌장: 김운용/ 논찬1: 이승진 / 논찬2: 김충렬</p> |

| | |
|---------------|--|
| | <p>제2발표: 김성민 <상담치료의 갈등과 화해> 주제: 프로이트와 융: 갈등과 화해 좌장: 권명수 / 논찬1: 김홍근 / 논찬2: 김동영/ 논찬3: 여한구</p> <p>제3발표: 권명수 <상담치료의 갈등과 화해> 주제: 사회적 애도 가능성 연구: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좌장: 김홍근 / 논찬1: 정보라 / 논찬2: 안석/ 논찬3: 김수천</p> <p>제3발표: 박종환 <한국사회의 융합과 통섭> 주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고대 그레코로만 장례식사 (Refrigerium)를 통해 본 음식과 공동체의 형성 좌장: 김세광 / 논찬1: 박해정 / 논찬2: 안덕원/ 논찬3: 이춘선</p> <p>제4발표: 김상백 <영성신학의 갈등과 화해> 주제: 화해에 대한 영성 목회적 고찰: 교회 내 갈등 해결을 중심으로 좌장: 김수천 / 논찬1: 최광선/ 논찬2: 김동영/ 논찬3: 민장배</p> <p>제4발표: 구병옥 <전도교회성장의 갈등과 화해> 주제: 환대(hospitality)를 통한 외국인과의 화해 모색: 복음전도를 향하여 좌장: 김선일/ 논찬1: 최동규 / 논찬2: 황병준 /논찬3: 김구원</p> |
| <p>2016-2</p> | <p>제60회(5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p> <p>주 제: 현대의 실천신학 일 시 : 2016년 5월 28일(토) 9시-3시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p> <p>발표1</p> <p>1-A</p> <p>발표자: 김남식박사(서울신대) “Heinz Kohut의 자기 심리학으로 본 예수님의 동행 전도” 좌장: 김선일박사(웨신대) 논찬1: 오성욱박사(서울신대), 논찬2: 황병배박사(협성대)</p> <p>1-B</p> <p>발표자: 양성진박사(감신대) “내면인식(Internal Awareness)을 위한 영성 교육의 가능성 연구: 내면가족체계를 중심으로“ 좌장: 한상진박사(총신대) 논찬1: 강문규박사(안양대), 논찬2: 이종민박사(신안산대)</p> |

| | |
|--|--|
| | <p>1-C 발표자: 진창희박사(협성대) “기독교 예배 공간에서의 빛의 상징성과 창의력에 대한 연구” 좌장: 나형석박사(협성대) 논찬1: 김형락박사(서울신대), 논찬2: 김명실박사(영남신대)</p> <p>발표2</p> <p>2-A 발표자: 박원길박사(호서대) “선교적 교회의 목회리더십” 좌장: 구병옥박사(개신대) 논찬1: 최재성박사(서울신대), 논찬2: 조재국박사(연세대)</p> <p>2-B 발표자: 조혜경박사(한국성서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영유치부 진도에 대한 연구” 좌장: 황병준박사(호서대) 논찬1: 김선일박사(웨신대), 논찬2: 정은상박사(충신대)</p> <p>2-C 안석박사(크리스찬치유상담대) “사랑과 공격성에 관한 정신분석적 고찰과 치유상담” 좌장: 권명수박사(한신대) 논찬1: 김홍근박사(한세대), 논찬2: 장정은박사(이화여대)</p> <p>발표3</p> <p>3-A 발표자: 계재광박사(한남대) “관계적 삼위일체론으로 본 교회의 본질” 좌장: 조성돈박사(실천신학대) 논찬1: 김상백박사(순복음대), 논찬2: 조성호박사 (서울신대)</p> <p>3-B 발표자: 박인갑박사(감신대) “요한 웨슬리의 디아코니아에 관한 연구” 좌장: 김한호박사(서울장신대) 논찬1: 김옥순박사(한일장신대), 논찬2: 옥진한박사(감신대)</p> <p>3-C 발표자: 박은정박사(웨신대)</p> |
|--|--|

| | |
|----------------------|--|
| | <p>“부모상실을 경험한 아동을 위한 놀이치료 사례연구” 좌장: 김경진박사(장신대) 논찬1: 김기철박사(배재대), 논찬2: 강은영박사(승의여대)</p> <p>발표4 4-A 발표자: 유은호박사(서강대) “이집트 초기 사막 수도승들의 관상기도 -에바그리우스를 중심으로” 좌장: 김상백박사(순복음대) 논찬1: 양정호박사(전주대), 논찬2: 김수천박사(협성대)</p> <p>4-B 발표자: 김광석박사(장신대) “공적 영역의 경계선에 서 있는 설교에 관한 연구” 좌장: 최진봉박사(장신대) 논찬1: 김양일박사(영남신대), 논찬2: 김지혁박사(실천신학대)</p> <p>4-C 발표자: 김선미박사(한일장신대) “종교중독성에서 심리적인 결핍에 대한 목회상담적 대응” 좌장: 김충렬박사(한일장신대) 논찬1: 민장배박사(성결대), 논찬2: 김병석박사(승의여대)</p> |
| <p>2016-3</p> | <p>제61회(9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p> <p>주 제: 100세 시대의 목회 일 시: 2016년 9월 24일(토) 장 소 : 예수소망교회(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28)</p> <p>Session I: 100세 시대 성도의 개인생활 주제발표(윤리학적 관점): 이상훈 박사(새세대아카데미) “고령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새로운 생애주기 이해” 사회: 김윤규 박사(한신대) 상담학적 조언: 권명수 박사(한신대) 교육학적 조언: 한상진 박사(총신대)</p> <p>Session II: 100세 시대 성도의 교회생활 주제발표(예배학적 관점): 안선희 박사(이화여대) “고령화시대에 직면한 교회와 예배: 미니멀리즘, 성찰, 죽음” 사회: 조기연 박사(서울신대)</p> |

| | |
|---------------|--|
| | <p>설교학적 조언: 김운용 박사(장신대) 영성학적 조언: 김수천 박사(협성대)</p> <p>환영 환영사: 광요셉 박사(예수소망교회) 오찬 및 목회를 위한 대화 “성도의 마지막 시간들(에덴낙원 이야기)” 사회: 김세광 박사(서울장신대), 김선일 박사(웨스트민스터신대)</p> <p>Session III: 100세 시대 성도의 사회생활 주제발표(목회사회학적 관점): 정재영 박사(실천신대) “고령 사회에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방안” 사회: 조재국 박사(연세대) 선교학적 조언: 박창현 박사(감신대) 디아코니아학적 조언: 옥진한 박사(수봉로교회)</p> |
| <p>2016-4</p> | <p>제62회(10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한국기독교학회 공동학회</p> <p>주 제: 종교개혁과 후마니타스(Humanitas): 기독교는 “헬조선”시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일 시: 2016년 10월 21일(금)- 22(토) 장 소 : 소망수양관</p> <p>Session I: 사회자: 김선일 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원대학교 교수) 발제자: 하도균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제 목: “시민사회에서 정의를 위한 교회의 역할 ” 논찬자: 김남식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민장배 박사 (성결대학교 교수) 구병옥 박사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p> <p>Session II: 발제자: 윤영선 박사(한국실존치료연구소) 제 목: “실존주의 상담의 관점에서 헬조선 시대에 교회가 줄 수 있는 희망 ” 논찬자: 김홍근 박사 (한세대학교 교수) 정보라 박사 (건신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상백 박사 (순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p> <p>Session III:</p> |

| | |
|---------------|--|
| | <p>사회자: 한재동 박사 (나사렛대학교 교수) 발제자: 김옥순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제 목: “종교개혁 핵심진술에 나타난 자유의미와 디아코니아실천에 관한 연구 ” 논찬자: 김한호 박사(서울장신대학교 교수)</p> |
| <p>2017-1</p> | <p>제63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제22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총회</p> <p>주 제 : 인성회복과 실천신학 일 시 : 2017년 2월 10일(금) 오후 2시~2월 11일(토) 12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6-0880)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www.hotelcharis.com)</p> <p>발표1-A: 광혜원박사(21세기 교회와신학포럼) “죽음의 성찰과 인성의 회복: 죽음교육을 통한 영성회복, 인성회복, 사회회복을 지향하며” 좌장: 조성돈박사(실천신대)논찬1: 박종환박사(실천신대)논찬2: 최현중박사(서울신대)논찬3: 김명희박사(성공회대)</p> <p>발표1-B: 이현웅박사(한일장신대)“설교, 인격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좌장: 김세광박사(서울장신대)논찬1: 박성환박사(웨신대)논찬2: 최진봉박사(장신대)논찬3: 김형락박사(서울신대)</p> <p>발표1-C: 장정은박사(이화여대)“인간성 회복에 대한 정신분석적 이해” 좌장: 김홍근박사(한세대)논찬1: 김영수박사(한신대)논찬2: 정보라박사(건신대)논찬3: 김상백박사(순복음대)</p> <p>발표2-A: 권혁일박사(GTU)“신화, 풍자, 그리고 예언: 토머스 머튼의 “프로메테우스: 목상”좌장: 유해룡박사(장신대)논찬1: 김수천박사(협성대)논찬2: 이주형박사(명지대)논찬3: 김성호박사(서울신대)</p> <p>발표2-B: 이종민박사(신안산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기독교사립학교 인성교육교재 개발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좌장: 김경진박사(장신대) 논찬1: 정은상박사(총신대)논찬2: 김웅기박사(한국성서대)논찬3: 이은경박사(감신대)</p> <p>발표2-C 이민형박사(보스톤대 Ph.D Cand.)“문화선교와 대중문화의 관계성 회복: 패러디와 시뮬라시옹”좌장: 김한옥박사(서울신대)논찬1: 조재국박사(연세대)논찬2: 김남식박사(서울신대)논찬3: 양찬호박사(웨신대)</p> <p>발표3-A: 김옥순박사 (한일장신대) “개신교 청의사상에 나타난 디아코니아의 당연성에 관한 연구” 좌장: 이승렬(기독교사회봉사회 사무총장)논찬1: 옥진한박사(감신대)논찬2: 김한호박사(서울장신대)논찬3: 김명실박사(영남신대)</p> |

| | |
|---------------|--|
| | <p>발표3-B: 홍승철박사(호서대) “한국의 공교육체제와 기독교적 인성교육” 좌장: 오성주박사(감신대)논찬1: 박미경박사(협성대)논찬2: 김종화교목(명지교)논찬3: 양성진박사(감신대)</p> <p>발표3-C: 고유식박사(감신대)“공동체성 상실로 인해 상처입은 인간성회복을위한 영혼돌봄의과제” 좌장: 김충렬박사(한일장신대)논찬1: 엄구선박사(한국성서대)논찬2: 여한구박사(국제신대)논찬3: 김수천박사(협성대)</p> <p>발표4-A: 백상훈박사(한일장신대)“노년기의 영성과 인격의 통합”좌장: 오방식박사(장신대)논찬1: 최승기박사(호남신대)논찬2: 이강학박사(트리니티신대)논찬3: 김선아박사(강남대)</p> <p>발표4-B: 구병옥박사(개신대)“인성회복을 이끄는 목회: 우리들 교회를 중심으로”좌장: 김선일박사(웨신대)논찬1: 최동규박사(서울신대)논찬2: 황병배박사(협성대)논찬3: 윤형철박사(개신대)</p> <p>발표4-C: 배지연박사(전주대)“『안나카레리나』에 나타난 인간성 회복과 성장”좌장: 황현영박사(서울신대)논찬1: 윤영선박사(실존치료연구소)논찬2: 원영재박사(숭실대)논찬3: 이세형박사(협성대)</p> <p>발표5-A: 함영주박사(총신대) “인간성 회복을 위한 가정에서의 기독교교육-청년이 인지한 아동기 부모-자녀 애착이 인성 및 영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좌장: 신현광박사(안양대)논찬1: 신승범박사(서울신대)논찬2: 이수인박사(아세아연합신대)논찬3: 문병하박사(KC대)</p> <p>발표5-B: 윤성민박사(강남대) “대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기독교대학의 교양교육과 채플” 좌장: 조기연박사(서울신대)논찬1: 오성주박사(감신대)논찬2: 전창희박사(협성대)논찬3: 유재경박사(영남신대)</p> <p>발표6-A: 한상진박사(총신대) “인성에 대한 교육적 의미”좌장: 위형운박사(안양대)논찬1: 강문규박사(안양대)논찬2: 김정준박사(성공회대)논찬3: 류원렬박사(평택대)</p> <p>발표6-B: 우미리박사(협성대)“상담과 기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좌장: 권명수박사(한신대)논찬1: 안석박사(치유상담대)논찬2: 박은정박사(웨신대)논찬3: 김동영박사(한신대)</p> |
| <p>2017-2</p> | <p>제64회 종교개혁정신과 실천신학</p> <p>1) 일시: 5월 27일(토)</p> <p>2) 장소: 연세대 (루스 채플)</p> <p>발표1-A : 배지연박사(전주대)“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소명”좌장: 박은정박사(웨신대)논찬1: 김승연박사(한세대)논찬2: 조남신박사(예명대)</p> <p>발표1-B : 김남식박사(서울신대)“종교개혁적 전도 패러다임과 명목</p> |

| | |
|--|--|
| | <p>상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서적, 역사적, 실천적 연구” 좌장:구병옥박사(개신대) 논찬1:박원길박사(호서대) 논찬2:노원석박사(개신대)타전공논찬:최헌박사(서울신대)</p> <p>발표2-A: 김기용박사(한일장신대)“실증적 디아코니아 연구 스케치-인클루시브 교육 실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기구로써의 교회 간 협력 및 책임 연구”좌장: 김옥순박사(한일장신대)논찬1: 박인갑박사(감신대)논찬2: 옥진한박사(연세대)</p> <p>발표2-B : 김상백박사(순신대)“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병든 신앙에 대한 영성적 치유” 좌장: 유해룡박사(장신대)논찬1: 김수천박사(협성대)논찬2: 이경희박사(소망교회)타전공논찬: 홍순원박사(협성대)</p> <p>발표2-C : 천병석박사(부산장신대)“루터의 비텐베르크 설교 8편의 분석적 고찰”좌장: 최진봉박사(장신대)논찬1: 윤성민박사(강남대)논찬2: 김광석박사(장신대)</p> <p>발표2-D: 고원석박사(장신대)“종교개혁에 비추어 본 오늘날 기독교 교육의 과제”좌장: 신현광박사(안양대)논찬1:손문박사(연세대)논찬2: 박소량박사(한세대)</p> <p>발표3-A: 여한구박사(국제신대)“아니마 개념을 통해 본 심봉사의 개성화”좌장: 김홍근박사(한세대)논찬1: 최재숙박사(장신대)논찬2: 원영재박사(숭실대)타전공논찬: 김영수박사(한신대)</p> <p>발표3-B : 김경은박사(장신대)“기독교 화해사역을 위한 화해 공동체 연구”좌장: 오방식박사(장신대)논찬1:권혁일박사(한일장신대)논찬2:양정호박사(장신대)타전공논찬: 박인갑박사(감신대)</p> <p>발표3-C: 양승아박사(서울장신대)“상징혁명과 고린도교회 주의 만찬과의 연관성에 관한 고찰:부르디외의 사회학적 방법으로” 좌장: 조기연박사(서울신대)논찬1: 박종환박사(실천신대)논찬2: 김명실박사(영남신대)</p> <p>발표4-A: 계재광박사(한남대) “종교개혁정신과 한국의 선교적 교회론의 재정립” 좌장: 조성돈박사(실천신대)논찬1: 조성호박사(서울신대)논찬2: 정재영박사(실천신대)</p> <p>발표4-B: 박관희박사(호서대)“기독교적 욕구의 산출과정 연구”좌장: 김병석박사(서울장신대)논찬1: 신승범박사(서울신대)논찬2: 정보라박사(건신대)</p> <p>발표4-C : 김양일박사(영남신대)“케빈 밴후저의 수행 개념을 통한 월터 브루그만의 설교신학 평가와 그 적용”좌장: 김윤규박사(한신대)논찬1: 김지혁박사(실천신대)논찬2: 박진경박사(감신대)</p> |
|--|--|

| | |
|--------|---|
| | <p>발표4-D: 김정준박사(성공회대)“21세기 한국사회와 노인목회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p> <p>좌장:김웅기박사(한국성서대)논찬1: 강미량박사(총신대)논찬2: 강문규박사(안양대)</p> <p>타전공논찬:조용석박사(장신대)</p> |
| 2017-3 | <p>제65회 정기 학술대회</p> <p>주제: 다음세대 목회와 통합의 실천신학</p> <p>일시: 9월 23일</p> <p>장소: 신촌장로교회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43(창천동) 02-333-1116</p> <p>발제1: 이종민 박사(신안산대학교) “임시공동체로서의 캠핑: 초막절을 중심으로”좌장 : 황병준 박사(호서대학교)논찬 : 박관희 박사(나사렛대학교)</p> <p>사례발표1 : 신건 목사(신촌성결교회 청년담당)</p> <p>발제2: 손문 박사(연세대학교) 좌장 : 김세광 박사(서울장신대학교)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융합모형: 의학과 신학의 융합연구에 관한 시험적 고찰”논찬 : 김정우 박사(송실대학교)</p> <p>사례발표2 : 김혜경 목사(신촌성경교회 교육담당)</p> |
| 2017-4 | <p>제66회 정기 학술대회 및 공동학회</p> <p>주 제: 종교개혁과 오늘의 한국교회</p> <p>일 시: 2017년 10월 21일(금)- 22(토)</p> <p>장 소 : 소망수양관</p> <p>발표1:나인선(목원대학교):“에게리아 순례여행보고에 나타난 4세 예루살렘 초대 교회공동체의 목회(예배)에 근거한 한국교회목회(예배) 개혁의 규범” 좌장:한재동(나사렛대)논찬:김상백(순신대)</p> <p>발표2: 조성호(서울신학대학교):“종교개혁영성에 내재된 서번트 리더십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연구” 좌장:김경진(장신대) 논찬:백상훈(한일장신대)</p> |
| 2018-1 | <p>제67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 학술대회 및 제23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총회</p> <p>주 제 :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실천신학 과제</p> <p>일 시 : 2018년 2월 9일(금) 오후 2시~2월 10일(토) 오후 12시</p> <p>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032-556-0880)</p> |

| | |
|--|--|
| | <p>발표1: 이주형박사(승실대) “한국인의 마음과 영적 분별” 좌장: 최승기박사(호남신대) 논찬: 김수천박사(협성대) 권진구박사(목원대) 이말테박사(루터대)</p> <p>발표2: 김응기박사(성서대) “제4차 산업혁명이 기독교교육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 좌장: 신현광박사(안양대) 논찬: 함영주박사(총신대) 신승범박사(서울신대) 김양일박사(영남신대)</p> <p>발표3: 김남식박사(에즈베리신대) “누구를 위한 기독교인가: 미군정기(1945-1948) 한경직 목사의 전도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좌장: 노원석박사(개신대) 논찬: 최재성박사(서울신대) 황병준박사(호서대) 강대훈박사(개신대)</p> <p>발표4: 이승열박사(한국기독교연합봉사회사무총장) “제4차 산업혁명 속에서 디아코니아의 역할” 좌장: 김옥순박사(한일장신대) 논찬: 김한호박사(서울장신대) 홍주민박사(한신대) 양성진박사(감신대)</p> <p>발표5: 조성돈박사(실천신대.) “4차 혁명시대의 목회자” 좌장: 김한옥박사(서울신대) 논찬: 최현종박사(서울신대) 오성주박사(감신대) 권혁중박사(호서대)</p> <p>발표6: 문화량박사(고신대) “예전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 두뇌 연구 관점에서” 좌장: 박종환박사(실천신대) 논찬: 박해정박사(감신대) 양승아박사(서울장신대) 송영진박사(호서대)</p> <p>발표7: 김선일박사(웨신대) “과학혁명 시대와 복음의 소통 가능성: 유발 하라리의 종교전망에 관한 대응” 좌장: 최동규박사(서울신대) 논찬: 황병배박사(협성대) 구병옥박사(개신대) 정재영박사(실천신대)</p> <p>발표8: 여한구박사(국제신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 상담과 심리치료” 좌장: 김홍근박사(한세대) 논찬: 김용민박사(침신대) 오화철박사(강남대) 이세형박사(협성대)</p> <p>발표9: 이현웅박사(한일장신대) “한국교회 초기 설교론에 관한 분석 평가”</p> |
|--|--|

| | |
|--------|---|
| | <p>좌장: 한재동박사(나사렛대) 논찬: 정인교박사(서울신대) 이승진박사(합동신대) 이수환아박사(성결대)</p> <p>발표10: 권명수박사(한신대)“기계와 친밀 관계 시대” 좌장: 장정은박사(이화여대) 논찬: 박은정박사(웨신대) 이재호박사(호남신대) 김윤규박사(한신대)</p> <p>발표11: 나인선박사(목원대) “인공지능과 예배의 초월성으로 자기 희생의 가능성 연구” 좌장: 김순환박사(서울신대) 논찬: 안덕원박사(횃불신대) 김지혁박사(실천신대) 범민훈박사(연세대)</p> <p>발표12: 양동욱박사(장신대)“인공지능시대의 도래와 설교학의 과제” 좌장: 김윤규박사(한신대) 논찬: 서승룡박사(한신대) 배영호박사(한신대) 김상백박사(순신대)</p> <p>발표13: 윤성민박사(강남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영성: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 영성“ 좌장: 김수천박사(협성대) 논찬: 이강학박사(횃불대) 김경은박사(장신대) 김영수박사(한신대)</p> <p>발표14: 유은희박사(총신대)“한국 기독교사립중등학교 종교교사 및 교목의 정체성구성과 종교수업에 관한 탐색적 질적 연구“ 좌장: 고원석박사(장신대) 논찬: 이종민박사(신안산대) 이수인박사(아신대) 홍승철박사(호서대)</p> <p>발표15: 박관희박사(나사렛대)“4차산업혁명시대에서 한국교회의 성장-쇠퇴 패턴 가능성에 대한 실증연구”탐색적 질적 연구“ 좌장: 조기연박사(서울신대) 논찬: 박미경박사(감신대) 서대석박사(호서대) 김병석박사(숭의대)</p> |
| 2018-2 | <p>제68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 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주 제 : 급격한 사회변화와 실천신학 과제 일 시 : 2018년 5월 19일(토) 10시-4시 장 소 : 장로회신학대학교</p> <p>발표: 박관희박사(나사렛대학교) 제목: 교인의 교인 이탈 과정 연구:종교사회학, 심리학, 예배학의 융합을 중심으로</p> |

| |
|--|
| <p>좌장: 계재광박사 논찬: 조성돈박사 조성호박사</p> <p>발표: 이상현박사(울곡교회) 제목: 폴 틸리히 상관관계 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불안에 대한 실존적 탐색 좌장: 황병준박사 논찬: 노바울박사 송준용박사</p> <p>발표: 김 정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제목: “지금 그리고 영원히” :변하는 시대와 변치 않는 예배 요소들 좌장: 조기연박사 논찬: 김형락박사 나인선박사</p> <p>발표: 배영호박사(경동교회한신대) 제목: 오늘의 목회적 상황을 위한 설교 커뮤니케이션 이해 좌장: 김윤규박사 논찬: 문병하박사 전창희박사</p> <p>발표: 손 문박사 (연세대) 제목: 의학과 신학의 융합교육과정 개발과 역사적 함의, 그리고 실천에 관한 연구 좌장: 신현광박사 논찬: 고원석박사 고수진박사</p> <p>발표: 최봉규박사(한소망교회) 제목: 토머스 머튼의 영성에서 보는 거짓문화와 자기 소외시대에 참 자아 찾기 좌장: 최승기박사 논찬: 김동영박사 이강학박사 조한상박사</p> <p>발표: 강태구박사(한남대학교) 제목: 구성원의 공감 능력과 리더의 정서 지능의 상호작용이 관계갈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좌장: 조성호박사 논찬: 서대석박사 신승범박사</p> <p>발표: 한상진박사(총신대) 제목: 블르노 해석학에 있어서 진리 문제에 대한 연구 좌장: 강문규박사 논찬: 김웅기박사 이종민박사</p> <p>발표: 이세형박사 (협성대학교) 제목: 프로이트의 자아 이해 좌장: 김상백박사 논찬: 노원석박사 민장배박사</p> <p>발표: 양승아박사(서울장신대학교) 제목: 격차 사회에서의 호혜적 관계와 고린도교회 주의 만찬 좌장: 나형석박사 논찬: 박중환박사 최진봉박사</p> |
|--|

| | |
|--------|--|
| | <p>발표: 김근수박사(구세군이리교회) 제목: 구세군의 디아코니아 교회론에 관한 연구 좌장: 김옥순박사 논찬: 김한호박사 옥진한박사</p> <p>발표: 권혁일박사(한일장신대) 제목: 프로메테우스의 선택 : 정의의 관점으로 읽는 운동주의 「간」 좌장: 김수천박사 논찬: 김영수박사 양정호박사</p> <p>발표: 김병석박사(숭의대학교) 제목: 급변하는 사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시대, 예배와 설교의 위치 좌장: 최진봉박사 논찬: 한재동박사 윤성민박사</p> <p>발표: 오동섭박사 (장신대) 제목: 도시선교 관점에서 본 도시공간의 창의적 접근 좌장: 민장배박사 논찬: 구병옥박사 남성혁박사 노원석박사</p> |
| 2018-3 | <p>제69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 학술대회 주 제 : 주제: 현대문화와 실천신학 일 시 : 2018년 9월 15일(토) 9시 30분 장 소 : 신촌 필름 포럼</p> <p>발표: 성현박사(필름포럼 대표) 제목: “영화, 영성, 목회” 필름 포럼과 함께 좌장: 정재영박사(실천신대) 논찬: 김선일박사(웨신대) 백상훈박사(한일장신대) 계재광(한남대)</p> <p>발표: 오동섭박사(장신대) 제목: 美와 십자가교회의 목회 사례 좌장: 신현광박사(안양대) 논찬: 유재원박사(주안장로교회) 손문박사(연세대)</p> <p>발표: 유정현(드림라이프 대표) 제목: 음악 치유사역 사례 좌장: 박종환박사(실천신대) 논찬: 황정은박사(성결대) 김경수박사(강남대)</p> |
| 2018-4 | <p>제70회 정기 학술대회 및 한국기독교학회 공동학술대회 주 제 : 응답하라 1919: 삼일정신과 교회의 미래</p> |

| | |
|--------|---|
| | <p>일 시 : 2018년 10월 12일(금)-13일(토) 장 소 : 소망수양관</p> <p>발표: 최재숙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제목: 기도 치유 경험 내러티브 사례에 나타난 영성적 심리적 도찰- 영성 상담적 측면에서 논찬: 권명수(한신대)</p> <p>발표: 조재국박사(연세대학교) 제목: 와타나베 도오루의 신앙과 독립운동 지원 논찬: 조기연박사(서울신대)</p> |
| 2019-2 | <p>제71회 정기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주 제: 인구절벽시대의 실천신학 과제 일 시: 2019년 2월 15일(금) 오후 2시~2월 16일(토) 오후 12시 장 소: 부평 카리스호텔(032-556-0880)</p> <p>발표1: 주상락(아현성결교회 전도목사) 제목: 인구절벽 시대의 대안적 교회개혁 좌장: 조재국(연세대) 논찬1: 김선일(웨신대) 논찬2: 노원석(개신대)</p> <p>발표2: 송준용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제목: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세대를 위한 목회적 대응방안 좌장: 김홍근(한세대) 논찬1: 신영호(이야기심리치료연구소) 논찬2: 허경숙(장신대) 논찬3: 박진경(감신대)</p> <p>발표3: 최진봉 (장로회신학대학교) 제목: 인구절벽시대에 드리는 주일공동예배(Corporate Worship) 제안에 대한 연구: 16세기 개혁교회의 공동체적 교회론을 중심으로 좌장: 박종환(실천신대) 논찬1: 안덕원(서울신대) 논찬2: 나인선(목원대) 논찬3: 이상일 (장신대)</p> <p>발표4: 이수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제목: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 좌장: 신현광(안양대) 논찬1: 이종민(신안산대) 논찬2: 신승범(서울신대) 논찬3: 문병하(그리스도대)</p> <p>발표5: 이경희 (소망교회) 제목: 피흘림 없이 희생양 메카니즘을 끊는 내러티브의 힘</p> |

| | |
|--|--|
| | <p>좌장: 김상백(순신대) 논찬1: 이주형(숭실대) 논찬2: 이해진(원주제일감리교회) 논찬3: 이재호(호신대)</p> <p>발표6: 조성호 (서울신학대학교) 제목: 인구감소현상이 실천신학연구 방법론에 끼친 영향: 리더십과 영성을 중심으로 좌장: 계재광(한남대) 논찬1: 박광영(한남대) 논찬2: 이길용(서울신대) 논찬3: 정보라(건신대)</p> <p>발표7: SAM PARK (Graduate Theological Union) 제목: 설교유형과 신학의 관계 좌장: 김윤규(한신대) 논찬1: 황병준(호서대) 논찬2: 김지혁(국제신대) 논찬3: 김현애(장신대)</p> <p>발표8: 고원석 (장로회신학대학교) 제목: 기호학과 기독교교육- 퍼스의 삼중적 기호이해와 성서교수학적 성찰 - 좌장: 함영주(총신대) 논찬1: 이은철(백석대) 논찬2: 김웅기(한국성서대)</p> <p>발표9: 정근하 (계명대학교) 제목: 필리핀 한인교회의 주일예배 관찰을 통한 필리핀 선교 전략 방안 연구 좌장: 황병준(호서대) 논찬1: 이대현(한동대) 논찬2: 김한성(연세대) 논찬3: 박상일(GTU)</p> <p>발표10: 김윤규(한신대학교) 주제: 마르틴 루터의 개혁적인 설교연구 좌장: 서승룡(한신대) 논찬1: 김병석(서울장신대) 논찬2: 배영호(한신대) 논찬3: 이상현(순신대)</p> <p>발표11: 윤성민(강남대학교) 주제: 헬무트슈비어 설교학 연구 좌장: 김윤규(한신대) 논찬1: 김병석(서울장신대) 논찬2: 김영수(한신대)</p> <p>발표12: 박세훈 (새문안교회) 제목: 융 심리학의 영성 연구에 대한 공헌: 아빌라의 테레사의 <영혼의 성>을 중심으로 좌장: 권진구(목원대) 논찬1: 최승기(호신대) 논찬2: 유재경(영남신대) 논찬3: 조성호(서울신대)</p> <p>발표13: 김형락 (서울신학대학교) 제목: 신유예식: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육적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p> |
|--|--|

| | |
|--------|---|
| | <p>좌장: 조기연(서울신대) 논찬1: 오주영(엘림성결교회) 논찬2: 박종환(실천신대)</p> <p>발표14: 최종일 (웨스터민스터대학원대학교) 제목: 인구절벽 시대 기독청년을 목회 들봄적 이야기 치료 연구 좌장: 양유성(평택대) 논찬1: 노원석(개신대) 논찬2: 김경수(강남대) 논찬3: 나인선(목원대)</p> <p>발표15: 남성혁(명지대학교) 제목: 인구절벽 시대에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 모색 좌장: 황병준(호서대) 논찬1: 구병옥(개신대) 논찬2: 최재성(숭실대) 논찬3: 박은정(웨신대)</p> <p>발표16: 조영창(주안장로교회) 제목: 라우리(E. Lowry)의 설교학적 플롯(Homiletical Plot)과 그 논쟁점들 좌장: 정인교(서울신대) 논찬1: 김윤규(한신대) 논찬2: 김병석(서울장신대)</p> |
| 2019-5 | <p>제72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 제 : 위기시대의 실천신학 과제 일 시 : 2019년 5월 18일 (토) 오전 10시 장 소 : 연세대학교 루스채플</p> <p>발표1: 윤득형 박사(숭실사이버대) 주제: 상실의 관점에서 보는 노년기 위기와 실천신학의 과제로서 죽음준비교육 좌장: 김수천 박사(협성대) 논찬: 이세형 박사(협성대) / 송준용 박사(국제신대)</p> <p>발표2: 김명기 박사(호서대) 주제: “이중직 목회 허용정책에 대한 실천신학적 고찰” 좌장: 정재영 박사(실천신대) 논찬: 조성호 박사(서울신대) / 논찬: 박원길 박사(호서대)</p> <p>발표3: 이민형 박사(성결대) 주제: 문화선교의 위기: 문화 혼종을 통한 전도에 관하여 좌장: 김한성 박사(ACTS) 논찬: 최재성 박사(숭실대) / 주상락 박사(웨신대)</p> <p>발표4: 이인수 박사(실천신대) 주제: 한국 장로교회 성찬예전의 인식형성 과정과 문제점 좌장: 박종환 박사(실천신대) 논찬: 김형락 박사(서울신대) / 나인선 박사(목원대)</p> |

| | |
|--------|---|
| | <p>발표5: 계재광 박사(한남대) 주제: 한국교회 변화를 위한 통합적 관점의 리더십 틀에 대한 연구 좌장: 조성돈 박사(실천신대) 논찬: 서대석 박사(호서대) / 윤성민 박사(강남대)</p> <p>발표6: 박행님 박사(침례신학대) 주제: 교회교육 위기에 관한 교사의 주관성 연구 좌장: 이종민 박사(신안산대) 논찬: 고유경 박사(총신대) / 신승범 박사(서울신대)</p> <p>발표7: 유미경 박사(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주제: 자존감 증진을 위한 계슈탈트 집단치료의 기독교 상담학적 적용 연구: 청소년 사례를 중심으로 좌장: 김충렬 박사(한일장신대) 논찬: 윤석주박사(열린사이버대) / 노바울박사(국제신대)</p> <p>발표8: 유은호 박사(창문교회) 주제: 에바그리우스의 ‘아파테이아’(ἀπάθεια) 연구 좌장: 손명수 박사(한국신학대) 논찬: 조성호 박사(서울신대) / 권혁일 박사(영락교회)</p> <p>발표9: 김용성 박사(한신대) 주제: 캠벨의 서사설교와 교회공동체형성 회복 좌장: 최진봉 박사(장신대) 논찬: 김지혁 박사 (국제신대) / 김윤규 박사 (한신대)</p> <p>발표10: 이주형 박사(송실대) 주제: 영적 우울과 어둠 밤의 위로 좌장: 오방식박사(장신대) 논찬: 권진구 박사(목원대) / 박세훈 박사(새문안교회)</p> <p>발표11: 양신 박사(안성제일교회) 주제: 평신도와 함께 하는 설교와 예배디자인 좌장: 서동원 박사(목원대) 논찬: 류원렬 박사(평택대) / 김병석 박사(서울장신대) 논찬: 이상현 박사(순복음대학원대)</p> <p>발표12: 김상덕 박사(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주제: 미디어 사회 속 진실의 위기와 증언의 제자도: "묵격자역할"(bearing witness) 개념을 중심으로 좌장: 김선일 박사(웨신대) 논찬: 구병옥 박사(개신대) / 남성혁 박사(명지대)</p> |
| 2019-9 | <p>제73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시: 9월 28일(토) 10:30~16:00</p> |

| | |
|--------|--|
| | <p>장소: 광장교회(양재철 목사: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81길 22-26) 주제: 예배와 설교를 통한 건강한 교회공동체</p> <p>발표1: 안덕원(햇볼트리니티) 주제: 건강한 목회를 위한 예배 좌장: 김윤규 박사(한신대) 논찬: 권진구 박사(목원대)/ 조성호 박사(서울신대)</p> <p>발표2: 조지훈(한세대) 주제: 복음을 설교하는 것에 대한 설교학적 함의 좌장: 김충렬 박사(한일장신대) 논찬: 박성환 박사(성서대)/ 정은상 박사(총신대)</p> |
| 2020-2 | <p>제75회 정기학술대회 일시: 2020년 2월 7일(금) 오후1시 - 2월 8일(토) 오후12시 장소: 인천 카리스호텔 주제: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p> <p>주제강연1: Joel Tejedo (Asia Pacific Theological Seminary) “Creating Pathways of Unity, Reconciliation and Healing in our Broken Society” (통역: 이민형 성결대) 좌장: 김상백(순복음신대)/ 논찬1: 한재동(나사렛대), 논찬2: 민장배(성결대)/ 논찬3: 정재영(실천신학신대)</p> <p>주제강연2: Samual Park (Graduate Theological Union, USA) “Prophetic Preaching for Unification, Reconciliation and Therapy” 좌장: 김윤규(한신대)/ 논찬1: 조기연(아세아신대) / 논찬2: 윤성민(강남대) 논찬3: 김현애(장신대)/ 비전공논찬3: 황병배(협성대)</p> <p><목회사회학 관점의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표1: 주원규박사(성공회대) 주제: “2030 통일 시나리오에 의한 화해와 치유의 한국교회 전망-해체의 교회 신학을 중심으로-” 좌장: 위형윤(안양대)/ 논찬1: 황병준(호서대)/ 논찬2: 서대석(호서대)/ 비전공논찬: 김성호(경성대)</p> <p><예배를 통한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표2: 박중환박사(실천신학대): 주제: “치유에 대한 의료인류학(Medical Anthropology)이해” 좌장: 김형락(서울신대)/ 논찬1: 최진봉(장신대)/ 논찬2: 오주영 (서울신대)</p> |

| | |
|--|--|
| | <p><교회성장/전도/선교관점의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표3: 김남식(서울신학대) 주제: “초대교회에서 본 한반도의 문화적 살림 연구” 좌장: 조재국(연세대)/ 논찬1: 김선일(웨신대)/ 논찬2: 최재성(서울신대)/ 비전공논찬: 노원석(개신대)</p> <p><영성의 관점의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제4. 조한상(호신대) 주제: “이나시오 로올라와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성식별연구” 좌장: 오방식(장신대)/ 논찬1: 이강학(횃불 트리니티)/ 논찬2. 김경은(장신대)/ 비전공 논찬: 이재호(호신대-상담)</p> <p><목회사회학 관점의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표5: 주희현박사(백석대) 주제: “2030 통일 시나리오에 의한 화해와 치유의 한국교회 전망-공유의 네트워크 사역을 중심으로-” 좌장: 조성돈(실천신대)/ 논찬1: 조성호(서울신대)/ 논찬2: 박관희(나사렛대)/ 비전공논찬: 양성진(감신대)</p> <p><예배를 통한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표6: 나인선박사(목원대) 주제: “치유의례가 실행하는 실재에 관한 이해” 좌장: 나형석(협성대)/ 논찬1: 김형락(서울신대)/ 논찬2: 안덕원(트리니티신대)/ 논찬3: 양승아 (서울장신대)</p> <p><설교 관점의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표7: 김성호 (경성대) 주제: “디트리히 본회퍼의 평화설교” 좌장: 김윤규(한신대)/ 논찬1: 윤성민 (강남대)/ 논찬2: 김성수 (나사렛대)/ 논찬3: 김병석 (서울장신대)</p> <p><디아코니아 관점의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표8: 김동진박사 (한일장신대) 주제: “통일과 남북한 화해의 디아코니아” 좌장: 김옥순(한일장신대)/ 논찬1: 김한호(서울장신대)/ 논찬2: 김근수(이리교회)</p> <p><영성 관점의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제9. 오방식(장신대) 주제: 복음과 관상: 아빌라의 데레사의 신비관상에 대한 비평적 연구 좌장: 김수천(협성대)/ 논찬1: 백상훈(한일장신)/ 논찬2: 권진구(목원대)</p> |
|--|--|

| | |
|--|--|
| | <p>비전공논찬: 양승아(서울장신-예배설교)</p> <p><목회상담 관점의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표10: 임미화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주제: "통일, 화해, 치유를 위한 목회상담의 역할" 좌장: 권명수(한신대)/ 논찬1: 최재숙(장신대)/ 논찬2: 송준용(국제신대)/ 논찬3: 김경수(강남대)/ 비전공논찬: 주상락(서울신대)</p> <p><목회상담 관점의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표11: 임현만박사 (백석대) 주제: "화해적 통일을 위한 로고테라피 가능성" 좌장: 김충렬(한일장신대)/ 논찬1: 김상인(한국교원대)/ 논찬2: 신영호(한국마인드온상담연구소)/ 논찬3: 조기연(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비전공논찬: 정근하(계명대)</p> <p><기독교교육 관점의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표12: 고원석(장신대) 주제: "선교적 입장에서 보는 화해교육의 새로운 접근" 좌장: 신현광(안양대)/ 논찬1: 손문(연세대)</p> <p><목회상담 관점의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표13: 정보라박사 (건신대학원대학교) 주제: "자기수용과 화해에 관한 실천신학적 고찰" 좌장: 이세형(협성대)/ 논찬1: 이혁의(호서대)/ 논찬2 : 최종일(웨신대) 비전공논찬: 구병옥(개신대)</p> <p><설교 관점의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표14: 김병석박사 (서울장신대) 주제: "치유적 설교를 위한 설교학적 구조" 좌장: 서동원(목원대)/ 논찬1 윤성민(강남대)/ 논찬2 김용성(한신대)/</p> <p><기독교교육 관점의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표15: 이종민(총신대) 주제: "통일시대를 대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 좌장: 신현광(안양대)/ 논찬1: 신승범(서울신대)</p> |
|--|--|

한국실천신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실천신학회(KSPH=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 본 학회의 사무실은 임원회에서 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전국 각 신학대학 및 각 신학교 실천신학 교수 및 실천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순수한 학문적인 연구와 인격적인 친교를 도모하며, 실천신학의 학술 정보를 교류함과 동시에 교회와 지역사회 및 국내외 신학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학문분야) 본 학회의 학문 연구 분야는 전통적인 교회의 목회실천과 관련된 모든 분야로 한다(예배와 설교, 목회사역, 상담치료, 전도와 선교, 기독교교육, 디아코니아, 영성, 종교사회, 교회성장, 교회행정, 기독교문화, 예배음악, 교회건축, 한국세시풍속과 교회력, 관혼상제와 성례전, 리더쉽-멘토링 등).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 5 조 (회원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자격은 아래와 같다.

1. 회원의 자격- 학자 및 목회자로서 실천신학을 전공하거나 연구하거나 관련 영역에서 다년간 전문 경험을 쌓은 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은 준회원으로 한다.

2. 회원의 의무-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에 성실히 참여한다(은퇴교수는 연회비 면제).

제 6 조 (임원회, 감사, 편집위원회의 구성, 선출, 임기)

1. 임원회는 회장, 선임부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로 구성하되 부임원들의 수는 조정이 가능하다.

2.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승계를 원칙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은 본 학회 총무를 역임한 자 및 분과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기타 임원은 신입회장이 임명한다.

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단 이외의 임원은 재임이 가능하다.

4. 학회의 감사는 임원 역임자(분과장 포함) 중에서 2인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5.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편집위원장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의 회계와 부회계는 회장이 임명한다.

7.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편집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조 (학술분과회의 구성과 분과회장 선출)

1. 학술분과회는 본 학회의 협력학회 또는 전공영역으로 학제간대화로 교회를 섬기려는 본 학회의 기본목적에 찬성하고 학술적 독립성과 충분한 회원 수를 확보해야 한다.

2. 신규 학술분과회는 본 학회의 학술대회 참여를 통해 검증을 받아 임원회 건의로 이사회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입한다.

3. 학술분과회장의 선출과 임기는 각 학술분과회 소속회원들의 결정에 따른다. 단 선임 학술분과회장은 변동사항을 학회장에게 공지해야 한다.
4. 학술분과회장은 임원회 및 타 학술분과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 참여한다. 분과회장은 학회장이 요청할 경우 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

제8조. (이사회)

본 학회의 사업, 발전, 및 후원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선임이사, 상임이사, 본 학회 회장, 분과에서 추천하는 1인, 도합 15인 이내로 한다. 이사장은 선임이사가 승계하며, 선임이사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는 직전회장이 승계한다.

제9조(고문단)

본 학회의 진로와 자문 그리고 후원을 위하여 은퇴한 원로 학자들을 고문단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제한)

현역에서 은퇴한 자는 임원, 이사, 감사 및 편집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제 11 조 (연구위원회)

1. 본 학회는 비상설기구로 특별과제를 위한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이 관련 학술분과회장들과의 협의로 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과 간사 등을 위임하여 구성한다.
2.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성과에 대해 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존폐를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 장 사업과 재정

제 12 조 (사업) 본 학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술연구발표: 연 4회로 하되 2월(학계간대화), 6월(전공별), 9월(목회) 10월(공동학회)로 한다. 단 국제학술발표회는 예외로 한다.
2. 신학과 실천 학술지를 발간한다.
3. 학술답사 및 공동연구, 교재발간.
4. 각 대학 및 교회 순회강연.

제 13 조 (학술연구지 출간) 본 학회는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 회원간의 학술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학술지를 출간한다.

1. 본 학술지의 내용은 순수학술 논문으로 국한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 과정을 둔다.
2. 편집위원의 구성은 임원을 포함하여 전공을 고려한 8명 내외로 하고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3. 출판시기와 횟수는 봄(2.28), 여름(5.30), 외국어(7.30), 가을(9.20), 겨울(11.30)년 5회로 한다.
4. 본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을 자문하고 후원하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두되 전직 회장으로 한다.

5. 편집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에 편집위원장이 신입회장과 의논하여 선출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하여 편집에 관한 사안을 관장한다. 편집재정은 편집위원회 회계가 맡아 일반회계와 분리 운영한다.

제 14 조 (개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5 조 (총회 및 운영위원회) 1. 본 학회의 총회는 매년 2월 초순 정기학술대회 시에 회장이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서 임시 총회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임원 및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6 조 (고문 및 이사회) 본 학회의 고문 및 이사회는 수시로 이사장이 소집하여 본 회의 발전과 사업을 논의 한다.

제 17 조 (개정) 본 학회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로 개정하며, 효력은 개정 즉시 발효한다. 단, 각종 규정 등은 임원회에서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제 5 장 부 칙

제 18 조 (회칙의 시행) 본 학회 회칙의 개정된 정관의 시행은 1996년 10월 25일 부로 한다.

1. 회칙 보완 수정 2007년 10월 19일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2. 회칙 보완 수정은 2009년 2월 6일 임시총회 결의와 2010년 2월 총회에서 통과 즉시 시행한다.
3. 회칙 보완 수정은 2013년 2월 2일 제18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4. 회칙 보완 수정은 2014년 2월 7일 제19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5. 회칙 보완 수정은 2015년 2월 14일 제20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6. 회칙 보완 수정은 2016년 2월 12일 제21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7. 회칙 보완 수정은 2017년 2월 11일 제22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8. 회칙 보완 수정은 2018년 5월 19일 제23회 1차 임시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별 칙

1. 한국실천신학회 학술지 「신학과 실천」 원고 **심사규정 및 학술지 게재규정**은 다음과 같다.
2. 본 학술지는 한국실천신학회의 정기학술지로 매년 5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 심사규정 및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다.
 - 1) 본 학술지의 원고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본 연구지의 내용은 순수학술 논문으로 국한한다.
 - (2) 본 연구지의 내용은 실천신학 및 교회의 교역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3) 본 연구지의 내용은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4) 본 학술지는 매년 1월 20일까지 원고를 마감하여 2월 28일에 봄호를 발행하고, 4월 20일에 마감하여 5월 30일에 여름호를 발행하며, 외국어 논문은 6월 20일에 마감하여 7월 30일에 발행한다. 가을호는 8월 20일에 마감하여 9월 30일에 발행한다. 겨울호는 10월 20일에 마감하여 11월 30일에 발행하여 출판 보급한다.
 - (5) 심사판정은 “게재 가” 판정 시(80점 이상) 심사총평과 “게재 불가” 판정 시(80점 이하) 게재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6) 심사규정은 별도규정에 의하되 1. 구성의 완성도(25점), 2. 주제연구의 심도(25점), 3. 학

문적 독창성(25점), 4. 학문의 기여도(25점), 5. 논문등재지인용지수 5개. =총점(총100점 만점, 80점미만은 게재불가), 총평으로 한다.

- (7) 본 학회지의 모든 원고 투고와 심사는 홈페이지 심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한다.
- (8)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타학회지에 게재된 적이 없는 논문이어야 한다.
- 2)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은 8인 내외로 하며, 심사위원은 논문 한편당 3인으로 구성한다.
- 3) 본 학회의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심사를 거쳐 본 학술지 신학과 실천에 게재 한다.
- 4) 본 학술지 신학과 실천의 논문 게재 율은 한국연구재단 규정에 의한 60%~ 70% 미만으로 한다.
- 5) 논문 게재료는 출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괄 30만원으로 한다. 단 학술재단이나 소속기관에 의해서 해당년도에 학술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50만원으로 하며, 반드시 회원이어야 하되 년 회비 2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단 신입회원은 당해년도 가능). 단 시간강사에 한하여 게재비를 20만원으로 한다. 시간 강사는 논문제출시 표기하여야 한다.
- 6) 심사시스템 보완으로 일정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한국실천신학회 회원들의 연구결과를 심사 편집한 전문 학술지를 출판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연구결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회원 상호간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수준 높은 학술적 토론의 장을 촉발하여 한국실천신학계의 학문적 역량을 국제수준으로 고양하며, 회원들의 연구업적이 소속기관 및 학계에서 합법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도록 협조하는데 있다.

제 3 조 (구성 및 임기) 본 위원회의 편집위원은 국내외 교수급 8명 내외로 구성하며 선출 방법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에 편집위원장이 신입회장과 협의하여 위임한다. 편집위원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을 보장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실무자로서 편집간사 등을 둘 수 있다.

제 4 조 (회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5 조 (업무) 편집위원회는 한국실천신학회 발행 학술지 「신학과 실천」의 편집관련 제반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며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우수논문을 포상할 수 있다. 또한 한국실천신학회 학술대회의 발제자를 임원회와 협의 위촉할 수 있다. 그 외 한국실천신학회의 모든 출판업무를 주관한다.

제 6 조 (학술지 명칭) 본 위원회가 편집 출판하는 학술지는 「신학과 실천」이라 칭한다.

제 7 조 (발행) 본 위원회는 연구 논문 발행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제 8 조 (투고) 본 위원회는 연구 논문 투고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제 9 조 (심사) 본 위원회는 연구 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제 10 조(연구윤리규정) 본 위원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로 둔다.

제 11 조 (부칙) 1.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개정 2015년 2월 14일 회칙통과 즉시 시행한다. 개정 2017년 2월 11일 회칙 통과 즉시 시행한다. 개정 2018년 2월 10일 회칙 통과 즉시 시행한다.

발행규정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학술지 발행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제 1 조 (목적)** 본 학회는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 회원간의 학술교류를 활발토록 하기 위해 학술지를 발행하며 그 명칭을 「신학과 실천」으로 한다.
- 제 2 조 (범위와 심사)** 본 학술지의 내용은 순수학술 논문으로 국한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 하기 위해 심사 과정을 둔다.
- 제 3 조 (편집위원)** 편집위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회원 중에서 전공, 소속, 지역 등의 대표성을 고려해 8명 내외로 위임하고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 제 4 조 (선출 및 위임)** 편집위원의 선임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에 편집위원장이 신입회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편집위원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 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5 조 (출판)** 출판시기와 횟수는 봄(2.28), 여름(5.30), 외국어(7.30) 가을(9.30), 겨울(11.30), 연 5회로 한다. 단 외국어판의 출판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출판된 모든 논문에는 온라인개별코드(DOI)를 부여한다.
- 제 6 조 (게재율)** 본 학술지의 논문 게재율은 한국연구재단 규정에 의거 60%-70% 미만으로 한다.
- 제 7 조 (권한)** 본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신학과 실천」에 게재하고 게재 발행된 논문에 속한 모든 권한(저작권)은 본 학회에 속한다.
- 제 8 조 (고문)** 본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을 자문하는 편집고문을 둘 수 있다. 자격은 전직 회장으로 한다.

투고규정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학술지 투고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제 1 조 (투고자 자격)** 「신학과 실천」의 투고자는 한국실천신학회 회칙이 정하는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의무를 다한 자로서(회칙5조) 회비를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납부해야 하며 본 학회주최 학술대회에 연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단 신입회원의 경우 2년 연회비를 일괄 납입하는 것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 제 2 조 (투고규정의 중요성)** 투고규정은 투고된 논문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규정으로 이는 「신학과 실천」의 편집 철학과 원칙을 일관되게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 학술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이므로 모든 투고자는 본 학회의 투고규정을 잘 이해하고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편집을 총괄하는 편집위원장은 이를 규정심사에 엄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 제 3 조 (일반규정)**
1.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한글이든 외국어이든 타 학술지 또는 학위논문으로 발표된 적이 없어야 한다. 논문심사통과 또는 출판된 후에도 표절이 판명되면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3년간 본 학회지에 투고 및 게재를 제한한다.

2. 투고된 논문은 본 학회가 정하는 아래의 모든 논문작성 규정을 따라야 하며 본 학회가 규정하지 않는 사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논문작성법을 따라야 한다. 본 학술지는 본 학회의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한 시카고 모델을 권장한다.
3. 투고된 논문은 한글맞춤법 등에 맞게 기술하여 교정이 필요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고전어(히브리어, 헬라어)는 원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음역도 가능하다.

제 4 조 (논문의 편제)

1. 본 학술지는 한글과 영어 초록을 요구하며 초록의 질적 수준에 높은 비중을 둔다. 투고된 논문의 초록은 논문의 논지와 내용을 적절하게 압축해야 한다. 단 지면의 경제성 측면에서 초록의 과도한 분량을 제한하여 한글초록의 길이는 A4 용지 1/2에서 2/3 정도를 권장하며 영어초록은 한글초록의 번역에 준하되 적절한 길이에 유의해야 한다. 주제어는 한글과 영어 모두 5개 내외로 하여 한글과 영어 초록 바로 아래 제시해야 한다.
2. 논문의 구조는 제목, 저자정보, 한글초록, 한글주제어, 논문, 참고문헌, 영어초록, 영어주제어 순으로 한다.
3. 논문의 내용구분은 상위는 로마자(I, II, III...)로 하위는 아라비아 숫자(1, 2, 3...)로 구분하고 더 하위는 영문자(A, B,.. a, b...)로 구분하는 것으로 통일한다.

제 5 조 (논문의 분량)

1. 논문의 분량은 한글과 외국어 논문 모두 A4 용지 13매-15매로 하며 초과할 경우 투고자에게 추가비용을 부과한다. 연구재단 지원 논문은 예외로 하되 25매를 초과할 수 없다.

제 5 조 (자료의 사용)

1. 학술논문은 학술공동체의 역사와 대화에 참여하는 일이란 점에서 투고된 논문은 선행연구들과의 교류를 보여야 하며 이를 충분한 수의 각주와 참고문헌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신학과 실천」은 지면의 한계를 고려 투고논문의 각주와 참고문헌 수를 각 30-50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본다. 30개 이상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2. 위 5조 1과 같은 이유에서 투고논문은 「신학과 실천」에 기계제된 관련 논문을 충분히 인용함으로써 회원간의 학술교류 활성화에 반드시 기여해야 한다. 본 학회는 5개 이상의 인용을 권장한다. 같은 이유로 타 등재학술지 인용도 권장한다.
3. 투고된 논문은 논지의 근거로 다양한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인용자료는 안정성과 영구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에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인터넷자료는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논문의 성격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자, 제목, 장소, 시간의 명사라는 자료인용의 기본요소들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4. 본 학술지는 방법론적으로 인문학지의 범주에 속하므로 언어적 설명과 해석에 초점을 둔다. 이에 투고된 논문은 글로 된 설명과 해석이 중심이 되어 한다는 원칙과 지면의 경제성이란 측면에서 설명과 해석 자체가 아니라 대상과 근거인 그림 또는 도표의 사용은 가급적 회피해야 한다. 논문의 성격상 그림 또는 도표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극도로 절제된 형태로서 1개를 초과하여 그림 또는 도표를 사용할 수 없다.

제 5 조 (필수 첨부자료) 투고자는 반드시 다음 3개의 문서를 준비하여 논문과 함께 투고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KCI논문유사도검사(10% 이내)
- 신청 및 서약서
- 저작권이양동의서

제 6 조 (논문 게재료) 논문게재료는 학술지 출판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 편집과정의

편의를 위해 전임교수는 직급에 관계없이 일괄 30만원을 부과하며 외래교수(시간강사)와 대학원생은 일괄 20만원을 부과한다. 단 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는 논문은 50만원을 부과한다. 연회비 미납자는 미납된 회비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신입회원으로 투고할 경우 2년치 연원비를 함께 납입해야 한다.

제 7 조 (투고논문의 처리와 투고회수)

1. 논문원고 제출마감은 출판 1개월 전으로 하며 제출된 원고는 반송하지 않는다.
2. 심사통과된 논문의 수가 많을 경우 응모 순에 따라 차호에 이월 게재할 수 있다.
3. 한 회원의 연간 게재논문의 수는 4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8 조 (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집에 포함된 논문은 2-3개 이상의 논찬을 첨부해야 한다.

제 9 조 (투고논문의 심사) 투고논문의 심사는 심사규정에 따른다.

<표1> 각주와 참고문헌 인용방식

1. 각주작성 방식

한글로 출간되는 학술지의 경우 각주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통일한다. 모든 논문 제목은 쌍따옴표로, 잡지나 정기간행물 이름은 외격쇠괄호 「 」로, 단행본은 쌍격쇠괄호 『 』로 묶어 표기한다. 단, 외국어 도서 제목과 간행물 제목은 모두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같은 논문이나 책을 바로 다음에 다시 인용할 경우 : *Ibid.*, 210.
- 동일저자의 논문이나 저서를 각주 한 개 이상 건너 뛰어 다시 인용할 경우: 저자, *op. cit.*, 또는 저자, 제목 표제어, 224.

1) 논문 인용의 경우

위형윤, “신학과 실천의 괴리현상 극복을 위한 실천신학적 삶의 고찰,” 『신학과 실천』 22(2010), 5-43.

Talley, Thomas J. "The Eucharist Prayer: Directions for Development." *Worship* 51(1977), 316-25.

2) 저서 인용의 경우

박근원, 『현대신학실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23-35.

John S. McClure, *The Four Codes of Preaching: Rhetorical Strategies*, (Louisville, KY: WJK, 2004), 19-46.

3) 편역서 인용의 경우

폴 킬리히/ 송기득 옮김, 『폴 킬리히의 그리스도교 사상사』 (서울: 서광사, 1998), 34.

U. Luz, *Matthew* vol. 1, tr. by James E. Crou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55.

Darrell L. Guder, ed. *Mission Church*,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46.

4) 학위논문 인용의 경우

이영주, “부모의 하나님 개념과 신앙생활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30-40.

Jung Sik Cha, “Confronting Death: The Story of Gethsemane in Mark 14:32-42 and Its Historical Legacy,” (Ph.D. diss. The University of Chicago, 1996), 55-57.

2. 참고문헌 작성법

참고문헌은 각주에서 인용된 자료에만 한하며 결론 다음에 아래와 같이 배열해야 한다.

- 1) 한글 자료를 먼저 앞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 자료를 배치한다.
- 2) 한글 자료의 경우 가, 나, 다 순으로, 외국어 자료의 경우는 A, B, C 순으로 정리한다.
- 3) 외국인 이름은 각주와 달리 성, 즉 가족명(family name/last name)을 앞에 쓰고 본 이름을 뒤에 쓰며 그 사이를 콤마로 구분한다.
- 4) 각주 표기와 달리 이름 뒤에와 저술 제목 뒤에는 콤마가 아닌 마침표로 마감한다. 책의 경우는 제목 뒤의 출판사 이름 등을 묶은 괄호를 풀어준다.
- 5) 동 저자에 의해 쓰인 저술은 복수일 경우 일곱 개의 아래 하이픈(_____)을 연속으로 그어 동명 인물임을 밝히되 최근에 쓰인 것부터 먼저 배치한다.

박근원. 『현대신학실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_____. 『오늘의 목사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위형윤, “신학과 실천의 괴리현상 극복을 위한 실천신학적 삶의 고찰,” 『신학과 실천』 22(2010), 5-43.

틸리히, 폴/ 송기득 옮김. 『폴 틸리히의 그리스도교 사상사』. 서울: 서광사, 1998.

Guder, Darrell L. ed. *Mission Church*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Harrington, Daniel J. *The Gospel of Matthew* Collegeville, MN: The Liturgical Press, 1991.

Marcus, Joel. “Entering into the Kingly Power of God.” *JBL* 107 (1988/4), 663-675.

심사규정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술지 심사규정을 정한다.

제 1 조 (심사절차)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규정심사, 전문심사, 최종심사 3단계를 최종 게재여부를 확정한다.

제 2 조 (심사위원의 구성과 수) 심사는 편집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이 하되 편집위원장은 규정심사와 최종심사에 책임을 지며 전문심사에는 간여하지 못한다. 전문심사는 학문적 수월성과 학제간 대화를 추구하는 한국실천신학회의 이념에 따라 논문 1편당 전공 2인, 비전공 1인 총 3인이 맡는다.

제 3 조 (심사위원의 자격과 선임 및 심사비) 심사위원의 자격은 연구실적과 학회참여도 및 공정한 심사를 담보할 수 있는 신뢰도에서 탁월한 학자로 편집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임한다. 논문심사자에겐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조 (투고논문의 적격성)

1. 투고논문은 한국실천신학회가 추구하는 학술적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순수한 학술적 논문이어야 한다. 한국실천신학회는 다양한 실천신학적 분야들의 독자적 연구는 물론 학제간의 대화와 융합적 연구를 지향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여하는 일을 추구한다. 투고논문은 이 같은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
2. 투고된 논문은 투고자의 고유한 연구로 타학회지에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3. 이단종파에 소속된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가부를 판정한다.

제 5 조 (심사 기준과 판정) 본 학술지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규정심사는 투고규정 준수 여부를 심사한다(편집위원장).
2. 전문심사는 전문학자 3인(전공 2인 비전공 1인)이 투고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심층심사한다.
3. 전문심사의 내용: 구성의 완성도(20점), 주제연구의 심도(20점), 학문적 독창성(20점), 학문의 기여도(20점), 등재논문인용지수(20) 및 심사자평론.
4. 합격기준: 종합점수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게재가, 79점미만은 게재불가로 평가한다.
5. 최종평가는 편집위원장이 하며 전문심사자 3인의 개별평가를 종합하여 게재여부를 최종판정한다.

제 6 조 (발행) 본 학술지는 연 5회 발간하며 1월30일에 투고 마감하여 2월28일에 봄 호 발행, 4월30일에 마감하여 5월30일에 여름 호 발행, 6월30일에 마감하여 7월30일에 외국어 호 발행, 8월30일에 마감하여 9월30일에 가을 호 발행, 10월30일에 마감하여 11월30일에 겨울 호를 발행한다.

연구윤리 관련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실천신학회 회원들의 학술활동이 오늘날 사회와 학계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연구윤리 지침(예,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부합토록 본 학회 고유의 학술활동에 맞는 연구윤리 지침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강령) 본 학회의 모든 학술적 활동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진리의 추구라는 전제 아래 특히 기독교 학술단체로서 기독교의 이념과 가치의 관점에서 거짓 없는 정직과 진실에 기초해야 한다. 정직과 진실에 기초하지 않는 학문적 주장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근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문의 자유와 창의성 역시 정직과 진실이 담보될 때만 유의미하다.

제 3 조 (실천원칙)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연구윤리 원칙을 따른다.

1. 본 학회의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투고되거나 발표되는 연구물은 본 학회의 투고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을 따라 학술사회의 교류와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하기 위해 모든 통용되는 방법에 의거 타인의 지적 기여도를 정확히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독창적 기여분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2. 본 학회의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투고되거나 발표되는 연구물을 심사하거나 평가하는 자는 본 학회의 심사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을 따라 학문적 양심과 고도의 학술적 기준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 4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지 「신학과 실천」 의 투고와 심사 및 편집발행, 본 학회의 정기 학술대회의 발표와 논찬 및 운영, 학회가 책임을 갖는 내외부 학술연

구지원비 운용에 적용된다.

제 5 조 (연구부정행위 예방책) 본 학회는 투고 및 심사 규정과 그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연구윤리가 실현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회원들이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의 아니게 연구부정을 범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1. 투고논문과 규정심사에서 KCI유사도검사 합격기준을 10% 이내로 엄격관리하고 심사위원은 표절의 의심이 있을 경우 일차적 조사를 하고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표절의심 보고를 받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증거와 투고자의 소명을 취합하여 심의판정을 내리고 정해진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투고자의 소속과 직책을 정확하게 표시함으로써 자기 연구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연구물에 대한 부정편승을 방지한다. 본 학회지는 투고자의 직위를 “교수”(전임교원)와 “외래교수”(시간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경우 소속과 이름만을 기재한다.
3. 공저의 경우 규정심사 단계에서 각 저자의 기여도를 확인함으로써 부정편승을 막는다. 특히 대학원생은 교과과정과 종합시험 등을 마쳐 학위논문을 쓸 자격을 득한 자로서 반드시 지도교수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에 투고가 가능하다. 지도교수는 자신이 공저자일 경우 자신과 학생 사이의 논문 기여분을 추천서에서 밝혀야 한다.
4.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대상자에 대한 어떤 사전정보도 심사자에게 주어져서는 안 되며 심사 후에 심사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심사대상자에게 공개되서는 안 된다.
5. 심사자와 심사대상자에 대한 사전공개를 금할지라도 더 엄격한 공정성을 위해 심사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속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상피원칙을 따른다.
6. 업무상 심사대상자와 심사자 모두에 대한 정보를 아는 편집위원장은 전문심사를 맡거나 그에 간여할 수 없으며 오직 형식심사인 규정심사와 정량심사인 최종심사에만 책임을 진다.
7. 본 학회는 편집위원장 책임 아래 정규적인 교육윤리교육을 실시하여 회원들에게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한다.
8. 본 학회는 학회 내에서 발생하는 기타 연구윤리관련 문제를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해 “연구윤리확립위원회”를 둔다.

제 6 조 (연구관련 부정행위 처리) 투고자나 발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범했다고 편집위원회의 심의결과 판정될 경우 향후 3년간 투고와 발표 등 학회의 학술활동을 제한한다.

1. 중복투고나 중복발표 및 표절이 판명된 경우. 단 이미 게재된 논문이나 출판된 학위논문의 일부를 학회가 그 가치를 인정하여 학술대회에서 발표토록 허락한 경우는 제외. 이 경우도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2. 공동연구에서의 상호분쟁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와 중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투고자와 발표자가 소속과 직위 및 논문기여도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4.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신규로 발표한 논문을 본 학회 학술지가 아닌 타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발표논문의 학술지 게재는 학술대회의 토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해야 하며 공정한 정 규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 6 조 (연구지원비관련 부정행위 관리감독) 본 학회는 연구과제 확정 및 체결에 의해 발생한 연구지원비를 운용함에 있어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립위원회를 두며 본 위원회는 아래 위반사항을 감시 감독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자에 대한 회원권을 정지하며 학술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회원의 권리를 박탈한다.

1. 지원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지원비의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
3.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해 지원 받았다고 판정되는 경우
4. 추진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5. 추진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및 표절, 등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
6. 기타 과제 책임자가 과제수행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제 7 조 (연구윤리확립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전현직 이사장과 회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8 조 (개 정) 본 규정은 연구윤리확립위원회의 3분 2이상 동의로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 9 조 (시 행) 본 규정은 총회에서 개정 2007. 10. 19일, 2014. 2. 8. 총회에서 보완, 2017. 2. 11. 총회에서 보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8년 2월 10일 회칙 통과 즉시 시행한다. 개정 2019년 2월 15일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5대 한국실천신학회 조직표

고 문

| | | | |
|------|-----|-----------|----------------|
| 고 문 | 박근원 | 박사 | 전 한신대학교 총장 |
| | 정장복 | 박사 | 한일장신대학교 총장 |
| | 김외식 | 박사 | 전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
| | 김종렬 | 박사 | 새고을기독서원 원장 |
| | 문성모 | 박사 |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
| | 백상열 | 박사 | 은진아카데미 원장 |
| 책임고문 | 위형운 | 박사 | 안양대학교 교수 |
| | 김윤규 | 박사 | 한신대학교 교수 |
| | 이요섭 | 박사 | 세종대학교 부총장 교목실장 |
| | 조기연 | 박사 |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 | 김세광 | 박사 | 서울장신대학교 교수 |
| | 나형석 | 박사 | 협성대학교 교수 |
| | 김충렬 | 박사 |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
| | 김성민 | 박사 | 협성대학교 교수 |
| | 김한옥 | 박사 |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 | 조재국 | 박사 | 연세대학교 교수 |
| 한재동 | 박사 | 나사렛대학교 교수 | |

제 10대 이사회

| | | | |
|-------|-----|----|---------------|
| 이 사 장 | 김경진 | 박사 | 소망교회 담임목사 |
| 상임이사 | 김상백 | 박사 | 순복음대학원대학교 교수 |
| 이 사 | 황병준 | 박사 | 호서대학교 교수 |
| | 한재동 | 박사 | 나사렛대학교 교수 |
| | 김병석 | 박사 | 송실대학교 외래교수 |
| | 윤성민 | 박사 | 강남대학교 교수 |
| | 김옥순 | 박사 |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
| | 김형락 | 박사 |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 | 여한구 | 박사 |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
| | 조성호 | 박사 |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 | 이종민 | 박사 | 총신대학교 교수 |
| | 이강학 | 박사 | 햇불트리니티대학원 교수 |
| | 김남식 | 박사 | 서울신학대학교 외래교수 |
| | 이승진 | 박사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

제25대 임원명단

| | | | |
|-------|-----|----|---------------|
| 회 장 | 황병준 | 박사 | 호서대학교 교수 |
| 선임부회장 | 민장배 | 박사 | 성결대학교 교수 |
| 부회장 | 서승룡 | 박사 |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
| 총 무 | 구병욱 | 박사 |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 |
| 부총무 | 박은정 | 박사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교수 |
| | 이수영 | 박사 | 서울한영대학교 교수 |
| 서 기 | 박진경 | 박사 | 감리교신학대학교 외래교수 |
| 부서기 | 주상락 | 박사 | 서울신학대학교 외래교수 |
| | 이종민 | 박사 | 총신대학교 교수 |
| 회 계 | 조지훈 | 박사 | 한세대학교 외래교수 |
| 부회계 | 김영수 | 박사 |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
| | 이민형 | 박사 | 연세대학교 외래교수 |
| 감 사 | 윤성민 | 박사 | 강남대학교 교수 |
| 감 사 | 김병석 | 박사 | 송실대학교 외래교수 |

전공학술분과 회장

| | | | |
|---------------|----|-----|----|
| 목회사회/리더십분과 | 회장 | 조성호 | 박사 |
| 설교분과 | 회장 | 이승진 | 박사 |
| 상담치료분과 | 회장 | 여한구 | 박사 |
| 영성분과 | 회장 | 이강학 | 박사 |
| 예배분과 | 회장 | 김형락 | 박사 |
|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복지 | 회장 | 김옥순 | 박사 |
| 교회성장/전도/선교분과 | 회장 | 김남식 | 박사 |
| 교회교육분과 | 회장 | 이종민 | 박사 |

신학과실천 논문편집위원회

| | |
|--------|--|
| 발행인 | 황병준 |
| 편집위원장 | 한재동 |
| 부편집위원장 | 김명실 |
| 편집위원 | 안선희, 최진봉, 김수천, 계재광, 반신환, 김옥순, 유재경 차명호, 주연수, Sangyil Sam Park(미국), Naham Kim(독일) |

특별연구분과위원회

| | | | |
|---------------------|---|-----------------|---------------|
| 국제학술분과위원장 | 이말테 | 박사 | 나사렛대학교 교수 |
| 간사 | 김선일 | 박사 | 웨스트민스터대학원 교수 |
| 학술발표분과위원장 | 문병하 | 박사 | 그리스도대학교 교수 |
| 간사 | 정재영 | 박사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
| 논문편집분과 위원장 | 한재동 | 박사 | 나사렛대학교 교수 |
| 간사 | 위성동 | 석사 | 디아콘 대표 |
| 논문자체평가 및 심사분과위원장 | 이현용 | 박사 |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
| 간사 | 한재동 | 박사 | 나사렛대학교 교수 |
| 학진등재업무추진 공동위원장 | 한재동 | 박사 | 나사렛대학교 교수 |
| | 위형윤 | 박사 | 안양대학교 교수 |
| 국제관계진흥위원회위원장 | 박상일 | 박사 | 미국 GTU 교수 |
| 간사 및 위원 | 간사 / 반신환(한남대학교 교수) 위원 / 김나함(독일 마부르크대학교 교수) 허정갑(미국 콜롬비아신학대학원 교수) | | |
| 학회발전기금조성위원회위원장 | 문성모 | 박사 /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 |
| 간사 및 위원 | 간사 / 위형윤 위원 / 김윤규(기장) 조기연(성결교) 김세광(예장통합) 이요섭(감리교) 조재국(감리교) 이명희(침례교) 박해정(감리교) | | |
| 실천신학대전 편찬위원회위원장 | 위형윤 | 박사 / 안양대학교 교수 | |
| 편집위원 | 김윤규 조기연 김세광 나형석 김충렬 김한옥 한재동 조재국 간사: 위성동 | | |
| 한국세시풍속과교회력 | 김순환 | 박사 /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

| | | |
|-------------------------|---|--------------------|
| 연구위원장 | | |
| 간 사 및 위원 | 간 사 / 류원렬 위 원 / 하도균 이승진 그 외 지원자 | |
| 한국전통혼상제및기독교 성례전연구위원장 | 조기연 | 박사 /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 간 사 및 위원 | 간 사 / 김형락 위 원 / 김형래 김명실 그 외 지원자 | |
| 한국10대성장동력교회 위원회위원장 | 조성돈 | 박사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
| 간 사 및 위원 | 간 사 / 김선일 위 원 / 위형운 김윤규 김세광 이요섭 김충렬 이명희 김한옥 정재영 최동규 | |



학제간 대화로 교회를 섬기는

한국실천신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

학회로고의 의미

- *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음을 강조하는 삼위일체 교의의 전통을 바탕으로, 통일성 속 다양성, 다양성 속 통일성을 추구하는 학회의 간학제적 정신을 담고 있다.
- * 3의 수는 삼위격의 상호관계와 실천신학의 3대 관심분야(교회, 인격, 공공사회)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다.
- * 가운데 사자 모양은 “실천”과 “신학”의 한글 첫 자음문자 ㅅ 및 헬라어 λ로 성육적 진리를 뜻하는 로고스를 나타낸다.
- * 사자가 가운데로 모아지는 것은 실천신학의 3대 관심분야들 간의 만남과 대화를 상징한다.
- * 외부의 둥근 녹색의 삼각 모양 3개는 한국 땅을 수놓아 온 산과 언덕을 나타내고, 가운데 사자의 푸른색은 한국 땅을 적시고 생명을 공급하는 하수를 나타낸다.
- *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삼위일체로 상징되는 보편적 교회의 전통과 특수한 한국적 맥락 속에서 실천신학의 다양한 영역들이 만나고 대화함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뜻을 나타낸다.
- * 로고의 상징은 "학제간 대화로 교회를 섬기는 한국실천신학회"라는 표어에 의해 보강 설명된다.

한국실천신학회 설립목적

본 학회는 전국 각 신학대학 및 각 신학교 실천신학 교수 및 실천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순수한 학문적인 연구와 인격적인 친교를 도모하며, 실천신학의 학술 정보를 교류함과 동시에 교회와 지역사회 및 국내외 신학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www.praxis.or.kr

발행일 2020년 6월 20일

충남 천안시 월봉로 48번지 나사렛대학교 지혜관 220호

TEL: 041-570-1836, 010-7936-1111(한재동)

이메일 : ipraxis@daum.net

학회은행계좌 총입출금통장 국민은행 172-601-04-154610

학술지계재비통장 신한은행 100-027-851650



학제간 대화로 교회를 심기는
한국실천신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